2014年大韩中国学会
国际学术研讨会暨定期总会

大韓中國學會

CONFUCIUS INSTITUTE AT DSU
东西大学孔子学院

한국한자연구소
Center for the Study of Chinese Characters in Korea

主辦单位：　大韩中国学会

后援单位：　东西大学孔子学院、韩国汉字研究所

日　　期：**2014.11.29.～2014.12.01.**

场　　所：韩国，釜山，东西大学 **Centum** 校区

1. 학술대회의 개최 취지와 의의

한자는 “유가”와 함께 동아시아를 규정짓는 대표 코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한자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유럽연합(EU) 등과 대응하여 동아시아 공동문화권 구상이 점차 구체화해가는 시점에서 동아시아에서 한자가 갖는 의미와 역할 및 각국의 한자사용 현황과 문제점, 한자의 활용 가능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상의 인식에 기초하여 1983 년 설립되어 400 여 명의 회원을 갖고 중국학 전반을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적 학술단체인 “대한중국학회”가 주관하고 동서대학교 공자아카데미와 한국한자연구소가 후원하는 2014 년도 대한중국학회 “한자와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자와 동아시아”라는 큰 주제 하에, (1)한자가 동아시아 근대에 미친 역할, (2)지금의 동아시아 각국의 한자사용과 문제점, (3)2013 년 한중일 삼국 30 인회(중국은 30 명사회, 일본은 30 현인회라 부름, 한국의 중앙일보, 중국의 신화사,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가 공동 제창한 “한중일 공용 808 한자”의 문제점과 극복과제, (4)한자의 산업화와 응용, (5)한중일 한자자전 DB 구축, (6)한자의 제반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술대회의 질적 담보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의 대표적 학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한자 학자뿐 아니라 디자인, 영화, 서예, 문화사업, 인류학, 사회학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자를 한자학의 시각이 아닌 타 연구 영역에서의 시각으로 논의함으로써 진정한 학문 간의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술대회는 한국에서 처음임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의미 있는 학술대회로, 동아시아라는 공동 특성의 문화권과 한자의 역할 및 한자의 산업화를 포함한 응용 범위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한자의 위상 확립은 물론 한자의 연구 방향 설정과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 주요 참가자

[1]한국

하영삼(경성대 교수, 대한중국학회 회장, 한국한자연구소 소장, 세계한자학회(WACCS) 상임이사)

김영기(동서대 교수, 동서대 공자아카데미 한국측 원장)

전광진(성균관대 교수, 인문대학 학장)

김재명(경성대 교수, 전 디지털디자인대학원장, 전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곽노봉(동방예술대학원대학 교수, 한국서예학회 회장)

고인덕(연세대 인문연구소 연구원)

송병렬(동서대 영화학과 교수, 영화감독)

박기철(경성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경원(한양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2]중국

臧克和(중국 화동사범대학교 교수, 중국문자연구와 응용센터 주임)

李銘起(산동대학 교수, 동서대학 공자아카데미 중국측 원장)

傅根淸(중국해양대학 문학&신문 전파학원 교수)

王平(중국 화동사범대학교 교수, 중국문자연구와 응용센터)

朱岐祥(대만 동해대 중문과 교수, 세계한자학회 대만 회장)

[3]일본

山元宣宏 (Nobuhiro YAMAMOTO)(미야자키宮崎大學 교수, 세계한자학회 일본 이사)

出野文莉(京都大學國際高等教育院 교수)

[4]미국

L.Pfister(USA, Hongkong Babtist Univ., 종교철학과 교수, 종교비교철학연구소 소장**)**

[5]베트남

丁克順(국립 한자쯔놈연구원 부원장, 세계한자학회 베트남 회장)

1. 开办学术研讨会的目的和意义

汉字像“儒家”一样，是东亚的象征性编码之一。所以要彻底了解东亚，就需要对“汉字”的了解。尤其在欧盟等区域势力崛起的时代，“东亚共同文化圈”的构想逐渐得意实现，我们深切感觉到此时应该探讨和分析汉字的意义和角色、东亚各国汉字使用的现状和问题、汉字的活用等诸多问题。

基于此，我们要开办一次由“大韩中国学会”主办，由东西大学校孔子学院协力，由韩国汉字研究所合作的2014年大韩中国学会题为“汉字和东亚”的国际学术研讨会。“大韩中国学会”1983年创办，目前拥有400余名会员，研究“中国学”的韩国核心学术研究会。

此次国际学术研讨会的主题为“汉字和东亚”，主要讨论如下几点：

一、汉字对东亚近代历史的影响

二、目前东亚各国汉字使用现状和问题

三、2013年韩中日三国30人会(韩国中央日报、中国新华社、日本读卖新闻主导的沙龙，中文名为“30名士会”，日本名为“30贤人会”)共同提倡的韩中日公用808汉字的遗留问题和解决方案。

四、汉字的工业化和应用

五、建立韩中日汉字字典字库

六、其他有关“汉字”的问题

此次研讨会，韩国、中国、日本、美国、越南、台湾、香港的著名学者参与。 此外，除了钻研汉字的学者意外，设计、电影、书法、文化产业领域、人类学、社会学的人士参加会议，围绕“汉字”汉字学者和非汉字学者共同探讨“汉字”问题，使得讨论更加活跃，可以实现跨学问的研究，这符合真正意义上的“融合”研究。

如此的研讨会，在韩国第一次开办，中国和日本也尚未开办，意义深长。我们将共同探讨东亚共同文化圈、汉字的角色、汉字的工业化及其应用。深信如此的研讨会将唤起汉字的重要性，扩大汉字研究的领域，有助于汉字研究的发展。

2. 主要参与学者

一、韩国

河永三(庆星大学教授、大韩中国学会会长、韩国汉字研究所所长、世界汉字学会(WACCS)常任理事)

金榮奇(东西大学教授、东西大学孔子学院韩方院长)

全广镇(成均馆大学教授、成均馆大学人文学院院长)

金載明(庆星大学教授、前任数字设计研究生院院长、釜山设计中心院长)

郭魯鳳(东方艺术大学院大学教授、韩国书艺学会会长)

高仁德(延世大学人文研究院研究员)

宋镇烈(东西大学电影系教授兼电影导演)

李景远（汉阳大学中国文化系教授）

二、中国

臧克和(中国华东师范大学教授、中国文字研究和应用中心主任)

李铭起(上东大学教授、东西大学孔子学院中方院长)

傅根清(中国海洋大学文学与新闻传播学院教授)

王平((中国华东师范大学教授、中国文字研究和应用中心)

朱岐祥(台湾东海大学中文系教授、世界汉字学会台湾会长)

三、日本

山元宣宏 (Nobuhiro YAMAMOTO)(宫崎大学教授、世界汉字学会日本理事)

出野文莉(京都大學國際高等教育院教授)

四、美国

L. Pfister(USA, Hongkong Babtist Univ., 宗教哲学系教授、宗教比较哲学研究所所长)

五、越南

丁克顺(国立汉喃研究院院长、世界汉字学会越南会长)

◀日程表▶

- **11月 28日(周五) 海外学者報到(庆星大学)**

- **11月 29日(周六) 学术研讨会**

  地點 ： 韩国东西大学Centum校区

第1部 主旨演讲

日期(11月29日)		發言題目及內容	主持人	場所
第1部	10:00~10:20	**開幕典禮** ·河永三(Korea: 慶星大學/大韩中国学会会长) … 開幕宣佈 ·张济国(Korea: 东西大学校长) … 欢迎致辞 ·臧克和(China: 华东师大中国文字研究与应用中心主任) … 外宾致辞	陈贤 (慶星大)	609号
	10:20~11:50	**基調演講** · L.Pfister(USA: Hongkong Babtist Univ. 教授) … Questioning the Modern Emergence of "Zōngjiào" 宗教 and "Zhéxué" 哲學 in Modern Chinese Language and Cultures · 傅根清(China: 中国海洋大学文学与新闻传播学院教授) … 汉字，东亚文化圈共同的创意宝藏 · 金载明(庆星大学教授、前任数字设计研究生院院长) … Design Story		
	12:00~13:00	午餐		

第2部 主旨演讲

日期(11月29日)		發言題目及內容	主持人	場所
第2部	13:00~14:15	· 全广镇(成均馆大学教授) … 漢字教育與诺贝尔科学奖 · 王平(China: 华东师大教授) … 东亚文化圈汉字字典文献的整理与研究 · 朱岐祥(China: 东海大学) … 論繁體字和簡化字的縱綫關係 · 丁克顺(Vetnam: 国立汉喃研究院副院长) … 越南漢字使用歷史與狀況 · 山元宣宏(Japan: 宫崎大学教授) … 日本的公用漢字和其爭論點	李景远 (汉阳大)	609号
	14:15~14:40	听众综合讨论		

第3部 主旨演讲

日期(11月29日)		發言題目及內容	主持人	場所
第3部	14:50~16:20	· 臧克和(China: 华东师范大学教授) … 学人与书艺 · 郭鲁凤(东方艺术大学院大学教授) … 汉字和书艺 · 高仁德(延世大学HK教授) … 汉字和政治权力 · 宋鎮烈(东西大学教授) … 汉字和电影: Peter Greenaway《Pillow Book》的“肉体的书” · 出野文莉(Japan: 京都大學國際高等教育院教授) … “文”字的民俗學方面字源考 · 朴基哲(庆星大学广告系教授) … 汉字與e-ducation?	李琮敏 (庆星大)	609号
	16:20~16:40	听众综合讨论		

第4部 分组讨论 –①汉字学的诸多问题

日期(11月29日)		發言題目及內容	主持人	場所
第4部	16:50~17:50	· 发言：郑元皓(东义科学大学教授) 讨论：崔洛民韩国海洋大学教授） … 朝鲜时代韩中外交所使用的汉字活用范围考察 · 发言：金正必(庆尚大学中文系教授)、安承雄(东义大学中文系教授) 讨论：李昌珉(韩国汉字研究所研究员) … 利用“文史哲”的汉字教育方案初探 · 发言：金世焕(釜山大学中文系教授) 讨论：金昌庆釜庆大学国际地域学部教授） … 从许棌和李雨燮诗作看现代韩国汉诗的现状 · 发言：文秀贞(首尔大学中文系讲师) 讨论：金亿燮(韩国汉字研究所研究教授) … 段玉裁的“假借字”划分与其特征	姜鲸求 (东义大)	601号

第4部 分组讨论 –②建立“东亚汉字字典字库”

日期(11月29日)		發言題目及內容	主持人	場所
第4部	16:50~17:40	· 发言：罗度垣(庆星大学韩国汉字研究所研究教授) … 韩国字典的汉字收用和整理 · 发言：金铃敬(庆星大学韩国汉字研究所研究教授) … 利用“文史哲”的汉字教育方案初探 · 发言：金民成(庆星大学韩国汉字研究所研究员) … 刘汉翼《字林补注》古文研究 · 发言：肖潇(中国北华大学中文系教授) … 從《才物譜》看漢文化對朝鮮半島的影響 · 发言：姜到演(汉字教育振兴会釜山本部长) … 汉字资格考试的现状与展望	李哲理 (庆南大)	602号
	17:40~17:50	听众综合讨论		

第4部 分组讨论 –③东亚政治和经济

日期(11月29日)		發言題目及內容	主持人	場所
第4部	14:50~17:50	· 发言：서석흥(釜庆大学) 讨论：이중희(釜庆大学) 김경환(釜山大学) … 中国农地流通改革 · 发言：민장환(东西大学) 讨论：윤성민(新罗大学), 김동하(釜山外国语大学) … 中国民间借贷研究 · 发言：장정재(釜山发展研究院) 讨论：곽복선(庆星大学中国学院) 손성문(庆南科技大学) … 关于中国上海FTZ发展趋向和展望的研究 · 发言：서창배(釜庆大学) 讨论：이정표(釜山大学) 김형근(新罗大学) … 中国官僚腐败类型和习近平政府反腐败政策	金东河 (釜山外大)	603号

第5部 总会和闭幕

日期(11月29日)		內容	主持人	場所
第5部	17:50~18:20	• 总会和闭幕会 • 首届“大韩中国学会学术奖”颁奖典礼 • 下任会长选举	陈贤 (慶星大)	609号
	19:20~21:20	• 晚餐（THE PARK：www.thepark1st.com）		

11 月 30 日(周天) • 文化考察(庆州)

12 月 01 日(周一) • 离会

聯繫地址、方式：
608-736 大韓民國 釜山廣域市 南區 水營路 **309**(大淵洞)
慶星大學校 **12** 號樓 **323** 室(大韩中国学会)
電話：**+82-51-663-4360**
E-mail: jinhyunkr@ks.ac.kr

<u>오시는 길</u>(동서대 센텀산업단지캠퍼스 임권택영화예술대학)

동서대학은 냉정 캠퍼스와 센텀산업단지캠퍼스 두 곳이 있습니다.
학술대회 장소는 센텀산업단지캠퍼스입니다.
부산광역시 지하철 2 호선 센텀시티역 하차, 6 번출구

구체적인 해운대 센텀산업단지캠퍼스 안내도

2013년 대한중국학회
추계 학술 발표회 및 정기총회

일시 : 2013년 10월 26일(토) 13:00 ~17:30
장소 : 경성대학교 27호관 프레젠테이션홀

제1부 개회식

(13:30 ~ 14:00)

개회식 - 27호관 프레젠테이션홀(7층) **사회 : 김혜진 (경남대)**

◆ 등 록 : 13:00 ~ 13:30
◆ 개회사 : 이철리 (대한중국학회 회장)
◆ 환영사 : 이재하 (경성대학교 중국대학장)

제2부 분과별 발표 및 토론

(14:00 ~ 17:00)

중국 어학 분과 - 27호관 1102호 **사회 : 이길연 (창신대)**

◆발표 ① **파스파문자와 한글의 음소결합적 특징 연구 — 母音字母 중심으로**
— 왕옥지 (동명대)
약 정 토 론 — 진광호 (부산외대)

◆발표 ② **A Study o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of Chinese Language Learners —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 여정화 (경성대)
약 정 토 론 — 정성임 (신라대)

◆발표 ③ **중국어 교육요목 간의 비연계성 문제에 대한 고찰**
— 심지언 (부산외대)
약 정 토 론 — 위수광 (창신대)

◆발표 ④ **객관적 확보장치 - "一量名 주어문"**
— 박은미 (부산대)
약 정 토 론 — 김영찬 (동의대) / 양춘기 (부산외대)

중국 고전문학 분과 - 27호관 1103호 **사회 : 김진영 (부산외대)**

◆발표 ① **"退溪 詩에 끼친 중국 古典詩의 영향"**
— 정원호 (동의과학대)
약 정 토 론 — 최형록 (부산대)

◆발표 ② **西湖与南楼 : 清代闺秀诗意栖居的理想之境**
— 宋清秀 (숙명여대/浙江师范大学)
약 정 토 론 - 이경민 (동아대)

◆발표 ③ **<<세설신어>>에 나타난 펜덤 문화**
— 박경희(숙명여대)
약 정 토 론 — 최세윤 (고신대)

중국 현대문학 분과 - 27호관 1104호 **사회 : 김용운 (동아대)**

◆발표 ① **량치차오 음빙실자유서의 사상세계**
— 강중기 (서울대)
약 정 토 론 — 임형석 (경성대)

◆발표 ② **중국모델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안이 되고 있는가 — 왕후이의 충칭사건 비판을 중심으로**
— 이종민 (경성대)
약 정 토 론 — 원동욱 (동아대)

◆발표 ③ **魯迅의 新詩에 對한 硏究**
— 이주민 (세명대)
약 정 토 론 — 서광덕 (한림대)

◆발표 ④ **영화 <劉三姐> 연구**
— 한상덕 (경상대)
약 정 토 론 — 오창화 (경성대)

중국 사회과학 분과 - 27호관 1105호 **사회 : 김창경 (부경대)**

◆발표 ① **한-중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 안영철 (부산대)
약 정 토 론 — 서석흥 (부경대) / 서창배 (부경대)

◆발표 ② **중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절사유에 관한 연구**
- 공서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 신지연 (부산대)
약 정 토 론 — 차경자 (한국해양대)

◆발표 ③ **국내 쇼핑센터 중문홈페이지 현황과 효율적 마케팅 전략**
-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을 중심으로
— 장지혜 (경성대)
약 정 토 론 — 이중희 (부경대)

◆발표 ④ **중국 골프산업시장 현황과 중국인 골프관광객 유치 방안**
— 서창배 (부경대)
약 정 토 론 — 김명석 (위덕대) / 김형근 (신라대)

◆발표 ⑤ **중국 집단시위 비확산 원인과 양보전략**
— 김진용 (고려대)
- 김창경 (부경대) / 예동근 (부경대)

한중일 고대자전 DB구축과 비교연구 특별 분과 - 27호관 1106호 **사회 : 진현 (경성대)**

◆발표 ① **中日韓古代字典編纂述語體系比較研究**
— 王平 (부산대/上海華東師範大學)

◆발표 ② **關於日本漢字古辭典的研究彙報**
— 海村惟一 (福岡國際大學)

◆발표 ③ **『字典釋要』俗字考**
— 나도원 (한국한자연구소)

◆발표 ④ **<新撰字鏡> 註釋 體例研究 -古今字를 중심으로**
— 김영경 (한국한자연구소)

◆발표 ⑤ **『字類註釋』天文類 '하늘' 異字同釋의 변별적 의미 분석**
— 곽현숙 (한국한자연구소)

◆발표 ⑥ **『才物譜』引書考釋**
— 肖瀟 (경남대/北華大學)

종 합 토 론

제3부 정기총회

(17:00 ~ 17:30)

정기총회 및 폐회식 - 27호관 프레젠테이션홀(7층) **사회 : 김혜진 (경남대)**

◆ 정기총회
◆ 폐회사: 이철리 (대한중국학회 회장)

[오시는 길]

남해고속도로 진입시
동서고가도로
황령산터널
대연램프
도시고속도로
도원 카프리지 주유소
경부고속도로 진입시
경성대학교
KBS방송국
서면
수영, 해운대
대남R
용호동
광안대교

[캠퍼스 안내도]

⇒⇒⇒
↗↗
정문
27호관
1호관(한성관)
2호관(자연관)
3호관(예술관)
4호관(상학관)
5호관(사회관)
6호관(인문관)
7호관(공학관)
8호관(제2공학관)
9호관(과학관)
10 신학관(구관)
11 신학관(신관)
12 12호관(멀티미디어관)
13 22호관(문화관)
14 23호관(제1학생회관)
15 24호관(제2학생회관)
16 27호관(중앙도서관)
17 26호관(멀티미디어정보관)
18 26호관(별관)
19 25호관(용무관)
20 주차빌딩
21 누리생활관(기숙사)
운동장
테니스장
정문(차량통제소)
서문
동문
북문

파스파문자와 한글의 음소 결합적 특성 연구*

- 母音字母 중심으로 -

왕 옥 지**

목 차

1. 머리말
2. 母音의 음소결합방식, 그리고 異와 同
3. 맺음말

1. 머리말

<파스파문자와 한글의 음소 결합적 특성 연구 · 子音字母>에서 파스파문자와 파스파문자로 병음 한 운서 ≪蒙古字韻≫에 관한 연구현황 및 파스파문자와 訓民正音과의 創製動機와 過程, 頒布·起源 등 제반 상황의 異와 同 등 관계를 종합적으로 再 糾明하였고, 파스파 字母를 귀납한 후, 파스파문자와 한글의 造字特徵 및 子音字母의 音素結合的 特徵 및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고에서는 兩 文字의 母音字母의 음소 결합적 특징과 관계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파스파 자모의 音價는 필자가 ≪蒙古字韻硏究≫에서 추정된 音價를 기준으로 한다.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012A034)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Tongmyo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2012)
** 동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부교수.

2. 母音의 음소결합방식, 그리고 異와 同

≪蒙古字韻≫의 파스파 字形問題와 構造上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推定된 主要母音, 즉 基本母音 字母는「 ᠠ ·ᠣ· ᠤ ·ᠥ· ᠦ 」(i·u·ε·o·e)등 5개이다. 주요 모음자모와 자음자모 및 書寫符號 등의 運用方式에 의거하여 또 ① ᠦ(ï) 와 ᠤ (-w-) 2개의 介音字母, ② 二庚韻(/-xiŋ/) 三陽韻(/-xaŋ/)·四支韻(/-xi/)·六佳韻(/-xij/)·七眞韻(/-xin/)·十一尤韻(/-xiɯ/)·十三侵韻(/-xim/) 등 7개의 開口韻頭에 匣母 ‘ᠬ’字母를 붙이며, ≪蒙古字韻≫어음체계에 規則的으로 분포되어 있는 冠x韻母인 ᠬ(-x-), ③표기하지 않고, 零形式 韻母로 表示하는 母音 a[3], ④ ᠭ/-(a)ŋ/·ᠨ/-(a)n/·ᠩ/-(a)ɯ/· ᠮ /-m/·ᠸ/-j/ 등 자음자모의 母音機能으로서의 韻尾使用, ⑤ 音素의 連結符號인 ‘—’와 ‘ᠯ’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파스파문자에 사용된 모음의 음소는 다음과 같다.

기본 파스파모음자모	ᠠ /i/·ᠣ /u/·ᠤ /ε, -w-/·ᠥ/o/·ᠦ /e, -ï-/
母音機能의 파스파자음자모	ᠬ/-x-/: 개음에 사용
	ᠭ/-(a)ŋ/·ᠨ/-(a)n/·ᠩ/-(aɯ)/· ᠮ /-m/·ᠸ /-j/: 운미에 사용
모음의 零形式 표기	/a/
음소연결부호	字頭符 ‘—’· 上下連結符 ‘ᠯ’

3) 韻書인 《蒙古字韻》이나 字書인 《百家姓蒙古字》 및 기타 파스파자 표음에 있어 흔히 母音 a를 파스파자로 표시하지 않고, 韻母의 書寫單位가 零形式으로 나타낸다. ≪蒙古字韻≫의 母音 a의 分布狀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홀로 쓰인 子音字母 뒤에 오는 零形式은 곧 a 모음인 것이다. 일본 關西大學 東西學術硏究所刊 ≪影印本大英博物館藏舊抄本 ≪蒙古字韻≫ 二卷을 근거로 하여 飜印한 ≪蒙古字韻≫影印本에는 이 부분을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楊耐思·照那斯圖의 ≪蒙古字韻校本≫에서는 이 부분을 補闕하고 있다. 補二 (下三十一a)·補三 (下三十一b)·補四 (下三十二a)·補五 (下三十二b)에는 다음 24개의 音을 補充해 놓고 있다.

≪蒙古字韻·字母表≫에는「 ᠠ · ᠣ · ᠤ · ᠥ」등 파스파 주요모음자모에 대하여 「ᠢ · ᠡ · ᠦ · ᠤ」등 파스파 자형을 수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파스파 주요모음자모의 자형은 어음체계에서는 출현하지 않는다. 이는 파스파 자음자모, 즉 聲母의 有無에 따라 자형이 2개를 이룰 수 있다. 성모가 있을 경우 자형은 「 ᠠ · ᠣ · ᠤ · ᠥ」이고, 없을 경우 字頭符 '—'과 上下連結符 'ㅣ' 서사방식을 가하여 자형은 「ᠢ · ᠡ · ᠦ · ᠤ」이 된다. 주요 모음자모인 'ᠢ/i/'는 또 자음자모인 ᠨ/-(a)n/과 그 자형이 일치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많지만, 어음체계에서는 주요모음인 /i/의 파스파자모는 모두 ' ᠠ '자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한글의 모음은 '하늘 天'·'땅 地'·'사람 人'을 상형하여 만들어진 中聲字 '·(天)'·'ㅡ(地)'·'ㅣ(人)' 등 3개의 象形字를 합성하여 初出字ㅗ, ㅏ,ㅜ, ㅓ와 再出字ㅛ, ㅑ, ㅠ, ㅕ 등이 만들어져, 무릇 中聲基本字는 모두 ·, ㅡ, ㅣ,ㅗ, ㅏ,ㅜ, ㅓ,ㅛ, ㅑ,ㅠ, ㅕ 등 11개이며, 초출자와 재출자가 다시 각각 합용한다. 그리고 ㄱ·ㅋ·ㅇ·ㄷ·ㅌ·ㄴ·ㅂ·ㅍ·ㅁ·ㅈ·ㅊ·ㅅ·ㅎ·ㄹ 등 初聲字를 終聲字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파스파자모와 한글의 모음관계에 있어 字形이든 造字原理든 그 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들 뿐 아니라,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한다.

그러나 照那斯圖는 ·, ㅡ, ㅣ 등 상형자의 기원을 아래와 같이 파스파자와 연관시켰다.

> '·'는 파스파자 'ᠬ'에서 변화한 영성모 부호인 'ㅇ'의 변체이다. 'ᠬ'자의 좌측하단에 원래의 비워있는 부분을 채워서 감축시켜 만들어졌다. ..... 'ㅡ', 이 자모는 파스파자의 'ᠣ /u/'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训民正音은 파스파자의 곡선 필획을 직선 필획으로 바꾸고, 일부분을 취했다(아마도 머리 부분의 일부이다)..... 'ㅣ', 이 자모는 파스파자의 ' ᠠ /i/'와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다. 训民正音은 파스파자의 곡선 필획을 직선 필획으로 바꾸고, 또 세워서 일부분을 취했다. (아마도 우측의 일부분의 일부이다.)....., 훈민정음의 'ㅡ'과 'ㅣ'은 파스파자 'ᠣ'과 ' ᠠ ' 사이에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으며, 그것들은 자형결구에 있어 서로 대립되는 의존적인 변증관계가 있다. (·, 是由八思巴字ᠬ变来的零声母符号ㅇ的变体. 将原来的空心改为实心减缩而成. ..... ㅡ, 这个字母可以与八思巴字的 ᠣ [u]相联系. 训民正音把八思巴字的弧形笔划改为直线笔划, 并取了它一截(当为顶部一截)..... ㅣ, 这个字母可以与八思巴字的 ᠠ [i]相联系. 训民正音把八思巴字的弧形笔划改为直线笔划, 并直立取其一截(当为右部一截)....., 训民正音的 ㅡ和ㅣ与八思巴字

的 ꡁ 和 ꡂ 之间还有一个共同特徵, 它们在字形结构上具有相互对立依存的辨证关系.)[4]

照那斯圖의 ·, ㅡ, ㅣ와 ꡁ ꡂ 에 대한 관계설명 역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ㅡㅣ와 ꡁ ꡂ 간의 대립 의존적 변증관계가 있다"는 말 역시 象形地와 象形人이란 중성한글 제자원리에 어긋난다. 사실 'ㅡ'와 'ㅣ'의 자형은 파스파 音素連結符號인 '—'·'ˈ'와 일치한다. 그러나 파스파자 표기에서 사용되는 '—'와 'ˈ'는 단지 음소를 연결시켜 주는 '부호역할'을 할 뿐이며 일종의 파스파자모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글자의 의미를 갖는 中聲한글 ㅡㅣ 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그밖에 造字原則의 하나인 '書寫法'에 있어서도 파스파자와 한글은 그 연계성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각자의 書寫原則과 方式을 지니고 있다.

1. 파스파자의 書寫方式은 '上下書寫法'으로만 이루어지며, 上下連結符 'ˈ'를 사용하여 음소를 결합시키는데 주로 우측으로 연결되지만 간혹 중앙에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파스파자모에는 영성모 자모가 있어, 어음체계에서는 자두부 '—'를 사용된 서사방식은 드물다.

(十-蕭韻 /-weŋ/) (五魚韻 /-ïu/)

(九先韻 /-ï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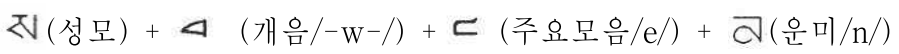
한글은 上下·左右·상과 하(좌우)·상(좌우)과 하, 상(좌우)과 하(좌우) 등 복잡하고 다양한 서사방식을 취하고 있다.

2. 파스파자의 音素 結合方式은 一合 혹은 二合 혹은 三合 혹은 四合, 최대 네 개의 파스파자 음소로 결되며, '子音+介音+主要母音+韻尾' 즉, 漢語拼音字母의 병음방식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先'자의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先 x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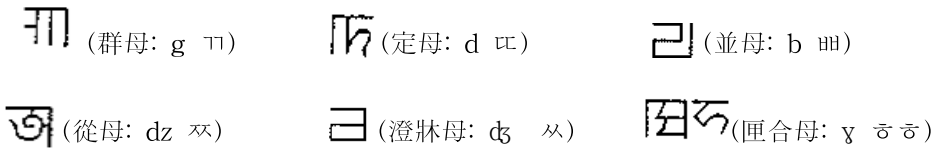
---

4) 《훈민정음(訓民正音)과 파스파문자(八思巴文字) 국제학술 workshop》발표논문집 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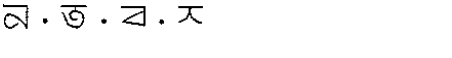


반면 한글은 上下 二合, 左右 二合, 상+하(二合)=三合, 상(二合)+하= 三合, 상(二合)+하(二合)=四合 등의 書寫方式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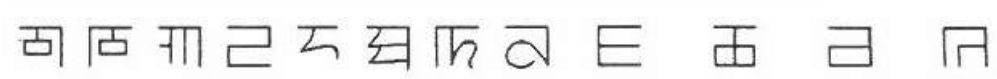
3. 한글의 子音에는 全濁音을 나타낸 복합글자인 ㄲ・ㄸ・ㅃ・ㅉ・ㅆ・ㅎㅎ(훈민정음)은 '各字竝書方式'을 취하였다. 파스파자모에도 전탁음의 자음자모가 있으나 한글처럼 중복 출현되는 서사방식을 취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파스파자로 표기하고 있다.



4. 파스파 운미자모에 있어서는 母音機能을 갖는 자음자모는 단 /-(a)ŋ/・ /-(a)n/・ /-(aɱ)/・ /-m/・ /-j/ 등 5개에 불과하지만, 한글은 ㄱ・ㅋ・ㅇ・ㄷ・ㅌ・ㄴ・ㅂ・ㅍ・ㅁ・ㅈ・ㅊ・ㅅ・ㅎ・ㄹ 등 대부분의 자음자모가 모두 모음기능을 가지며 韻尾에 사용된다. 또한 한글에서는 下(二合)에는 2개의 자음을 竝書하는 서사방식이 많으나, 파스파문자에는 이러한 서사방식이 전혀 출현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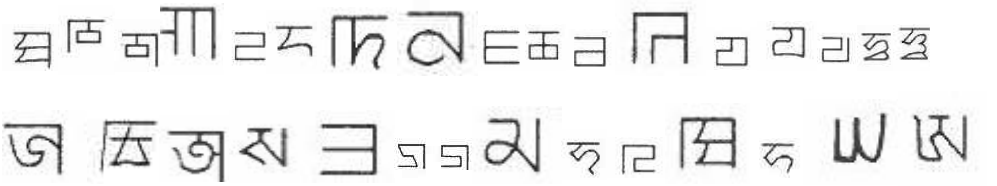


見 溪 群 疑 端 透 定 泥 知照 徹穿 澄牀 娘



幫 滂 並 明 非奉 敷 微 精 清 從 心 邪 審 禪

曉 匣 影 喻 來 日 歸喻母



『E · ㎡ · ㎥ · ㎦ · ㎧』(tʃ · k · ʃ · -ï · γ)

『৩ · ৪ · ৭ · ৮』(u · ɛ · i · e)　　『ㄹ · ㄴ · 匠』(ŋ · n · w)

ㄴ(i)　৭(i)　『৪』(w)　ㄴ(n)　ㅈ(o)　ㅅ　ㅊ(u)　৩　ㅁ(-ïam)

ㅅ

ㄴ · ㅊ · ㅈ　　৭ · ৩ · ㅅ

৭ ৩ ৪ ㅅ ㄷ

참고문헌

照那斯圖, 楊耐思, ≪朱氏蒙古字韻校本≫, 民族出版社, 北京, 1979.
羅常培, 蔡美彪 合編, ≪八思巴字與元代漢語≫, 科學出版社, 北京, 1959.
≪事林廣記蒙古字百家姓≫, 北京大學圖書館 藏書, 元順帝 至元6年鄭氏積誠堂刊本.
≪事林廣記蒙古字百家姓≫, 中國科學院圖書館藏書, 日本 元祿12年 刊本.
宋濂 等 撰, 《元史》, 中華書局, 北京, 1997????.(二十四史, 全二十冊???)
《四庫全書總目提要》, 藝文印書館, 臺北
《原本老乞大・朴通事・小學諺解・四聲通解》, 大提閣, 서울, 1985.
姜信沆≪訓民正音硏究≫增補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1년
金錫煥≪훈민정음연구≫, 한신문화사, 1997년
曺吉銖<훈민정음은 히브리문자를 모방했다>, 신동아, 1997년
申採湜 저,《東洋史槪論》(서울: 삼영사, 1993)
정광,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 도서출판 역락, 서울, 2012, 9.
李覲洙, ≪訓民正音新硏究≫, 보고사, 서울, 1995년
전정례・김형주 지음, ≪훈민정음과 문자론≫, 도서출판 역락, 서울, 2002
나찬연, ≪훈민정음의 이해≫, 도서출판 원인, 서울, 2012
왕옥지, ≪蒙古字韻硏究≫(박사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1997, 8.
왕옥지, <八思巴 母音字母의 문제점 및 書寫方式>. 교육이론과 실천, 제9권(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11
왕옥지, <论八思巴文字对中韩两国的价值>, (중국) 中國音韻學硏究會第??屆學術討論會暨漢語音韻學第十一屆國際學術硏討會", 中國音韻學硏究會, 中國 徐州, 2000. 8.
왕옥지, 19. 元이후 ≪蒙古字韻≫・≪古今韻會擧要≫의 韓中 音韻學的 價値硏究, 중국학논총 제22집(한국중국문화학회). 2006. 12
왕옥지, 元代 八思巴字의 正統性 考察, 중국문화연구 제9집(중국문화연구학회), 2006. 12
왕옥지. 中國의 表音文字에 대한 深層考察,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42집, 2012, 8

<발표문>
정광, <蒙古字韻의 八思巴 문자와 訓民正音>, 제2차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2008 '한글' 국제학술토론회, 중국 북경중앙민족대학, 조선학 연구중심 주

최, 2008. 10. 25-26)

《훈민정음(訓民正音)과 파스파문자(八思巴文字) 국제학술 workshop》,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강당 2층 세미나실, 2008. 11. 18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of Chinese Language Learners
-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여 정 화[1)]

The observations of gender-related linguistic differences and social differences between the genders can help learners see how closely language and social variation are related. Learning motivation is an intrinsic force and mechanism for maintaining and improving students to learn Chinese. The primary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students' motivation for learning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This research shows that female students have stronger motivation than male students. Finally, the author offers some suggestions based on results.

Key words: learning motivation, gender, Chinese language, Korean students, the second language.

Questionnaire: What's your motivation for learning Chinese language?

Motivation is recognized as playing a critical role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body of research on L2 motivation is vast. (e.g., Crookes & Schmidt, 1991; D¨ornyei, 2001a; Oxford & Shearin, 1994; Spolsky, 2000)

1) 경성대학교 중국대학 조교수

Motivation comes from a Latin word *movere*, which means *to move*. Nelson and Quick (2003, p.120) noted that "motivation is the process of arousing and sustaining goal-directed behavior." Williams and Burden (1997, p.151) announced "motivation may be constructed as a state of cognitive and emotional arousal, which leads to a conscious decision to act, and which gives rise to a period of sustained intellectual and/or physical effort in order to attain a previously set goal (or goals)." Human motivation comprises three components, *need for achievement*, *need for power*, and *need for affiliation* (McClelland, 1961). Nelson and Quick (2003b, p.149) have defined the *need for achievement* as "concerns issues of excellence, competition, challenging goals, persistence, and overcoming difficulties." Robbins (2003, p.162) determined *need for power* as "the need to make others behave in a way that they would not have behaved otherwise." Among all the factors affecting the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accounts for 33%. Furthermore, motiv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affective factors influencing Chinese learning which can be conceptualized as a continuum from low to high self-determination.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language is an important part of sociolinguistics, in which gender has been studied as a factor of variation. Across 70 countries, women have shown a preference for intimacy, compassion, and nurturance of other people whereas men prioritize values linked to power, novelty seeking, hedonism, and achievement. (Schwartz and Rubel, 2005, p.1010-1028) Gender is another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 theoretically relevant to understanding motivation. There is evidence that women, compared to men, have a greater need for affiliation and are more willing to openly express emotions.

The present study will examine gender-based differences in motivation.

We will make a quantitative analysis to investigate and discuss the gender differences in language motivation found in questionnaire carried out with Korean students learning Chinese as L2 in KyungSung University.

The results have shown that female students have stronger motivation than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tend to show greater integrative motivation using a wider range of learning strategies ; to show more comprehensive learning motivation and positive attitude in language learning ; to show higher interest in both Chinese language and Chinese culture. To shed light o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 questions about L2 motivation are worthy of empirical investigation.

Research Questions

Building on these conceptual framework, I carried out a study to answer these questions:

1. Whether female and male students differ in the language learning motivations (College of Chinese Studies, KyungSung University, Korea)?
2. In which motivations do female students and male students differ most?

Method

Participations

A total of 74 students (45 females and 29 ma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enrolled in College of Chinese Studies at KyungSung University. The age for the total participations ranged from 19 to 24. There was a relatively even distribution of students from Year 1-3 (Year 1, 48.6%; Year 2, 35.1%; Year

3, 16.2%). The survey data were gathered over 2 weeks near the end of the semester. I chose this time because it was late enough in the semester that participants would have had substantial experience in learning Chinese language.

Table 1. Information of Participants

Groups	Number	Average age (years)	Grade		
			1	2	3
Male	29	22	15	10	4
Female	45	20	21	16	8

Instrument and procedures

This questionnaire were measured by a simple paper-and-pencil survey to assess motivations in L2 acquisition. To capture demographic information, we asked questions on name, age, gender, department. In an attempt to provide answers to the preceding research questions, a questionnaire o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s was given to all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 the first two weeks of June 2013. The subject of this questionnaire is that: *What's your motivation for learning Chinese language?*

The questionnaire, translated from English to Korean, was subsequently administered by teacher to students in their classrooms. Students were given 10 minutes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during class time, afterwards being told that the results of this task would have no influence on their marks. Participants were also asked to indicate, with regard to their structured activity, the amount of perceived parental support measured on only two statements *Agree* and *Disagree*, to which participants in the

current study responded.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assess various motivational items such as *Integrativeness*, *Instrumentality*, *Interest in media & Culture*, and *Attitudes toward Chinese*, and *Chinese is a required cours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udents' motivation according to gender.

Result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was concerned with *whether female and male students differ in the language learning motivations*. The type of motivation that students perceived was the most important influence on their involvement. <Table 1> belows shows the statistic analysis of students' motivation frequency.

Table 2. Statistic Analysis of Students' Motivation Frequency

Motivation	Statistic / Options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Integrativeness	Number	43	22
	Percent (%)	95.6%	75.9%
Instrumentality	Number	40	25
	Percent (%)	89%	86.2%
Interest in media & culture	Number	41	7
	Percent (%)	91%	24%
Attitudes toward Chinese	Number	38	12
	Percent (%)	84%	41.4%
Chinese is a required course	Number	45	27
	Percent (%)	100%	84%
Total		45 (100%)	29 (100%)

As can be seen from <Table 2>, it can be inferr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motivation between female students and male students. As results of the test applied to these figures, the following values are given: (1) Motivation for *Integrativeness*: female students, 95.6%; male students, 75.9%. (2) Motivation for *Instrumentality*: female students, 89%; male students, 86.2%. (3) Motivation for *Interest in media & culture*: female students, 91%; male students, 24%. (4) Motivation for *Attitudes toward Chinese*: female students, 84%; male students, 41.4%. (5) Motivation for *Chinese is a required course*: female students, 100%; male students, 84%. This analyse shows that female students have stronger motivation than male students.

As to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 *In which motivations do female students and male students differ most?* <Table 1> show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wo categories of language learning motivations, and that is: *Interest in media & culture* and *Attitudes toward Chinese*.

Generally speaking, the results mention that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of female students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have stronger motivation than male students who learn in College of Chinese Studies, KyungSung University.

Discussion

At the very beginning of boys and girls coming to the world, almost the entire communities impose on them to develop in a different direction. As soon as Children's gender is determined, they will be expected to develop into a social role determined by physiological factors. Socialization might be a great influence on gender differences i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The decision to the direction of social development in the power of a thing not only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ing itself, but also features the development of things from the decis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he concept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nese language learning for the girls have higher expectations and higher requirements.

We have summed up the general gender differences on the motivation in this paper. The large quantity of research linking motivation with activity participation supports the validity of the current research findings. The result of this study gives a positive answer to the research questions -- the motivation of female stud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ale students. In interpreting these findings, this tendency for higher usage among females appears even stronger in the case of the four categories -- *Integrativeness*, *Instrumentality*, *Interest in media & culture*, *Chinese is a required course*.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teachers should give more targeted guidance to help Korean students forming an effective study strategy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ir motivations for Chinese learning.

The learning motivation of male learners should be strengthened. Most of male learners act impulsively and easy to be irritated, because they lack stable mood and permanent motive force. But, nowadays,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ty, male learners have lofty ambitions and positive attitude, who are eager to find a good job in the future. Hence, Chinese teachers should take affirmative steps to stabilize their learning emotion, and guide them to realize and consider the practical issues. Besides, Chinese teachers should make students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that gender difference in Chinese learning.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take cognitive differences of female and male students into account, so that female and male students can make best use of their advantages and bypass their

disadvantages.

Generally speaking, both female students and male students should aware of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o that they can offset their weaknesses, and finally achieve cooperative learning. Chinese teachers should help them find out reasons for which they have more difficulty in learning Chinese and give them propper guide to promote their learning motivation.

Conclusion

Female students and male students have different gender characteristics, which makes their language learning with different tendencies.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would affect their learning process and results fundamentally. By the analysis of Chinese learning motivations, the author attempted to find the gender differences i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s. The present study has provided answers to the two research questions ahead. The results of this paper indicated that female and male students differ significantly in the motivation for learning Chinese, which are *integrativeness*, *instrumentality, interest in media & culture*, *attitudes toward Chinese*, and *Chinese is a required course*. This study shows that female students have stronger motivation than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show more comprehensive learning motivation and positive attitude in language learning, who show higher interest in the target language and the culture. On the contrary, male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re primarily from the supervision and enforcement of teachers and parents. Gender difference is objective existence, both teachers and students need to face with gender differences. Students should be taught by different method according to different gender. In the process of teaching, teachers should

make use of the advantages of male learners and female learners adequately to foster their motivations to learn Chines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lso have implications for teaching practice, since data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Chinese teachers in Korean universities. Knowledge of these differences can serve in the preparation of language classroom activities that cater for the variation shown by gender. In a paper that helped expand views of L2 motivation in the 1990s, Oxford and Shearin (1994, p.15)) pointed out that knowing what factors influence a student's motivation to learn a L2 is important to educators:"Without knowing where the roots of motivation lie, how can teachers water those roots?". The present study may also be useful in this sense, having helped expose to educators the roots of students' motivation to learn Chinese language.

References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rookes, G., & Schmidt, R. W. (1991). Motivation: Reopening the research agenda. *Language Learning, 41,* 469 - 512.

D¨ornyei, Z. (2001a). New themes and approaches in second language motivation research.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1*, 43-59.

Ellis, R. (199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ardner, R. & Lambert, W. E.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 Newbery House.

Hornby. (1997).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Chinese Dictionary, BeiJing: The Commercial Press.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Von Nostrand.

Nelson, D. L., & Quick, J. C. (2003a). *Attitudes, values, and ethics. Foundations, realities, & challenges organizaional behavior*, Ohio: South-Western.

Nelson, D. L., & Quick, J. C. (2003b). *Motivation and work behavior. Foundations, realities, & challenges organizational behavior*, Ohio: South-Western.

Oxford, R. & Shearin, J. (1994).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Expand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Modern Language Journal,* 78, 12 - 28.

Robbins, S. P. (2003). *Basic motivation concepts. Organizational behavior,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Schwartz, S. H., & Rubel, T. (2005). Sex differences in value priorities: Crosscultural and multimetho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1010-1028.

Spolsky, B. (2000). Language motivation revisited. *Applied Linguistics*, 21, 157 - 169.

Williams, M. & R. Burden. (1997). *Psychology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文秋芳. (2004). 學習者可控因素与英語成績的關系. 西安： 西師范大學出版社.

關小燕. (1995). 婦女心理与社會穩定. 江西師范大學學報 (哲社版), 1.

祝畹謹. (19920. 社會語用學概論. 長沙：湖南教育出版社.

중국어 교수요목 간의 비연계성 문제에 대한 고찰
-어휘요목과 문법요목의 비연계성 문제를 중심으로

심지언(부산외대)

1. 들어가기
2. 『語法大綱』 『詞彙大綱』의 구성 체계
3. 『語法大綱』과 『詞彙大綱』의 비연계성 문제
3-1 어휘 누락 문제
3-2 등급 분류 문제
3-3 접속구조 처리 문제
4. 나가기

1. 들어가기

교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수요목이다. 교육학에서는 교수요목을 '교육내용을 주제별 항목으로 조직하여 열거한 것으로 그 교과에 어떤 내용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교육학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김정숙(2003)은 교수요목(syllabus)을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교육과정의 설계도로서, 교육과 교재 구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고, 전통적 의미의 교수요목에는 단순히 교육 내용만이 포함되었으나, 교육에서 과정이 중시되면서 교육방법이나 평가가 교수요목에 포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형식(2010)은 교수요목은 교육 내용의 목록에 초점을 두며, 교수-학습을 위한 과정(course)과 교재(material)를 조직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위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교수요목이란 결국 가르쳐야할 내용의 목록이며, 교수-학습, 교재 구성 편찬에 기본이 된다. 다시 말해, 교수요목은 교수-학습은 물론 교재의 교육 내용 구성의 근간이 되므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가르칠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열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중국어 교수요목은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이다. 현재 국가한반에서 편찬한 한어수평등급표준이 중국어 교수요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며, 이를 근거로 마련된 것이 어휘 교수요목『漢語水平詞彙等與漢字等級大綱(이하『詞彙大綱』)』과 문법 교수요목『漢語水平等級標準與語法等級大綱(이하『語法大綱』)[1]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중국어 교수요목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중국어 교수요목 개발에 대한 연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국의『詞彙大綱』과 『語法大綱』[2]은 중국 소수민족의 중국어 교육 및 교재

1) HSK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신HSK는 어휘선정 기준원칙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어휘목록만을 제시하고 있고, 『語法大綱』 원칙에 대해서도 1급에서 3급까지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HSK 『詞彙大綱』과 『語法大綱』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여러 연구에서『語法大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HSK 未能划清字詞界限, 多把同形詞作爲一个單位進行詞頻統計。/ 未能細致地統計多義詞在不同義項、兼類詞在不同詞性上的使用頻率。(趙金銘 2003)

편찬 등에 문법과 어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국어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수요목 간의 유기적 결합은 중국어 교수-학습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요목 간의 유기적 결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인 단계별, 체계적 교육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교재로 자연스럽게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교수의 효용성 및 학습의 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윤철(2013)에서는 교수요목은 교육과정과 교재의 중간단계로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재를 통해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자의 각도에서는 단계별 학습목표가 되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황을 점검해 보는 자가 점검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개발한 어휘 교수요목과 문법 교수요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에게 적합한 어휘 교수요목 기준 마련의 기초 단계로 『詞彙大綱』과 『語法大綱』의 유기적 결합성을 살펴보고, 비유기적인 부분이 출현한다면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중국어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

실제 『詞彙大綱』과 『語法大綱』의 부분적으로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또 두 요목간의 귀속 등급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랫동안 중국어 교육의 길잡이 역할을 지속해 온 『詞彙大綱』과 『語法大綱』 두 요목 간의 구성 체계를 알아보고, 비연계성 문제, 즉 어휘 누락 및 등급 분류, 접속구조 처리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초보적이나마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詞彙大綱』과『語法大綱』의 구성 체계

『漢語等級標準』은 3等(초·중·고) 5級 체계로, 초등에는 1급과 2급이, 중등에는 3급이, 고등에는 4급과 5급이 포함되며, 『詞彙大綱』과 『語法大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요목은 갑을병정 4등급으로 체계가 같다.

『詞彙大綱』과 『語法大綱』 이 두 요목은 그동안 중국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교재를 편찬하거나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詞彙大綱』은 HSK의 문제출제,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설계, 교재편찬, 교실교육, 교육측정, 소수민족의 중국어 교육 및 초중등학교 국어 교육의 중요한 근거로서 만들어졌다.[3)]

『詞彙大綱』은 갑을병정 4등급 체계이며, 등급별로 각각 1033개, 2018개, 2202개, 3569개 총 8822개의 어휘에 대해 품사와 발음을 제시하고 있다. 『語法大綱』 또한 갑을병정 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각각 갑129개, 을123개, 병400개, 정516개, 총 1168개의 문법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語法大綱』의 구성은 품사[4)], 구, 문장성분, 특수문형, 의문제기방법, 수의 표시, 강조의 방법, 동작의 태, 형태소, 단어의 구성, 고정구, 고정격식, 반어문, 구어형식, 복문, 다중복문,

3) , 조은경(2010) 중국어문학논집 제60호 266쪽

4) 『語法大綱』에서 등급별로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12품사를 의미한다.

문단 18개로 이루어져 있다. 등급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먼저 갑급은 품사, 구, 문장성분, 문장의 분류, 특수문형, 의문제기방법, 수의 표시, 강조의 방법, 동작의 태, 복문을 포함해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을급은 품사, 고정구, 고정격식, 문장성분, 특수문형, 강조의 방법, 복문을 포함해 7개의 항목으로, 병급은 형태소, 품사, 구, 고정구(習用語, 成語/四字格, 기타), 고정격식, 문장성분, 특수문형, 동작의 태, 반어문, 구어형식, 복문을 포함해 11개의 항목으로, 정급은 형태소, 품사, 단어의 구성, 고정구(習用語, 成語/四字格, 기타), 고정격식, 특수구문, 반어문, 구어형식, 복문, 다중복문, 문단을 포함해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갑을병정 모든 등급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품사, 특수문형, 복문이며, 갑을 제외하고 을급, 병급, 정급 세 등급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고정구와 고정격식이다. 이는 초급에 해당하는 갑급에서는 고정구와 고정격식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갑급에서는 기본적인 문법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語法大綱』의 구성 >

등급	품사	구	문장성분	문장의 분류	특수문형	의문제기방법	수의 표시	강조의 방법	동작의 태	형태소	단어의 구성	고정구	고정격식	반어문	구어형식	복문	다중복문	문단
갑	O	O	O	O	O	O	O	O	O							O		
을	O		O		O			O				O	O			O		
병	O	O			O				O	O		O	O	O	O	O		
정	O				O					O	O	O	O	O	O	O	O	O

『詞彙大綱』의 형식은 매 어휘마다 한자를 제공하고 그 다음 품사, 한어병음 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34甲 本子 (名) běnzi 의 형태가 보편적인 단어의 경우이고, 다품사어인 경우는 193甲 發展 (動, 名) fāzhǎn 형태와 176甲 對(介, 動) duì, 177甲 對(形) duì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381丁 出差 chū chāi 와 같이 이합사인 경우는 품사를 제시하지 않고 한어병음 사이에 간격을 두어 일반 동사와 표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고정구와 고정격식 역시 품사를 표기하지 않고 어휘와 발음만을 제시하고 있다. 1626丙 萬古長青 wàngǔ chángqīng, 291乙 當…的時候 dāng…deshíhou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품사 분류에 있어서 『詞彙大綱』과 『語法大綱』은 일치하지 않는다. 『詞彙大綱』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조동사, 수사, 양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감탄사, 의성사, 접두사, 접미사 14개로 분류하여 표기하고,『語法大綱』은 품사 항목에서 갑급에서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양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감탄사, 의성사 12개로, 을급, 병급, 정급 세 등급에서는 감탄사와 의성사를 제외시키고 다품사어와 이합사를 포함시켜 12개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두 요목은 4등급 체계로 등급이 동일하여 대응 관계가 쉽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등급이 일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요목 간의 교육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詞彙大綱』과 『語法大綱』의 학습내용과 학습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3. 詞彙大綱』과『語法大綱』의 비연계성 문제

본장에서는『詞彙大綱』과『語法大綱』의 비연계성에 있어서 어휘 누락 문제, 등급 분류 문제, 접속구조 처리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1 어휘 누락 문제

어휘 누락은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으나『語法大綱』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이와는 반대로『語法大綱』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詞彙大綱』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기능어(虛詞) 누락의 경우이다.

劉月華(2003)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기능어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문장성분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각종 문법적 의미 또는 어기, 감정을 주로 나타내는 품사이며, 여기에는 조사, 전치사, 접속사, 의성사가 포함된다.[5] 이렇듯이『語法大綱』에서는 등급별로 품사 항목에서 학습해야 하는 기본적인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기능어에 대해서는 특수문형, 의문제기방법, 강조의 방법, 동작의 태 항목에서 기능어의 활용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앞서 말한 기능어에 속하는 기본적인 단어가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는 기능어와 일치하는 지 조사, 전치사, 접속사[6] 순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기능어 누락 중 조사이다.

『詞彙大綱』에서는 전체 25개의 조사를 수록하고 있으며, 등급별로 갑급 15개, 을급 5개, 병급 5개를 수록하고 있다.

『語法大綱』에서 조사는 구조조사, 동태조사, 어기조사로 나뉘며, 전체 22[7]개의 조사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를 분류하지 않고 등급으로 살펴보면 갑급 '的(1)(구조조사)', '地', '得', '了(동태조사)', '着', '過', '呢(동태조사)', '嗎', '呢[8]', '吧', '啊', '了(어기조사)', '等', 을급 '所', '的(2)(어기조사)', '的話', '來着', 병급 '似的', '着呢', 정급 '而已', '得个', '个'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중복하지 않으면 19개가 된다.

구조조사에 대해서 '的(1)', '地', '得', '所', '…似的' 5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다. 동태조사 '了', '着', '過', '呢', '來着', '…着呢' 6개 중 '來

---

5) 부사를 실사로 분류하였으나 주덕희는 부사를 허사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부사에 대한 실사와 허사 구분에 대해서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6) 감탄사와 의성사도 기능어에 포함되나 『語法大綱』에서는 갑급에서만 감탄사 1개, 의성사 1개를 제시하고 있고『詞彙大綱』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등급도 일치한다.

7) 了, 的, 呢의 경우 조사 중 두 번씩 출현하여 중복 계산함.

8) 어기조사

着'와 '…着呢' 2개가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어기조사 '嗎', '呢', '吧', '啊', '了', '等', '的(2)', '…的話', '而已', '得个', '个[9]' 10개 중 '得个'와 '个' 2개가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詞彙大綱』을 기준으로 볼 때 『語法大綱』에서 누락된 조사는 吶, 來, 哩, 左右, 般, 嘍, 喲, 之 8개이며, 『語法大綱』을 기준으로 볼 때 『詞彙大綱』에서 누락된 조사는 , 着呢, 得 , 个 4개이다. 등급별로 을급에 '來着', 병급에 '着呢', 정급에 '得个'와 '个', 모두 4개이다.

표 <조사 비교>

『詞彙大綱』	『語法大綱』
啊 吧 的 地 得 等 過 啦 了 嘛 嗎 哪 呢 着 所 似的 而已 □ 哩 左右 般 嘍 □ 之 吶	啊 吧 的(1) 地 得 等 過 了 嗎 呢 着 了 呢 所 的(2) 似的 呢 而已 的話 來着 着呢 得个 个

기능어 누락의 두 번째로 전치사이다.

『詞彙大綱』에서는 전체 54개의 전치사를 수록하고 있으며, 등급별로 갑급 19개, 을급 24개, 병급 8개, 정급 3개를 수록하고 있다.

『語法大綱』에서 전체 49개의 전치사를 제시하고 있다. 갑급에서 当, 在, 從, 离, 向, 往, 朝, 對, 跟, 和, 比, 爲[10], 給, 爲, 爲了, 把, 被, 叫, 讓[11], 除了, 除了…以外 21개를, 을급에서도 于, 以, 自, 由, 沿, 順, 由, 于, 自, 自從, 替, 向, 將, 對于, 關于, 就(2)[12], 根据, 按照, 照, 趁, 由于, 由 22개를, 병급에서는 除, 凭, 任 3개를, 정급에서 本着, 鑒于, 論 3개의 전치사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면 46개가 된다.

『詞彙大綱』을 기준으로 볼 때『語法大綱』에서 누락된 전치사는 經過, 通過, 按, 較, 据, 距离, 隨, 同, 与, 作爲, 冲, 打, 代, 距, 依照, 隨着 16개이며, 『語法大綱』을 기준으로 볼 때『詞彙大綱』에서 누락된 전치사는 讓, 除了, 除了~ 以外, 靠, 根据, 論 6개이다. 등급별로 갑급에 讓, 除了, 除了~ 以外, 을급에 靠, 根据, 정급에 論 모두 6개이다.

표 <전치사 비교>

『詞彙大綱』	『語法大綱』
把 被 比 朝 從 当 對 給 跟 和 叫 經過 离 通過 往 爲 爲了 向 在 按 按照 趁 對于 關于 將 較 就 据 距离 順 隨 替 同 沿 以 由 由于 于 与 照 自 自從 作爲 冲 除 打 代 距 凭 任 依照 鑒于 隨着 本着	当 在 從 离 向 往 朝 對 跟 和 比 爲 給 爲了 把 被 叫 于 以 自 由 沿 順 自從 替 向 將 對于 關于 就 按照 照 趁 由于 除 凭 任 本着 鑒于 讓 除了 除了~ 以外 靠 根据 論

9) 詞彙大綱』에는 양사로만 품사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조사로서는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0) 爲는 『語法大綱』 갑029 대상을 나타낼 때, 갑030 목적과 원인을 나타날 때 두 차례 출현한다.
11) 讓은 『詞彙大綱』 갑급에 동사로 품사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전치사로서는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2) 就는 갑급(부사/접속사), 을급(전치사), 병급(동사)

기능어 누락 중 마지막으로 접속사이다.

『詞彙大綱』에서는 전체 105개의 전치사를 수록하고 있으며, 등급별로 갑급 18개, 을급 39개, 병급 34개, 정급 14개를 수록하고 있다.

『語法大綱』에서는 전체 48개의 접속사를 제시하고 있다. 갑급에서는 和, 跟, 或者, 還是, 雖然, 但是, 要是, 因爲, 所以, 可是, 還是[13], 不但, 而且, 只好[14] 14개를, 을급에서는 而, 此外, 以及, 總之, 則, 從而, 不然, 然而, 只是[15], 由于[16] 10개를, 병급에서는 何況, 可見, 況且, 若, 倘若, 要不, 以至, 以致, 就(3), 難怪, 任 11개를, 정급에서는 反之, 或是, 卽便, 假設, 進而, 就算, 連同, 宁肯, 宁愿, 要么, 以免, 以致于, 故 13개를 제시하고 있다.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면 47개이다.

『詞彙大綱』을 기준으로 볼 때 『語法大綱』에서 누락된 접속사는 接着, 結果, 那, 那么, 便, 并, 并且, 不論, 或, 及, 加以, 看來, 可, 且, 如, 如果, 同, 同樣, 无論, 以, 因而, 于是, 与, 只要, 只有, 等到, 甚至, 甚至于, 要, 要不然, 至于, 此后 32개이며, 『語法大綱』을 기준으로 볼 때 『詞彙大綱』에서 누락된 접속사는 , 由于 2개이다. 등급별로 갑급에 只好, 을급에 由于 모두 2개이다.

표<접속사 비교>

『詞彙大綱』	『語法大綱』
不但 不如 但是 而且 跟 還是 和 或者 [ ] 結果 就 可是 那 那 雖然 所以 要是 因爲 便 并 并且 不過 不管 不論 不僅 不然 此外 從此 從而 但 而 否則 或 及 既 加以 盡管 看來 可 哪怕 且 然而 如 如果 同 同樣 无論 以 以及 因此 因而 于是 与 則 只是 只要 只有 不免 不只 除非 等到 固然 好 何況 卽使 假如 假若 假使 可見 況且 免得 難怪 宁可 任 若 甚至 甚至于 省得 雖 雖說 倘若 要 要不 要不然 要不是 以便 以至 以致 与其 至于 總之 此后 反之 故 或是 卽便 假設 進而 就算 連同 宁肯 宁愿 要么 以免 以至于	和 跟 或者 還是 雖然 但是 要是 因爲 所以 可是 不但 而且 只好 而 此外 以及 總之 則 從而 不然 然而 只是 由于 何況 可見 況且 若 倘若 要不 以至 以致 就(3) 難怪 任 反之 或是 卽便 假設 進而 就算 連同 宁肯 宁愿 要么 以免 以至于 故

지금까지 기능어 누락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語法大綱』을 기준으로 『詞彙大綱』에서 누락된 경우는 대체적으로 『詞彙大綱』의 품사 표기 미비에서 발생한 누락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고정구(固定詞組) 누락의 경우이다.

『語法大綱』의 갑급에서는 고정구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갑급을 제외한 을급, 병급, 정급에서 각각 26개, 42개, 130개, 전체 198개의 고정구를 제시하고 있다.

13) 語法大綱』갑033, 갑034 두 번 출현하므로 2개로 계산함.
14) 『詞彙大綱』갑급에 부사로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접속사로서는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5) 『語法大綱』을급 只是, 由于, 병급 難怪, 任, 정급 故는 접속사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겸품사 목록에 모두 접속사로 분류되어 있어 포함시킴.
16) 『詞彙大綱』에 을급에 전치사로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접속사로서는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을급에서는 看不起 / 看得起, 來得及 / 來不及, 用不着 / 用得着, 不要緊, 說不定, 不敢当, 不用說, 不一定, 不得不, 不一會儿, 不好意思, 不是嗎, 算了, 得了, 沒事儿, 看樣子, 有的是, 了不起, 沒什么, 感興趣, 就是說, 越來越, 好容易(好不容易), 哪知道, 誰知道, 實事求是 26개의 고정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不用說, 不一會儿, 哪知道, 誰知道 4개가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병급의 고정구 부분은 習用語, 成語/四字格, 其他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전체 42개의 고정구를 제시하고 있다. 習用語에서는 鬧着玩儿, 鬧笑話, 開夜車, 打交道, 出難題, 出洋相, 打招呼, 碰釘子, 傷腦筋, 走后門, 走彎路, 有兩下子 14개를, 成語/四字格에서는 成千上万, 粗心大意, 聚精會神, 千方百計, 无可奈何, 興高采烈, 自始至終, 自相矛盾, 畵蛇添足, 无論如何, 總而言之, 万古長靑, 一路順風 13개를, 其他 부분에서는 不像話, 不在乎, 不由得, 別提了, 沒說的, …就是了, 可不是, 可也是, 吹了, 不見得, 无所謂, 對得起, 忍不住, 這樣一來, 不怎么樣 15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習用語, 成語/四字格 부분은 모두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으나, 其他부분의 고정구 不用說, 不一會儿, 哪知道, 誰知道 4개가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정급의 고정구는 병급의 고정구와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전체 130개의 고정구를 제시하고 있다. 習用語에서는 愛面子, 爆冷門, 半邊天, 炒魷魚, 穿小鞋, 大鍋飯, 定心丸, 砍大山, 馬后炮, 跑龍套, 潑冷水, 敲邊鼓, 隨大流, 鐵飯碗, 一風吹, 一鍋粥, 走過場, 鉆空子 18개를, 成語/四字格에서는 93개를 제시하고 있으며, 其他 부분에서는 好說, 据悉, 要命, 要樣的, 看起來, 顧不得, 老實說, 犯得上 / 犯不上, 又來了, 去你的, 眞是的, 除此之外, 由此可見, 与此同時, 也就是說, 換句話說, 一般地說, 綜上所述, 總的來說 19개를 제시하고 있다.

정급 고정구 成語/四字格 93개는『詞彙大綱』와 모두 일치하였으나, 習用語와 其他 두 부분에서는 『詞彙大綱』와의 비일치 현상이 나타났다. 習用語 부분에서 제시한 18개 중 『詞彙大綱』와 일치하는 것은 4개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爆冷門, 炒魷魚, 穿小鞋, 定心丸, 砍大山, 馬后炮, 跑龍套, 潑冷水, 敲邊鼓, 隨大流, 一風吹, 一鍋粥, 走過場, 鉆空子 14개나 되었다. 其他부분에서는 19개 중 8개가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老實說, 犯得上 / 犯不上, 又來了, 去你的, 也就是說, 換句話說, 一般地說, 綜上所述 8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詞彙大綱』에 누락된 고정구는 을급에 4개, 병급에 4개, 정급에 22개 모두 30개이다. 병급과 정급의 成語/四字格 부분이 모두 『詞彙大綱』와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병급과 정급의 고정구에서 성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적게 나타났으나, 정급의 경우 고정구에서 成語/四字格 부분을 제외하면 37개 중 22개가 누락되어 있어 약 60%에 달하는 고정구가 『詞彙大綱』에서 누락된 것을 알 수 있다.

『語法大綱』의 고정구와 『詞彙大綱』의 수록 여부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고정구 비교>

등급	『語法大綱』			『詞彙大綱』
을	구분없음	26개	不用說, 不一會儿, 哪知道, 誰知道 (4개)	X
병	習用語	14개	일치	O
	成語/四字格	13개	일치	O
	기타	15개	別提了, …就是了, 可不是, 吹了 (4개)	X
정	習用語	18개	爆冷門, 炒魷魚, 穿小鞋, 定心丸, 砍大山, 馬后炮, 跑龍套, 潑冷水, 敲邊鼓, 隨大流, 一風吹, 一鍋粥, 走過場, 鉆空子 (14개)	X
	成語/四字格	93개	일치	O
	기타	19개	老實說, 犯得上 / 犯不上, 又來了, 去你的, 也就是說, 換句話說, 一般地說, 綜上所述 (8개)	X

『語法大綱』과 『詞彙大綱』의 고정구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치성이 높다. 전체 198개 고정구 중에서 을급 22개, 병급 38개, 정급 115개로 175개가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다. 고정구는 관용구와 성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급과 정급의 기타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고정구는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고정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어휘요목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관용어와 속담은 구나 절의 형식을 띠기는 하지만 마치 하나의 어휘처럼 행동한다. 이들 관용어와 속담은 특수 처리하여 어휘 분야에서 다룰 수 있다.[17]고 말한 것처럼 관용구와 성어는 어휘요목에 수록하되 일반 어휘와 차별성을 두어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語法大綱』 정급에서 제시한 18개의 관용구 중 14개가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문법과 어휘에서 기대하는 학습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詞彙大綱』은 내용어 측면에서는 문법의 품사와 고정구를 포함해야 하고, 등급도 일치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정급의 고정구 상당수는 어휘요목에 수록하기가 힘들다.

셋째, 고정격식(固定格式) 누락의 경우이다.

『語法大綱』 갑급에서는 고정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갑급을 제외한 을급, 병급, 정급에서 각각 11개, 27개, 27개, 전체 65개의 고정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을급의 고정격식 11개 중 在… 方面, 從… 以后, 在… 以前, 在… 上, 在… 下, 在… 中, 以… 爲中心, 爲…而…8개가『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수록되어 있는 것은 …之前/之后/之上/之下/之中, 從 …出發, 当… 的時候 3개이다. 을급 고정격식은 대부분 '在+

17) (2011), 국어교육학연구 제40집, 132쪽.

방위사'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병급의 고정격식 27개 중 由… 組成, 在… 看來, 不知… 好, 爲… 所…, 應… 邀請, 要是(如果) …的話, 跟(和)… 過不去, 一來… 二來…, 左說右說, 時好時坏, 不大不小, 走來走去, 說干就干, 忽高忽低, 一長一短, 老的老小的小, 東一句西一句 17개가『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수록되어 있는 것은 拿… 來說, 對… 來說, 到… 爲止, 多勞多得, 各式各樣, 或多或少, 能歌善舞, 八面八方, 自言自語, 沒吃沒穿 10개이다.

정급의 고정격식 27개 중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非驢非馬, 愛理不理, 一言一行 3개이다.

『語法大綱』을 기준으로 볼 때『詞彙大綱』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을급에 8개, 병급에 17개, 정급에 3개 모두 28개이다.

『語法大綱』 고정격식과 『詞彙大綱』의 수록 여부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고정격식 비교>

등급	『語法大綱』		『詞彙大綱』
을	전체 11개	在… 方面, 從… 以后, 在… 以前, 在… 上, 在… 下, 在… 中, 以… 爲中心, 爲…而… (8개)	X
		…之前/之后/之上/之下/之中, 從 …出發, 当…的時候 (3개)	O
병	전체 27개	由… 組成, 在… 看來, 不知… 好, 爲… 所…, 應… 邀請, 要是(如果) …的話, 跟(和)… 過不去, 一來… 二來…, 左說右說, 時好時坏, 不大不小, 走來走去, 說干就干, 忽高忽低, 一場一短, 沒吃沒穿, 老的老小的小, 東一句西一句 (17개)	X
		拿… 來說, 對… 來說, 到… 爲止, 多勞多得, 各式各樣, 或多或少, 能歌善舞, 八面八方, 自言自語, 沒吃沒穿(10개)	O
정	전체 24개	非驢非馬, 愛理不理, 一言一行 (3개)	X
			O

3.2. 분류 문제

본 절에서는 3.1에서 『詞彙大綱』과『語法大綱』의 두 요목 간의 일치하는 어휘 중 『語法大綱』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의 등급이 『詞彙大綱』와 일치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요목 간의 기능어에 대한 어휘 등급 분류와 고정구, 고정격식, 고정구조에 대한 등급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고, 등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초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능어의 등급 분류 문제이다. 먼저 조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語法大綱』에서는 전체 22개의 조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17

개이다.

『語法大綱』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의 구조조사는 모두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다. 갑035 的, 地, 得, 을022 所, 병139 …似的를 제시하고 있으며, 『詞彙大綱』에도 갑급, 을급, 병급에 각각 수록되어 있어 두 요목 간의 귀속 등급이 일치한다.

『語法大綱』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의 동태조사 중 5개가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다. 갑036 了, 着, 過, 呢, 을024 來着를 제시하고 있으며, 『詞彙大綱』에도 갑급과 을급에 각각 수록되어 있어 두 요목 간의 귀속 등급이 일치한다.

어기조사 '嗎', '呢', '吧', '啊', '了', '等', '的', '而已', '得个', '个' 10개는 모두『詞彙大綱』와 귀속등급이 일치한다.

조사를 기능에 구분하지 않고 등급으로 살펴보면 갑급 啊 吧 的(1)(구조조사) 地 得 等 過 了 嗎 呢 着 了 呢 13개, 을급 所 的(2)(어기조사) 2개, 병급 似的 1개, 정급 而已 1개이다. 이 가운데 『詞彙大綱』와의 귀속등급이 일치되는 것은 16개, 귀속등급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的(2) 1개이다.

이렇듯이 결과적으로 볼 때 두 요목 간의 등급의 일치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일부 조사는 품사 제시 외에 문법 항목 설명 부분에서 문법의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계속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了(동태조사)는 갑036에 품사에서 조사로 제시되고, 갑116과 병305~307, 정348에 총 4차례 출현하며, 着는 갑036에 제시되고, 갑118 지속태 '동사+着'과 병303에 동사+着+동사+着의 형태로 출현한다. 吧는 갑037에 품사에서 조사로 제시되고, 갑101에 활용법이 나오며, 了(어기조사)는 갑117에, 嗎는 갑099에 출현한다. 呢는 갑 036에 품사에서 조사로 제시되고, 갑104 '의문대사+呢'108과 갑108에 출현한다.

조사 '的'가 『語法大綱』 갑급에는 구조조사로, 을급에는 어기조사로 두 차례 출현하지만 『詞彙大綱』에서는 갑급에만 출현한다. 조사 '的'를 기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조조사 '的'는 갑급에, 어기조사 '的'는 을급에 수록되어 있다. 문법적 기능의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달리 분류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詞彙大綱』에는 갑급에만 제시하고 있는데, 어휘요목만을 따라 교수하게 될 경우, '的'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르쳐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了(동태조사) 역시 등급은 일치하지만, 기능어의 다양한 쓰임새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휘요목에서 갑급 단계에서만 단 한번 제시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조사 귀속 등급 비교>

	『詞彙大綱』	『語法大綱』
갑	啊 吧 地 得 等 過 了 嘛 嗎 呢 着	啊 吧 的(1) 地 得 等 過 了 嗎 呢 着 了 呢
을	所	所 的(2)
병	似的	似的
정	而已	而已

다음으로 전치사에 대한 등급 분류이다. 『語法大綱』에서는 전체 46개의 전치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詞彙大綱』와 유기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40개이다. 이를 등급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語法大綱』의 갑급 전치사 중 『詞彙大綱』과 유기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18개이다. 갑0271부터 갑032까지 전치사를 분류하여 갑027 当, 在, 從, 离, 갑028 向, 往, 朝, 갑029 對, 跟, 和, 比, 爲, 給, 갑030 爲, 爲了를, 갑031 把, 被, 叫를 제시하고 있다. 갑급 전치사 18개 모두 『詞彙大綱』와 귀속 등급이 일치한다.

『語法大綱』의 을급 전치사 중 『詞彙大綱』과 유기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19개이다. 을016부터 을020까지 전치사를 분류하여 을016 于, 以, 自, 由, 沿, 順을, 을017 由, 于, 自, 自從, 을018 替, 向, 將, 對于, 關于, 就(2)[18], 을019에서는 按照, 照, 趁, 을020 由于, 由를 제시하고 있다. 을급 전치사 19개는 모두 『詞彙大綱』와 귀속 등급이 일치한다.

『語法大綱』 병급의 3개 전치사는 모두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으며, 귀속 등급도 일치한다. 병127 除, 병128 凭, 병129 任을 제시하고 있다.

『語法大綱』 정급의 3개 전치사 중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2개이다. 정788 本着, 정789 鑒于이며, 『詞彙大綱』와 귀속 등급이 일치한다.

두 요목 간의 유기성이 이루어지는 42개의 전치사는 모두 『詞彙大綱』와의 귀속 등급과 일치한다.

이들 전치사 가운데 갑031 把, 被, 叫, 讓과 比의 비교문에 대하여 『語法大綱』에서는 등급별로 학습 난이도에 따라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把[19]의 경우 『詞彙大綱』 갑급에 수록되어 있으며, 『語法大綱』에서는 품사 항목에서 전치사로 갑031에 출현하고, 갑098, 을088, 병298~302, 정 358~364 총 5차례 출현하고 있다.

被의 경우 詞彙大綱 갑급에 수록되어 있으며, 『語法大綱』에서는 품사 항목에서 전치사로 갑031에 출현하고, 피동문 설명이 나오는 갑096에 '叫', '讓'과 함께 출현하며, 이밖에 을083, 병292, 정348~351에서도 용법 설명에 나오는 등 총 5차례 출현하고 있다.

讓[20]의 경우 『詞彙大綱』 갑급에 수록되어 있으며, 『語法大綱』 갑급에서는 전치사로 갑031에 출현하고, 갑096, 을083, 병293 총 4차례 출현하고 있다.

叫의 경우는 '被', '讓'와 거의 비슷하다. 『詞彙大綱』 갑급에 수록되어 있으며, 『語法大綱』에서는 품사로서 전치사로 갑031에 출현하고, 갑096, 을083, 병293 총 4차례 출현하고 있다.

比의 경우 『詞彙大綱』 갑급에 수록되어 있으며, 『語法大綱』에서는 전치사 분류에서 갑029에 출현하고, 비교문 설명에 등급별로 갑097, 을084, 병296, 정357 총 5차례 출현한다.

아래 표를 보면 전치사의 어휘요목과 문법요목이 등급 분류 문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처

18) 는 『詞彙大綱』에서 갑급(부사/접속사), 을급(전치사), 병급(동사) 3차례 출현한다.
19) 把는 『詞彙大綱』에서 갑급(전치사), 갑급(양사), 병급(동사) 3차례 출현한다.
20) 讓은 『詞彙大綱』 갑급(동사) 단 1차례 출현한다.

럼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부 把, 被, 叫, 讓, 比 등의 주요 전치사는 어휘요목에 갑급에 출현하고 있으나, 문법요목에서는 기능에 따른 학습 난이도에 따라 등급별로 출현하고 있어 엄격하게 말하자면 등급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표<전치사 귀속 등급 비교>

	『詞彙大綱』	『語法大綱』
갑	把 被 比 朝 從 当 對 給 跟 和 叫 离 往 爲 爲了 向 在	当 在 從 离 向 往 朝 對 跟 和 比 爲 給 爲了 把 被 叫
을	按照 對于 關于 將 就 順 替 同 沿 以 由 由于 于 照 自 自從	于 以 自 由 沿 順 自從 替 向 將 對于 關于 就 按照 照 趁 由于
병	除 凭 任	除 凭 任
정	鑒于 本着	本着 鑒于

기능어 마지막으로 접속사에 대한 등급 분류이다.

『語法大綱』에서는 전체 48개의 접속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詞彙大綱』 과 등급이 일치하는 것은 46개이다.

『語法大綱』 갑급 접속사 13개는 『詞彙大綱』과 등급이 모두 일치한다.

을급 접속사 11 중 『詞彙大綱』과 등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總之 1개이며, 總之는 『詞彙大綱』 병급에 속한다.

병급 접속사 11개 중 『詞彙大綱』과 등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3) 1개이며, 就(3)는 『詞彙大綱』 갑급에 속한다.

정급 접속사 중 『詞彙大綱』 간의 유기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13개이다. 정급139부터 150까지 反之, 或是, 卽便, 假設, 進而, 就算, 連同, 宁肯, 宁愿, 要么, 以免, 以致于, 정155 故를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모두 『詞彙大綱』와 귀속등급이 일치한다.

『語法大綱』에서 제시한 접속사 중 『詞彙大綱』과 등급 간의 일치가 되지 않는 접속사는 을021 總之와 병138 就(3) 2개인데, 을급 總之는 한 단계 높은 『詞彙大綱』 병급에, 병급 就(3)는 『詞彙大綱』 갑급에 수록되어 있다.

표<접속사 등급 비교>

	『語法大綱』	『詞彙大綱』		『語法大綱』	『詞彙大綱』
總之	을급	병급(↑)	就(3)	병급	갑급(↓)

둘째, 고정구에 대한 등급 분류 문제이다.

『語法大綱』의 고정구 전체 198개 중 『詞彙大綱』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168개이다. 이 168개의 고정구 중 『詞彙大綱』과 귀속 등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4개이며, 모두 을급의 고정구이다. 특이할만한 것은 說不定, 得了, 沒事儿, 就是說 이 4개의 고정구가

『詞彙大綱』에서 『語法大綱』보다 한 단계 높은 병급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고정구 등급 비교>

	『語法大綱』	『詞彙大綱』		『語法大綱』	『詞彙大綱』
說不定	을급	병급(↑)	沒事儿	을급	병급(↑)
得了	을급	병급(↑)	就是說	을급	병급(↑)

셋째, 고정격식에 대한 등급 분류이다.

『語法大綱』의 고정격식 전체 65개 중 『詞彙大綱』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은 37개이다. 이 37개의 고정격식 중 『詞彙大綱』과 귀속등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35개이며, 귀속등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을급의 '当… 的時候', 병급의 '沒吃沒穿' 모두 2개이다. 이들 고정격식은 『詞彙大綱』에서 『語法大綱』보다 한 등급 높은 병급에 수록되어 있는데, 을급의 '当… 的時候'은 『詞彙大綱』의 병급에, 병급의 '沒吃沒穿'은 『詞彙大綱』의 정급에 수록되어 있다.

표 <고정격식 등급 비교>

	『語法大綱』	『詞彙大綱』		『語法大綱』	『詞彙大綱』
当… 的時候	을급	병급(↑)	沒吃沒穿	병급	정급(↑)

넷째, 접속구조에 대한 등급 분류이다.

『語法大綱』의 접속구조는 전체 34개 중 『詞彙大綱』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은 을급 '就是… 也', 병급 '…(幸亏)…不然…', 병급 '…以…' 3개이다. 이 3개는 모두 『詞彙大綱』와의 귀속 등급이 일치하지 않는데, 을급 '就是… 也'는 한 단계 높은 『詞彙大綱』 병급에, 병급 '…(幸亏)…不然…'와 '…以…'는 한 단계 낮은 『詞彙大綱』 을급에 수록되어 있다.

표 <접속구조 귀속 등급 비교>

	語法大綱	詞彙大綱		語法大綱	詞彙大綱
就是… 也…	을급	병급(↑)	…以…	병급	을급(↓)
(幸亏)…不然…	병급	을급(↓)			

『詞彙大綱』와 『語法大綱』의 어휘가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더라도 두 요목 간의 등급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요목을 기준으로 등급을 일치시킬 것인지 기준을 확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語法大綱』[21]과 『詞彙大綱』는 토대가 다르다[22]. 語法大綱은 기능어 중심이며 『詞彙大綱』는 내용어 중심이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교수요목과 연계를 가진 어휘를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하며, 문법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기능어를 우선 학습어휘로 삼아야 한다[23]고 하였다. 따라서 기능어의 경우 『語法大綱』을 기준으로 『詞彙大綱』의 등급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 교수 및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두 요목 간의 등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대상이 기능어이면 『語法大綱』을 기준으로 따르고, 그 대상이 내용어이면 『詞彙大綱』를 기준으로 따르는 것이다.

등급 분류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語法大綱』에 수록된 기능어가 『詞彙大綱』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에 『語法大綱』을 기준으로 『詞彙大綱』에도 함께 수록하는 방안이다.

기능어는 『語法大綱』에서 학습자가 필수적으로 습득해야할 것들을 배치해놓았기 때문에 『詞彙大綱』보다는 『語法大綱』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語法大綱』은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중국어 학습에 있어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전반적인 문법 내용을 단계별로 마련한 지침서이다. 내용어보다는 기능어가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語法大綱』의 등급을 따른다. 일부 『語法大綱』 예문에서 『詞彙大綱』에 수록되지 않은 부사가 발견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 문법에서 꼭 학습해야 할 부사이면 빈도나 상용성에 상관없이 『詞彙大綱』에 수록되어야 하고, 등급도 일치시켜야 한다. 일부 기능어들이 어휘 선정 대상 기준 요건인 빈도나 상용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 빈도나 상용성은 떨어지더라도 중급 또는 고급에서 익혀야 하는 기능어는 반드시 『詞彙大綱』에 수록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어는 대부분 이해어휘에 속한다. 외국어 학습의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고, 목표가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어휘만을 목표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둘째, 『語法大綱』과 『詞彙大綱』과의 귀속 등급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기능어는 『語法大綱』을 기준으로, 내용어는 『詞彙大綱』를 기준으로 각각 수록하는 방안이다.

『語法大綱』의 특수구문이나 복문 등 예문에 나오는 내용어 및 품사에서 제시한 내용어[24]는 『詞彙大綱』 등급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語法大綱』 갑급 품사 중 양사 부분에서 『詞彙大綱』에 수록되지 않은 양사[25]가 출현하기도 하며, 양사의 중

---

21) 語法大綱』은《提要》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提要》는《暫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중국어교육문법》위수광(2012) 박이정 48-62p 참조

22) '『詞彙大綱』'의 주요 근거(《漢語水平詞匯 漢字登記大綱》前言-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2年) 참조
1.北京語言學院的《現代漢語頻率詞典》(1985年)
2.北京航空航天大學的《現代漢語常用詞詞頻詞典》(1989年)
3.北京師范大學的《中小學漢語教學用詞表》(1990年)
4.山東大學的《現代漢語常用詞庫》(1990年)
5.北京航空航天大學的《信息處理用現代漢語常用詞表》(國家標准)(1990年)
6.北京語言學院的《北京口語調查》(1991年)
7.國家語委和國家教委公布的《現代漢語常用字表》(1998年)

2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방송통신대학교 출판사 106p 참조

24) 각 등급별로 학습해야 할 품사에 대한 어휘를 선정해 놓고 있음.

25) 『語法大綱』 갑 019 公尺

첩에서 정급 어휘[26]가 나오기도 한다. 『語法大綱』 예문의 어휘가 『詞彙大綱』에 수록되지 않거나[27] 등급의 차이가 심한 것도 있는데 가능한 『詞彙大綱』와의 귀속 등급이 일치하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지켜진다면 『語法大綱』의 갑급 예문에 병급 어휘가 나오거나 또는 을급 예문에 정급 어휘가 출현하는 등 귀속 등급의 불일치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3.3. 처리 문제

접속구조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접속구조는 접속사, 부사 또는 접속사나 부사와 잘 어울리거나 호응관계를 이루는 형태의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雖然… 但是…'를 들 수 있다. 『語法大綱』의 품사 부분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語法大綱』의 강조용법 부분과 복문, 반어구문의 예문에 나타나는 접속사 호응관계어, 부사 호응관계어[28] 등이 포함된다. 『語法大綱』의 특수문형, 복문 등의 예문에서 어휘요목에 수록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낸 것이다. 주로 접속사 호응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부사만 쓰인 경우도 종종 있다.

甚而至于…, 尙且, 要就是, 倘使, 縱然… 등의 어휘는 어휘요목에 조차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들 부사의 문법성과 어휘성을 고려했을 때 문법적이므로 문법요목에서는 예문에 수록했을 것이고, 어휘요목에서는 상용성이나 빈도 측면에서 비율이 낮아 제외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법요목에서 이해어휘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라면 이 점을 고려하여 어휘요목에도 수록하여 유기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래의 표는 『語法大綱』 예문의 접속구조를 찾아 정리한 것이다.

표<접속구조>

26) 語法大綱』 갑 020 种
27) 『語法大綱』 병168 僑胞, 병172包伙, 小灶, 병174 布鞋 , 병178 聯歡會 등
28) 連詞關連詞語, 副詞關連詞語,

	『詞彙大綱』	『語法大綱』
不但…還	X	을급103
先… 然后…	X	을급097
先… 接着…	X	을급098
爲的是	X	을116
一時… 一時…	X	병346
凡是…都…	X	병347
除非…否則(不然)…	X	병349
除非…才…	X	병350
任…都…	X	병347
不僅僅 (是)	X	병365
不過(只是)…罷了	X	병369
要就是… 要就是…	X	병378
之所以… 因爲…	X	병382
由于… 所以…	X	병387
由于… 就…	X	병387
既然… 只好…	X	병388
何嘗	X	정372
何不	X	정373
何至于	X	정374
尙且… 何況…	X	정418
別說… 也	X	정419
不但… 而…	X	정421
甚而至于…	X	정423
不單…也(都) …	X	정425
不光…而且(并且)	X	정426
別管… (都)…	X	정428
任凭…也(都)…	X	정429
一者(一則)…二者(二則)…	X	정433
倘使… 也(就)	X	정447
縱然… 也…	X	정453

접속구조의 경우와는 반대로『詞彙大綱』에 수록된 단위가 단어, 구, 또는 단어의 형태가 아닌 것을 모아보았다. 어휘가 단어의 집합이라는 이 각도에서 본다면 『詞彙大綱』에 단어가 아닌 것이 수록되어서는 안된다. 『詞彙大綱』 전체 8822개의 어휘 중 단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등급	『詞彙大綱』
갑	除了~ 以外, 從~ 到~, 從~ 起, ~得很, 連~都(也)~, 一~就~, 一邊~一邊~
을	邊~ 邊~, 從~ 出發, 當~ 的時候, 非~不可, 既~也~, 既~又~, 算了, 一~也~, 一方面~一方面~, 越~越~, 越來越~
병	不是~ 而是~, 不是~ 還是~, 到~爲止, 對~來說, 就是~也~, 就是說, 拿~來說, 一面~一面~, 愈~愈~
정	從~ 看來, 非~才, ~來看(來講), ~來說, 連~帶~, 一會兒~一會兒~

위의 표를 보면 대다수가 고정격식이다. 주로 전치사와 호응관계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지금까지 중국어 문법교수요목인 『語法大綱』과 어휘교수요목인『詞彙大綱』의 비연계성 문제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초보적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어휘 누락문제에 있어서 기능어는 문법성이 강하므로 문법요목을 따라야 하고, 고정구는 어휘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어휘요목을 따라야 한다. 어휘요목의 품사 표기도 문제가 존재하는데, 다품사어를 단순히 한 등급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상용성이나 빈도에 따라 등급을 달리 해야 한다. 이로써 문법요목과의 연계성을 꾀할 수 있다. 就, 被, 把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둘째, 등급 분류 문제에 있어서 일부 기능어의 경우 문법요목에 따라야 한다. 어휘요목과 문법요목의 등급 일치가 기능어에서 일치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단계별로 학습해야 하는 기능어의 경우 문법요목에는 여러 차례 출현하지만 어휘요목에는 단 한 차례 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비대칭적 교수와 학습해야 하는 것이 통일성을 이루게 되며, 학습항목이 일목요연해지면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정구의 習用語 및 성어를 『詞彙大綱』로 편제하거나 『詞彙大綱』의 부록의 형태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넷째, 고정격식의 전반부 由…組成, 在…看來 등과 후반부의 일정한 형식을 갖는一…一…, 各…各…등은 모두 『語法大綱』으로 편제시킨다.

다섯째, 접속구조의 경우 『語法大綱』에서 익혀야 하는 주요 항목으로 정했다면, 어휘요목에도 당연히 수록되어야 한다. 어휘요목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어휘를 문법요목에서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섯째, 일부 실제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부사 '就' '才' '還' '也' '又' 등 『語法大綱』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기능에 따른 등급이 나누어질 때『詞彙大綱』에 표기를 하여 『詞彙大綱』와 『語法大綱』 간의 연계성을 이루도록 한다.

일곱째, 『語法大綱』의 예문에 나오는 내용어 역시『詞彙大綱』등급과 일치되도록 한다.

외국어 교수에서 문법적 기능이 강한 어휘는 어휘의 표면적인 의미를 습득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어휘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문법적 기능이 강한 어휘는 문법요목에서 심도있게,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학습자에 유리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어휘와 문법의 경계를 생각해보아야 하는데, 기능어 위주의 단어들은 결국 문법과의 상관성에서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단지 어휘목록에 수록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어휘의 뜻을 알게 하는 것보다는 『語法大綱』으로 포함시켜 문법적 활용이나 용법을 익히는 것이 학습자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기능어는 어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문법적인 기능이 더 중요하므로

어휘항목과 문법항목으로 나누고, 문법항목에 이미 일부 기능어가 포함되어 문법적 특징 및 활용이 수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휘항목에 기준을 정하여 일일이 품사 표기 및 단계를 표기하는 것이다. 어휘범주와 문법범주를 한 마디로 정의하여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휘와 문법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단계별로 중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보다 쉽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어휘교수요목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漢語水平等級標準與語法等級大綱> 1988 북경어언학원출판사

<漢語水平詞匯與漢字等級大綱> 1992 북경어언문화대학출판사

<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 국제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 2008 북경외어교학여연구출판사

<중국어교육문법> 위수광(2012) 박이정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김정숙 (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우형식(2010)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실용현대한어어법> 유월화(2003) 상무인서관

<중국어 허화의 원리와 조건> 박정구(2000) 중국언어연구 제10집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 문법 교육과 어휘 교육 >이관규(2011) 국어교육학연구 제40집

<關于修訂-漢語水平詞匯等級大綱的若干意見>世界漢語教學 第三期 73-83 趙金銘 (2003)

‘객관성’ 확보 장치- 一+量+名 주어문

박은미*

1. 들어가기
2. ‘无定’개념과 정보구조 이론
3. 一+量+名주어문과 일반판단
3.1 존현문
3.2 ′有′无定NP 주어문
3.3 존현문과 ‘有′无定NP 주어문
3.4 一+量+名주어문
4. 객관성, 동태성 확보 장치- 一+量+名주어문
5. 나오기

1. 들어가기

范継淹의 <无定[1]NP[2]主語句>논문이 발표된 이후, ‘명사성 주어의 비한정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중국에서는 통사,의미 뿐만 아니라 화용의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이론까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해석을 시도해 왔다. ‘无定NP主語句’의 지칭(指称)[3]′과 관련해서 陳平(1987),王紅旗(2006a, 2006b, 2011,2012),鐘小勇(2011) 등이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고, ‘无定NP主語句’의 화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구조′ 이론을 접목한 方梅(1995), 劉丹青・徐烈炯(1998), 石毓智(2001) 등의 연구가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方梅(1995)는 초점을 常規焦点, 對比焦点으로 분류하였고, 劉丹青・徐烈炯(1998)[4]기존의 연구에서 ′초점(焦点)′에

---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1) 본문에서는 ‘无定’,‘无定指′ 을 ‘비한정’으로 ‘有定’,‘有定指’를 ‘한정’의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2) NP와 명사, VP와 동사를 혼용해서 사용할 것이다.
3) 지칭(指称, referentiality)은 언어의 외계(外界)사물에 대한 기호로, 속성(屬性), 개체성(个体性), 한정성(限定性)의 3개 차원을 포함하는데, 서로 다른 지칭은 담화 주체의 외계사물에 대한 각기 다른 파악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언어의 서로 다른 지칭을 형성한다. 張新華(2007) 참조.
4) 劉丹青・徐烈炯(1998)은 [突出],[對比] 2가지 의미자질 속성을 기준으로, 초점을 자연초점([+突

대한 개념 사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점의 분류기준과 개념을 제시하였다. 石毓智(2001)[5]는 중국어의 '주어(主語, subject)'와 '화제(話題, topic)'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정보구조 이론, 특히 화제-평언, 배경-초점 구조 등을 통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중국어의 지칭과 정보구조 초점 이론과 관련하여 백은희(2003,2004,2007)와 남궁양석(2003) 등을 제외하고는 중국어의 '지칭'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정보구조 이론을 적용하기 전의 과정, 즉 '无定'이라는 지칭(指称) 개념 정의와 '无定'명사 주어문 문형이 다른 한정명사 주어문 문형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연구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非常規문형인 '无定'명사 주어문이 가지는 통사,의미,화용의 가치를 '无定'명사 주어문의 전(前) 단계라고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존현문(存現句, 處所 + VP + NP)과 "有"NP主語句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보고, '无定'명사 주어문만의 고유의 통사, 의미, 화용적 가치를 정리하여, 중국어 교학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 '无定' 개념과 정보 구조

비한정(无定) 명사주어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 일단 '비한정(无定)'이라는 지칭의 개념에 대해 우선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실제 담화(話語, utterance)에서 출현하는 명사성 성분과 관련하여 陳平(1987)은 [6]'4組語義概念'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명사성 성분의 어휘형식에 착안하여, 중국어의 각종 표현형식을 7組로 병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4組語義概念'과 연관시켜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出],[-對比]), 대비초점([+突出],[-對比]), 화제초점([-突出],[+對比])으로 나누고, 3가지 초점의 표현수단과 통사표현에서 모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5) 石毓智(2001)는 화제의 특징을 첫째, 문두에 위치하고 둘째, 해당 성분 뒤에 쉼표 또는 어기사가 올 수 있으며, 셋째, 항상 한정성분(有定), 즉 기지정보(已知信息)여야 하며, 넷째, 담화 개념으로, 연속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자주 그것의 의미관할이 뒤의 문장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6) 陳平(1987)에 따르면, 사물이 존재하는 형식에 대해, 인간이 지칭할 때 크게 4가지 의미개념 쌍으로 분류하여 지칭한다고 한다. 지시(referential)와 비지시(nonreferential), 한정(identifiable)과 비한정(nonidentifiable), 특정(specific)과 비특정(nonspecfic), 총칭(generic)과 개체칭(individual)이 그것이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화자와 청자이다.

	有指 지시	无指 비지시	定指 한정	不定指 비한정	實指 특정	虛指 비특정	通指 총칭	單指 개체칭
A組 人称代詞 인칭대명사	+		+		+			+
B組 專有名詞 고유명사	+		+		+			+
C組 “這／那”+ (量詞)+名詞	+		+		+		+	+
D組 光杆名詞 보통명사	+	+	(+)	(+)	+	+	+	+
E組 數詞+(量 詞)+名詞	+	+	(+)	(+)	+	+	+	+
F組 ”一”+(量 詞)+名詞	+	+		+	+	+	+	+
G組 量詞+名詞	+	+		+	+	+	+	+

(*여기에서 +표시는 해당 성질이 있음을, (+)은 해당 성질이 약하게 존재함을 표시한다.)

陳平(1987)에 따르면, 비한정(无定, nonidentifiable)은 화자가 어떤 명사성 성분을 사용할 때, 청자가 화자가 지시하는 대상을 문장 상황 속에서나 현실에서 어떤 특정한 사물과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사용하는 지칭으로,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조,E조,F조,G조에 속하는 명사성 성분으로 모두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비한정 명사성 성분은 F조, G조에 속하는 ”一”+(量詞)+名詞／量詞+名詞 형태이다. 이러한 비한정 명사성분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중국어 문장(常規句子)에서 벗어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의 일반 문장구조를 ‘NP1+VP+NP2’라고 한다면, NP1에 해당하는 성분은 대부분 A조,B조,C조,D조에 해당하는 한정 명사성분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양의 논리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논리판단 유형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서양의 논리학[7]에서는 인간의 논리 판단유형이 2가지 형태라고 말한다. 첫 번째는, 주제판단(主題判斷, categorical judgment)으로, 대상을 우선 확정한 후 그 대상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인지적 활동이 대상 확정과 대상 진술에 걸쳐 두 번 일어나기 때문에 이중 판단(double judgment)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는, 비 주제판단(非主題判斷, thetic judgment)으로, 어떤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나 상태 전체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 인지적 활동이 한번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판단(simple judgment)이라고도 한다. 화자와 청자 간의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화자가 먼저 대상을 확정하고 그에 대해 진술하거나 설명하는 주제판단이 보편적이라고 하겠다.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잘 알고 있거나, 화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대상과 내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보 구조 이론으로 바꿔 설명하면, 먼저 구정보(given information)를 언급하고, 후에 신정보(new information)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Grice[8]가 제시한 대화함축 이론(會話含義理論, the theory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의 '협력원칙(合作原則, cooperative principle)' 중에서 '양의 격률(數量准則, quantity)'에도 부합한다. 여기에서 정보 구조 이론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袁毓林(2012)에 따르면, 정보 포장(信息包裝, information packaging)측면에서 문장은 구정보(已知信息, given inforamtion)와 신정보(新信息, new information)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화제(話題, topic)와 초점(焦点, focus)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장의 정보구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화제(話題)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초점(焦点)의 관점이라고 하였다. 화제의 관점에서는 문장을 화제구조(話題結构)로 보고, 이를 화제(話題,topic)와 평언(說明,comment)으로 나누는 것이다. 초점구조(焦点結构,foucus structure)[9]에서는 Rooth(1985)가 제시한 삼분구조(三分結构, tripartite structure)에 따라 문장을 1)초점민감연산자(焦点敏感算

7) 서양 논리학의 논리 판단 연구 역사에 대해서는 沈園(2000)에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8) Grice의 대화함축이론은 대화의 내용이 화자와 청자의 쌍방의 공통된 목표와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즉 '협력원칙(cooperative principle)'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또 다시 양(數量,quantity), 질(質量,quality), 관계(關系,relation), 방식(方式,manner)의 4개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양(數量,quantity)의 격률은 대화의 정보가 충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姜望琪(2011:57-83)참조.

9) 초점구조를 전제(預設, presupposition)와 초점(焦点,foucus) 또는, 배경(背景, background)과 전경(前景,foreground)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袁毓林(2012:1-39)참조.

子,focus-sensitive operator), 2)초점(焦点, focus), 3)배경(背景, background)로 분류한다. 화제구조에서 '화제'는 화자와 청자가 이미 공유한 정보라고 한다면, 초점구조에서 '초점'[10]은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각별히 주목하게 하고 싶은 새로운 정보로, 문장에서 비교적 두드러지는 것(突顯, salient)이다. 언어마다 초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강세, 초점표지, 어순, 생략'등의 수단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무표적(无標記,unmarked)' 수단인 어순과 '유표(有標記,marked)'적 수단인 초점표지를 통한 '초점'부각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살펴보겠다.

3. 一+量+名주어문과 일반판단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제판단(主題判斷, categorical judgment)은 전통적 서양 논리학에서 말하는 주어(主項,subject)-술어(謂項,predicate) 두 부분으로 구성된 판단문으로, 먼저 하나의 실체(實体, entity)에 대해 확인한 후, 다시 그것에 대해 묘사, 기술한다는 점에서 중국어에서는 한정명사 주어문(有定名詞主語句)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비주제판단(非主題判斷, thetic judgment)은 화자가 어떤 대상(또는 실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사건 또는 상태를 전체로 간주하고 기술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볼 때, 중국어의 무주어문(无主語句), 존현문(存現句), 비한정명사주어문(无定名詞主語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1) 約翰去北京了。
(2) 聞訊赶來的科學家立卽展開了考察活動。
(3) 下雪了。
(4) 出太陽了。
(5) 椅子上坐着一个人。
(6) 家里來了一位客人。
(7) 有人來了。
(8) 有个人很窮。

10) 芳梅(1995)는 문장의 '초점'을 다시 '상규초점(常規焦点)'과 '대비초점(對比焦点)'으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문장 정보 배열의 일반적인 구정보에서 신정보 순으로, 문말에 가까울수록 새로운 정보, 문말성분이 통상적으로 문말초점(句末焦点)인 원칙에 해당하는 상규초점만을 다룰 것이다.

(9) 一只蜜蜂在屋子里飛着。

(10)一个小火柴盒滚在院中。

예(1)(2)(5)(6)-張新華(2007)인용, 예(3)(4)-沈園(2000)인용, 예(9)(10)-顧陽(1997)인용

여기에서 (1),(2)는 주제판단문 즉, 한정명사 주어문에 해당하고, (3),(4)는 비주제판단문-무주어문, (5),(6)은 존현문,(7),(8)은 有"자를 비한정 명사성분 앞에 두어, 한정성을 확보한 문형이며, (9)(10)은 비한정명사 주어문이다. (3)~(10)은 어떤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진술하거나 설명한다는 점에서 모두 비주제판단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3),(4)에서는 아예 어떤 대상(실체)언급이 생략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황, 사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그 대상(실체)은 화자와 청자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5)~(10)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3),(4)와 같은 문장형태는 앞으로 다룰 비한정명사주어문이 아니라 한정명사주어문에 속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5),(6)은 중국어 일반 문장의 통사적 측면에서 일반적 어순(주어-술어-목적어. 주어는 한정, 목적어는 비한정)과는 어느 정도 부합한다[11]고 하더라도, 의미적 차원에서 일반적 어순(행위자-동사-수동자)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형태이다. (7),(8)과 (9),(10)은 주어 즉, 진술하고 설명하는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 진술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7)(8)은 "有"가 앞에서 한정표지사로써 작용한다[12]는 점이, (9)(10)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비한정명사주어문에 해당하는 형태는 (9)(10)이다.

3.1 존현문

존현문: <u>處所</u> + <u>VP</u> + <u>NP</u>

A B C

①통사,의미 - 존현문의 기본형은 處所+VP+NP이다. 處所에 해당하는 A는 '處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나, 방위사 또는 일반명사나 고유명사에 방위사를 결합한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 VP에 해당하는 B는 '존현(存現)'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 구체적으로

11) 통사적 관점에서 중국어 문장의 어순은 주로 주어-술어- 목적어(NP1-VP-NP2) 형태로, 주어는 행위자(施事, agent), 목적어는 수동자(受事, patient)로 의미역이 할당되어 있다.

12) "有"의 한정표지사로써의 기능은 蔡維天(2004) 참조.

‘존재, 출현, 소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들이 사용된다[13]. 이 존현동사들은 뒤에 나오는 NP가 존현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VP는 화자와 청자가 인지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NP가 존현하는 일반적인 모습을 구현하는 의미만 나타낼 뿐 실제적으로 동사 자체의 의미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또한 동사 자체의 정태성과 동태성을 고려했을 때[14], 정태성의 의미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C에 해당하는 NP는 비한정명사 즉, 數+量+名의 형태로 나타난다. 존현문이 특정 공간에 어떤 대상이 존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대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두에 있는 성분이 주어인지, 문말에 있는 성분이 목적어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任鷹(2007)에 따르면, 존현문에서 VP는 구체적 상황 묘사와 설명이 수반되지 않는다. 또한 존현주체의 관상행위(慣常行爲)를 나타내는 동사로, 즉 동사가 지니는 정보량이 극히 미미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B(VP)성분은 C(NP)성분이 존현하는 방식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B(VP)성분에 청자의 관심을 주목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1)屋里來了一个人。
(12)教室里放着一本書。
(13)台上坐着主席團。

등의 예문이 있다.
이들 예문들 중에서 B(VP)성분 앞에 정태적 의미를 보충해주는 것이 아닌, 동태적 의미를 살려주는 부사어로 수식했을 경우에 (13)을 제외한 (11)(12)는 다음과 같이 비문이 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屋里來了一个人。 → *屋里气冲冲地來了一个人。
(12)’教室里放着一本書。 → *教室里好好儿放着一本書。
(13)’台上坐着主席團。 → 台上整整齊齊地坐着主席團。

13) 任鷹(2007)에서는 존현문의 동사가 문장에서 실현되는 의미는 구체적 동작의 의미가 아니라, 추상적 존현의미라고 강조하면서, 나타내는 동작은 존현주체가 존현하는 방식과 상태라고 하였다.
14) 李臨定(1985) 참조.

다시 이들 예문의 C(NP)성분에 비한정 명사 대신 전형적인 한정성을 지닌 명사성분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도 비문이 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1)屋里來了一个人。 → *屋里來了我的同學。
(12)教室里放着一本書。 → *教室里放着那本書。
(13)台上坐着主席團。 → *台上坐着我們主席團。

즉, 존현문의 B,C는 각각 존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정태적 의미의 동사, 비한정 명사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②화용 - 중국어에서 주제판단에 해당하는 한정명사주어문은 정보구조 이론의 '화제'와 '초점'의 각도에서 보면, 먼저 주어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구정보(旧信息, given information)로 '화제(話題, topic)'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주목하게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담겨있는 목적어 부분은 '초점(焦点, focus)'에 해당하는 신정보(新信息, new information)이다. 정보구조 이론[15]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어는 문두(구정보)-문말(신정보)구조가 일반적이고, '초점'은 문말에 오는 것이 전형적(典型)이라고 하겠다.

존현문은 이런 전형적인 중국어 정보구조로 보면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명사 성분의 의미 역할(語義角色)을 논하게 되면, 한정명사주어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존현문: <u>處所</u> + <u>VP</u> + <u>NP</u> 한정명사주어문: NP1 + VP + NP2

陳平(1994)의 '語義角色优先序列' 관점에서 볼 때, 존현문의 處所성분은 원형행위자특징(原型施事特征,prototype-agent features)[16]이 약하기 때문에 주어로 보기에는 부적

15) 張斌(2005)참조.
16) 陳平(1994)은 중국어에서 주어는 원형행위자 의미성분이 강하고, 목적어는 원형수동자 의미성분이 강한 의미역할이 담당하는데, 원형행위자 특징은 자주성(自主性), 감지성(感知性), 사동성(使動性), 위이성(位移性), 자립성(自立性)이고, 원형수동자 특징은 변화성(變化性), 점성성(漸成性), 수동성(受動性), 정태성(靜態性), 부용성(附庸性)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주어를 충당하는 의미 역할의 우선서열은 '施事>感事>工具>系事>地点>對象>受事' 이고, 화제를 담당하는 의미

합하고, 동사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수록 '화제'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화제'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NP + VP성분을 '평언(說明, comment)'으로 봤을 때, 평언의 구조는 일반적인 중국어 어순 즉, 주어-술어(NP-VP)에서 벗어나 있다. 이것을 다시 중국어 어순에 맞춰 변환하고, 처소(屋里、教室里、台上)를 화제화(話題化)[17]해서, 뒤의 내용을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하는 문형으로 변환했을 때 다음과 같다.

(11)'屋里來了一个人。 → 屋里, 一个人來了。
(12)'教室里放着一本書。 → 教室里, 一本書放着。
(13)'台上坐着主席團。 → 台上, 主席團坐着。

화제 부분을 제외한 밑줄 친 문장만을 살펴봤을 때, (13)'을 제외한 (11)'(12)'이 비문임을 알 수 있다. (13)'의 主席團은 일반명사로 한정성과 비한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정성을 지니는 주어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1)'(12)'의 一个人과 一本書는 비한정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형태로 주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존현문은 어떤 구체적 담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일까? 화자와 청자간의 대화 중에, 화자가 청자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 청자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관심을 끌기위한 '정태적(靜態)'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화자가 새로운 담화 대상을 청자에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를 부각하기 위해 화자는 청자가 알거나 알 수 있는 익숙한 공간을 먼저 설정하고, 새롭게 등장할 담화 대상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흡사 '연극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동사의 의미는 대상의 존현 상태를 나타내는 역할만 하게 한다.

3.2 '有'+비한정NP주어문

'有'비한정NP 주어문: '有'+ 一+量+名 + VP 한정NP주어문: NP1 + VP + NP2

역할 우선서열은 '系事>地点>工具>對象>感事>受事>施事'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모두 왼쪽에 있는 성분이 오른쪽 성분보다 우선한다.

17) 石毓智(2001)는 '화제'의 특징을 1.문두(句首)에 위치 2.뒤에 휴지(停頓) 또는 어기사(語气詞)가 추가 3.항상 한정(有定)성분으로, 즉 기지(已知) 정보를 표시 4. 하나의 담화개념으로, 연속성을 지니고 있고, 자주 그것의 의미관할이 뒤의 문장까지 확장된다고 하였다. 또한 '화제화(話題話)'는 해당성분 뒤에 쉼표 또는 어기사를 넣어주는 방식을 상용한다고 하였다.

①통사, 의미- 비한정명사 주어부분에 한정성을 더해주는 방식으로는 관형어(的자구조,묘사성 관형어 등)와 수식어를 더해주는 방식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有‘를 덧붙여 한정성을 더해주는 방식만을 취해 주제판단에 적합한 문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만 언급하겠다. ″有″는 비한정명사(‘一+量+名’) 주어 앞에 놓일 때, 해당 명사성분의 한정성을 더해주는 유표적 장치로 이는 인간의 일반적인 발화에서 주제판단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즉 일단 대상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4)* 一个人坐在台上。→ 有一个人坐在台上。
(15)* 一个人很有錢。 → 有一个人很有錢。
(16)* 一个客人來了。 → 有一个客人來了。

(14),(15),(16)는 원래 모두 비문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한정 표지사 “有″를 더함으로써, 정해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 또는 손님들 중에 어떤 한 사람 또는 손님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일정한 정보를 갖도록 만들었다. 그렇다면 다른 글자가 아닌 “有″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有″의 어휘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有″는 동사로써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領有)’의 의미뿐만 아니라 ‘있다’라는 ‘존재(存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18]. “有″의 ‘존재’의 의미로써의 ‘있다’는 불확실한 많은 대상들 중에 확실히 어떤 대상이 존재함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그 실재적 의미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한정 표지사로서 ‘一+量+名’ 구조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정성분, 즉 예를 들면 고유명사, 지시대명사를 사용한 관형어들에 비해서는 한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뒤따르는 신정보 역시 일반 한정명사주어문에 비해서는 정보량이 적다고 할 수 있다.
②화용- 그렇다면 이러한 ″有″+비한정NP주어문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일까?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의 처음 단계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대상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을 때(화자 역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또는 화자가 어떤 대상을 청자에게 인식시킬 때 점진적으로 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자의 이해를

18) ″有″에 대해서는 劉丹靑(2011), 溫鎖林(2012)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돕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의도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책에 “有”+비한정NP주어문의 형태가 많이 사용되는 것과 구어체의 이야기에서 이런 문형이 많이 사용된다[19]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존현문과 ″有″비한정(无定)NP 주어문

화용의 측면에서 존현문과 “有”비한정(无定)NP 주어문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존현문의 사용 목적은 특정 공간에(화자와 청자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존현하고 있는 방식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대화 중간에 새로운 대상과 화제를 등장시키고자 할 때, 취하는 화자의 의도적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화자는 정보구조의 초점과 신정보에 해당하는 존현문의 목적어 성분이 청자의 각별한 관심을 끌도록 하는 것이다[20]. 그렇기 때문에 존현 동사는 동사의 동태적 의미보다는 정태적 의미가 더 많은 작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존현동사보다는 존현하는 대상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 존현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有″비한정NP명사 주어문도 존현문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존현문은 화자가 청자와의 대화중간에 새로운 대상과 화제를 등장시키고자 할 때, 화자가 판단하기에 청자가 각별히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정보일 경우 사용하는 정태적 장치라고 한다면, ″有″비한정NP 주어문은 대화의 시작에 화제와 대상을 출현시키는 방법으로, 이 대상에 대해 화자와 청자간의 공유정보가 없지만 화자가 생각할 때 청자가 대상에 대해 잘 몰라도 상관없는 다시 말해서, 정보의 초점이 아닌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정보구조에서 구정보는 문두(句首), 신정보는 문말(句末)에 오는 것이 중국어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有”NP 주어문은 신정보의 통사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한정 명사성분에 ″有″한정표지사를 더해서 문두에 놓고 구정보로 처리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이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한 신정보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19) 張新華(2007)참고

20) 古川裕(2001)는 인지문법의 ‘현저성원칙(顯著性原則)’으로 ‘출현, 소실’하는 사물들이 비한정성을 지니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저성원칙’이란 인간의 인지구조에서 ‘두드러지는(salient)’사물은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쉽게 ‘유계(有界, bounded)’개체사물로 여겨진다. 어법구조에서 이러한 유계사물은 한정어로써 수량사의 수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유표적 형식(marked form)’ ‘수량명(數量名)’으로 표현한다. 沈家煊(1995)참조.

3.4 一+量+名주어문

一+量+名주어문: 一+量+名 + VP + NP
D E F

①통사, 의미- 비한정 명사 주어문의 일반적인 형식은 '一+量+名' + VP + NP 구조이다. D에 해당하는 '一+量+名'은 전형적인 비한정에 속하는 명사성분 형태이다. 일반적인 중국어 문장에서 주어에 한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한정 명사 주어는 완전 벗어나 있는 형태이다. E에 해당하는 VP는 동사 자체의 정태성보다는 동태성이 훨씬 부각되기 때문에 동사의 동태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있는 다양한 방법, 즉 동태동사를 주로 사용하거나, 동사 앞에 동태적 의미를 수식해주는 부사어나 보어를 사용해서 동작과 상황의 동태성을 더해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동태성을 더해주는 부사어나 보어의 사용이 수의적(隨意的)이 아니라 강제적(强制的)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사에 따른 부대정보를 많이 제공하게 되면서, 주어 자리에 비한정명사가 오면서 청자가 확인할 수 없었던 대상에 대해 판단하고 추리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F에 해당하는 NP는 이러한 구조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동사의 정보를 더해주는 역할로써 작용한다.

②화용- 정보구조 관점에서 볼 때, 비한정 명사 주어문은 일반적 중국어 문장형태, 즉 문두는 한정성분, 문말은 비한정 성분, 문두는 구정보, 문말은 신정보, 문두는 화제, 문말은 평언, 문두는 배경, 문말은 초점 등의 구조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다면 화자와 청자의 대화에 일반적 대화에 자주 사용하는 한정명사주어문을 사용하지 않고 비한정 명사 주어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한정 명사성분은 일반적으로 문말에 등장하는 신정보의 형식이다. 이러한 신정보를 문두에 언급하는 것은, 대화의 대상에 대해 화자와 청자 간에 어떠한 공유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점에서 "有"+한정명사주어문과 마찬가지로 대화의 시작에서 화자가 새로운 대상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문두에 오는 비한정 명사성분은 "有"+한정명사주어문과는 달리 신정보로서 주목해야 하는 것임을 청자에게 알리기 위한 유표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비한정명사 주어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한정명사주어문은 화자와 청자 간에 어떠한 공유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화자가 전달할 내용이 모두 다 신정보로써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용한다. 둘째, 화자가 이 신정보를 처리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이러한 형태의 문형을 사용함으로써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생동감 있게 동태적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신문기사나 뉴스 보도 등에 이러한 비한정명사주어문이 자주 사용되는 것[21]은 위에서 열거한 3가지 특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결국, 화자가 대상을 우선 확정한 후 그 대상에 대하여 진술하는 주제판단과 달리,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이나 상태 전체에 대해 진술하는 일반판단은 주제판단에 비해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덜 개입되기 때문에, 청자에게 진술대상에 대해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전달 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정보의 객관성, 특히 정보를 전달받기 전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황에서 대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 셈이다.

한정 명사주어문은 이미 화자가 설명하고 판단해야 할 대상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청자와 공유한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존현문은 화자가 설명하고 판단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청자와 공유하지 않고, 그 대상 또는 상황이 처해있는 공간만을 제시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확정된 공간 안에 어떤 대상 또는 상황이 전개되는지 집중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자로 하여금 우선 대상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지만, 대상에 대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음으로써 본격적인 정보에 대한 예비준비를 하게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비한정명사주어문은 화자와 청자 간에 공유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대상 또는 상황을 먼저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대상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정해지지 않은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해 확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비한정 명사 주어문은 청자로 하여금 대상에 대해 역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객관성 확보장치이자 동태적 장치이다.

4.객관성, 동태성 확보 장치- 一+量+名주어문

담화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화자의 '주관'이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화자는 말을 할 때,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신의 입장과 태도 또는 감정을 표현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Lyons는 주관성(subiectivity,主觀性)[22]라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21) 張新華(2007)참조.

주관성을 표현하기 위해 상응하는 구조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변천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담화에서 주관성을 불가피하다고 봤을 때, 화자는 단어, 문형, 문체 등의 다양한 선택과 방법 등을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필자는 그중에 문형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존현문과 一+量+名주어문이라고 판단한다.

존현문은 화자와 청자가 공간이라는 공유 정보 안에서, 화자가 관련된 대상에 대해서 아직 확정하지 않은 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준비를 하게하고 어떤 상황 또는 사건이 전개되는지 지켜보게 하게하는 '정태적' 신정보 처리 장치이다. 이에 반해 一+量+名주어문은 화자와 청자가 아무런 공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화자가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즉 일차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존현문과 유사하지만, 대상과 관련된 많은 신정보들을 제공한다는 차별성을 지님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이 비 확정 대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대상 판단의 객관성 확보장치이다. 비 확정 대상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사의 의미가 활성화되도록 즉, '동태적' 장치를 선택하는 것도 존현문과 차별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一+量+名주어문은 중국어에서 단순한 非常規 문형이 아니라, 특정한 화용의 목적을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정한 화용의 목적은 크게 객관성과 동태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一+量+名주어문의 기본 문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无定NP主語句: 一+量+名主語 + VP + NP

위에서 설명했듯이, VP에 부사어나 보어가 더해져서 정보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 '동태적' 장치를 채택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부정부사 不、沒는 사용할 수 없다[23]는 점이다. 대상 또는 상황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5. 나오기

일반적인 한정명사주어문과 달리, 중국어 一+量+名주어문은 정보 전달대상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화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로써, 전체 내용을 신정보로 처리하면서 청자의 고도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진술하는 상황, 사건에 대한 대상을 확정하지 않는다.

---

22) 沈家煊(2001)재인용.
23) 魏紅・儲澤祥(2007)참조.

이로써 제공된 많은 신정보들을 통해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진술한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一+量+名주어문은 "有"+无定名詞主語, 존현문과 공통점도 있지만, 전체 문장이 '초점화'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존현문,"有"+无定名詞主語句, 一+量+名주어문의 통사, 의미, 화용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2>

	句法、語義	語用
存現句	①處所+VP+NP ②VP는 동사의 '정태적'의미 활성화. (존현동사) ③NP는 대부분 비한정(无定)	①중국어 정보구조의 일반적 어순 '구정보-신정보'순서에 부합. 그러나 이때 신정보의 양은 화자가 청자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에 한정됨. ②'존현동사', 즉 존재, 출현, 소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로 사용이 제한, '정태적' 사건, 상황 전달에 적합.
"有"无定名詞主語句	①"有"+NP(一+量+名)+VP ②"有"는 한정표지사로써, 뒤의 NP에 한정성을 줌. ③VP는 정태, 동태 모두 표현 가능.	①한정표지사 "有"의 작용으로 주어의 한정성을 확보하여, 주어는 구정보, 술어는 신정보의 중국어의 일반적 정보구조에 부합. ②동사 사용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태적, 동태적 상황, 사건 전달에 모두 적합.
无定名詞主語句	①NP1(一+量+名) + VP + NP2 ②VP는 동사의 '동태적'의미 활성화. 부사어나 보어를 수반함.	①주어가 신정보이기 때문에, 술어 성분의 더 많은 신정보를 요구.[24] ②동사가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부사어, 보어 사용 요구. 동태적 상황 묘사, 객관적 대상 판단에 적합.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비한정명사주어문은 화용의 정보전달 구조 측면에서 화자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의도적 장치이다. 화자의 이중 판단이 전제되는 주제 판단과, 단순 판단이 전제되는 일반 판단에서 비한정명사주어문은 후자에 속하는 형태로 이는 정보 전달의 객관성과 동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화자의 담화 책략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핵심어> 指称，无定NP主語句，信息結构，存現句，客觀性，動態性

<참고문헌>

남궁량석(2000), 中國語 초점에 관한 연구, 中國學硏究 第18緝, 263-283

백은희(2005), 중국어 정보구조 구현방법에 대한 연구,中國語文學誌 第17輯, 551-573

백은희(2006), 중국어 비한정 주어 출현 현상에 대한 연구, 中國文學 第47輯, 197-208

백은희(2007), 중국어의 문장구조는 논리판단의 유형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中國言語硏究 第24緝, 367-387

陳平(1987)，釋漢語中与名詞性成分相關的四組概念，中國語文 第2期, 81-92

陳平(1994)，試論漢語中三种句子成分与語意成分的配位原則，中國語文 第3期, 161-168

陳平(2004)，漢語双向名詞句与話題-陳述結构，中國語文 第6期, 493-507

蔡維天(2004)，談“有人”“有的人”和“有些人”, 漢語學報 第2期, 16-25

范継淹(1985)，无定NP主語句，中國語文 第5期, 321-328

方梅(1995)，漢語對比焦点的句法表現手段，中國語文 第4期, 279-288

古川 裕(2001)，外界事物的“顯著性”与句中名詞的“有標性”，当代語言學 第4期, 264-274

顧陽(1997)，關于存現結构的理論探討，現代外語 第3期, 15-25

姜望琪(2011:第5次印刷)，《当代語用學》，北京大學出版社，北京, 57-83

劉丹青(2011)，“有”字領有句的含義傾向和信息結构，中國語文 第2期, 99-109

劉丹青・徐烈炯(1998)，焦点与背景、話題及漢語“連”字句，中國語文 第4期, 243-252

24) Grice의 대화함축 이론 중에 ‘양의 격률’. 江望琪(2011:57-83)참조.

李臨定(1985)，動詞的動態功能和靜態功能，漢語學習 第1期, 6-10
任鷹(2000)，靜態存在句中“V”了等于“V着”現象分析，世界漢語教學 第1期, 28-34
任鷹(2007)，《日本現代漢語語法研究論文選》中 <存現句的句式特征及其語序原則>，北京語言大學出版社，北京, 184-204
沈家煊(1995)，“有界”与“无界”，中國語文 第5期, 268-275
沈家煊(2001)，語言的“主觀性”和“主觀化”，外語教學与研究 第4期, 367-380
沈園(2000)，邏輯判斷基本類型及其在語言中的反映，当代語言學 第3期, 125-137
石毓智(2001)，漢語的主語与話題之辯，語言研究 第2期,82-91
王紅旗(2011)，“指称”的含義，漢語學習 第6期, 3-12
魏紅・儲澤祥(2007)，“有定居后”与現實性的无定NP主語句，世界漢語教學 第3期, 38-51
袁毓林(2012)，《漢語句子的焦点結构和語意解釋》，商務印書館，北京, 1-39
溫鎖林(2012)，“有+數量結构”中“有”的自然突顯功能，中國語文 第1期, 29-37
張斌(2005)，《現代漢語語法十講》，夏旦大學出版社，上海，196-238
張新華(2007)，与无定名詞主語句相關的理論問題，北京大學學報 第6期, 103-111
鐘小勇(2011)，話語指称研究說略，浙江學刊 第3期, 137-140

退溪 詩에 끼친 중국 古典詩의 영향
-李白 詩를 중심으로-

동의과학대학교(정원호)

<목차>

1. 들어가며
2. 중국의 漢詩 작가와 退溪
2.1. 陶淵明
2.2. 杜甫
2.3. 朱熹
3. 李白 詩의 수용 양상
4. 나오며

1. 들어가며

조선에서 유학이 주자학으로 귀일하고 사상 및 신앙의 통일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이 대세를 타고 그것을 더욱 원활하게 이끌고, 마침내 조선에서 유학을 가장 번성하게 한 이가 바로 退溪 李滉이다.[1)]

퇴계는 여러 학자들의 학문을 집대성하여 위로는 先賢의 갈침을 이어 받았고, 아래로는 장차의 학문을 열어 孔孟程朱로 이어지는 학통을 다시 세상에 빛나게 하여 유학의 전파와 발전에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2)]

그는 평생 주자의 誠과 實의 學을 달성하려고 敬을 그 학문의 요체로 삼아,[3)]도학자적인 삶을 이어갔다.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사장(詞章)은 經學의 지엽으로 여겨졌었다.[4)]즉 도학 수련에 도움이 되는 경서와 근사록 심경 등의 서적과 역사서적 등의 독서를 위주로 하여왔다. 詩歌 창작의 겨우 本業보다는 枝葉으로 여기는 수가 많았으며, 이 역시 단순히 경물을 읊는다든지 혹은 감정의 노출은 억제하여 왔다. 대개의 시에는 자신의 본받고 싶은 대상이나 내면의 수양의 정도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시가는 공자가 “시를 배우지 아니하면 말을 할 수가 없으며(不學詩, 無以言)”[5)] “사람으로서 <周南>·<召南>을 배우지 아니하면 담을 마주 대하고 서있는 것과 같다.(人而不爲<周南><召南>, 其猶正牆面而立也與.)”[6)]라고 한 것처럼, 《詩經》을 숙지하고 있다는 것은

1) 도오루지음, 조남호옮김, 《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9, 215쪽.
2) 황덕창, <퇴계선생의 관직에 임하는 태도를 논함>, 《退溪學論叢》3집, 1997, 173쪽.
3) 배종호, <한국철학에 있어서의 이퇴계의 위치>, 《퇴계학보》43집, 1984, 27쪽.
4) 況詞章者, 經學之枝葉也, 抑安有不知根本而工製述者乎?《세종실록》29년(1447) 1월 4일 2번째 記事
5) 《論語·季氏》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문화적 수준과 교양의 정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이었다.[7]

퇴계는 <答李廣仲>에서 “예로부터 어찌 詩書를 배우지 않고 理學에 다다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학문을 함에 있어서 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8]

이와 같이 《詩經》을 宗旨로 삼는 시가 문학은 조선의 도학자들에게도 자신의 인품이나 덕성을 표출하는 또 하나의 문학장르로 자리매김하였다. 즉 감성적 표현 가운데에서도 인생에서의 도학적 의의를 시가 속에 새겨넣어, 단순한 경물 표현 위주의 시가들과는 그 경계를 달리하였던 것이다.

道學의 巨峰으로서의 퇴계도 도학자 일반이 그러하듯이 시는 末技라 하고, 문예에 工巧하려는 것은 儒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시 또는 문학에 대한 도학의 상대적인 우위를 강조한 말일 뿐이다. 도학자들은 실은 문학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문학의 어떤 경향, 이를테면 조탁, 기교, 지나친 격정 따위를 배격했을 뿐이다.[9]

그러나 漢詩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文人들에게는 자체적인 詩學의 전통이 없었으므로 문학수련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중국의 詩學 내지 詩人과 관계를 맺어왔다.[10]

儒家의 傳統的 詩敎인 溫柔敦厚를 하나의 宗旨로 삼은 퇴계의 시는 그의 시집 가운데 실린 二千餘篇 중에 陶淵明과 杜甫에게서 받은 영향이 컸으며, 그 외 白居易·歐陽脩·蘇軾 등 諸家의 장점을 섭취하였고, 만년에는 朱熹의 시를 좋아하였다.[11]

본고에서는 퇴계의 시에 영향을 끼친 중국의 시가 작품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陶淵明과 杜甫, 그리고 朱熹의 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본 뒤, 이 세 작가에 비해 비교적 연구가 덜 진행된 李白의 시가 퇴계에 끼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진행되어 있는 연구들은 대개 중국 작가들의 작품에서 어떤 시구 혹은 시어를 취하여 그 전고로 삼았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시인의 빼어난 시 일부를 취해왔더라도 서로 다른 두 작가의 기질 · 환경 · 생활방식 · 사상에 따라 같은 소재나 제재라도 작품에서 다르게 형상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퇴계는 자신의 시에 李白의 시를 어떻게 접목시켜 자신의 시로 내면화시켰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李白 같은 경우 그 시풍이 지니고 있는 도가적 신선사상과 거침없는 호방함이 평생 경학 연구에 몰두하며 자신의 내재적 수양을 일삼아 온 도학자의 내면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경학자 혹은 도학자로서의 퇴계에 대한 이미지 외에 또 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접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6) 論語·陽貨》

7) 정원호, 《《朝鮮王朝實錄》의 《詩經》活用例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쪽.

8) 自古安有不學詩書底理學也.《退溪先生全書》續內集 卷五十一, <答李廣仲>. 이연세, <退溪 詩歌의 風格 ‘平淡’에 관한 硏究>, 《퇴계학연구》6집, 1992, 150쪽.

9) 이동환, <退溪의 詩 에 對하여>, 《퇴계학보》19집, 1978, 272-273쪽 참조

10) 이병한, 《增補漢詩批評의 體例硏究》, 통문관, 1985, 48쪽.

11) 이가원, <退溪詩의 特徵>, 《퇴계학보》43집, 1984, 7-14쪽.

2. 중국의 漢詩 작가와 退溪

조선시대 漢詩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文人들에게는 자체적인 詩學의 전통이 없었으므로 문학수련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중국의 詩學 내지 詩人과 관계를 맺어왔다.[12)]
이 가운데에서도 東晋의 陶淵明은 조선시대 退溪와 南冥 이후 출사보다는 재야에서 자신의 도학 수양에 더 가치를 둔 유학자들에게 시가 창작을 통한 재야 은둔에의 모범적 길을 제시하여 주었으며, 시에서의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唐의 杜甫는 시가 창작의 교과서로서의 유학자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할 필수 단계로 인식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장려되어왔으며, 조선 유학의 절대 지주인 朱熹는 시가와 도학의 결합을 통하여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경학 이외에 시가를 통해서도 도학 수련의 단면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었다.
물론 이 세 사람을 제외한 중국의 수많은 시 작가들이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온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본 장에서는 퇴계의 시에 끼친 중국의 고전 시가 가운데 가장 영향이 큰 陶淵明, 杜甫, 朱熹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 작가를 거론하기 전에 남방 초나라의 애국 충절의 상징적 시인인 屈原의 시 한편을 살펴보자.
<濯纓潭>

漁父當年笑獨醒　　어부는 당시에 홀로 깨어있음을 비웃었으니,
何如孔聖戒丁寧　　성인 공자의 곡진한 가르침은 어떠한가.
我來叩枻吟風月　　내가 와서 뱃전을 두드리며 풍월을 읊으니,
卻喜淸潭可濯纓　　맑은 못에 갓끈 씻을 수 있음이 기쁘다네.

이 시는 屈原의 <漁父辭>에 나오는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으면 되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면 된다오."[13)]라는 구절을 차용한 것으로 '홀로 깨어있음[獨醒]', '맑은 못[淸潭]', '갓끈 씻음[濯纓]'으로 그 시대에 처하는 퇴계 스스로의 처세관을 <漁父歌>의 내용을 통해서 반추해 내고 있다.

2.1. 陶淵明

퇴계는 어린 시절부터 도연명의 시를 좋아했고 그 사람됨을 사모하였다.[14)]1534년 3월에 大科에 급제하여 34세에 처음으로 承文院權知副正字라는 벼슬로 관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불과 10여년도 되지 않은 43세 때 남명 조식에게 보낸 편지에 집이 가난하고 모친이 노쇠하였기 때문에 친구들의 강권으로 억지로 과거에 참여하여 벼슬살이를 하였다고 기술하였다.[15)] 이후로는 조정으로부터 여러 차례 관직 수여를 받았으나 수시로 병을 핑계로 나가지

12)　　, 《增補漢詩批評의 體例硏究》, 통문관, 1985, 48쪽.
13)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14) 정순목, <광뢰본 퇴계선생 연보보역주>, 《퇴계학보》63집, 1989, 159쪽.
15) "與曹南冥書云, 某自少都有慕古人之心, 緣家貧親老, 親舊强使之, 由科第取利祿."《增補退溪全書》3, <年譜>권 1, 579쪽 상. 全樂熙, <退溪의 政治生涯>,《退溪學硏究》11집, 1997, 39쪽.

아니하였다. 46세에 禮賓寺正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고향의 동쪽 바위 위에 養眞菴을 짓고 속명 兎溪라는 시내의 兎字를 退로 고치고 退溪라 自號하며 은거하였다.[16]

이러한 퇴계의 출사와 은거는 도연명과 매우 유사하다. 이가원은 퇴계의 시 가운데 도연명과 두보에게서 받은 영향이 커서, 그의 시 二千餘篇 중에 陶杜에 가까운 理趣와 調格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 특히 도연명의 <桃花源記> 중의 故事를 援用하여 순수한 조선시 <淸凉山歌>도 지었다고 하였다.[17]

陶淵明과 관련된 퇴계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陶山書堂>

大舜親陶樂且安　　순임금 몸소 그릇 구워 즐겁고 편안했네,
淵明躬稼亦歡顔　　陶淵明 몸소 농사지어 또한 즐거웠다네.
聖賢心事吾何得　　성현의 심사를 내 어찌 터득하겠냐마는,
白首歸來試考槃　　백수로 돌아와 은거하며 지내리라.

<和陶集飮酒二十首 -其五>

我本山野質　　나는 본래 산과 들의 기질을 타고나,
愛靜不愛喧　　고요함을 사랑하지 시끄러움은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愛喧固不可　　시끄러움은 본래 옳지 않지만,
愛靜亦一偏　　고요함을 좋아하는 것 또한 한쪽으로 치우쳤다네.
……

<和陶集飮酒二十首 -其八>
……
酒無獨飮理　　술은 홀로 마시는 도리 없으나,
偶興聊自爲　　우연히 흥이 돋아 스스로 즐겨보니.
陶然形迹忘　　도연히 형적을 잊어버렸으니,
況復嬰塵羈　　하물며 다시 먼지 굴레에 휩싸이리오.

이 세 편의 시에서 退溪는 陶淵明에 대한 영향을 스스로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첫 번째 시<陶山書堂>에서는 出仕한지 13년 만에 벼슬자리를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가 몸소 농사를 지은 陶淵明을 묘사하였다.

두 번째 시<和陶集飮酒二十首-其五>에서는 "나는 본래 산과 들의 기질을 타고났다[我本山野質]"이라고 하여 陶淵明의 <歸園田居其一>에 나오는 "어려서부터 세속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천성은 본래 언덕과 산을 좋아하였다.[少無適俗韻, 性本愛邱山.]" 구절을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세 번째 시<和陶集飮酒二十首-其八>의 "술은 홀로 마시는 도리 없으나, 우연히 흥이 돋아 스스로 즐겨보니[酒無獨飮理, 偶興聊自爲]" 에서는 그 내용이 陶淵明의 <飮酒>20首 서

16)　　, 41쪽.
17) 이가원, <退溪詩의 特徵>, 《퇴계학보》43집, 1984, 13-14쪽.

문에 “한가로이 거처하노니 즐거움은 적고, 밤은 이미 깊어가는데, 우연히 名酒가 있어, 밤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때가 없노라.][18]라고 하며 음주시를 짓게된 배경을 읊는 분위기와 흡사하다. 마지막 구절인 “하물며 다시 먼지 굴레에 휩싸이리오[況復嬰塵羈]”는 陶淵明의 <飮酒-其八>에 나오는 “우리의 삶은 꿈과 환상이거늘, 어찌 먼지 굴레에 매이리오.[吾生夢幻間, 何事紲塵羈]”의 구절의 시상과 거의 일치한다. 시집 안의 순서도 동일하게 제 8편에 넣어 퇴계의 의도적인 구상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和陶集飮酒二十首-其二>에는 “홀로 한 잔의 술을 따르며, 한가로이 陶淵明과 韋應物의 시를 읊조려보네.[獨酌一杯酒, 閒詠陶韋詩]”이라고 하여 시 속의 구절에 직접 陶淵明을 떠올리며 홀로 술을 마시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퇴계가 陶淵明의 <飮酒>二十首에 和韻한 <和陶集飮酒二十首>를 지었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식을 마음으로 따르고 그것을 자신의 시로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栗里歸耕>·<栗里隱居>·<次韻金道盛三絶> 등은 모두 陶淵明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작품이다.[19]

2.2. 杜甫

퇴계의 시에 끼친 두보의 영향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두보는 비단 퇴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유학자라면 누구나 애국충정과 백성을 사랑하는 시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시에서의 율격에 엄격한 그의 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퇴계도 그의 시집 곳곳에서 두보와 관련된 작품을 남겼다.

栗里賦成眞樂志, 草堂改罷自長吟. [도연명은 시를 짓고 나면 참으로 즐거워하였고, 두보는 시를 고치고 나면 스스로 길게 읊조렸다네.][20]

把酒李生吟且問, 傷時杜老坐無眠. [술잔 잡은 李白은 시를 읊조리다 묻고, 시국을 근심하는 두보는 앉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21]

賀公若得歸吳地, 杜老寧辭食楚萍. [하공이 오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두보가 어찌 초강의 부평초 먹기를 사양하리오.][22]

杜陵枉費天工句, 直待逋仙作已知. [두보가 하늘이 빚어낸 시구를 공들였으니, 신선 임포가 나를 알아주기만을 기다릴뿐.][23]

陶公止酒還思酒, 杜老懲詩更詠詩. [도연명은 술을 끊다가도 다시 술을 그리워하고, 두보는 시를 징계하고도 다시 시를 읊네.][24]

詞壇杜陵客, 見子亦難今. [시단의 두보와 같은 나그네여, 그대를 만나기가 지금도 역시 힘들구료.][25]

---

18) , 兼比夜已長, 偶有名酒, 無夕不飮……

19) 이가원, <退溪詩의 特徵>, 《퇴계학보》43집, 1984, 14쪽.

20) <吟詩>

21) <玩月>

22) <十三 抵醴泉 再辭待命 呻吟之餘 見軒有己酉經行拙句 有感二絶>

23) <從姪憑索詠園中花卉>

24) <隆慶丁卯踏靑日 病起 獨出陶山 鵑杏亂發 窓前小梅一樹 皓如玉雪團枝 絶可愛也.>

25) <春日江村 老杜韻-其一>

堪笑乾坤一草亭, 杜陵詩句我平生.[하늘과 땅 사이 한 초당으로 즐거워하던, 두보의 시구 나의 평생 바램이었네.][26]

이상에서 두보 혹은 두보와 도연명 그리고 두보와 이백 등을 함께 언급한 여러 시편에서 퇴계의 두보시에 대한 경앙심을 엿볼 수 있다.[27]

2.3. 朱熹

朱熹는 조선 유학의 정신적 이념으로 존숭되었었는데, 퇴계가 奇大升에게 보낸 글에서 그 신망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

"……고인이 말하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감히 스스로를 믿지 말고 그 스승을 믿으라고. 주자는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요, 또한 천하 고금의 宗師입니다."[28]

특히 만년에 들어와서 주자의 시를 특히 좋아하여 門人 鄭惟一은 퇴계에 대해"어려서는 두보의 시를 배웠고, 만년에는 주자의 시를 좋아하였다."라고 하였다.[29] 특히 후진 양성을 위해 만년을 보낸 도산서당의 堂과 臺에는 주자의 詩文에서 따온 이름이 허다하다.[30]

장세후의 연구에 따르면 퇴계는 43세 때 주자의 시에 처음 次韻하여 66세가 되도록 계속 이어졌다고 하였다. 특히 주자가 55세에 지은 <武夷櫂歌>시에 대하여 퇴계는 47세에 화답하였는데, 이 작품에 대해 10년이 지나도록 지속적으로 제자들과 토론을 하였을 정도로 퇴계의 주자시에 대한 존경심을 엿볼 수 있다.[31]

퇴계의 작품에 주자의 시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살펴보면 그 존모하는 만큼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32]

장세후는 "퇴계가 주자의 시에서 전고를 취한 것"이라는 장을 별도로 두어, 1)한 구 전체를 전고로 따온 것. 2)시구의 일부를 고쳐 쓴 것. 3)두 구절 이상에서 따다 쓴 것. 4)전고이 출처가 같은 것. 5)같은 시어를 취한 것으로 구분한 뒤, 주자와 퇴계의 시 예문을 실례로 제시하며 자세히 고증하여 놓았다.

김주한은 <退溪의 朱子詩 理解>에서 특히 <武夷櫂歌>시를 중심으로 하여 번역과 함께 자세히 연구를 진행하였다.

---

26) <　　-其二>

27) 2-2)퇴계의 시에 끼친 두보의 영향편에서의 選詩는 이정화, <退溪 李滉 詩에 나타난 杜詩 수용 양상>, 《한국사상과 문화》55집, 2010, 10-28쪽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28) ……古人不云乎? 不敢自信而信其師. 朱子吾所師, 亦天下古今之所宗師也. <答奇明彦 論四端七情 第一書. 增補 退溪全書 冊一, 卷十六 書 407. 김주한, <退溪의 朱子詩 理解>, 《한민족어문학》10집, 1983, 48쪽. 재인용.

29) 少嘗學杜詩, 晩喜晦庵詩. 《退溪先生言行錄》권5<類編·雜記>. 장세후, <退溪의 朱子詩 受容>, 《퇴계학보》93집, 1997, 20쪽. 재인용.

30) 장세후, 21쪽.

31) 장세후, 36-39쪽.

32) 장세후, 上揭書. 김주한, 上揭書.

3. 李白 詩의 수용양상

<喜林大[33]樹見訪論詩>

玄冬逼歲除	겨울이 섣달그믐을 재촉하니,
急景馳西沒	짧은 햇살 서쪽으로 몰리듯 사라지네.
愁人臥窮巷	시름에 겨운 사람 후미진 골목에 누워,
寂寞抱沈疾	적막하니 깊은 병을 앓으며 침잠해있네.
舊來人不來	오랫동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門前雀羅設	문 앞에는 참새 그물 펼쳐놓았네.
寧知打寒扉	어찌 알았으리오 차가운 빗장 두드리며,
忽枉長者轍	홀연히 장자께서 방문해 주실 줄을.
……	
開懷聽其言	가슴을 열고 그의 말을 들으니,
矍鑠何恢豁	기개가 넘치고 얼마나 활달한지.
學詩追甫白	시를 배움에는 杜甫와 李白을 뒤쫓고,
學道慕莊列	도를 배움에는 莊子와 列子를 흠모한다네.
……	
意欲奪天弢	뜻은 조물주의 활집도 빼앗아,
去入無窮闥	무궁의 문으로 들어가려 하네.
汗漫九垓外	아득한 구천 밖으로 발걸음 돌리다보면,
浮游樂未畢	떠도는 즐거움 끝나지 않는다네.
自非聖於詩	스스로 시에 있어 성인이 아니라면,
法度安可輟	법도를 어찌 버릴 수 있으리오.
……	

시상 전개를 보면 한 해가 저물어가는 깊은 겨울 석양 무렵에 退溪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드문 후미진 궁벽한 곳에 다병한 몸[34]을 기대어 한가로이 거처하고 있다. 그 때 그를 찾아온 知人인 石川과 교유하는 장면에서 그 사람의 인품과 학문에 대해서 전개하는 장면이 나온다.

퇴계는 그에 대한 묘사에서 杜甫와 李白 그리고 莊子와 列子를 언급하였다. 이어서 한 곳에 매이지 아니하고 시를 쓰며 천하를 주유하는 그의 모습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汗漫九垓[머나먼 구천 밖]"이라는 구절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李白의 시 <廬山謠寄盧侍御虛舟>에서 그 출전을 엿볼 수 있다.

---

33) 林億齡(1496-1568)은 해남 출신의 조선 중기 호남시단의 거목으로 李白을 배운 호방한 漢詩風과 250여 수에 달하는 漢詩 작품으로 최경창, 백광훈 등에게 唐風의 餘響을 끼쳤다. 大樹는 그의 字이다.
김동준, <石川 林億齡의 生涯와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4집, 1999, 421쪽.

34) 퇴계는 20세가 되던 해에 《주역》을 침식을 잊고 너무 독실히 연구하다가 몸이 마르고 쇄약해지는 병에 걸려 평생토록 고생했다. 讀周易 講究其義 殆忘寢食 自是常有羸悴之疾. (年譜 576) 이성무,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 《대한민국학술원 논문집》제47집 제 1호, 2008, 105쪽.

我本楚狂人　　나는 본래 초나라의 미친 사람으로,
鳳歌笑孔丘　　봉황의 노래로 공자를 비웃는다네.
手持綠玉杖　　손에는 푸른 옥지팡이 짚고,
朝別黃鶴樓　　아침에 황학루를 떠나왔다네.
五岳尋仙不辭遠　　오악의 신선을 찾아 먼 곳 마다하지 않고,
一生好入名山游　　평생 명산이 좋아 유람하였네.
……
早服還丹無世情　　일찍이 환단을 복용하여 속세의 정 사라지고,
琴心三疊道初成　　온화한 기운을 쌓으니 도가 비로소 이루어졌다네.
遙見仙人彩雲裏　　멀리 채색구름 사이로 신선이 보이는데,
手把芙蓉朝玉京　　손에 연꽃을 쥐고 옥황상제를 뵈러 가네.
先期汗漫九垓上　　먼저 아득한 구천 밖에서,
願接盧敖游太淸　　盧敖처럼 천상에서 노닐 것을 기약하였다네.

李白의 이 시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 연의 첫 구절의 “先期汗漫九垓上”에서 아득한 구천에 해당하는 네 글자인 “汗漫九垓”는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다음 구절의 “游”도 동일하게 취하여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유람하는 시상의 분위기를 따왔음을 알 수 있다.

퇴계의 시가 李白의 시에서 해당 구절을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로는 石川의 <客軒鑿池種蓮>의 시에 잘 드러나 있다.

我本江海人　　나는 본래 바닷가 사람으로,
平生酷愛水　　평생 물을 무척 사랑하였네.
作吏山谷中　　산골짝에 관리가 되니,
如魚在陸地　　마치 물고기가 육지에 있는 듯 하였다네.
……35)

石川의 이 시를 보면 앞에 언급한 李白의 시를 연상하면서 시의 도입부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李白의 “나는 본래 초나라의 미친 사람[我本楚狂人]”과 石川의 “나는 본래 바닷가 사람[我本江海人]”, 李白의 “평생 명산이 좋아 유람하였네[一生好入名山游]”와 石川의 “평생 물을 무척 사랑하였네[平生酷愛水]”가 거의 유사하다. 퇴계도 石川의 이 시를 떠올리면서 李白의 같은 시에서 구절을 취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記夢>

虛窓寂寂夜如水　　빈 창은 고요히 밤은 물처럼 흘러가고,
一枕夢中千萬里　　한 밤 꿈속에서 천만리를 날아가네.
流觀楚越窮岷峨　　초나라와 월나라를 스쳐 아미산에 나아가서,
掣帆江海連天河　　강 바다 돛단배 쏜살같이 은하수에 다다랐네.
淸都館闕空中起　　하늘나라 궁궐은 허공에 솟아 있고,
玉皇高居五雲里　　옥황상제는 오색구름 속에 높이 거처해있네.

35)　石川集》, 223면. 김동준, 429쪽.

飛仙縹緲顔婥約　　아득히 날아가는 신선의 얼굴 곱기만 한데,
邀我共勸流霞酌　　나를 불러 함께 유하주를 마시자고 권하네.
下界塵緣一念餘　　속세의 때묻은 인연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
忽然下墮形蘧蘧　　갑자기 속계로 떨어지니 육신이 화들짝 놀라네.
朝來市聲鑒耳側　　아침이 되어 저자의 시끄러운 소리 귓전을 울리니,
更憶淸都那易得　　다시 하늘나라 그리우나 어찌 갈 수 있으려나.
……

<記夢>을 보면 제목이 "꿈에 본 것을 적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李白의 <夢游天姥吟留別>시를 차용한 것이다. 이 시의 원문을 살펴보자.

海客談瀛洲　　바닷가 사람들 늘 신선이 사는 영주를 이야기 하지만,
煙濤微茫信難求　　안개 물결 아득하여 실로 찾기 어렵다네.
越人語天姥　　월나라 사람들 천모산을 말하지만,
雲霓明滅或可睹　　구름과 무지개 속에 언듯언듯 어쩌다 볼 수 있을 뿐.
……
我欲因之夢吳越　　나는 그 말에 기대어 꿈에 吳越로 가는데,
一夜飛渡鏡湖月　　한 밤중 경호의 달 아래로 날아가네.
湖月照我影　　호수의 달은 나의 그림자를 비추며,
送我至剡溪　　나를 섬계까지 바래다주었네.
……
洞天石扇　　신선 사는 곳의 돌문이,
訇然中開　　우르릉 쾅 소리내며 열리네.
靑冥浩蕩不見底　　푸른 하늘 아주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데,
日月照耀金銀台　　해와 달은 금은대를 비추고 있네.
霓爲衣兮風爲馬　　무지개로 옷을 삼고 바람으로 말을 삼아,
雲之君兮紛紛而來下　　구름의 신령들이 어지러이 내려오네.
虎鼓瑟兮鸞回車　　호랑이는 瑟을 캐고 난새는 수레를 몰아,
仙之人兮列如麻　　신선들이 삼대처럼 줄지어 늘어섰네.
忽魂悸以魄動　　갑자기 혼이 두근거리고 넋이 움직여,
恍驚起而長嗟　　멍하니 깜짝 놀라 일어나서 길게 탄식을 하네.
惟覺時之枕席　　다만 깨어보니 베개와 이부자리 그대로인데,
失向來之煙霞　　꿈속의 안개와 무지개 온데간데없네.
世間行樂亦如此　　세상의 즐거움은 또한 이와 같거늘,
古來萬事東流水　　옛날부터 모든 일은 동으로 흘러가는 물일세라.
……

두 작품의 시상을 비교해보면, "夢"과 "仙"이 동일하다. 두 편 모두 꿈을 이야기 하며, 등장인물로 신선이 나온다. 꿈에서 두 편 모두 단숨에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 장소 또한 퇴계는 "楚越[초나라와 월나라]", 李白은 "吳越[오나라와 월나라]"로 서로 유사하다.

꿈에서 두 편이 모두 나아가고자 하는 곳이 도교에서 일컫는 하늘나라이다. 현실에서 걷는 더딘 행보와 매인 육신에 대한 일탈의 욕망이 꿈을 빌려 신선이 사는 하늘나라로 자유로이

날아가는 자아의 반영을 표현하고 있다. 퇴계는 40대에 접어들어 줄곧 도잠의 귀원전거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본인 또한 관직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은거하고자 하였다.[36] 임금이 관직을 줄 때마다 사양하거나 나아가도 잠시 있다가 다시 고향 예원으로 되돌아와서 학문에 열중하였다.

평생 자신에게 엄밀한 도학자로서의 삶을 추구한 작가에게도 현실과 이상에의 괴리로 인한 번민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때 천상천하 자유자재한 선계를 표현한 이백의 시를 차용하여 본인의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두 작품은 결말에 모두 꿈에서 깨어나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퇴계는 "몸이 움찍 놀란다는 표현[形蘧蘧]"을 하였고, 李白은 "혼백이 두근거려 깜짝 놀라 깨어난다는 표현[驚起]"을 하였다. 현실로의 복귀가 모두 어쩔 수 없는 귀환임을 표현한 것이다. 이어서 퇴계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였고, 李白 역시 인생이란 한번 흘러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동으로 흘러가는 물과 같다는 표현으로 결말을 맺었다.

이와 같이 이 두 작품은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와 전개방식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볼 때 퇴계가 李白의 작품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본인의 시상을 전개해갔음을 알 수 있다.

<吳宜寧公三友臺>取擧杯邀明月。對影成三人之義而名之也。

長年臥不出　　여러 해 누워 나가지 않으니,
綠苔上門隅　　푸른 이끼 문 모퉁이 위로 번져있네.
旣無車馬喧　　수레와 말의 시끄러운 소리 없으니,
聊爲靜者徒　　절로 고요한 무리가 되었다네.
中庭作小臺　　뜰 가운데 작은 누대를 만들어,
我友自虛無　　스스로 虛無와 벗한다네.
遙遙三五夜　　아득한 보름 밤에,
皎皎慰情孤　　교교한 달빛 외로운 심사를 위로하더니,
粲然出海來　　찬연히 바다에서 나와,
臨風催玉壺　　바람을 맞이하며 옥 술병을 재촉하네.
黯然在吾傍　　[그림자는] 살포시 내곁에 다가와,
俛仰與之俱　　고개를 드나 숙이나 함께 한다네.
倂我作三人　　[어느덧] 나와 더불어 세 사람이 되어,
佳期良不渝　　아름다운 순간 진실로 변함이 없으리.
擧酒宛相對　　술잔 들어 완연히 서로 마주하니,
及時行樂娛　　때에 맞추어 즐거움을 누려봄세.
我飮月爲勸　　내가 마시면 달은 나에게 술잔을 권하고,
我醉影爲扶　　내가 취하면 그림자는 나를 떠받드네.
人間與碧落　　사람과 푸른 하늘 저 달이,

36)　　. 田園春事作, 野興濃於玆. 向來樗散質, 平生丘壑期. …… <三月病中言志>
思慕하는 바 어찌 가벼운 갖옷과 살찐 말이랴. 田園의 봄일 시작되었으니, 들판의 興趣 이에 무르익으리. 여태 쓸모없던 資質. 평생 丘壑을 期約했었네. 《국역퇴계전서 12》, 335면. 이 시는 퇴계가 1543년에 즉 그의 나이 43세에 지은 작품으로 出仕를 벗어나 귀은하고자 하는 심정이 피력되어있다. 이재일, 《李滉의 自然詩 硏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95쪽 참조

有情各盡輸　　있는 정 제각각 쏟아놓는다네.
酣歌且揮手　　취하여 흥겨이 노래하고 춤을 추니,
孰爲彼與吾　　누가 너이며 누가 나인지 모를세라.
永結莫逆友　　영원히 허물없는 우정을 맺으니,
無言道已符　　말없이 도에 이미 부합하네.
春花映淸竹　　봄꽃은 푸른 대나무에 비치고,
秋露滴高梧　　가을 이슬은 높은 오동나무 가지에 떨어지네.
玆焉輒相邀　　이에 문득 서로를 맞이하니,
眞樂豈異趨　　참된 즐거움 어찌 다를손가.
世人恣徵逐　　세상 사람들 제멋대로 왕래하며,
疑我取友迂　　내가 어리석게 벗한다고 의심하네.
不有謫仙人　　인간세상에 귀양온 李白이 없었다면,
我言幾成誣　　나의 말은 거의 거짓이 되었을 터.

이 시편은 제목의 註에서 언급하였듯이, 퇴계가 李白의 <月下獨酌>에 나오는 "술잔 들어 밝은 달 초빙하니, 술과 그림자 그리고 나 어느덧 세 사람이 되었네."라는 뜻을 취하여 시의 제목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李白의 시를 살펴보자.

<月下獨酌-其一>[37]

花間一壺酒　　꽃 밭 사이에 한 호리병 술 가져다 놓고,
獨酌無相親　　친한 벗이 없어 나 홀로 술을 마신다네.
擧杯邀明月　　술잔 들어 밝은 달 초빙하노니,
對影成三人　　달과 그림자 그리고 나 어느덧 세 사람이 되었구료.
月旣不解飮　　달은 술을 마실 줄 모르고,
影徒隨我身　　그림자는 그저 나를 따라 다닌다네.
暫伴月將影　　잠시 달과 그림자를 벗하여,
行樂須及春　　이 봄 모름지기 즐거움을 누려봄세.
我歌月徘徊　　내가 노래하면 달은 내 주위를 배회하고,
我舞影零亂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는 나를 따라 어지럽구나.
醒時同交歡　　깨었을 때 즐거움 함께 나누다가,
醉後各分散　　취하고 나면 뿔뿔이 흩어진다네.
永結無情游　　영원히 정에 매이지 않는 사귐을 맺어,
相期邈云漢　　머나먼 은하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해봄세.

시 작품의 일부 한 두 구절이 아닌 전체 시상을 퇴계가 드러내놓고 지은 시 작품을 관찰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李白의 오언고시 14구를 퇴계는 오언고시 32구로 확충시켜 놓았다. 韻字를 살펴보면 李白은 시에서 前八句는 上平聲 11眞韻을 사용하고, 後六句는 去聲 15翰

37) 李白全集》에 같은 제목의 <月下獨酌>이라는 시가 네 수가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 시가 그 첫 번째이다.

韻으로 변화를 주었으며, 퇴계는 上平聲 7虞韻의 한가지 韻만 사용하였다.

두 작품 모두 달과 그림자를 의인화 시켜서 시의 제재로 삼았는데, 공간이 李白은 "꽃밭 가운데"이며, 퇴계는 "뜰 가운데의 작은 누대"이다. 두 작가의 심경은 李白은 친한 벗이 없는 "無"를, 퇴계는 "無"에 "虛"를 첨가하였다.

달을 벗으로 삼는 과정에서 李白은 술잔 들어 바로 "명월"을 벗으로 초대하였는데, 퇴계는 "달"에게 더욱 역동적 이미지를 부여하여 "찬연히 바다에서 나와, 바람을 맞이하며 옥 술병을 재촉한다."고 하였다. 즉 李白의 달은 李白의 요청에 의해서 다가온 수동적 이미지이며, 퇴계의 달은 스스로 虛無와 벗하고 있는 시적화자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선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李白의 달은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소극적 이미지인데 반해, 퇴계의 달은 "바람을 맞이하며 옥 술병을 재촉하는" 적극적 이미지의 달로 변모되었다.

계절은 두 작품 모두 봄의 행락철이다. 작품의 절정에 이르러 인간과 달과 그림자의 향연를 표현한 곳에서 李白의 벗인 달과 그림자는 모두 시적화자가 노래하면 주위를"배회하고", 춤을 추면 "나를 따라 어지러이 움직이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상인 반면에, 퇴계의 달과 그림자는 퇴계가 술을 마시면 "술을 권하며", 취하면 다가와서 "부축하는" 수평적 교류의 벗의 이미지로 진일보하였으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서로의 정감을 다 쏟아 부으며 흥겨이 노래하고 춤을 추니 "누가 너이며 누가 나인지"를 모르는 物我一體의 감정이입의 상태로 승화시켜놓았다.

시의 말미에 李白은 "담백한 우정을 맺어 인간의 세상이 아닌 은하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자고 하였고, 퇴계는 서로 "영원히 허물없는 우정을 맺으니" 그 자체가 이미 "봄꽃은 푸른 대나무에 비치고, 가을 이슬은 높은 오동나무 가지에 떨어지는" 천지자연의 道에 부합한 경지로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퇴계는 시의 말미에 가서 사람들이 침잠하며 내면의 수양을 쌓는데 주력하지 않고 서로 멋대로 어울리기만을 일삼으니, 자기와 같이 뜰의 한 자락에서 자연을 벗삼아 담백하고 고요한 정취를 즐기는 이러한 경계를 "인간 세상에 귀양온 李白과 같은 謫仙人이 아니었다면 누가 나의 이러한 경지를 알아줄 것인가"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매듭을 지었다.

한편 퇴계의 이 시에 나오는 제 3구인 "旣無車馬喧"은 陶淵明 <飮酒-其五>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사람들 사는 곳에 초가를 엮었으나, 수레와 말의 시끄러운 소리 들리지 않네.]"의 제 2구와 거의 같다. 이는 퇴계가 당시 이미 陶淵明의 전원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심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 퇴계의 나이는 관계에 진출하기도 전인 삼십대 초반에 불과하였다.[38]

陶淵明[39]은 29세에 江州 祭酒의 직책으로 벼슬을 시작하여 42세에 彭澤縣令을 끝으로 관계를 떠나서 田園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보냈다. 出仕의 기간은 13년에 불과하였다. 스스로 그 기간에 대해 "誤落塵網中 一去十三年[잘못 먼지 그물에 떨어져서, 한번 가니 십삼년]"[40]

---

38) 벼슬길에 나가기 한 해전인 1533년 계사년 33세 때 1월 29일 예안의 고향집을 출발하여 경상남도의 의령, 함안, 창원, 진주, 고양 등지를 돌며 4월 초순경에 예안의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2개월 남짓의 여행을 하였는데, 이를 '남행(南行)'이라고 명명하고 이 남행기간 동안 지은 109수 가량의 기행 시집을 엮어 《남행록》을 만들었다. 본 고에 나오는 이 <吳宜寧公三友臺>는 그해 2월 11일 종자형 죽오(竹塢) 오언의(吳彦毅, 1494~1566)를 방문하려고 의령 가례를 떠나 함안 모곡(茅谷)으로 가는 길에 의령 단암(丹巖)나루를 지나며 시를 짓고, 그곳에 며칠 머무는 동안 종자형 오언의와 오언의의 부친인 죽재(竹齋) 오석복(吳碩福, 1455~1533)등과 교유하였는데, 이때 지은 시이다. 정석태, <퇴계 연보:퇴계의 여행과 한시>, 《연보와 평전》 7집, 2012, 87-8, 92쪽.

39) 서기 365~427

40) 《歸園田居-其五》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젊은 시절에 퇴계가 이미 陶淵明과 李白을 떠올리며 이러한 시를 지었다는 것은 出仕의 길이 자신의 본령과는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가 전면적인 은거를 표방하기 시작한 43세에 지은 시 한편을 살펴보자.

<送金厚之修撰乞假歸覲, 仍請外補養親, 恩許之行>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鯤魚化作垂天翼　　곤어가 하늘에 날개를 드리운 붕새로 바뀌어.
九萬摶風竟奚適　　구만리 창공에 바람을 치며 마침내 어디론가 나아가는 것을.
下有區區斥鷃輩　　아래로는 구구히 쪼아대는 메추라기 새들이 있어,
搶榆控地皆眞樂　　느릅나무에 부딪혀 땅에 떨어져도 모두 참으로 즐거워만 하는 것을.
(5구)
又不見　　또 보지 못하였는가?
魏瓠種成實五石魏　　魏임금이 준 박씨로 五石이나 들어갈 큰 열매가 열리어,
不願爲瓢憂濩落　　원치도 않게 너무 커져버린 표주박을 근심하고 있는 것을,
何況作樽浮江湖　　하물며 큰 술통으로 만들어 강호에 띄우니,
却笑莊生未甚達　　도리어 장자가 그다지 통달하지 않았음을 웃고 있음을.
(10구)
我昔與子遊泮宮　　내 지난 날 그대와 함께 성균관에서 공부할 적에,
一言道合欣相得　　한마디에 도가 일치하여 서로 흔연히 함께했었지.
君知處世如虛舟　　그대는 처세가 빈 배와 같아야 함을 알았고,
我信散材同樗櫟　　나는 쓸모없는 재주는 가죽나무나 상수리나무와 같음을 믿었지.
當貴於我等浮雲　　부귀는 나에게 뜬 구름과 같아,
偶然得之非吾求　　우연히 얻어도 내가 구하던 바가 아닌 것을.
(16구)
……
旨賜宮醞塵飛鞚　　임금의 궁중 술 하사하니 나는 듯한 말 재갈에 먼지일고,
珍分御廚廩繼倉　　진귀한 안주 수라간에서 보내어오니 곳집에 연이었네.
昔人已云不敢當　　옛 사람도 이미 감당하지 못한다 하거늘,
矧余焉能不愧顔　　하물며 내 어찌 얼굴을 들고 부끄러워 않을손가?
(30구)
……
人生至樂君有之　　인생의 지극한 즐거움을 그대는 지녔으니,
具慶堂前舞綵衣　　양친 거처하시는 마루 앞에 색동옷으로 춤을 추리.
此外萬事何足道　　이 밖에 온갖 일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儻來軒冕如塵微　　별안간 찾아오는 수레와 면류관은 먼지 티끌일 뿐.
(40구)
……
須知王式本不來　　왕식은 본래 오지 않으려 했음을 모름지기 알아야 하며,
莫怪邴曼終難進　　邴曼容은 끝내 조정에 나가기 어려웠음을 탓하지 말게.

送君歸	돌아가는 그대를 보내며,
搔我首	나의 머리를 긁적이네.
爲君歌薄薄酒	그대를 위하여 <薄薄酒>노래를 부르나니,
相思莫惜寄玉音	그리움에 편지 한 통 아끼지 말게나.
我詩聊贈千金帚	애오라지 천금의 빗자루와 같은 나의 시를 바치리니.
	(51구)

이 시편은 전체적인 시의 전체적인 구조가 李白의 권주가인 <將進酒>를 연상시킨다. 해당 작품을 살펴보자.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黃河之水天上來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奔流到海不復回	세차게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함을.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高堂明鏡悲白髮	고대광실 맑은 거울 앞의 슬퍼하는 백발이,
朝如青絲暮成雪	아침에 푸른 실 같던 머리가 저녁에는 흰 눈이 되었음을.
人生得意須盡歡	인생이란 모름지기 뜻을 얻었을 때 한껏 즐길지니,
莫使金樽空對月	금빛 술잔을 달빛에 비워두지 말게나.
天生我材必有用	하늘이 나와 같은 재목을 내심에는 반드시 쓰임이 있으리니,
千金散盡還復來	천금은 다 뿌리면 다시 돌아오나니.
烹羊宰牛且爲樂	양을 삶고 소를 잡아 또 즐겨봄세.
會須一飮三百杯	모름지기 한잔 하려면 삼백잔은 해야지.
岑夫子	잠부자여!
丹丘生	단구생이여!
將進酒	술을 권하노니,
君莫停	그대는 잔을 멈추지 말게나.
與君歌一曲	그대를 위해 노래 한 곡 하리니,
請君爲我側耳聽	그대는 나를 위해 귀 기울여주게.
鐘鼓饌玉不足貴	종과 북 진귀한 음식 족히 귀할 것 없으리니,
但愿長醉不愿醒	다만 길이 취하여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노라.
古來聖賢皆寂寞	옛날부터 성현은 모두 적막하였거니,
惟有飮者留其名	다만 술마시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남겼노라.
陳王昔時宴平樂	진사왕은 옛날 평락관에서 연회를 잔치할 적에
斗酒十千恣歡謔	한 말에 만냥하는 술도 마음껏 즐겼나니,
主人何爲言少錢	주인장은 어찌하여 돈이 적다고 이르는가.
徑須沽取對君酌	곧장 가서 술을 사오시게, 그대와 마주 마시리니,
五花馬	오색 빛깔 말,
千金裘	천금의 갖옷
呼兒將出換美酒	아이 불러 맛난 술과 바꾸어 오시게,
與爾同消萬古愁	그대와 더불어 만고의 시름을 녹이리니!

중국의 고전시에서 “君不見”이 나오는 악부체의 시는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퇴계의 이 작품은 시의 내용과 전체적인 구조에서 이백의 <將進酒>를 염두에 두고 작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흔적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51句에 해당하는 퇴계의 해당 작품을 보면 서두에 “君不見[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이라 하여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어구를 31句로 구성된 李白의 <將進酒>와 같이 배치하였다. 李白의 시에서 “君不見”이라는 어구를 사용한 악부체의 시편이 몇몇 작품이 있기는 하나, 서두에 등장하는 작품은 <將進酒> 이외에 <少年行> 이라는 작품이 유일하다.[41]그러나 <少年行>에서도 “君不見”은 한번만 등장한다. 연이어 나오는 작품은 <將進酒>가 유일하다.

퇴계는 李白과 같이 작품의 서두에 “君不見”을 배치하고, 4 구 뒤에 “又不見”로 약간의 변화를 주었을 뿐 동일하게 배치하였다.

퇴계의 시 27-28구에 나오는 “임금의 궁중 술 하사하니 나는 듯한 말 재갈에 먼지일고, 진귀한 안주 수라간에서 보내어오니 곳집에 연이었네.[旨賜宮醞塵飛轡, 珍分御廚廩繼倉]”는 李白의 시 “종과 북 진귀한 음식 족히 귀할 것 없으리니[鐘鼓饌玉不足貴]”와 시상이 유사하다.

퇴계의 시 말미에 나오는 “돌아가는 그대를 보내며, 나의 머리를 긁적이네. 그대를 위하여 <薄薄酒>노래를 부르나니, 그리움에 편지 한 통 아끼지 말게나.[送君歸, 搔我首, 爲君歌薄薄酒, 相思莫惜寄玉音.]”의 4句는 李白의 시 “술을 권하노니, 그대는 잔을 멈추지 말게나. 그대를 위해 노래 한 곡 하리니, 그대는 나를 위해 귀 기울여주게.[將進酒, 君莫停, 與君歌一曲, 請君爲我側耳聽.]” 4句와 형식과 내용면에서 유사하다. 형식상으로는 字數배열이 3-3-6-7, 3-3-5-7로 비슷하며, 내용상으로도 “노래를 부른다.”는 구절을 비롯하여 비슷한 정조를 띠고 있다.

여기서 퇴계는 전체적으로 李白의 시와 유사한 문장구조를 띠면서도 내용면에서 본인만의 특색있는 구성을 전개해나갔다.

즉 李白은 “君不見”으로 시작하는 앞 2句는 바다로 흘러가는 황하의 물의 흐름으로 자연계를 통한 존재의 변환원리를 밝히고, 뒤의 2句는 천하의 부귀 권세를 가진 인간도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人生의 哲理를 밝혀놓았다.

퇴계는 “君不見”으로 시작하는 8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莊子》<逍遙遊>의 故事를 典故로 삼았다. 앞 4句에서는 붕새와 메추라기 새와의 대비를, 뒤 4句에서는 惠施와 莊子의 사물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를 통한 대비를 詩化시켜놓았다.

그런데 여기서 퇴계는 <逍遙遊>속의 비교적 긴 편폭에 해당하는 故事를 8句에 담아서 곡진하게 묘사하였다. 이러한 莊子의 故事에 대한 폭넓은 詩化는 李白의 시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다. 대체로 李白의 시에서는 짧은 한 두 구절 위주로 큰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大鵬”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시편은 더러 있지만,[42]<逍遙遊>의 내용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

41) , 白日毬獵夜擁擲…… <少年行>

42) 憑高遠登覽, 直下見溟渤. 雲垂大鵬翻, 波動巨鼇沒…… [높은 곳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니, 바로 아래 큰 바다가 보이네. 대붕의 펄럭이는 날개 하늘에 구름처럼 드리우고, 출렁이는 파도 거대한 자라를 삼키네.] <天台曉望>

大鵬一日同風起, 搏搖直上九萬里. 假令風歇時下來, 猶能簸却滄溟水……[대붕이 하루는 바람을 타고 일어나, 회오리 바람에 바로 구만리를 올라가네. 바람이 잦아들어 내려오더라도, 큰 바다의 물을 출렁거리게 할 수 있다네.]<上李邕>

大鵬飛兮振八裔, 中天摧兮力不濟. 餘風激兮萬世, 游扶桑兮掛石袂……[대붕이 비상하여 천지를 진

묘사는 보이지 아니하고, “賦”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산문체의 형식에 와서야 비로소 이를 상세하게 묘사한 <大鵬賦>[43]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긴 내용의 산문체의 故事를 詩化한 퇴계의 탁월한 詩才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시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李白의 <將進酒>의 형식과 내용의 일부를 도입하면서, 莊子의 ‘虛船[빈배]’,[44]‘散木[쓸모없는 나무]’,[45]와 孔子의 ‘浮雲[뜬 구름]’[46]등을 언급하며 유가와 도가의 사상을 그의 시 속에 심어놓았다.

이 시를 지은 해에 퇴계는 출사의 길에서 나와서 은둔하며 자신의 도학을 추구하는 길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동시키는데, 하늘 한가운데서 꺾이어 힘을 쓰지 못하네. 여풍은 격렬하여 만세에 미칠듯한데, 扶桑을 지나다 왼쪽 날개 걸렸구나.]<臨路歌>

溟海不震蕩, 何由縱鵬鯤……[망망대해가 크게 출렁이지 않으면, 어찌 붕새나 곤이 마음껏 활동하리오.]<贈宣城趙太守悅>

43) 작품은 李白이 江陵의 天台山에 머물고 있던 司馬子微와의 만남을 賦의 형식으로 노래한 것이다. 본문에서 李白은 漆園에 사는 호탕하고도 기이한 말을 쏟아내는 莊子의 이야기를 한다고 서두에서 밝혀놓았다. 전체적으로 <逍遙遊>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내용은 원 제재보다도 더욱 풍부한 구성요소와 상상력이 가미된 李白 특유의 필치로 구성되어 있다.

44) “處世如虛舟[처세는 빈배와 같이]”는 《莊子》<散木>에 나오는 “虛船[빈배]” 즉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빈배와 부딪혔을 때는 성을 내지않는다”의 故事이다.

45) “散材同樗櫟[쓸모없는 재주는 가죽나무나 상수리나무와 같다]”는 《莊子》 <逍遙遊>와 <人間世>에 나오는 “樗”와 “樗” 두 나무는 “울퉁불퉁하고 쓸모없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故事에서 나왔다.

46) “當貴於我等浮雲[부귀는 나에게 뜬 구름과 같다]”는 《論語》<述而>에 나오는 “불의로 얻는 부와 귀는 나에게 뜬 구름과 같다”는 孔子의 이야기

4. 나오며

이상에서 퇴계의 시에 끼친 중국 고전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조선의 유학을 대표하는 퇴계의 시가 탐색은 엄밀한 경학을 주제로 하는 도학자의 문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또 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퇴계시의 창작에 그 근원적 출처를 제공해주는 중국 漢詩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퇴계 시의 이해에 한층 깊이를 더해주었다.

퇴계가 陶淵明, 杜甫, 朱熹 등의 작품에서 그 영향을 깊이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老佛사상을 지니고 자유자재한 시의 세계를 펼친 李白의 작품에 단순한 시어나 시한 두 구절이 아닌 몇 몇 작품에서 그 시편 전체가 이렇게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면모이다.

지금까지 중국 뛰어난 漢詩 작가들에게서 받은 영향을 언급할 때, 대개는 시 작품 안에서 어휘나 시구 혹은 같은 전고 등을 찾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빼어난 시구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 시켜서 어떻게 환골탈태를 하였는가는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본 결과 퇴계는 여러 작품에서 단순히 李白의 여러 詩句만을 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작품에서는 오히려 李白의 작품에서보다 훨씬 풍부한 이미지를 형상화 시켰으며, 또 단순한 몇 시의 몇 구절 안에 함축시키기 힘든 莊子의 <逍遙遊>에 들어있는 전 후 이야기를 자신의 작품 안에 응축시켜내는 詩才를 발휘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즉 중국 작가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이를 통해 본인의 시 세계에 적합한 새로운 시상 혹은 작풍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에 자신 만의 독특한 시 세계를 재 창조해 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개척해놓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典故 혹은 出處 조사의 작업 기반 위에 새롭게 재 창출된 우리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되리라 여겨진다.

西湖与南楼：清代闺秀诗意栖居的理想之境

宋清秀

目次：

一、闺秀才女与西湖雅集唱和范式建构
二、西湖才女与独立女性文学史的谱写
三、才女陈书的南楼：课女教子与因才旌表
四、徐若冰的南楼：男学者授徒与刊刻诗集
小　结

清代女性文学取得辉煌成就的原因就在于有合适其发展的理想空间："西湖"与"南楼"。对清代闺秀来说，湖与楼是蕴藏重要文化内涵的场域。著名西湖历来是闺秀雅集唱和之地，在这里不仅形成了女性文学创作的公共空间，开创了西湖雅集唱和的传统；闺秀才女自己构建了独立的女性文学史及诗学理论，对于女性文学的传承与传播具有重要意义；楼则是女性日常生活起居之所，才女陈书的南楼，创立了女性文学独立传承体系，南楼中名动公卿或者圣眷的闺秀典范给了努力追求文名的才媛以激励；徐若冰的南楼，女诗人-女弟子的传统授诗的典范，男性刊刻文集的方式也给女性文学的发展创造了良好的社会氛围，还形成了一个具有强大辐射力的女性文学传播场域。湖与楼，一个流动，一个静止，但都女性文学的传承、创作、传播上有起着重要作用的空间场域。从"湖"与"楼"入手，可以对闺秀的生存与创作空间、文学创作与传播途径作一番深入的了解和认识，从而全面理解清代闺秀的文学创作及其价值。

一、闺秀才女与西湖雅集唱和范式建构

读书的美人是西湖上的一道美丽风景。李鼎《西湖小史》说："湖中不可无美人，犹鬓发无关于神明而失之不佳。苏小同心，至今芬颊；琴操参悟，犹属铮铮；佳人难再，孰重其芳徽？据余目所见，林天素画擅一时，风髮雾鬓而多高韵；王修微诗惊四座，读书谈道而多胜情。惜哉，林既还闽，王亦他适。近有王云友精于六法，足参管姬之座，风流不坠，赖有此君。昔人有云：'无此不成京师'，予亦曰'无美人便不成西湖'。"[1] 明末的西湖不系舟上的美人与名士的盛会，开启了清代女性的雅集唱和。据林天素说："余昔寄迹西湖，每见(汪)然明拾翠芳堤，偎红画舫，徜徉山水间，俨然黄衫豪客。""偎红画舫"是指当日的"湖上诸姬，如王修微、杨云友能诗，林天素能画山水兼能琵琶，王玉烟能走马，吴楚芬能歌。然明招诸名士集湖舫，诸姬必与坐"。[2] 这些西湖上名姬，有被黄宗羲称之为"以唱随风雅闻于天下"的王修微，与之交好的除了能诗的杨云友、能画林天素等才女外，还有西湖上吟唱过"桃花得气美人中"柳如是，因而美人才女成就了西湖的风流，而西湖的婉媚又成就了美人才女的清词丽句。

清初，西湖上雅集唱和的蕉园诸子是最负盛名的一群文学女性。蕉园诸子的湖上雅集给予了当时女性从事文学创作以启发和示范。《杭郡诗辑》载："是时武林风俗繁侈，值春和景明，画船绣幕，交映湖滸，争饰明珰翠羽、珠髯蝉縠夸炫。季娴独漾小舟，偕冯又令、钱云仪、林亚清、顾启姬诸大家，练裙椎髻，

作者简介：宋清秀，浙江师范大学人文学院副教授，现为淑明女子大学中文系交换教授。

[1] 李鼎《西湖小史》，《丛书集成续编》，第 224 册，第 45 页。

[2] 厉鹗《湖船录》，《丛书集成续编》，第 90 册。

授管分笺，邻舟游女，望见辄俯首徘徊，自愧不及。”[3] 这是“西湖一段佳话”，一段盛景。西湖上的雅集不仅使参与其间的才女获得了一个理想的写作空间，同时还具有具有强烈辐射作用，给予女性以启发和示范。蕉园诸子湖上泛舟，“授管分笺”的风雅，让“邻舟游女”“俯首徘徊”在“自愧不及”后，她们自然拿笔赋诗，追寻诗人才媛脚步。这不仅吸引更多的女性参与到写作中来，扩大了女性写作阵营。如长洲陈太夫人曾佣一不识字老妪，每当陈氏父兄姊妹唱和之时，“此妪每从门屏窃听，有明白易解者，久之亦能为诗”，有《中秋无月》云：“最怕中秋风雨来，人家伫月尚徘徊。七龄小姐痴憨甚，拜祝天门两扇开。”[4]可见榜样的启示与影响力量之大。所以梁乙真说：“清初之文学，高、黄、卞、顾倡于前，蕉园七子兴于后，风气所播，遂以成一时词坛之盛。其后分道扬镳，各自授受，二百余年之妇女词坛莫不受其影响。”[5]

蕉园诗社的湖上唱和开启了女性在公共场合的雅集风尚。闺秀的才华是雅集成为可能，雅集成就了闺秀的友谊，雅集吟唱的是才媛的诗篇，这群“闺阁友”因“词章”聚集在湖上。正如王元礼《湖上同柴季娴朱顺成》云：“向暮游人绝，同君步曲塘。有山尽秋色，无水不荷香。雅调传金轸，闲情寄笔床。谁言闺阁友，相得在词章。西湖上载酒寻芳、雅集唱和成为才女的寻常事。陆筠贞《约诸女伴春游湖上》诗云：“湖上寻芳处，扁舟引兴长。闲招闺秀伴，来到水云乡。白鸟飞江岸，红桥隐绿杨。宛然图画里，佳景付诗囊。”泛舟湖上，必然撷取佳景，收入诗囊。赋诗之际，为了能才冠群芳，还须学太白醉后兴发。孙采芙《春日偕闺中诸姊妹泛舟湖上》写道：“小舟轻泛夕阳边，指点韶光又一年。春水半篙芳草岸，东风十里杏花天。不妨畅饮心拼醉，正好联吟句夺先。隐约楼台最堪爱，绿杨深护万条烟。”面对美景，才女们不仅有动人的词章，如凌祉媛《念奴娇•季夏偕同人泛舟湖上时三潭荷花盛开柳阴小泊花枝压船冷香醉人素影留客更于远处望之见绿阴摇动时露靓妆带笑含颦仿佛西子浣纱时也》；同时还抒发千古之幽思，如吴藻的《西湖咏古十首》。乾隆末年，孙云凤、孙云鹤为首的袁枚女弟子们在西湖上的玻璃画舫中谈诗论艺。袁枚说：“今年，余在湖楼，招女弟子七人作诗会。太守明希哲先生保从清波门打桨见访，与诸女士茶话良久；知是大家闺秀，与公皆有世谊，乃留所坐玻璃画船、绣褥珠帘，为群女游山之用。”[6] 道光间，陈文述的碧城仙馆的女弟子们更是把西湖装点成了美人湖，在西湖边上重修西湖三女士冯小青、杨云友、菊香墓后，还赋诗纪事，成为一时盛事。杨云友就是明末西湖不系舟盛会上的湖上诸姬之一。因此从明末到道光这个阶段而已看做是女性文学发展的一个周期，再此期间，雅集唱和成为范式后，女性文学活动获得了一个被社会认可的创作空间，这个意义重大，在这样的理想之地栖居的才女们开始构建自身的女性文学史。

闺秀雅集的意义在于建立起女性文学发展及传承的独立且具有影响的体系。蕉园诸子在雅集的同时力图建立传统，希望雅集盛事“传之千秋”， 形成典范。钱凤纶《与林亚清》说得很清楚：“顷将觅传神手绘蕉园雅集图，置五人于乔松、茂竹、清泉、白石间，使我辈精神，永相依倚。一时盛事，传之千秋。较彼七贤、六逸，文学固不敢方，而其游泳殆一致也。”[7] 女诗人也有了自己的诗社领袖柴静仪。蕉园诸子的努力并没有白费，女性文学传播的独立体系逐渐形

[3] 吴颢辑《国朝杭郡诗集》卷三十，同治十三年钱塘丁氏刻本。
[4] 雷瑨《闺秀诗话》卷八，第 1109 页。
[5] 梁乙真《清代妇女文学史》，商务印书馆 1925 年版，第 23 页。
[6] 袁枚《随园诗话补遗》卷五，人民出版社 1982 年版，第 693 页。
[7] 钱凤纶《古香楼集》，清康熙间刊本。

成。这可以从两个方面看出来：首先是蕉园五子的文学创作传承的影响，其次是《蕉园五子图》对闺秀才名传播方式的影响。

蕉园五子是蕉园诗社成员的自称。后来在女性文学传承中蕉园诸子逐渐又有七子、十子之名。恽珠《正始集》云："亚清能文章，工书善画，尤长墨竹。与同里顾启姬姒、柴季娴静仪、冯又令娴、钱云仪凤纶、张槎云昊、毛安芳媞倡蕉园七子之社，艺林传为美谈。"王昶曾提到过"西泠十子"与"蕉园十子"之称。《春融堂集》卷二十七《琴画楼词》有《声声慢·题若冰南楼吟稾后》曰："诗宗北郭，家近南濠，芷斋当日齐称。十子飘零（西泠林亚清等康熙年间号十子）犹继，渌净芳名。"王昶提到林以宁等人在当时号"西泠十子"，但未说明十子具体为何人。其《蒲褐山房诗话》"顾姒"条[8]则说："启姬在武林，与林亚青以宁、徐淑则德音、王凤娴等人为蕉园十子。"

从五子到七子、十子的递增可以看出，蕉园诸子创立的女性文学体系在扩大发展着，乾隆江苏吴中十子诗社就是欲步蕉园十子之风而创建的。江珠《采香楼诗集叙》说："惟昔西泠闺咏，有十子之目，清溪欲步其风，乃以先后酬赠篇什，采集一编，为《十子诗抄》。"[9]

除了文学创作的直接影响外，蕉园诸子之一的钱凤纶绘制《蕉园五子图》的风尚也被后来的闺秀所传承。嘉庆元年（1796）屈宛仙、席佩兰、归懋仪等12位才女唱和后也作《蕊宫花史图》，"自正月至十二月，为谢翠霞、屈婉仙、言彩凤、鲍遵古、屈婉清、叶苕芳、李餐花、归佩珊、赵若冰、蒋蜀馨、陶菱卿、席佩兰，长幼间出，不以齿也。爰命画工以古之装写今之貌，号《蕊宫花史图》，两易寒暑乃成。"[10] 屈宛仙作《蕊宫花史图记》曰："此十二司者，香国新盟，瑶池旧侣。写花作影，影尽如生，借古称神，神希于古。月雪之清，烟霞之幻，其姿也；风露之淡，水石之秀，其韵也。凉燠相代，图中之景不殊也；荣悴有时，景中之人不变也。"[11] 《蕊宫花史图》目的是为了"谋作雅集，以传久远"，而传久远之法虽有托咏，但"托咏不如标图显也"。这既是闺秀对自身才学的期望，也是对女性文学发展的期望，无论"凉燠相代"，即使"荣悴有时"，才媛的文学创作一直"不殊"、"不变"，繁荣发展。

闺秀这种才名流传的期望在清代是被社会接受和认可的。才媛雅集已不只是自身的事情，已为文人雅士及闺秀才女所瞩目。张云珍有《西子妆·题蕊宫花史图凡十二幅写四时花卉诸女史就其性所爱者各指一花为记亦佳话也袁简斋先生作跋吴竹桥太史征诗》一词[12]，足见雅集作画在当时是一段"佳话"，因此文人如袁简斋（枚）、吴竹桥（蔚光）为之征诗。这样的雅集必然会在文学史上留名，使参与雅集的人数由此扩大，没有参与的才女必然为之艳羡，进而更积极地投身到写作中去，这才使清代不到三百年时间留下了3000多名闺秀才媛的声音，留下了种类丰富的文学作品。

女性在山清水秀的优美环境中雅集唱和，建立了女性自身的文学传承体系，扩大了女性文学的传播途径，由读者群与作者群一起构成一个广阔的女性文学活动空间，激发了女性文学参与写作的热情，赋予了闺秀才女使命感，使女性文学以其严肃性、自觉性与学术性成为清代文学史独具特色的一部分。

---

[8] 《蒲褐山房诗话新编》，第304页

[9] 《吴中女士诗抄》，乾隆间刊本。

[10] 孙原湘《蕊宫花史图序》，载《天真阁集·外集》卷六，清嘉庆刻本。

[11] 《名媛诗话》卷九，《清代闺秀诗话丛刊》，第512-513页。

[12] 《小檀栾室汇刻闺秀词》。

二、西湖才女与独立女性文学史的谱写

明末，秦淮河的名妓来到西湖，并嫁给名士为妻，从名妓变成闺秀。王端淑的《名媛诗纬》列“夫人世妇以及庶民良士之妻为《正集》”，而“其或由风尘反正者附于《正集》之末”，这样就肯定了名妓从良之后的身分，已经属于“夫人世妇以及庶民良士之妻”的行列了。闺秀黄媛介、吴山、王端淑等人因战乱而寓居西湖，因浪迹奔走，颇具林下之风。如《两浙輶轩录》载黄媛介“已酉遭乱，转徙吴阊，羁白下，后入金沙，闭迹墙东。”[13] 并且从黄媛介《离隐歌序》云“归示家兄，庶几免蔡琰居身之玷”之语，吴梅村 “无双才子扫眉娘”之句，(《题鸳湖闺咏》)，商景兰“始信当年女校书”之句，(《赠别黄媛介》)，特别是王士祯《观黄皆令吴岩子卞篆生书扇各题一诗》中《题黄皆令扇》诗中“今日贞元摇落客，不将巧语忆秋娘”之句，陈寅恪考证“‘秋娘’为贞元时长安名妓。渔洋自比香山，而以秋娘比皆令。今日观之，颇为可怪。夫渔洋平日作诗，其用事精确，固不及同时之顾亭林。然检腹趁韵，何乃一至于此耶？故就此推论，则知皆令乙酉逢乱被刼之后，其社会身分必有见疑于人者，《离隐歌》序中‘虽衣食取资于翰墨，而声影未出于衡门’之句，及序文末述所以作此歌主旨之‘庶几无蔡琰居身之玷’一语，乃得通解矣。更由是推之，渔洋诗‘风流底许嫁文鸯’句中之‘底许’者，‘何可’之意，亦当指皆令乙酉逢乱被刼之事而言。”[14] 不管此事确实与否，但闺秀流离寓居生涯扩大了其交游网络则是不争的事实，这样名妓与闺秀的交游及两种闺秀文学传统的融合,开启了女性文学的新纪元。

西湖女性文学经历了康熙间蕉园诗社雅集唱和与徐德音阶段之后，到乾隆才媛方芳佩时期，发展到了一个高潮。方芳佩通过与福建闺秀的交游，扩大了女性文学交游的网络；特别是为许琛刊刻诗集的行动，表明闺秀才媛对自身文学传播的重视及文学意义的期许。许琛在闽与“闺秀廖淑筹、庄九畹、郑镜蓉、黄淑畹、黄淑窈结社唱和，诗学益进。后家益落，饔飧不继。会李夫人筠心、方夫人芳佩、福恭人宜鸾闻其名，结为文字知，皆厚资之，始得自给”[15]。沈善宝《名媛诗话》卷四载：“三山许素心德瑗以苦节闻于当世，有《疏影楼集》。方芷斋随任之闽，耳名往访，诗篇倡和，时有馈遗。素心爱写梅菊，晚年窘甚，售诗画以自给。殁后，芷斋序其遗稿而梓之。其投芷斋诗有‘千仞龙门非易到，布裙来拜卫夫人。’芷斋之居贵不骄，爱才若命，亦可敬也。又有《题画赠芷斋》云：‘冷淡生涯二十年，枝枝叶叶锁寒烟。与君载去西湖畔，记取愁人闽海边。’”一般来说都是家族男性为女性刊刻诗集、男教师为女弟子刊刻诗集，而方芳佩本着弘扬女性文学的宗旨，在生前帮助许琛渡过困厄；死后刊刻诗集，使其文名得以流传。方芳佩的这种行为在宣告女性文学具有正统性的同时，还表明写作是闺秀人生与文学领域内的“经国大业”，女性文学传统的继承与才女文名的传播是一项严肃的事业。道光间才女杨芸、李佩金、陈雪兰捐金合梓才女金纤纤《瘦吟楼遗诗》的义举，可能就是受到方芳佩的影响。正是方芳佩及其他才女对文学的热爱与执着，对闺秀的扶持与奖掖，才使女性文学具有了旺盛的生命力。

道光间被认为是当时“文坛领袖”的沈善宝则对西湖文学及女性文学具有总结发扬之功。沈善宝被称为“弃冕闺英”、“闺秀诗坛盟主”、“之子才调无双，贤名第一，是吟坛宗主”的原因是因为其编纂的《名媛诗话》，全书足本多达十五卷，篇幅空前之大。其中虽也博采前人著述，但多第一手资料，记录了自己与

---

[13] 阮元《两浙輶轩录》卷四十，第 478 页。

[14] 陈寅恪《柳如是别传》，三联书店 2001 年版，第 488 页。

[15] 《国朝闺秀正始集》卷十二，清道光刊本。

同时闺秀诗人的交往，为女性文学史保存了许多珍贵的女性生活和文学活动片段，具有自撰的原创性质，与雷瑨、雷瑊《闺秀诗话》之类单纯辑录他书不可同日而语。编纂的目的就是要阐扬闺秀才名。《名媛诗话》卷一说："窃思闺秀之学与文士不同，而闺秀之传又较文士不易。盖文士自幼即肄习经史，旁及诗赋，有父兄教侮，师友讨论。闺秀则既无文士之师承，又不能专习诗文，故非聪慧绝伦者，万不能诗。生于名门巨族，遇父兄师友知诗者，传扬尚易，倘生于蓬革，嫁于村俗，则淹没无闻者不知凡几。余有深感焉。故不辞扼拾，搜辑而为是编。惟余拙于语言，见闻未广，意在存其断句零章。"[16]

沈善宝还力图通过《诗话》"不但建构了清代女性自己文学体系，也呈现了女性在蜕变的里程中她们自己的面貌"。[17] 在沈善宝的评价体系最值得值得称赞的是这样一批人： "节行文章为吾乡之冠"的顾若璞、"一代女宗"的陈尔士、汪嫈等人。王力坚说："三人的桂冠，大抵来自经济之言，道德文章的建树。而非文学上的才学与成就。"[18] 其实不仅于此，被赞美的原因除此之外，还在于她们在传承女性文学上的重要意义，以及她们的文学成就。

蕉园诗社成员及其交往的才女都曾受教于顾若璞。媳妇丁玉如，"从余读唐人诗，其《寄灿》有云'故有愁肠不怨君'语，几于怨诽不乱矣。"[19] 侄女顾之琼也受到顾若璞的影响。"余与弟妇季昭夫人鸾牋酬答，遂有《闺晚吟》、《卧月轩》诸刻。侄女玉蕊夫人，才名鹊起，藻缋益工，果然积薪居上矣。"[20] 蕉园诗社成员钱凤纶与林以宁等人深受顾若璞的教诲，"孙妇钱凤纶，玉蕊夫人之次女也。自其儿时，弄墨花鸟，品题已有谢家风致。父母绝爱怜之。年十六归余仲孙，适余家中落，组纃之余，不辞操作，陈馈之际，亦事染翰。间就正于余"[21]；林以宁曾感慨"忆余从顾太君卧月轩时，六十年间，犹昨日事情耳"[22]。姚令则，字柔嘉，黄时序妻。钱凤纶《传略》曰："娣姓姚，文学龙起公长女，弱龄即能诗，年十四归叔氏。祖姑顾精翰墨，有《卧月轩稿》，娣于定省之余，执经问字，晨昏讨论，力学有年，著《半月楼集》，《半月楼者》即《卧月轩》之侧楼也。余不敏，同研席者二三年，娣不我弃，常以诗文见投。"[23]《杭郡诗辑》载："柔嘉井臼余间，执经请益，又其姒钱云仪蕉园名媛，雅擅清才，绣阁然脂，互有赠答，故《半月楼》一集欲传祖姑（即顾若璞）衣钵。"正是在顾若璞的影响下，林以宁、钱凤纶等人成立了蕉园诗社，"终清之世，钱塘文学为东南妇女之冠，其孕育滋乳之功，厥在此（蕉园诗社）也。"[24] 因此可见钱塘女性文学受顾若璞影响之大，西湖女性文学的发展传播其实得益于顾若璞建立的女性文学传承体系。

汪嫈《闺训篇》长诗，沈善宝认为"足与曹大家《女诫》并传"[25]。汪嫈《雅安书屋诗文稿》卷四有七十八首诗中大部分内容于教子教女有关，阮元《序》说："其共传诵者，如《论诗》六首，洞见本源；《示儿》八首，可铭座右；为立身居官之镜，《论陶诗》一首，尤为至论。"黄爵滋《序》云："观《自哀吟》、《示

---

[16] 沈善宝《名媛诗话》卷九，《续修四库全书本》集部，第 1706 册，第 663 页。
17 钟慧玲《阅读女性·女性阅读——沈善宝<名媛诗话>的女性建构》，《东海中文学报》第 20 期，2008 年。
[18] 王力坚《<名媛诗话>的自我指涉及其内文本建构》，《中山大学学报》，2008 年 第 1 期。
19 顾若璞《冢妇丁圹志》，《卧月轩稿》卷五。
[20] 胡文楷《历代妇女著作考》，第 757 页。
[21] 顾若璞《古香楼序》，载《古香楼集》卷首，康熙间刊本；《历代妇女著作考》第 757-758 页亦载此序。
[22] 见林以宁为梁瑛《字字香序》，载《历代妇女著作考》，第 543 页。
[23] 钱凤纶《古香楼集》，清刊本。
[24] 梁乙真《中国妇女文学史纲》，上海书店 1990 年版，385 页。
[25] 沈善宝《名媛诗话》卷十一，王英志编《清闺秀诗话丛刊》，第 531 页。

儿》、《送儿》诸篇，《劝学篇》、《励志篇》、《寄侄》、《示儿与诸从孙》等作，想见志趣所尚，而又能委曲尽情不为过激，恐儒冠儒服不能若是平正通达也。”更重要的是汪嫈的诗学传承活动。其《与儿妇夏玉珍言诗》曰：“真州族母方静云著《有诚堂集》载一绝云：‘闲吟风雅啸余时，谁道诗非女子宜。不解宣尼删订意，二南留得后妃诗。’所为诗导源三百，言固不愧也。大抵诗寓规劝，隐合思无邪一言，乃不虚。所作若止吟风咏月、摛藻求工而香奁脂粉流溢楮墨，真性情杳不可窥，不但违三百篇之旨，下笔先自觉无味后人安得而珍重之。近日闺咏甚多，明此意者少。女有天分，苦无学力，于此三致意焉。思过半矣。”《答门人徐玉卿书》、《舟中答夏云升（女渊）侄论诗》、《论诗六首寄示徐玉卿》[26]、《答云生侄论诗》则总结“根柢终须三百，性情以外漫谈禅”的温柔敦厚的儒家诗学观念。陈尔士是才女、诗人兼经学家，被沈善宝称为“立论恢弘，立言忠厚”，“闺阁通经者甚少，矧能阐发经旨，洋洋洒洒数万言婉解曲喻，援古诫今，嘉惠后学者不少，洵为一代女宗。”[27] 这些人对女性文学教育中扮演了领路人启蒙者的角色这才是被沈善宝褒扬的重要原因。这三位代表的一大批闺秀才女以传承闺秀文学传统位己任，吸引越来越多的女性关注参与到写作中来，这样女性文学队伍日趋壮大，女性文学作品也日趋丰富，最终使女性在文学史中取得重要的一席之地。

其次，沈善宝赞美的还有汪端、王澹音、吴藻、潘素心等在文学领域有所创见及代表性的闺秀。沈善宝说汪端诗“悱恻芬芳，闺中罕有其匹”，那么而汪端的《明三十家诗选》则是清代闺秀无出其右者了。汪端以女性身份纵论有明一代男诗人，“以独到的批评眼光改变了男性世界对明代诗史的认识，在文学史上留下了女性的批评印迹，使得中国文学史不能再说是男性视角或男性标准的产物，回顾中华民族的文学史，还没有哪个女作家的成就能与汪端相比”[28]。正如沈善宝说的，“议论古人有特识”，“议论英伟，可破拘墟之见”。[29] 王澹音古诗“感叙时事，委婉有情，近体悼古怀人，苍凉多致”[30]，载其《己未八月川匪窜逼宜境，城中仅文职数人，家大人督率士民防守，羽书络绎，援兵不至感作》、《赠女史唐兰》等叙事长诗，诗风近杜，且具有诗史价值。 沈善宝说吴藻“最工倚声”，“吟咏超妙绝尘”，[31]邓红梅的《女性词史》说吴藻是“清代社会转型时期女性词在情感特征和美学特征的最出色代表”[32] ；谭正璧《女性文学史话》把吴藻当做女曲家来论述。不过，我想吴藻被推崇还应该与她的家庭背景有关系。吴藻非出生于文化世家大族，而是商人家庭，但却造诣非凡，这与沈善宝认为女子凭借才学足以动公卿，才女文名的流传在于其艺术价值而无关家庭背景的文学价值观一致，因此推崇吴藻。 潘素心代表了沈善宝的文学理想：畅游南北，得江山之助；文名纵横，教子教女；琴瑟和鸣，笙磬之调。恽珠说潘素心“从宫詹宦游闽、滇，舟舆往来五万里，所经城郭、江山、风俗，皆见之於诗”，“亲课诸子，道光乙酉，

[26]《论诗六首寄示徐玉卿》诗云：曾向名山叩秘传，性情以外漫谈禅。自然乐府从骚出。根柢终须三百篇。花放水流无死句，池塘春草亦新裁。随人哪得成天籁，下笔神从妙悟来。自古修辞重立诚，文章无奈匪心声。遗山错把黄金铸，逆党难齐李杜名。慧业争夸有别材，但只李白是天才。狱中尚读留侯传，相见匡庐万卷开。伪体裁归风雅定，立言自得古人心。须知左右逢源日，诗外功夫几许深。吟风弄月雅非宜，浑朴天真悱恻思。一片清光渣滓净，无人知是女郎诗。《答云生侄论诗》云：“好诗字字出天成，万卷全融入性情。风雅元音足千古，不须唐宋太分明。根柢都归三百篇，陈思而后又青莲。诗中夷惠陶元亮，子美能兼圣与仙。”

[27] 沈善宝《名媛诗话》，续修四库全书本，第 1706 册，第 603 页。

[28] 蒋寅《汪端诗歌创作与批评初论》，载《清代文学论稿》，凤凰出版社 2009 年版，第 338 页。

[29] 沈善宝《名媛诗话》，续修四库全书本，第 1706 册，第 615、616 页。

[30] 沈善宝《名媛诗话》，续修四库全书本，第 1706 册，第 610 页。

[31] 沈善宝《名媛诗话》，续修四库全书本，第 1706 册，第 615 页。

[32] 邓红梅《女性词史》，山东教育出版社 2000 版，第 436 页。

三子同捷京兆。其明年，仲成进士，入词林。辛卯秋，五子又举孝廉。鹊起联翩，熊丸济美，不仅为科名佳话也。”[33] 时人也赞扬“公子同懔、同怀，齐年登《贤书》，得母教为多”。[34] 这是贤母教子的典范，同时其女、媳也是一时之秀；还是琴瑟和鸣的典范。袁枚说：“近日闺秀能诗者，往往嫁无佳偶，有天壤王郎之叹。惟吾乡吴小谷明府之女柔之，适狄小同居士；绍兴潘石舟刺史之女素心，适汪润之解元：皆彼此唱和，如笙磬之调。”[35]潘素心《寄外》诗云：“瘦影新痕杨柳枝，杏花十里送春时。须知吟咏无闲笔，那向妆台更画眉。”故而沈善宝说潘素心“好学之心，老而弥笃。往来云札其题咏必亲笔挥洒。令子五人四登《贤书》，一入词馆。乙酉同捷京兆者三人，海内艳称。太夫人精神福泽德行文章可冠古今”。[36]

沈善宝不仅构建女性文学的谱系，还努力开拓女性文学的阵地。其《抵都口占》诗曰：“不惮驱驰赴帝京，要将文字动公卿。”事实上的确如此，姚淑清说其“才名直欲动公卿”，甚至认为她的成就已经超越了西湖历代才媛闺秀。佟景文序《鸿雪楼诗选初集序》曰：“闺阁中有此如椽巨笔，不特扫尽脂粉之习，且驾蕉园七子而上之。”

沈善宝在女性文学领域内的贡献及价值，除了诗词创作之外，更重要的是品藻诗文的《名媛诗话》著作，横跨京师南北的交际网络，使西湖女性文学完成了由地域文学向主流女性文学的转变：西湖才女所传承的温柔敦厚的诗学传统就是正统的女性诗学传统，西湖才女的诗词文章学术并重，就是清代女性作品丰富性多样性和学术性的表现；西湖才女对才名追求，把文章视为经国之大业也是清代闺秀才女的文学理想。因此，西湖女性文学史由清初名妓柳如是、李因等名妓与闺秀黄媛介、吴山等人的发轫，历经王端淑、顾若璞、蕉园诸子、徐德音、方芳佩，在沈善宝编纂的《名媛诗话》和汪端《明三十家诗选》达到了顶峰。可以说，西湖女性文学发展史就是一部清代女性文学发展史，建构了女性独立的传承、发展、传播的体系。

三、才女陈书的南楼：课女教子与因才旌表

沈善宝推崇的女学传统、追求的才名的文学理想，才女陈书曾给予极好的诠释。陈书，晚号南楼老人。江苏南汇人，海宁钱纶光妻，太傅文文端公陈群母。著有《纺余闲课》、《复菴吟稿》。[37]陈书是被乾隆及士人赞誉的教授“奇文难字”、讲论“五经纷论”的贤母典范。描写其教子过程的《夜纺授经图》是“一时公卿，莫不叹羡，以为恒古罕有，愿获瞻者，数日乃得什袭也”。[38]

陈书在女性文学中上的典范意义首先在于不仅延续了女性文学传统，并且在教育的过程中，女性文学与文化传统经过子孙的传承，跨越了性别，影响了主流文学与文化传统。

陈书未婚之前就授弟读书，婚后教子、孙等读书。“太学公没，母钱孺人居贫乏，太夫人缝纫给粥，仍句读授弟山鹤先生”；婚后，则承担了教子的重任。钱陈群《敬题家慈夜纺授经图》序详细介绍了当时慈母教子的经过。“陈群兄弟幼时，先父课督甚严，既而陈群祖教授信安，父过江省视，濒行谓陈群母曰：吾

[33] 恽珠《正始集》卷十八，清道光刊本。
[34] 施淑仪《清代闺阁诗人征略》，第 2000 页。
[35] 袁枚《随园诗话补遗》卷四，人民文学出版社 1982 年版，第 669 页。
[36] 沈善宝《名媛诗话》，续修四库全书本，第 1706 册，第 628 页。
[37] 胡文楷《历代妇女著作考》，第 587 页。
[38] 钱泰吉《文端公年谱》，北京图书馆藏珍本年谱丛刊本，第 77 页。

僻处乡曲，贫不能延名师授诸子业，汝请为我教之，我依奉老亲无忧矣。时陈群十岁，授《春秋》，弟峰八岁，授《孟子》，弟界五岁，授《小学》，辄录所授课，比月汇而邮寄信安官舍。……夜必篝灯课读，母躬自纺绩，夜分不辍，及晨则遣苍头入市易米，以其馀积之授织室。”[39] 陈书自己也读书不辍，“太夫人手录《朱子读书法》，榜于座隅，置字学诸书于纺车上，曰：‘是吾师也。’”[40] 陈书教子育最成功的之处不仅是教出了钱陈群这样被乾隆赞为“词臣退居林下，齿爵学问，足为绪绅领袖者，惟钱陈群、沈德潜二人”的名臣及钱载这样的诗学画作名家，更在于其教出了陈书家门贤母的传统，保持了陈氏家风不坠的同时，还出现了两位才女。

陈书教出了儿子钱陈群，还曾教育儿媳孙子钱载，“陈太夫人授少宗伯公绘事”。到了第三代安庆公配沈太恭人继承了陈书的教子理念，“教子女严而有法。方安庆公为孝廉时，力不能延师以课子，伯翁艮斋、漆林两先生，少诵诸经，皆太恭人口授句读，每至夜分以为常”[41]。钱泰吉《篝灯教读图》详细记述：“泰吉小时，先大父方勤于政，不暇问家事。先母沈太宜人教督甚严，读少怠，言动或失当，必述先世家法以督责，且令诵文端公（钱陈群）题陈太夫人《夜纺授经图》诗，母击节和之，时或声泪俱下。呜呼，泰吉不闻母氏之训二十有四年矣，未尝稍自树立，回思往训，时惴惴焉。”[42] 后来钱仪吉的妻子陈尔士则完全继承了陈书的教子传统，并且发扬光大。陈尔士《授经偶笔》详细记录了教子的过程：“每朝居书屋，申酉之交，归房料理杂事”，在这里所教授的内容有：《左传》、《国策》、《诗》、《易》、《书》、《周官》、《仪礼》、《礼记》、《尔雅》、《四书》等经史。在陈尔士的书信里面，提到最多的是《左传》，在熟读之后，还要作传记、辩论文章。《听松楼遗稿》附有《郑厉公杀原繁》、《介之推不受禄》、《秦穆公用孟明》三篇文章，钱保惠后记云“先妣平日不轻议人得失，故论辩之文不多作，亦不存。甲戌之春，保惠始学为论，先姚间尝拟作，以示准程。”[43]王照园的《闺中文存》之《听松楼遗稿跋》赞扬了陈尔士带来自己及当时闺秀才媛的影响：

> 陈恭人《听松楼遗稿》读之终卷，喟然而叹，盖自赫也。照园少不嗜学，先慈林太安人，恒督课之，读至夜分，不中程，不得息，盖廿余年如一日。比少长，留心故训，又不能覃思穷其要眇，中更慈帷弃养，学遂荒落，以迄於今。伏念恭人，乃自髫髫未尝离卷轴，心窃恧焉，自谓弗如一也。恭人生长华胄，日嫔鼎贵而无骄倨习焉，日有孽孽不异寒门，余所弗如二也。夫显扬先祖所以崇学，故日无美而称是诬也，有善弗知不明也，知而弗传不仁也。恭人述训述略诸篇，扬先德之余烈，媲徽音於周诗，盖自班惠姬以来，乃今复睹雅裁焉。余以幼孤，追感先慈苦节勤劬，亦尝有所撰述，每恨词不称意，则弗如者三也。女训妇职诸篇，实闲有家之盛节，考亭尝论大家《女诫》未尽作者之意。恭人本风人之敦厚，撷礼经之华腴，通淹雅皆可以垂闺范树典型，余愧弗如四也。颜黄门云父母威严而有慈，则子女畏慎而生孝，余於子女有慈无威，不能勤加诱导，俾以有成，今读《授经偶笔》及尺素各篇，意思勤绵，时时以课读温经形於楮墨。虽古伏生之女授书，宋宣文之传礼，不是过焉。余所弗如五也。谢才媛咏絮，刘媜铭椒，代有新词，流芳绣帨，余遇春秋佳日，未尝不流连风景，舒写性

[39] 钱陈群《香树斋诗集》，卷五，乾隆十六年刊本。
[40] 钱仪吉《文端公年谱》，北京图书馆藏珍本年谱丛刊本，第 165 页。
[41] 陈尔士《听松楼遗稿》，胡晓明主编《江南女性别集》，黄山书社出版社 2008 年版，592 页。
[42] 钱泰吉《甘泉乡人稿》卷十五，第 27 页，光绪十一年增修本。
[43] 陈尔士《听松楼遗稿》，载胡晓明主编《江南女性别集初编》上册。

情，靡堪甄录，旋亦零落无存，伏读古今诸体及诗余各首，清英令淑篇咏之处，如见其人，余所弗如六矣。

王照园六项感慨中有四项是有感于才学著述而发的，受陈尔士的影响，王照园立志成为学者，以著述为乐，以才学为荣。

陈书的影响下，陈氏家族中不仅有陈尔士这样的学者，还是画家、诗人、诗词理论家。陈书孙女钱与龄“少承曾祖母南楼老人家学，尝署所居曰仰南楼，复得从兄籜石（钱载）宗伯指授，转精六法，无纤媚柔弱之态。工诗，不多作”，著有《仰南楼闻见集》、《闺女拾诵》。[44] 其名句“玉簪坠地无人拾，化作东南第一花”，被时人传诵。钱氏家族最著名的女作家当属钱斐仲，字餐霞，秀水人，蓀石宗伯之后，恬斋方伯之女，适德清戚曼亭明经士元。明经工书法，女史能诗文兼习倚声，刻有《雨花盦诗馀》一卷，又擅小楷，学《灵飞经》。作花卉超逸有致，论者谓有南楼老人之遗风也。”[45] 钱斐仲的虽无缘亲承南楼老人教导，但犹能秉承南楼遗风，在诗词理论上发扬光大。

一直到晚清，钱定娴女史善绘事，“盖得文端公母南楼老人之余绪者也，故自号曰‘又楼’”。[46]

其次，陈书的价值在于昭示了女性可以凭借才学获得旌表，带来家族荣耀的可能性。乾隆十六年，“钱陈群《香书树斋集》刊成，弘历帝索阅至《夜纺授经图》题诗，命钱陈群进是图以观，其后赐诗二首题于图，其云：篝灯课读澹安贫，义纺经锄忘苦辛。家学白阳谙绘事，成图底事待他人。五鼎儿诚慰母贫，吟诗不觉鼻含辛。嘉禾欲续贤媛传，不愧当年画获人。弘历在诗前并有序云：‘索观钱陈群《香树斋集》，有题其母《夜纺授经图》，慈孝之意，恻然动人且以见陈群问学所自来也。’”[47] 乾隆褒奖陈书与陈书教子有方，有直接关系，但最根本的原因还是陈书本身的才学让乾隆钦佩。

阮元《石渠随笔》载女史陈书“工画山水花卉，绰有大家风范，其册卷蒙御题极多”[48]。具体统计陈书的《历代帝王道统图册》、《陈书山水扇面》、《仿王蒙夏日山居图》、《静日山长卷》、《长松图卷》四次御题、《杂画》六幅均有乾隆题辞、《荷花轴》、《仿唐寅夏日山居图》、《山窗读易图》、《四子讲德论图》、《写生册》十幅、《出海大士像》等作品都有乾隆其题辞。此外，如《罗浮叠翠图》有阮元题辞，说此图“极云山漫衍之趣，云头皆是勾勒而成。活泼生动，不思米家法。”《山窗读易图轴》有和和珅、梁国治、董诰题辞。[49]所以当时“南楼笔墨亦蒙睿赏，人间珍如宝璧矣”。[50]

《长松图卷》有乾隆四次御题。1764 年曾经题诗：“壁画长松三百年，真松窗外绿参天。两翁不识谁兄弟，照影疑如立镜前。”1784 年，乾隆又题曰：“三百年松挐古枝，写形女史壁间披。若论窗外真松古，相对还应弟视之。”1790 年乾隆在松霞室题《长松图》：“岩松壁画各轩轩，霞举答相谡赖翻。女史古图经屡咏，笑予于此未忘言。”1793 年再题曰：“江南塞北原无涉，室里山中若有期。女史或知此意否，七章佛偈早言之。”陈书曾作《山窗读易图轴》，自言“至其静气幽僻处，三伏悬之，可以忘暑”，这幅有如此效果的画作博得乾隆喜爱。乾隆

---

[44] 胡文楷《历代妇女著作考》（增订本），上海古籍出版社，1985 年，第 755-756 页。
[45] 张鸣珂《寒松阁谈艺琐录》卷六，续修四库全书本，第 383 页。
[46] 雷瑨《闺秀诗话》卷十六，第 1337 页。
[47] 钱泰吉《文端公年谱》，第 77 页。
[48] 阮元《石渠随笔》卷七，第九页，清刊本。
[49] 参见赫俊红《清代文人及帝僚视野中的女画家陈书》，《中国书画》2004 年第 1 期。
[50] 葛嗣澎《爱日吟庐书画续录》卷五第四页，当湖葛氏 1912 年刊本。

评曰："细观此图究因纸幅已穷不可再布景，然而截然以止，不为缺欠，老人立意奇矣。"[51] 可见是陈书作品的艺术性获得乾隆的赞扬，与性别无关。"陈书的所有山水作品，发现此阶段在山水画的创作上表现出非常旺盛的创作力。一摹仿王蒙满而不闷得构图，大气而繁密的用笔为主，同时兼学他家。如曹知白、沈周、唐寅等。特点是拒绝名家习气，主张体现疏老苍秀的自然山水气息，注重意境的表现。"[52]

正是钱书"疏老苍秀"的注重意境表现的画作，使陈书成为名重一时的名画家，不仅获得圣眷，还影响了钱氏数代画风。钱载诗钱氏中诗学与画作均名垂史册的重要人物。钱载六虽从陈书学画，陈载跋《陈太夫人花卉册》云："康熙癸巳，载六岁，始至祖居半逻之承启堂，拜曾叔祖批陈太夫人于书画楼下，见太夫人作画。"[53] 十八岁时又"每日课余上堂问陈太夫人起居，陈太夫人授少宗伯绘事"[54]；二十二岁"犹读书太夫人所，乡试被落，始临摹太夫人画三数幅，其实载何能于画哉，常常意为之而已"[55]。钱载一系四代中共有十人画史留名，他们以钱载画法为圭泉，而钱载则"写生得南楼老人传"，因而可见陈书在钱氏书画传承中举足轻重的地位。

纵观陈书在南楼的一生：从为钱氏族长，其翁举荐曰："吾新妇陈，至孝且慈，吾观其举措，家政当出吾右"[56]；到卖画养家，其夫有诗云："山妻手里寻供给，卖幅青山佐读书"[57]；到其子怀念陈书"于事理无不通晓，此即汝之严父、慈母、明师也"[58]；从乾隆圣眷题辞，到后世子孙被赞"秉承南楼遗风"、"得南楼真传"，都有力证明了女性才学可以超越性别而获得艺术价值上的肯定。陈书的南楼成为女性追求才名的可能性与正统性的象征，对闺秀才媛巨大的激励作用毋庸置疑。

四、徐若冰的南楼：男学者授徒与刊刻诗集

清代女性文学的发展与传承离不开闺秀才媛自身的努力，但与男性文人的支持也密不可分。男性及社会的支持、肯定主要表现在男诗人对女弟子的传授及为之刊刻诗集等方式使传统女性文学传承延续，且扩大了女性文学作品的传播广度。

清代男诗人—女弟子的传承模式一直在延续，从清初毛奇龄与徐昭华，清中叶沈大成、惠栋与徐若冰，杭世骏等男诗人与方芳佩等，都是典型代表。沈大成与惠栋在南楼教授徐若冰，自言"昔冯定远有女弟子董双成，毛大可有女弟子徐昭华，以若冰之才，足以鼎力"。[59] 杭世骏为方芳佩刊刻诗集时曾说："余栖心经窟，景迫崦嵫，异日成一家之集，芷斋即西河之徐都讲也。"[60] 都以毛奇龄与徐昭华作为榜样。从这些男诗人带女弟子的教授模式来看，都具有三个特点：真正的诗学理论的教导与传授；对女弟子有所期待，甚至认为可以传其衣钵；为之编

---

[51] 《石渠阁宝笈续编》第十九册，第 219 页，民国三十七年影印本。
[52] 赫俊红《清代文人及帝僚视野中的女画家陈书》，《中国书画》2004 年第 1 期。
[53] 钱载《籜石斋文集》卷十五，第六页，清乾隆刻本。
[54] 陈尔士《听松楼遗稿》，胡晓明主编《江南女性别集》，黄山书社出版社 2008 年版，592 页。
[55] 钱载《籜石斋文集》卷十五第六页，清乾隆刻本。
[56] 钱陈群《浩封太淑人先批陈太君行述》，《香树斋文集》，卷二十六，乾隆刻本。
[57] 钱泰吉《文端公年谱》，北京图书馆藏珍本年谱丛刊本，第 9 页。
[58] 钱陈群《至侄汝鼎》，《香树斋文集》卷七，乾隆刻本。
[59] 《书李义山诗后》。
[60] 杭世骏《在璞堂吟稿序》。

选刊刻诗集。这对女性文学的传承无疑具有重要意义，同时他们对女弟子的褒扬也有助于女性文学的传播。

首先看毛奇龄与徐昭华的师徒授诗模式。徐昭华，字伊璧，有《徐都讲诗集》一卷，附于乾隆间刊本毛奇龄《西河全集》后。《四库全书总目提要》云："《徐都讲诗集》一卷，徐昭华撰，諸暨骆加采妻。父咸清，与毛奇龄善。奇龄暮年居里，昭华从之学诗，称女弟子，固有都讲之目。是集即奇龄所典定，附于《西河集》中者。"恽珠《正始集》云："伊璧为女史商景徽女，幼承母教，诗名噪一时。工楷隶，善丹青，毛西河太史题其画幛，有'书传王逸少，画类管夫人'句，西河尝曰：'吾门虽多才，以诗无如徐都讲者。'"[61]

毛奇龄收徐昭华为徒是认真且正式的，经过两次考试方收其为女弟子。第一次考试时毛奇龄"以他往，不赴"，只是"贻试题二：一拟《刘孝标妹赠夫诗》，一赋《得拈花如自生》，则摘自范靖妻咏步摇句也"。 徐昭华所作令毛奇龄非常满意，称："昭华未尝为古诗，学为之，其制效原体而下句妍婉，与原诗相埒。"而陈维崧读昭华《拟刘孝标妹赠夫诗》后，"叹为奇绝，即欲拟和一首，屡屡掷笔"。 第二次考试则由毛奇龄亲自主持，称"予过是斋，昭华出受业，谒余为师，即难罢，仲山复请试以诗，时予方就饮，甬东仇石涛在坐，会昭华为其从母范丞夫人作画幛，予喜其画蝶，遂命题画蝶五绝，而以甬东客，限以东韵，语未绝而诗至，诵之，一座惊叹"。徐昭华《题画蝶》诗云："蛱蝶翻飞去，翩翩彩笔中。虽然图画里，浑似觅花丛。"王蕴章《然脂余韵》载此事，并记"西河喜为和诗云：'腾王有遗谱，描之深闺中。羞杀东园蝶，翱翱满绿园。'盖言羞时辈也。"

毛奇龄对徐昭华赞誉有加，评价其《青未阁影》云："青未阁昭华所居，傍东城稽山，门筑重屋，瞰山甚近，固作十景诗，一时和者数十人，皆不能及。昭华诗工处，每驾出时贤若此。"评《赋得拈花如自生》云："气体字句意调，无一不如六朝之髓，不意闺中便能到此，目为虞、鲍后身，谁曰不然？"评《舟泊垂虹桥重繙吴江闺秀诗有作》云："淋漓宛转，极俯仰踯躅之致，千古才人相惜处，读之生感。"评《和吴尼御符诗》云："此等纯似唐诗，若落句则非白傅不能矣。予门工诗者推盛唐、王锡，然俱不及昭华，以稍解唐人法外意也。" 评《探亲吴门同虞夫人之虎丘》云："自左嫔、苏若兰后，文章之盛无如徐昭华者。" 甚至相信徐昭华可以传其衣钵，称"昭华有宿悟，始宁山川唯徐氏门阀代踵伟望，而昭华独擅山川之秀"，"予藉昭华以传矣"。并且把昭华诗附刻于自己的著作之后，"昭华既受业传是斋中，每赋诗，必书兼本，邮示余请益，陆续得若干首，留其帙，不忍毁去，遂附予杂文后，存出蓝之意"。

清中叶惠栋与沈大成在南楼教授徐若冰，且作《南楼授诗图》，则是发展完善了这种教授模式，以期这种范式成为一种传统。徐若冰名映玉（1728-1762），自号南楼，常州诸生孔统良（号青崖）妻，寓居杭州，后迁香溪。著有《南楼吟稿》。仙槎老人《南楼吟稿序》曰："若冰幼慧而才敏，幼喜读书，女红妇事之余，即拈翰苦吟。后在西泠，会云间沈沃田先生来游，见其诗，录为弟子。自得指授，格律一变，駸駸乎窥作者门庭矣。"[62] 沈大成《徐媛传》曰："甲戌春，余游武林，见媛《梅花诗》，偶为更订数字，媛见之喜，曰：'此真吾师也。'遂来问业，称弟子。盖至于今十年。余往来吴中，馆其家。常留惠征君松崖饮，媛入厨治具，

[61] 恽珠《正始集》卷三。

[62] 《南楼吟稿序》，载《江南女性别集》，第 178 页。

或以为腆。曰：‘吾重惠先生之经学也。’它日，戚有为县者饭其舍，或又以为俭。曰：‘若徒知取科名耳，安得侪惠先生哉？’呜呼！世惟崇势位、趋财利矣，媛一女子，能审轻重若此，其识岂不出于寻常万万哉！”[63] 有感于此，尤其是徐若冰在诗学上的天分，惠栋后来也成为徐若冰的老师。传授诗学。惠栋《南楼授诗图序》曰：“余与沃田两人同志，同研经学，诗所得秘皆然，不得升堂弟子授之。沃田仅女弟子徐媛若冰一人，传其诗学，沃田因慨诗道榛芜，学诗者曾不得其门而入，独若冰好学善悟，遂倾其胸中之秘而与之，此《南楼授诗图》所由作也。余谓沃田曰：‘二南十五国之风，半出女子之手。班彪之息，秦嘉之妻，谢遏之姊，鲍照之妹，咸有集以行世。古来巾帼类能诗而罕通经，故诗有传人而经独亡。’沃田曰：‘是不然。昔河南女子传《说卦》，济南博士女传《尚书》，刘子骏妇女传《左传》，韦逞母宣文君传《周礼》，五经皆女子所传，他日岂无好悟若若冰者，从余两人授业，而发其秘者乎！’余曰：‘善。’适观是图，即述余两人之言，为之序。”[64] 由此可知，对于徐若冰，惠栋与沈大成是抱着严肃认真的态度来对待的，非仅当做风雅韵事，故而对徐若冰期望颇高：在诗学中改变诗道榛芜的状况；而且研习经学，成为韦母那样的儒学大家。为此沈大成与惠栋教授徐若冰各种知识：史学、诗歌、文字、音韵、算数等，尤其是文字训诂。“媛自学于余，《汉书》、《楚辞》、《文选》、古乐府歌词皆成诵，能通其义。间问偏旁，调反切，习笔算。每见余行箧善本书，必借得，挑灯校勘，初寒盛暑勿恤也”。[65]

沈大成教授徐若冰诗学，不仅有自己的方法，还对徐若冰期望有加，与毛奇龄的目的一致。沈大成认为当时“诗道荒榛”，具体表现为“学者问津玉溪，旁涉方城、樊川，泛滥于元白吴韩诸家，八音杂会，五色相宣，意注笔翱，诗境日僻”，而学诗的方法，在于“不越摹写情景；摹写情景之妙，不越缠绵悱恻、细腻风光而已。故夫情触景生，景因情立，二者交倚，阙一则盭。唐音皆然，玉溪生尤入三昧耳。”因此决定指授徐若冰学李商隐以入诗学之门。杨锺羲《雪桥诗话三集》卷七评价沈大成教授诗学之法说：“沃田授若冰玉溪生诗，谓诗之贵一曰纆绵悱恻，又曰细腻风光，……。沃田胸中秘盖不止此然，其说于初学为宜。”[66]可见沈大成教授的认真态度。 尤其值得注意的是，这种教授是面对面的，“若冰从吾受诗西泠，今秋自芜城过吴，憩南楼一月，香垆碗茗，晨夕商榷”[67]。这无疑是认真、严肃的真正意义上的教授，传授诗学原则及诗学理论。这种南楼授诗的模式是女性文学传承的一种传统方式，也是男性关注支持女性才学最直接的一个表现。

这种授诗模式在当时并非罕有，与徐若冰交好的方芳佩也有同样的学习经历。不过略有不同的是，方芳佩[68]的老师有六位之多，且前三位老师主要是教授诗学方法，后三位老师则显扬才名的意味更多，这就开启了后来袁枚女弟子及陈文述碧城仙馆女弟子这样的韵事。

方芳佩的第一位教师不知其姓名，是其父为其兄弟姊妹延请的塾师， 方父云：“乙卯岁（雍正十三年，1735）为侄辈延师，令两侄女暨小女同学，但期略

[63] 《江南女性别集》，第 178 页。
[64]《江南女性别集》，第 186 页。
[65] 《江南女性别集》，第 178 页。
[66] 《附书李义山诗后》，《江南女性别集》，第 186 页。
[67] 《附书李义山诗后》，《江南女性别集》，第 186 页。
[68]方芳佩（1728－1808），字芷斋，号怀蓼，又号凤池，浙江钱塘人，方宜照女，巡抚汪新妻。著有《在璞堂吟稿》、《在璞堂续稿》。

知《内则》、《闺训》，初不望其能文也。”[69] 后乾隆元年丙辰（1736）因“无力复延，侄女遂废去，独小女与书卷有缘，性喜涉猎。”[70]

第二位老师是胡且安。“戊午（乾隆三年，1738）秋，迁居东城，同里老友胡且安经师也，课馆之余，邀至书斋，为之讲解《四书》、课《诗》《礼》，使晓然大义，不为世俗女子所为，愿毕矣。”[71] 胡且安在自己的课余，为方父邀至家中，为芳佩讲解诗书礼仪。

第三位老师是黄筠村。“庚申（乾隆五年，1740）春，黄筠村表弟来舍，传写先代遗像，见小女好弄笔墨。始教以临帖作诗，甫半年事竣谢去，而（胡）且安嗣后亦远馆，不获卒业。”[72] 在学习诗文之后，又开始习字作诗，但只是半年而已。

第四位老师是翁照。[73]“是时（乾隆五年，1740 左右）翁霁堂征君在中丞幕府，屡蒙枉顾奖掖，殷然童年，益觉鼓舞。然宾馆鲜暇，不能奉以为师，日受教益。”[74] 可见翁照在其闲暇之余，亦曾教授方芳佩诗文。

第五位老师则是杭世骏。[75]乾隆八年癸亥（1743）夏，方家移居凤山之麓，“冬间，杭堇浦太史挈眷同居，素托通门，辱收子女之列，亲炙未久，即迁乔。”[76]

方芳佩的第六位老师是朱樟。[77]“戊辰（乾隆十三年，1748），鹿田朱太守自苏门归，以亲谊招致门墙，时相过从。怜其体弱，戒以勿多用心。三年来，仅命数题，余素不工诗，兼之笔耕远出，不遑督课。”[78]

方芳佩的前三位老师是纯粹意义上的教师，主要教授诗礼、经史、书画，侧重学识、才艺的教育，特别是胡且安，对方芳佩诗文的技艺影响最大。所以舒瞻序云：“《在璞堂吟稿》者，钱塘方止斋所作，胡君且安之女弟子也。……芷斋乘其师授，含英咀华，誉流彤管。窃谓诗以温柔敦厚为教，即在闺阁亦未尝不就伦纪，抒写性情。……且安持稿索序，爰题数语，摘录其诗句，俾闺阁之学，为操觚者所取法焉。”序言明确说方芳佩是胡且安的女弟子，而胡且安为方芳佩《在璞堂吟稿》所作序，又详细地阐述了方芳佩诗文的三个特点。“芷斋则连篇累牍，短什长谣，书残十样之蛮笺，秃尽千堆之毛颖。苟其采之邦国，定盈太史之车；若其传播旗亭，几废双鬟之唱。此其不可及者一也。……芷斋则清而能腴，质而不野。初裁近体，三唐之响犹存；载讽古风，六代之无尽迟。嗅旃檀之味，寸寸皆香；如游琼树之材，枝枝是玉。此其不可及者二也。……芷斋则生当南国，家住西泠，老生宿儒之陶镕，名公讵卿之投赠。春风树惠，名媛之芳讯偏多；夜公红蕉，仕女之联吟不少。葡萄异锦，藏秘笈者数千篇；桃李芳龄，享盛名者十余载。此其不可及者三也。”[79] 胡且安完全是以一种师者的姿态来评论方芳佩的诗

[69] 方德发《在璞堂吟稿序》。
[70] 方德发《在璞堂吟稿序》。
[71] 方德发《在璞堂吟稿序》。
[72] 方德发《在璞堂吟稿序》。
[73] 翁照（1677——1755），字朗夫，号霁堂，江阴人，太学生，乾隆元年举博学弘辞，以疾不与试。有《赐书堂诗稿》、《文稿》。
[74] 方德发《在璞堂吟稿序》。
[75] 杭世骏（1696——1772），字大宗，号堇浦，仁和人。雍正 2 年举人，乾隆元年举博学弘辞，官翰林编修，改御史。后主扬州安定、广州粤秀书院讲席。
[76] 方德发《在璞堂吟稿序》。
[77] 朱樟，字亦纯，一字鹿田，号慕樵，晚号灌畦叟，钱塘人，康熙 38 年举人，官至泽洲知府，卒年 80。著有《观树堂集》七种；《一半勾留集》、《问绢集》、《白舫集》、《里居杂诗》等。
[78] 方德发《在璞堂吟稿序》。
[79] 胡且安《在璞堂吟稿序》。

文，言下明显将方芳佩的诗词成绩引为骄傲。

方芳佩与翁照、杭世骏、朱樟等后三位老师的关系主要是诗词的唱和，翁、杭两位都是当时著名文学家，与他们唱和无疑有助于提高方芳佩在社会上的声望。其中杭世骏的影响力最大，不仅为其刊印诗集，还请名人为作序。方父的序言详细叙述了《在璞堂吟稿》刊行始末。先是杭世骏要求王鸣盛为之删定出版，“顾征君（杭世骏）独切嗜痂之爱，间岁必买棹惠临，锡以百朋，厚加期许，谆切恳至，久而愈殷，携稿吴门，捐资付梓”[80]，而后庚午（1750）冬，杭世骏“持一样本见示，系王凤喈孝廉选定”，但这个版本不精良，因为“未暇校雠，尚有遗漏，业经刷送，无从增补”。[81] 第二年（辛未，1751）三月杭世骏来杭，“又取去近稿数纸，复付金阊钞胥，钦奉召试，驰赴江宁，适疾作，未及与考，归询梓人，已订就数百本。”[82] 而此次订补也不理想，“益多差讹倒置，承先后分送於燕赵齐鲁及大江南北，而梓里亲友来索，愧无以应”。[83]第三次修改是在同年秋季，“重九前征君携板见掷，嘱将差讹者改正，遗漏者续编，倒置者工，不能施仍之，爰备述所由，并历述颠末。”[84] 杭世骏对方芳佩的奖掖，使其名为人所知，使其诗在社会上流传，令方父非常感激，自愧“余则无力栽培，师资不专，根底未厚，吟稿原不足存，而征君一片嘘植盛心，始终罔替，世所罕觏，岂惟愚父女永矢弗谖，即闻者亦应志感耳。”[85]

杭世骏还请王鸣盛为方芳佩删定诗集、为之作序。王鸣盛云：“庚午春，……出名媛方芷斋诗垂示，且谓曰：‘吾与方氏通家世讲，今芷斋方待字，性耽佳句，有林下风，吾将为鋟诸木，子其删定而序之。’予不敏，何足定芷斋诗，然以先生怜才若渴，搜遗剔隐，旁及闺闱，何敢藏其固陋，虚先生之盛心，遂以私意为决择，得尤雅者百十余篇，都为一卷。”方芳佩凭自身的才学以及杭世骏的大力推荐，得到王鸣盛很高的评价：“唐贤复古之功以清真为至，而予求之流辈，罕遇其人，若得诸闺闱中则尤难。今芷斋之诗，剪刻明净，欲以幽好避群，言志之篇则宛转而缠绵；体物之作，秀发而浏亮，譬则秋兰丛菊，嫣然风露之外，虽卷帙无多，性情风骨俱见焉，信乎其可传已”。[86]

杭世骏对于方芳佩的评价和期望也极高。“芷斋夙有灵解，从余指授诗法，微吟短咏，时露秀颖，为当今巾帼中所仅见，余尝戏谓条山撒盐空中真是笨伯，厕道韫於封胡遏末之后，不愈於谢家兰玉乎？”[87]并且说自己“老亦隐，籍芷斋为重”， 因而希望为之结集出版。

从徐昭华、徐若冰到方芳佩，这种南楼授诗传统逐渐成熟，表现为这样几个特征：真正的知识传授；为女弟子刊刻诗集；对女弟子有着文学期待。这些做法扩大了闺秀才媛在社会文化和文学领域里的影响，吸引了大批女子从事文学创作，并且把拜师作为获得才名的一种手段，与南楼授诗的单纯的文学知识获得不同，因而才有了袁枚女弟子湖楼诗会这样的盛事与韵事。

即使袁枚与女弟子的诗会招致非议，或者被认为袁枚具有自己的个人目的，

[80] 方德发《在璞堂吟稿序》。
[81] 方德发《在璞堂吟稿序》。
[82] 方德发《在璞堂吟稿序》。
[83] 方德发《在璞堂吟稿序》。
[84] 方德发《在璞堂吟稿序》。
[85] 方德发《在璞堂吟稿序》。
[86] 王鸣盛《在璞堂吟稿序》。
[87] 杭世骏《在璞堂吟稿序》。

如王标所谓“风流才子的声名和肉体的生命力的确认”[88]，但人们仍视之为南楼授诗传统的延续。陆以湉《冷庐杂识》云：“近日《随园女弟子诗》盖仿此（昭华每赋诗，必求毛奇龄指正）而益臻其盛，然人既多，而诗不佳，失之滥矣。”[89]虽然此时的这种授诗不具有南楼时期教授的严肃性与学术性，但其社会意义则相同。袁枚刊刻《随园女弟子诗选》，绘制《湖楼请业图》，对女性传播起了重要的推动作用是毋庸置疑的，且女弟子与袁枚也经常谈诗论道，并非仅是附庸风雅而已。如袁枚女弟子吴清浣有《与随园老人论用叠字法》云：“ 简斋吾师宗匠文席，西湖别后，又自夏徂秋矣。杭州酒痕，未知尚留襟上否？清浣作诗，最不喜用叠字，而吾师谓此未窥诗之门径也。历举毛诗‘关关雎鸠’、‘滔滔江汉’、‘赫赫师尹’等句以相指示，清浣虽若有所悟，而仍未尝一效其体。及读唐人‘漠漠水田飞白鹭’一联，始叹绘景之妙，全由‘漠漠’、‘阴阴’生出。又读‘梨花院落溶溶月’一联，愈叹上句清旷夷犹之气，非‘溶溶’不显；下句蕴藉冲和之致，非“淡淡”不达，诚化工之笔。清浣遂一效颦，得句为：‘晓树红蒸霞簇簇，香池碧泻水溶溶。’举示徐咏湘萌姊，而泳湘见之，不加可否。但濡毫易‘泻’为‘给’，易‘溶溶’为‘鳞鳞’。嗯!前贤有一字师，今清浣得此，可称为三字师矣。芸窗无事，书呈吾师，以博一笑。随园诗话，不胫而走，清洗承赐念部，非为同伴强索，即遭胠箧之去。再乞吾师恩赐十部，清浣当什袭藏之，不复夸耀于姊妹行矣。梅开时节，拟买棹赴白门，躬省起居，一瞻清范。女弟子吴清浣盥手谨笺。”[90] 从信的内容可知吴清浣曾与袁枚探讨诗歌运用叠字的技巧，这说明袁枚虽然女弟子众多，失去专门教授诗学的功能，但仍旧有着谈诗论道的学问探讨，也可见男教师女弟子的模式在清代一直沿袭不断，虽然其间有些变化，但对闺秀文学传统的继承及才名的传播，都具有重要作用。

小　结

湖上的闺中雅集促进了女性自身文学体系的发展及才名的扩展；男教师女弟子的南楼授诗模式对女性认识文学传统、掌握文学技巧及扩大才名同样起到重要作用。就是因为一个个西湖，为女性创作提供了自由空间；就是一个个南楼，为女性延续传统、追求文名树立了榜样。因此在清代的“西湖”与“南楼”中女性文学发展繁衍，最终成为一支独立的文学分支，有自己的历史谱系、文学传承以及文学理论，而且对主流文学与文化起到了促进作用，并且在与主流文学与文化的互动中，足称有清“一代之所胜”。

[88] 王标《城市知识分子的社会形态——袁枚及其交游网络的研究》，上海三联书店 2008 年版。
[89] 陆以湉《冷庐杂识》，中华书局 1997 年，第 253 页。
[90] 叶玉麟选注《详注历代闺秀文选》，大达书局 1936 年版，第 148 页。

《세설신어》에 나타난 팬덤 문화

박경희(숙명여대 중문학부)

들어가는 말
1. 청의와 청담
2. 청담명사와 팬덤
3. 본질의 추구와 추종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한말에서 위진에 이르는 시기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극도로 혼란했음에도 문화적으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던 독특한 시기이다. 즉 3 차례에 걸쳐 전통 이념이었던 유가 대신 도가와 법가를 채용한 求賢令을 반포한 魏 武帝 曹操에 의해 새로운 문화질서가 탄생하게 되면서 신구질서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한말 담론의 주류를 이루던 淸議는 정치적 박해로 많은 희생자를 내며 정치와 무관한 淸談으로 바뀌고, 청의와 청담의 공통분모인 인물품평은 현실 정치와 연관된 정치적 담론에서 실리와 관련 없는 심미적 담론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던 담론은 '청담명사'라는 새로운 아이콘을 만들어 내며 새로운 시대의 트레이드마크로 등장하게 된다. 한말의 陳蕃과 李膺, 郭泰 등 청류명사와 夏侯太初・何晏・王弼로 대표되는 正始名士, 阮籍・嵇康・山濤・向秀・劉令・王戎・阮咸으로 대표되는 竹林名士, 그리고 裴楷・樂廣・王衍・庾敳・王承・阮瞻・衛玠・謝鯤으로 대표되는 中朝名士들이다.

《세설신어》에는 요즈음 TV에서나 보도됨직한 팬덤 현상과 유사한 내용들이 적잖이 수록되어 있는데, 西晉의 潘岳(247-300)과 衛玠(286-312)로 대표되는 아이돌과 그들을 추종하는 팬덤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팬덤이란 일반적으로 엘리트 계층이 아닌 대중문화나 주변 문화에서 나타나는 문화현상으로, 팬이란 현상과 팬으로서의 의식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팬덤의 주된 특징은 자신의 취향이나 선택을 타인과 차별화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며, 자신이 추종하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또한 반고정관념 혹은 반사회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동질적 집단의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1)]

금세기 대중문화의 특징인 팬덤과 유사한 형태의 현상이 1700년 전의 사대부 계층 귀족 중심 사회에서도 발생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의 이러한 팬덤 현상이 현대 대중문화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어떤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지니는 문화적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1) , 대중문화의 이해, 도서출판 한울, 2010, 321-333쪽

1. 청의와 청담

동한의 관리 등용제도는 한 사람의 덕행에 대한 향리의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鄕擧里選의 孝廉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향리의 여론--즉 담론은 出仕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정 부분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더욱이 桓・靈帝 시기의 환관과 외척의 정치 투쟁 속에 나라가 도탄에 빠지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등장하였으니 바로 관료세력과 태학생들이다. 이들은 상서를 올리거나 여론을 조성하며 태학생들을 동원하여 학생운동을 일으켰는데, 대대로 관직을 세습해 온 관료들은 식객과 속관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고 풍부한 경제적 기초와 막강한 정치적 역량을 지니고 있었다. 유생들은 유학을 기초로 하여 효렴이나 徵辟 등을 통해 관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매관매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전횡을 일삼는 환관세력과 대항하기 위해 외척세력과 연합세력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덕망 있는 인물들의 말과 행실을 士則과 世範으로 삼고 서로를 추대하며 '淸流'라고 자처하면서, '濁流'라 일컫는 환관세력과 대항했던 것이다.

진번의 말은 선비의 준칙이 되었으며, 행동은 세상의 모범이 되었다. 수레에 올라 말고삐를 잡고는 천하를 깨끗이 하려는 뜻이 있었다.(「陳仲擧言爲士則, 行爲世範, 登車攬轡, 有澄淸天下之志.」덕행-1)

이응은 풍격이 수려하고 엄정했으며 고상하게 스스로 높은 긍지를 지니고 있어서, 세상에 명분의 가르침을 펴고 시비를 바로잡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으려 했다. 후배된 선비로서 그의 당에 올라 수업을 받은 자는 모두 등용문에 올랐다고 여겼다.(「李元禮風俗秀整, 高自標持, 欲以天下名敎是非爲己任. 後進之士, 有升其堂者, 皆以爲登龍門.」덕행-4)

곽태가 여남에 가서 袁閎을 방문할 적에 수레는 바퀴를 멈추지도 않고 말방울 소리는 멍에에서 그치지 않을 만큼 잠깐만 들르더니, 황헌을 방문해서는 이내 하루를 다 보내고 다음날까지 머물렀다.(「郭林宗至汝南造袁奉高, 車不停軌, 鸞不輟軛. 詣黃叔度, 乃彌日信宿.」(덕행-3)

관료세력인 陳蕃(?-168)과 李膺(110-169), 태학생 세력인 郭泰(128-169) 등은 외척세력인 竇武와 손잡고 天下名敎是非를 담론의 주제로 삼아 여론을 장악하여 탁류세력인 환관과 대립구도를 이룬다. 이들은 서로 덕망을 지닌 대표 인물들을 三君・八俊・八顧・八廚로 표방하며, 郡에 있는 유생들을 규합하여 조정을 비방하거나 風謠나 民謠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성하며 정치질서의 새로운 재편을 꿈꾼다.

이처럼 淸議를 무기로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청류명사를 중심으로 추종자들끼리 당파를 만들고 담론을 세력화하며 정치를 좌우했던 黨人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 형태의 팬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66년과 176년 두 차례 黨錮의 禍를 겪으며 청의의 주도세력이던 6-700여명의 청류인사와 태학생 1,000 여명이 죽임을 당하자, 담론은 점차 정치적 이해득실과 상관없는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게 된다. 현실 정치와 무관하게 한 사람을 심미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새로운 지경을 여는 것이다. 그러나 위진에 이르러 갑자기 담론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고 동한시기에 이미 존재하던 심미적 담론이 위진 시대에 와서 정치적 담론을 대신해 유행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동일 인물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담론을 예로 들어보자.

---

2) , 《魏晉淸談》, 東大, 臺灣

진기가 11살 때 위공을 방문했는데 원공이 물었다. “그대의 부친이 태구의 현령으로 있을 때 원근사람들이 모두 칭송했는데, 시행한 바가 무엇이었는가?” 진기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희 부친께서는 태구에 계실 때 강포한 자는 덕으로 달래고 유약한 자는 인으로 어루만져 각기 편안한 바를 따르게 했더니,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부친을 경애했습니다.”...(「陳元方年十一時, 候袁公. 袁公問曰:『賢家君在太丘, 遠近稱之, 何所履行?』元方曰:『老父在太丘, 彊者綏之以德, 弱者撫之以仁, 恣其所安, 久而益敬.』...,정사-3)

어떤 객이 진심에게 물었다. “그대의 부친이신 태구께서는 어떠한 공덕이 있으시기에 천하의 뛰어난 명성을 한 몸에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저희 부친은 비유하자면 계수나무가 태산 언덕에서 자라는 것과 같아서, 위로는 만길이나 되는 높이가 있으며 아래로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감로가 적셔주고 아래로는 깊은 연못이 윤택하게 해주니, 이런 지경에 있게 되면 계수나무가 어떻게 태산의 높음과 연못의 깊음을 알겠습니까? 부친께서는 자기에게 어떤 공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십니다.”(「客有問陳季方:『足下家君太丘, 有何功德, 而荷天下重名?』季方曰:『吾家君譬如桂樹生泰山之阿, 上有萬仞之高, 下有不測之心; 上爲甘露所霑, 下爲淵泉所潤. 當斯之時, 桂樹焉知泰山之高, 淵泉之深, 不知有功德與無也!』」, 덕행-7)

陳寔(104-187)과 陳紀・陳諶 삼부자는 至德絶俗한 명사로 사람들이 고을마다 그들의 초상화를 그려 놓고 추앙했던 인물들이다.[3] 陳紀(129-199)는 특히 당고를 당하자 분노하며 수십만 자에 이르는 저술을 하여 陳子라고 불렸는데, 11 세에 내린 부친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공적에 중점을 둔 것으로 유가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러나 동생 陳諶은 부친을 태산의 한 모퉁이에서 자라는 계수나무에 비유하며 부친의 공덕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 그 자체로부터 온 것임을 은유와 함축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태산의 높음과 계곡의 깊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심히 천애 절벽에서 자라고 있는 계수나무를 통해 무위자연의 도가적 경지에 도달한 부친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유사한 질문에 대한 두 사람의 품평은 확연히 다른 색채를 지니고 있다. 전자가 겉으로 드러난 유가적 공적에 무게를 둔 현실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한 사람의 정신적인 내면을 읽어내는 심미적 인물품평으로 도가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동한 시기에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담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성품과 재능에 대한 평가가 인재등용이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던 효렴의 인물평과 달리, 심미적 인물품평이란 예술품을 감상하듯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외적인 특질과 장점을 통해 내면에 감춰진 인격미와 재능을 추상적 언어로 표현해 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응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곧게 뻗은 소나무 아래 부는 쏴아 하고 부는 바람처럼 엄숙하다.”(世目李元禮: 『謖謖如勁松下風.』)(8-2)

배령공이 하후태초를 품평했다. “그 엄숙함이 마치 묘당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위의를 차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경의를 표하게 된다.” 일설에는 이렇게 말했다고도 한다. “하후태초를 만나면 마치 종묘에 들어간 것처럼 그 빛나는 모습이 예기와 악기를 보는 것 같고, 종사계를 만나면 마치 무기고를 참관하는 것처럼 쌍날창과 미늘창을 보는 것만 같으며, 부란석을 만나면 그 광대함이 갖추지 않은 것

3) 世說新語·德行》6의 주에서 인용한 《先賢行狀》:「陳紀字元方, 寔長子也. 至德絶俗, 與寔高名並著, 而弟諶又配之. 每宰府辟召, 羔雁成 , 世號三君. 百城皆圖畫.」

4)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10쪽

이 없고, 산거원을 만나면 마치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처럼 아득히 심원하다."(「裴令公目夏侯太初: "肅肅如入廊廟中, 不修敬而人自敬." 一曰"如入宗廟, 琅琅但見禮樂器. 見鍾士季. 如觀武庫, 但覩矛戟. 見傅蘭碩, 江廧靡所不有. 見山巨源, 如登山臨下, 幽然深遠."」, 용지-8)

한 사람의 성품이나 겉으로 드러난 태도를 직설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사물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통해 추상적 언어로 표현해 내고 있다. 이응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기개와 강직한 성정을 소나무 아래 부는 강한 바람에 비유하고 있으며, 말과 행동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하후태초의 예의바르고 정갈한 모습을 종묘 안에 잘 준비해 놓은 예기와 악기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얼음처럼 차가운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종회를 무기고 안의 쌍날창과 미늘창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속이 깊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기 어려운 산도를 높은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밝게 훤히 트인 백 칸짜리 집과 같다."(卞令目叔向: 『朗朗如百間屋.』, 용지-50), "마치 가공하지 않은 옥과 정련하지 않은 금과 같아서 사람들은 모두 그 보배로움을 흠모하면서도 그 그릇됨을 무어라 일컬을지 알지 못한다."(王戎目山巨源: 『如璞玉渾金, 人皆欽其寶, 莫知名其器.』, 용지-10), "천 길이나 되는 소나무처럼 높다랗고 무성하여, 비록 울퉁불퉁 옹이가 있으나 대저택을 짓는데 쓰인다면 기둥이나 대들보로 사용될 만하다.(庾子嵩目和嶠: 『森森如千丈松, 雖磊砢有節木, 施之大廈, 有棟梁之用.』용지-15)는 말은 모두 한사람의 능력과 도량에 관한 품평이다. 옥이 가공되지 않았고 금이 정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 질 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비유 하고 있다. 또 화교의 결점을 대저택에 사용된 옹이 있는 대들보에, 숙향의 큰 도량을 백 칸짜리 집에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조차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심미적인 안목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한 두 마디 혹은 한 두 단어로 한 사람의 전체적인 풍격을 표현해 내기도 한다.

무원하가 배해와 왕융을 품평했다. "왕융은 간약함을 숭상하고 배해는 청통하다."(武元夏目裴、王曰: "戎尙約, 楷淸通."용지-14)

풍손은 본성이 맑고, 이순은 자질이 고상하며, 순수한 건 형교로다.(時稱: "馮才淸, 李才明, 純粹刑."(용지-22)

사유여가 말했다. "친구 왕미자는 이치에 통달하고 자유분방하며, 혜연조는 고아하고 품덕이 뛰어나며, 동중도는 탁월하고 기품이 있다.(謝幼輿曰: 友人王眉子淸通簡暢, 嵇延祖弘雅劭長, 董仲道卓犖有致度.」용지-36)"

淸・明・尙約・淸通・純粹・淸通簡暢・弘雅劭長・卓犖有致度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여 한 사람의 됨됨이나 풍격을 표현해 내고 있다. 淸・通・簡・約・暢과 같은 평어는 당시 위진인들이 추구하던 乘物遊心의 경계에서 얻어지는 최고의 덕목으로, 도가에서 추구하는 이상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한사람의 겉모습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정신세계의 외재화를 통한 최고의 인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품평 용어들은 梁代에 와서 유협이 《문심조룡・체성편》에서 문장의 풍격과 한 사람의 개성과의 관계성을 언급한 문학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5] 그러나 효렴을 위한 향리의 여론이나 청의와 마찬가지로 청담도 어떤 면에서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世說新語·文學》18을 보자.

완수는 훌륭한 명성이 있었다. 태위 왕이보가 그를 만나보고 물었다. “노장과 성인의 가르침이 같은가?” 완선자가 대답했다. “아마 같지 않을는지요?” 왕연이 그 대답을 훌륭하다고 여겨 불러 속관으로 삼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석자로 얻은 속관’이라 했다.(「阮宣子有令聞, 太尉王夷甫見而問曰:『老莊與聖敎同異?』對曰:『將無同?』太尉善其言, 辟之爲掾, 世謂『三語掾』」)

이처럼 학문과 담론 능력을 인정받는 즉시 명사의 반열에 오르고 관리에 등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청의와 청담은 동일한 종류의 색이 다른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정치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었으므로 오랜 기간 문화기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2. 청담명사와 팬덤

심미적 인물품평의 영향으로 위진인들은 특별히 사람의 외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관이나 장식품 혹은 嗜好 등에 관해서도 자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세설신어・용지》에는 명사들의 외모에 대한 예화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美姿儀・美容・儁容・似珠玉・面如凝脂와 같은 말로 얼굴생김생김과 자태를 표현하고 있으며, 명사들 또한 자신의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에 분을 바르고 심지어는 걸어갈 때 그림자의 모습에 까지 신경을 썼던 하안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6] 그러나 남자들이 분을 바르던 습속은 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하안이 뜨거운 국을 마시며 땀을 흘리자 본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세설신어・언어》14에서 인용한 秦丞相의 《寒食散論》과 隋 《巢元方諸病源候總論》卷六 〈寒食散發候〉편을 살펴보자.

한식산의 처방은 한나라 때 나왔으나 복용하는 사람이 드물어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다. 위나라 상서인 하안이 처음으로 그 신비한 효험을 얻자 세상에 크게 유행하여 복용하는 자들이 서로 찾아들었다.(「寒食散之方雖出漢代, 而用之者寡, 靡有傳焉. 魏尙書何晏首獲神效, 由是大行於世, 服者相尋也.」)

근세의 상서 하안은 호색하는 성품으로 최초로 이 약을 복용했는데 마음이 명랑하고 유쾌해졌을 뿐 아니라 체력이 더욱 강해지자, 낙양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서로 비법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를 복용하면 오래 누적된 피곤이 한나절 만에 치유되므로,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눈앞의 이익만 취하였다. 하안의 사후에 이를 복용하는 자가 날이 갈수록 더욱 많아져 끊이지 않았다.(「近世尙書何晏, 耽好聲色, 始服此藥, 心加開朗, 體力轉强. 京師翕然, 傳以相授, 萬歲之困, 皆不終朝而愈. 衆人喜於近利者, 不睹後患. 晏死之后, 服者彌繁, 於是不綴.」)

위진의 한식산은 하안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한식산을 복용하면 마음이 명랑해지고 체력이 증강되며 오랜 피곤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비

---

5) 是以賈生俊發, 故文潔而體淸; 長卿傲誕, 故理侈而辭溢; 子雲深寂, 故志隱而味深; 子政簡易, 故趣昭而事博; 孟堅雅懿, 故裁密而思靡; 平子淹通, 故慮周而藻密; 仲宣躁銳, 故穎出而才果; 公幹氣褊, 故言壯而情駭; 嗣宗俶儻, 故響逸而調遠; 叔夜俊俠, 故興高而采烈; 安仁輕敏, 故鋒發而韻流; 士衡矜重, 故情繁而辭隱. 觸類以推, 表裏必符, 豈非自然之恒資, 才氣之大略哉!

6) 세설신어·용지》2:「何平叔美姿儀, 面至白; 魏明帝疑其傅紛. 正夏月與熱湯 . 旣噉, 大汗出, 以朱衣自拭, 色轉皎然.」의 유효표 주에서 인용한 《魏略》曰:『晏性自喜, 動靜粉帛不去手, 行步顧影.』

소가 함유된 한식산은 장기 복용 시에 만성비소중독증으로 얼굴이 투명할 정도로 하얘지고 두 다리를 굽히기 힘들어지며, 사지경직과 전신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복용 후 열기가 심장에 몰리므로 온 몸에 나타나는 한기를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술을 마셔야 한다. 모친상을 당한 완적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하겠다.

완적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진문왕의 연회석상에서 술과 고기를 먹었다. 사례교위 하증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다. “명공께서 바야흐로 효로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신데, 완적은 친상을 당했으면서도 공공연하게 명공의 연회석상에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니, 마땅히 나라 밖으로 유배시켜 풍속과 교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자 문왕이 말했다. “완사종이 이처럼 쇠약해졌는데도 그대는 함께 그를 걱정하지는 못할망정 그 무슨 말인가? 또한 상중이라도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본래 상례이다.” 완적은 마시고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 기색이 태연자약했다.(「阮籍遭母喪, 在晉文王坐進酒肉. 司隷何曾亦在坐, 曰:『明公方以孝治天下, 以阮籍以重喪, 顯於公坐飮酒食肉, 宜流之海外, 以正風敎.』文王曰:『嗣宗毁頓如此, 君不能共憂之, 何謂? 且有疾而飮酒食肉, 固喪禮也!』籍飮噉不輟, 神色自若.」임탄-2)

한식산은 뜨거운 성질이 강해서 복용 후에 술과 고기를 먹고 많이 걸어야만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상중의 완적에게 술과 고기가 허용되었던 것이다. 위진인들이 높이 샀던 ‘태연자약한 기색’이란 마음이 안정되고 명랑하고 유쾌해지는 일종의 흥분상태로 ‘명백한 깨달음은 마치 가을 달이 맑은 호수에 비친 것 같고, 마음이 확 트이는 것이 아름다운 봄날 두꺼운 얼음이 녹는 것 같은’ 상태를 말한다.[7] 위진인들은 이를 至人이나 聖人이 천인합일의 경지에서 도달하는 通神 상태와 같다고 여겼다. 그러나 약성이 강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벗어 화기를 발산해야만 한기가 가셨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고목처럼 말라 초췌해지며, 말과 표정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인지기능이 상실된다.[8]

왕연은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했으며 현담에 뛰어났다. 항상 백옥자루가 달린 주미를 들고 있었는데, 흰 손과 백옥자루를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王夷甫容貌整麗, 妙於談玄, 恒捉白玉柄麈尾, 與手都無分別. 14-8)

수려한 외모와 담론에 능한 동진명사 왕연은 항상 주미를 들고 다녔다. 주미는 講僧이 들던 총채(拂子)와 유사한 것으로 위진 명사들이 담론을 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으나 후에 아무 때나 들고 다니는 명사의 필수품이 되었다. 왕연의 손이 주미의 백옥자루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왕연도 한식산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한식산도 주미와 마찬가지로 명사를 대표하는 문화기호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반악과 하후담은 모두 수려한 용모를 지녔으며 함께 다니기를 좋아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連玉’이라고 불렀다.(潘安仁、夏侯湛竝有**美容**, 喜同行, 時人謂之“連璧.”, 14-9)

배해는 뛰어난 용모와 자태를 지니고 있어서, 관모를 벗고 있거나 허름한 옷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어도 모두 보기 좋았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옥같은 사람(玉人)’이라 여겼다. 그를 만나본 사람이 말했다. “배숙칙을 보면 마치 옥산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밝게 비춘다.”(裴令公有**儁容**儀, 脫冠冕,

---

7) , 〈寒食散藥所以發病第六〉,《余嘉錫文史論集》 203쪽

8) 《魏志・管輅傳》注에서 인용한《輅別傳》:「管輅曰: 『何之視候, 魂不守宅, 血不華色, 精爽烟浮, 容若고槁木, 謂之鬼幽, 鬼幽者爲火所燒.』」

麤服亂頭皆好. 時人以爲『玉人』. 見者曰:『見裴叔則如玉山上行, 光映照人.』, 14-12)

왕돈이 왕연을 칭찬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주옥이 기와조각 사이에 있는 것 같다.”(王大將軍稱太尉: 『處衆人中, 似**珠玉**在瓦石閒』, 14-17)

왕희지가 杜乂를 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얼굴은 기름이 엉켜있는 것 같이 피부가 하얗고 윤기가 흐르며, 눈은 옻칠을 한 것처럼 새카맣고 또렷하니 신선계의 인물이로다.”(「王右軍見杜弘治, 歎曰:『**面如凝脂**, 眼如點漆, 此神仙中人.』」, 14-26)

수려한 용모와 자태를 지닌 명사를 ‘옥’에 비교하여 連璧・玉人・玉山・珠玉과 같다고 찬탄하며, 피부가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두홍치를 신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위진인들이 병적으로 여성미에 탐닉하고 초현실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현실에 대한 절망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 신선처럼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 혹은 여성처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도피처로 삼고 싶은 잠재의식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반악은 용모가 빼어났으며 표정과 태도가 매력적이었다. 젊었을 때 彈弓을 옆에 끼고 낙양 거리로 나가면 그를 만난 여인들은 모두 손을 맞잡고 그를 에워싸곤 했다. 좌사는 너무 못생겼으나 역시 반악을 흉내 내서 놀러 나갔다가 여인들이 일제히 마구 그에게 침을 뱉는 바람에 기가 죽어 돌아왔다.(潘岳妙有**姿容**, 好**神情**. 少時挾彈出洛陽道, 婦人遇者. 莫不連手共縈之. 左太沖絶醜, 亦復效岳遊遨, 於是羣嫗齊共亂唾之, 委頓而返. 14-7)

반악은 서진 문단의 삼대가 중의 한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빼어난 용모와 淸艶한 문재로 이름이 높았으며, 〈西征賦〉・〈秋興賦〉・〈寡婦賦〉・〈閑居賦〉・〈悼亡詩〉등 중국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명시들을 남겼다. 또한 石崇・陸機・劉琨・左思등과 더불어 賈謐 24友 중 한사람으로 석숭의 金谷園에서 활동했으므로 金谷二十四友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趙王 司馬倫의 찬위사건에 연루되어 삼족이 죽임을 당하는 멸문의 화를 당했다. 좌사 또한 장안의 지가를 올린 〈三都賦〉의 작가로 재능과 문장이 반악에 뒤지지 않음에도 못생긴 탓에 여인들에게 침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 당시 외모를 중시하는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반악이 거리에 나서면 손에 손을 맞잡고 담을 만들어 반악을 에워싸고 구경하거나, 타고 나간 수레 가득 과일을 던지던 여성들은 아이돌 스타들의 스케줄을 따라 카메라를 들고 공항으로 운집하는 현대의 팬덤들과 지극히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9] 여성에게 과일을 던지던 국풍시대 남성들은 마침내 위진에 이르러 여성 같은 미모의 남성을 환호하는 광적인 여성 팬덤들의 ‘구경독’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위개가 豫章으로부터 建鄴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의 명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에워싼 구경꾼이 담을 친 것 같았다. 위개는 이전부터 병약했기 때문에 몸이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구경 독이 위개를 죽였다’고 말했다.(衛玠從豫章至下都, **人久聞其名**, 觀者如堵墻. 玠先有羸疾, 體不堪勞, 遂成病而死. 時人謂『看殺衛玠』14-19)

위개는 西晉 武帝 太康 7년(286)에 태어나서 懷帝 永嘉 6년(312)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시기는 八王의 난・五胡亂華・永嘉南渡의 혼란시기였다. 조부 衛瓘은 진의 개국공신으로 太尉

9) 용지7〉의 유효표주에서 인용한 《語林》曰:「安仁之美, 每行, 老嫗以果擲之, 滿車.」

를 역임했고, 부친 衛恒은 황문시랑을 지낸 유명한 서예가로 《四體書勢》라는 저서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위개가 여섯 살 때, 惠帝 폐위에 관해 조부인 위관이 사마염에게 간언한 일로 외척인 賈充 일당과 賈后에 의해 삼대가 멸족을 당했는데, 병으로 의사 집에서 치료를 받던 위개와 형 衛璪만 겨우 화를 면했다.[10]

명문세족 출신인 위개는 지성과 풍채를 겸비한 王濟조차 자신을 초라하다고 할 정도의 **빼어난 외모**와 훌륭한 자질, 뛰어난 식견과 깊은 학문으로 **청담에 능한** 전형적인 위진 명사이다.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으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 볼 줄 아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일을 잘 처리할 줄 아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녔으며,[11] 유가에 근거한 구국의 의지도 지닌 인물이었다.[12] 그러나 한 번도 희로애락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낸 적이 없었다는 것이나, 온중일 몸조리한다 해도 비단옷조차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볼 때 역시 한식산을 복용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13] 스승이던 樂廣의 딸과 결혼했으나 상처하고, 山簡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의탁했던 왕돈이 충의와 신의가 없다는 이유로 豫章을 떠나 당시 문화 중심지였던 建鄴으로 내려갔던 것이다.[14]

이처럼 위진인들이 극단적으로 외모에 집착했던 것은 청담과 외모가 정치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문벌과 외모와 능력을 겸비한 명사들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극도로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상황 속에서 명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으므로 안정감을 얻고자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인 소요유를 통해 암울한 현실의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했던 명사들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통감하며 한식산을 빌어 이상이 성취되는 순간의 허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抱朴子外篇・譏惑》卷26을 보자.

또 듣자하니 부유한 자들이 상을 당했을 때나 혹은 병을 앓을 때 한식산을 먹게 되면 여러 차례 술을 마셔 강한 약성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는 술을 마시는 것이 목숨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환이 위독하여 차가운 바람을 감당키 어려우면 장막 안에서 이불을 겹겹이 둘러쓰고 편안히 지내게 했다. 이리하여 돈 있고 어리석은 소인배들이 상을 당한 것도 아닌데 항상 다른 방에서 침대에 올라앉아 이불을 두르고 술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고 한다. 혹은 버릇없는 손님들과 서로 술을 권하며 취하도록 마시며, 이것이 수도인 낙양의 풍속이라고 했으니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又聞貴人在大哀, 或有疾病, 服石散, 以數食宣藥勢, 以飮酒爲性命, 疾患危篤, 不堪風冷, 幃帳茵褥, 任其所安. 於是凡瑣小人之有財力者了不復居於喪位, 常在別房, 高床重褥, 美酒大飮; 或與密客, 引萬投空, 至於沈醉, 曰此京洛之法也, 不亦惜哉.」

이처럼 한식산이 당대의 문화기호로 자리매김 하자 한식산으로 인한 명사들의 방달한 행동은 또 하나의 문화 텍스트가 되고, 명사 추종자들은 명사의 표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추종자들이야 말로 현대적 의미의 팬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진의 팬덤들은 명사들의 한식산이 지니는 정신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과 의의에 대한 무지로 인한

10) 晉書·列傳》第6 :「...瓘不從, 遂與子恒、嶽、裔及孫等九人同被害, 時年七十二. 恒二子璪、玠, 時在醫家得免.」
11) 《晉書·列傳》第6 :「玠嘗以人有不及, 可以情恕; 非意相干, 可以理遣, 故終身不見喜慍之容.」
12) 《晉書·列傳》第6 :「臨別, 玠謂兄曰: 『在三之義, 人之所重. 今可謂致身之日, 兄其勉之.』乃扶輿母轉之江夏.」
13) 《세설신어·용지》16:「王丞相見衛洗馬, 曰:『居然有羸形, 雖復終日調暢, 若不堪羅綺.』.」
14) 《晉書·列傳》第6 :「玠妻先亡. 征南將軍山簡見之, 甚相欽重. 簡曰:『昔戴叔鸞嫁女, 唯賢是與, 不問貴賤, 況衛氏權貴門戶令望之人乎!』於是以女妻焉. 遂進豫章.....以王敦豪爽不 而好居物上, 恐非國之忠信, 求向建鄴.」

맹목적 추종으로 인해 건강한 문화주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능동적 문화생산자로 발전하지 못하고 문화 소비자의 단계에 머무는데 그치고 말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마니아 집단의 성격을 지닌 팬덤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팬의 의미에 더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

3. 본질의 추구와 추종

나가는 말

참고도서

晉 陳壽撰 《三國志》, 世界書局, 1978, 臺灣
北齊 魏收 撰 《晉書》, 홍씨출판사, 1978, 臺灣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仁愛書局, 1985, 臺灣
余嘉錫 《余嘉錫文史論集》, 岳麓書社, 1997, 中國
唐翼明, 《魏晉淸談》, 東大出版社, 1993, 臺灣
, 대중문화의 이해, 도서출판 한울, 2010,

신자유주의체제의 대안이 되고 있는가 – 왕후이의 충칭사건 비판을 중심으로

*

〈目 次〉

1. 그 이후
2. 충칭사건과 신자유주의의 부활?
3. 충칭모델을 넘어
4. 중국식 복지사회

* 교수, jmlee110@ks.ac.kr.

1. 그 이후

2008 미국 금융위기는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포함한 현대문명의 대전환을 요청할 만큼 인류사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충격을 반영하듯, 1989년 역사의 종언」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미국 금융위기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우수성을 승인하며, '역사의 미래'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자기반성의 입장을 표출하였다.[1] 또한 미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2] 역시 1929년 대공황을 연상시키는 참극을 목도하며 자신의 과오를 실토하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금융규제 완화를 주도한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2008년 10월 미 의회 청문회 증언대에서 "은행을 비롯한 다른 여러 기관들의 사익추구가 그들의 주주와 자기자본 보호를 가능케 해줄 것이라 지레짐작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자백했고, 청문회 의장이 "그렇다면 당신은 그간 세상을 바라보던 당신의 눈과 이데올로기가 틀렸음을 알아챈 것이군요."라고 어르자, 이 거장은 "바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선도한 시카고학파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는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

---

1)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Democracy in America has less than ever to teach China", The Financial Times, 2011.1.17과 "The Post-Washington Consensusa", Foreign Affairs, Mar/Apr 2011, Vol. 90, Issue 2 참고.

2) 금융위기의 발생원인과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사태의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찰스 퍼거슨 감독의 영화 인사이드잡」(2010) 참고.

의심이 싹텄다고 이야기 했으며, 또 다른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게리 베커는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 나 그리고 시카고가 여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고백했다. 리처드 포스너는 자본주의의 실패』를 통해 대재앙에 대한 책임은 규제 완화 운동을 함께했던 자신의 동료들에게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붕괴가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심장부를 사정없이 내리쳤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시장 철학을 말 그대로 철저하게 몰락시켜버렸기 때문이다. 2010년 포스너는 1930년대식 은행 규제 법안의 부활을 요청하면서, 예전의 그였다면 상상할 수조차 없을 법한 글을 썼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적자지출 아이디어를 제시한 천재이자 시장자유주의 집단을 떨게 만든 이라 추앙했던 것이다.[3)]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보세력은 1929년 대공황 이후 금융규제, 뉴딜정책, 미국식 복지시스템을 통해 소위 수정자본주의체제를 구축한 것과 같은 혁신정책이 금융위기 이후 재시도되어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체제가 출현할 것을 기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영미식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중국굴기의 경험을 중시하고 그 가운데서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과 민생정책을 통해 금융위기의 한파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충칭모델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는 진보세력이 기대한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부활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대표 이데올로그들의 자기반성[4)]에도 불구하고 대공황 이후의 세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공황의 주범이었던 고도금융과 투기성 위험 관리를 위한 글래스-스티걸법과 같은 금융 규

---

3) 프랭크, 함규진·임도영 역,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갈라파고스, 2013, 54쪽.

4)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은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가들 역시 구제금융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미국의 대표적 신자유주의 찬양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구제법안을 구하라(Rescue the rescue)」라는 제목의 칼럼을 『뉴욕타임즈』 2008년 9월 30일자에 게재하였다. 그동안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며 정부의 개입을 경멸했던 그가 이번에는 자신의 신념까지 어기며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촉구했던 것이다.

정립하지 못했고, 일자리와 유효수효 창출을 위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과 달리 천문학적인 긴급규제금융을 풀어 규제해야 할 월가의 고장난 금융체제를 되살려주었고,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통해 미국식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했던 1930년대와 달리 국민건강보험 개혁조차 후퇴하고 말았기 때문이다.[5)]

루즈벨트와 같은 역할을 기대했던 오바마는 월가의 지배력을 되찾으려는 행크 폴슨의 운동과 절연하지 못했고, 투자은행의 힘이 미국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려는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폴슨의 전략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게이트너를 재무장관에 임명하였고, 구제금융 정책의 핵심인물인 벤 버냉키를 연방준비이사회의 수장에 계속 앉혔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내며 전통적인 은행 규제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친 래리 서머스를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뽑았다. '사회주의자'라고 매도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권의 경제 팀은 은행의 국가 소유 지분에 대해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하지 않았고, 부실 운영 책임을 물어 그런 기관의 장을 교체하려는 시도도 일체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적 반대세력이 형성된 이래 오바마 팀은 월가의 입장을 존중하는 결정만 내렸다.[6)] 이는 민주당의 비전이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서민들의 삶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주의 내부의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5) 이 문제를 오바마와 민주당의 개혁 실패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세계정치 역학으로 볼 때 대공황시기에는 소련이라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하여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당시 소련의 '계획경제'는 대공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감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주의적'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시대에는 1990년대 전후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하여 위기 극복에 사회주의적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이 사라진 상태였으며, 진보세력이 중국모델을 주목한 것도 대공황 시기 소련의 '계획경제'와 같은 대안을 기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국 자유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전세계적인 자본주의 폐해 속에 '계획경제'를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수용한 것은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쉬지린, 왜 다시 계몽이 필요한가』(송인재 옮김, 글항아리, 2013), 제7장 자유와 공정 사이에서: 중국의 사회민주주의 참고.

6) 토마스 프랭크, 앞의 책, 213쪽.

티파티를 비롯한 우파들은 사회 진보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입증된 도구는 자유시장이라고 주장하였다. 엉망이 된 경제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순수한 진짜 자본주의 국가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헌법과 그것을 만든 이들이 진정으로 뜻한 바를 다시금 찾아내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시장의 힘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자유로웠던 적이 없으며, 따라서 현재 벌어지는 악몽 같은 일들로 시장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신성한 자본주의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들로, 히틀러 같은 악의 무리로 매도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보수 우파의 소란스럽고 현란한 전술에 답답하게 대응하고, 스스로의 장점과 핵심 정책대안들도 상대방에게 빼앗겨버리고, 조용한 다수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 결국 뼈아픈 패배(2010년 선거 완패)를 겪어야 했다. 민주당은 여러모로 속수무책이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였던 의료보험 문제에서의 실책이었다.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2008)에서 드러났듯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이 문제는 미국 시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낼 만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우파의 반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전문가에 의존해 기술적 설명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개혁 실패와 수구세력의 성공적 반발로 인해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체제의 판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2012년 3월 신자유주의체제의 대안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충칭모델의 주역인 보시라이가 의문에 휩싸인 채 실각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충칭시 부정부패 척결의 영웅이었던 왕리쥔이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연이어 보시라이 일가의 부정 행각이 드러나는 과정이 전 세계에 중계되다시피 하다가 보시라이의 실각으로 일단락되었다. 왕후이는 이 사건을 중국과 국제세력이 연합하여 음모한 신자유주의 부활의 신호탄이라 비판하고 있는데,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2. 신자유주의의 부활?

실각 직후 왕후이는 충칭사건- 밀실정치와 신자유주의의 권토중래」[7]라는 글에서 충칭사건을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남순강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한 상황과 비교하며, 이 사건은 밀실정치와 문혁의 수사를 통해 충칭모델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2005년 이후 상당 부분 중단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재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전제였다고 비판한다. 주지하듯이 남순강화는 천안문사태 이후 혼란스런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성을 선포하기 위해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시범지역인 남방의 도시를 방문하며 중국 내외의 자본가들에게 시장경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 사건이다. 남순강화 이후 중국은 외국자본들의 폭발적인 유입이 이어지고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세계의 공장으로 굴기할 수 있었다.

남순강화는 정치적 통제 아래 추진되는 시장화 개혁의 모델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지향성을 지닌 대규모 개혁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추진된 국유기업의 사유화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와 제도적 부패를 초래했다. 지지부진한 농촌개혁은 광범위한 삼농위기를 불러왔고, 시장화 사유화를 지향했던 사회보장체계(의료보장체계를 포함하여) 개혁은 보장체계의 전면적인 위기를 가져왔다. 빈부, 도농,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심각한 생태 위기 역시 초래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의 후과였다.[8]

---

7) , 성근제 역, 충칭사건-밀실정치와 신자유주의의 권토중래」, 『역사비평』 여름호, 역사비평사, 2012. 아울러 이 글은 유럽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 마크 래너드가 편한 『CHINA 3.0』(2012.11)에 「Political repression and the resurgence of neoliberalism in China」라는 제목으로 요약 소개되어 있다.

중국 지식계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했다. 2000년 삼농위기에 대한 대토론을 통해 농업세 감면과 신농촌 건설운동을 이끌어냈고, 2003년 사스를 계기로 의료보장체계에 관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한 동력을 제공했고, 2005년 국유기업에 관한 란센핑-구추쥔 논쟁을 통해 국유기업 개혁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의료·주거·교육의 세 가지 난제에 관한 토론을 통해 민생을 위한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여론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공산당의 정강 조정이 시작되었으며, '사회적 공평을 더욱 중시하는' 정강의 기조가 '효율을 우선으로 하되 공평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90년대의 정강을 대체하게 되었고, '민생 중시' 역시 최근 중국공산당의 핵심 주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9]

후진타오의 신정치 즉 조화사회론, 과학발전관, 포용적 성장 등은 바로 이러한 기층의 민의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권력의 기틀이 안정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정책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대신 "지방의 개혁과 각 지방의 서로 다른 모델 사이에 전개 된 경쟁"이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충칭, 광둥, 청두, 쑤난, 원저우 등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험되고 있는 지방 모델들은 서로 목표와 정책이 중첩되기도 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놓여 있게 되는데, 이 가운데 충칭은 상대적으로 도농통합이라는 과제에 치중하고 있고, 재분배나 공평, 정의를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충칭은 원래 상당한 수준의 공업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선도적 기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지하여 발전을 추진하고 있었다. 충칭의 염가 임대주택 실험, '국가와 인민의 동반 성장' 구호, 지표교역 실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 진출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는 2000년 이후 중국 사회의 개혁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제출된 '더욱 공평한' 개혁에 대한 강렬한 요구에다 실질적이고 생생한 사례들을 덧붙여

---

8) , 앞의 글, 168쪽.

9) 왕후이, 앞의 글, 169쪽.

있다. 이런 까닭에 충칭의 실험에 대해서는 좌파와 우파 사이의 논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 우파와 우파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의 대립과 날선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10)]

왕후이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흐름 속에서도 기득권 세력들이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재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그 사례가 바로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과 세계은행이 공동연구 발표한 '차이나 2030'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국유기업 민영화, 토지 사유화, 금융 자유화로, 이는 민생정치를 중시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인데, 마침 왕리쥔 사건이 발생하면서 후진타오-원자바오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 시점에서 우리는 충칭사변이 보시라이와 그 가족의 위법행위 및 기율 위반으로 인해 촉발된 상대적으로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더 심각한 배경이 깔려있는 정치적 사건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왕리쥔 사건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다시 한 번 밀어붙이기 위한 일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만약 처음부터 공개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었더라면,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이고 어떤 급의 고위 관료가 연루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당의 기율과 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었더라면, 결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과 그 배경이 밀실에 처박혀 신비화됨으로써 권력가들이 사태를 컨트롤(유언비어의 창궐은 이러한 컨트롤의 결과임과 동시에 컨트롤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하기 위한 거대한 공간이 열리고 있었다. 원자바오의 발언은 왕리쥔의 미국 영사관 진입이라는 '개별적 사건'을 충칭 실험에 대한 평가의 문제에 끌어다 붙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문화대혁명' 비극의 재연이라는 차원으로 문제를 확장시켰고. 제11기 3중전회가 확정한 기본 노선과 역사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의 결의를 다시 거론함으로써 충칭 실험이 개혁 노선의 궤도를 벗어난 중대한 정치적 오류인 듯한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11)]

그렇다면 후진타오-원자바오 정권은 천안문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한 남순강화를 진행한 것처럼, 충칭사건을 통해 보시라이의 충

---

10) 왕후이, 앞의 글, 170쪽.

11) 왕후이, 앞의 글, 172쪽.

실험의 오류를 부각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재추진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선 먼저 충칭모델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추진된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충칭모델은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성공의 위기에 직면한 후진타오 정권이 자신의 정책이념인 과학발전관을 구현하기 위한 시범모델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후진타오는 충칭시가 4대 직할시로 선정된 10년째인 2007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왕양 충칭시 당서기를 비롯한 인민대표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충칭시 발전의 비전인 '314' 총체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충칭은 중국의 서부대개발 전략의 중심으로 장강 하류지역인 상하이 등과 연결하여 연해-내륙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발전의 전국적인 확산을 선도하는 중심지역인 동시에 도농 간 격차 및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통합 및 재분배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실험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2007년 12월 왕양에 이어 충칭시 당서기로 부임한 보시라이는 공산당 중앙지도부의 국가전략을 실행할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후 2008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중앙정부와 충칭시 정부는 충칭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비밀리에 충칭을 시찰하고 도농통합형 개혁발전으로 삼농문제 해결, 내륙개방형 경제구축으로 구공업기지 개조와 진흥, 주요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시설 건설로 도농통합 기능 강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강화로 장강 상류에 생태 문명 지역 구축, 민생 개선 중심의 사회 건설로 빈민구제 및 개발 등 충칭의 장기발전을 위한 5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1월 충칭시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중앙정부의 계획문건인 국무원 3호 문건 「국무원의 충칭시 도농 종합개혁과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충칭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우대 정책인 12+10 우대 정책을 충칭시에 제공하였다.[12)]

---

12) 추진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홍규, '충칭모델' 등장과 함의 -'중국모델' 혁신의 관점에서」(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현대중국학회 춘계학

충칭모델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충칭시에 대한 역할 부여와 그에 상응하는 우대정책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핵심 정책[13]인 내륙개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정책, 국유기업 우량화 개혁과 토지지표 거래제 시행 등 국유자산 보존을 통한 선순환적 혼합경제 구축, 호구제 통합과 임대주택 정책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 정책은 중앙정부의 시책에 호응하여 보시라이가 창조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혁명가요 부르기와 범죄와의 전쟁이나 간부의 대중친화적 동고동락 정책과 같은 사회주의 정체성 정책은 중앙정부와 갈등을 노정한 채 보시라이가 주도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충칭모델이 거둔 높은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해소 등의 성과에 대해 다수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충칭시를 방문하여 지지를 표하였다. 하지만 보시라이의 정치적 야심이 드러나는, 군중 동원방식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체성 정책 및 초법적 행정처리 방식은, 201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기념식에서 후진타오가 보시라이의 정치활동을 겨냥하며 문혁과 좌경화를 역사적 오류로 규정한 개혁개방 초의 정책이 옳았다는 발언을 통해 이미 중앙정부의 경고의 대상이 되었다. 2012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을 앞둔 내외 합동 기자회견에서 원자바오가 “오랫동안 충칭시의 역대 정부와 많은 인민 군중들은 개혁건설 사업을 위해 매우 큰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뚜렷한 성과를 얻어왔다. 그러나 현 충칭시 당위원회와 시정부는 반드시 반성해야 하고 진실로 왕리쥔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고 하며 충칭실험의 개혁적 성과와 보시라이의 정치적 오류를 구분하여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왕후이는 원자바오의 문혁 발언이 “충칭 실험이 개혁 노선의 궤도를 벗어난 중대한 정치적 오류인 듯한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며, 이는 광둥이나 원저우 모델 역시 무수한 오류와 위기

논문발표집, 2012.5. 참고.

13) 충칭모델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성근제,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역사비평』 97호, 2011 겨울, 역사비평사 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칭모델에 대해서만 의도적인 정치적 탄압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충칭사건의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바오 발언이 보시라이를 포함한 충칭모델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시라이를 겨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 다음의 두 가지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영남에 따르면, 보시라이의 해임 요인으로 왕리쥔 사건에 대한 문책, 보시라이의 잘못된 작풍에 대한 문책, 중앙정책의 이탈에 대한 문책을 들고 있지만 이것이 보시라이 해임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려우며, 그보다는 보시라이의 행동이 엘리트 정치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단결과 개인의 경쟁 간에 새로운 규범을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인식한다.[14] 또 이홍규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 위에서, 보시라이 사건은 단순한 파벌투쟁이 아니라 당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보시라이의 개인적 야심에 대해 모든 파벌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 중앙 지도부들에 대한 도감청 등으로 비롯된 당 지도부의 분노, 당내 최고 지도자 집단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극좌 노선의 영향력 차단을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15] 이 두 시각을 참고하면, 보시라이의 돌출행위가 파벌을 초월하여 당 지도부의 불신을 받은 것이며, 후진타오-원자바오는 보수적 입장에서 이를 문혁과 같은 극좌적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보시라이 실각 이후 충칭시 당서기로 부임한 장더장은 충칭모델은 없다고 강조하고 관방언론에서도 충칭모델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는 경고의 대상이 된 보시라이 정책에 대한 조정을 통해 보시라이 지우기의 측면에 착중한 것이며 충칭시의 기본적인 경제사회 개혁정책을 대전환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또 충칭모델의 이론가인 추이즈위안은 “2007년 국무원이 충칭을 ‘도시와 농촌 공동 발전 실험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충칭모델이 본격화됐다”며 “보시라이의 실각에도 충칭모델은 끝나

---

14) , 보시라이 해임을 보는 한 시각」(『동아시아브리프』), 54-55쪽.

15) 이홍규,「보시라이의 숙청과 충칭모델의 미래」(『현대중국연구』 14집, 2012), 64-69쪽.

않았으며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16]고 말한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혼합경제 정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정책 등이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것이 시진핑 시대의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현 정부가 보시라이의 색채를 지우면서 충칭실험의 긍정성을 지속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보시라이의 실각이 신자유주의 부활의 신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왕후이가 우려하는 신자유주의 부활은, 보시라이 실각 즈음인 2012년 2월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과 세계은행이 공동 연구발표한 ‘차이나 2030’ 보고서(그 핵심방안은 국유기업 민영화, 토지 사유화, 금융 자유화)의 추진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18차 당대회에서 공유제 경제의 다양한 실현 방법 추진을 동요없이 견지하며, 국유자본을 보다 많은 국가 안전과 국민경제 명맥과 관련된 중요한 업종 영역에 투입하여, 국유경제의 활력·지배력·영향력을 증강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공유제 경제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2013년 4월 인민일보는 국유기업의 역할론을 옹호하며 ‘차이나 2030’ 보고서에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충칭사건이 보시라이의 개인적 야심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이고, 충칭실험이 이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겠지만 고도성장과 민생안정을 동시적으로 이루려는 충칭실험이 시진핑 시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여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충칭사건을 신자유주의 부활의 신호로 보는 것은 과잉우려의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넘어

16) 10년, 기로에 선 한국」, 한국경제, 2013 3.6. 충칭모델과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추이즈위안의 자세한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을 인터뷰하다: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창휘·박민희 엮음, 창비, 2013) ‘추이즈위안: 21세기에 사회주의를 실험하다’ 참고.

이러한 우려는 당연히 충칭실험을 지속시키기 위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충칭실험의 긍정성을 보시라이의 개인적 야심과 분리시켜, 그것이 후진타오 시대의 맥락에서 창안되고 시진핑 시대의 성장 전략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미국 금융위기 이후 민주당의 정책 실패와 수구세력의 반발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부활한 사태를 지적하면서 충칭실험이 지니는 세계사적 의미를 부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왕후이는 충칭모델의 정당성보다 당-국가가 비도덕적인 밀실정치(탈정치화된 정치)를 통해 세계은행과 결탁한 신자유주의의 부활을 시도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17]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중국굴기의 경험과 도전」[18]에서 중국굴기의 성공 요인으로 독립된 주권을 바탕으로 한 당-국가의 시장조절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과 상충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왕후이의 사유 속에 왜 이런 상호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중국굴기의 경험과 도전」 전후로 당-국가의 역할에 대한 왕후이의 사유를 검토해보면 상충되어 보이는 두 가지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성장을 위해 전지구적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도 다국적 자본의 침탈로부터 국내 경제를 보호하여 독립적이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당-국가의 자주성을 평가하는 시각이고,[19] 다른 하나는 당

---

17) "기존의 중국 체제와 발전모델을 넘어서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건 하에서 충칭실험은 지방 당정 기구의 조직과 추동, 군중의 적극적인 참여, 지식계의 공개적 토론을 통해 추진되었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국부적 개혁이었다. 이러한 충칭의 개혁과 실험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견해와 평가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는 이 개혁이 일종의 공개적 정치였으며, 민중의 참여를 지향하는 개방적 민주주의의 실험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개혁개방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개혁 실험이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전개된 것은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라고 하며 충칭실험의 긍정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글쓰기 전략은 충칭실험의 정당성 부각보다는 당-국가의 밀실정치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부활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8) 이 글은 文化縱橫』2010년 2기에 발표되었으며, 한국에는『황해문화』2011년 여름호에「중국 굴기의 경험과 도전」(최정섭 옮김)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

- 인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특정한 시장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정당으로 변질되어가는 점을 비판하는 시각이다.[20]

먼저 자주성의 시각은 중국 사회주의를 서구의 자본주의가 아닌 중국 특수성의 방식으로 현대성을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현대성의 현대성' 논리[21]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편입되면서도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추구함으로써 소위 '중국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자주성은 서구 중심적인 세계체제에 종속되지 않는 중국 특수의 발전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인데, 왕후이는 이것을 신해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이르는 '단기 20세기'의 중국혁명의 경험과 아울러 장기 시간대에서 중국 고대 문명제국의 경험과 연계하여, 중국의 정체성(특수성)이 서구 보편주의와 제국주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장기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인민의 시각은 인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평등정치를 지향하는 것인데, 왕후이는 당-국가가 개혁개방 초기에 이러한 시각을 견지했으나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진행하면서 대표성의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한다. 이는 당-국가 체제와 신자유주의 시장화가 조성한 탈정치화된 정치로 인해 중국사회와 인민대중이 정치적 능력을 상실하여 공공생활에 대한 참여가 미미한 실정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을 종합해보면 왕후이가 생각하는 당-국가의 바람직한 역할은 자주성을 지니면서 인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

---

19) 시각이 드러난 글로는 中國制造與另類的現代性」,『裝飾, 總第181期(2008年5期),『中國道路的獨特性與普遍性」,『社會觀察』 2011年 4期,「上昇期的矛盾, 體系性危機與變革方向」,『21世紀經濟報道』 2011年12月30日 참고.

20) 이러한 시각이 드러난 글로는「當代中國的思想狀況與現代性問題」,『文藝爭鳴』, 1998年 第6期(總80期),『去政治化的政治:短20世紀的終結與90年代』, 三聯書店, 2008,「再問'什麽的平等'?」,『文化縱橫』 2011年 5期 참고.

21) 왕후이의 '반현대성의 현대성' 논리에 대한 비판은 졸고「왕후이의 중국 개혁개방 서사에 대한 질의」,『중국현대문학』 제61호, 2012 참고.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왕후이의 사유 속에서 상충되어 보이는 것은 현재의 당-국가가 자주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으로 인해 인민이 아닌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 셈이다. 「중국굴기의 경험과 도전」 발표 이후 국가주의자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주위의 의심에 대해, 당-국가 체제는 자신이 가장 역점을 두어 비판하는 것이며 중성정부론 역시 중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대다수 인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는 왕후이의 반박[22] 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왕후이의 이러한 관점에는 몇 가지 해명해야할 문제가 있다. 먼저, 자주성은 전지구적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당-국가가 자본을 사회적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지칭하는데, 중국의 발전방향이 전지구적 자본주의 내부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것을 자주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당-국가가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여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이룩한 능력은 인정되지만 개혁개방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각하게 수반된 상태에서, 이를 자주성 실현의 과정이라고 부르기는 미심쩍다고 할 수 있다. 즉 당-국가의 자본 통제가 세계화의 적응 면에서는 우수하게 발휘되고 있으나 세계화의 함정인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자주성보다는 세계화의 적응과 종속의 이중운동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국가가 자본의 효율적 관리능력은 탁월하게 발휘하지만 경제성과의 공정한 분배능력이 취약하다는 점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능력을 동시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국가가 인민의 보편적 이익이 아닌 특권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 현상도 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가 불균등한 상태에서 비

---

22) 「중국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분화: 첸리췬과 왕후이의 경우」, 『동아연구』 32권 1호, 서강대동아연구소, 2012.2, 90쪽.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왕후이는 이를 “국가의지가 자본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 인민 대중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의 자주성 문제”로 이해하는데, 자주성 개념으로는 그 실제적 함의인 자본에 대한 관리능력과 분배능력의 불균등성을 지시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가령 왕후이가 충칭사건에서 신자유주의의 부활을 우려한 것은 국가가 세계은행(자본)의 통제를 받는다는 판단에서 기인하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은 자본으로부터 자주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자본의 논리에 따르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수행하면서도 국내 경제가 다국적 자본에 종속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과정이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과 세계은행이 공동 연구발표한 ‘차이나 2030’ 보고서의 핵심방안인 국유기업 민영화, 토지 사유화, 금융 자유화 역시 세계은행의 일방적 요구(자주성 종속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중심부로 도약하기 위해 중국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왕후이가 우려한 신자유주의의 부활과 관련하여 볼 때 이 문제들은 시진핑 시대의 최대의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국유기업 민영화는 경제성장전략이 산업고도화로 전환됨에 따라 부실 국유기업의 개혁과 선별적 민영화가 불가피해보이지만, 국가기간산업의 안정적 경영, 신성장산업 분야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국가조세수입 확대 등에서 긍정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국유기업의 급진적 개혁은 시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토지사유화는 이미 토지사용권의 매각이 허용되고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이 지대에서 충당되는 현실 속에서, 불법적인 매각이 횡행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범화 작업과 아울러 민생안정을 위한 부동산규제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법규 제정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 금융자유화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해외투자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현재 금융 개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미국 금융위기의 경험을 통해 투기자본과 파생상품 규제하는 과정 속에서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산업고도화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이해관계

사이의 논란이 예상되지만 자본의 효율적 관리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경험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개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그와 관련된 분배능력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정부의 유인이 아니라 시장(임금상승)의 압박 속에서 빠르게 진행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도화가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시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과 노동자는 도산과 실업을 겪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기본 생활의 유지와 재취업의 난제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경제의 차원에서 기업과 산업의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유망한 산업과 직종이 순식간에 사양 산업과 사양 직종으로 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져 노동자들의 삶은 극도로 불안정해진다. 산업고도화는 무엇보다 창의적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창의적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은 국민경제와 자본 그리고 노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된다. 하지만 산업과 일자리의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 문제를 낳는데, 이 문제는 자본주의적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그 휴지기 동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나아가 그들이 보다 고도화된 산업 부문에서 보다 숙련된 노동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업고도화가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이것이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에서 이탈한 이들을 구제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내수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삼고 있는 시진핑시대에 내수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정립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점은 충칭모델을 넘어 중국 모든 지역의 성장모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충칭모델과 광둥모델이 신좌파와 자유주의의 이념을 제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델인 것처럼 비교되는 경향이 있다.[23]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장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혼합경제, 수출과 내수, 사회복지 등에 있어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 각 지역의 조건에 따른 사회주의시장경제 범주의 성장모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해 보인다.[24] 광둥모델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7년 충칭시 당서기였던 왕양이 광둥성 당서기로 부임하면서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에 따라 기존의 발전모델을 쇄신하면서부터인데,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보시라이가 충칭시 당서기로 부임하여 충칭실험을 개시한 시점과 겹쳐진다.[25] 본래 광둥모델은 개혁개방 초기 개방적 지역조건과 세계화의 이점 즉 외자유치와 가공생산 그리고 수출을 통해 급성장을 이루어 중국모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빈부격차와 사회적

---

23) 충칭모델에 대해 김재관은 21세기 국가-사회관계에 관한 중국 지식인의 인식」에서 철학사상적 기준, 주요 동력 및 행위자, 역점 사항, 추진자원 및 방법 등을 기준으로 대체적인 경향성을 비교하고 있으며, 김태욱은 「광둥의 봄-광둥모델을 중심으로」에서 광둥모델과 충칭모델을 민주주의의 가능성 측면에서 비교하며 광둥모델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고, 한우덕은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에서 충칭모델과 광둥모델을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으로 이해하며 광둥모델의 승리를 역설하고 있다. 두 모델에 대한 이러한 비교 속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신좌파와 자유주의의 이념적 대립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츄펑은 「廣東模式與重慶模式的政治意涵」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모든 지역에서 중산층의 권리와 정치참여의 요구 및 빈부격차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광둥모델은 개혁개방의 선도지역에서 나타나는 중산층의 권리와 정치참여의 요구를 구현하는 대표 사례로, 충칭모델은 개혁개방 후발지역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대표 사례라고 이해하며, 두 모델을 대립시키기보다는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중국의 양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보완적 성장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25) 두 모델이 부상하기 시작하는 2008년 전후는 영미식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안으로서 중국모델의 가능성이 주목받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중국모델이 발전의 위기를 드러내며 새로운 성장모델을 모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충칭모델은 3대 격차가 극심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도농통합형 내수성장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광둥모델은 위기에 처한 대외수출 방식에서 고도산업화와 내수를 동력으로 하는 성장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두 모델 모두 중국이 직면한 발전의 위기를 각각의 지역적 조건에 조응하는 성장방식을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이 저하되면서 성장의 위기와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양은 광동모델의 성장방식을 저임노동에 기반한 수출에서 산업고도화와 내수로 전환해나가고, 정부 일방이 주도하는 관료체제에서 법치, 예산 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체제를 형성하여, 시장경쟁과 협치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추진하려고 하였다.[26]

광둥모델이 시장화가 진행된 개혁개방 선도지역에서 발전 이후의 단계를 모색하는 과정이라면, 충칭모델은 개혁개방의 후발주자로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는 국유자산(국유기업, 토지)과 내수를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균형적으로 추구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시장화가 진행되어 국유자산이 상당 부분 민영화(토지사용권의 매각을 포함하여)되고 사회계층이 복잡하게 분화된 발전 이후 지역에서는 충칭모델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경제 축적의 조건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상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광둥지역은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 산업고도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하다. 광둥은 GDP 규모에서 볼 때 중국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수준을 반영하는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조보다 개인이 시장원리에 따라 보험금을 부담하는 개인보험 위주여서 공공부조비가 전국 최저의 상태에 처해 있다. 광둥지역이 기층민중의 저항 사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균등한 사회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다.[27]

---

26) 특성에 대해서는 Xiao Bin, The Guangdong model in transition」, 『CHINA 3.0』 참고

27) 농민공의 문제와 연관하여 중국의 불평등한 사회조건 해소방안을 모색할 때 이중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해외를 포함한 역외 투자자의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업유치 시 지방정부는 조세수입과 일자리 창출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농민

'행복광둥'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조건 하에서는 산업고도화와 내수를 동시적으로 이루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광둥지역은 산업고도화를 주로 임금인상에 기반한 시장의 압박에 의지하고 있어서 독창적 기술개발과 창의적 인재 양성의 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치개혁이 불완전하여 지방정부의 권력독점이 지속될 뿐 아니라 법치와 민주주의는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민간 사회보험 가입률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사회구제, 사회복지, 특수치료와 취업알선 체계와 같은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점이 바로 광둥지역이 시장원리에 충실한 왕양의 방식을 넘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광동지역과 같이 시장경제와 개인 중심적 사회문화가 형성된 곳에서는 생산적 복지사회 모델[28]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생산적 복지사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평적 수직적 차원의 사회적 연대 원리가 공유되어야 한다. 소득이 많은 이는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적은 이는 더 적게 내지만, 평균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보편적 복지가 심화되는 것에 상응하여 각자의 시장소득의 일부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위해 세금 또는 사회보험금으

호구를 부여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게 하면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지방정부의 재정지출도 늘어나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농민공들도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확대적용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특히 민간기업의 농민공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가 관료들의 부패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28) 향후 중국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도 성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둥은 시장화 원리에 따른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광둥에 적합한 생산적 복지사회 모델을 논의할 때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점자본과 복지국가 공존의 시각에서 스웨덴이 어떻게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성취하여 분배와 조화를 이루어왔는지의 문제는 김인춘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삼성경제연구소, 2007)을 참고하고, 개인주의성향이 강했던 스웨덴이 어떻게 사회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지니는 복지국가로 성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레그란드 츠카구치 도시히코 엮음『스웨덴 스타일』(강내영 외 옮김, 이매진, 2013)을 참고할 것.

내는 제도가 정착되어 한다. 그리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시민은 동등한 복지 수혜권을 가질 수 있으며, 누진적 세금과 사회보험금을 재원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통해 각 개인은 자본과 시장으로부터 최대한 독립하여 생애 전체에 걸쳐 기본 필요를 충족하는 인간존엄성에 걸 맞는 삶이 가능해질 것이다.[29] 광둥지역이 시민의 협의 및 누진적 세금과 사회보험금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이것이 산업고도화와 내수를 진작시키는 새로운 성장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간다면, 개혁개방 선도지역들이 새로운 개혁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복지사회

현재 중국은, 왕후이의 지적대로 “지방의 개혁과 각 지방의 서로 다른 모델 사이에 전개 된 경쟁”이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모델’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공유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모델 사이의 경쟁을 넘어 중국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추구해나갈 목표와 개혁방향에 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필자는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복지사회 모델이며, 그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자본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분배 능력의 불균형 상태를 조정하여 성공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복지사회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지역에서는 좌우의 이념대립과 발전주의를 넘어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복지사회 패러다임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발전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공유제와 민생정책을 통해 공동체사회를 추구해나가는 충칭모델, 시장경제에 기반한

29) ·정승일, 사회민주주의 선언』, 홍진북스, 2012, 72쪽.

복지사회를 건설해나가는 광둥모델,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자신의 실정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방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모델을 정립한다면, 개혁개방 초기의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 사회주의 복지사회로 혹은 시장사회주의에서 복지사회주의로 중국이 전환해나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도 현재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2011년 사회보험법[30]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 발전전략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먼저 제도의 결함을 개선하고,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체계의 수립으로부터 공평·보편적인 혜택,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적극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걱정을 해결함과 동시에 삶의 질과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의 자유·평등·존엄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수립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의 수립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목표인데,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욕구와 발전 가능성에 근거하여 중 사회보장 발전 전략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불완전한 사회보장 체계에서 건전하고 완비된 제도로 발전하는 단계, 2) 선별적인 사회보장에서 공평하고 보편적인 제도로 발전하는 단계, 3) 개인의 생존보장에서 인간의 자유·평등·존엄을 보호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단계.[31]

문제는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추진할 주체와 재정을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있다. 중국은 북유럽 복지국가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승인하면서도 복지국가를 중

---

30) 사회보험법 제정 배경과 경과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동하 중국 사회보험법 제정과 그 정책적 함의」, 『중국학』 제37집, 2010 참고.

31) 중국의 사회복지 전략과 목표에 대해서는 쩡꽁청,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전략』 (김병철 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제3장 전략 목표와 절차 그리고 조치 및 김병철,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발전전략」,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9월호 참고.

따라야 할 모델로 삼지는 않는다. 중국은 아직 북유럽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32], 필자가 보기에 이는 경제력의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분배능력 결핍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수직적 수평적 연대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여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를 실현하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를 향유하는 사회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사회복지는 국가 주도적인 공공서비스보다는 기업과 개인이 보험금을 분담하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지재원은 누진적 세금제도와 같은 재분배방식보다 임금상승에 의존하는 일차 분배 중심이며, 도농 간 계층 간 복지 서비스에 커다란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재분배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사회조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중국의 사회보장시스템에는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 중국의 사회보장은 보험·재분배 측면보다는 개인주의적·

---

32) 경우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물질적인 축적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에 속한다. 인구와 자원적 요소는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고, 물질적인 부도 여전히 장기적인 발전과 노력을 거쳐야만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실정은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북유럽 복지국가들과 동일한 경로를 선택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이다.”(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전략』 68쪽). 필자가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을 접하면서 느낀 것은 중국 정부와 지식인들이 북유럽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중국에서는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른다)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북유럽이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보편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이면서 국민 개개인의 정치참여를 바탕으로 한 개방형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복지국가를 주로 북유럽식 복지모델로 지칭하고 이는 중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모델이라고 간주한다. 중국은 복지국가보다 복지사회라는 용어를 선호하며 현재의 당-국가체제 속에서 시행 가능한 사회복지제도를 구상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중국의 이러한 구상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비판하면서도 장기적인 발전과정 속에서 현 단계의 실정을 고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접근을 하고 있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야 할 사회보장이 오히려 소득역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시장 소득에 사회적 급여(사회보험, 교육, 보건의료 등)을 합할 경우 지니계수가 더 악화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급여를 더 많이 분배받는 실정이다. 이는 도농 간 이중 복지체제와 호구제도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계정 중심의 연금개혁도 소득역진적이며 상위 소득계층에게 유리한 방안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33]

경제적 불평등과 아울러 사회복지시스템의 재분배 기능 미비로 인해 현재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 후진타오는 조화사회론, 과학발전관, 포용적 성장 등을 제기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후진타오 시대 역시 불평등이 완화되기보다 더 심화되어 갔다. 이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후이의 우려대로 당-국가가 특권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정당으로 변질되어 간 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인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국가가 자본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GDP 규모는 커져가지만 분배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국부가 특권 계층에 집중되는 불균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부활에 대한 우려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국 사회구조를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복지사회 패러다임으로 바꾸어나가는 정치적 비전과 그것을 추진해나갈 정치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인민의 정치참여가 제한된 중국과 같은 당-국가 체제에서는 장기적으로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사회운동을 추진하면서 중단기적으로는 복지사회의 전망을 지닌 세력들이 국가에 개입하여 적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정책 수립의 역할을 수행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복지사회는 이념대립이 아닌 생활정치 속에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될 수 있다. 왕

---

33) , 중국 복지체제의 성격」, 『보건사회연구』 30집, 2010, 436쪽.

경우 정협위원이 되어 국가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34]처럼 생활정치를 통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고 인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민주공화국 건설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 발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자주성이나 탈정치화된 정치의 논리로는 불가하며 자본의 민주적 통제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생활정치의 비전을 통해야 가능한 일이다. 왕후이를 포함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러한 정치운동을 수행할 때, 비로소 국가 주도의 발전전략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공동부유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것이 영미식 신자유주의를 넘어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상상하는 길[35]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정착된 불평등한 정치경제적 여건으로 볼 때 향후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힘겨운 과제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복지재정이 GDP의 6,7%를 차지하는 수준에서 20%이상으로 확충해야 하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복지사회를 추진할 주체로서 인민의 정치적 참여가 제한되고 정부가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의지가 없다면 복지사회 구현에 소요되는 재정을 마련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점은 중국식 복지사회가 국가 주도의 시혜가 아니라 인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발전(20세기식 인민동원의 정치가 아닌 시민권에 기반한 사회민주의 정치)과 공동체윤리를 통해야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중국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도전인 셈이다. 중국이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중국의 정치 목표가 국가와 민족 단위의 국력 경쟁을 넘어 인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명정치 실현으로 나아간다면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를 위한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진정한

---

34)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의 주역인 비그포르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홍기빈,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책세상, 2011 참고.

35) 이 점에 관해서는 토니 주트, 김일년 역,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자유시장과 복지국가 사이에서』, 플래닛, 2011 참고.

세계대국이 되는 길은 바로 이러한 문명전환의 역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중국식 복지사회가 21세기 인류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도전이 막 시작되었다.

魯迅의 新詩에 對한 研究

李柱旼 (世明大·中國語學科)

◁ 目 次 ▷

1.
2. 신시의 창작 배경
3. 신시의 특징
  1) 알레고리의 시
  2) 의인화 시
  3) 타유시
  4) 서문
4.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魯迅은 우리에게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노신은 中國 現代文學에서 중요한 작가다. 그는 소설가로서 많은 소설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잡문을 비롯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지금도 우리는 그의 작품을 접하고 있고, 그의 작품을 통해서 중국 근현대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신의 소설과 잡문 등의 작품들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심지어 그의 사상과 예술체계에 대한 연구도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다. 노신은 소설이나 잡문 등의 작품 이외에도 다수의 舊詩[1], 新詩, 民歌體詩 등의 詩를 창작했고, 그의 詩 창작은 그가 1918년에 발표한 소설인 『狂人日記』[2]보다 빠르다. 그러나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소설이나 잡문 등에 대해 활발히 연구된 실적과는 대조적으로 많지 않다. 그나마 『野草』에서 나타나는 시들은 다소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노신은 스스로 주체와 객체가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사상적인 많은 갈등을 내보이던 시기에 『野草』를 창작했다. 『野草』라는 작품은 '작가의 사상성과 심미의식, 시대정신과 주관표현이 다양한 문체와 다층적인 상징체계 속에서 탁월하게 예술적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노신문학의 특수성과 전체적 성격을 살피는 데에 가장 적합한 범주'[3]다. 그러므로 『野草』에 대한 연구는 그나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野草』에 비해서도 노신의 구시, 신시, 민가체시는 그 연구가 다소 부진하다.

노신의 첫 작품은 舊詩로 1900년 2월에 창작한 「아우들과의 이별 3수(경자년 2월)(別諸第

1) 周振甫, 『魯迅詩歌注』(浙江人民出版社, 1962年)의 '內容提要'에서는 舊體詩, 新詩, 民歌體詩로 나누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진보가 언급한 舊體詩라는 명칭을 舊詩로 바꿔 이해를 더 편하게 하겠다.
2) 1918년 5월 『新青年』에 처음 발표됨.
3) 劉世鍾, 「魯迅 『野草』의 象徵體系 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3, 12쪽.

三首(庚子二月))」이다. 이 시는 노신의 문학작품에 있어서 다른 작품의 창작보다 빠르다. 그래서 노신의 문학은 구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노신의 시가 창작은 그의 일생과 서로 처음과 끝을 같이 하였고, 제일 빨리 손을 댔으며, 역사도 제일 길다."[4]

이처럼 魯迅의 文學에 있어서 그가 첫 번째로 창작한 작품은 바로「아우들과의 이별 3수(경자년 2월)」로 詩의 창작이 바로 노신 문학의 첫 始作일뿐더러, 제일 긴 시간동안 창작을 이룬 것이었다.[5] 노신은 소설 이외에 시의 창작에 있어서도 다채로운 족적을 남겼고, 고전 시가를 계승하는 예술적인 가치를 승화시켰다. 그의 창작생애에 있어서 남긴 시들은 잡문이나 서신에 산재해 있다.[6]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한 그의 시는 '중국 고전시가의 이론을 계승하고 발전한 것'[7]으로, 노신의 시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면 그의 시에 나타나는 예술적인 묘미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시를 찾아야 하고,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노신의 시와 관련한 학위논문은 2편의 석사논문인 劉世鍾의「魯迅『野草』의 象徵體系 研究」(韓國外國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3年.)와 吳成我의「魯迅 舊體詩 研究」(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9年.)가 있고, 박사논문으로 본인의 졸고「魯迅 詩歌研究」(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年.) 1편에 그치고 있으며, 얼마 전 노신의 시가를 다룬 책인『루쉰, 시를 쓰다』[8]가 출판되었다. 중국에서 찾은 자료 중에서 노신의 구시, 신시, 민가체시에 대한 연구 사례도 그리 많지 않다. 박사 논문으로 王傑의「魯迅詩學現代性研究」(華中師範大學文學院, 1999年) 등이 있다. 정기간행물 중에서는 신시와 관련한 논문들로 曉音의「語言的先驅(試論魯迅的白話詩對後新詩潮詩人的影響)」(廣東魯迅研究學會, 廣東人民出版社, 2002年), 江錫銓의「新時期魯迅詩歌研究述略」(『江蘇教育學院學報』, 社會科學版, 第二期, 1996年), 蔣明玳의「略論魯迅新詩的語言藝術ㅡ紀念魯迅逝世六十周年」(電大教學, 第5期, 總第116期, 1996年), 曾宏偉의「試論"五四"時期魯迅的新詩」(『川北教育學院學報』, 第10卷, 第4期, 2000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시론이나 특징들을 연구한 논문들로는 朱永齡의「魯迅詩論刍議」(『洛陽師專學報』, 社會科學版, 第3期, 總第47期1995年), 李桂英의「魯迅詩歌的審美特征」(『北京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第一期, 1996年.), 王吉鵬·曹克의「魯迅的友情思想與友情詩歌」(『沈陽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1996年), 羅嘉慧의「魯迅詩歌意象簡論」(『周口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17卷, 第4期, 2000年), 李仲凡의「詩情與詩藝ㅡ魯迅與周作人詩觀合論」(社科縱橫, 第4期, 2001年), 龔勳·羅惠玲의「談魯迅詩歌的藝術成就」(『四川教育學院學報』, 第20卷增刊 2004年), 馬志才의「淺談魯迅詩歌的藝術價值」(『固原師專學報』, 社會科學版, 第25卷第2期, 2004年) 등이 있다. 그밖에 서적으로는『魯迅學導論』(彭定安,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年),『魯迅詩歌注』(周振甫, 浙江人民出版社, 1962年),『魯迅詩歌詮釋』(孔繁榮, 百花洲文藝出版社, 1997年),『魯迅的詩歌藝術』(解洪祥, 山東大學出版社, 1996年),『魯迅詩說』(趙冰波, 河南人民出版社, 2003年),『魯迅舊詩探解』(倪墨炎, 上海書店出版社, 2002年),『魯迅詩集』(張

---

4) "魯迅的詩歌創作和他的一生相始終, 開手最早,歷時最長.", 朱光燦,「魯迅詩歌略論」,『魯迅研究論文集』, 山東人民出版社, 1981年, 371쪽.
5) "魯迅的詩歌創作和他的一生相始終, 開手最早, 曆時最長.", 朱光燦, 앞의 책, 371쪽,
6) 朱永齡,「魯迅詩論芻議」,『洛陽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95年 第3期(總第47期), 48쪽.
7) 朱永齡, 앞의 글, 48쪽.
8) 루쉰 지음, 김영문 옮김,『루쉰, 시를 쓰다』, 도서출판 역락, 2010.

恩和·杜新, 吉林文史出版社, 2002年) 등이 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노신의 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노신의 시는 구시 53편, 신시 8편, 민가체시 4편으로 그 편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각각의 시마다 모두 역사적인 상황을 엿볼 수 있고, 예술적인 가치가 풍부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신의 신시 8편에 대해서 형태적 성격의 분류를 통해 각각의 신시에 대한 가치를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다.

2. 신시의 창작배경

노신의 신시는 1918년 5월 「夢」의 창작을 시작으로 하여 1926년 10월 「《而已集》題辭」까지로 나눌 수 있다. 이는 魯迅 詩 創作의 時期 區分에 있어서 中期에 해당된다. 노신 詩 創作의 時期 區分은 初期·中期·後期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대한 구분은 시 창작에 대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노신의 시 창작에 있어서 시기적인 구분은 학자들마다 분분하다. 張自强은 『魯迅先生詩疏證』[9]에서 노신 시 창작의 시기를 노신이 각각의 시기별로 거주했던 지역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南京學堂 時期, 日本 留學 時期, 北京 時期, 廣州 時期, 上海 時期로 나누었다. 朱光燦은 「魯迅詩歌略論」에서 창작 시기를 '魯迅의 早期 詩歌, 辛亥革命 後, 五四運動 後, 後期 詩歌'[10]의 4단계로 나누었다. 馬志才는 「淺談魯迅詩歌的藝術价值」에서 '시가는 일본 유학을 경계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11]라고 하여 일본 유학시기인 1903년에 창작한 「사진에 넣는 시」를 기점으로 하여 前期와 後期로 나누었다. 그리고 金宅圭는 석사논문 「魯迅의 新·舊詩 交叉·並行 創作 硏究」에서는 노신의 창작 생애에 따라 初期(早期)·前期 ·後期로 나누었다.[12] 오성아는 석사논문 「魯迅의 舊體詩 硏究」에서 노신 생애에 있어서 창작된 '舊體詩' 만을 다루어 신시, 민가체시를 제외한 단지 舊體詩만을 통해 '5·4운동 이전의 舊體詩, 1920년대의 舊體詩, 1930년대의 舊體詩'의 3단계로 나누었다.[13]

이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여러 분류법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시기의 나뉨이 비슷하며, 노신 생에의 시대와 환경에 따르는 시의 창작 배경을 보면 위의 논문들에서 말했듯이 노신 생애의 사상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初期(1900년~1912년)는 학당시절과 일본 유학시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1900년 2월 작품인 「別諸第三首」부터 1912년 7월 작품인 「哀範君三章」까지이고, 前期(1918년~1927.4)는 5·4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1918년 5월 작품인 「夢」부터 1927년 4월의 작품인 「《野草》·題辭」까지이며, 後期(1927.5~1935년)는 4·12정변

9) 張自强, 『魯迅先生詩疏證』, 四川文藝出版社, 1992년.
10) 朱光燦, 앞의 책, 371쪽.
11) "詩歌創作以去日本留學爲界, 可分爲前後兩期.", 馬志才, 「淺談魯迅詩歌的藝術价值」, 『固原師專學報』(社會科學版), 2004年, 36쪽.
12) 金宅圭, 「魯迅의 新·舊詩 交叉·並行 創作 硏究」, 碩士論文, 韓國外國語大學校, 2000年, 64쪽.
13) "본고에서는 초기 구체시, 즉 5·4운동 이전의 시(1900년대~1910년대)와 신시가 쓰여 졌던 1920년대의 구체시, 가장 많은 시편들이 창작되었던 1930년대의 구체시들로 크게 삼분하여 魯迅의 구체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魯迅의 구체시들을 발표연대순으로 고찰하는 것은 시기별로 시편들에 나타나는 사상 감정상의 연관성, 작가 자신의 정신세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吳成我, 「魯迅의 舊體詩 硏究」, 碩士論文, 忠北大學校, 1999年, 4쪽.

을 기점으로 하여 1936년 10월 사망 직전까지의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이 노신 시에 대한 시기 구분을 이해하는데 더욱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前期라는 時期의 명칭이 혹여 初期와 前期의 구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갖게 하기 쉬우므로, 前期에 대한 명칭을 中期로 바꾸어 쉽게 구분되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노신 시가 창작에 대한 시기를 初期, 中期, 後期의 구분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14)]

신시 창작의 시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5·4운동을 기점으로 시작하고 있다. 1915년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중국은 사상혁명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매우 컸다. 이러한 대중적인 요구에 따라 新文化運動이 활발했고, 문화적 개혁과 정치적 운동을 통한 국민적 계몽과 새로운 중국 건설을 향한 노력들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1919년 5·4운동은 신문화운동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개되었고, 신문화 운동 또한 5·4운동을 통해 대중적인 호응을 얻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신문화운동은 신해혁명을 통해 신생된 정치 세력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행동으로 일으킨 孔教國教化(유교의 국교화) 및 袁世凱의 帝制運動[15)] 등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한 것이다. 신문화운동을 통해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 대한 비판과 여성해방운동이 퍼져 나갔고 결국 1919년 5·4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서구를 통해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의 근대 사상이 들어왔다. 하지만 급진파 지식인들과 자유주의적인 지식인들의 분열로 1920년대 초반 신문화운동은 쇠로의 길로 접어든다.

이에 반해 5·4운동은 혁명의 주체로 민중이 앞장섰고, 민중과 지식층의 상호 연합을 통해 노동운동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중국인의 의식이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근대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5·4운동은 중국 현대사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5·4

---

14) “우선 첫 단계인 初期는 노신이 시의 창작을 시작한 1900년 2월의 첫 작품 「아우들과의 이별 3수(경자년 2월)(別諸第三首(庚子二月))」을 필두로 하여 1912년 7월의 「범애농을 애도하는 3장(哀範君三章)」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주로 구시 창작에 집중되었던 시기로 모두 11편의 작품이 존재하고 있다. 노신은 어린 시절 주로 청의 교육을 받았고, 이것은 舊詩 창작을 시작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 시기는 1911년 신해혁명이 있었던 시기이며, 1919년 5·4운동 이전의 시기로 1902년 3월 일본 유학을 전후로 하여 學堂 修學 時期와 日本 留學 時期의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본 유학길에 오르기 전까지는 주로 학당에서 수학을 하여 전통적인 舊詩를 썼고,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는 孫中山, 章太炎 등의 지도자를 따라 반청 혁명운동에 참가하여 애국주의의 舊詩를 썼다.

中期는 1919년 5·4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 해인 1918년 5월에 쓰여진 「꿈(夢)」을 시작으로 하여 1927년 4월의 작품인 「『野草』·題辭」까지이다. 중기는 신시 창작의 시기일 뿐만 아니라, 구시를 창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중기는 신해혁명과 5·4운동 등의 영향으로 신문화 운동의 대열에 가담하여 앞장서는 시기로 신문화와 관련한 시가와 당시 정치비판의 시가 등의 신시들과 구시를 창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신시 8편과 구시 2편 그리고 『野草』에 23편의 산문시를 창작하였다. 그래서 중기에는 「나의 실연(我的失戀)」을 포함한 신시 8편, 산문시 23편, 구시 2편을 창작했다. 이 시기 舊詩가 가장 두드러지게 적게 쓰여 졌는데, 신시와 산문시가 많은 이유는 白話文運動이라는 배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後期는 1927년 4월 12일의 정변을 시작으로 그 해에 창작되어진 「깊은 밤 밝은 달의 시(大夜璧月詩)」부터 시작하여 1936년 10월 19일 서거하기 1년 전인 1935년 12월 5일 창작한 「을해년 늦은 가을 우연히 지음(亥年殘秋偶作)」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구시 40편과 민가체시 4편이 창작되어져 모두 44편의 작품이 창작되어서, 노신 전 生涯에 있어서 창작한 詩歌중에서 거의 절반에 달하는 數의 詩歌를 創作하게 된다. 또한 후기에는 국민당의 내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공산당에 대한 국민당의 박해와 탄압, 일본침략 등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끊임없이 발생한 시기로 주로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 활동을 했다. 노신의 시 창작에 있어서의 약 40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후반기 10년은 그 전 생애에 있어서의 30년 보다 더 왕성한 시 창작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특히 1932년과 1933년 두 해에는 시의 창작이 집중되었는데, 노신의 전체 詩 88편중에서 구시 24편와 민가체시 1편인 25편의 시가 창작되었다.“ 李柱旼, 「魯迅 詩歌 硏究」, 博士論文, 高麗大學校, 2012年, 12쪽~13쪽.

15) 원세개는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을 이상향으로 삼았었다.

운동은 문학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문학 분야에서는 “白話文運動”이 전개되었는데, 일반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文言文’을 타파하고,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백화문’의 사용을 권장했다. 1917년 胡適을 통해 시작된 백화문운동은 신문, 잡지, 교과서 등에 백화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들이 노신의 시 창작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노신은 당시 백화문운동에 동의하고, 참여하였다. 1918년 당시 신청년에 백화문을 이용한 신시를 발표한 것은 「狂人日記」와 더불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혁신적인 것이었다. 또한 당시 舊詩를 창작하던 시인들도 백화문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구문학의 틀에서 벗어나는 신시 창작의 조류에 합류한다.[16] 이 시기 신시가 아닌 구시 형식의 시를 짓는 것은 정치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전문적으로 신시만을 게재하는 서적도 나오게 된다. 이러한 근거로 노신의 시 창작에 있어서 신시는 단지 中期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중기에 벌어진 일련의 큰 사건들은 바로 “북경여사대 사건”, “3·18사건”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노신의 신시 창작배경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북경여사대사건은 1925년 章士劍의 부인인 楊蔭榆가 북경여사대의 교장이었을 때의 사건이다. 양음유는 당시 학생들을 탄압했고 복고운동을 제창하였다. 그래서 5월 7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소요사태가 일어나자 그녀는 학교 폐쇄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노신은 학생들과 같이 양음유에 대한 투쟁을 했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된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내적요인인 교내 분규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외적요인까지 고려해봐야 한다. 그것은 바로 楊蔭榆의 봉건적 보수사상과 학생들의 민주적 진보사상의 대립이었고,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신, 구의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26년 3월 18일 중국인들은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며 천안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때 段祺瑞는 중국인들에 대해 공격을 명령하여 47명이 총에 숨지고 150여명이 다치게 하였다. 그런데 희생자 중에는 노신의 제자인 劉和珍과 楊德群도 속해 있었다. 노신은 제자들의 사망소식을 듣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無花的薔薇之二」, 「死地」, 「可慘與可笑」, 「記念劉和珍君」 등의 잡문을 써서 단기서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했고 그들의 온갖 만행을 폭로하였다. 이처럼 당시 노신은 정신적으로 많은 압박 속에서 시의 창작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노신의 중기 詩 창작은 1918년 5월『新青年』제4권 제5호에 「狂人日記」와 자유체 신시 「꿈(夢)」, 「큐피드(愛之神)」, 「복숭아꽃(桃花)」을 발표함으로써 신문학 창작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그러나 중기 후반부에 노신은 신시의 창작에만 국한하지 않고 1926년 「콩깍지를 대신하여 억울함을 말하다(替豆萁伸冤)」, 「하하 사랑가 3수(哈哈愛兮歌三首)」라는 제목으로 구시 2편을 창작한다. 「콩깍지를 대신하여 억울함을 말하다」는 曹植의 「七步詩」를 인용하여 諷刺詩의 형태로 창작한 것이다. 그리고 「하하 사랑가 3수」는『故事新編』·「鑄劍」에 삽입된 시이다.

노신은 초기에 구시 11편을 作詩하고, 중기에는 신시 8편·구시 2편·산문시 23편을 作詩하였으며, 후기에는 구시 40편·민가체시 4편을 作詩하여 총 88편에 이르는 시를 창작하였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中期 부분에 해당하는 新詩 8편을 중심으로 하여 각 특징별로 살펴보겠다.

---

16) “1918년에서 1927년 사이의 장의 관계는 권력의 장에 대한 문학의 장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5•4 신문화운동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시기 문학의 장의 중심 담론인 백화문운동은 백화문을 중국 신문학의 정통 記述言語로 확립시켰다. 그리하여 시인들은 구시 창작의 嗜好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시 창작만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출해야만 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김택규, 앞의 논문, 92쪽.

3. 신시의 특징

노신 시 창작시기의 中期는 앞서 언급했듯이 1918년 5월 「꿈(夢)」, 「큐피드(愛之神)」, 「복숭아꽃(桃花)」을 시작으로 1927년 4월의 「『野草』·題辭」까지이고, 모두 33편이다. 이 시기에 『野草』라는 24편의 시집을 낸다. 그러나 『野草』는 이미 많이 연구되어져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신시만을 다룸으로써 「나의 실연」을 제외한 『野草』의 산문체시 23편은 논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논할 중기의 신시는 1918년 5월 「꿈」을 시작으로 하여 1926년 10월의 「『이이집』·서문」까지이다.

중기의 시들은 각각 '당사(唐俟)'라는 필명으로 1918년 5월 "『신청년』 제4권 제5호"에 「꿈」, 「큐피드」, 「복숭아꽃」이 발표되었고, 1918년 7월 "『신청년』 제5권 제1호"에 「그들의 화원(他們的花園)」, 「사람과 시간(人與時)」을 발표하였으며, 1919년 4월 "『신청년』 제6권 제4호"에 「그(他)」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魯迅'이라는 필명으로 1924년 "『語絲』 주간 제4기"에 「나의 실연(我的失戀)」을 발표하였고, 1926년 10월 「『이이집』·서문」(『而已集』·題辭)」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신문학운동의 조류에 참여했던 노신은 백화문을 이용한 小說과 新詩 등의 작품 활동을 했다. 아래와 같이 중기에 창작된 신시들을 분류하여 각각 살펴보겠다.

1) 알레고리의 시
「꿈(夢)」(1918.05), 「그들의 화원(他們的花園)」(1918.07), 「그(他)」(1919.04)

2) 의인화 시
「복숭아꽃(桃花)」(1918.05), 「큐피드」(1918.05), 「사람과 시간(人與時)」(1918.07)

3) 타유시
「나의 실연(我的失戀)」(1924.12)

4) 서문
「『이이집』·서문(『而已集』·題辭)」(1926.10)

1) 알레고리의 시

먼저 알레고리적인 詩語를 사용하여 창작된 시로 「꿈」이라는 시가 있다. 이 시는 1918년 5월 『新青年』 제4권 제5호에서 중국 최초의 현대소설이라 할 수 있는 노신의 『狂人日記』와 함께 발표되어 노신은 중국 신문학 초기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7] 또한 「꿈」은 1918년에서 1919년까지 2년 사이에 창작된 「사람과 시간」, 「그」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암시하는 시이기도 하다. 그 시기 신해혁명은 실패로 끝났고, 청나라도 몰락하였다. 이때 원세개는 청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므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원세개에 의해 중국은 봉건체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노신

17) 루쉰 지음, 김영문 옮김, 앞의 책, 197쪽.

은 이에 미래의 희망에 대한 시들을 발표하여 당시의 청년들을 각성시키고, 청년들을 이끌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시에서 알레고리적인 시어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꿈」

무수한 꿈들, 황혼을 틈타 떠들썩하네.
앞의 꿈이 그 앞의 꿈을 밀칠 때, 뒤의 꿈은 또 앞의 꿈을 쫓아내내.
　가버린 앞의 꿈은 먹 같이 검고, 지금 있는 뒤의 꿈은 먹 같이 검어 진다.
　가버린 꿈 있는 꿈 모두 말하는 듯하네, “정말 예쁜 내 색을 봐.”
색이 얼마나 예쁜지 어둠 속에서는 모른다.
또한 모른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둠 속에서는 모른다, 신열과 두통을.
오라 오라! 명백한 꿈이여.

「夢」

很多的夢, 趁黃昏起哄.
前夢才擠卻大前夢時, 後夢又趕走了前夢.
　去的前夢黑如墨 ; 在的後夢墨一般黑 ;
　去的在的仿佛都說, ‘看我真好顏色’
顏色許好, 暗裏不知 ;
而且不知道, 說話的是誰?

暗裏不知, 身熱頭疼.
你來你來! 明白的夢.

　이 시에서 말하는 ‘夢’은 중심 소재이고 알레고리적인 시어로서 바로 희망을 뜻하는 것이다. 朱光燦은 이 시에서 “확실히 시인은 일찍이 과학으로의 구국, 문예로의 구국 그리고 신해혁명에 희망을 거는 등의 아름다운 꿈을 많이 꾸었다.”[18]고 했다. 1902년 노신은 쇠락해져가는 조국의 구국을 위해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그것은 외국의 문물을 배워서 나라를 구하려는 방법으로 일본의 유학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여 구국을 꾀하던 노신은 돌연 문학으로 그 노선을 변경한다. 노신은 “의학은 결코 긴요한 일이 아니다. 설령 체격이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이라도 무릇 우민하고 약한 국민에게는 단지 부질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구경거리이고 구경꾼일 수밖에 없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다하더라도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을 개조시키는 것이고 또한 올바른 정신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나는 그때 당연히 문학을 추진했고 그래서 문예운동을 제창한 것이다.(『吶喊·自序』)”라고 했다. 이에 노신은 許壽常, 周作人과

18) “的確, 詩人曾經做過許多美麗的夢, 如科學救國, 文藝救國和寄希望於辛亥革命等.”, 朱光燦, 앞의 책, 374쪽, .

함께 일본에서 『新生』이라는 잡지를 출간하려 하지만 곧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노신은 『吶喊·自序』에서 "그 후 이 세 사람조차도 각자의 운명이 내몰려서 한 곳에서 장래의 좋은 꿈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1909년 귀국하여 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아동문학과, 통속문학, 해외문학 등을 소개하는 일에 성공하게 된다.

신해혁명은 실패했으나, 5·4운동 전부터 활발했던 신문화의 영향으로 각종 사조를 대표하는 간행물들이 무분별하게 출판되었다. 1915년 상해에서 陳獨秀 편집의 『青年雜誌』(1916년 『新青年』으로 개명함)가 간행되었고, 같은 해 상해에서 孫中山을 중심으로 조직된 中華革命黨의 기관지인 『國民日報』가 간행되었다. 또한 1916년 8월에는 梁啓超를 중심으로 『陳鏡報』(1918년 12월『陳鏡』으로 개명함)가 간행되었고, 1917년 1월에는 북경에서 章士釗를 주축으로 『甲寅』이 간행되었으며, 3월에는 李劍農 등이 편집한 『太平洋』, 『現代評論』이 연이어 출간되었다. 이러한 간행물들은 서로 나서서 救國救民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선전했고, 노신은 이러한 출판물들을 '夢'에 비유하여 이 시를 창작을 한 것이었다.[19]

"무수한 꿈들, 황혼을 틈타 떠들썩하네." 이 문장에서 나오는 꿈은 당시 여러 思潮들이 서로 나서서 자신들이 구국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무수한 꿈들'은 각종 文化思潮의 무분별하고 무수한 꿈들을 말하는 것이고, '황혼을 틈타 떠들썩하네.'는 황혼시기를 틈타서 서로 나서서 자신들의 존재를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밀고 밀치며 스스로를 선전하지만, 노신은 이런 모든 이론과 사조들이 확실한 목표와 정치적인 입장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러한 무분별한 상황들을 비유하여 "가버린 앞의 꿈은 먹 같이 검고, 지금 있는 뒤의 꿈은 먹 같이 검어진다."라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의 꿈'과 '뒤의 꿈'은 각각의 사조들이 모두 스스로가 구국구민을 위하여 행동한다고 공헌하는 것을 비유하여 "가버린 꿈과 있는 꿈이 말하는 듯하다. '저의 예쁜 색을 보세요'."라고 쓴 것이다.

"색이 얼마나 예쁜지 어둠 속에서는 모른다."의 '어둠 속'은 봉건이라는 '강철집[20]'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민중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각각의 사조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예쁜 색깔로 치장하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했던 중국 국민들은 그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여 여전히 봉건이라는 강철집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라 노신은 생각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모른다, 신열과 두통을"이라고 한 것은 봉건의 속박 속에서 핍박받는 국민들을 구제할 방법이나 이론이 없어서 각각의 사조들이 그 국민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후에도 노신은 여전히 國粹主義派, 尊孔派[21], 改良派들이 하는 '헛소리' 같은 말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

19) 孔繁榮, 『魯迅詩歌詮釋』, 百花州文藝出版社, 1997年, 28쪽-29쪽.

20) '강철집'에 관한 단어는 노신의『吶喊·自序』에서 기인한 것이다. 1917년 8월, 錢玄同은 『新青年』의 원고청탁자여서 이미 여러 차례 노신에게 원고 청탁을 하며 "문장을 써 보시오."라고 독려했고, 적극적으로 문학혁명에 투자했지만, 노신은 이에 대해 많이 염려하였다. 그는 "만약 창문이 하나도 없고 부술 수도 없는 강철집이 있다면, 방 안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래지 않아 숨 막혀 죽을 것이오. 하지만 혼수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죽음의 비애를 느끼지 못하오. 지금 당신이 큰소리를 질러서 깊이 잠들지 않은 몇 몇 사람을 깨워서 그 불행한 몇 몇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임종의 고통을 받게 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떳떳할 수 있다고 하겠소?"라고 했다. 이에 전현동은 "하지만 몇 몇 사람들이 일어난 이상, 당신도 이 강철집을 부술 수 있는 희망이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오."라고 답했다. 사실 노신은 자신의 희망에 대해서도 똑같이 의심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내가 비록 스스로 나의 확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희망을 말한다면, 오히려 말살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희망은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결국 그에게 글을 쓰겠다고 승낙했고, 이것이 최초로 쓴 글인 「광인일기」인 것이다"라고 했다.(『吶喊·自序』), 孔繁榮, 앞의 책, 29쪽.

21) 孔子를 신봉하는 일파. 康有爲와 梁啓超등이 존공파의 先鋒의 인물이다.

“오라 오라! 명백한 꿈이여.” 이 문장은 미래와 희망에 대한 노신의 염원이다. 곧 노신 스스로가 더 이상 침묵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이 시와 같은 해 발표한 그의 「광인일기」는 바로 舊文學의 탈피이고, 봉건에 대한 투쟁의 외침이며, ‘5·4’ 신문화 운동의 선언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노신은 비록 이러한 글을 통해 반봉건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을 외쳤지만, “어둠 속에서는 모르는 것이다.”, “또한 모른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한 것은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한 어둠 속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지 모르는 것이며, 또한 누가 국민의 여론을 선동해 갈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노신 자신의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는 각각의 무분별한 사조들을 화려한 색으로 치장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목표와 정치적인 입장이 결여되어 있는 각종 사조들에 대한 諷刺이기도 하다. 그리고 ‘꿈’은 하나이지만 그 ‘꿈’ 속에서 ‘과거의 꿈, 현재의 꿈, 분명한 꿈, 검은 꿈’ 등을 포괄하는 ‘꿈’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으로 청의 지원을 받아 일본 유학에 나섰던 유학생들의 사상과 생활상을 嘲笑하기 위해 창작된 「그들의 화원」이 있다. 이 시는 1918년 7월『新青年』제5권 제1호에 발표되었다.

「그들의 화원」

아이, 변발,
은황색의 얼굴이 아직 핑크빛, --- 그는 살고 싶어 하는 듯하다.
대문을 박차고 나가, 이웃집을 바라본다.
그들의 큰 정원에는 수많은 예쁜 꽃들이 있다.
온갖 생각을 한 끝에 백합을 꺾었다.
희고 밝아서, 막 내린 눈 같았다.
잘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빛나는 얼굴, 유달리 혈색가득하다.
파리가 꽃을 맴돌며 윙 하고 날고, 집안에서 시끄럽다. ---
“더러운 꽃만 좋아하는 건, 바보 같은 아이지!”
얼른 꽃을 보니, 벌써 몇 군데 파리똥이 있었다.
볼 수도 없고, 아쉬워만 한다.
눈 크게 뜨고 하늘만 바라보니, 그는 더욱 할 말이 없다.
말도 안 나오고, 이웃집만 생각난다.
그들의 화원에는, 예쁜 꽃들이 많은데.

「他們的花園」

小娃子, 卷螺發,
引黃面龐上還有微紅, ---看他意思是正要活.
走出破大門, 望見鄰家 ：
他們大花園裏, 有許多好花.
用盡小心機, 得了一朵百合 ；
又白又光明, 像才下的雪.
好生拿了回家, 映著面龐, 分外添出血色.
蒼蠅繞花飛鳴, 亂在一屋子裏---

“偏愛這不幹凈花, 是糊塗孩子!”
忙看百合花, 卻已有幾點蠅失.
看不得 ; 舍不得.
瞪眼望天空, 他更無話可說.
說不出話, 想起鄰家 :
他們大花園裏, 有許多好花.

이 시는 내용에 있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대문을 박차고 이웃집에 가서 꽃을 꺾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그 아이가 꽃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며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시에 나오는 소재들인 ‘아이, 변발, 은황색 얼굴, 백합, 파리, 파리똥’ 등은 모두 상징적인 묘사기법으로 쓰였다. ‘아이’의 상징은 바로 서양의 학문에 대해 동경하는 당시 중국 청년의 모습이다. ‘변발’[22]은 바로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청나라 유학생들의 우스꽝스러운 변발을 嘲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황색 얼굴’은 중국인의 얼굴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살고 싶어 하는 듯하다.”는 그래도 생존하려고 하는 민족의 희망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이’는 중국의 모든 청년을 지칭하는 것이다.

중국은 당시 청나라 말엽의 시기로 관리들의 부패가 매우 심했고, 정치판도 여러 파벌로 나뉘어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대문을 박차고 나가.”라고 한 것은 부패한 청나라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라는, 즉 외국으로 나가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와 “이웃집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문화가 월등하게 발전한 서양을 표현한 이웃집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으로 나간 청년들은 여러 분야의 발전한 서양의 모습인 “수많은 예쁜 꽃들”을 보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노신 또한 서양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서양의 문화를 많이 흡수한 일본에 도착한 후 弘文學院에서 여러 과목의 수업을 듣는다. 그리고 센다이의학원(仙台醫學院)에서 의학을 공부하는데, 대부분의 과목들이 중국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큰 정원에 ‘수많은 예쁜 꽃들이 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럼 아이가 꺾은 꽃은 왜 하필 ‘百合’인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百合’을 화려하고 발전한 서양의 문화에 비유한 것일 것이다. 당시 중국 청년들은 대부분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서양의 문명을 흡수했다. 그래서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을 비유하지 않고, 서양을 ‘’백합‘에 비유한 것이다.[23]

하지만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상하게도 백합에 파리가 꼬이고 심지어 파리똥까지도 보인다. “더러운 꽃만 좋아하는 건, 바보 같은 아이지!”라고 한 문장에 나오는 아이는 바로 봉건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세력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저 외국만을 따라하는 ‘洋務’에 대해 비꼬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또 “볼 수도 없고, 아쉬워만 한다. 눈 크게 뜨고 하늘만 바라보니, 그는 더욱 할 말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그 백합에 대한 애석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파리에 의해 모욕당한 것을 묘사한 것으로 ‘洋務’에 의해서 동경하던 서양에 모욕당한 듯하여 안타까워하는 노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의 화원」은 각각의 소재인 “아이, 변발, 은황색 얼굴, 백합, 파리, 파리똥” 등이 모두 각각 묘사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그 소재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한데 어우러져 봉건 말기 청나라 말엽의 정치적인 상황과 부패적인 행태 그리고 청나라에 의지하여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봉건사상을 비판하고 嘲笑한 시이다.[24]

---

22) “小娃子, 卷螺發,”에서 ‘卷螺發’은 변발의 형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말이다.
23) 孔繁榮, 앞의 책, 38쪽.

그리고 1919년 4월『新青年』제6권 제4호에「그」를 발표한다. 이 시는 알레고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시를 읽어 내려가면 서정적인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현실에 대한 희망 그리고 실망 등을 시 속에 서정적인 분위기로 잘 묘사하였다.

「그」

一

“매미”야 울지 마라,
그가 방에서 자고 있다.
“매미”야 울어라, 마음 속 깊이 기억하라.
해가 지고,“매미” 소리 그치고, --- 아직도 그를 볼 수 없네,
노크하여 그를 부르려는데, --- 녹슨 쇠사슬 묶여 있네.

二

가을바람 일어,
그 집 커튼 불어 젖히려 하네.
커튼 젖히면 그의 두 보조개가 보이겠지.
커튼 젖혔는데, --- 온통 흰 벽만 보이네,
숱한 마른 잎만 헛되이 불어 떨궜네.

三

눈이 많이 와서, 길을 쓸어 그를 찾네.
　이 길은 산 정상으로 연결되는데, 산 정상은 모두 소나무와 잣나무 뿐,
　그는 꽃 같은데, 여기에 어찌 살겠는가!
　돌아가 그를 찾느니만 못하니, --- 아! 돌아오니 여전히 우리 집이네.

「他」

一

‘知了’不要叫了,
他在房中睡著 ;
‘知了’叫了, 刻刻心頭記著.
太陽去了, ‘知了’住了, - 還沒有見他
待打門叫他, - - - 銹鐵鏈子系著.

二

24) 孔繁榮, 앞의 책, 40쪽.

秋風起了,
快吹開那家窗幕.
開了窗幕, 會望見他的雙靨.
窗幕開了,－－－一望全是粉墻,
白吹下許多枯葉.

三

大雪下了, 掃出路尋他 ;
 這路連到山上, 山上都是松柏,
 他是花一般, 這裏如何住得!
 不如回去尋她,－－－阿! 回來還是我家.

이 시의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시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他'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他'를 쫓는 '我'는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다. 1연에서 '我'는 어느 여름날 매미가 우는 시기에 그를 찾는다. 그래서 "그가 방에서 자고 있다"에서처럼 지금 그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매미'가 울면 그가 깰까봐 '我'는 불안해하며 ""매미"야 울지 마라"라고 한다. 하지만 '我'가 그를 깨우려 문을 열려고 하자 문은 녹슨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여기에서 녹슨 쇠사슬로 문이 묶여 있는 것은 바로 '현실'과 '희망'의 대비를 묘사한 것이다. 희망 속에서는 그가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깨어나면 희망이 달아날까봐 '我'는 매미에게 안절부절 하는 것이다. 그러나 '我'에게는 '희망'이었던 그를 깨우려 노크를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쇠사슬이 녹이 슬 정도로 오랜 시간동안 '봉건'이라는 문이 굳게 닫혀있었던 것이다.

2연에서는 가을에 희망이라 할 수 있는 그를 찾으러 간다. 그래서 '我'는 가을바람이 커튼을 열어젖히면 그의 두 보조개를 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커튼이 젖히자 보이는 건 오직 하얀 벽들뿐이고, 그는 어디로 갔는지 볼 수가 없다. '我'는 또 '他'를 찾지 못한 것이다. 희망을 찾지 못한 당시 노신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3연에서는 겨울에 눈길을 쓸어 그를 찾는다. 눈이 많이 와서 길을 쓸어 눈을 치우고 희망이라는 '그'를 찾아 산 정상에까지 가지만, 그곳은 쓸쓸하게도 소나무와 잣나무 뿐, 꽃과 같은 그가 없었다. 그래서 '我'는 그를 찾으러 돌아가지만, 돌아와 보니 또한 현실 속의 '우리 집'이었다. 어찌 보면 '他'를 찾는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시 속에서 "그는 꽃 같은데"라고 하여 '他'를 꽃에 비유했고,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보조개'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他'를 '여성'으로 볼 수 있겠다. '我'는 여름, 가을, 겨울 줄곧 자신의 희망인 '他'를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我'는 '他'를 쫓기만 하다가 결국 실망을 하게 된다. 이처럼 여성과 관련한 어휘를 이용하는 기법은 중국 고전시가에서 자주 나오는 전통적인 기법 중 하나이다. 중국 고전시가에서 '美女', '香草' 등의 여성과 관련된 단어는 희망과 이상으로 비유된다. 이 시에서 여성으로 비유된 '他'는 노신의 희망과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과 이상을 그저 쫓아가기만 할 뿐 실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실망감을 「그」라는 시에 표현한 것이다.[25]

25) 孔繁榮, 앞의 책, 44쪽.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신해혁명이 실패로 끝났다. 이로 인해 노신은 자신에게 희망이었던 신해혁명의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이 시를 통해 표출하였던 것이다. 또한 청이 망하고 중화민국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청의 모든 권력을 袁世凱가 장악하여 스스로 다시 황제가 되었다. 노신은 이러한 상황을 시 속에서 "녹슨 쇠사슬 묶여 있네."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열린 줄 알았던 문은 여전히 봉건이라는 '녹슨 쇠사슬'[26]에 묶여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아! 돌아오니 여전히 우리 집이네."라고 한 것은 청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이라 여겼지만, 여전히 원세개의 권력 하에 있는 봉건의 중국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혁명이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노신은 그 '희망'의 빛을 포기하지 않고 시를 대신하여 희망을 다시 찾아 이상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외치는 것이었다. 이 시는 서정적이긴 하지만, 시 속의 함축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이해해야 '他'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의인화 시

시에 나타나는 소재를 의인화하여 창작한 시로는 「복숭아꽃(桃花)」, 「큐피드(愛之神)」, 「사람과 시간(人與時)」이 있다. 이러한 시들은 의인화한 소재를 사용하여 우화적인 내용을 담기도 하였다. 또한 「복숭아꽃(桃花)」은 복숭아꽃을 의인화하여 사회에 대한 비판을 외친 시이다. 이 시처럼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에 대한 바람을 외치는 내용의 시는 1918년 5월 『新青年』 제4권 제5호에 발표된 「복숭아꽃(桃花)」과 함께 1918년 7월 『新青年』 제5권 제1호에 발표된 「그들의 화원(他們的花園)」이 있고, 『而已集』의 서문으로 쓰인 「『이이집』·서문」(『而已集』·題辭)」이 있다. 「복숭아꽃」은 주로 당시 활발했던 문단의 상황과 白話運動의 실태에 대해 쓴 것이다.

이 시는 「5·4」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쓰여진 것이다. 당시 노신은 신문학 발전에 대해 기쁜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그 당시 문단에서 신문학과 반대되는 경향들을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복숭아꽃」

봄비가 지나고, 태양도 좋아, 자유로이 정원에 나왔네.
복숭아꽃은 정원 서쪽에 피고, 자두꽃은 정원 동쪽에 피었네.
나는 "예쁘다! 복숭아꽃은 붉고, 자두꽃은 희네."라고 했다.
(복숭아꽃이 자두꽃 만큼 희지 못하다고 하진 않았다)
그런데 복숭아꽃이 화나서, 얼굴 온통 "핑크색"으로 상기되었다.
요녀석! 대단하군! 화내서 얼굴을 붉힐 줄 아는군.
내 말이 널 화나게 하진 않을 텐데, 어떻게 얼굴을 붉힐 수가 있지!
아이! 꽃도 꽃의 생각이 있군, 모르겠다.

「桃花」

26) 趙冰波, 『魯迅詩說』, 河南人民出版社, 2003年, 65쪽.

春雨過了，太陽又很好，隨便走到院中.
桃花開在園西，李花開在園東.
我說，“好極了! 桃花紅，李花白.”
（沒說，桃花不及李花白.）
桃花可是生了氣，滿面漲作“楊妃紅”.
好小子! 真了得! 竟能氣紅了面孔.
我的話可並沒得罪你，你怎得便漲紅了面孔!
唉! 花有花道理，我不懂.

“봄비가 지나고, 태양도 좋아, 자유로이 정원에 나왔네. 복숭아꽃은 정원 서쪽에 피고, 자두꽃은 정원 동쪽에 피었네.” 이 구절은 매우 활발했던 문단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당시에는 작품활동도 왕성했지만, 문예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도 많이 나왔다. 그래서 노신은 당시의 상황을 지지했다. 그리고 “자유로이 정원에 나왔네.”란 것은 노신의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이다. 노신은 「『集外集』·序言」에서 “사실 나는 新詩를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근데 古詩를 짓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단지 그때 詩壇이 너무 쓸쓸해서, 맞장구를 치며 함께 어울렸던 것이다. 시인이라는 호칭이 생기면서 곧 손을 씻고 짓지 않았다.(我其實是不喜歡做新詩的---但也不喜歡做古詩---只因為那時詩壇寂寞, 所以打打邊鼓，湊些熱鬧 ; 待到稱為詩人的一出現, 就洗手不做了.)”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단지 그때는 너무도 쓸쓸한 시단을 위해 시인들에게 맞장구치듯 자유로이 신시를 지어서 당시의 시인들을 고무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데 복숭아꽃이 화나서”라고 하여 칭찬을 듣고서도 복숭아꽃이 갑자기 화가 났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당시 李大釗가『晨鐘報』를 창간하여 新文藝運動을 주장했고, 胡適이 1917년 1월 『新青年』에 「文學改良芻議」[27]를 발표했음에도 작가들이 백화문학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가들이 백화문을 이용하여 신문학에 대한 창작 활동을 했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백화문의 창작이었을 뿐이었고, 내용적으로는 구문학의 답습이었다. 그래서 노신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복숭아꽃’을 의인화하여 자조의 마음을 표현하였다.[28]

이 시에서 ‘桃花’는 의인화 되었고, 내용 또한 우화적이라 할 수 있다. 노신은 이렇게 소재를 의인화 시키고, 시 자체에 우화적인 내용을 가미하여 당시 활발했던 新文學의 文壇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문학에 반하는 문단에 화가 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1918년 5월 「꿈(夢)」과 같이 『新青年』제4권 제5호에 발표된 「큐피드(愛之神)」는 우화적인 형식의 줄거리를 이용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이다. 이 시는 ‘큐피드’라는 소재를 의인화하여 우화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표현했고, 청년들을 계몽하여 봉건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이며, 애국에 대한 마음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이 시와 함께 사랑을 그 내용으로 하는 시는 1924년 12월『語絲』주간 제4기에 발표된 「나의 실연(我的失戀)」이 있다. 「큐피드」는 ‘큐피드’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사랑의 대상을 표현했고, 「나의 실연」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는 과정을 표현했다. 「나의 실연」은 「큐피드(愛之神)」와는 조금 그 내용이 다르다. 같은 사랑을 주제로 하였지만, 「나의 실연」은 일종의 해학시로써 당시 청년들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맹목적인 사랑에 대한 연애시의 풍조에 대한 비판이고, 시인들에 대해 조소한 것이다.

---

27) 孔繁榮의 책『魯迅詩歌詮釋』에는 「文學改革芻議」로 적혀있으나 본고에서처럼 호적이 1917년 발표한 「文學改良芻議」로 수정하겠다. 孔繁榮, 앞의 책, 35쪽.
28) 孔繁榮, 앞의 책, 35쪽.

그럼 소재를 의인화하여 우화적인 형식의 줄거리가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寓話詩 「큐피드」를 살펴보자.

「큐피드」

아이 하나, 공중에서 날개를 펴고,
한 손으론 화살을 얹고, 한 손으론 활을 당기어,
무슨 일인지 내려와, 앞가슴에 화살을 쏘았네.

"아이 선생, 엉망으로 해 놓아서 고맙군!"
하지만 알려줘,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하지?
아이는 당황하여 고개를 젖는다. "에이!
당신은 그래도 포부가 있는 사람인데, 결국 이런 말을 하다니.
당신이 누굴 사랑해야 하는 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여간 내 화살은 날아갔어요!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면,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목숨 걸고 자살해도 좋아요."

「愛之神」

一個小娃子, 展開翅子在空中,
一手搭箭, 一手張弓,
不知怎麽一下, 一箭射著前胸.

"小娃子先生, 謝你胡亂栽培!
但得告訴我 : 我應該愛誰?"
娃子著慌, 搖頭說, "唉!
你是還有心胸的人, 竟也說這宗話.
你應該愛誰, 我怎麽知道.
總之我的箭是放過了!
你要是愛誰, 便沒命的去愛他 ;
你要是誰也不愛, 也可以沒命的去自己死掉."

이 시 속에 나오는 큐피드는 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신을 대표한다. 사랑의 신인 큐피드가 활을 쏘지만 그 활을 맞은 사람은 정작 누구를 사랑할지 어떻게 사랑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큐피드는 누굴 사랑하게 되면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면 차라리 '자살'을 하라고 독설도 한다. 큐피드와 화살을 맞은 사람의 말들을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보면, 큐피드는 화살을 맞은 사람에게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고 선택한 결정에 목숨을 걸라고 한다. 그러나 큐피드는 "당신은 그래도 포부가 있는 사람인데, 결국 이런 말을 하다니."라고 한다. 이 말은 현실에서 깨어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대상을 못 찾느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청년들에게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왜

모르느냐고 반문하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선택은 화살을 맞은 사람의 자유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목숨 걸고 자살해도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조국과 민족마저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자살하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다. 이것은 곧 당시 중국 청년들에게 누구를 사랑하든, 즉 이성적인 사랑이건, 조국에 대한 사랑이건, 민족에 대한 사랑이건 누구를 사랑하든 모두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29]

이 시는 모두 세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으로는 큐피드의 형상이 묘사되었다.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절대로 어리지 않은 강력한 존재로 비춰진다. 또한 “무슨 일인지 내려와, 앞가슴에 화살을 쏘았네.”라고 한 것은 큐피드가 당시의 중국 청년들을 일깨우기 위해 화살을 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서양신화의 특징을 인용하였다.[30] 이것은 서양신화에 대한 典故의 시작이기도 하다. 또한 서양의 문명이 중국 국민들에게 점차 노출되기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큐피드가 사랑의 화살을 중국 청년에게 쏜 것에 대한 설명이다. 시에 등장하는 청년은 바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즉, 갑자기 화살을 맞은 청년은 자신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이것은 아직 봉건사상에서 탈피하지 못해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중국 청년들에 대한 설명이다. 세 번째 부분은 큐피드가 청년한테 하는 말들이다. 큐피드가 청년에게 화살을 쏘았지만, 오히려 청년의 반응에 당황하여 많이 놀라는 듯한 말을 한다. “당신은 그래도 포부가 있는 사람인데, 결국 이런 말을 하다니.”는 청년의 반응에 놀라면서도 긴장한 듯한 느낌을 준다. 큐피드는 그저 사랑의 화살을 쏠뿐, 사랑의 화살을 맞은 청년은 스스로 알아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누굴 사랑해야 하는지를 반문하는 것은 큐피드를 당황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당신이 누굴 사랑해야 하는 지,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신경질 적인 말을 내뱉는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면,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목숨 걸고 자살해도 좋아요.”라고 한다. 봉건시대에 연애를 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이고, 깨어 있다는 것은 봉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봉건 사회에서 그저 뇌사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니 자살해도 좋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큐피드의 말이 좀 과격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봉건예교의 폐해에서 나오는 각성자의 목소리이고[31], 詩에서 심한 말을 했지만 그것은 빨리 중국 청년을 일깨우고 싶은 노신의 다급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시의 특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양의 신화에서 나오는 사랑의 신 ‘큐피드’라는 이름을 典故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서양 신화를 내용으로 하는 형식은 당시에 매우 독창적이어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시간’이라는 소재를 의인화 시켜서 각각의 화자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창작된 「사람과 시간」을 살펴보겠다. 이 시도 ‘희망’에 관한 내용을 내포한 시이다.

「사람과 시간」

한 사람이 말했다, 미래가 현재보다 낫다고.
한 사람이 말했다, 현재가 과거보다 못하다고.

---

29) 孔繁榮, 앞의 책, 32쪽.
30) 孔繁榮, 앞의 책, 33쪽.
31) 朱光燦, 앞의 책, 374쪽.

한 사람이 말했다, 뭐라고?
시간이 말했다, 모두들 내 현재를 모욕하는군.
  과거가 좋다고 한 사람, 혼자 돌아가라.
  미래가 좋다고 한 사람,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뭐냐고 한 사람,
  당신과는 아무 말도 않겠다.

「人與時」

一人說, 將來勝過現在.
一人說, 現在遠不及從前.
一人說, 什麽?
時道, 你們都侮辱我的現在.
 從前好的, 自己回去.
 將來好的, 跟我前去.
 這說什麽的,
 我不和你說什麽.

이 시에서는 세 명의 '화자'와 '시간'이 등장한다. 세 명의 화자는 시간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 의인화된 시간이라는 화자가 세 사람에 대해 각각 대답하고 있다. 미래가 현재보다 낫다는 첫 번째 화자는 '樂觀主義型'으로 '시간'은 첫 번째 화자에게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한다. '현재'는 '미래'가 존재하기 위한 '현재'로 현재를 포기하면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현재'라는 시간을 개조하여야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가 과거보다 못하다고 하는 두 번째 화자는 '復古型'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은 두 번째 화자에게 혼자 돌아가라고 한다. 당시 과거를 회상하며 봉건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 안착하여 계속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것으로 노신은 '시간'이라는 화자를 통해 그들에게 혼자서 돌아가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무슨 소리냐고 말한 마지막 세 번째 화자는 현재에 만족하는 '伏地不動型'으로 '시간'은 그와 말을 않겠다고 한다. 신해혁명은 이미 청정부를 전복시켰지만, 반봉건 혁명운동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세 번째 화자는 현실에 대해 인식을 했지만, 더 이상의 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으려고 '무슨 소리'냐고 한 것으로, '시간'은 그와는 어떤 말도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 시는 형식적으로는 '시간'이 각기 세 사람에게 말하는 부분을 노신은 들여쓰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내용적으로는 세 화자에게 각각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간단하면서도 매우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풍격을 잘 살려서, 겉으로 보기에는 시가 간단하고 함축적이지만, 시 속에 내포된 내용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선문답을 하듯이 창작되었다.[32]

3) 타유시

32) 蔣明玳, 「略論魯迅新詩的語言藝術(紀念魯迅逝世六十周年)」, 『電大教學』, 1996年 第5期, 20쪽.

노신의 신시에 있어서 '타유시'는 단 한 편이다. 1924년 12월『語絲』주간 제4기에 '노신'이라는 필명으로 「나의 실연」이 발표되었다. 「나의 실연」은 원래 '모생자(某生子)'라는 필명으로 3절로 되어있었지만, 나중에 1절을 추가하여 발표되었다.[33]

「나의 실연」

--- 옛것을 모방한 새로운 타유시

내 사랑은 산허리에 있네.
그녀를 찾아가려 해도 산 너무 높네,
고개 숙여 할 수 없이 눈물로 옷을 적시네.
님은 내게 나비무늬 손수건을 선물했네.
그녀에게 뭘로 돌려주나, 부엉이.
이때부터 고개 돌려 날 버려두고,
무슨 이유로 내 맘 놀라게 하는지 모르겠네.

내 사랑은 번화가에 있네.
그녀를 찾아가려 해도 사람이 너무 많네,
고개 들어 할 수 없이 눈물로 귀를 적시네.
님은 내게 제비 한 쌍의 그림을 선물했네.
그녀에게 뭘로 돌려주나, 사탕과자
이때부터 고개 돌려 날 버려두고,
무슨 이유로 날 바보로 만드는지 모르겠네.

내 사랑은 강변에 있네.
그녀를 찾아 가려 해도 강물이 깊네,
고개 기울여 할 수 없이 눈물로 옷깃 적시네.
님은 내게 금 시계줄을 선물했네.
그녀에게 뭘로 돌려주나, 발한제.
이때부터 고개 돌려 날 버려두고,
무슨 이유로 날 신경쇠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내 사랑은 부잣집에 있네.
그녀를 찾아가려 해도 차가 없네,
고개 저어 할 수 없이 눈물 자욱 남기네.
님은 내게 장미꽃을 선물했네.
그녀에게 뭘로 돌려주나, 율모기[34]
이때부터 고개 돌려 날 버려두고,

---

33) 孔繁榮, 앞의 책, 47쪽.
34) "흔히 유혈목이 또는 꽃뱀(花蛇)이라고도 한다. 한국이나 중국의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 뱀이다. 루쉰은 1881년 신사생(辛巳生) 뱀띠이므로 자신을 뱀에 비견하는 경우가 많았다.", 루쉰 지음, 김영문 옮김, 앞의 책, 218쪽.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 --- 그녀 가버렸네.

「我的失戀」

--- 擬古的新打油詩

我的所愛在山腰 ;
想去尋她山太高,
低頭無法淚沾袍.
愛人贈我百蝶巾 ;
回她什麽 : 貓頭鷹.
從此翻臉不理我,
不知何故兮使我心驚.

我的所愛在鬧市 ;
想去尋她人擁擠,
仰頭無法淚沾耳.
愛人贈我雙燕圖 ;
回她什麽 : 冰糖壺盧
從此翻臉不理我,
不知何故兮使我胡塗.

我的所愛在河濱 ;
想去尋她河水深,
歪頭無法淚沾襟.
愛人贈我金表索 ;
回她什麽 : 發汗藥.
從此翻臉不理我,
不知何故兮使我神經衰弱.

我的所愛在豪家 ;
想去尋她兮沒有汽車,
搖頭無法淚如麻.
愛人贈我玫瑰花 ;
回她什麽 : 赤練蛇.
從此翻臉不理我,
不知何故兮---由她去罷.

이 시는 '打油詩'이다. 시 제목 바로 옆에 노신은 "옛것을 모방한 새로운 타유시"라고 써 놓았다. '打油詩'는 平仄과 押韻에 구애받지 않는 통속적인 해학시이다. 결과적으로 신시 창작에 있어서 큰 틀에서 분류를 한다면 이 시 또한 알레고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노신이 스스로 말한 '타유시'로 그 분류를 하였다. 打油詩는 唐代 張打油의

詩에서 유래한 것이다. 노신은 이 시를 창작하게 된 동기를『我和「語絲」的始終』에서 “그 당시에 보면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같은 失戀의 詩가 성행하여서, 일부러 ‘그녀 가벼렸네.’로 끝을 맺어 웃기려고 했던 것이다.(是看見當時‘阿呀呵唷, 我要死了’之類的失戀詩盛行, 故意做一首用‘由她去罷’收場的東西, 開開玩笑的.)”라고 했다. 물론 ‘開開玩笑的(웃기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서 말하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당시 작품들 속에서 실연에 대한 아픔으로 모두 ‘죽겠다’는 표현만 써서, 이러한 표현으로 사랑의 아픔을 대변한 시인들을 嘲笑를 한 것이고, 또한 떠나버린 사랑의 아픔에 얽매이지 말라고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시는 4연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쓰여 졌다. 시의 내용을 보면 ‘我’가 사랑하는 ‘내 사랑’은 산허리, 번화가, 강변, 부잣집에 있고, 그녀를 찾아가려 해도 산이 너무 높고, 사람이 많고, 강물이 깊고, 차가 없어서 결국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그래서 ‘我’는 눈물을 흘려서 옷을, 귀를, 옷깃을 적시고 눈물 자국을 남긴다. 그래도 ‘我’는 사랑하는 그녀에게서 나비무늬 손수건, 제비 한 쌍의 그림, 금 시계줄, 장미꽃 같은 귀한 선물을 받지만, ‘我’는 단지 부엉이, 사탕과자, 아스피린 같은 발한제, 율모기 같은 것들을 선물하여 그녀에게 마음을 잃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 돌려 ‘我’를 놀라게 하고, 바보로 만들고, 신경쇠약에 걸리게까지 한 후 결국에는 떠나가 버린다. 그러나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같은 내용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아닌,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의미로 시를 마무리 한다. 그런데 ‘我’가 그녀에게 준 선물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선물들 속에는 중요하지도 않고 혐오스러운 것도 있다. 하지만 許壽常은『魯迅的遊戲文章』에서 “뜻밖에도 부엉이는 그(노신)가 총애하는 것이고, 사탕과자는 즐겨먹는 것이며, 발한제는 항상 사용하는 것이고, 율모기는 즐겨보는 것이다.(殊不知貓頭鷹本是他自己所鐘愛的, 冰糖壺盧是愛吃的, 發汗藥是常用的, 赤練蛇也是愛看的.)”라고 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심지어 혐오해 하는 것들을 소재로 사용했지만, 이 소재들은 모두 노신이 평소에 좋아하고 사용하는 것들로 그에게는 중요한 것들이다.

노신은 당시에 대부분 죽음으로 결말지어지는 연애시의 성행에 매우 불만스러워 했다. 그러한 결말들은 당시 청년들에게 맹목적인 求愛만을 주지시키는 것이었고, 사랑에 마비되게 하여 미래가 없음을 암시하게 한다. 그래서 노신은 이러한 ‘戀愛文學’에 일침을 가하기 위하여 ‘나의 실연’을 쓴 것이었고, 마지막을 ‘그녀 가버렸네.’라고 맺어서 그녀가 가버린 것으로 그 끝맺음을 한 것이다. 이 의미는 청년들에게 현재의 사랑이 갔더라도 다시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의 특징 중 하나는 소재를 서로 대비시킨 것이다. 그녀가 준 ‘나비무늬 손수건, 제비 한 쌍의 그림, 금 시계줄, 장미꽃’과 ‘我’가 준 ‘부엉이, 사탕과자, 발한제, 율모기’를 서로 대비시켜서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서로 다른 생활과 취미를 표현하였고, 서로 다른 사랑관을 표현하였다.

「나의 실연」은 신시에 속하기도 하고 구시에 속하기도 한다.[35] 그 이유는 이 시에서 구시형태와 신시형태의 두 속성이 모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학자들마다 이 시를 신시에 포함시킬지 구시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견해가 각각 다르다. 그러나 이 시는 형식에 있어서 구시의 형태를 띤 구절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구시보다는 신시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신시에 포함시켜 살펴보았다.

4) 서문

35) 江錫銓,「新時期魯迅詩歌研究述略」,『江蘇教育學院學報』(社會科學版), 1996年 第2期, 59쪽.

1926년 3월 18일 천안문 앞에서 중국 침략한 일본에 항거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이 집회에서 段祺瑞는 발포를 명령하여 47명이 총에 숨지고 150여명이 상해를 입었다. 그 후에도 단기서는 공산당 당원들을 체포하는 일까지 벌인다. 이에 노신은 화가 나서 당시 사회를 비판하며 「『이이집』·서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이집』·서문」

최근 반년 동안 나는 또 많은 피와 많은 눈물을 보았다,
하지만 내게는 잡감만 있을 따름이다.
수많은 눈물 닦아버렸고, 수많은 피도 사라졌다.
도살자들은 자유로이 다니며,
강한 칼을 사용하고, 부드러운 칼[36]을 사용한다.
그러나 나는 단지 "잡감"만 있을 따름이다.

"잡감" 조차도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그래서 오직 "따름이다" 만이 있을 따름이다!

이상 8句의 말은 1926년 10월 14일 저녁에, 그해 그 시간까지의 잡감집을 다 편집하고 끝에 쓴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취하여 1927년의 잡감집 題辭로 삼는 것이다.
1928년 10월 30일 노신, 학교에서 기록하여 끝냄.

「『而已集』·題辭」

這半年我又看見了許多血和許多淚,
然而我只有雜感而已.
淚揩了, 血消了 ;
屠伯們逍遙復逍遙,
用鋼刀的, 用軟刀的.
然而我只有"雜感"而已.

連"雜感"也被"放進了應該去的地方"時,
我於是只有"而已"而已!

以上的八句話, 是在一九二六年十月十四夜裏, 編完那年那時為止的雜感集後, 寫在末尾的, 現在便取來作為一九二七年的雜感集的題辭.

一九二八年十月三十日, 魯迅校訖記.

「『이이집』·서문」은 노신의 분노를 담은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26년 3월 18일의

36) 여기에서 말하는 '부드러운 칼'은 강철로 된 칼이 아니고, 글을 써서 그것을 무기로 여론을 선동하여 공격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략에 대한 항거에 무력으로 진압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에 화가 난 노신은 이 시에서 “최근 반년 동안 나는 또 많은 피와 많은 눈물을 보았다”고 한 것이다. ‘수많은 피’는 총에 맞아 피살된 사람들이고, ‘수많은 눈물’은 피살된 가족들의 분통함과 민중들의 비통함 그리고 분노 등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피와 많은 눈물을 보았는데”라고 하여 ‘많은’을 중복 사용한 것은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37)

단기서는 “3·18 사건” 이후에도 공산당 당원들과 문화계 인사 50명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비밀리에 내린다. 그래서 당시 노신도 어쩔 수 없이 도피를 다니면서 단기서 정부의 만행에 대해 세상에 폭로하고 분노한 것이다. 이처럼 노신은 피신하는 기간 동안 「無花的薔薇之二」, 「死地」, 「可慘與可笑」, 「記念劉和珍君」 등의 잡문을 써서 강력한 무기인 글을 통해 단기서 정부와 그 주변사람들을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노신은 “그러나 나는 단지 “잡감”만 있을 따름이다.”라고 했다.

또한 노신은 단기서 정부를 공격함과 동시에 이 시에서 단기서 정부를 ‘도살자’에 비유하여 ‘도살자’들이 강한 칼과 부드러운 칼, 다시 말해서 강한 칼인 총칼과 부드러운 칼인 국민의 여론을 이용하여 공격하지만, “그러나 나는 단지 “잡감”만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여 ‘雜感’이라는 강한 무기인 글로 그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잡감’이 당장에는 그들을 공격할 수 없겠지만, ‘도살자’들의 무기 보다 더 큰 ‘여론’이라는 무기가 되어 오래도록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따름이다” 만이 있을 따름이다.”라고 한 것은 포기의 탄식이 아닌, 노신의 더욱더 강한 의지와 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문의 ““而已”而已”에서 첫 번째 ‘“而已”’는 『而已集』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 ‘而已’는 ‘~일뿐’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잡감” 조차도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그래서 오직 “따름이다” 만이 있을 따름이다!”라고 한 의미는, 노신에게 글을 못 쓰게 하더라도 자신은 오히려 글을 쓰고 출판을 하여 단기서 정부에게 회답을 하여 공격할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노신의 신시 8편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별로 고찰해보았다.

4. 결론

노신의 신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우 새로운 전환이었다. 초기 청말 교육의 답습을 통해 구시를 창작했지만, 중기인 1918년 신청년에 백화문을 이용한 신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를 발표한 것은 당시 시대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시대의 조류를 잘 탄 혁신적이고 급격한 형식의 전환이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당시 구시의 창작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거나 심지어 반동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한 문학잡지들은 신시만을 취급하겠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으며 전통적인 詩詞를 게재했던 南京의 「詩學專號」는 다른 잡지사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므로38) 노신의 신시 창작은 당연한 결과였을 수도 있다. 이에 1918년 5월부터 1919년 4월까지 「新青年」에 자유체시 6편인 「꿈」, 「큐피드」, 「복숭아꽃」, 「그들의 화원」, 「사람과 시간」, 「그」를 발표했고, 1924년 12월 「語絲」에 1편인 「나의 실연」을 발표했으며, 1926년 10월 『而已集』에 서문인 「『이이집』서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1918년부터 1926년까지

37) 孔繁榮, 앞의 책, 52쪽.
38) 王小舒 外, 『中國現當大傳統詩詞研究』, 山東大學出版社, 1997年, 2쪽.

모두 신시 8편을 발표했다.

중기 시 창작에 있어서의 특징은 초기와는 다른 신시라는 형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노신의 신시는 형태나 소재적인 면에서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고, 그 다양성에 발맞춰 사회에 대한 비판과 민중에 대한 강한 계몽의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형식의 변화에 의한 다양한 소재를 잘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교가 초기에 비해 더욱 세련되었다. 초기 작품은 주로 서정적인 소재와 주제가 일치하였지만, 중기에서는 서정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서사적으로 주제를 이끌고 있다. 이것은 백화문을 이용한 시 창작이 처음 시도된 당시로는 문학적인 時流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노신이 신시를 창작하면서 사용한 소재는 대중적인 성격의 것들로, 노신이 무게감 있는 소재를 통해 시의 격을 높일 수 있음에도 굳이 평범하고 신변잡기적인 소재를 이용한 것은 민중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에 사람들이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한 작가의 포석이고 배려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오늘날 노신의 신시는 그의 소설이나 잡문과 동일한 선상에 두어 평가해도 무방하겠다. 이것은 문학에 있어서 당시의 시대를 이끌었던 그의 신시 창작 또한 문학적인 가치를 창조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신의 신시에 대해서 고찰했고, 그 고찰에 따라 신시의 가치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노신 시의 발굴이 우선시 되어야하고, 노신의 다른 작품들과도 연계하여 신시의 중요성과 예술적인 가치를 다시금 깨달아 노신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 參考文獻

魯迅,『魯迅全集』(전16권), 人民文學出版社, 1991年.
周振甫,『魯迅詩歌註』, 浙江人民出版社, 1962年.
孔繁榮,『魯迅詩歌詮釋』, 百花州文藝出版社, 1997年.
노신문학회,『노신선집』(전4권), 여강출판사, 2004년.
루쉰 지음, 김영문 옮김,『루쉰 시를 쓰다』, 역락출판사, 2010년年.
趙冰波,『魯迅詩說』, 河南人民出版社, 2003年.
王小舒 外,『中國現當代傳統詩詞研究』, 山東大學出版社, 1997年.
張自强,『魯迅先生詩疏證』, 四川文藝出版社, 1992年.
倪墨炎,『魯迅舊詩探解』, 上海書店出版社, 2002年.
葉誠生,『魯迅的詩歌藝術』, 山東大學出版社, 1994年.
彭定安,『魯迅學導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年.
錢理群,『魯迅作品十五講』, 北京大學出版社, 2003年.
周作人 著·止庵 校訂,『魯迅的青年時代』, 河北教育出版社, 2002年.
魯迅,『魯迅詩集』, 人民文學出版社, 2001年.
許世旭,『中國現代文學史』, 法文社, 1999年.
김학주,『중국문학의 이해』, 신아사, 1998年.
車柱環,『中國詩論』, 서울大學校出版部, 1994年.
루쉰·쉬광핑 지음, 리우푸친 엮음·해설, 임지영 옮김,『루쉰의 편지』, 이룸, 2004年.

임현치 지음·김태성 옮김,『노신의 마지막 10년』, 한얼미디어, 2004年.
다케우치 요시미 지음·서광덕 옮김,『루쉰』, 문학과지성사, 2003年.
朱光燦,「魯迅詩歌略論」,『魯迅研究論文集』, 山東人民出版社, 1981年.
朱永齡,「魯迅詩論芻議」,『洛陽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95年 第3期(總第47期).
江錫銓,「新時期魯迅詩歌研究述略」,『蘇教育學院學報』(社會科學版), 1996年 第2期.
蔣明玳,「略論魯迅新詩的語言藝術ㅡ紀念魯迅逝世六十周年」, 電大教學, 1996年 第5期 (總第116期).
馬志才,「淺談魯迅詩歌的藝術價值」,『固原師專學報』(社會科學版), 2004年 第25卷 第2期.
郭廷禮,「試論魯迅詩歌的藝術特色」,『魯迅研究論文集』, 山東人民出版社, 1981年.
曹克·王平生,「魯迅詩歌與鄉戀情結」,『遼甯師範大學學報』(社科版), 1996年 第3期.
郭沫若,「魯迅詩稿·序」,『上海文学』, 1961年第09期.
韓曉光,「試論魯迅詩歌語言的審美變異」,『中國文學研究』, 1997年.
曾宏偉,「試論“五四”時期魯迅的新詩」,『川北教育學院學報』, 2000年 第10卷 第4期.
龔勳·羅惠玲,「談魯迅詩歌的藝術成就」,『四川教育學院學報』, 2004年 第20卷 增刊.
江錫銓,「新時期魯迅詩歌研究述略」,『江蘇教育學院學報』(社會科學版), 1996年 第2期.
劉世鍾,「魯迅『野草』의 象徵體系 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年.
金宅圭,「魯迅의 新·舊詩 交叉·並行 創作 研究」, 碩士論文, 韓國外國語大學校, 2000年.
吳成我,「魯迅의 舊體詩 研究」, 碩士論文, 忠北大學校, 1999年.
張惠瓊,「魯迅〈雜文〉의 藝術性 研究」, 碩士論文, 檀國大學校, 1988年.
王傑,「魯迅詩學現代性研究」, 博士論文, 華中師範大學文學院, 1999年.
劉泉,「魯迅前期文學語言論析」, 碩士論文, 青島大學, 2003年.
嚴英旭,「魯迅文學의 現實主義 研究」, 博士論文, 全南大學校, 1993年.
李柱旼,「魯迅 詩歌 研究」, 博士論文, 高麗大學校, 2012年,

≪劉三姐≫ 연구

*

목 차〉

1. 들어가며
2. 劉三姐 문헌기록 및 전설
3. 시대적 상황과 영화 제작배경
4. 인물형상의 현대적 變容과 주제사상
5. 나오며

1.

수립된 1949년부터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던 1966년까지의 17년 동안의 문학을 중국문학사에서는 "十七年文學"이라고 지칭한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때는 정권 초기의 공산당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자 했던 시기이며, 그 의지는 문학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이런 영향의 결과는 또 다른 시기 문학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공 건국 초기에 공산당은 문학이 정치적 도구가 될 것을 종용하였고, 작가들은 이에 자의든 타의든 시대정신을 반영한 맹종의 길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 작품들 속에는 당시의 정치적 氣息과 작가의 시대정신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었던 바, '찬양'과 '회상'과 '투쟁'이 주로 작품 소재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찬양은 주로 "공산당과 영도자, 사회주의와 인민들이 대상이 되었고, 회상과 그리움을 소재로 한 것에서는 전쟁을 하던 시기와 고난의 시절, 그리고 과거에 대한 각종 추억 등이 묘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투쟁에 대한 내용에서는 제국주의나 자본주의, 낡은 사상과 관념 등에 맞서 싸

*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hansd58@hanmail.net)

그런 것"[1]들이었다. 이런 특징은 漢族은 물론이고, 소수민족이나 이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던 변방 소외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으며, 문학작품은 물론이고 예술 분야에까지도 비슷한 경향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영화 창작에서도 이런 국가 주도적 의식형태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중공은 통일된 국가 의식형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소수민족들에게도 관심을 쏟아 한족과 융화된 새로운 공동체로 단결을 시키고자 하였고, 그 일환의 하나로 소수민족들에게 소수민족 소재의 영화를 각색하여 자신들의 가치 이념을 선양할 수 있도록 하는 유화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7년 동안 소수민족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47편이나 제작될 수 있었고, 이 성과는 "중공 이전에 소수민족을 다룬 영화가 몇 편에 불과했던 것에 견주어볼 때 엄청난 변화"[2]가 아닐 수 없었다.

47편의 영화들은 대부분 '항일 해방·방첩·건설' 등의 시대적 요구를 주제로 삼고 있지만, 이 중에는 ≪劉三姐≫(1960)·≪阿詩瑪≫(1964)·≪秦娘美(黔劇)≫(1960)·≪蔓羅花(舞劇)≫(1961) 등과 같이 각 민족의 민간전설을 근거로 하여 영화로 제작한 것들도 있었다. 여기서 언급한 이 4편의 영화는 민간전설을 핵심 소재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계급투쟁이라는 현실적 주제에 맞춰 각색이 되어 있다. 따라서 작품의 주요 인물들은 "무산계급의 빈민들로 변신해 있고, 이성간의 사랑은 가정윤리나 가문의 원수 관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계급의 간섭과 기만으로 좌절을 당하거나 낭패를 당하는 것으로 변모되어 있다."[3] 영화를 이런 식으로 현대화한 서사 방

---

1) , http://baidu.com 참고.

2) 1949년 이전 소수민족의 생활을 표현한 영화는 단지 ≪瑤山艶史≫(1933) ≪塞上風雲≫(1940)·≪花蓮港≫(1948) 등과 같은 몇 편에 불과했지만, 1950년대 60년대에 와서는 ≪內蒙古人民的勝利≫(蒙古族, 1950)·≪草原上的人們≫(蒙古族, 1953)·≪蘆笙戀歌≫(拉祜族, 1957)·≪邊寨烽火≫(景頗族, 1957)·≪五朶金花≫(白族, 1959)·≪勐瓏沙≫(傣族, 1960)·≪阿娜爾罕≫(維吾爾族, 1962)·≪冰山上的來客≫(塔吉克族, 1963)·≪農奴≫(藏族, 1963)·≪阿詩瑪≫(彝族, 1964)·≪天山的紅花≫(哈薩克族, 1964) 등과 같은 소수민족 소재의 영화들이 많이 나왔다. 林進桃, 劉紀新, <時代背景下少數民族題材電影的奇葩-重論電影≪劉三姐≫> ≪四川戲劇≫, 2009년 제1기 106쪽 참고.

결국 관중들에게 민족 공동체의식 고취보다는 계급 공동체의식 제고에 목적이 있었고, 항일이나 해방, 방첩 등을 묘사한 현실주의 소수민족 소재 영화에서도 같은 의도가 적용되었기에 중화민족의 새로운 공동체는 이전에 비해 더욱 공고해질 수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탄생된 영화들은 분명한 시대적 산물임에 틀림이 없으며, 그 산물의 시대적 낙인과 특징은 여러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창작된 여러 영화들 중에서 소수민족을 소재로 하되, 자기 고유의 민족 정취뿐만 아니라 '17년 시기' 중국 현실 정치의 시대적 사명까지도 잘 반영하여 중국 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작품을 예로 들어 볼 때, 영화 ≪劉三姐≫를 능가할 수 있는 작품은 없을 것이다. "만일에 1950년과 60년대를 '百花 放'이란 문예방침 아래 소수민족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꽃을 피웠던 시기라고 한다면, 壯族의 영화 ≪劉三姐≫는 그 중에 가장 찬란한 꽃이었다."[4]는 평가는 역시 ≪劉三姐≫의 가치와 의의를 객관적으로 잘 대변해 준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들을 연구 동기로 삼아, 영화 ≪劉三姐≫의 핵심 스토리가 壯族 민족의 어떤 사실에서 출발했던 것이며, 이것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어떻게 변모해 왔고, 나아가서는 현 중공 정권에서 고사 내용이 어떤 양상으로 變容되어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인지 그 각색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문헌기록 및 전설

시간적으로 가장 빠른 劉三姐 관련 기록은 廣東省 陽春縣 春灣鎭 銅石巖 石刻의 것으로, 암석에 "乾化乙亥重陽日, 劉仙三姐歌臺"라고 적혀 있다. 이 기록에서의 '乾化'는 五代十國 後梁(907-923)의 연호를 가리킨다. 따라서 劉三姐 이야기는 이미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임을 알 수

---

3) , <十七年少數民族題材電影中的身 認同表述>, ≪電影文學≫, 2008년 제7기, 14쪽 참고.

4) 林進桃, 劉紀新, <時代背景下少數民族題材電影的奇葩-重論電影≪劉三姐≫>, ≪四川戲劇≫, 2009년 제1기, 106쪽.

. 또 ≪陽春縣志≫[5]의 기록을 보면, “銅石巖은 일명 通眞巖이라고도 하는데, 성 북쪽 80里에 있다. 思良都巖에 石室이 하나 있는데, 높이가 3,4丈이나 되고 깊이와 폭이 1丈 남짓 된다. 전설에 따르면 唐나라 때 劉三妹가 이곳에서 하늘로 날아갔다고 한다. 歌臺의 古跡이 여기에 있다. 府志에서는 ‘宋나라 眞宗 황제가 咸平 초에 太宗 御書를 내려 石室에 보관하였다.’”[6]라고 적고 있다. 이렇게 銅石巖 石刻 내용과 ≪陽春縣志≫의 기록에 근거, 劉三姐의 대체적인 身上 정보를 1차적으로 정리해 보면, 1세기 이전에 살았던 인물로 노래를 잘 했으며 노래 실력이 대단하여‘신선’처럼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銅石巖 石刻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은 南宋의 王象之[7]의 기록이다. 王象之는 ≪輿地紀勝≫<三妹山> 편에서 “유삼매는 春州 사람으로, 암석 위에 앉았었던 것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8]고라 하였다. 王象之는 여기서 주로 地理에 대한 정보, 즉 山名을 기록하는데 주목하였을 뿐 劉三姐의 여타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역시 아쉬움이 있으나, 그런 중에서도 劉三姐가 春州(지금의 陽春縣) 사람이라고 추가시킨 짤막한 정보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이후로 오랫동안 劉三姐 이야기는 그저 口傳 형식으로만 전래되어 왔을 뿐, 별다른 문헌 기록 없이 전해 오다가 명말 청초에 와서 문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견해와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다. 屠英[9] 등의 ≪肇慶府志≫나 孫芳桂[10]의 ≪歌仙劉三妹傳≫ 등이 그 대

---

5) ≪ ≫는 代 道光 元年(1821) 陆向荣 등에 의해 편찬되었다.

6) “銅石巖一名通眞巖, 在城北八十里. 思良都巖有石室, 高有三、四丈, 深廣丈餘. 相傳唐時有劉三妹于此飛升. 歌臺故迹在焉. 府志云: 宋眞宗咸平初賜太宗御書藏于石室.” ≪陽春縣志≫, 59쪽. 羅崗生, ≪劉三姐研究資料集≫, 2007년, 2쪽.

7) 王象之(1163—1230)는 南宋 婺州 金華(지금은 절강성에 속함) 사람으로, 字는 儀父다. 慶元 2년(1196)에 進士第에 올랐으며, 長寧軍文學·江西分寧·江蘇江寧知縣 등을 역임하였다. 고결한 품격을 가졌던 그는 벼슬과 봉록에 큰 뜻이 없었다. 중년부터 은거를 하면서 저작에 힘썼다. 그가 지은 지리학 명저 ≪輿地紀勝≫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8) “劉三妹, 春州人, 坐于巖石之上, 因名.” 羅崗生, ≪劉三姐研究資料集≫, 2007년, 2쪽.

9) 屠英은 淸代 때 시인으로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10) 孫芳桂는 宣府 右衛 사람으로, 淸代에 정치를 했던 인물이다. 康熙 四年(1665年)에 王得善의 뒤를 이어 漳州府知府를 맡은 바 있다.

예라 할 수 있다.

다음은 ≪肇慶府志≫의 기록이다.

> 는 新興人으로 唐 中宗 때 태어났다. 나이 열두 살 때 노래를 아주 잘 했다. 兩 溪峒을 오가면서 모든 오랑캐 언어를 다 할 줄 알았다. 뒤에 白鶴鄉의 한 소년과 함께 산에 올라 노래를 하였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구경을 하였다. 7일 밤낮을 노래해도 그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마침내 두 사람은 화석이 되었다.[11]

이어서 ≪歌仙劉三妹傳≫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歌仙의 이름은 三妹다. 그의 부친은 漢代 劉晨의 후예로, 유랑을 하다가 貴州 西山 水南村으로 와서 정착을 했다. 부친은 義를 숭상했고 슬하에 세 딸이 있었다. 장대한 딸들은 다 노래를 잘 했다. 일찍이 가정을 이루었으나 노래를 자식에게 전하지는 않았다. 어린 딸 三妹는 唐 中宗 神龍 五年 己酉에 태어났는데, 일곱 살 때부터 필묵에 능했고 총명하고 민첩하여 "女神童"이라 불렸다. 나이 열두 살이 되었을 때는 經史에 능통했고 노래도 아주 잘 했다. 부친이 늘 이상하게 여겨 시험삼아 노래를 시켜보면 곧바로 응대를 했다. 열다섯에 아름다운 모습이 갖춰지자 노래 명성은 날로 높아갔고 천리 밖에서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루든 이틀이든 아무렇게나 대할 수가 없었다. 열여섯이 되었을 때 對唱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보답을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예의는 엄격하게 지켰다.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邕州 白鶴鄉에 소년 張偉望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수려한 용모에 공부를 많이 해서 음률에 능통했다. 집에까지 찾아온 것을 보니 언행거지에 절도가 있어 시골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였다. 서산 옆에 돈대를 하나 쌓아 두 사람에게 돈대에 올라 사흘을 노래하게 하였다. 돈대 계단은 3중으로 하고, 기둥은 紫檀으로, 幕은 고운 비단으로 했으며, 여러 보석이 달린 流蘇를 네 모서리에 설치하였다. 三妹는 교룡 무늬로 된 가벼운 비단옷을 입었는데 이리저리 펄럭이고, 머리는 두 갈래로 땋아 허리까지 내렸다. 두 가닥의 삿갓 끈을 드리우고 九風의 명주신을 신었으며, 예쁜 두 눈동자는 아름다운

---

11) "劉三妹, 新興人, 生唐中宗時, 年十二善爲歌遊戲. 得道往來兩粵溪峒間, 解諸蠻語. 後與白鶴鄉一少年登山而歌, 人環視之, 七日七夜歌聲不絶, 俱化爲石." 羅崗生, ≪劉三姐研究資料集≫, 2007년, 2쪽.

그림자 사이에서 빛났다. 소년은 검은 비단옷을 입고 절도 있게 오른 쪽에 서 있었다. 이 때 날씨는 맑고 산천은 아름다웠으며, 粵民과 族·壯族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바라보았다. 겹겹의 남녀들은 모두 신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여겼다. 두 사람 서로 읍을 하고 세 번 사양을 한 후에 소년이 먼저 ≪芝房燁燁≫을 노래하자, 三妹가 ≪紫鳳≫으로 화답하였다. 이를 구경하던 사람들 중 탄복을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소년이 다시 ≪桐生南岳≫을 노래하자, 三妹는 ≪蝶飛秋草≫로 화답하였다. 소년이 갑자기 變調로 詞 ≪朗陵花≫를 한 곡 읊었는데 너무나 애절하였다. 이에 三妹가 ≪南山白石≫을 노래하였다. 너무 슬퍼서 그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가 흐느껴 울었다. 이로부터 서로 번갈아 가며 화답의 노래를 하게 되었다. 끝없이 교대를 하면서 옛날식 말투에 구속되지 않았고 시간에 구속되지 않았다. 瑤族과 壯族 사람들의 말이면 전부 가사가 되었는데,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전부 토로를 해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관중들은 더욱 많아졌고 사람들은 귀가할 시간도 잊어버렸다. 三妹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게 되자, "여기 돈대는 너무 낮고, 또 시끄럽고 난잡합니다. 산에 돈대가 있으니 그 곳에 올라 여러분들에게 7일 동안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입었던 옷을 바꿔 입고 옅게 화장을 했다. 소년은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산에 올라 함께 앉아서 노래를 했다. 산은 높고 가사는 메아리치지 않았으며, 목소리는 더욱 맑고 멀리 퍼져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7일이 되었을 때 의젓한 모습은 보였지만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두 동자를 시켜 올라가 살펴보라고 했더니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이 돌로 변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보니 둘은 신선이 된 것 같았고, 서로 절을 하고 있었다. 이는 元宗 開元 十三年 乙丑 정월 중순의 일이다. 오늘날 粵人들이 정월 대보름날 모여 성대하게 노래를 하는 것은 이런 전통 때문이라고 한다.[12]

---

12) "歌仙名三妹, 其父漢劉晨之苗裔, 流寓貴州西山水南村, 父尚義, 生三女, 長大, 妹皆善歌, 早適有家, 而歌不傳. 少女三妹, 生于唐中宗神龍五年己酉, 甫七歲即好筆墨, 聰明敏捷, 時呼爲"女神童". 年十二, 通經史, 善爲歌, 父老奇之, 試之頃刻立就. 十五艶姿初成, 歌名益盛, 千里之內, 聞風而來, 或一日, 或二日, 率不能和而去. 十六, 來和歌者終日塡門, 雖與酬答不拒, 而守禮甚嚴也. 十七, 有邕州白鶴鄕少年張偉望者, 美豊容, 讀書解音律, 造門來訪, 言談擧止, 皆合節, 鄕人敬之, 築臺西山之側, 令兩人登臺爲三日歌. 臺階三重, 幹以紫檀, 幕以彩緞, 百寶流蘇, 圍于四角. 三妹服鮫室龍鱗之輕綃, 色亂飄露, 頭作兩丫鬟絲, 髮垂至腰, 曳雙

외에도 劉三姐에 관련된 기록은 ≪宜山縣志≫ ≪蒼梧縣志≫·≪遊通眞巖幷序≫·≪新興縣志≫·≪羅定州志≫·≪江華縣志≫ 등에도 실려 있고, 또 張爾翮의 ≪劉三妹歌仙傳≫, 吳淇의 ≪粤風續九≫, 王士禛의 ≪池北偶談≫, 閔叙의 ≪粤述≫, 屈大均의 ≪廣東新語≫ 등에서도 劉三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여러 언급들 중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위의 ≪ 劉三妹傳≫ 내용을 2차적으로 종합해 보면, 劉三姐는 貴州의 西山 水南村 출신이요, 唐 中宗 神龍 五年 己酉 해[13]에 태어났고, 張偉望과 7일 동안 對唱을 하다가 元宗 開元 十三年에 신선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 다시 요약하면 劉三姐는 지금의 廣西省 壯族自治區 東南에 위치한 貴縣 西山村에서 태어나 705년부터 725년까지 20년 남짓 살다간 인물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상에서 밝힌 구체적인 지역과 생졸 연대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인 문헌기록 없이 口傳으로 전해오던 전설을 후대에 와서 스토리텔링화한 것이라 추측이 되며, 따라서 신빙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 躡九風之絞履, 雙眸盼然, 抉映九華扇影之間. 少年着烏紗, 衣繡衣, 節而立于右. 是日, 風清日麗, 山明水綠, 粤民及瑤壯諸種人圍而觀之, 男女百層, 咸望以爲仙矣. 兩人對揖三讓, 少年乃歌≪芝房燁燁≫之曲, 三妹答以≪紫鳳≫之歌, 觀之人莫不嘆絶. 少年復歌≪桐生南岳≫, 三妹以≪蝶飛秋草≫和之. 少年忽作變調, 曰≪朗陵花≫詞, 甚哀切, 三妹則歌≪南山白石≫, 益悲激, 若不任其聲者. 觀之人皆爲欷歔. 自此迭唱迭和, 番更不窮, 不沿舊辭, 不夙拘時, 依瑤壯諸人聲音爲歌詞, 各如其意之所欲出, 雖彼之專家, 弗逮也. 于是觀衆者益多, 人人忘歸矣. 三妹因請于衆曰:"此臺尚低, 人聲喧雜, 山有臺, 願登之爲衆人歌七日." 遂易前服, 作淡妝. 少年皓衣元裳, 登山偶坐而歌. 山高詞不復辨, 聲更清邈, 如聽鈞天之響. 至七日, 望之儼然, 弗聞歌聲, 衆命二童子上省, 還報曰:"兩人化石矣!" 共登山驗之, 遂以爲兩人仙去, 相與羅拜. 時元宗開元十三年乙丑正月中旬也. 至今粤人會歌盛于上元, 蓋其遺云. 路工, ≪訪書見聞錄≫, 上海古籍出版社, 1985년, 406-407쪽. 羅崗生, ≪劉三姐研究資料集≫, 2007년, 3쪽에서 재인용.

13) "唐 中宗 神龍 五年 己酉"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다. 왜냐하면 中宗의 "神龍"은 705년부터 707년까지 3년간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神龍 五年 己酉"라는 말은 모순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神龍 五年 己酉"라 함은 景龍 3년을 가리키고, 이때는 709년이 된다. 그러나 ≪貴縣志≫에서는 劉三姐가 中宗 神龍 元年, 즉 705년에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羅崗生은 이 점에 대해 후자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밝히고 있다. 羅崗生, ≪劉三姐研究資料集≫, 2007년, 2쪽

있다. 그럼에도 이것이 문화사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이유는, 이 전설 속에 특정 민족, 즉 壯族들의 자부심과 그들이 천년 넘게 향유해 온 삶의 쾌락과 여유, 그리고 풍속과 인정 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는 이 전설을 근거로 개발된 각종 문화 및 예술 '브랜드'들이 壯族의 부와 명예에 귀중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상황과 영화 제작배경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十七年文學'의 주된 경향은 중공의 정치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左聯時期(1930-1936)와 延安時期(1935-1948)의 중국 정치 노선과 문화정책의 동일선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1942년, 모택동의 연안문예좌담회 강화에는 당시 문예정책 및 문학운동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바, 군중의 결집과 성공적인 혁명이 바탕이 되고 있다. 그 결과 '十七年文學' 작품 중에는 이러한 정치 환경의 영향을 받아 '영웅인물'을 통한 '혁명'을 주요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았다. 대부분 전통적인 '文以載道' 정신에 입각하여 정치적 의도를 작품에 반영한 결과다. 이런 의도는 결과적으로 작중 인물들을 공식화 하거나 도식화 하는 경향을 낳았고, 작품의 문학성이나 예술성을 크게 제고시키는데 큰 제약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면에서 당시 작품에서는 소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시대가 원하는 모범적인 인물 '典型'이 중요하였던 바, 작품 속에서는 각종 영웅이 여러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상적인 인물 창조를 위해 급조 내지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인물에 진실성이 부족하고 지나친 과장으로 인해 현실 생활과는 모순이 되는 현상을 露呈하기도 하였다. 다음 설명은 당시의 시대상과 문학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 "소재의 중요성 여부가 작품 가치의 우열을 결정한다."는 창작 판단 기준 때문에 작가들은 '중요한 소재'로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광명을 표현해 내야만 했던 것이다. 위험한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며, 굳세고

영웅인물이 작품 내용에 들어가야만 작가와 독자가 서로 공통된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평화 영웅, 계급 영웅, 정치도덕 영웅, 생산영웅 등이 그런 실례다.[14]

시대적 배경에서 영화 ≪劉三姐≫가 제작되었다.

원래 劉三姐 전설은 당시 시대적 정치 환경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님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는 이전의 다른 劉三姐 소재의 예술 작품들[15]보다 훨씬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았다. 그 이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연극 같은 예술과는 달리 영화라는 매체였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있었고, 또 정치지도자들의 관심도가 크게 작용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劉三姐 전설을 소재로 하되, 소수민족 壯族의 풍토 인정을 배경으로 한 劉三姐를 위 인용문에서 지적한 1960년대 전후의 중공 정권이 요구하는 '평화 계급·정치도덕·생산' 영웅으로 각색한 후, 이를 '문예대중화'의 일환으로 삼아 이것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영화 ≪劉三姐≫는 喬羽[16]가 시나리오를, 雷振邦[17]이 작곡을, 그리고 蘇里[18]가 감독을 맡아 1960년에 발표된 작품이다.[19] 영화는 당시 정치

---

14) 百度百科, <十七年文 >. http://baike.baidu.com/view/729104.htm 참조.

15) 1954년 宜山縣에서 민간전설을 근거로 한 ≪劉三姐≫ 연극이 공연된 바 있고, 1958년에는 柳州市와 平彩劇團이 曾昭文의 ≪劉三姐≫ 彩調劇을 공연한 바 있다. 또 1959년에는 柳州彩調團에서 鄧凡平 등이 만든 ≪劉三姐≫ 彩調劇을 공연한 바 있다.

16) 喬羽(1927-)는 山東 濟寧人으로, 중공의 당원이다. 1946년에 晋冀魯豫邊區의 北方大學에 입학한 후 신문에 시와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秧歌劇을 쓰기도 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영화 시나리오 ≪紅孩子≫(1958)·≪劉三姐≫(1960)가 있고, 歌詞로는 ≪讓我們蕩起雙槳≫(1955)·≪我的祖國≫(1956)·≪祖國頌≫(1957)·≪牡丹之歌≫(1980) 등이 있다.

17) 雷振邦(1916-1997)은 北京人으로 滿族이다. 어려서부터 京戱와 민간 小調를 좋아하였고, 1939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고등 음악학교 작곡과에서 음악 공부를 하였다. 1955년, 長春電影制片廠에서 본격적으로 작곡을 하기 시작하면서 30여 년간 100여 곳의 영화 음악을 작곡하였다. 그는 강한 '민족 색채'와 생활의 기식이 넘치는 작풍이 특징이다. 이런 바탕에서 소수민족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으로 ≪蘆笙戀歌≫(1957)·≪五朶金花≫(1959)·≪劉三姐≫(1960)·≪冰山上的來客≫(1963)·≪景頗姑娘≫(1965) 등이 있다.

영화창작에 대한 관심과 방향 설정에 따라 창작이 되었다.

> 10주년, 建黨 4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周恩來와 鄧小平 등 당 중앙 지도자들은 직접 중점 문예창작 항목을 챙겼는데, 그 중에서 鄧小平은 당 중앙을 대표하여 영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힌 바, 1959년에는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세계 선진 수준의 총천연색 예술 영화를 최소한 7편정도 만들어낼 것을 희망하였다. 周恩來는 여러 차례 영화 종사자들을 접견하면서 문예 공작의 '양다리' 도보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그는 경축 영화 계획에 대한 상황을 이해한 후, "경축 영화 중에는 흥겨운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수민족 영화가 별로 없다."고 지적하였다.[20]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영화 ≪劉三姐≫는 당시 정치 지도자의 '희망'과 '지적'에 따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영화는 결코 새로운 창작이 아니다. 柳州市에서 1958년부터 2년간 다섯 개의 방안을 마련하여 공연했던 彩調劇[21] ≪劉三姐≫를 각색한 것이다. 이는 당시 廣西 자치구가 군중의 문화생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區 市·縣 文公團을 조직해서, 山歌와 劉三姐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

---

18) 蘇里(1919-2005)는 安徽 當涂人으로, 원명은 夏傳堯이며 영화감독이다. 1937년 군대의 임시 편제였던 路軍에 참가하였고, 1938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동년에 延安抗大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다. 抗大文工團 戲劇隊 隊長, 武漢軍政大學 文工團 副團長, 長春電影制片廠 감독 등을 맡은 바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平原遊擊隊≫(1955) ≪哥哥和妹妹≫(1956)·≪青春的脚步≫(1957)·≪紅孩子≫(1958)·≪我們村裏的年輕人≫(1959)·≪劉三姐≫(1960) 등이 있다.

19) 시나리오는 1960년 ≪電影文學≫ 제9기에 발표되었다.

20) "爲迎接建國10周年、建黨40周年, 周恩來、鄧小平等黨中央領導親自抓了一批重點文藝創作的項目, 其中, 鄧小平代表黨中央對電影提出要求, 希望在1959年至少創作出7部思想和藝術方面都能趕上世界先進水平的彩色藝術片. 周恩來多次接見電影工作者, 發表了文藝工作'兩條腿'走路的講話. 他在了解到獻禮片的計劃後明確指出: 獻禮片缺少載歌載舞、看了使人高興的少數民族影片." 본문 중의 '양다리' 도보 ['兩條腿'走路]란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시에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함을 말한다. 李寧, <淺析電影歌曲≪蝴蝶泉邊≫, ≪劇作家≫, 2009년 6기. 165쪽

21) 彩調劇은 廣西 壯族自治區 지역에 유행하는 地方戲 중의 하나로, 調子·彩調·彩燈·哪嗬嗨 등이라 불리기도 한다. 燈戲 계통에 속하는 이 彩調劇은 桂林 지역 농촌 歌舞에서 발전된 것으로 그 종류는 약 500종에 이른다.

만들어 공연했던 것 중의 하나였던 셈이다. 그러나 중앙의 고위 관계자가 ≪劉三姐≫를 더 좋게 만들어보라는 지시에 따라, 廣西에서는 특별히 中國作家協會의 喬羽를 청하여 영화를 창작하게 하였다.

喬羽는 柳州에서 9개월을 머물면서 一萬首가 넘는 山歌를 수집하면서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1960년 가을, 中宣部 電影局에서는 長春電影製片廠에게 지시하여 廣西에서의 ≪劉三姐≫ 영화 제작을 돕도록 하고, 長春 영화제작사에서는 蘇里에게 감독을 맡겼다.

蘇里는 영화로 각색한 저본 彩調劇 ≪劉三姐≫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내용이 너무 속되다. 중국 전통극을 공연하는 것 같다. 스토리가 너무 庸俗되다. 色情的인 내용이 너무 많다. 地主와 媒婆가 있다. 劉三姐가 지주에게 첩으로 간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교우는 과감하게 극본에서 이와 같은 색정적인 내용을 모두 삭제해 버렸다."[22] 그리고 그는 "고전문학에 대한 깊고 견고한 소양과 내공으로" 전설 속의 劉三姐 인물을 더욱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상화" 하면서, "시적인 정취와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여"[23] 작품을 시대에 부응하게 창작하였다.

영화 ≪劉三姐≫는 중국 최초의 음악 경치 영화다. 따라서 음악이 성공여부를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것을 雷振邦이 작곡하였는데, 그는 이전에 이미 <氷山上的來客> <五朶金花> 등을 통해서 "농후한 민족과 지역적 특색, 그리고 생활의 기식이 살아 숨 쉬는" 음악 경향을 보여준 바 있으며, 특히 이 영화를 만들 때는 몸소 생활 현장 속에 들어가 직접경험을 하면서 그 현지 민간 예인들에게 음악을 배우기도 하였다. 그는 "서양음악 기교를 가지고 山歌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壯族 민족을 기초로 하여 노래를 선별하여 편집하고 가공하는 형식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특징과 맛이 민가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였다." 그는 영화 음악 "열 네 곡을 작곡하였는데, 그 중 아주 경쾌하고 활발한 <采茶姐妹上茶山>, 그윽하고 감동적인 <山歌好比春江水>,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고 아주 기운 찬 <只有山歌敬親人>, 그리고 노래 대결을 할 때 유머와 해학이 넘치는 經典과도

---

22) , <≪劉三姐≫背後的故事>, ≪文史博覽≫, 2008년 제6기, 49쪽 참고.
23) 倪俊傑, <電影"劉三姐"的藝術探索>, ≪藝術學苑≫, 2010년 24기, 136쪽.

부분 등이 곧 이것이다. 이런 곡들은 劉三姐를 중심으로 한 가난한 대중 형상들을 아주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24]

어쨌든 영화 ≪劉三姐≫는 이상의 喬羽 雷振邦·蘇里 세 사람을 통해, 주인공 劉三姐가 山歌로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고 애정을 노래하는 동시에 하층의 농어민을 못 살게 굴고 압박하는 봉건지주계급에 맞서 투쟁하는 정치적 주제를 잘 보여주게 되었다.

4. 현대적 變容과 주제사상

劉三姐 고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단하게 새로운 내용이 첨가됨으로써, 특정 시대에 특정 劉三姐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대 劉三姐는 아름답고 총명하며 부지런하고 용감했으며, 애정을 파종하던 歌仙이었는데, 근현대의 劉三姐는 투쟁에 용감하고, 악을 원수처럼 여기며, 强暴도 두려워하지 않는 화신이었다. 그리고 新時期의 劉三姐는 이상을 추구하고 創新을 개척하는 상징이었다."[25]고 하는 지적은 이런 현상을 잘 말해 준다. 그 특징을 시대별로 구분해서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26]

唐代 때 그려진 劉三姐는 빈민출신에 부지런하고 솜씨가 뛰어난, 그리고 노래 잘하는 농촌 아가씨 형상이었다. 누구보다 노래를 잘 해서 명성을 널리 떨치긴 했지만, 공부와는 거리가 먼 그저 질박하고 꾸임없이 순결한 명랑소녀였을 뿐이다. 이런 형상특징은 당연히 唐代 사회의 영향에 따른 것이었을 것이다. 이 때 唐은 사회문화가 번성하고 있었고 사상도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으며, 특히 嶺南의 壯族 지역에서는 中原의 민간문화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시기다. 따라서 廣西의 각 민족들은 南下한 中原 선진문화의 영향을 받아 山歌 문화도 번영할 수 있었으며, 또 隋代 때에는 과거제도의 영향으로 漢族 문화가 확산될 수

---

24) 인용문은 倪俊傑, <電影"劉三姐"的藝術探索>, ≪藝術學苑≫, 2010년 24기, 136쪽 참고.

25) 陳學璞, <論劉三姐文化現象>, ≪廣西社會科學≫, 2008년 제2기, 25쪽 참조.

26) 歐造杰, <劉三姐形象之我見>, ≪河池學院學報≫, 제30권 제1기, 2010년. 101-102쪽 참조.

것이다.

宋 元·明代에 와서 劉三姐에게는 악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성격 특징이 첨가되고, 無所不在·無所不能의 '神人'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劉三姐를 크게 崇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土司' 제도 및 그 폐해가 심각했던 정치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廣西 일대에서는 민간문화가 배척되었고, 그 영향으로 民歌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劉三姐 전설에도 추가되는 내용이 있었으니, 劉三姐 오빠가 劉三姐에게 노래를 못하게 하는 내용, 劉三姐가 세 명의 다른 가수와 노래 대항을 하던 것을 세 명의 秀才와 노래를 하고, 그 수재들을 용속한 폐물이라고 꾸짖는 내용이 곧 이것이다. 이는 당시 民歌가 배척당하고 가수와 수재들이 갈등 관계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또 문화상 統治者와 被統治者 간의 갈등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化石化되어 있던 고사가 '仙人' 고사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明淸 시기에 와서 劉三姐는 '仙人' 고사에서 점점 현실생활의 이야기로 변화되었다. 이는 봉건통치가 강화되고 사상에 대한 중앙의 고압 정책이 실행되었던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劉三姐에게 청혼했던 대상이 농촌 財主였지만, 이때는 城內의 부잣집 紳士로 대체가 되었고, 官府에서는 民歌 금지 지역을 가정으로부터 사회로까지 확대를 시킴에 따라 劉三姐는 밖에서 노래를 했던 죄로 인해 추방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고사는 앞에서 언급 한 바 있는 명말 청초의 張爾翮의 ≪劉三妹歌仙傳≫, 淸代 王士禎의 ≪池北偶記≫□居大均의 ≪廣东新语≫□등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들 손에 그려진 劉三姐는 경서에 능하고 음률에 조예가 깊었으며 才思가 민첩하고 노래가 뛰어났으며, 또 예교에 밝고 현숙하였으며 넓은 도량을 가진 대갓집 규수처럼 묘사가 되어 있다. 이런 점은 이전 劉三姐 형상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다.

當代에 와서 劉三姐는 이미 전통적인 민간 전설에만 묶이지 않고 문예창작의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다. 이에 연극이나 영화 등에서 작가들은 민간전설의 진수를 계승하여 순박하고 선량하며 부지런하고 솜씨 있는, 그리고 노래를 잘 하는 劉三姐의 기본 특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에 추가적으로 계급에 대한 각성과 강한 반항정신을 부여한 경우가

. 이로써 작품은 사상성이 크게 제고되고 劉三姐 형상은 영웅인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 즉, 민간전설 중에서는 미미했던 그녀의 사회적 위상이 용감하게 투쟁하는 불굴의 壯族 민간 '戰士'로 변화된 것이다. 그녀는 총명하고 재주 많고 노래 잘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不撓不屈의 반항정신이 보태졌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을 동원하여 財主의 박해에 결사적으로 반항하는 시대적 영웅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영화 ≪劉三姐≫에서는 주인공 劉三姐를 비롯한 여타 인물들이 어떤 캐릭터로 시대와 정서를 공유할 수 있었고, 또 어떤 내용으로 정치적 주제를 구현하면서도 원래 劉三姐 전설이 가지고 있던 壯族의 문화와 풍토 인정을 함께 아우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劉三姐 전설은 천 년 동안 구전되면서 주제 인물·사건 등에 있어서 '同化'와 '變異'를 거쳐 왔다. 同化的인 특징을 볼 때, "劉三姐의 출신, 돌 멜대, 넝쿨 끊기, 돌 굽기, 노래 부르기, 對唱, 神仙으로 변하거나 혹은 사망, 화석, 물 긷기, 나무하기, 혼인거절, 관료 지주 풍자, 모내기, 밭갈이, 그물 짜기, 노래 전파" 등등의 소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노래 가사에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扶綏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는 태어나면서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였다. 오빠는 劉三姐가 노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땅 파기 시합, 모내기 시합을 하고, 또 밑바닥이 뾰족한 물통에 물을 길어오도록 시키고, 돌멩이를 말랑말랑하게 굽도록 시키고, 劉三姐를 감시하려고 문 앞에서 잠을 잤지만, 劉三姐는 변함없이 노래를 하였다. 찾아온 네 명의 수재와 노래로 대항하여 완승을 거두었다. 劉三姐 오빠는 劉三姐가 손으로 붙잡고 기어오르는 포도나무 넝쿨을 끊어버렸다. 물에 빠진 劉三姐는 楊美村까지 떠내려 오게 된다. 劉三姐가 양미촌에 定處해서 살고 있는데, 오빠가 양미촌까지 구걸을 왔다가 남매가 서로 만나게 된다. 오빠는 만나면서 미안해한다.[27]

---

27) "劉三姐生性 唱歌, 哥哥試圖以挖地比賽、插秧比賽、讓劉三姐用尖底水桶挑水、讓劉三姐把石頭煎軟、守睡在劉三姐門口等方式阻止劉三姐唱歌, 刘三姐照樣唱歌, 把前來對歌的四個秀才, 唱得一敗涂地. 劉三姐的哥哥砍斷劉三姐攀爬的葡萄藤, 落河的劉三姐順河漂到楊美村, 定居楊美村, 哥哥乞討到楊美村, 兄妹相

전설의 同化와는 별개로, 일부 지역에서는 口傳者의 기억력의 한계나 개인의 창작 욕구, 그리고 인위적인 각색 등으로 인해 故事의 '變異'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이런 현상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판본들에서 그런 개연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晋列文도 지적하기를, "이와 같은 變異 관계는 주로 각종 전설의 주제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지만, 그들의 서술 방식이나 서술된 주제의 완벽 정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볼 때도 서로 다른 전설 변종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표현이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宜州 扶綏·貴港·廣東 등지의 것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는 "사람들의 敍述과 再敍述, 기억 요소와 인위적 선택 등으로 인하여 변이가 일어나게 된 것"[28]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런 '再敍述'과 '인위적 선택'에 따른 변화를 근간으로 하되, 영화 ≪劉三姐≫에서는 창작 당시의 정치적 목적과 깊은 상관관계 속에서 고사의 변이는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인물의 변용도 있게 되었던 것이다.

작품 주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은 당연히 주인공 劉三姐다. 민간 전설 속의 劉三姐는 그저 노래 잘 하는 순박한 시골 아가씨 정도로 요약될 수 있었지만, 영화 속의 劉三姐는 대중들을 이끌고 '造反'을 하는 여자영웅으로 變容되어 있다. '시대의 부름에 충실한' 인물 특징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秀才들도 풍자의 대상으로 설정을 해 놓고 劉三姐와 적대관계 속에서 대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수재들을 조종하는 악의 화신 莫懷仁은 劉三姐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하는 대상으로 안배되어 있다. 이 계급갈등과 투쟁 속에서 劉三姐의 영웅적 성격특징이 잘 드러나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선명한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다. 계급갈등을 보다 자연스럽게 합리화시키기 위해 劉三姐 부모를 財主의 압박으로 인해 사망한

, 哥哥不好意思相認." 普列文, <劉三姐傳說的流變>, ≪河池學院學報≫, 제30권 제6기, 2010년, 70-71쪽.

28) 普列文, <劉三姐傳說的流變>, ≪河池學院學報≫, 제30권 제6기, 2010년, 71쪽.

농민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갈등과 투쟁이 더욱 당위성을 가지게 하고 있다.

여성영웅으로서의 劉三姐 활동상은 莫懷仁과의 충돌과 반항에서 잘 표현이 되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劉三姐의 財主에 대한 증오심은 거침이 없다. 莫懷仁이 화근이 될 劉三姐를 회유하려고 하자, 劉三姐는 "다른 곳 지주 놈은 나를 죽이려 하더니, 이곳의 지주 놈은 나를 살리려 하는구나(別處財主要我死. 這裏財主要我活.)"라고 운을 뗀다. 莫懷仁을 보좌하는 수재들이 무례함을 꾸짖자 "수재 티를 너무 내니 참으로 우습구려, 빨리 서재로 돌아가서 공자 책이나 읽으시지. 지호야(之乎也) 같은 글자라도 잘 배워둬야,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갈통이라도 칠 수 있지.(好笑秀才酸氣多. 快回書房讀子曰. 之乎也者學會了. 才好搖頭 腦殼.)"라고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공격의 예봉을 날린다. 충돌이 마침내 반항으로 표현되는 첫 번째 대목은 '팻말 박살' 장면이다. 莫懷仁 측에서 劉三姐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찻잎을 못 따도록 하는 '차 채취 금지' 팻말을 세우자 "황무지 산을 일궈 차 재배지를 만들 때, 막씨가 그 언제 땀 한 방울 흘렸더냐(劈開荒山造茶林, 哪有莫家一滴汗)"라고 반항하며, 청년들로 하여금 팻말을 뽑아 박살을 내버리게 한다. 이로부터 劉三姐는 山歌를 무기로 마을 사람들을 규합하여 봉건 지주의 박해와 억압에 '造反'하는 중심인물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두 번째 충돌은 劉三姐의 造反 역량과 마을주민들의 단합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한 莫懷仁이 劉三姐의 山歌를 원천 봉쇄시키려고 하는 企圖에서 비롯된다. 山歌 내용에는 천문·지리·역사·산술·농사 등은 물론이고 초목이나 조수·귀신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총망라되고 있어서 공부가 짧거나 문화지식이 부족하면 노래를 주고받는 대결에서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아무리 山歌에 뛰어난 劉三姐라 할지라도 그 無學의 촌뜨기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 수재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秀才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상의해가면서 교대로 대항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莫懷仁은 山歌 對唱으로 劉三姐를 굴복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지배계급 악덕 지주는 얄팍한 꼼수와 이기심을, 그리고 고루하고 융통성 없는 서생들은 부끄러운 자신들의 實相만을 확인시켜주는데 그쳤을 뿐이다. 최

수재들이 劉三姐의 허점을 집중 공격해도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다음과 같이 회유를 한다. “권하건대 넌 화를 자초하지 말거라, 막씨 집은 권세도 있고 재산도 많단다. 고을 나리도 그를 만나면 3할을 양보하고, 염라대왕도 그를 만나면 절을 한단다. 네가 만일 막공의 생각대로 순종을 하면, 막공이 당연히 아주 잘 대해 줄 것이다. 집에선 널 햇볕에 안 그을리게 할 것이요, 문을 나서면 세 걸음도 가마를 태울 것이다.(勸 休要惹禍災, 莫家有勢又有財. 官家見他讓三分, 閻王見他要下拜. 你若順了莫公意, 莫公自有好安排. 在家讓你日不曬, 出門三步有人擡.)” 이에 劉三姐가 노래한다. “지주집 부자라고 자랑들 마오. 지주 마음은 뱀보다 더 독해서, 연못가에서 손을 씻으면 고기들이 다 죽고, 청산을 지나가면 나무들이 다 마른다오.(莫誇財主家豪富, 財主心腸比蛇毒. 塘邊洗手魚也死, 路過青山樹也枯.)” 莫懷仁은 이 노래에서 열을 받고 발을 잘못 디뎌 물에 빠지는 ‘생쥐’가 되고 만다. 劉三姐의 이 答歌에 처절하게 무너진 莫懷仁을 바라보며 촌민들은 “참으로 우습구나, 늙은 소가 물에 빠지니 참으로 우습구나. 만약에 늙은 소가 물에 빠져 죽으면, 뾰족한 칼로 천천히 소가죽을 벗기리라.(好笑多, 好笑老牛跌下河, 若還老牛泡死了, 拿起尖刀慢慢剝)”라고 조롱을 하면서 합창을 한다. 앞으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힘없고 불쌍한 자들을 괴롭히면 가공할 정도의 보복도 서슴치 않겠다고 하는 피압박자들의 불굴의 의지 표명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두 번째 승리에서, 쾌거의 중심에 서 있었던 劉三姐는 더욱 확고한 여자영웅으로서 지위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충돌은 莫懷仁의 劉三姐 납치 감금과 이에 대한 劉三姐의 강력한 저항이다. 반항세력의 중심축인 劉三姐를 제거하려던 그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자 莫懷仁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강제 감금을 통해 회유와 위협으로 결말을 짓고자 하였다. 하지만 용수철 원리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劉三姐를 비롯하여 촌민들은 더욱 강력하게 저항하고 더욱 조직적으로 단합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화의 주제는 더욱 부각되고 극적 효과는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그녀는 감금 중에 특별한 ‘대접’을 받았지만 물건을 내던지고 비단을 찢으며 필사적으로 반항한다. “참 고맙군요, 당신이 준 훌륭한 차와 밥. 근데 이 몸은 부잣집 음식 같은

먹지 않아요. 참 고맙군요, 당신이 준 고급 비단들. 근데 누가 이런 개 껍데기 같은 것을 입기나 한대요?(多謝 的好茶飯, 三姐不吃富家筵. 多謝你的好綢緞, 是人誰把狗皮穿.)"라며 거절을 한다. 수재가 너무 거만하다고 나무라자, "이곳은 원래부터 호랑이 소굴, 이곳은 원래부터 늑대의 소굴. 仁義道德으로 멋지게 外觀을 하고 있어서, 사람 죽이는 도살장임에도 피는 안 보이네요.(這裏原是老虎口, 這裏原是野狼窩. 仁義道德好門面, 殺人宰房不見血.)"라고 하며 지배계급이 가진 人面獸心의 특징을 일말의 여과도 없이 거침없이 토해낸다. 이런 용감성과 불굴의 정신이 곧 "호랑이 무서워 양을 기르지 못하고, 남쪽 뱀이 무서워 강을 건너지 못하랴? 그놈이 칼로 덤비면 칼을 들어 대적하고, 찻잎을 딸 때는 반드시 노래를 하겠노라.(怕了老虎不養羊, 怕了南蛇不過江. 凭他刀來有刀對, 茶要採來歌要唱.)"라고 결심하고 반항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봉건지주 토호세력에 대한 선량한 민초의 반항과 투쟁이란 서사 구조 속에서, 여성영웅 劉三姐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인물로 노어부가 있다. 노어부는 그냥 평범한 촌로 같지만 대단히 점잖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며, 기민하고 또 유머 감각까지 뛰어난 노인이다. 그는 劉三姐를 중심으로 촌민들이 莫懷仁 세력과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한다. "莫懷仁이 내 땅을 회수해 가고 나서, 또 나에게 고기를 못 잡게 할 모양인데, 흥, 그럴 순 없지! 고기 잡는 세금을 내라고 하면 줄 것이 없지만, 목숨을 달라고 하면 하나가 있지. …… 지주놈이 우리를 봐 줄 리가 없지. 하지만, 우린 겁내질 않고말고.(莫懷仁收回了我的地, 還想不讓我打魚, 哼, 辦不到! 要魚稅沒有, 要命倒有一條. …… 財主就不會饒了咱們. 可是啊, 咱們不怕.)" 오랜 경험과 여유를 가진 노어부는 때로는 능청으로 때로는 강한 투쟁의 의지로 악세력에 대항한다. 劉三姐를 빼 돌려놓고 능청스럽게 "劉三姐라구요? 저희, 저희들에게 劉三姐가 어디 있어요? 劉三姐는 그 나쁜 놈들이 붙잡아간 것 아닌가요?(劉三姐? 我, 我們這兒哪有劉三姐呀? 劉三姐, 不是讓那個壞蛋给綁走了嗎?)"라고 능청을 부리며 여유를 보이는가 하면, "무서운 호랑이가 또 한 번 사람을 다치게 하면, 내가 그 놈의 이빨 셋을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猛虎再起傷人意, 老漢敲它牙三根)"라고 하는 대사 등에서 그런

잘 보여준다.

특수한 시대와 정치 환경 속에서 재창조된 소수민족 전설 소재의 영화 ≪劉三姐≫ 속에는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은 시대적 '色感' 외에도 廣西 壯族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의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고, 또 중국에서 처음으로 '음악과 풍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등, 여러 측면에서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영화 창작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가장 충실하고자 하였던 계급간의 억압과 반항이라는 화두가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두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투쟁의 대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서사구조 속에서, 山歌라고 하는 부드러운 낭만주의적 수법을 통해 劉三姐를 중심으로 한 피압박 계급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낸 감독의 기법은 동시대 사실수법의 일반 영화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점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영화는 하나의 기록예술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상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1960년에 만들어진 영화 ≪劉三姐≫가 그런 예 중의 하나다. 劉三姐 전설은 중국 廣西 壯族들이 천 년 이상 자랑으로 여겨오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물론 그동안 동일한 소재를 다양한 장르와 기법 등으로 수없이 재탕을 해 왔었지만, 劉三姐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명물이 되고 지역의 수익창출에 대단한 역할[29]을 할 수 있도록 기폭제가 되어 준 것은 역시 본 영화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

29) 고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印象 劉三姐≫는 첫해 공연의 순수익 15억원, 2006년 티켓수입만 110억, 관광객 수는 1.5배, 관광수입은 4배나 증가하였다. 공연 전에는 계림시의 호텔 침대 수가 6,000개 미만이었으나, 2004년 들어서는 12,000개와 민박 수 천여 개가 신설되었고, 매일 공연에 참가하는 200여 명의 농민들에게 1년에 약 4,000-6,000위안의 출연료가 지급되며, 일부 고액 출연료로는 1만 위안까지 된다고 한다. 신춘호, <장이머우식 <印象計劃>의 성공요인과 한국형 <실경산수공연>의 가능성 탐색>, ≪글로벌문학콘텐츠≫, 제5호, 2010년, 180쪽 참고.

살핀바와 같이 劉三姐 고사는 壯族의 생활상과 순박한 인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내용이 점차 변화되고 인물 성격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용이 되어왔다. 특히 중공이 '신중국'이란 명분을 가지고 문학과 예술이 정치를 위해 봉사할 것을 강요하는 환경에서 영화는 새로운 의도로 강조 포인트를 달리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蘇里 감독은 劉三姐 고사의 기본 정서는 그대로 살리되, 특별히 가난하고 선량한 백성들이 봉건계급과 투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요소를 더 보충하고 그 강도를 더 높이기에 이른 것이다. 財主의 억압에 반항한 촌민들이 마침내 승리하는 서사구조는 곧 영화 창작 시기의 시대의 요구였고, 이런 요구에 부합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지지와 독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劉三姐 고사의 변이와 인물의 변용은, 민간에서 流轉해 내려오는 동안 후대들의 기억에 오류가 있었거나 개인의 창작욕구가 반영되었거나, 아니면 와전이 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중국의 '신시기'에 창작된 영화 ≪劉三姐≫에서는 여러 전후 사정을 근거해 볼 때, 시대적 낙인이 무엇보다 뚜렷하다는 점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 ]

, 韓相德譯, ≪ 三姐≫, (진주, 솔봉출판사, 2012)

신춘호, <장이머우식 <印象計劃>의 성공요인과 한국형 <실경산수공연>의 가능성 탐색>, ≪글로벌문학콘텐츠≫, 2010.

羅崗生, ≪劉三姐研究資料集≫, 2007.

百度, http://baike.baidu.com.

林進桃·劉紀新, <時代背景下少數民族題材電影的奇葩-重論電影≪劉三姐≫>, ≪四川戲劇≫, 2009.

鄒華芬, <十七年少數民族題材電影中的身份認同表述>, ≪電影文學≫, 2008.

百度百科, <十七年文学>, http://baike.baidu.com/view/729104.htm.

李寧, <淺析電影歌曲≪蝴蝶泉邊≫>, ≪劇作家≫, 2009.

溫暖, <≪劉三姐≫背後的故事>, ≪文史博覽≫, 2008.

, <電影“ 三姐”的藝術探索>, ≪藝術學苑≫, 2010.
陳學璞, <論劉三姐文化現象>, ≪廣西社會科學≫, 2008.
歐造杰, <劉三姐形象之我見>, ≪河池學院學報≫, 2010.
普列文, <劉三姐傳說的流變>, ≪河池學院學報≫, 2010.

中文提要〉

, 1949-1966年其間內的文學稱爲“十七年文學”. 這時期的中共政府特別强調時代精神和文學藝術的政治服務. 因這種國家主導的政治觀點, 當時文藝從事者大部分主動地或被動地以讚揚、回想、鬪爭的題材來創作作品. 1960年製作的電影≪劉三姐≫也是這種背景之下出現的.

劉三姐故事是廣西壯族的文化遺産, 它具有1,000年以上的歷史, 其內容包含着壯族少數民族的文化和人情. 但是劉三姐故事流轉到現在的過程當中, 故事內容和人物形象有了不少的變異. 其原因可能在後代人的記憶力不足, 創作慾求的反映, 故意變容等等. 但是在蘇里的電影≪劉三姐≫, 變容的最大原因可以說在時代環境和政治的要求.

新中國初期, 在政治環境上的主要話題是對封建階級的覺醒和反抗情神. 時代正在呼喚着不撓不屈的鬪爭人物和作品題材的時候, 劉三姐故事能附合于這種要求.

電影≪劉三姐≫裏面的主人公劉三姐人物形象跟以前比起來, 她的英雄特徵更强調, 鬪爭的程度也更突出. 對封建勢力反抗、鬪爭的劉三姐可以說, 是與其淳朴無識的農村姑娘不如革命戰士. 我們不能否定這就是‘新中國’初期, 時代要求的新中國英雄典範劉三姐. 蘇里的電影≪劉三姐≫是比其他同一題材作品現實意義最多反映的藝術作品.

: 中國映畵, 劉三姐, 十七年文學, 壯族, 實景音樂電影

한중 FTA 효과에 대한 동태적 CGE 분석

The Dynamic CGE Analysis on the Effect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안영철[1)]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II. 이론모형 및 자료
III. 비선형연립방정식 모형의 구성과 분석
 1. 비선형연립방정식 모형의 구성
 2.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정책적 함의
IV. 결론

핵심 단어: 동태적 CGE, 한중 FTA, 관세수입감소, 무역수지효과, 소득효과
Key-words: Dynamic CG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Tariff revenue, Trade Balance, GDP

1)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강사 (주저자) /E-mail: s105752@hanmail.net/ ☎(051) 930-7704/우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4년 한-중 FTA의 체결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한-중 FTA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양 국가가 결정했다.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2] 하지만 2008년 이후 한국과 중국의 FTA에 대한 논의는 관심에서 다소 벗어난 상태가 되었으며 오히려 기존의 연구는 경제통합 혹은 FTA 전반에 대한 연구로 전환되거나 발전되었다.

그와 더불어 1995년 중국의 대외개방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던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2008년을 기점으로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한국의 대중국수입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원화로 표시하여 115조 원을 넘었으며 대중국 수입은 원화로 표시하여 거의 97조 원에 달하였다. 하지만 2009년 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급속히 감소하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다시 100조 원으로 하락하였고 수입은 급감하여 63조원으로 하락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이듬 해 다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아직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2013년 들어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여건은 2008년 이전의 수준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한국의 대중국 교역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되었던 한-중 FTA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과의 FTA를 동시에 실시했을 때 한국의 장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경제에 대한 연산 가능한 동태적 일반균형분석을 통해서 한-중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한국경제를 Dorn Busch의 개방거시경제 모형으로 구성한다. 즉, 한국경제의 일반균형모형을 비선형연립방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국내경제 부문과 해외경제부문으로 나누어서 한 부문의 균형이 달성되면 다른 부문의 균형도 달성되는 모형이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은 양국 간 관세의 하락을 의미하고 따라서 양 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관세의 하락이 수출을 2%, 5% 그리고 8%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무역수지와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장기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한국의 무역수지는 보다 더 증가시키고 소득도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관세의 인하로 인한 한국의 관세수입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효과를 장기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선행연구

중국의 FTA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박종규(2013)과 이재원·한영기(2013)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FTA가 한국경제 및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동향조사이다. 그리고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로는 안영철·이재득·최봉호(2009)의 한·중·일을 포

---

2) 중국의 정상은 2004년 11월 ASEAN+3 회담 중 한-중 FTA의 영향 (산업별 영향, 거시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 7월 원자바오의 방한이후 양국 정상은 한-중 FTA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참조, 이호철, 한중 FTA의 배경과 전망, 정세와 정책 5월호 2007, P. 13

함한 세계 주요국들의 교역패턴과 경제통합 효과분석이 있고 중국 경제에서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정인교・조정란(2008)은 한중 교역관계와 양국간의 FTA의 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하였고 안영철·이도현·김창수(2011)의 위안화 환율변동의 동북아 주요교역대상국 한, 미, 일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의한 논문은 일국의 경제정책이 교역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분석 대상 국가의 경제구조를 정밀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 경제에 대한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거시경제의 구조에 대한 동태적 분석모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개방경제의 교역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 Flores et al.(2003)나 Zuzana Kóistková(2010)의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분석 모형과 선형 또는 비선형 연립방정식 구조 모형을 통해서 CGE 모형이 최적화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는 Shoven and Whalley(1973)의 초기 연구 이후 Annabi, Cissè, Cockburn and Decaluwè(2005)이 무역자유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적 CGE 모형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종화·박순찬(2006)은 유럽연합(EU)의 확대가 제3국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고종환(2005, 2009, 2011)이 한국의 FTA 확산과 더불어 한국의 교역자유화가 한국과 교역상대국들의 산업에 미치는 효과들을 동태적 CGE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이들의 동태적 CGE 모형은 GTAB모델에 근거한 정태적 CGE모델을 확장한 형태이다. 그리고 안영철·김창수(2013)는 위안화 평가절상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선형연립방정식 모형을 만들어 한 국가의 정책이 교역상대국에 미치는 효과를 장기적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모형이 소득과 무역수지에 국한되어 어떤 경제 정책이 교역상대국의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CGE 모형을 구축한 뒤 일국의 정책이 타국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Dornbusch(1980)가 제시하는 소득과 무역수지에 대한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II. 이론모형 및 자료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경제구조를 반영하는 연산 가능한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만들고, 정책변화의 충격을 외생변수의 변화로 인식하여 이러한 정책 변화가 모형 체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하였다. 한·중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자국과 교역상대국의 무역수지와의 소득 관계를 비선형 연립방정식체계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비선형 연립방정식체계를 이용한 동태적 일반균형분석모형의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여기서는 PSIM[3]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한·중 FTA의 효과를 평가할 때, 다음의 두 가지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소득효과이며 다른 하나는 관세인하효과이다. 즉, FTA는 한국과 중국의 교역가격에 대한 변화없이 교역량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관세인하로 인한 한국의 관세수입 감소도 역시 고려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현상의 파악을 통해서 FTA가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

3) PSIM은 공학설계에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제어와 예측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특별히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의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FTA로 인한 효과를 무역수지, 관세수입 그리고 소득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한국 거시경제의 일반균형 모형식을 구성한다. 거시경제모형식을 Dornbusch(1980)의 방식에 따라 아래의 식(1)과 같이 정의한다.

$$
\begin{aligned}
&C(Y)+G(Y)+IM(Y)+EX(Y)-IM(Y)\\
&Y=E(Y,p,G)+TB(Y,Y^*,p)\\
&E=D(Y,p)+M(Y,p)+G\\
&TB=EX(Y^*,e)-IM(Y,e)\\
&EX=P\ \times m^*(Y^*,e)\\
&IM=P_M^*\times m(Y,e)
\end{aligned}
\tag{1}
$$

TB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으로써 무역수지이며 E는 소비지출과 정부지출 그리고 수입수요로 구성된 총지출이다. 총생산과 총지출의 차액은 해당국가의 재고를 의미하며 균형상태에 있는 국가경제에서는 이 재고가 해외에 순 수출됨으로써 어떤 부수적인 재고도 남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TB는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를 의미하고 환율 e는 위안화화에 대한 원화 환율로서, 원화표시 달러환율과 위안화 표시 달러환율의 교차환율(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과 같다. EX는 대중국 수출총액이고 IM은 대중국 수입총액을 의미한다. P_X는 원화로 표시된 대중국 수출재화의 평균 가격으로 $(\overset{n}{\underset{i=1}{}}P_{m\ i})/n$이고 P_M^*는 원화로 표시된 대중국 수입재화의 평균 가격으로 $(\sum_{j=1}^{n}P_{mj}^*)/n$이다.[4] 여기서 P_{m^*i}는 중국의 대한국 수입재에 대한 수출 가격을 의미하고 P_{mj}^*는 한국의 대중국 수입재에 대한 수입 가격을 의미한다. 또한 $m^*(Y^*,e)$와 $m(Y,e)$은 각각 모든 수출재화의 총합 $\sum_{i=1}^{n}m_i^*(Y^*,e)$과 모든 수입재화의 총합 $\sum_{i=1}^{n}m_i(Y,e)$을 의미한다. 한국의 수출총액은 중국의 소득과 위안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함수이며 한국의 수입총액은 한국의 소득과 원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의 함수이다.

위의 식(1)에서 관세수입의 감소는 한·중 FTA가 교역당사국들의 관세수입을 감소시키므로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장기 예측 수입총액에서 예상되는 관세하락을 곱한 값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장·단기의 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성하여 한·중 FTA가 한국의 소득과 무역수지 그리고 관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각 변수들의 추세선을 과거의 자료로부터 구한다.[5]

<표. 1> 기본데이터 (억원)

4) 거래에 대한 결제는 달러로 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는 자국재화에 대한 거래는 자국화폐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5) 추세선을 구함으로써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대 중국 수입 방정식과 소득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을 구하고 다시 중국의 대한국 수입 방정식과 소득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을 구하여 시간에 대한 무역수지 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

	KGDP	KCON	KGOV	KSAV	KINV	CHGDP	EXTOCH	IMFRCH
1980	39109.6	24531.5	4968.3	9503.63	12491.7	2002137	102	169
1981	49305.7	30698.9	6255	11981.28	13679.4	2010435	32	490
1982	56676.8	34731.7	7101	14509.26	15932.2	2106374	47	685
1983	66685.1	39128.7	7947.8	19272	19349.5	2400819	39	552
1984	76523.5	43683.6	8599.1	23645.76	21909.2	2570732	140	1697
1985	85699.1	48423.8	9698.1	26738.12	24184.2	2732914	359	4259
1986	100254.1	53596.5	11072.2	34988.68	27899.2	2563526	1064	5347
1987	117938.2	60014.6	12659.5	45288.27	33859.1	2567052	1672	6861
1988	140524.8	69064.9	12150.5	56772.02	40989.8	2764448	2547	9486
1989	158620.1	80986.8	18245	59641.16	49887.9	3067035	2972	11584
1990	191382.8	96947.8	22526.8	72342.7	69367.5	2796109	4190	16249
1991	231428.2	117044.2	26874.2	87711.3	88013	3113194	7627	26177
1992	263993.2	134957.8	31698.6	97413.5	95092.1	3848969	20921	29367
1993	298761.6	153299.6	35224.6	110243	105814	4955269	41625	31748
1994	349972.6	182579.3	39895.4	127390	124140	4410410	48923	43085
1995	409653.6	214414.5	45715	148294.6	149207.8	5639041	70835	57337
1996	460952.6	245692.1	53292	160411.5	168623.4	7227196	96045	72083
1997	506313.6	271343.3	57977.8	175184.5	175311.2	16146570	230053	171481
1998	501027.2	252110.9	63100.8	183376	146971	12274780	143806	78067
1999	549005	289961.5	66309.2	189955.7	157280.8	12327954	155731	100903
2000	603263	330389.5	72100.9	199067.9	180747.6	15155033	233358	161840
2001	651415.3	364251.4	83010	202590.2	187468.6	17401248	238928	174731
2002	720539	408715.7	90930.3	219764.4	206052.2	17244976	281765	206396
2003	767113.7	420098.6	100057.4	244709.3	225076.3	19570566	418718	261288
2004	826892.7	435060.4	110127.7	281143.5	241474.9	19993992	515099	306233
2005	865240.9	465430.5	120010.1	277742.3	249689.7	22830800	626332	390967
2006	908743.8	494917.6	131900.7	279893.1	260650.9	25224544	645831	451480
2007	975013	530264.1	143262.2	300304	278167.9	32709206	767463	590003
2008	1026452	561627.5	156944.1	313067.8	300794.1	56929400	1151043	968937
2009	1065037	575970.2	170324.7	321641.1	309714	58114373	1009659	631695
2010	1173275	616982.6	178396.1	376621.2	331734.1	67298179	1325876	812217
2011	1235161	655386.6	189551.6	390310.7	340101	84334796	1545543	995527
2012	1272460	680756.6	201475.9	393190	339895	88014026	1438149	864807

* KGDP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KCON은 한국의 소비지출, KGOV는 한국정부의 지출, KSAV는 한국의 저축 그리고 KINV 한국의 투자이다. CHGDP는 중국의 국내총생산이며 EXTOCH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며 IMFRCH는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다. 이 자료는 한국의 동태적 일반균형분석모형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추세선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의 거시적 일반균형을

구성하는 1980년에서 2012년까지 한국의 경제 요인들인 소득, 소비지출, 정부지출 그리고 저축과 투자를 그리고 한·중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써 중국의 소득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총액 및 수입총액을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이 자료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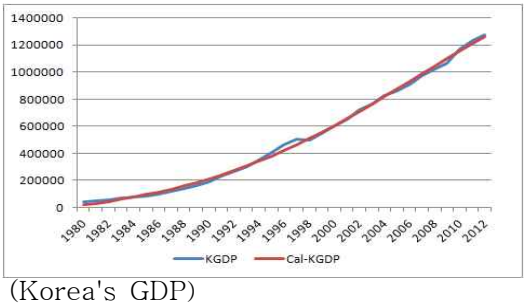
각각의 추세선 방정식은 다음의 <표 2>에 정리되어있다. 이 방정식들은 인위적인 작업은 완전히 배제된 채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GA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되었다. 이렇게 계산된 방정식들의 추정값들을 원데이타들과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EXCEL 프로그램을 통하여 R-squared 값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 모든 추정방정식 모형들은 0.95 이상의 높은 적합도를 보여 주었다. 각각의 변수에 따른 추세선은 다음의 <그림 1>에 그려져 있다. 충분히 검토된 방정식을 통해서 <그림 1>에서 한국경제 동태적 CGE모형과 정책변수 방정식의 추세선을 도출하였다.

<표 2> 한국경제 동태적 CGE의 추세선 방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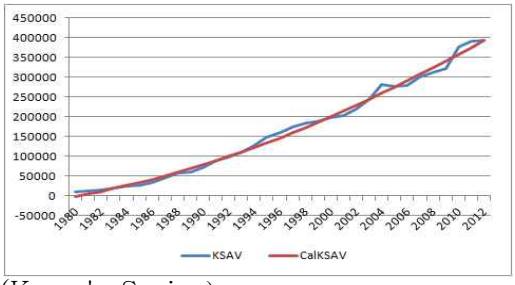
모형	추세선 방정식	적합도
동태적 CGE 모형 변수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	$KGDP \quad \frac{2200000}{1+16.6 \quad e^{0.104 \quad t}} - 107000$	$R^2 = 0.999$
한국의 소비지출 $KCON$	$KCON = \frac{948000}{1+21.6 \quad e^{-0.128 \quad t}} - 26300$	$R^2 = 0.999$
한국의 정부지출 $KGOV$	$KGOV = \frac{411000}{1+43.6 \quad e^{-0.119 \quad t}} - 5740$	$R^2 = 0.999$
한국의 저축 $KSAV$	$KSAV = \frac{1160000}{1+8.99 \quad e^{-0.0611 \quad t}} - 118000$	$R^2 = 0.987$
한국의 투자지출 $KINV$	$KINV = \frac{673000}{1+7.92 \quad e^{-0.081 \quad t}} - 75400$	$R^2 = 0.986$
일본관련 정책변수		
한국의 대중국 수출 $EXTOCH$	$EXTPCH = \frac{2280000}{1+1500 \quad e^{-0.252 \quad t}} + 105$	$R^2 = 0.9848$
한국의 대중국 수입 $IMFRCH$	$IMFRCH = \frac{1060000}{1+7750 \quad e^{-0.34 \quad t}} + 17500$	$R^2 = 0.9553$
원화로 표시된 중국소득 RK	$JGDP = \frac{63900000}{1+6.17 \quad e^{-0.166 \quad t}} - 3450000$	$R^2 = 0.9592$

추세선의 방정식은 로지스틱 성장함수의 형태를 가진다. 다음의 <그림 1>에서 한국의 경제는 안정적이고 완만한 성장곡선을 그린다. 또한 중국의 성장은 아주 급속한 성장 형태를 보여준다. 하지만 대중국 수입과 수출은 2008년 이후부터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대중국 수입은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체상태를 보여준다. 추세선을 통해서 파악되는 중국의 경제는 고도성장기에 들어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대한국 수입인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역시 가파른 성장형태를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그에 비해 성장률이 급속히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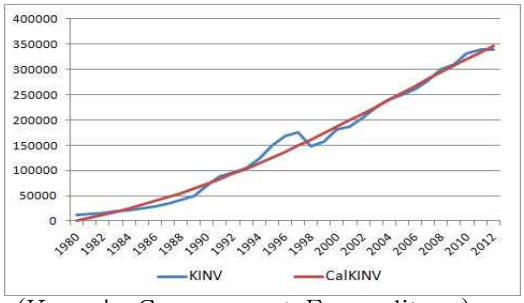
<그림 1> 한국경제와 대일본 교역 변수들의 추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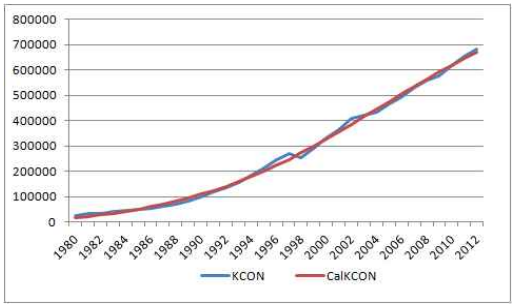
(Korea's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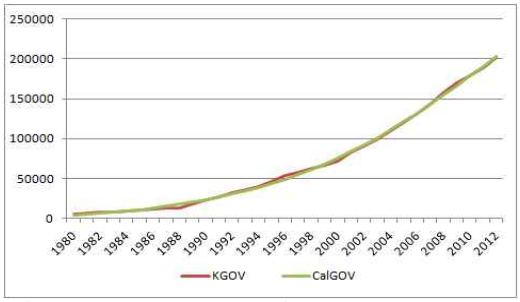
(Korea's Sa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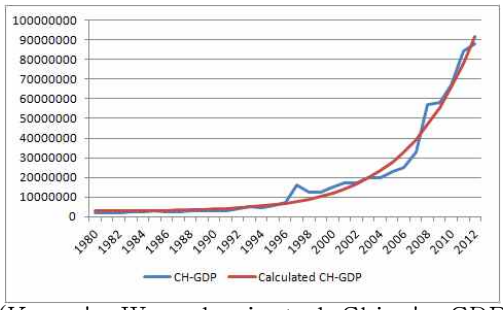
(Korea's Government Expend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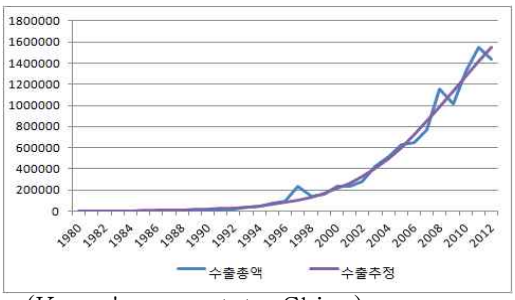
(Korea's Consumption Expend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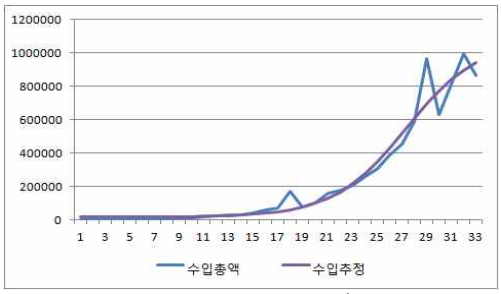
(Korea's Investment)



(Korea's Won dominated China's GDP)



(Korea's export to China)



(Korea's import from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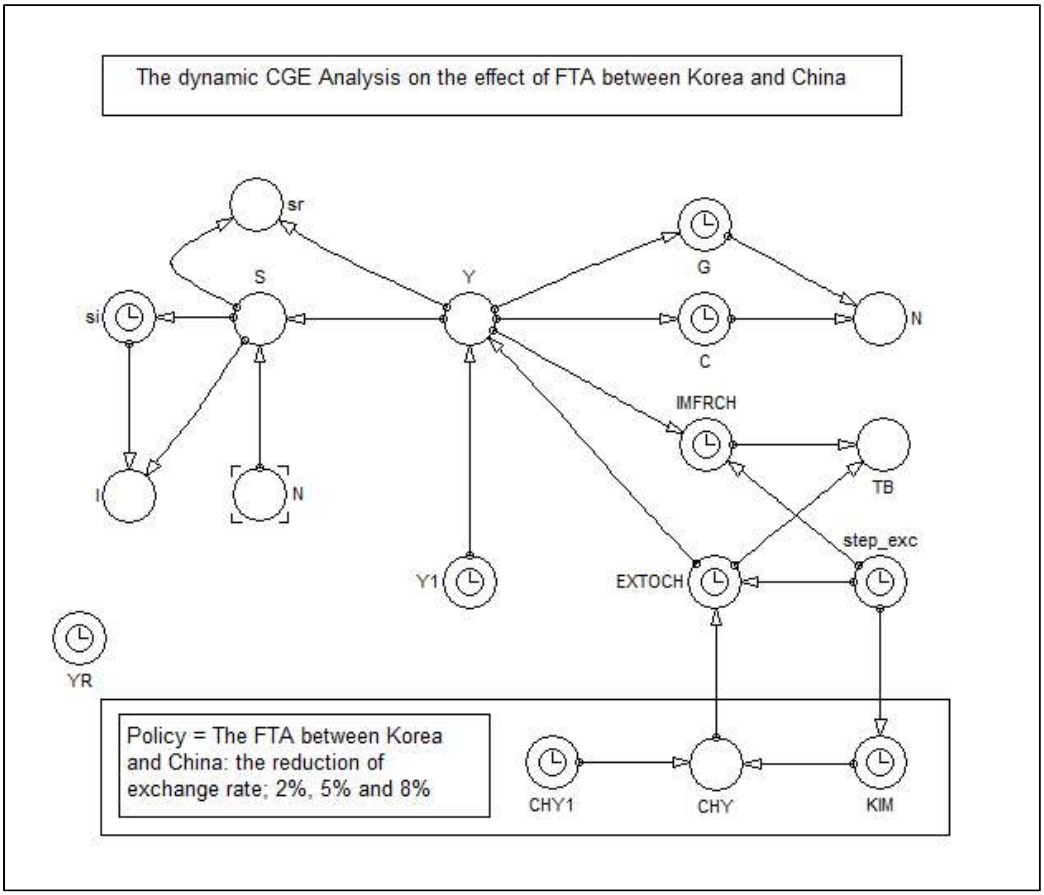
III. 동태적 CGE 방정식 모형의 구성과 분석

1. 동태적 CGE 모형의 구성

<그림 2>에 제시된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관련된 동태적 CGE 모형은 Sim-Power Demo Version으로 작성하였다. <표 3>은 한국 개방경제의 동태적 CGE 모형을 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구조식이다. 이 모형에 적용된 <그림 2>의 한국 경제의 일반균형 방정식들과 한국의 대중국 무역변수들 그리고 중국 소득에 대한 그래프는 EXCEL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한 R-squared 값 0.9 이상을 가지는 로지스틱 성장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선형 그래프이다.

<그림 2>의 시뮬레이션은 로지스틱 성장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추세식들을 구한 다음 그들을 연립방정식으로 연결하여 만들어졌다. 정부부문의 지출과 가계부문의 지출 후에 남은 부분은 저축이며 이렇게 계산된 저축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 저축의 추세선과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역수지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 소득의 함수이며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한국 소득의 함수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2> 한중 FTA에 대한 동태적 CGE 분석 모형



*YR: Year, Y: KGDP, C: KCON, G: KGOV, S1: KSAV, I: KINV, JEX: KEXTOJ, JIM: KIMFRJ, JEXC: KJEXC, N: C +G, DC: C +JIM, si = I/S.
step_exc: 2013년부터 한·중 FTA

<표 3> 한중 FTA의 동태적 CGE 모형의 구조식

Y1+EXTOCH = Y = C+G+I+IMFRCH

Y = Y1+EXTOCH

Y = ((22000000/(1+16.6 EXP(-0.104×TIME)))-1070000)

EXTOCH = (((2280000/(1+1500*EXP(-0.252*TIME)))+105)*CHY/((448000000/(1+2840*EXP(-0.205*TIME)))+2640000))*(1+step_exc)

CHY = CHY1+KIM

CHY1 = ((448000000/(1+2840*EXP(-0.205*TIME)))+2640000)-((1060000/(1+7750*EXP(-0.34*TIME)))+17500)

KIM = ((1060000/(1+7750*EXP(-0.34*TIME)))+17500)*(1+step_exc)

Y = C+G+I+IMFRCH

C = Y×(9480000/(1+21.6×EXP(-0.128×TIME))-263000)/Y

G = Y×((4110000/(1+43.6*EXP(-0.119×TIME)))-57400)/Y

I = si×S1

si = (6730000/(1+7.92*EXP(-0.081*TIME))-754000)/S1

S1 = (Y-N); N = G+C

IMFRCH = (Y*((911000/(1+251000*EXP(-0.486*TIME)))+34300)/((2200000/(1+16.6*EXP(-0.104*TIME)))-107000))*(1+step_exc)

TB = JEX - JIM

* step_exc = STEP(the effect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33)

The effect = 0.0, 0.02, 0.05, 0.08

**Simulation Setup: 0 ~ 45. time step: 1 (시간의 차분 값이 일 년임을 의미한다)

* ST = step(value, 33)는 33번째 시간구간 즉, 2013년부터 외생(정책)변수를 적용하는 명령.

**시간에 따른 적분방정식은 오일러 적분함수.

<그림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FTA에서 중국경제에 직접 영향을 받는 변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변화는 한국 소득에 영향을 미쳐 다시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FTA를 통한 관세의 철폐가 양 협정 국가들의 경제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중 FTA의 효과를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와 소득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한·중 FTA가 양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각각 2%, 5% 그리고 8%의 수출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한·중 FTA의 효과가 관세를 [2%~8%] 정도로 인하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그에 대한 무역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다시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의 증가는 한국 개방경제의 지출의 증가 즉, 수입수요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내소비지출과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저축도 역시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한국 개방경제의 균형을 가정한다면 증가된 저축에 대해서 증가된 무역수지를 뺀 나머지는 한국 경제의 해외부문에 대한 투자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책변수로서 한·중 FTA가 2013년에 전격적으로 실시된다는 전제하에서 STEP변수[6]를 사용하여 1980년에서 2012년까지는 정책의 충격이 없지만 2013년 현재부터 한·중 FTA의 충격이 시뮬레이션에 반영되도록 설계하였다. 한·중 FTA의 효과를 분석하는 범위

6) STEP변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가 정책이 발효되는 특정 시기에 도달했을 때 정책의 크기만큼 모든 변수에 충격(여기서는 퍼센티지 변화)이 전달되도록 하는 변수이다.

는 2025년까지로 정하였다.

<표 4> 한·중 FTA의 동태적 CGE 방정식에 대한 시뮬레이션 추정지표 단위: 억 원

YR	Y	C	G	S	EXTOCH	IMFRCH	TB	CHY
1,980	180,000.00	156,469.0	34,752.47	-11,221.49	1,623.99	34,303.63	-32,679.64	2,797,691.0
1,981	308,416.76	210,885.5	46,104.50	51,426.77	2,058.95	34,305.90	-32,246.95	2,833,554.1
1,982	449,060.40	271,944.4	58,814.50	118,301.45	2,618.33	34,309.59	-31,691.27	2,877,569.2
1,983	602,890.15	340,343.6	73,034.45	189,512.07	3,337.62	34,315.60	-30,977.98	2,931,586.9
1,984	770,897.51	416,823.8	88,930.59	265,143.08	4,262.38	34,325.36	-30,062.98	2,997,877.2
1,985	954,097.60	502,163.0	106,684.1	345,250.44	5,451.08	34,341.22	-28,890.15	3,079,223.5
1,986	1,153,518	597,167.9	126,491.7	429,858.72	6,978.62	34,367.02	-27,388.40	3,179,037.6
1,987	1,370,186	702,661.7	148,565.5	518,959.23	8,940.94	34,408.96	-25,468.02	3,301,501.0
1,988	1,605,112	819,468.9	173,133.4	612,509.37	11,460.67	34,477.13	-23,016.46	3,451,736.4
1,989	1,859,267	948,394.9	200,438.3	710,433.65	14,694.34	34,587.95	-19,893.61	3,636,016.1
1,990	2,133,566	1,090,202	230,737.0	812,626.69	18,841.22	34,768.05	-15,926.83	3,862,016.6
1,991	2,428,838	1,245,581	264,298.8	918,958.31	24,154.31	35,060.71	-10,906.40	4,139,125.6
1,992	2,745,800	1,415,116	301,402.9	1,029,281	30,953.49	35,536.12	-4,582.63	4,478,814.3
1,993	3,085,028	1,599,253	342,334.9	1,143,439	39,641.24	36,307.98	3,333.26	4,895,084.7
1,994	3,446,922	1,798,258	387,382.7	1,261,282	50,720.63	37,560.07	13,160.55	5,405,006.2
1,995	3,831,678	2,012,176	436,830.9	1,382,671	64,815.15	39,588.38	25,226.77	6,029,354.9
1,996	4,239,256	2,240,803	490,953.9	1,507,499	82,689.08	42,866.73	39,822.35	6,793,368.7
1,997	4,669,348	2,483,645	550,008.3	1,635,694	105,265.70	48,146.31	57,119.39	7,727,632.5
1,998	5,121,356	2,739,902	614,223.3	1,767,231	133,639.19	56,599.23	77,039.96	8,869,101.4
1,999	5,594,374	3,008,452	683,790.4	1,902,131	169,073.39	70,007.13	99,066.26	10,262,265
2,000	6,087,168	3,287,851	758,852.7	2,040,464	212,977.78	90,962.79	122,014.99	11,960,440
2,001	6,598,181	3,576,357	839,493.0	2,182,332	266,848.72	122,970.96	143,877.76	14,027,172
2,002	7,125,534	3,871,955	925,722.0	2,327,857	332,162.62	170,184.33	161,978.29	16,537,667
2,003	7,667,045	4,172,417	1,017,468	2,477,160	410,211.33	236,359.68	173,851.64	19,580,167
2,004	8,220,257	4,475,357	1,114,567	2,630,333	501,879.51	322,768.52	179,110.99	23,257,103
2,005	8,782,475	4,778,310	1,216,755	2,787,411	607,383.20	425,727.01	181,656.19	27,685,763
2,006	9,350,821	5,078,811	1,323,664	2,948,345	726,014.51	535,828.20	190,186.32	32,998,147
2,007	9,922,285	5,374,475	1,434,824	3,112,986	855,962.97	640,750.97	215,212.00	39,339,555
2,008	10,493,791	5,663,069	1,549,662	3,281,060	994,292.44	730,313.17	263,979.27	46,865,328
2,009	11,062,261	5,942,577	1,667,515	3,452,169	1,137,129.4	799,853.62	337,275.76	55,735,147
2,010	11,624,683	6,211,252	1,787,639	3,625,792	1,280,059.8	849,980.79	430,079.03	66,104,287
2,011	12,178,174	6,467,649	1,909,231	3,801,294	1,418,658.3	884,210.54	534,447.74	78,111,444
2,012	12,720,034	6,710,642	2,031,446	3,977,946	1,549,019.7	906,729.41	642,290.28	91,863,203
2,013	13,247,799	6,939,425	2,153,422	4,154,952	1,668,163.8	921,182.90	746,980.89	107,415,938
2,014	13,759,279	7,153,505	2,274,303	4,331,471	1,774,232.6	930,313.30	843,919.30	124,756,955
2,015	14,252,587	7,352,671	2,393,265	4,506,651	1,866,475.3	936,023.21	930,452.07	143,787,732
2,016	14,726,155	7,536,968	2,509,536	4,679,651	1,945,074.4	939,571.56	1,005,503	164,312,939
2,017	15,178,744	7,706,660	2,622,414	4,849,670	2,010,892.2	941,767.99	1,069,124	186,038,956
2,018	15,609,436	7,862,189	2,731,285	5,015,962	2,065,208.6	943,124.28	1,122,084	208,584,610
2,019	16,017,626	8,004,139	2,835,632	5,177,855	2,109,495.9	943,960.52	1,165,535	231,504,590
2,020	16,403,000	8,133,201	2,935,041	5,334,758	2,145,252.2	944,475.65	1,200,777	254,323,111
2,021	16,765,509	8,250,135	3,029,202	5,486,172	2,173,892.0	944,792.78	1,229,099	276,572,723
2,022	17,105,344	8,355,747	3,117,908	5,631,689	2,196,685.9	944,987.95	1,251,698	297,831,689
2,023	17,422,900	8,450,861	3,201,046	5,770,993	2,214,735.2	945,108.04	1,269,627	317,753,795
2,024	17,718,748	8,536,301	3,278,592	5,903,856	2,228,970.1	945,181.92	1,283,788	336,086,517
2,025	17,993,602	8,612,873	3,350,597	6,030,132	2,240,161.1	945,227.37	1,294,934	352,676,362

*YR: Year, Y: KGDP, C: KCON, G: KGOV, S: KSAV, KIM: IMFRCH without FTA, CHY: CHGDP

이 시뮬레이션에 의해 도출되는 국민소득과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추정지표들은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는 한국경제의 동태적 일반균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추정지표와 한국의 대중국 국제교역과 관련된 변수들의 추정지표이다.

2.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한·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한국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이므로 한·중 FTA가 한국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한·중 FTA를 통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증가가 한국 수출재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 증가도 역시 동시에 고려된다. 이때 한국의 수입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관세수입도 역시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 감소도 역시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한국의 관세가 [2%~8%]까지 감소한다면 한·중 FTA를 통한 한국의 대중국 관세수입의 감소는 한국 예상 대중국 수입총액의 [2%~8%]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한·중 FTA는 보다 복잡한 상황에서의 평가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한·중 FTA의 결과로 발생하는 생산의 증가를 살펴보고 한중 FTA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입의 증가를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 FTA를 통하여 발생하는 관세수입의 감소를 다루고 그 결과를 한·중 FTA의 긍정적인 효과와 비교함으로써 한·중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본다.

<표 5> 한·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YR	EXTOCH(0%)	EXTOCH(2%)	EXTOCH(5%)	EXTOCH(8%)
2,010	1,280,059.83	1,280,059.83	1,280,059.83	1,280,059.83
2,011	1,418,658.28	1,418,658.28	1,418,658.28	1,418,658.28
2,012	1,549,019.69	1,549,019.69	1,549,019.69	1,549,019.69
2,013	1,668,163.79	1,701,836.83	1,752,369.16	1,802,928.83
2,014	1,774,232.60	1,810,008.68	1,863,694.23	1,917,405.50
2,015	1,866,475.28	1,904,076.08	1,960,497.23	2,016,942.32
2,016	1,945,074.39	1,984,226.84	2,042,973.96	2,101,743.23
2,017	2,010,892.25	2,051,341.61	2,112,032.69	2,172,744.19
2,018	2,065,208.60	2,106,726.42	2,169,018.86	2,231,330.15
2,019	2,109,495.91	2,151,883.50	2,215,479.41	2,279,092.76
2,020	2,145,252.20	2,188,340.92	2,252,987.50	2,317,650.29
2,021	2,173,892.00	2,217,541.46	2,283,028.27	2,348,530.22
2,022	2,196,685.87	2,240,780.94	2,306,935.40	2,373,104.10
2,023	2,214,735.15	2,259,182.54	2,325,864.85	2,392,560.64
2,024	2,228,970.05	2,273,694.88	2,340,792.82	2,407,903.59
2,025	2,240,161.08	2,285,103.68	2,352,527.83	2,419,964.28

<표 5>는 한·중 FTA의 효과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동태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한·중 FTA는 한국의 수출을 증가시킨다. FTA는 수출재의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으면서 단지 관세만 없애는 효과가 있으므로 FTA의 효과 그 자체가 수출의 증대로 인한 효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경제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국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중 FTA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작성된 시뮬레이션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012년 약 155조 원에서 2015년 186조 원을 넘고 2025년에는 2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한·중 FTA가 실시되고 그 효과가 2%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서 2015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0조 원을 넘기고 2025년에는 229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 효과가 커서 8%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에는 201.6조 원에 달할 것이고 2025년에는 242조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25년 한·중 FTA가 없는 경우 예상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총액에 8%의 한·중 FTA의 효과를 더한 값과 같다.

다음의 <표 6>에서 한·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한·중 FTA가 없을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2012년 90.7조 원에서 2015년 93.6조 원으로 증가하고 2025년 94.5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FTA가 미미하게 작용하는 2%의 효과를 가정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2015년 95.7조 원에서 2025년 96.6조원으로 그 증가의 폭은 약 2조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중 FTA의 효과가 크다고 가정하고 8%의 효과를 가정하면 한국이 대중국 수입은 2015년 101.5조 원에서 2025년 103조 원으로 상승하여 2015년 7조 원 증가하고 2025년 8.5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중 FTA의 대중국 수입의 증가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한·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 미치는 효과

YR	IMFRCH (0%)	IMFRCH (2%)	IMFRCH (5%)	IMFRCH (8%)
2,010	849,980.79	849,980.79	849,980.79	849,980.79
2,011	884,210.54	884,210.54	884,210.54	884,210.54
2,012	906,729.41	906,729.41	906,729.41	906,729.41
2,013	921,182.90	941,994.83	973,390.01	1,004,998.06
2,014	930,313.30	951,386.89	983,180.22	1,015,193.22
2,015	936,023.21	957,262.45	989,307.90	1,021,577.37
2,016	939,571.56	960,910.99	993,108.73	1,025,532.89
2,017	941,767.99	963,163.23	995,445.43	1,027,954.94
2,018	943,124.28	964,545.45	996,866.33	1,029,414.28
2,019	943,960.52	965,387.70	997,716.73	1,030,271.73
2,020	944,475.65	965,895.80	998,212.93	1,030,754.41
2,021	944,792.78	966,197.62	998,490.12	1,031,004.97
2,022	944,987.95	966,372.47	998,632.64	1,031,112.95
2,023	945,108.04	966,469.48	998,693.10	1,031,134.55
2,024	945,181.92	966,519.06	998,704.30	1,031,105.03
2,025	945,227.37	966,540.03	998,686.65	1,031,046.48

이러한 총체적인 결과를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를 통해서 살펴보면 <표 7>에서 나타난 한·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한·중 FTA의 효과를 그대로 흡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 증가율은 확연히 줄어들어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12년 64.2조 원에서 2015년 93조 원으로 그리고 2025년 129.5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한·중 FTA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즉, 한·중 FTA의 효과를 2%로 예상하는 경우,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15년 94.7조 원에서 2025년 131.8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의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는 약 1.8%에 달한다. 그리고 한·중 FTA의 효과가 커서 8%로 가정하는 경우,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15년 99.5조 원에서 2025년 138.9조

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의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는 7.26%에 달한다.

<표. 7> 한·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

YR	TB (0%)	TB (2%)	TB (5%)	TB (8%)
2,010	430,079.03	430,079.03	430,079.03	430,079.03
2,011	534,447.74	534,447.74	534,447.74	534,447.74
2,012	642,290.28	642,290.28	642,290.28	642,290.28
2,013	746,980.89	759,842.00	778,979.16	797,930.77
2,014	843,919.30	858,621.79	880,514.01	902,212.28
2,015	930,452.07	946,813.63	971,189.33	995,364.96
2,016	1,005,502.83	1,023,315.84	1,049,865.23	1,076,210.34
2,017	1,069,124.25	1,088,178.38	1,116,587.25	1,144,789.25
2,018	1,122,084.32	1,142,180.97	1,172,152.52	1,201,915.87
2,019	1,165,535.39	1,186,495.79	1,217,762.68	1,248,821.03
2,020	1,200,776.55	1,222,445.11	1,254,774.57	1,286,895.88
2,021	1,229,099.23	1,251,343.84	1,284,538.15	1,317,525.25
2,022	1,251,697.92	1,274,408.47	1,308,302.76	1,341,991.16
2,023	1,269,627.12	1,292,713.07	1,327,171.75	1,361,426.09
2,024	1,283,788.13	1,307,175.82	1,342,088.52	1,376,798.56
2,025	1,294,933.71	1,318,563.65	1,353,841.18	1,388,917.80

이러한 결과를 다음의 <표 8>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표 8> 한국의 대중국 수입과 수출 그리고 무역수지에 대한 한·중 FTA의 효과

	EXTOCH (조 원) (%)				IMFRCH (조 원) (%)				TB (조 원) (%)			
	0%	2%	5%	8%	0%	2%	5%	8%	0%	2%	5%	8%
2015	187	190	196	202	93.6	95.7	98.9	102	93	94.7	97.1	99.5
		2.03	5.03	8.09		2.24	5.7	9.19		1.83	4.41	7
2020	215	219	225	232	94.4	96.6	99.8	103	120	122	125	129
		2.0	5.03	8.06		2.33	5.72	9.11		1.74	4.5	7.16
2025	224	228	235	242	94.5	96.7	99.9	103	129	132	135	139
		2.0	5.0	8.04		2.32	5.71	9.1		1.85	4.56	7.26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증가는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 증가에 비해서 그 증가폭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한·중 FTA의 효과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에 각각 2%, 5% 그리고 8%씩 작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인 변화는 모두 제시된 효과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에 있어서 한·중 FTA의 효과는 모든 경우에 1.8% 수준에서 약 7.1% 수준의 상승 효과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효과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효과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제 한·중 FTA가 한국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와 중국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생산국민소득은 한국의 국내 생산소득과 수출생산 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한국의 생산국민소득을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한·중 FTA가 한국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의 <표 9>에 정리하였다.

<표 9> 한·중 FTA가 한국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

YR	Y (0%)	Y (2%)	Y (5%)	Y (8%)
2,010	11,624,683.1	11,624,683.1	11,624,683.1	11,624,683.1
2,011	12,178,173.7	12,178,173.7	12,178,173.7	12,178,173.7
2,012	12,720,033.6	12,720,033.6	12,720,033.6	12,720,033.6
2,013	13,247,798.8	13,281,471.8	13,332,004.1	13,382,563.8
2,014	13,759,278.9	13,795,055.0	13,848,740.5	13,902,451.8
2,015	14,252,586.7	14,290,187.5	14,346,608.6	14,403,053.7
2,016	14,726,155.0	14,765,307.5	14,824,054.6	14,882,823.9
2,017	15,178,743.8	15,219,193.2	15,279,884.3	15,340,595.8
2,018	15,609,436.1	15,650,954.0	15,713,246.4	15,775,557.7
2,019	16,017,626.2	16,060,013.8	16,123,609.7	16,187,223.1
2,020	16,402,999.8	16,446,088.5	16,510,735.1	16,575,397.9
2,021	16,765,509.0	16,809,158.5	16,874,645.3	16,940,147.2
2,022	17,105,343.6	17,149,438.7	17,215,593.2	17,281,761.9
2,023	17,422,899.7	17,467,347.1	17,534,029.5	17,600,725.2
2,024	17,718,748.0	17,763,472.9	17,830,570.8	17,897,681.6
2,025	17,993,602.3	18,038,544.9	18,105,969.0	18,173,405.5

한국의 생산국민소득은 한국 국내생산과 수출생산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는 한국의 생산국민소득증가를 가져온다. 한·중 FTA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한국의 소득은 2012년 1272조 원에서 2015년 1425조원을 넘긴 뒤 2025년 179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중 FTA가 2013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한·중 FTA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가정할 때 즉,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가 2%에 불과하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소득은 2015년 1429조에서 2025년 1804조 가량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약 5조 원 정도의 소득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 FTA의 효과가 크다고 가정하고 8%의 효과가 추정할 경우 한국의 소득은 2015년 1440조 원에서 1817조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5년에는 약 11조 원 정도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며 2025년에는 18조 원 정도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이로써 한·중 FTA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한국의 생산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0>은 중국의 생산국민소득을 나타낸다. 중국의 국민소득도 역시 중국의 국내생산과 수출생산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한국과의 교역이 중국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 대중국 수입 즉, 중국의 대한국 수출을 포함하는 중국의 생산국민소득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2012년 중국의 소득은 9186조 원에서 한·중 FTA가 없는 경우 2015년 14378조 원으로 증가하고 2025년 35267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에 비해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2% 한·중 FTA의 효과를 가정하는 경우 중국의 경제는 2015년 14381조 원으로 증가하고 2025년 35270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표 10> 한·중 FTA가 중국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

YR	Y (0%)	Y (2%)	Y (5%)	Y (8%)
2,010	66,104,286.8	66,104,286.8	66,104,286.8	66,104,286.8
2,011	78,111,444.3	78,111,444.3	78,111,444.3	78,111,444.3
2,012	91,863,203.0	91,863,203.0	91,863,203.0	91,863,203.0
2,013	107,415,938	107,435,493	107,464,825	107,494,158
2,014	124,756,955	124,777,045	124,807,181	124,837,316
2,015	143,787,732	143,808,222	143,838,958	143,869,693
2,016	164,312,939	164,333,723	164,364,900	164,396,077
2,017	186,038,956	186,059,955	186,091,455	186,122,954
2,018	208,584,610	208,605,766	208,637,498	208,669,231
2,019	231,504,590	231,525,857	231,557,759	231,589,660
2,020	254,323,111	254,344,459	254,376,482	254,408,504
2,021	276,572,723	276,594,129	276,626,238	276,658,347
2,022	297,831,689	297,853,136	297,885,307	297,917,478
2,023	317,753,795	317,775,272	317,807,487	317,839,702
2,024	336,086,517	336,108,015	336,140,262	336,172,508
2,025	352,676,362	352,697,875	352,730,144	352,762,413

그리고 8%의 한·중 FTA 효과를 가정하는 경우 중국의 경제는 2015년 14387조 원으로 증가하고 2025년 35276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중국소득의 증가는 단지 2015년 3조 원 그리고 2025년 9조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를 다음의 <표 11>에서 정리하였다.

<표 11> 한국의 소득과 중국의 소득에 대한 한·중 FTA의 효과

	Y (조 원) (%)				CHY (조 원) (%)			
	0%	2%	5%	8%	0%	2%	5%	8%
2015	1425	1429	1435	1440	14378	14381	14384	14387
		0.23	0.7	1.05		0.0014	0.0045	0.0056
2020	1640	1645	1651	1657	25432	25434	25438	25441
		0.3	0.67	1.03		0.0012	0.0024	0.0035
2025	1799	1809	1811	1817	35268	35270	35273	35276
		0.28	0.67	1.0		0.0006	0.0014	0.0023

<표 11>이 보여주는 한·중 FTA의 효과는 한국의 소득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시키지만 중국의 소득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월등히 큰 영향도 있지만 소득의 증가액을 살펴볼 때 8%의 한·중 FTA 효과를 감안할 때 한국의 경우 2015년 15조 원 2025년 18조 원의 증가를 보이지만 중국의 경우 2015년 9조 원과 2025년 8조 원의 증가를 보인다. 이와 같이 한·중 FTA의 효과는 중국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로 인한 한국의 관세 수입의 감소를 살펴보면 한국의 관세수입은

<표 12> 한·중 FTA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관세수입의 변화와 순 잉여

	관세수입의 감소 (조 원)				소득의 증가				순 잉여		
		2%	5%	8%		2%	5%	8%	2%	5%	8%
2015	93.6	1.87	4.68	7.49	1425	3.8	9.4	15.1	1.93	4.72	7.61
2020	94.4	1.89	4.72	7.55	1640	4.3	10.8	17.2	2.41	6.08	9.65
2025	94.5	1.89	4.73	7.56	1799	4.5	11.2	17.9	2.61	6.47	10.34

한·중 FTA로 인한 한국의 소득변화와 관세수입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한국의 한·중 FTA로 인한 순 잉여의 증감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한·중 FTA는 한국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순 잉여가 2%의 한·중 FTA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2015년에 1조 9천3백억 원에서 2025년 2조 6천1백억 원으로 증가한다. 8%의 한·중 FTA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2015년에는 7조 6천억원에서 2025년에는 10조 원으로까지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한 국가경제의 정책이 타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환율의 변화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비선형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해 한 국가의 동태적 개방 CGE 모형을 구축한 다음 한 시점의 정책변화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교역상대국의 정책이 교역당사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다. 회귀분석 방법은 정책의 단기적 효과의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강점을 가지지만 외생적 정책변화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한·중 FTA 정책이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수지와 소득의 관점에서 파악하였으며 더 나아가 관세인하로 인한 한국의 관세수입의 감소를 소득의 증가와 비교하여 실질 소득의 증가효과 즉 순 잉여의 증가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로 한·중 FTA는 한국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지만 중국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국경제와 소국경제의 특징으로써 소득의 증가비율은 무척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 2008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임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이 시뮬레이션에 반영되면서 비록 한·중 FTA의 효과가 한국의 대중국 수입 즉, 중국의 대한국 수출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시너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의 개선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한·중 FTA의 효과에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순 잉여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 후생효과가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중 FTA로 인한 한국 생산국민소득의 증가가 큰 폭으로 나타나 한국의 대중국 수입으로 인한 관세수입의 감소효과를 크게 넘어서는 이익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동태적 CGE 분석 모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구조는 비선형연립방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정책의 변화가 모든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본 연구는 소득의 연간 증가를 반영하여 내생적 소득증가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

의 연구가 좀 더 진행된다면 동태적 개방거시경제의 일반균형 모형이 보다 현실적인 모형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중 FTA를 한·미 FTA 그리고 한·유 FTA와 결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면 각각의 FTA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TA의 상품별 교역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출과 수입 부문을 보다 세분화하여 상품별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면 FTA 정책이 한 국가의 수출과 수입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강점이 있는 상품과 그렇지 못한 상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그래프는 부록에 실어 두었다.

참고 문헌

고종환(2005), “What Would a China Japan Korea FTA Bring to Us? A Study on Its Economic Impact using a Dynamic CGE Model”,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pp. 11-34.

고종환(2009), “International Commerce ; A Study on Economic Effects of Liberalization of Services Industry in a Korea-U.S. FTA: A Dynamic CGE Model”,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pp. 695-728.

고종환(2011), “WTO 비농산물협상이 전세계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3호, pp. 95-126.

박헌영(2001), “실질원-달러환율, 교역조건 그리고 경상수지 간의 Granger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경제연구』, 제VIII권 제 2호: 1-23.

안영철・김창수 (2013), “위안화 평가절상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선형 연립방정식 모형 분석,“ 무역학회지, 제38권, 제2호 pp. 369-389.

이재득・안영철・최봉호 (2009), “한・중・일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의 교역패턴과 경제통합 효과분석,”『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제21권, 제2호, pp. 63-94

이재원과 한영기 (2013), 아베내각 경제정책의 효과 및 과제,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이종화・박순찬(2006),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EU Enlargement on the 3rd country: The case of Korea”, 『유럽연구』, 제24호, pp. 211-227.

정인교・조정란(2008), “한중 교역관계 전개와 양국간 FTA의 산업별 영향 분석,”『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pp. 349-374.

Annabi, N., Cissè, F., Cockburn, J., and Decaluwè, B.(2005), “Trade Liberalisation, Growth and Poverty in Senegal: a Dynamic Microsimulation CGE Model Analysis,” Centre interuniversitarie sur le risque, *les politiques èconomiques et l'emploi*, Working paper 05-12, pp. 1-30.

Cenedese, G. and Stolper T.(2012), “Currency Fair Value Models,” in *Handbook of Exchange Rate*, ed. By J. James, I.W. Marsh, and L. Samo, Wiley, pp. 313-342.

Devereux, Michael B. and Hans Genberg(2007), “Currency appreciation and current account adju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Vol. 26, Issue 4, June 2007, pp. 570-586.

Dornbusch, R.(1980), “Open Economy Macro-economics,” Basic Books.

Flores, C., Failler. P. and Bernard, P.,(2003), “Development of a simple CGE model to fisheries,” XVth Annual EAFE Conference, Brest.

Hicks, J. R.(1950),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he Trade Cycl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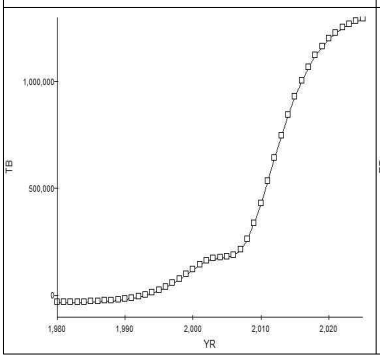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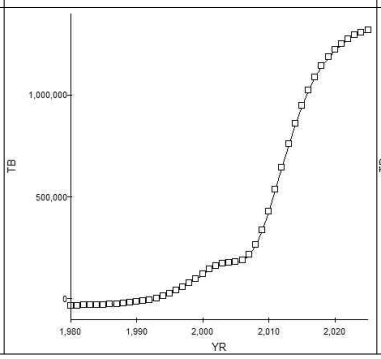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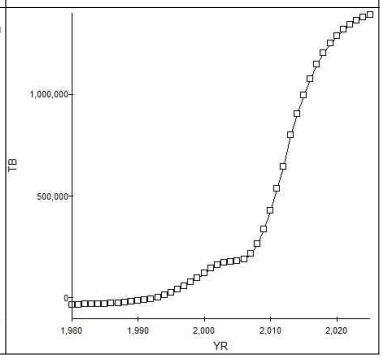
Hong, Q.(2007), "Exchange rates and trade balances under the dollar standard," *Journal of Policy Modeling, Vol. 29, Issue 5,* pp. 765-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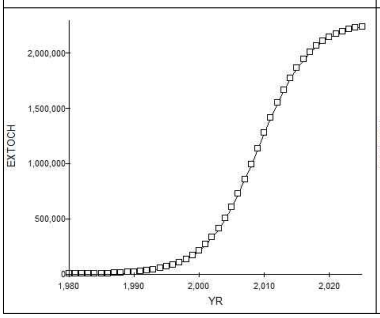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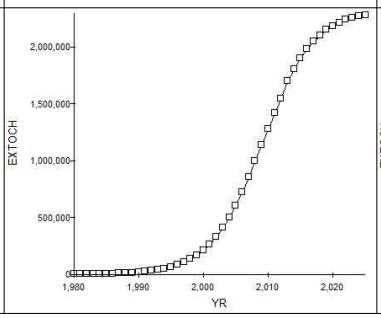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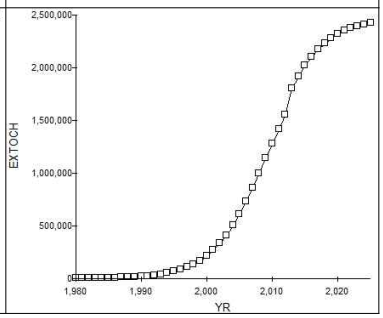
Radulescu, D. and Stimmelmayr, M.(2010), "The impact of the 2008 German corporate tax reform: A dynamic CGE analysis" *Economic Modelling*, Vol. 27. pp. 454-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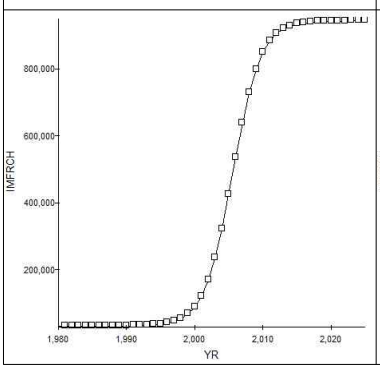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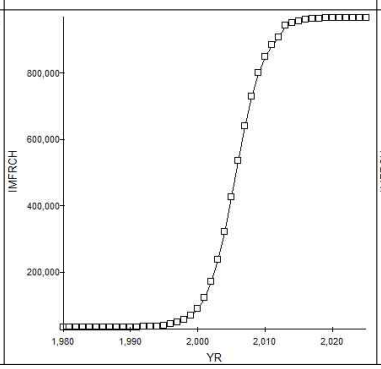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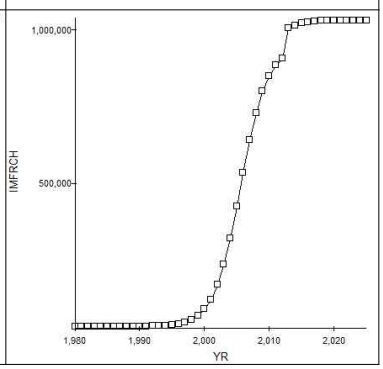
Shoven, J. B. and Whalley, J.(1973), "General equilibrium with taxes: a computational procedure and an existence proof,"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40 Issue 4, pp. 475 - 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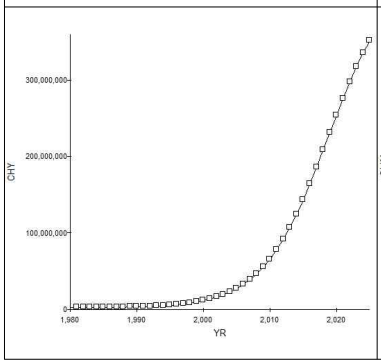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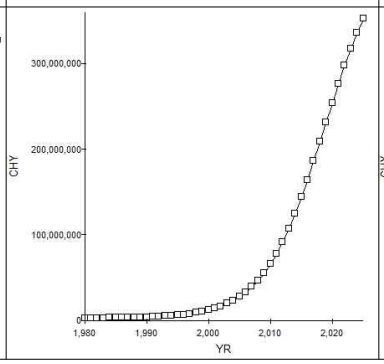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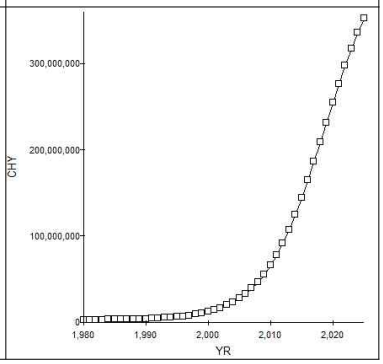
Køístková, Z.(2010), "Approaches to the Dynamization of the CGE Model Applied to the Czech Republic", *Emerging Markets Finance & Trade*, Vol. 46. pp. 5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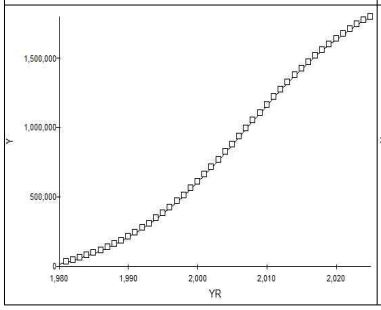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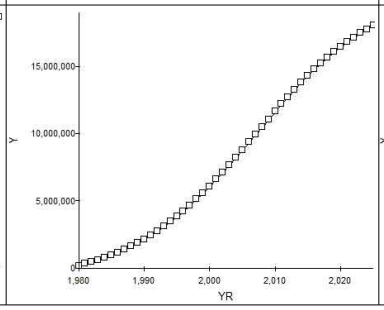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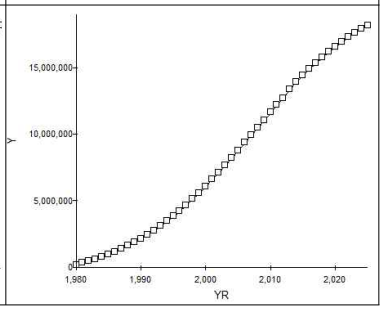
<부록> 한·중 FTA 효과에 대한 그래프

한·중 FTA 효과 0%	한·중 FTA 효과 2%	한·중 FTA 효과 8%
		

한·중 FTA 효과 0%	한·중 FTA 효과 2%	한·중 FTA 효과 8%
		

한·중 FTA 효과 0%	한·중 FTA 효과 2%	한·중 FTA 효과 8%
		

한·중 FTA 효과 0%	한·중 FTA 효과 2%	한·중 FTA 효과 8%
		

한·중 FTA 효과 0%	한·중 FTA 효과 2%	한·중 FTA 효과 8%
		

중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절사유에 관한 연구*
-공서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신지연**, 이정표***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외국중재판정의 의의 및 법적 근거
Ⅲ. 공서위반을 이유로 한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 사례분석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선임된 제3자가 판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그 판정에 구속되기로 합의하는 분쟁해결제도로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하고 법원의 재판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국제무역영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1] 그러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중재판정을 판정을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다른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에는 여러 문제가 수반된다. 중재가 국제무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에서의 중재판정집행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중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보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중요성에 착안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적 보장을 위해 1958년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으로 약칭)」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지 50년 이상이 된 조약이지만 현재까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통일적이고도 유일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게 제1의 수출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수출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2] 이렇게 상호 수출입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까닭에 양국간의 분쟁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그 분쟁을 효율적이고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상사중재의 이용빈도도 증가하고 있다.[3] 그러나

* 본 논문은 2013년 대한중국학회 추계학술대회의 발표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직 미완성의 원고이므로 최종본이 나올 때까지 인용을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1) 중재는 중재판정 자체만으로는 국가의 사법권(司法權)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해결방식이지만, 중재판정의 집행이나 취소를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국가의 사법권이 아예 배제되지는 않는다(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pp. 5-7).
2) 2012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참조.
3) 대한상사중재원의 클레임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중재건수는 2008년 10건, 2009년 14건, 2010년 8건, 2011년 13건으로 클레임 다발 국가 중 매년 1위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이후의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claim/1000?cl_clsf=1&sNum=3&dNum=0&pageNum=5&subNum=4> 참조.

중국은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므로 대다수의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는 정치·경제적으로 다른 점이 많다. 그 특징 중 하나로 국가의 강력한 통제력이다. 이러한 통제력은 중국의 경제 관련 정책에서 특히 잘 나타나는데, 중국내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중국이 아닌 외국과 관련되어 있는 외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중국내에서 승인·집행할 때에도 이와 같은 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중재판정부가 집행지의 법규까지 고려하면서 중재판정을 내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법원에 승인·집행이 신청된 외국중재판정 중 공서위반의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절사유 가운데 공서위반에만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다른 거절사유에 비해 공서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어 지금까지의 사례를 종합해서 중국법원이 공서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 기준 및 흐름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내 법규위반과 공서위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국에서 확립되어 가고 있는 공서의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4]

Ⅱ. 외국중재판정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 외국중재판정의 의의

(1) 개관

중재판정은 한 국가의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패소한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존하여 집행을 하게 된다. 강제집행을 하기에 앞서 집행대상인 중재판정의 국적을 판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중재판정이 내국판정(domestic award)인지 외국판정(foreign award)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중재에 관한 국제조약인 「뉴욕협약」이 적용되느냐 여부에 있다. 전자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되고 후자에 대해서만 「뉴욕협약」이 적용된다.

중재판정의 국적결정에 관해서는 중재지법설과 준거법설이 대립되어 왔다. 중재지법설은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중재판정의 국적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준거법설은 중재계약 내지 중재의 절차준거법을 기준으로 중재판정의 국적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5] 본 논문은 외국중재판정에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뉴욕협약」이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지법설과 준거법설 중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고 아울러 중국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의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의미

「뉴욕협약」 제1조 제1항은 「뉴욕협약」의 직접 적용대상인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이 협약은

4) 이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선정, "중국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사유인 공서와 법의 지배",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 정용균, "중국에서의 상사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동향과 제도개선 연구: 외국투자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0; 소효령, "중국법원에서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인하대학교, 2013 등 참고.
5) 오석웅,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중재지의 의미",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2008, p. 13.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뉴욕협약」의 적용범위는 승인과 집행의 신청을 받은 국가 이외의 영토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즉 외국중재판정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중재지법설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2차적으로 승인과 집행의 신청을 받은 국가의 법에 따라 내국판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중재판정(이하 "비(非)내국판정"으로 약칭), 즉 준거법설의 입장에서 결정된다.[6] 따라서 「뉴욕협약」은 중재판정의 국적결정에 관하여 중재지법설과 준거법설을 절충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재판정이 내려진 장소기준은 명확히 확정지을 수 있지만, 비내국판정은 「뉴욕협약」의 조문만 보았을 때에는 그 의미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비내국판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장소와 그 판정을 집행하는 장소가 일치하지만, 중재판정의 집행지국이 국내법에 근거하여 해당 중재판정을 내국판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비내국판정을 인정함으로서 「뉴욕협약」의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7] 비내국판정은 승인과 집행의 신청을 받은 체약국이 특정 중재판정을 내국판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주어야만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결국 체약국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중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의미

중국은 중재제도를 국내중재와 섭외중재,[8] 외국중재로 구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섭외중재는 중국 「중재법」의 적용을 받고[9] 외국중재는 그 승인과 집행에 관해서 관여된 국가가 모두 「뉴욕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만 「뉴욕협약」이 적용된다.

외국중재판정의 중재지를 어느 국가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현재 중국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중국의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规则, 이하 "중국중재규칙"으로 약칭)」[10] 제7조에 중재지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제

6) 그러나 동 협약 제3조가 상호주의유보와 상사유보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이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뉴욕협약」 제3조 : 어떠한 국가든지 이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 또는 이 제10조에 의하여 확대 적용을 통고할 때에 상호주의의 기초에서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국가든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이러한 선언을 행하는 국가의 국내법상 상사상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7)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최초의 다자조약인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27년)」은 체약국의 국민간에 체약국에서 행해진 외국중재판정의 효력만을 승인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협약」과 비교하여 「뉴욕협약」은 그 적용범위가 더 넓다(서철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 한국법원에서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3권 1호, 1996, p. 115).

8)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는 섭외적 요소의 포함 여부로 구분된다. 섭외적 요소란 ①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이거나 ②당사자 간의 민사법률관계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법률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하였거나 ③소송 목적물이 외국에 있는 민사사건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 제304조 참조). 섭외중재에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가 담당하는 국제무역중재와 중국 해사중재위원회(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가 맡는 해사중재가 있다.

9) 중국 「중재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제7장(제65-73조)이 섭외중재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시하고 있는데, 동 규칙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당사자가 중재지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하고 ②당사자가 중재지를 약정하지 않거나 중재지에 관한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한 중재위원회의 분회(分會) 또는 중심(中心)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삼으며 ③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때 중재기관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삼는 방식은 중국이 기관중재에 편중하는 경향을 반영한 부분[11]이라고 볼 수 있다.[12]

중국이 「뉴욕협약」에 가입한 후 협약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뉴욕협약의 집행에 관한 통지(关于执行我国加入的承认及执行外国仲裁裁决公约的通知)」[13]를 발표하였다. 동 통지 제1조는 "협약 가입시의 호혜유보성명에 따라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해서 이 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견지에서 통지 제5조도 "중국 법원에 신청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뉴욕협약」이 중국에서 발효한 후에 「뉴욕협약」의 체약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이 중국에서 발효한 1987년 4월 22일 이후에 「뉴욕협약」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

2. 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의 법적 근거

(1) 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의 의미

중재판정의 승인이란 법원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재판정의 집행은 중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시키는 행위를 뜻한다.[15]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합의를 하였던 계약당사자가 그 중재합

10)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中国国际商会 ,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

11) 중국은 기관중재만 인정하고 임의중재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소효령, 앞의 논문, p. 497).

12) 2004년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중재지의 판단에 관해 견해를 표명한 판결이 있었다(最高人民法院关于不予执行国际商会仲裁院10334/AMW/BWD/TE/最终裁决一案的请示的复函[2004] 民四他字 第6号). 동 판결에서의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내의 중재조항에서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과 영국법에 따라 홍콩에서 중재된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약정한대로 홍콩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가 이루어졌다. 중재판정에도 "본 중재판정의 중재지는 홍콩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중재판정에 근거한 집행신청을 받은 중국 산동성(山东省) 타이위엔시(太原市) 중급인민법원은 중재지가 홍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협약」이 아닌 「최고인민법원의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간 상호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방안(最高人民法院关于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相互执行仲裁裁决的安排)」을 적용하여 그 집행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타이위엔시 중급인민법원과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최고인민법원의 입장은 "본 중재판정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원이 내린 기관중재판정으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원은 프랑스에 위치하는 중재기관이고 중국과 프랑스는 모두 「뉴욕협약」의 체약국이다. 따라서 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심사에는 「뉴욕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홍콩을 중재지로 한다는 중재지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을 배제한 채 중재기관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판단한 것으로, 「중국중재규칙」상의 중재지 결정에 관한 기준에 위배된다. 또한 앞서 밝힌 중국이 기관중재에 편중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13) 1987年4月10日 法 (经) 发[1987]5号.

14) 외국이지만 「뉴욕협약」의 비체약국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이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뉴욕협약」이 아니라 중국의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뉴욕협약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조 후단).

15) 중재판정의 승인은 집행이 없어도 허용될 수 있지만 중재판정의 집행은 언제나 승인을 전제로 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은 승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목영준, 앞의 책, pp. 270-271; 김용일·라공우,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거부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의에 근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중재제도는 그 존재의의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그 규범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국 밖에서 다른 국가의 법규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에 자국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을 일부 양보해 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국 밖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국내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비해 엄격하고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규범이 바로 「뉴욕협약」이다. 이하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이 중국내에서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유효하게 승인·집행되는지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하기 위한 구체적 사유에 관하여 고찰해 볼 것이다. 중국은 「뉴욕협약」의 체약국이므로 「뉴욕협약」상의 거절사유에 범위를 한정한다.

(2) 중국 국내 입법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에 관한 중국 국내법의 근거는 우선 「민사소송법」[16]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7장은 '사법협조(司法协助)'라는 표제 아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총 8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내용은 제283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83조는 "외국중재기관의 판정이 중국 인민법원의 승인 및 집행을 필요로 한다면 당사자는 직접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그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승인·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호혜원칙(互惠原则)[17]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국제조약과 호혜원칙에 근거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재지가 「뉴욕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는 「뉴욕협약」상의 일반적 거절사유에 기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할 수 있다.

중국의 「중재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중재와 섭외중재에 적용되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내용은 「중재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18] 법률 이외의 하위입법으로 중요한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뉴욕협약의 집행에 관한 통지(关于执行我国加入的承认及执行外国仲裁裁决公约的通知)」가 있다.

(3) 뉴욕협약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최초의 다자조약인 「제네바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1959년 6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제도

2007, p. 620).

16) 2010년 8월 31일에 개정된 중국의「민사소송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7) 호혜원칙은 실질적인 호혜관계에 기본을 둔 원칙으로서 중국법원이 중국이 신청인의 소재지 국가와 호혜관계가 있는지를 심사한 후에 결정된다. 즉 양국 사이에 이전에 중재판정을 상호 승인·집행한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호혜관계를 인정하여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와 중국 사이에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국법원은 그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절할 수 있다(李迅, "中国拒绝承认与执行外国仲裁裁决实务研究", 仲裁研究 1期, 2011, p. 76).

18) 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의 거절사유에 관하여 「중재법」은 제70조와 제71조에서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민법원이 그 외국중재판정을 취소(撤消)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의 거절사유는 제260조가 아닌 제274조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따라서 「중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적으로 보장하여 외국중재의 집행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13년 8월 현재까지 외국의 판결을 승인하는 유일한 조약으로서 약 148여국이 가입[19]한 상태이다.

중국은 1986년 12월 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중국이 뉴욕협약에 가입하는 것에 관한 결정(关于我国加入承认与执行外国仲裁裁决公约)」을 통과시키고 난 후 「뉴욕협약」은 1987년 4월 22일부터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발효되었다. 중국은 동 협약 제1조 제3항 및 제10조에 기하여 호혜유보와 상사유보를 하였으므로, 중재지가 「뉴욕협약」의 체약국이고 중국 법률에 비추어 보아 계약적 법률관계 또는 비계약적 성질의 상사적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뉴욕협약」을 적용한다.[20]

Ⅲ. 공서위반을 이유로 한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 사례분석

1. 「뉴욕협약」상의 거절사유

「뉴욕협약」 제5조에는 7가지 거절사유가 규정되어 있다([표-1]). 이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승인·집행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21] 거절사유는 다시 협약 제5조 제1항[22]의 신청인의 입증을 요하는 사유와 협약 제5조 제2항의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유는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인 선임절차나 중재절차의 위반, 중재인의 월권행위, 절차에 있어 합의위반,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취소나 정지가 있고 후자에는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취소나 정지가 있다.[23] 동 협약 제5조는 "집행국 법원은...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집행을 거부할 것인가는 집행국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19) 가입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http://www.newyorkconvention.org/contracting-states> 참조 (2013년 8월 25일 최종방문). 한국과 중국은 모두 동 협약의 체약국이다.

20) 승인과 집행의 청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영토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집행국의 법으로 내국판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중재판정에 모두 적용된다. 「뉴욕협약」 제1조 제1항 참조.

21)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이 위의 「뉴욕협약」상의 거절사유에 근거하여 승인·집행을 거절한 외국중재판정은 모두 17건이다. 이 가운데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 기하여 거절한 사례가 7건(41.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6건(35.3%)이 발생한 제5조 제1항 (a)호 위반이 뒤따르고 있다. 그 외에 제5조 제1항 (b)호의 절차위반이 3건(17.6%), 제5조 제1항 (c)호의 중재인의 월권행위가 2건(11.8%), 그리고 제5조 제2항의 (a)호와 (b)호에 근거하여 거절한 사례가 각각 1건씩 발생하였다. 중국 집행거절사례의 통계에 관해서는 Xiaohong Xia, "Implemen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Brief 1, no.1, 2011, pp. 22-23 참조.

22) New York Convention Article Ⅴ : 1.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may be refused,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invoked, only if that party furnishes to the competent authority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proof that:

23) 이 거부사유에 관한 조문은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열거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다툴 수는 없다.

[표-1]「뉴욕협약」 제5조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절사유

	조문	거절사유
신청인의 거증에 의한 거절사유	제5조 제1항 (a)	당사자의 무능력, 중재합의의 무효
	제5조 제1항 (b)	중재인 선임절차나 중재절차의 위반
	제5조 제1항 (c)	중재인의 월권행위
	제5조 제1항 (d)	절차에 있어 합의위반
	제5조 제1항 (e)	구속력없는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취소·정지
법원의 직권 거절사유	제5조 제2항 (a)	중재할 수 없는 사항
	제5조 제2항 (b)	공서위반

2. 승인 및 집행 거절사유로서의 공서의 의미

(1) 일반적 의미

공공질서나 공공정책, 사회공공이익 등으로도 불리는 공서(public policy)는 영미법계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로 국제사법상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국제사법에서 공서는 한 국가의 법원(法院)이 외국법을 적용할 때에는 법원지국(法院地國)의 중대한 이익이나 기본정책 및 도덕관념, 법률의 기본원칙, 사회질서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보류하는 제도를 가리키지만[24] 도덕관념이나 사회질서는 국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내려져 있는 정의는 없다.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정의는 Parsons&Whittemore 사건에서의 Joseph Smith 판사의 견해로, 그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은 그 집행이 법정지국의 도덕성과 정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서에 근거하여 부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25] 즉 이 견해는 공서 위반이 곧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과 정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 역시 추상적인 정의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서는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에 결정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법원의 재량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곧 개별 사건에 공서를 적용할 때 자주권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이는 바꾸어 보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26]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은 공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매우 좁은 범위 내에서만 공서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7]

(2) 공서의 분류

공서는 통상 한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국내공서(domestic public policy)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공서(international public policy)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 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되는 것은 후자이다. 프랑스는「민사소송법(1981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사유 중 하나로 해당 중재판정이 국제공서에 반하는 경우[28]를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외에도 미국, 독일,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국제공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산하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지난 2002년 인도 뉴델리에서 채택한「승인거부사유인 공서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Public Policy as a Bar to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에서 국내공서는 국내 상사중재에, 국제 상사중재에는 국제공서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공서를 국내공서와 국제공서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켜 주었다.[29]

이렇게 국제공서가 그 존재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개념확정의 문제는 각 국가의 법원의 판단 및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공서의 범위를 국내공서 보다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30] 이와 같은 경향이 있는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서조항의 남용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는 것은 곧 공서를 이유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절하는 예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뉴욕협약」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 중국에서의 의미

중국 현행입법에서는 공서를 국내공서와 국제공서로 구분하지 않고 사회공공이익(社会公共利益)으로만 표현하고 있다.[31] 중국의「헌법(宪法)」,「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민법통칙(民法通则)」,「계약법(合同法)」 등에서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각종 법률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32] 무엇이 공서, 즉 사회공공이익이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관하여 "사회공공이익은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치적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섭외중재판정이나 외국중재판정에서의 의미 역시 국가주권의 이익이다."라는 입장을 보인 적이 있다.[3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해서 중국「민사소송법」제282조 후단에서는 "중국의 법률 기본원칙이나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의 효력을 승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한다. 이에 위배될 시에는 승인과 집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 공서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다른 법률 및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서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건에서 그 의미를 개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

24) 赵秀文, "从永宁公司案看公共政策作为我国法院拒绝执行外国仲裁裁决的理由", 法学家 第4期, 2009, p. 98.
25) "the forum state's most basic notions of morality and justice"라고 표현하였다(박영길, 앞의 논문, pp. 6-7).
26) 杜新丽, "论外国仲裁裁决在我国的承认与执行-兼论「纽约公约」在中国的使用", 比较法研究 第4期, 2005, p. 9.
27) 공서는 승인국의 본질적인 법원칙이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 또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국내법 질서를 보존하는 방어적 기능을 가지므로 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석광현, "사기에 의하여 획득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공서위반 여부", 민사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011, p. 143).

28) 1981년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502조 제5항.
29) 李洋桦, "强制性规则与公共政策在商事仲裁裁决承认与执行中的适用研究", 北京仲裁 第69辑, 2009, p. 68; 석광현, 위의 논문, p. 144 참조.
30) 徐琳, "国际商事仲裁裁决承认与执行中的公共政策", 河北法学 第七期, 2009, <http://arb.rucil.com.cn/article/default.asp?id=235>
31) 중국은 입법으로 명확히 국내공서와 국제공서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재제도를 국내중재, 섭외중재, 외국중재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중재의 영역에는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역시 국제공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杜新丽, 앞의 논문, p. 11).
32) 예컨대「헌법」제10조 제3항,「중외합자경영기업법」제2조 제3항,「민법통칙」제150조,「계약법」제7조 등이 있다.
33) 在严格法律意义上讲，公共利益不是法律术语，是政治范畴的概念，对于国内仲裁裁决，其体现出社会公共利益，对于涉外或国外仲裁裁决，其体现出国家主权利益。<http://cn.cietac.org/TheoryResearch/readbookcontent.asp?cgid=124>

다.
이렇게 중국이 각 법률에 공서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서의 개념을 확립하지 못한 이유를 중국사회가 법의 지배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것에서 찾는 견해가 있고,[34] 중국법원이 공서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하여 중재집행에서 빠져나가는 통로로 악용되거나 기업의 이익이나 지방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견해[35]도 있다. 따라서 중국이 공서위반을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절할 때에는 그 판단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공서위반과 관련된 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뉴욕협약」제5조 제2항 (b)호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에 승인·집행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신청을 직권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신청을 받은 중국법원이 공서위반 여부를 판단한 3가지 사례[36]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강행규정 위반 관련 사례

1) 국외선물거래행위 규제

① 사실관계
1994년 12월 중국의 제당업 주류회사(糖业酒类集团公司, 이하 "중국제당회사"로 약칭)는 홍콩 ED&F 회사(ED&F曼氏有限公司, 이하 "ED&F회사"로 약칭)와 ED&F회사를 매도인, 중국제당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원당(原糖)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원당의 가격은 톤당 345달러로 한다는 가격조항과,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모두 런던의 제당업협회의 규정에 따라 런던 제당업협회가 중재를 맡는다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ED&F회사는 뉴욕 선물거래시장에서 10만 톤의 원당을 거래하기 시작했고 중국제당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중국제당회사는 ED&F회사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를 대리하여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국외에서 선물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후 중국제당회사와 ED&F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자 ED&F회사는 계약내의 중재조항에 따라 영국 런던의 제당업협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국제당회사에게 원당의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런던 제당협회는 2001년 8월 6일 중국제당회사가 ED&F회사에게 계약을 위반한 손해배상금 및 그 이자, 그리고 중재판정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국제당회사는 ED&F회사와의 계약은 불법적 성격을 가지는 투기성 선물거래에 관한 것이므로[37] 이러한 선물거래는 중국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바 중국의 기본법

34) 김선정, 앞의 논문, pp. 31-32.
35)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2005, p. 280.
36) 아래의 3가지 사례는 모두 사실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에 중재지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양 당사자 사이에 중재지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뉴욕협약」과「뉴욕협약의 집행에 관한 통지」,「중국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라 집행신청을 받은 국가 이외의 영토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인가, 1987년 이후에「뉴욕협약」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인가, 그리고 중재를 관할한 중재위원회의 소재국이 어디인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3가지 사례에서의 중재는 모두 외국중재판정에 해당하였다.
37) 이러한 중국제당회사의 주장에 ED&F회사는 사안의 계약은 투기성 선물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으로

률제도 및 사회공공이익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계약에 근거하여 취득한 이익 역시 불법 이익이라는 이유로[38] 이 중재판정의 내용을 집행하지 않자 ED&F회사는 2002년 1월 중국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해당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② 법원의 판단
ED&F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의 신청을 받은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동 선물거래행위가 중국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서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뉴욕협약」제5조 제2항 (b)호에 근거하여 동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하였다.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인 사전보고제도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고급인민법원을 거쳐 최고인민법원에까지 보고를 하였다.[39] 최고인민법원이 이에 관하여 "중국제당회사가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국외 선물거래에 종사한 행위는 중국 법률에 따라 당연히 무효이다. 그러나 중국 법률의 강행규정은 중국 공서 위반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가 아니므로 본안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서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와 뉴욕협약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본안의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해야 한다."고 하여 중급인민법원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즉 최고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중국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것이「뉴욕협약」상의 공서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③ 쟁점 및 평가
동 사건에서의 쟁점은 중국이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위반, 즉 강행규정의 위반을「뉴욕협약」상의 공서 위반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 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외선물거래행위는 중국정부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분야이다. 국외선물거래는 1990년대 초 무렵 중국에 처음으로 들어와 급속히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입초기에는 투자자의 인식부족 및 불법 위탁판매인의 악의적 사기행위가 횡횡하여 중국 국내 투자자와 기업 등이 손해를 입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선물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국가경제발전 및 사회질서 안정을 위하여 선물거래행위를 국가가 규제하기 시작했다. 1999년 국무원은「선물거래관리잠행조례(期货交易管理暂行条例)」를 공포하여 국외선물거래를 금지하였고[40] 2001년에는「국유기업국외선물헤지업무관리판법(国有企业境外期货套期保值业务管理办法)」을 제정하여

서 위법이 없다고 맞섰다.
38) 중국제당회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8년에 영국상소법원이 내린 판례를 인용하였다. Soleimany사건(1998)에서 영국법원은 "불법적 성격을 가지는 계약으로 취득한 불법이익은 공서보류원칙에 따라 그 집행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중국제당회사는 중국법원이 이 판례를 참고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39) 중국은 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신청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상급법원이 그 거절의견에 동의한다면 다시 동일한 내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승인·집행의 거절을 확정할 수 있다. 이 제도는「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问题的通知(1995)」와「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撤消涉外仲裁裁决有关事项的通知(1998)」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를 중국 법원체계 내의 "사전보고제도"라 칭하기도 한다(소효령, 앞의 논문 p. 493 참조). 편의상 본고에서도 이하에서 이 제도를 "사전보고제도"라고 칭한다. 이러한 사전보고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중국의 지방보호주의를 극복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집행률을 향상시키고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것에 있다.
40)「선물거래관리잠행조례」 제49조 : 未经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直接或者间接从事境外期货交易。确需利用境外期货市场进行套期保值的，由中国证监会会同国务院有关部门审核，报国务院批准后，颁发境外期货业务许可证。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국외선물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현재 중국에서 선물거래관리의 영역에서 가장 효력이 높은 법규는 「선물거래관리조례(期货交易管理条例)」[41]로 동 조례 제77조가 "국내의 단위나 개인이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선물거래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경고를 하고, 위법하게 취득한 소득을 몰수한다. 또한 불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국외선물거래는 중국이 통제를 가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의 강행규정은 중국 공서 위반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안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서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과는 달리 ED&F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국 법규상의 강행규정의 범위가 중국의 공서 즉 사회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공서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례이다. 따라서 이 판결이 내려진 이후부터는 중국내 강행규정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게 되었다.

2) 외환정책 규제

① 사실관계

일본 삼정물산주식회사(이하 "일본회사"로 약칭)와 중국 국유기업인 하이난성 방직공업회사(이하 "중국 국유회사"로 약칭)는 중외합작회사로서 두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承包合同)에 엔화지급조항(日元支付条款)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두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1999년 3월 일본회사는 중국 국유회사를 상대로 스톡홀름 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일본회사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중국 국유회사가 엔화지급조항에 따라 일본의 엔화로 채무를 이행해야 할 계약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스톡홀름 중재원은 중국 국유회사에게 계약내용대로의 채무상환을 명령하면서 일본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결과 앞에서 중국 국유회사는 외국, 즉 일본에 부채를 외환으로 상환하는 것은 중국의 외환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n Foreign Exchange, 国家外汇管理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강제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중재가 중국의 공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회사는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하이커우시(海口市) 중급인민법원에 동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였다.[42]

② 법원의 판단

하이난성 하이커우 중급인민법원은 중국 국유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이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역시 중급인민법원의 결정에 동의하면서 절차에 따라 이 내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였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중국 국유기업이 강행규정에 포함되는 중국의 외채(外債)

41) 国务院令第489号. 2007년 4월부터 시행중이며 동 조례가 시행되면서 「선물거래관리잠행조례」는 폐지되었다.

42) Henry Chen,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China", Bloomberg Law Reports-Asia Pacific Vol.2 No.6, 2009, pp. 4-5.

허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과 외환관리정책을 위반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행정법규와 부서규장의 강행규정 위반이 당연히 중국 공서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해당 외국중재판정은 공서위반이 아니므로 그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43]

③ 쟁점 및 평가

동 사례에서의 쟁점은 합작계약상의 엔화지급조항에 있다. 이 조항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유회사는 일본회사에게 엔화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바,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외화채무(이하에서는 "외채"로 약칭)에 해당[44]한다.

중국은 현재 「외채등록관리판법(外债登记管理办法)」[45]에 따라 외채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46]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외채를 차용한 경우에는 외채등록을 해야 하는데,[47] 외채등록이란 채무자가 외채를 차용한 후 규정된 방식으로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록하거나 외채의 서명, 인출, 상환, 외환결제 등의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가리킨다.[48] 따라서 중국의 현행 법규에 따르면 일본회사에 대한 중국 국유회사의 채무는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중국 국유회사는 중국의 이 외환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고 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동 사례에서 위반한 중국의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기관 중 하나인 국가외환관리국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지위에 있는 판법이므로 법률이 아닌 행정법규 내의 강행규정 위반이 공서위반을 구성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국가주도형의 여러 폐쇄적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외환관리정책이다. 외환보유고가 많은 현재에는 규제가 많이 느슨해졌지만 과거부터 외환유출에 대한 감독강화에 중점을 두고 해외에서 얻은 외환수입은 의무적으로 중국 국내로 반입하게 하는 등의 외환관리에 있어 강력한 규제를 하였다.[49] 위 사례에서 중국 국유회사는 이러한 자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자신의 과실을 오히려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 즉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사유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기업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계약체결시마다 중국의 법률 및 행정법규 내의 강행규정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행정법규 내의 강행규정의 위반이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서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제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행정법규 내의 강행규정 위반이 모두 공서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중국

43) 자세한 내용은 「最高人民法院关于海口中院不予承认和执行瑞典斯德哥尔摩商会仲裁院仲裁裁决请示的复函(2005)」 참조.

44) 외채란 중국내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금융기관 또는 기타 기관이 외국의 국제금융 조직, 외국정부, 금융기관,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체적 계약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의미한다(「외채통계감측잠행규정」 제3조 참조).

45) 汇发[2013]19号. 2013년 5월 13일부터 시행.

46) 외채에 대한 등록제의 실시는 1987년 8월부터 시행된 「외채통계감측잠행규정(外债统计监测暂行规定)」에도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실시기간이 매우 긴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동 규정은 국가외환관리국의 발표로 현재는 실효된 상태이다.

47) 「외채등록관리판법」 제2조.

48) 외채의 등록방식은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외채등록관리판법」 제6조 및 제2장 참조.

49) 외환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효력이 높은 법규는 「외환관리조례(外汇管理条例)」이다.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공서와 강행규정의 관계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신청을 받은 국가의 법원은 만약 해당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그 국가의 강행규정 위반이라면 공서위반을 이유로 그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즉 공서를 강행규정 위반과 동일시 할 수 있는가?

강행규정이란 개인의 의사로 그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 즉 사적 자치가 배제되는 규범을 의미한다. 공서와 강행규정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①강행규정을 공서의 일부분으로 보는 입장, ②강행규정이 공서와 기타 공서로는 격상되지 못한 강행규정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 ③강행규정와 공서는 종속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 등으로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50] 현재까지 확립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공서와 강행규정은 내용상 교차하는 부분[51]이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다. 우선 전자에는 도덕규칙, 선량한 풍속, 국가의 기본원칙 등의 형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공서는 법조문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도덕적 요소가 가미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후자는 도덕적 가치판단 보다는 명문의 규정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 법원의 직접적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2]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위의 학설 가운데 두 번째 입장을 취하여 "중국의 모든 법률과 행정법규 중의 강행규정이 모두 공서인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위의 두 사례에서도 계속 견지해 나갔다. 두 사례에서는 모두 중국의 조례, 판법 등과 같은 행정법규 내의 강행규정 위반이 공서위반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는데, 최고인민법원은 일관성 있게 이를 모두 부정하였다. 중국 법률의 강행규정 위반이 「뉴욕협약」상의 공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다루어진 적이 없다.

(2) 국가주권 침해 관련 사례

1) 사실관계[53]

① 합자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995년 12월 세르비아의 Haimufamu회사와 Ma Ge 국제무역회사는 중국 제남(济南)에 소재하는 용닝제약회사(永宁制药股份有限公司, 이하 "용닝회사"로 약칭)와 "제남-Haimufamu 제약유한회사 합자계약(济南-海幕法姆制药有限公司合资合同)"을 체결하여 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 합자계약 제58조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계가 있는 모든 분쟁은 쌍방의 우호적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파리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0년 4월에는 Sulame 미디어 회사(이하 "외국 투자자"로 약칭)가 합자회사에 들어와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용닝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50) 林达·马雪涛, "公共秩序保留在我国司法实践中适用之考量", <http://www.hngf.gov.cn/theory/article_list.asp?id=5872&l_class=2>

51) 양자는 국가의 이익을 기초로 존재하고 국가의 정치·경제정책과 법률원칙 등의 이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李洋桦, 앞의 논문, p. 69).

52) 徐珊珊, "国际商事仲裁中强制性规则的使用-以仲裁庭在国家利益间的中立为视角", <http://cn.cietac.org/theoryresearch/Theory.asp?stitle=%B9%F>

53) 赵秀文, "从永宁公司案看公共政策作为我国法院拒绝执行外国仲裁裁决的理由", 法学家 第4期, 2009; Jingzhou Tao, "Salient Issues in Arbitration in China",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27 No.4, 2012, p. 830에서 요약.

② 임대차분쟁의 발생

가. 용닝회사의 선(先)제소 및 승소

2002년 용닝회사는 임대료의 지불과 임차재산의 반환을 구하면서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에 합자회사를 제소하였다. 또한 용닝회사는 법원에 재산보전신청을 하였고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합자회사의 재산 일부를 차압했다. 이러한 내용의 용닝회사의 제소에 대하여 피고 합자회사는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합자계약 제58조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원고인 용닝회사는 2003년 최종 승소판결[54]을 받았다.

나. 상대방의 중재신청 및 중재판정의 내용

2004년 9월 3일 Haimufamu회사 및 Ma Ge 국제무역회사와 외국 투자자는 공동신청인의 자격으로 파리에 소재하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신청내용은 용닝회사가 공동신청인 간 합자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합자계약 제58조에 따라 해결하지 않은 것은 공동신청인에 대한 계약상, 중국법상 의무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2002년의 첫 번째 소송에서 용닝회사가 신청한 재산보전과 강제집행은 합자회사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합자회사가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므로 용닝회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투자손실 및 이윤손실[55]을 배상하도록 청구한 동시에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철회 및 합자회사가 중국에서의 소송 중 항변에 소요한 비용 등의 배상을 청구했다.

중재정(仲裁庭)은 용닝회사가 2002년의 첫 번째 소송에서 중국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판결을 받았고, 이러한 재산보전판결의 집행은 공동신청인의 합자계약 내의 권리와 이익에 직접적이고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하므로 합자회사의 최종적 영업중지 및 폐업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용닝회사가 신청한 재산보전판결은 합자계약 위반이고, 공동신청인은 합자계약 제58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중재정은 최종적으로 용닝회사가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중국법원에서의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 중재비용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판정을 내렸다.[56]

③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청구

위와 같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닝회사가 그 판정내용을 집행하지 않자 외국 투자자측은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에 이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였다. 용닝회사는 동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와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사항의 범위를 넘어선 것[57]임에도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승인·집행하는 것은 중국의 공서에 반한 다는 것을 이유로

54)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합자계약내의 중재조항에 구속되는 것은 합자계약을 체결한 합자회사의 각 투자주체인데, 합자회사 자체는 투자주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합자회사에게는 합자계약의 중재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자회사의 관할이의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55) 공동신청인은 용닝회사에게 투자손실액 10,764,514달러와 이윤손실 약 2,00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다.

56) ICC Court: Arbitration Award No. 13464/MS/JB/JEM

57)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합자계약에 서명한 주체가 중외합자자이고 계약중의 중재조항은 합자계약에 서명을 한 각 투자주체만을 구속하는 바, 합자회사는 합자계약을 체결한 주체도 아니고 중재합의에 서명한 주체도 아니므로 용닝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의 분쟁은 중재조항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

승인 및 집행의 거절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용닝회사에 대한 파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중국의 사회공공이익 위반이라는 이유로 승인 및 집행을 거절했다. 사안에서의 공서는 해당 중재판정이 중국의 사법주권과 중국법원의 사법관할권을 침범하였느냐의 문제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용닝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의 임대차 분쟁에 관해서는 중국 법원이 이미 관할권을 행사하였고, 분쟁 목적물에 대하여 임시보전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는 용닝회사의 신청에 중국 법률규정에 따라 임시보전조치를 내리는 결정도 중국 법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중재기관과 중재정은 모두 이에 대하여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산동성 고급인민법원[58] 역시 중국과 프랑스[59]가 모두 체약국인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근거로 삼아 중재원이 용닝회사가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합법성과 토지임대차소송의 관할권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심리한 것은 중국의 사법주권과 중국법원의 관할권을 침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중국법원이 이미 용닝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대해 심리 후 판결을 내리고 관할이의 역시 기각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원이 다시 심사를 진행하여 중국법원의 유효한 판결의 기판력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려서 중국의 사법주체와 중국법원의 사법관할권에 손해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요컨대 중국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원이 다시 용닝회사와 합자회사 간의 임대차 계약분쟁을 심리한 것은 중국의 사법주권과 중국법원의 사법관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뉴욕협약」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해야 한다고 보아 용닝회사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제남시 중급인민법원과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사항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问题的通知, 1995)」에 규정된 보고제도[60]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이 내용을 보고하였고, 최고인민법원 역시 중재원의 심리와 중재판정이 중국의 사법주권과 중국법원의 사법관할권을 침범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승인 및 집행의 거절에 동의했다.

3) 쟁점 및 평가

이 사례에서의 쟁점은 중국법원의 보전조치 및 중국의 사법관할권 문제로 요약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국가의 주권문제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공서위반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정은 용닝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의 임대차 관계를 심사했고 용닝회사와 합자회사간의 소송절차 분쟁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였으며 심지어 용닝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에 중국 법원이 진행한 소송의 소송비용 부담문제에 대해서도 판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히 권한범위를 넘어선 중재인의 월권행위라고 보아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제c호의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동 사례에서 공서 위반의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설명은 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58)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에 청구된 사안을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이 같이 판단을 내린 이유는 중국의 사전보고제도 때문이다.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은 피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집행신청을 받은 중급인민법원은 그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하기 전에 관할 소속 고급인민법원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59) 합자계약 제58조에 "파리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재지국이 프랑스이다.

60) 동 통지 제2조 후단 : 在裁定不予执行或者拒绝承认和执行之前，必须报请本辖区所属高级人民法院进行审查；如果高级人民法院同意不予执行或者拒绝承认和执行，应将其审查意见报最高人民法院。待最高人民法院答复后，方可裁定不予执行或者拒绝承认和执行。

중재절차에서의 보전조치는 행위주체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보전조치와 중재판정부가 행하는 보전조치,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중재판정부가 행하는 보전조치를 인정하는 이유는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중재절차에서도 중재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패소할 것을 염려하여 중재대상의 목적물 내지는 분쟁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버려 이후 집행할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또한 중재절차 진행 중 물품의 가격변동이나 품질의 저하 및 부패 등과 같은 사정변경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61] 그러나 법원의 보전조치와 중재판정부의 보전조치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전자는 주로 보전조치나 보전처분으로 불리고 후자는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 임시보전조치(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등으로 일컬어진다.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의 허용문제는 결국 중재판정부에게 직접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권한에 관한 내용은 UN국제거래법위원회가 1985년에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으로 약칭)」에서 찾을 수 있다. 「모델법」 제17조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임시적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에게 임시적 처분[62]권한을 부여하고 있다.[63]

이에 대하여 중국의 경우 「중재법」 제28조가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이를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으로 비추어 보건대 중국의 법률은 법원에게만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보전신청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권한만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법률에 따르면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이 직접 용닝회사의 신청을 받아 중국의 국내(境內)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내린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이다. 이러한 중국 법원의 유효한 판결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 동 사안의 중재정의 판단은 중국법상 중국법원만이 보유하는 보전조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권한이 없는 기관이 평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중국법원의 전속 관할권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재정은 중국법원의 임대차 소송의 관할권 역시 부정하여 중국법원이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부정해서 중국 사법주권과 중국법원의 사법관할권에 손해를 주었다. 따라서 중국법원은 이러한 침해가 모두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의 위반을 구성하는 사유 및 「뉴욕협약」상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절사유인 공서의 위반하는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주권침해는 명백한 공서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4. 소결

지금까지 중국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절사유 중 공서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 국내의 강행규정 위반이 「뉴욕협약」상의 공서위반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행정법규 내의 강행규정 위반이 모두 공서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확실히 하였다. 강행규정과 공서의 관계는 공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바 그 해석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정

---

61) 목영준, 앞의 책, p. 182.

62) 「모델법」에서 말하는 임시적 처분이란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에 앞서서 취해진 판정의 형식 또는 다른 형식의 한시적 조치를 의미한다(「모델법」제17조 제2항 참조).

63) 「모델법」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국내법으로 중재판정부에게 임시적 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법원은 자국중심의 국내적 시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동향 및 국제거래의 특수성 등 국제적 측면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사안에서 쟁점이 된 국외선물거래와 외채와 관련된 외환관리의 부분은 모두 중국 국내에서는 통제를 가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국제적 시각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는 행위이므로 공서위반이 아니라 본 것이다. 한국법원 역시 강행규정과 공서의 관계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64] 중국법원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65] 강행규정 위반의 문제와는 달리 국가의 주권침해가 「뉴욕협약」상의 공서위반을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중국법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국 법원의 사법관할권 침범에 관한 위의 사례에서 중국법상 보전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는 중재판정부가 중국법원이 이미 내린 보전조치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재평가한 것과 중국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안의 관할권을 부정한 것은 결국 중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침해는 「뉴욕협약」상 공서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서위반은 공서라는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남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주권침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그 외 중국 국내법규와 국제현실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후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판례가 더 축적이 되어야 명확해지겠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통해서 중국은 국제적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맺음말

오늘날 중재가 국제무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에서의 중재판정집행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중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뉴욕협약」이 제정되었다. 「뉴욕협약」에 따르면 승인·집행신청을 받은 국가 이외의 영토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면 외국중재판정으로 인정된다. 중국은 현재 외국중재판정의 판단을 뒷받침할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국 국내규범적 근거로 「중국중재규칙」에 의하면 당사자가 약정한 중재지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약정한 중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을 관할한 중재위원회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뉴욕협약」의 체약국이 된 후에 협약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발표한 「뉴욕협약의 집행에 관한 통지」에서는 외국중재판정에 관하여 「뉴욕협약」이 중국에서 발효한 1987년 이후 「뉴욕협약」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뉴욕협약」의 체약국인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신청을 중국법원이 받은 경우, 중국법원은 「뉴욕협약」 거절사유에 근거하여 그 집행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사유 중 공서위반은 그 중에서도 각국 법원의 해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 모호한 개념이다. 중국법원은 공서위반 여부를 다툰 사례들에서 중국의 행정법규 내의 강행규정 위반이 곧바로 공서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자국중심의 국내적 시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제거래의 특수성과 같은 국제적 측면도 모두 고려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사법기관의 전속적 관할권 및 사법주권 등 국가의 주권이 관련되어 있는 사례에서는 「뉴욕협약」상의 공서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요컨대 중국은 국제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 국내법규와 국제현실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후자를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 승인·집행을 거절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아직 중국에서 공서위반에 관한 판례가 많지 않아 이후에도 우와 같은 입장을 계속해서 관철해 나갈 것인지 명확한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까지의 중국법원은 국제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4) 대법원 1995.2.14. 선고 93다53054판결.

65) 한국 대법원은 지금까지 공서위반을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한 적이 없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법규 위반만으로는 공서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일관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자 공서위반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서철원, 앞의 논문, p. 141).

[참고문헌]

김선정, "중국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사유인 공서와 법의 지배",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

김용일·라공우,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거부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2007.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서철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 한국법원에서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3권 1호, 1996.

석광현, "사기에 의하여 획득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공서위반 여부", 민사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011.

소효령, "중국법원에서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인하대학교, 2013.

오석웅,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중재지의 의미",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

정용균, "중국에서의 상사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동향과 제도개선 연구: 외국투자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0.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2005.

Henry Chen,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China", Bloomberg Law Reports-Asia Pacific Vol.2 No.6, 2009.

Jingzhou Tao, "Salient Issues in Arbitration in China",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27 No.4, 2012.

Xiaohong Xia, "Implemen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Brief 1, no.1, 2011.

杜新丽, "论外国仲裁裁决在我国的承认与执行-兼论「纽约公约」在中国的使用", 比较法研究 第4期, 2005.

李迅, "中国拒绝承认与执行外国仲裁裁决实务研究", 仲裁研究 1期, 2011.

李泮桦, "强制性规则与公共政策在商事仲裁裁决承认与执行中的适用研究", 北京仲裁 第69辑, 2009.

徐琳, "国际商事仲裁裁决承认与执行中的公共政策", 河北法学 第七期, 2009.

赵秀文, "从永宁公司案看公共政策作为我国法院拒绝执行外国仲裁裁决的理由", 法学家 第4期, 2009.

국내 쇼핑센터 중문홈페이지 현황과 효율적 마케팅 전략

-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을 중심으로

장지혜(경성대)

목차

1. 서론
2. 홈페이지 경쟁력 분석 평가항목 정의
3. 쇼핑센터 중문홈페이지 장단점 분석
4. 문제점 해결방안 및 전략

1. 서론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TV나 라디오, 신문광고, 전단에 이어 새로운 상품 홍보 매체로 떠오른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다.[1] 인터넷은 기업이 홍보나 광고를 하면서 대중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신속하게 대응하기 가장 좋은 쌍방향적인 매체로, TV처럼 영상과 음성 등의 전달도 되면서 공간에 대한 제한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기업은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용이하다 하겠다. 그 중 인터넷 홈페이지는 기업의 광고 및 홍보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얻어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품 정보의 제공 역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잠재 구매자간의 구매 경험 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는 인터넷 인프라의 성장과 인터넷 구매 환경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인터넷 사용 인구는 2012년 7월 3,812만명이었으며,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3.5%가 인터넷 쇼핑이용자이다.[2] 중국 역시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와 소비자 쇼핑 패턴의 변화로 중국 온라인 쇼핑은 가장 주목 받는 인터넷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2년 약 2억 명이었으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2억 1,980만 명이었으며, 시장 규모는 약 240조원이다. 또한 국내에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49%를 차지하였다.[3] 한국 선택 목적은 쇼핑이 전체 73.8%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

---

1) 홈페이지는 웹서버 공간에 일정한 하나 이상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HTML 문서들을 하이퍼링크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라는 뜻으로, 하이퍼텍스트 문서들의 집합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메인페이지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에는 메인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체 웹문서를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즉 홈페이지, 웹페이지, HTML문서, 웹문서는 하나의 용어로 정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홈페이지라는 용어를 메인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체 웹문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겠다.

2) "2012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12(http://isis.kisa.or.kr/board/index.jsp?pageId=040100&bbsId=7&itemId=792&pageIndex=1:2013.05.03검색)

3) 설문은 중복으로 표기할 수 있었는데 친지, 동료, 친구를 통한 정보 수집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 49%, 여행사를 통한 것이 41.4%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정보통계센터, "2012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02, p.95.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tstatus.kto, 2013.10.11.일 검색)

환경이 75%, 음식이 34.4%였다.[4)]

이제 기업들은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고객의 욕구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터넷을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매체로 활용하여 기업 활동에 유리하게 하는 가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5)] 그러나 수많은 경쟁 사이트로부터 우위를 점하고, 자사의 사이트로 유도하게하기 위해서는 많은 마케팅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이 적절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잠재고객들을 자사의 사이트로 유도하고 그 고객들을 자사의 소비자들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마케팅 믹스 관리가 요구된다.

인터넷 마케팅은 고객 만족을 통한 개인, 기업, 조직의 이윤추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발, 가격에 대한 결정, 촉진, 그리고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때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상거래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 마케팅의 목표는 웹사이트를 통한 수익 창출과 브랜드 자산 구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브랜드 자산 구축이 마케팅 목표인 경우, 기업이나 브랜드를 소개하거나 홍보함으로써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거나 호의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인터넷 활동 목적이 있다.[6)]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쇼핑센터 중문 홈페이지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와 동시에 각 중문 홈페이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겠다. 이를 통해 홈페이지의 이용이 비즈니스로 연결되어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하거나 매출증진을 위한 홍보 수단이 되어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으로 연결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7)]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쇼핑센터는 국내 백화점과 종합쇼핑센터 쇼핑몰 중에서 김포 공항을 중심으로 이동이 편리한 지역에 있으며, 중문 홈페이지가 있는 5개 쇼핑센터인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다.

2. 홈페이지 경쟁력 분석 평가항목 정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고객들에게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한데, 고객의 욕구나 정보를 쉽

---

4) 上同, p.90.

5) 전자상거래를 광의로 해석하면 '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적인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거래에 필요한 상품 및 가격정보의 교환에서부터 주문 및 계약, 배달, 대금결제, A/S까지의 절차 가운데 어떤 한 단계라도 전신, 전화, Telex, Fax, TV, PC 통신, Web 등의 매체를 이용한다면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Web 기술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이 다양한 조직의 홈페이지, 기업 및 상품의 광고 등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6) 안광호 외(2010), 《마케팅 원론》, 학연사, p. 591.

7) 국제 쇼핑센터 협의회(ICSC, international Coucil of Centers)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소매 점포가 집적된 유통 시설로서 쇼핑과 요식 서비스, 오락을 결합하여 방문객에게 원스톱(One-stop)쇼핑 체험을 제공하는 상업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마케팅 협회(AMA,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는 “많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니즈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업종 및 업태의 다수 소매업이 집합하여 있는 지리적 중심이 되며, 소비자가 구매하러 가는 데 있어 시간적으로 편리하고 충분한 매력을 가진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5개의 백화점이 공통적으로 쇼핑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 쇼핑센터에서의 매출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쇼핑센터로 지칭하겠다.

게 파악하여 고객의 욕구 변화를 충족시켜주며, 축적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특정 고객층에 대한 광고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쇼핑센터의 고유 특성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이용시설물, 쇼핑센터에서 다른 곳에 비교해 장점인 부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잠재고객과 단골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그리고 쇼핑센터 이용에 도움이 되는 일상적인 질문에 대한 질문과 해답도 게시할 수 있으며, 관계 마케팅 상호작용 도구로 이용하여 고객 불만 및 비평, 제안 문의 사항에 대해 직접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활동은 잠재 구매자들에게 편의성, 정보제공, 저원가, 판매원의 설득과 노력으로 인한 불쾌감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기업에게는 무제한적인 광고 공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 대응, 고객과의 관계구축, 정확한 소비자의 규모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와 처음 보게 되는 것을 메인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페이지는 나머지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시 어느 곳에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자의 응답자 중 80%가 초기 화면의 일러스트레이션과 타이틀에 시선이 가며, 본문의 내용은 16%였다. 또 인상에 남는 홈페이지는 응답자 중 50%가 정보 검색의 편리성, 28%가 아름다운 조형성이라고 하였다.[8] 서브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의 대표적인 예는 좋은 품질의 정보, 사용의 편리성, 신뢰성(높은 보안성, 소비자에 대한 즉각적 대응 등), 개별 욕구의 충족, 전반적 욕구의 동시충족 등이 있다.[9]

즉 인터넷 이용 고객은 검색의 편의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기에 이곳에 중점을 두어 메뉴의 진행은 단순, 명료하며 최소한의 선택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사용자들의 검색 형태를 분석하여 디자인에 적용해야 한다. 두번째로 특징적인 모양, 색채, 문안, 회사 심벌, 로고 및 기타 디자인 요소들이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강력한 인상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미지 창조와 홍보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흥미유발, 소비자들의 태도를 자사에 유리하게 형성하여 기업의 이윤 창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한다. 또 타 기업과의 차별화 기능이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의 분석에 관련해서는 몇몇 연구자들이 기업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사례들이 있다. 김승운(1999)은 평가항목에 대한 관찰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2-1] 홈페이지 평가 기준

구분	평가기준	
객관적 조사항목	사이트 특성	통신망접속속도, 상호작용성, 내용구성

8) 곽미성(1999),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 연구: 백화점 쇼핑몰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pp.44-45.
9) 안광호 외(2010),《마케팅 원론》, 학연사, p. 594.

	정보 특성	자료의 표현형식, 제공언어, 갱신주기
	관리 특성	사이트 홍보, 전담부서, 운영예산, 운영인원, 웹마스터 특성
	운영 성과	목표달성정도, 방문객수
홈페이지 활용목적	일반홍보, 광고, 판촉, 전자상거래, 고객지원	
객관적 평가항목 (홈페이지 품질)	홈페이지설계복잡성, 문서 구성 적정설, 문서 가독성, 문서구성일관성 그래픽 사용과 정보유용성 증가, 링크 신뢰성, 상호작용부분 설명 그래픽 디자인 원칙	
주관적 평가항목 (정보 품질)	정보최신성, 의도적 생략, 링크 권위, 링크적절성, 링크 식별 및 이해 난이도, 정보제공자 정보 제공, 정보 요구 만족성, 문서타이틀 정보성	

김승운(1999), "한국기업의 웹사이트활용실태분석", 중소기업연구 38.

이선영(1999)은 국내 100대 기업의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Liu et al.(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14개 항목을 참고하여 구성요소별 내용 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의 비즈니스 효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비즈니스 방향제시를 위한 연구를 하였다.

[표2-2] 홈페이지 평가를 위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

상위개념	변수	조작적 정의
기업홍보와 제품판촉	기업개요	기업소개, 역사, 조직, 비전 CEO인사말 제공
	제품, 서비스정보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정보, 가격 정보
	투자자 정보	연차정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가정보, 기타재부정보 제공
	채용정보	인재상, 직원채용에 대한 정보제공과 온라인지원허용
	뉴스	새소식, 관련산업정보, 공지사항 알림과 신제품안내 정보제공
온라인거래	온라인 구매	온라인으로 제품, 서비스 구매
	온라인 결재	온라인 구매 후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결제 허용
	온라인 상담	제품, 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실시간 상담
고객지원, 서비스	FAQ	고객에게서 일어나는 빈번한 물음을 별도로 모아둠
	Q&A	웹마스터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고객이 질문하고 답변 받음
	게시판	고객의 질문 및 답변의 게시를 통한 정보 제공
	링크	계열사, 다른 기관으로의 사이트 연결 서비스
고객이용 편의 기능	검색	홈페이지 내에 외부검색엔진을 두어 일반적 검색기능 또는 사이트 내부 검색기능 제공
	사이트맵	기업의 전체 사이트를 정리하여 클릭하면 각 사이트로 연결

이선영(1999), 국내100대 기업의 웹사이트 평가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본 논문은 중문 홈페이지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홈페이지의 이용이 비즈니스로 연결되어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하거나 매출증진을 위한 홍보 수단이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중국 고객의 접속의 편의성이나 정보 수집에 편리성과 같은 고객 서비스나 이용 편의기능에 중점을 두어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전략적 방안에서는 전자 상거래에서 4P의 기본 전략은 같지만 가상세계를 통한 1:1의 쌍방향 마케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6C로 대체되는 Web Site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로 접근할 경우 기본적 틀을 설명하기 위해 4P와 6C로 이원화되어야 하고, 또 아직은 전통적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소비자와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6C의 공통 부분인 정보 측면도 제시되어야 한다.[10] 전자상거래 마케팅은 고객의 욕구를 다원적이고 개별적이라고 보고 고객 이익 극대화와 가치의 극대화를 마케팅 목표로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4P+1W로 정리할 수 있겠다.[11]

4P는 제품으로 인터넷 제품, 상표, 신제품소개, 인터넷 주소이며, 가격은 가격 옵션, 결재방법, 가격 검색이고, 유통은 인터넷 물류 체계, 물류.배송센터,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하며, 촉진은 검색엔진, 전자우편, 유즈넷, 메일링 리스트, 게시판, 해외마켓 플레이스이며, 1W는 웹사이트로 여기엔 기업 이미지, 정보제공, 제품판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내부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된다.[12]

또 다른 의견으로는 5P 전략과 4C전략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앞의 4P전략 외에 개인화(Personalization)전략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4C전략을 중심으로 개별 고객의 개인 성향에 부합하도록 대응하는 소비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요소이다. 이것은 쌍방향 웹베이스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고객의 개인 성향에 부합하는 마케팅 기법이 중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13]

4C 전략은 컨텐츠 전략(Content), 커뮤니케이션 전략(Communication), 개별화 전략(Customization),공동체 전략(Community)으로 컨텐츠 전략(Content)은 소비자들은 단순히 상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해결수단을 원하며, 사이버 환경에서는 상품 이전에 소비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와 상품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컨텐츠로 자사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는가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전략(Communication)은 웹사이트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상호작용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이 인터넷의 중요한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화 전략(Customization)은 고객의 취향, 기호 및 습관에 대해 DB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각 개인에게 특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 마케팅은 바로 개별화 전략이다. 공동체 전략(Community)은 최종적으로는 고객은 그 사이버 공동체에 소속되어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고객과 기업과의 관계 형성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14]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쇼핑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on-line과 off-line시장이 병행되고 있는 B2C 형태의 정보제공형 홈페이지들로 기업이나 브랜드를 소개하거나 홍보함으로써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거나 호의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인터넷 활동

---

10) 김중식(2001), “EC시대의 국제무역과 인터넷마케팅전략”, 무역학회지, 제26권 2호, p.24.
11) 천병극(1999), “전자상거래 시대의 국제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91-96.
12) 김중식(2001), “EC시대의 국제무역과 인터넷마케팅전략”, 무역학회지, 제26권 2호, p.16.
13) 김인구(2007), 《전자상거래론》, 형설출판사, pp.183-185.
14) 김인구(2007), 《전자상거래 개론》, 형설출판사, pp.182-183

목적이 있는 사이트들이다.[15] 이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간 또는 소비자와 소비자간의 상호작용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통적인 4P 전략과 4C 전략1W전략 그리고 중국의 특성인 1R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내 마케팅에서는 분권화된 중국의 행정관리체제, 당정관료의 개입성향, '꽌시'문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관계(relationship) 즉, 'R'이 중요하다. 중국에서의 'R'은 데이터 베이스, 양질의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한다는 CRM개념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국에서는 고객과 '꽌시'를 구축하여 정적인 의사 소통을 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16] 중국에서 꽌시 마케팅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시각 하에서 인맥을 구축하고, 이들의 신뢰를 얻고 친분을 쌓아 호혜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장 개척과 확장에 도움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꽌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가짜 제품이 많은 중국 시장의 풍토와 TV, 신문, 인쇄물 등 대중광고 매체를 잘 믿지 않는 중국인의 불신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많은 경우 광고를 봤더라도 친척.친지.직장동료 등 꽌시망 내에 있는 사람을 통해 상품의 품질을 확인한 후에야 구매를 한다. 이와 같은 탐문 소비 경향은 가전,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등 상품을 써봐야 품질을 알 수 있는 '경험재'의 경우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조사, 판매 촉진에 있어서 '꽌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소위 '꽌시'마케팅 전략을 수립.실행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 고객층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계층이나 비교집단에 의한 '구전 홍보'이다.

이상의 내용과 쇼핑센터의 비스니스 모델을 통해 쇼핑센터 중문 홈페이지에 대한 경쟁력 분석 평가 항목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 활용의 편의성, 2) 홈페이지 컨텐츠 충실도(신속성 및 이해성), 3) 홈페이지 내용과 구성의 참신성(디자인), 4) 게시판 운영 및 고객관리 충실도(신뢰감), 5) 정보 업데이트 여부, 6) 홍보 및 마케팅(비즈니스기능)

3. 쇼핑센터 중문홈페이지 장단점 분석

1) 디큐브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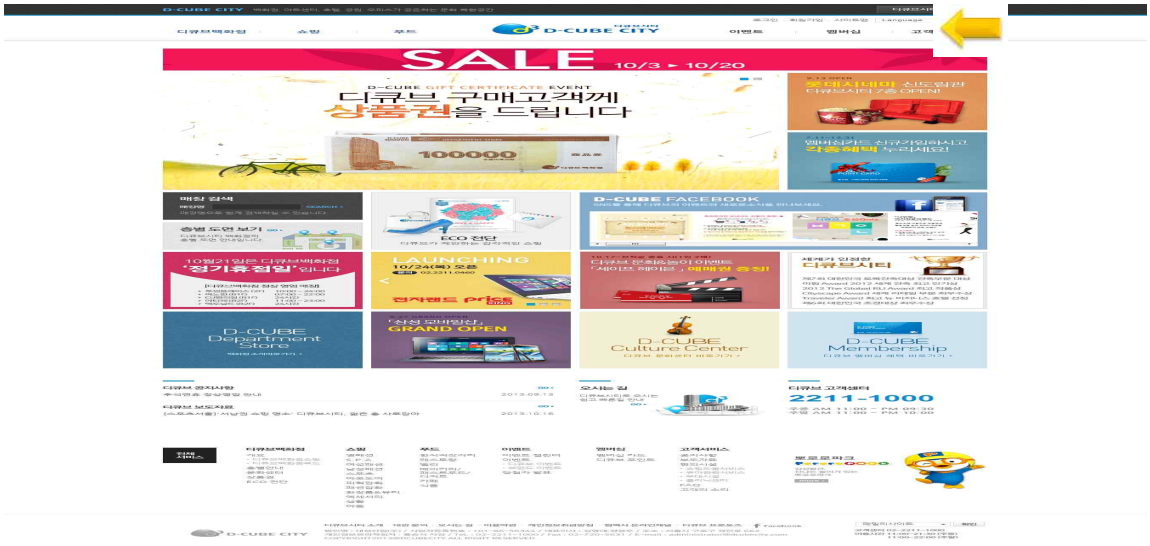
디큐브시티(D-CUBE CITY)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호텔과 백화점, 뮤지컬 전용 공연장, 사무동, 일반 주거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디큐브 백화점은 서울 구로와 경남 거제의 2개 지점이 있다.

디큐브시티 홈페이지는 왼쪽 첫 번째에 디큐브백화점의 개요, 층별안내, 문화센터, 상품권, ECO 전단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두 번째는 쇼핑공간에 관한 소개로 패션, 패션잡화, 화장품과 관련된 매장에 대한 소개가 있다. 세 번째는 푸드공간에 관한 소개로 입점된 매장에 대한 소개가 있다. 네 번째는 이벤트와 관련된 것을 소개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는 맴버십 카드와 포인트에 대한 소개가 여섯 번째는 고객 서비스 분야로 공지사항, 보도자료, 편의시설, FAQ, 고객의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페이지에서 중문

15) B2C e-비즈 모델은 포털, 온라인상점, 광고전용, 컨텐츠제공자, 거래중개자, 시장제공자, 서비스제공자, 커뮤니티 제공자로 나눠볼 수 있다.
16) 김익수(2008),《중국시장마케팅》, 박영사, pp.299-300.

사이트로의 이동은 상단의 오른쪽에 외국어로 바꾸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다.

[그림3-1-1] 디큐브시티 백화점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자료: http://www.dcubecity.com/opot/, 2013.10.14 검색

디큐브시티 홈페이지의 특징은 사이트 맵을 이용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클릭하면 쉽게 해당 정보를 찾고자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편리성에 있다. 배너는 사이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서 디큐브시티만의 장점인 부분에 대해 잘 홍보하고 있으며, 변동 사항을 수시로 바꿔 주고 있어 홈페이지를 홍보의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문 홈페이지에서도 메인페이지처럼 중요 사이트를 사이트 맵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갈수 있게 배너 형태로 올려놓고 있는데, 아래엔 바뀌기 전의 중문 홈페이지 구성이다. 바뀐 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바뀌기 전에도 역시 메인페이지에서 쉽게 찾고자하는 사이트로 갈 수 있게 구성해 놓았다.

[그림3-1-2] 디큐브시티 백화점 중문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이전)

자료: http://www.dcubecity.com/opot/, 2013.5.10. 검색

그러나 주제어만 올려놓아 찾으려고 하는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짐작하기에는 현재의 구성이 훨씬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주고 있다. 현재 중문 홈페이지는 각 중요 사이트에 대한 관련 사진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시각적인 요소를 잘 활용했다고 하겠다.

[그림3-] 디큐브시티 백화점 중문홈페이지 메인 페이지(현재)

자료: http://www.dcubecity.com/opot/, 2013.10.14. 검색

디큐브 시티의 홈페이지 구성은 다른 홈페이지들에 비해 젊은 감각을 많이 채용하고 있으며,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검색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윈도우 8의 사용에 따른 터치스크린 방식의 컴퓨터에서 쉽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 젊은 층을 겨냥한 복합 문화공간이라는 컨셉을 홈페이지 상에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Lotte Department Store) 본점은 남대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에 3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점포는 모스크바점, 베이징점, 톈진 동마로점, 톈진 문화중심점, 웨하이점, 하노이점, 자카르타점까지 총 7개이며, 이중 4개 점포가 중국에 있다.

백화점의 홈페이지답게 백화점의 전체적인 안내의 기능이 대부분이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는 계열사인 롯데 닷컴을 링크하여 할 수 있게 하였고 이곳에서는 쇼핑몰의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다. 첫 화면에는 지점안내, 쇼핑 가이드, 브랜드 안내, 문화센터, 고객센터, 상품권 등을 메인콘텐츠로 하여 백화점 고객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카탈로그를 점별로 볼 수 있게 하여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문 홈페이지의 이동은 메인페이지에서 바로 되지 않고 지점 안내 페이지를 클릭 후 지점 안내 페이지에서 찾아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그림3-2-1]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자료: http://www.ellotte.com/main.ldpm?&chlNo=66&chlDtlNo=194, 2012.10.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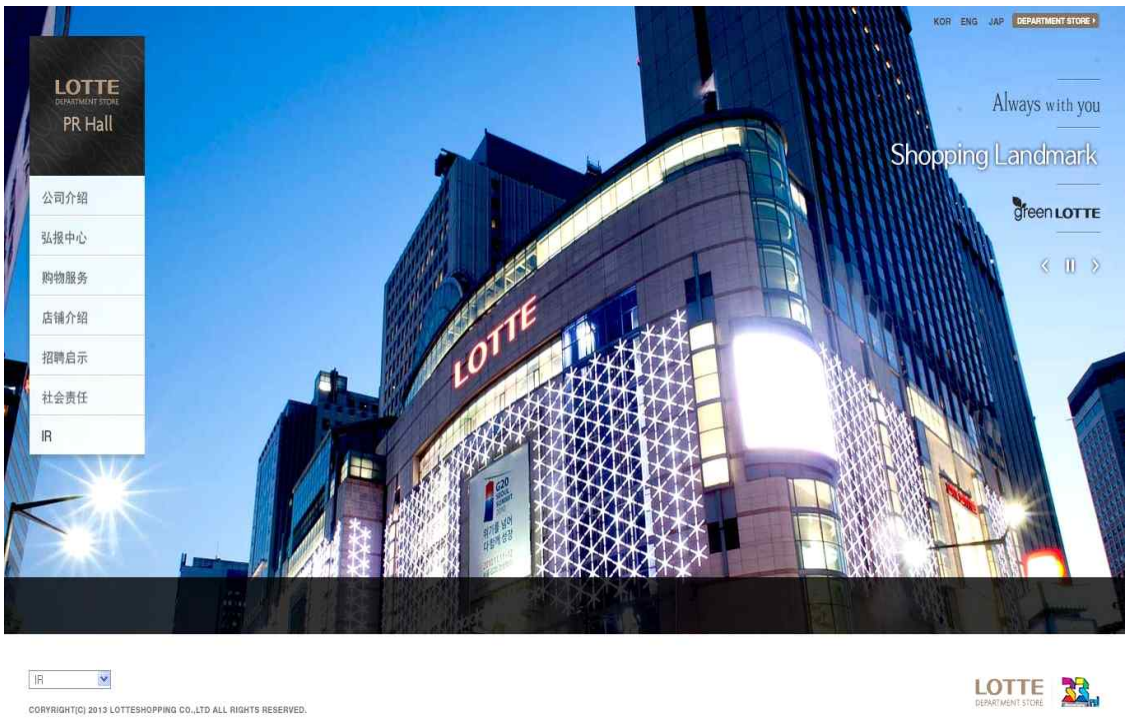
아래는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서브 페이지인 지점안내 페이지이다. 이곳의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면 중문사이트로 넘어가게 된다.

[그림3-2-2]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서브 페이지 지점안내

자료: http://store.lotteshopping.com/handler/Main-Start 2013.10.20.검색

롯데 백화점의 중문 홈페이지는 롯데의 PR용 페이지이다.

[그림3-2-3] 롯데백화점 중문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자료: http://store.lotteshopping.com/handler/AmbassaMain-StartCh, 2013.10.20.검색

[그림3-2-4] 롯데백화점 중국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자료: http://www.china-lotteshopping.com/main_cn/index_basic.php, 2013.10.18.검색

텐진동마로점과 텐진문화중심점은 같은 사이트에서 지점별로 검색할 수 있다. 베이징점과 웨하이점은 따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3-2-5] 롯데백화점 중국 베이징점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자료: http://www.intimelotte.com/, 2013.05.12.검색

3) 신세계 백화점

현재 신세계는 1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중 자가 건물은 서울 본점과 부산 센텀시티점, 용인시 경기점, 마산점 등 4곳에 불과하다. 신세계 영등포점의 경우 타임스퀘어에 입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3-3-1] 신세계 백화점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자료: http://www.shinsegae.com/, 2013.10.17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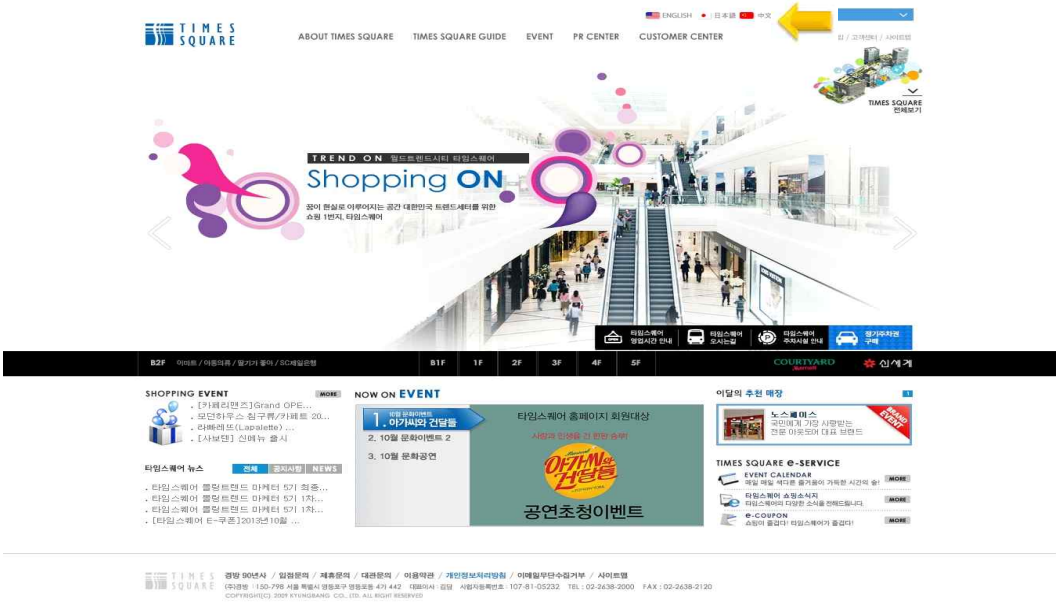
[그림3-3-2]신세계 백화점 중문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자료: http://english.shinsegae.com/chinese/main.asp, 2013.05.12. 검색

4)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Times Square)는 영등포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이다. 메리어트서울 호텔, 오피스 2개동, 신세계백화점, CGV 영등포, 이마트, 교보문고, 아모리스홀, 주요 패션브랜드와 잡화, 식음매장 등 약 200여개의 매장이 입점되어 있다. 그 중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기존의 경방필백화점을 신세계에서 위탁 경영하기로 계약한 후 타임스퀘어 개장을 대비해 매장을 통합했다.

[그림3-4-1] 타임스퀘어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자료: http://www.timessquare.co.kr/, 2013.10.18검색

[그림3-4-2] 타임스퀘어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자료: http://www.timessquare.co.kr/cn/, 2013.10.18검색

5) 현대 백화점

현대백화점(Hyundai Department Store Co., Ltd.)의 본점은 압구정에 있으며, 압구정 본점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 백화점 홈페이지에서 중문사이트로의 이동은 상단 오른편에 중국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화살표 옆)을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중국어로 현대백화점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뜨게 된다. 이곳의 내용은 주로 현대백화점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3-5-1] 현대백화점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자료: http://www.ehyundai.com/newPortal/index.jsp, 2013.10.18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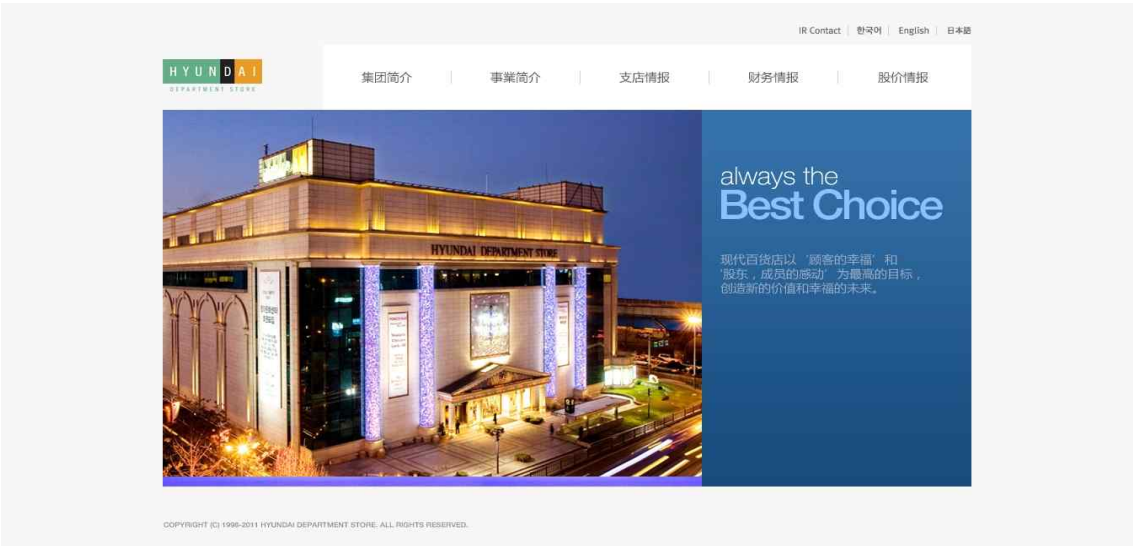
한국어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일 왼편을 클릭하면 현대백화점의 회사개요, 경영이념, 연혁, Vision 2010, CI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의 현대백화점그룹의 카테고리에는 그룹개요, 유통부문, 미디어부문, 종합식품부문, B2B부문, 미래성장부문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재무정보는 요약재무정보, 사업/감사보고서, 신용등급과 같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주가 정보에서는 현재가 정보, 일자별 주가, 투자자별 동향 등으로 카테고리가 구성되어 있다. 왼쪽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투자정보에서는 공시정보, 이사회 구성, 애널리스트 리포트, IR 주요일정, IR Contact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오른편에 있는 PR센터는 보도자료, 공고사항, 수상내역, TV광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어사이트에서는 한국어 사이트의 왼쪽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투자정보와 여섯 번째에 있는 PR센터가 빠지고 지점소개가 추가되어 총 5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어 페이지에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일 왼편을 클릭하면 그룹 소개를 클릭하면 회사개요, 경영이념, CI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의 사업 소개의 카테고리에는 기업 구조,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유통부문), 현대HCN(미디어부문), 현대Green Food(종합식품부문), 현대H&S(B2B부문), 현대 Dream Tour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왼쪽에서 세 번째에는 한국 페이지와는 다르게 지점 정보부분으로 현대백화점의 각 지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위치 및 층별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층별 매장에 대한 영문이름만 있다.

왼쪽에서 네 번째에는 재무정보가 있으며 요약재무정보, 대차대조표贷借对照表(번체자), 손익계산서损益计算书(번체자)과 같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 사이트에서의 사업/감사보고서, 신용등급 등의 내용을 빼고 대신 요악재무정보 안에 있는 내용을 세 개의 카테고리고 만들어 소개하고 있다. 왼쪽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주가 정보에서는 현재가 정보, 일자별 주가, 투자자별 동향 등으로 카테고리가 구성되어 있다.

[그림3-5-2] 현대백화점 중문홈페이지



자료: http://www.ehyundai.com/newPortal/ir/cn/main.jsp, 2013.10.18검색

다른 홈페이지와 다른 특징은 현대백화점 홈 페이지에서 중문사이트로 이동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그곳에서 많은 쇼핑정보와 지점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검색사이트에서 韩国旅游网 韩巢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림3-5-3] 현대백화점 팝업창

팝업창: http://cn.konest.com/cnevent/hyundai.html, 2013.10.21검색

4. 문제점 해결방안 및 전략

기업은 촉진(마케팅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상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커뮤니티 참여, 온라인 광고 게재, 인터넷 판매 촉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는 사용자들에게 기업과 그 기업이 취급하는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의 특성, 구매 방법, 가격 등을 소개하며, 재무실적보고서, 기업현황, 신제품 소개 세미나 개최 일시 등의 회사 뉴스 등을 올려 놓는다. 그러나 홈페이지 개설과 고객의 방문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메일, 우편, 휴대전화 메시지, 신문 및 잡지 광고, 온라인 광고, 뉴스, 동호회 등을 통해 잠재고객의 방문을 유도한다. 또한 기업은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게 하기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쇼핑센터 중문 홈페이지에 대한 경쟁력 분석 평가 항목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 활용의 편의성, 2) 홈페이지 컨텐츠 충실도(신속성 및 이해성), 3) 홈페이지 내용과 구성의 참신성(디자인), 4) 게시판 운영 및 고객관리 충실도(신뢰감), 5) 정보 업데이트 여부, 6) 홍보 및 마케팅(비즈니스기능)

[표4-1]쇼핑센터 중문 홈페이지에 대한 경쟁력 분석 평가 항목

	홈페이지 활용목적	편의성	충실도	참신성	고객관리 충실도	정보 업데이트	홍보 및 마케팅 기능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타임스퀘어							

향후 쇼핑센터의 e-비즈니스 전략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급화 전략을 취한다, 둘째. 일부 쇼핑센터의 경우 쇼핑공간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가상쇼핑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다양한 행사 및 소식을 제공. 넷째, 모바일을 이용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포인트를 쌓게 하여 구매에 이르게 한다.

중국 골프산업 발전에 따른 한국관광산업의 수익성 확대 방안 연구*

(China's Golf Industry Development and Profit of Tourism in Korea)

서창배**

Ⅰ. 序
Ⅱ. 중국 중산층 성장과 해외여행객의 증가
Ⅲ. 중국골프산업발전 및 골프인구 현황
Ⅳ. 중국인 골프인구 증가 전망과 한국의 유치 확대 전략
Ⅴ. 결론 및 시사점

<국문 요약>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중국인들의 해외관광도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2010년 5,739만 명, 2011년 7,025만 명, 2012년 8,318만 명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1억 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인 해외여행객들의 소비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이 단순한 단체관광형태에서 벗어나 레저형, 체험형 등으로 변화하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한국의 관광산업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중국의 골프인구 급증에 따른 전반적인 중국의 골프시장 규모는 매우 큰 성장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들의 유입이 매우 중요해졌다. 중국골프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골프인구는 2009년 300만여 명에서 현재 450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중국의 골프인구는 연평균 30%씩 급성장하고 있어 오는 2015년이 되면 총 3,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골프여행객은 동일지역 관광에 있어 일반여행객보다 20% 이상 더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 정부들도 이들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동 연구를 통해 중국 골프산업의 발전상황을 살펴보고 중국인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3년: 과제번호)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rainmaker@pknu.ac.kr

Ⅰ. 序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중국인들의 해외관광도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인 해외여행객의 수는 2012년 8,318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까운 시일 내에 1억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인 해외여행객들의 소비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이 단순한 단체관광형태에서 벗어나 레저형, 체험형 등으로 변화하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한국의 관광산업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골프인구 급증과 함께 전반적인 골프시장 규모도 매우 큰 성장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중국인 골프관광객의 유입이 매우 중요해졌다.

중국골프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골프인구는 2009년 300만여 명에서 현재 450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골프인구는 연평균 30%씩 급성장하고 있어 오는 2015년이 되면 총 3,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골프여행객은 동일지역 관광에 있어 일반여행객보다 20% 이상 더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 정부들도 이들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동 연구를 통해 중국 골프산업의 발전상황을 살펴보고 중국인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중국 중산층 성장과 해외여행객의 증가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정책의 추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지속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강화되었다.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수출규모 세계 1위, 무역규모 세계 2위, 외환보유고 세계 1위 등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지고 있다. 2010년 12월 IMF가 발표한 자료[3]에 따르면, 중국경제가 1% 포인트 상승할 경우 전 세계 GDP는 약 0.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경제는 미국경제의 침체, 유로존(Euro zone)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구원할 유일한 대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중국 고위관료들의 말 한마디에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최근에는 중국경제의 연착륙 또는 경착륙 여부를 놓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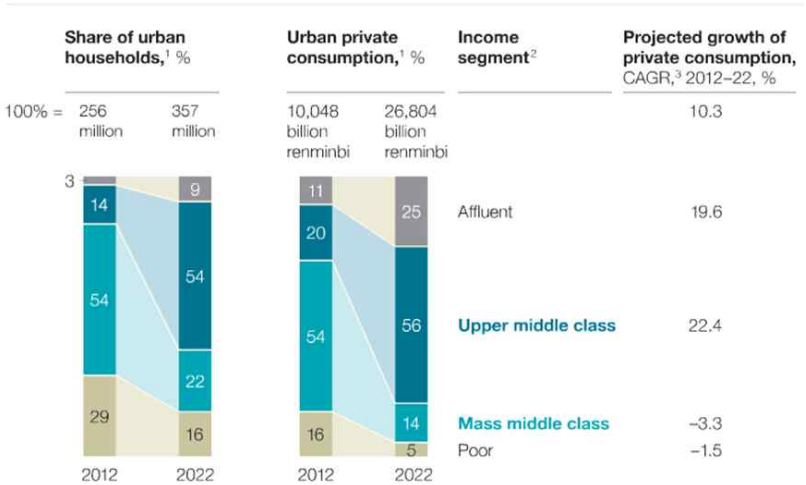
또한, 중국경제의 성장은 주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중산층(middle class) 증가와 소비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맥킨지(McKinsey) 보고서[4]에 따르면, 중국 도시가구 중 상위 도시중산층(Upper middle class) 가구의 비중은 2012년 14%(3,584만 가구)에서

3) Vivek Arora and Athanasios Vamvakidis, "Gauging China's Influence," IMF, *Finance & Development*, December 2010, Vol.47, No.4. [Online] http://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10/12/Arora.htm (: 2013. 10. 1).
4) Dominic Barton, Yougang Chen, and Amy Jin, "Mapping China's middle class," *McKinsey Quarterly*, June 2013. [Online] http://www.mckinsey.com/insights/consumer_and_retail/mapping_chinas_middle_class (검색일자: 2013. 10. 1)

2022년 54%(1억 9,278만 가구)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소비규모는 2012년 전체 소비대비 20%(2조 100억 위안)에서 연평균 22.4%씩 증가하여 2022년 56%(15조 100억 위안)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1> 중국의 중산층 성장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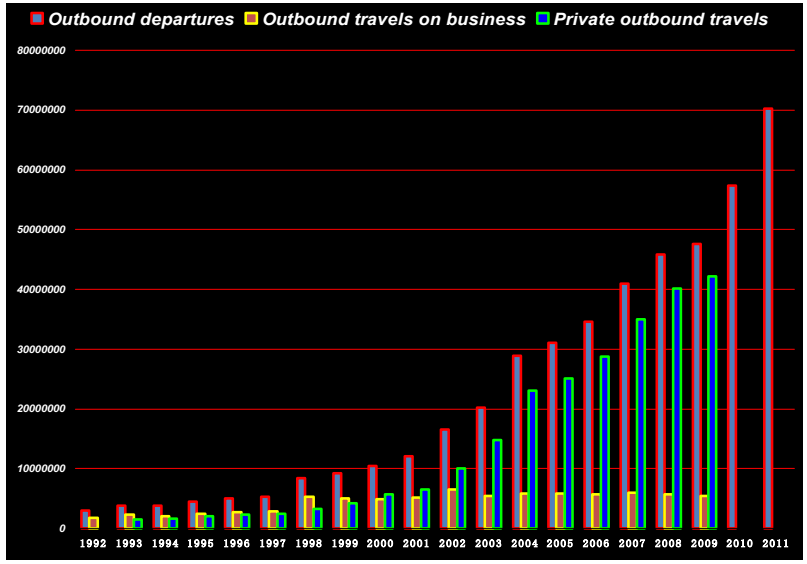
자료: Dominic Barton, Yougang Chen, and Amy Jin, "Mapping China's middle class," *McKinsey Quarterly*, June 2013.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중산층 인구의 증가와 함께 중국인들의 해외관광도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인 해외여행객 수[5]는 2007년 4,095만 명, 2008년 4,584만 명, 2009년 4,766만 명에서 2010년 5,739만 명을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5천만 명을 초과하였다. 그 후, 2011년 7,025만 명, 2012년 8,318만 명[6]으로 급증하고 있어 조만간 1억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인 해외여행객들의 소비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4월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中国社会科学院 旅游研究中心)가 발표한 자료(2011 중국인 해외관광발전보고)에 따르면, 중국인의 해외여행 소비액은 480억 달러로서 세계 4위 수준을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5) 统计局 编, 『中国统计摘要 2013』, 北京:中国统计出版社, 2013, p.156.
6) 2010년 중국정부가 전망한 중국인의 해외여행자 수는 2011년 6,500만 명, 2015년 8,375만 명이었으나, 2012년 이미 8,318만 명을 기록, 전망치를 초과 달성하였음을 놓고 볼 때 중국인의 해외여행자 수가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반영해주고 있다.

<그림-2> 중국인 해외여행자 수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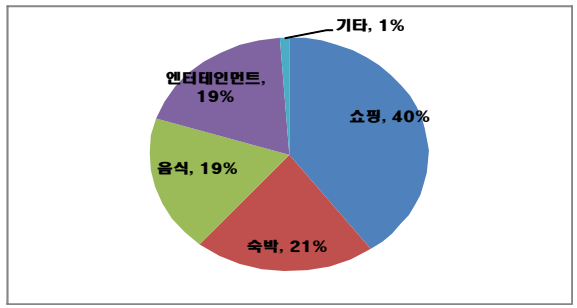


자료: Zhang Guangrui(张广瑞), "China'S Tourism Development & Tourism Collaboration In Asia," *presented in 2012 International Tourism Forum in Asia*(Gyeongju, Korea), 2012. 6. 29.

보스턴컬설팅그룹(BCG) 발표에 따르면, 중국인 해외여행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소비지출이 일본의 3배에 달하고, 해외여행자의 수도 미국인들과 비슷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2020년이 되면 한국과 일본을 찾는 해외여행자의 1/4이 중국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3>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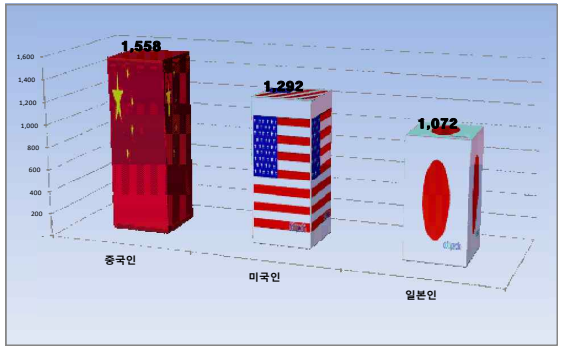
(단위: %)



자료:「유로저널」, 2011.5.10.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관광객 수의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인 해외여행객의 증가와 함께 그들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소비구조의 특성 때문이다. 중국인 해외관광객들은 해외에서 소비하는 지출비용 중 40% 이상을 쇼핑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3 참조), 일본인 관광객(22%)의 약 2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규모는 1인당 평균 1,558달러에 달해 미국인(1,292 달러) 및 일본인(1,072 달러) 관광객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이러한 점들을 놓고 볼 때, 제주도에 있어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그림-4> 한국방문 주요 외국인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 (2010년 기준)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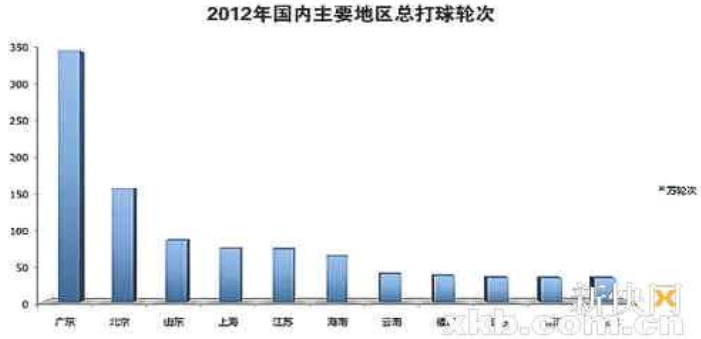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Ⅲ. 중국골프산업의 발전 현황과 골프인구의 증가

1. 중국골프산업 현황

골프가 중국에 전파된 것은 19세기 말로 알려지고 있으나,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그동안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은 스포츠·레저산업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0년 1월 22일, 허원이(何文義) 중국체육산업발전연구중심 주임은 "중국의 스포츠 및 관련 산업규모는 향후 2조 위안(약 36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정부가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중국의 스포츠·레저산업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골프장 건설 및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성(廣東省)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골프인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에는 최소 75개에서 최대 100개의 골프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소득수준 향상과 골프인구 증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 2012년 중국 주요 지역별 골프횟수 비교



중국의 골프인구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측의 환경오염, 반부패정책 등에 따른 신규 골프장 건설 제재에도 중국 고소득층의 소비수준 향상 등으로 골프를 즐기는 소비인구와 관련 산업이 연간 20~30% 이상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함. 또한, 중국 내 스포츠채널 골프경기 방영 등으로 더욱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7]. 중국골프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골프인구는 2009년 300만여 명에서 현재 450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1 참조). 이에 따라, 골프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3%에서 0.34%로 증가하였다. 현재 중국의 골프인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廣州), 션쩐(深圳) 등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연평균 30%씩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골프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5년이 되면 중국의 골프인구는 총 3,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2년 골프 핵심인구(연 8회 이상 골프장 출입)는 38만6000명으로 2011년 35만8000명 대비 7.5%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광둥·베이징·강소성·산둥·상하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골프 인구의 골프 관련 소비액은 연 5만 위안 이하가 전체의 75%를 차지했으며, 1만~3만 위안 비중이 31%에 달했다. 골프 소비자는 중년층과 잠재고객 청년층으로 남성 소비자 중심이며, 고수입·고학력 위주 소비계층으로 해외 브랜드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8].

<표-1> 중국골프시장의 발전과정, 현황 및 향후 전망

기간	주요 발전 내용	비고
1982	▪ 중국 최초 골프장 건설 발표	▪ 심천CC
1984	▪ 중국 최초 골프장 설립	▪ 中山溫泉CC
1984~1994	▪ 중국내 골프장 수: 16개	
1995~2003	▪ 약 170개 골프장으로 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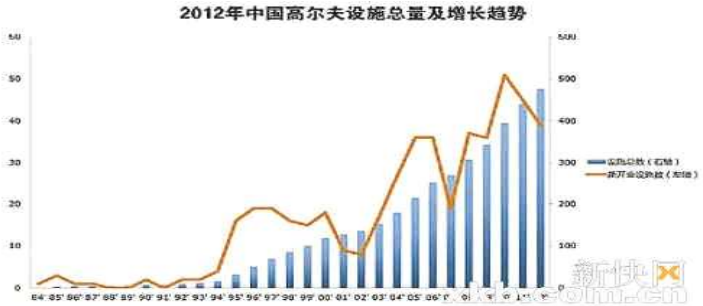
7) KOTRA,
8) KOTRA,

2009	▪ 영업 중인 골프장: 348개 / 7,772개 홀 보유 ▪ 골프인구: 약 300만 명	▪ 18홀 기준으로 환산 시, 약 432개 골프장 ▪ 2008년 대비 신설골프장 수 11.5% 증가, 골프인구 수는 22.7% 증가
2011	▪ 골프장 450개 내외로 추정 ▪ 골프인구: 약 450만 명	▪ 2009년 대비 신설골프장 수: 100개 이상
2004 ~2010	▪ 600여 개 이상으로 추정하는 보고서도 존재	▪ 정식 승인된 골프장은 10개 내외, 나머지 97%는 비승인(黑戶) 골프장
2011 현재	▪ 454개 골프장/ 10,506홀 건설 중인 것으로 추정	▪ 1984~2011 기간동안 건설된 골프장 수만큼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추정
~2015년까지	▪ 약 2,700개 예상 ▪ 약 3,000만 명 예상	

자료: 中國高尔夫産業網(www.chinagolf.cc)에서 발표된 "高尔夫地产十年增长"(2012.3.13); "高尔夫运动和高尔夫旅游的发展分析"(2012.3.19) 참조.

골프인구의 증가와 함께 골프장의 수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골프산업망(www.chinagolf.cc)에 따르면, 1984년 중산원취엔(中山溫泉)CC의 등장으로 시작된 중국의 골프장 수는 1984-1994년 기간 동안 16개가 건설된 이래 급증하여 2009년에는 348개(7,772홀)를 보유하게 되었다. 2011년 최소 454개(10,506홀)에서 최대 600여개 이상의 골프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표 1 참조).

<그림-6> 2012년 중국 골프시설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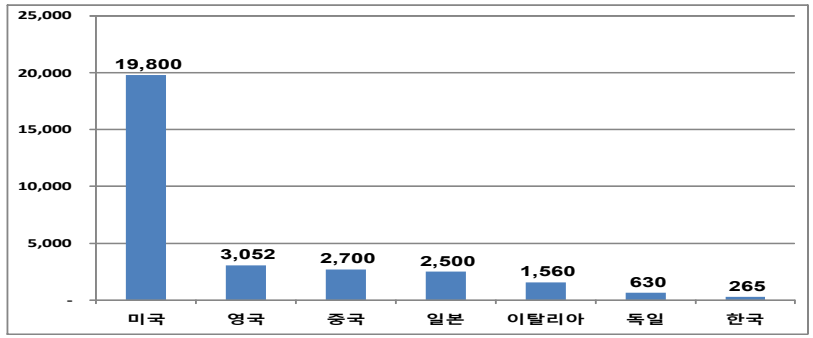
2012년 중국 골프산업백서(向白皮书—中国高尔夫行业报告)에 따르면, 2012년 중국 골프장은 총 477곳으로 홀 개수는 총 1만570개이며, 홀이 18개 이상인 곳은 587개, 새로 개장한 골프장은 총 39개로 나타났다. 중국은 2004년 '신규 골프장 잠정중단에 관한 통지'를 통해 골프장 신규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후 10여 차례 관련 정책을 발표했으며, 최근 단속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2011년 신규 개장 골프장이 45개, 2012년에는 39개로 감소하였다. 2012년도 신규개장 골프장도 정부 단속에 따라 대부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정부 반부패정책에 따라 골프장 등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VIP카드를 없애는 등의 조치로 실외 골프장보다 대도시 중심의 실내 스크린 연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9]. 그러나 중국골프장에 대한 통계수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정식 승인된 골프장이 10개 내외(3%)인 것에 비해 나머지 97%가 비승인(黑戶) 골프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골프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골프장은 1984-2011년 기간동안 건설된 골프장 수만큼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2000여개의 골프장이 추가 건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중국의 골프장 수는 약 2,700개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전세계 골프시장 규모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기준으로, 전세계 골프장 수는 총 31,548개이며, 그 중 중국(348개)의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이르며 아시아 전체(3,785개)에서는 9.2%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미국 19,800개(1위, 62.8%), 영국 3,052개(2위, 9.7%), 일본 2,500개(3위, 7.9%), 이탈리아 1,560개(4위, 4.9%), 독일 630개(5위, 2.0%)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술한 국가들의 경우 상당부분 이미 포화상태에 직면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에서 신설 골프장 건설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전망되는 바와 같이 2015년까지 중국의 골프장이 2,700개로 증가한다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로 증가하여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7> 중국과 전세계 골프장 수 비교 (2009년 기준)

(단위: 개)



주 : 중국은 2015년까지의 전망치 기준임.
자료: 中國高尔夫産業網(www.chinagolf.cc)

한편, 골프용품의 경우, 중국은 최대 생산지이긴 하나 주요 고급제품들은 대부분 해외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 중저가 골프용품 생산의 80%가 중국에서 OEM 생산되고 있고, 광둥성 동관시의 탕샤현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전 세계 골프용품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둥, 홍콩 등지에 모조제품도 상당수 유통되는 실정이다. 중국 내 판매되는 고급 골프브랜드는 Dunlop(영국), Callaway(미국), Adidas(독일), Nike(미국), Ben Hogan(미국), Mizuno(일본), MacGregor(미국), Honma(일본) 등이 있음. 한국브랜드로는 Bigyard(골프용품), Vulcan(골프용품) 등이 있다.

9) KOTRA,

<표-2> 중국내 판매되는 골프브랜드 주요 내용

브랜드(국별)	제품	이미지	규격	가격
Dunlop (영국)	골프공		투피스볼	6.5위안/개
PGM (미국)	골프공		3피스볼	3.8위안/개
Callaway (미국)	골프클럽세트		클럽12개+ 퍼터1개+ 케디백	10700위안/세트
GURO NEKO (중국)	골프클럽세트		클럽12개+ 퍼터1개+ 케디백	888위안/세트
Vulcan (한국)	골프클럽세트		클럽5개+ 퍼터1개+ 케디백2개	2550위안/세트
Mizuno (일본)	골프장갑		재질: 합성피혁	165위안/개
Aerfala (한국)	골프티셔츠		-	289위안/개

자료: 칭다오 무역관 자체조사.

Ⅳ. 중국인 골프인구 증가 전망과 한국의 유치 확대 전략

전술한 바와 같이, 골프인구, 골프장 건설 등 전반적인 중국의 골프시장 규모는 매우 큰 성장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3월 18일 폐막된 '2012년 중국국제골프박람회'에 참여기업의 수도 2011년 360개 기업에서 올해 400여개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약 30% 가까이 증가하였다. 중국국제골프박람회는 2002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베이징과 광저우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골프박람회로서, 중국골프산업의 선도적인 무역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박람회에는 혼마, 타이틀리스트 등 세계 유명 골프업체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총 관람인원의 수도 14,771만 명을 기록함으로써 중국골프시장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광동성 동관(东莞)지역에는 세계 총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는 130개 이상의 골프용품 제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중국은 골프용품관련 "세계의 공장"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통계기관에 따르면, 골프여행객은 동일지역 관광에 있어 일반여행객보다 20% 이상 더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골프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고 중국골프여행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나날이 커져감에 따라 국제적인 여행사들은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주중미국대사관이 직접 나설 정도로 중국인 골프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중국국제골프박람회에 미국의 관련업계도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여 미국 골프여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중미국대사관 상무참사관은 중국인 골프여행객을 위한 미국비자 간소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샌프란시스코 관광과 함께 미국 와인생산지와 와인시음 등으로 이어지는 색다른 골프여행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크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괌 관광국은 2시간의 시차, 베이징과 5시간 이내 거리, 총 7개 180홀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골프장, 쇼핑 편의성 등을 장점으로 적극 홍보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해외골프여행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전망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적극적인 유치작업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골프인구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중국의 골프인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쩐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평균 30%씩 급성장하여 2015년이면 3천만 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유치는 제주도 지역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주민소득수준의 증가는 해외골프여행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4,500 달러를 이미 넘어섰으며 중국의 골프장이 집중되어 있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1인당 GDP는 각각 11,524 달러, 11,543 달러, 24,240달러 등을 기록 중이다. 이와 같은 소득수준의 향상은 다시 해외여행객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과거와 같은 단순한 일반관광에서 벗어나 각종 스포츠·레저를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여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골프산업망에 소개된 <중국골프운동과 골프여행 발전분석>(2012.3.19) 논문도 중국은 현재 골프와 여행이 결합된 새로운 여행형태로 진일보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현재 중국의 골프인구는 대부분 고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들의 소비수준도 매우 높아 골프산업 외에 쇼핑, 카지노, 요식업 등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장기적인 미래에는 중국골프도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골프시장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성장 중에 있는 상태로서 귀족스포츠로까지 불리고 있다. 이는 후베이성(湖北省) 최초의 정식 승인된 골프장인 홍리엔후CC(红莲湖高尔夫球场)의 수입구조를 통해서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6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동 골프장의 연간 수입액은 9,880만 위안(약 178.6억 원)이며, 그 중 회원가입 수입 8,280만 위안(약 149.7억 원), 연회비 600만 위안(약 10.8억 원), 그린피 수입 약 1,000만 위안(약 18.1억

원)을 기록 중이다. 그 중, 그린피 수입을 회원 1인당 연평균 소비지출로 환산하면 대략 33,000위안(약 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내 샐러리맨들의 평균 연간 소득과 맞먹는 수준으로 일반 서민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골프여행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고소비 계층을 유입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해외골프여행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도 적극적인 유치작업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 비자면제 지역인 제주도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중국인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도는 중국인 골프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이다. 중국 베이징을 기준으로 제주도까지의 비행시간은 2시간 30분이며 시차도 1시간에 불과하다. 둘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중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도 큰 매력이다. 셋째,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골프를 즐기며 바다 풍광을 쉽게 볼 수 있는 점이다. 넷째,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에 힘입어 골프비용이 크게 비싸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골프장의 18홀 기준 평균 비용(그린피, 캐디피, 식사 등 포함)은 최소 600위안/인(약 11만원)에서 최고 2,500위안/인(약 45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놓고 볼 때, 한국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중국이 비싼 상태이다. 다섯째, 전체 면적에 비해 제주도가 다수의 골프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에는 총 25개의 골프장이 존재하며 회원제 549홀과 대중제 96홀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골프코스를 체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표 2 참조). 여섯째, 중국보다 고급스런 제주도만의 서비스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다수 보고서들은 중국 국내 여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낮은 서비스 수준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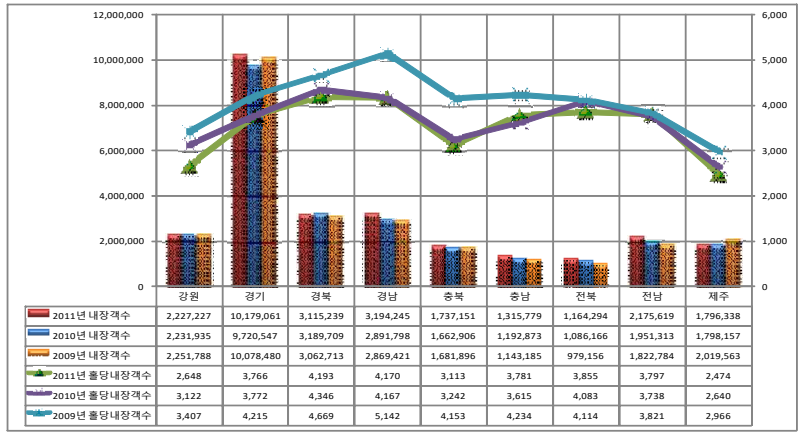
<표-3> 제주도 골프장 현황

골프장명	규 모	골프장명	규 모	골프장명	규 모
나인브릿지	(18+6)	더클래식	(18+0)	라온	(27+0)
라헨느	(18+0)	레이크힐스제주	(27+0)	롯데스카이힐제주	(27+9)
블랙스톤	(18+9)	사이프러스	(27+9)	세인트포	(36+0)
스프링데일	(18+0)	아덴힐 R&G	(18+0)	에버리스	(18+9)
엘리시안제주	(27+9)	오라	(36+0)	우리들	(18+0)
제주	(18+9)	제피로스	(18+0)	중문	(18+0)
캐슬렉스제주	(18+9)	크라운	(18+9)	타미우스 G&B	(27+0)
테디밸리	(18+0)	핀크스	(18+9)	한라산	(18+0)
해비치(제주)	(27+9)				

주 : 총 25개 골프장, (549+96)홀 규모; ( )안은 (회원제+대중제)를 의미.
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내방객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골프장의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직결되는 내방객 현황을 놓고 볼 때(그림 8 참조), 제주도는 여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2009년과 비교하여 -12.3%라는 다소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2011년에도 전년대비 -0.1%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섬지역의 특성상 제주도의 접근성이 다른 여타지역에 비해 떨어진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 내방객 감소 추세를 설명하기는 다소 역부족이다.

<그림-8> 최근 3년간 전국골프장 내장객 현황 (2012.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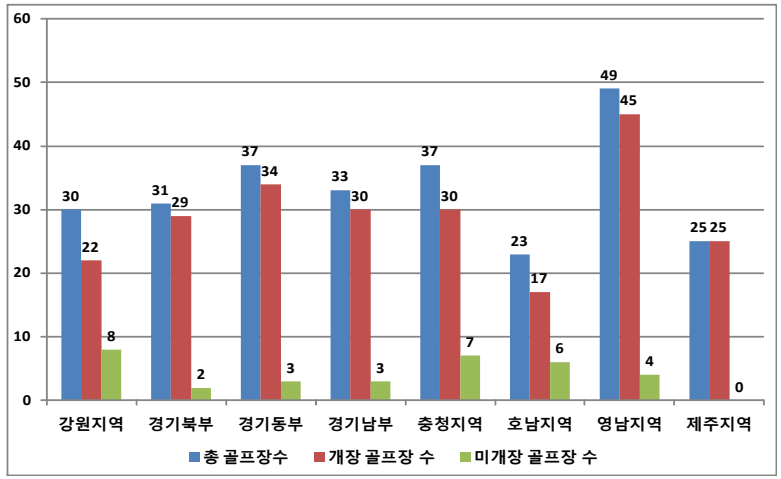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2011년 내장객수	2,227,227	10,179,061	3,115,239	3,194,245	1,737,151	1,315,779	1,164,294	2,175,619	1,796,338
2010년 내장객수	2,231,935	9,720,547	3,189,709	2,891,798	1,662,906	1,192,873	1,086,166	1,951,313	1,798,157
2009년 내장객수	2,251,788	10,078,480	3,062,713	2,869,421	1,681,896	1,143,185	979,156	1,822,784	2,019,563
2011년 홀당내장객수	2,648	3,766	4,193	4,170	3,113	3,781	3,855	3,797	2,474
2010년 홀당내장객수	3,122	3,772	4,346	4,167	3,242	3,615	4,083	3,738	2,640
2009년 홀당내장객수	3,407	4,215	4,669	5,142	4,153	4,234	4,114	3,821	2,966

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도지역의 골프장은 규모 면에서 볼 때 국내 전체골프장(총 265개)에서 9.4%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와 영남지역을 제외한다면 국내 여타지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상태이다(그림 9 참조). 특히 미(未)개장 골프장과 지역별로 더욱 세분화할 경우 오히려 제주도의 골프장 규모가 더욱 앞선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제주도 골프장이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도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9> 한국의 골프장 현황 (2012.3월 기준)



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이에 향후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의 지자체들이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감동' 서비스전략을 구사하자! 즉 중국인 골프여행객만을 위한 보다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인 골프여행객을 중심으로 한 살롱개념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즉 "당신만이" 받을 수 있는 소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골프는 아직까지 귀족스포츠로 분류되고 있고 해외골프여행객들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의 상류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다수 골프인구는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일회성 여행객들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airport to airport' 서비스를 철저히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하면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과거 저발전 상태의 중국인들을 대하는 듯한 태도를 아직까지 보이는 곳이 만연해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자세는 언제든지 무의식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생활회화가 아닌 기본적인 **중국어 골프용어을 충분히 습득하자!** 한국인들이 중국 골프여행에서 캐디의 기본적인 한국어 골프용어를 듣고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인들도 언어적인 소통문제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자체로도 유쾌하지 못할 것이다. 다수의 중국인 골퍼들이 영어를 구사하긴 하나 자국의 언어를 활용함에 따라 친밀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최근 다수의 골프장에서 중국어 또는 영어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곳에서 부족함을 느낀다. 특히 생활회화보다도 골프 기본용어를 집중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하오무(一号木) = 드라이버), 치하오티에(七号铁) = 7번 아이언, 시아포(下坡) = 내리막 라이, 우간동(五杆洞) = 파 5홀 등이다. 또한, 자유여행에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중국어 관광안내원을 주요 지역별로 적극 배치하는 노력도 절실하다고 본다.

셋째, 지자체와 골프장이 연계된 유치전략을 추진하라! 중국의 대도시 또는 성두(省都)를 중심으로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골프장이 연계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골프인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쩐 등 대도시 또는 각 성두(省都)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골프장별 홍보는 비용은 크게 드는 반면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지자체(제주도)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지역별로 몇몇 골프장들이 연합하여 공동 홍보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중국문화의 특성상 개별 골프장들의 분산된 홍보 전략은 비용만 많이 소요될 뿐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동시에 제주도내 골프장간의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자칫 역효과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넷째, 골프장들의 개별 전략으로는 **중국내 골프장과의 자매결연 등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라!** 복수의 골프장들이 연합하여 MOU를 체결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 오크밸리와 중국 푸춘리조트 회원교류 제휴 등 일부 골프장들을 중심으로 한-중 골프장간의 MOU 체결이 존재하긴 하나 주로 한국회원의 중국내 회원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한-중 회원간의 상호 회원우대(그린피 및 게스트룸 포함)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한국내 회원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베이징 주변에 소재하는 징난(京南)골프장이 이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다섯째, 골프아카데미 또는 원포인트 렛슨이 가능한 캐디를 육성하라! 중국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집중 육성한다면 미래의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인들은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외국인 코치 또는 외국에서의 연수를 선호하는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전략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골프아카데미를 통한 전략은 3~5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것이다. 이 경우, 렛슨을 함께 할 수 있는 캐디의 집중 육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많은 골프장들은 캐디를 A부터 C등급까지 구분하여 캐디피 등 차별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물론 A등급은 정확한 캐디 역할은 물론이고 원포인트 렛슨까지 가능해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여섯째, 차이나 주간(China's Week) 또는 차이나 데이(China's Day)를 적극 활용하자! 즉 중국인 골퍼들이 보다 편안하고 여유 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해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골프장들의 지나친 복장 규제, 타이트한 시간 배정 등을 China's Day를 통해 다소 완화해주는 것은 어떨까? 특히 여름시즌만이라도 남성의 반바지 착용이 가능하도록 보다 포용하는 문화가 아쉽다.

일곱째, 클럽하우스를 국제화하자! 언어는 물론이고 음식에서도 전통 중국식의 스낵류를 도입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인 골퍼의 쇼핑 편의를 위한 이동식 명품관의 운영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든 카트에서 직접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작은 감동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본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중국시장은 소비 확대와 함께 전통소비를 新소비가 대체하며 선택적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소비구조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 및 지자체들도 중국인들의 소비유형이 고급화 및 차별화된 일종의 '문화 웰빙 소비트렌드' 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관광객 맞춤형의 안전하고 유익하며 건강한 콘텐츠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확대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전략을 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인 골프관광객 유치도 장기적인 전략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각종 제재정책에도 소득향상 및 골프 대중화로 중국 골프시장은 중· 장기적인 시장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중국은 아직까지 골프용품과 관련하여 국내시장을 주도하는 국내 브랜드가 없고 소비자들의 뚜렷한 선호도가 없는 진입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우리 제품에 대한 확고한 고급이미지 구축과 함께 중국내 아직 부족한 관련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진출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로의 중국인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바다를 보고 동경한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많은 골프장들은 매우 유리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 골프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의 외형적인 측면보다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일회성 차원의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 전략은 자칫 '소탐대실(小貪大失)'로 이어져 영원히 기회를 잃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골프여행객이 일반여행객보다 20% 이상 더 소비한다는 점, 중국인 골프여행객

들의 특성 등과 함께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 수립을 통해 '소실대탐(小失大貪)'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Dominic Barton, Yougang Chen, and Amy Jin, "Mapping China's middle class," *McKinsey Quarterly*, June 2013. [Online] http://www.mckinsey.com/insights/consumer_and_retail/mapping_chinas_middle_class (: 2013. 10. 1)

Ivan Tselichtchev. (2012). *China Versus the West: The Global Power Shift of the 21st Century*, Singapore: John Wiley & Sons Singapore Pte. Ltd.

Vivek Arora and Athanasios Vamvakidis, "Gauging China's Influence," IMF, *Finance & Development*, December 2010, Vol.47, No.4. [Online] http://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10/12/Arora.htm (검색일자: 2013. 10. 1).

Zhang Guangrui(张广瑞), "China'S Tourism Development & Tourism Collaboration In Asia," *presented in 2012 International Tourism Forum in Asia*(Gyeongju, Korea), 2012. 6. 29.

「2012高博会闭幕 举办活动20余场共14471人次参观」, 『新浪高尔夫』, 2012.3.18.

「高尔夫运动和高尔夫旅游的发展分析」, 『中國高尔夫産業網』, 2012.3.19. [Online]. Available: http://www.chinagolf.cc

「高尔夫地产十年增长」, 『中國高尔夫産業網』, 2012.3.13. [Online]. Available: http://www.chinagolf.cc

「高尔夫地产十年增长」, 『总监网』, 2012.3.13.

「美国高尔夫旅游力拓中国市场」, 『人民日报海外版』, 2012.3.22.

『유로저널』, 2011.5.10. [Online]. Available: http://www.eknews.net

김애경. (2008). 중· 한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2012 골프장 관련업체 가이드북』, 209-243. 서울: 도서출판 오름.

刘远忠. (2012.3.21). "世界工厂"走出的高尔夫产业名镇, 『中新网东莞频道』, 2012.3.21.

서창배. (2012.04.13). 제주도의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포럼」, 41: 48-57.

심재희. (2013.5.31). 中 골프시장을 주목하라, 『KOTRA 해외시장정보』, 2012.5.31. [Online]. Available: http://www.globalwindow.org

杨石文. (2012.3.15). 高尔夫未来：尊重历史 传承传统, 『高缘网』, 2012.3.15.

이주영. (2013.1). 커피 전문점 선택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26: 129-151.

주성환· 강진권. (2013.1). 한중경제관계 확대의 정치적 효과, 「한중사회과학연구」, 26: 21-46.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11). 『2012 골프장 관련업체 가이드북』. 성남: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Online]. Available: http://www.kgba.co.kr/ [2012.3월 기준].

중국 집단시위 비확산 원인과 양보전략

김 진 용
사회과학원
conan@korea.ac.kr

본 논문은 중국의 집단시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지역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의문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전략'과 중앙-지방 각자의 이익 부합으로 파생된 '양보전략'의 혼용으로 인해 중국의 집단시위가 저지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분권화라는 제도적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동학(dynamics)으로 파생된 양보전략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중앙정부는 하부 단위(low-level)의 지방정부에 집단시위 통제 자율권을 부여해 강제력 혹은 양보로 처리함으로써 지방에서 급증하는 시위를 감소시켜 당-국가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중앙으로부터 자율권을 부여받은 지방정부가 시위 통제의 주요 행위자가 되어, 강제력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더라도 그 책임은 지방정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시위 통제 중 파생될 수 있는 당-국가 체제의 비난과 같은 부작용의 회피가 가능하다. 반면, 지방정부는 시위 통제 실패 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개입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 지방의 자율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사용하기 조심스럽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정부는 시위대에 양보함으로써 얻는 잠재적 편익이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부담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보다 크다고 느낄 때,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강경 대응보다 온건한 대응을 함으로써 양보전략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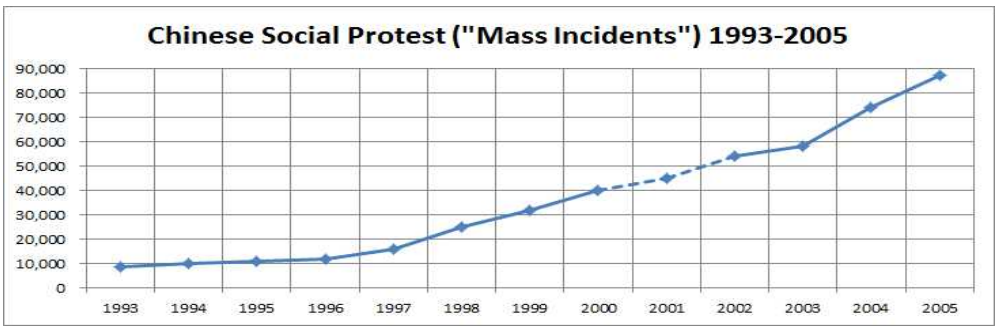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폭발적인 시위의 증가와 체제 안정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강제전략과 양보전략의 완급을 조율하며 체계적으로 집단시위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향후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용어: 집단시위, 시위 확산, 강제전략, 양보전략

I. 서론

1. 문제 제기

1990년대 이후 신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개혁·개방이 확대, 심화되면서 중국의 집단시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중국 전역의 500명 이상 노동자, 농민, 지역 주민이 참여한 집단시위는 1993년 8,700건에서 1999년 3만 2,000건 이상으로 증가해 7년간 3배가 늘었고, 2002년에는 5만 4,000건, 2003년에 5만 8,000건에 달한다. 그리고 2004년에 7만 4,000건, 2005년에는 8만 7,000건으로 급증했으며 2006년에는 9만 건을 초과했다. 즉, 최근 20년간 시위 건수는 연평균 17%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Tanner 2005, 14; 陳利華 2005b; 張傳鶴 2010, 42; 徐行, 王海峰 2010, 69).[1)]



<그림 1> 1993-2005년 중국의 집단시위(2001년 자료는 이용불가)

출처: Tanner, Murray Scot. 2005. "Chinese Government Responses to Rising Socia l Unrest."Rand ; 陳利華. 2005b. "中國群體性事件10年增 6 倍." 新華網(July 31) 자료를 기반으로 500명 이상의 집단시위를 재구성.

중국에서는 집단시위를 군체성사건(群體性事件)이라 하며, 500명 이상 참여한 시위를 대형시위(重大群體性事件)로 간주하고 1,000명이 넘어가면 초대형시위(特別重大群體性事件)로 간주한다(言牛, 林海 2009, 7-9). 이렇듯 급속한 시위의 증가와 더불어 학생, 농민, 노동자가 포함된 대규모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과거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공권력에 대항해 지방정부 청사와 공안국 등 관공서를 공격하며 폭력 시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역시 인민경찰, 무장경찰을 동원해 실탄 발포뿐 아니라 탱크, 장갑차까지 동원해 시위대와 대치하는 등 양자 간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곤 한다.[2)]

---

1) 집단시위 수치에 대해서 중국 공안부가 2004년 이후에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다. 가장 최근 중국 측에서 발표한 수치는 2005년 발표한 것으로 1993-2003년 집단시위는 1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참가인원은 73만 명에서 307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 만한 것은 대다수의 시위는 농촌 당 간부들의 부패와 전횡, 불합리한 노사관계, 토지 강제 환수, 무리한 집단 이주, 급격한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지 주민과 공안기관

중국처럼 대중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 인민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법으로 법률, 미디어, 상팡(上訪: petition)[3]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점증하는 인민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4] 이 때문에 인민들은 최후의 선택으로 시위와 같은 불법적이며 비제도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 촌락, 혈통과 같은 친숙한 사회 구조는 시위활동을 위한 일종의 기틀(framework)을 제공해 주어(Perry 1985, 439), 시위 촉매제 역할을 한다.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합법적 경로를 통해 시민의 문제 해결이 제한될 때 시민은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저항에 의존하게 된다. 시민의 저항이 광범위하게 되었을 때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고 시위를 통해 정책을 변화시킬 정당성을 얻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Cai 2007, 174-175).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집단시위는 인민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과 유사한 동구의 사회주의 정권은 수십 년간 군과 경찰이라는 억압적 국가기구(Repressive State Apparatus)[5]에 의한 체제 유지에도 불구하고(Althusser 1971),[6] 아래로부터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민주화로의 이행이 가능했다. 반면, 중국은 급속한 시위증가와 더불어 대규모의 산발적인 저항은 있지만, 저항이 지역적, 계층적 확산 단계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 농민 등의 단일 계층에서의 시위 발생 빈도는 높지만, 지속적이며 지역·계층 간의 연계가 있는 시위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좀처럼 발생하지 않고 있다. 즉, 노동자-농민-지식층으로 구성된 범계급적 연계와 범지역적인 전국 규모의 시위확산[7]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8]

립셋(Lipset)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수준이 증대하고 민주적 문화에 조응

유혈 충돌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3) 상팡은 중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로 하급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각 지역의 민원인들이 상급기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4) 서구 사회에서는 투표라는 전통적 활동을 통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질적으로 서로 다른 단계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정책결정자의 선택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Inglehart 1977, 293).

5) 알튀세르(Althusser)는 국가기구를 교육기관, 가정, 정치단체, 언론기관, 예술담당기관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SA: Ideological State Apparatus)와 군대, 경찰, 교도기관 등의 억압적 국가기구(RSA: Repressive State Apparatus)로 분류한 바 있다.

6) 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코 사태에서 그들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강압적 통제기구를 이용했다.

7) 본 논문에서 확산이라 함은 수평적 의미의 지역적 확산, 수직적 의미의 계급적인 연계로 인한 확산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대중동원이론에서 확산(diffusion)이라 함은, 비슷한 목적이 있는 다른 조직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을 때(Tarrow 2011, 192) 저항세력의 규모가 급증하고 물리적 공간의 확장을 포괄한다. 저항세력의 증가를 양적 확산이라고 한다면 시위의 물리적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지역적 확산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확산은, 집단시위가 초기 발생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시위가 전이되는 범지역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 문헌에서 시위 확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시위 저항자 간의 정서, 행위가 전달·모방되는 행위이다. 둘째,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익을 향해 저항하는 시위대가 서로 간 집단시위 행태를 모방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표출하는 행위이다(言牛, 林海, 2009, 22).

8) 초기에 대학생, 지식층, 국유기업 노동자와 같은 도시의 집단들은 정치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에 나왔을 때 그들은 사실상 농민을 동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즉,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도시 거주자가 민주주의를 말할 때, 그들은 시골 대중의 정치적 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Wright 2010, 146).

할 수 있는 중산층이 증가하며 도시화가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이른바 경제결정론적인 근대화이론을 주장했다(Lipset 1959, 69-105). 무어(Moore)와 루쉬마이어(Rueschemeyer) 역시 사회경제 발전이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근대화이론의 동일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무어는 체제전환에 있어 중산층의 영향을 강조하는 한편 루쉬마이어는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 노동계급이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Moore 1966; Rueschemeyer 1992).[9] 같은 맥락에서 로웬(Rowen)은 근대화 이론을 전제로 중국은 2015년 부분적 자유화의 단계에 다다르고 2025년 전면적 자유화에 이를 것이라 주장한다(Rowen 2007, 38-52).[10] 하지만 중국은 근대화이론에 필적할만한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로 인한 중산층 증가 및 노동자, 학생, 농민의 빈번한 시위에도, 민주화로의 이행은커녕 그 이행 과정인 시위의 확산마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단일 계층의 시위 발생 빈도는 높지만 지속적이며 지역·계층 간의 연계가 있는 시위는 최근에 좀처럼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의 발달은 저항세력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었다(Yang 2008, 133-136).[11]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 같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시위확산의 더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물리적으로 고립된 지역까지 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12] 이는 결국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웹(web)에서 양 방향으로 정치적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가져왔으며 시위확산의 지역적, 조직적, 계급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첨단기기의 발달에 따라 과거보다 더 나은 시위 환경이 조성되었다. 시위대는 인터넷을 이용해 웹상에서 리더십 획득이 가능하고 학생과 지식층을 동원할 수 있어, 시골지역뿐 아니라 도시 어느 곳이든지 범지역적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집단시위 분석 결과, 급속한 시위의 증가와 첨단기기의 발달로 더 나은 시위 조건이 갖춰짐에도, 시위가 지역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높은 정보화기기의 이용률로 시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 제3조직(third party)과의 시위 연계가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무엇 때문에 시위가 지역 단위를 넘어서는

---

9)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엘리트와 다양한 사회 조직 사이에 경제적이며 지적인 힘의 분배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빈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다(Vanhanen 2003, 1).

10) 견해로 페이(Pei 2007, 53-55)는 로웬을 반박하며 중국의 민주화 전망을 4가지로 일축하고 있다. 첫째로, 경제적 근대화가 촉발되는 힘에 대항하는 정치적 독점을 옹호하는 공산당의 입장에 대한 자원(resourcefulness)과 결정을 과소평가했다. 둘째로, 경제성장의 저하라는 치명적인 정치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국의 정치적 전망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간과하였다. 넷째로, 로웬이 주장한 자유주의적 정치개혁은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민주화 과정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기엔 한계점이 있다.

11) Yang은 중국의 인터넷 발달이 경제성장을 초래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새로운 정치 행위자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 최근 시위에서는 범지역적, 범계급적 연계, 온·오프라인에서 조직력을 갖춘 리더십 확립이 가능해 시위확산의 여건이 조성되어있다.

확산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일까? 대규모 산발적 시위를 감행한 시위 주체들은 그들의 요구를 일부 관철시키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대규모 집단시위가 성공적인 요구관철의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왜 단순히 집단시위의 빈도만 증가할 뿐 범지역적 시위로 확산되지 않는 것일까?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에도, 무엇 때문에 지방시위의 증가가 지역적으로 확산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였다. 초기 중국 시위 관련 연구는 대부분 정치체제의 변화나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중국에서는 정치체제 변화와 같은 높은 수준의 정치(high-level politics)에 영향을 미치기는 사실상 어렵다(O'Brien & Li 2006, 99). 중국의 집단시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대부분의 시위가 정치체제에 위협적이기보다는 민생 문제와 같은 낮은 수준의 정치(low-level politics) 이슈에 해당하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그와 연관된 집단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집단시위가 발생해도 지역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음의 4가지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고 한계점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로, 대중동원을 할 수 있는 조직력의 부재로 시위가 확산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라이트(Wright)는 1989년 중국 학생시위의 실패 원인을 들어 학생 위주의 조직력 부재와 민주적 절차의 경시를 주된 요인으로 삼고 있다(Wright 1999, 142-172)[13]. 페리(Perry)는 1990년대 개혁시기에 중국 공산혁명과 같은 대중 동원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주로 지방의 농민과 도시의 지식인들 간의 연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Perry 2008, 205-206).[14] 하지만 현재의 집단시위는 첨단기기의 발달로 시위가 확산될 수 있는 상기 조건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페리의 시위확산이 어렵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 찬(Chan) 역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대학생의 정치 성향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신념에 변화는 없지만, 경제발전 이후 그들의 정치적 목표가 이데올로기에서 실용주의 중심의 개인 삶 위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지식층의 시위 참여가 어려운 것을 한계점이라 지적하였다(Chan 2004).

---

13) 권위주의 시기 대만의 민주화와 중국을 비교하면서, 당-국가 체제에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학생들 사이에 신뢰 결핍과 의심을 초래해 조직력이 와해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생층을 중국 집단시위의 주된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의 시위 참여를 시위 확산의 구심점임을 강조해, 노동자와 농민 계층이 연계된 시위 영향력을 배제했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14) 중국 공산혁명의 성공은 지식층과 학생이 직접 현지에서 농부를 동원하는 리더십 확립과 조직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불어 현대 시위에서는 중국공산당에 도전하는 국가나 지역수준의 조직적인 사회운동, 구심적인 정당 조직의 미약함으로 대중동원의 어려움을 주장한다.

둘째로, 공안기관의 강력한 통제력 때문에 중국의 시위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천(Chen)은 서구에서는 사회 행위자(social actor), 미디어, 사회 구성원을 통해 집단행동을 향한 틀(frame)의 구성이 용이하지만, 중국의 경우 강력한 통제 때문에 서구의 틀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Feng Chen 2008, 90). 차이(Cai) 역시 강제 통제는 양보가 어렵거나 사회 안정을 위협할 때 발생해 시위 통제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Cai 2008a, 24-42).[15] 집단시위 관련 중국 논문은 2000년 중반 이후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내부의 시위 관련 연구는 대체로 집단시위의 분석(宋善雲, 劉子陽 2006; 崔巍 2010), 분류(馬小林 et al. 2010), 위험성(張健 2010), 시위의 통제(馬章民 2010; 李嫕; 張梅玲 2010; 歐三任 2010; 何平 2010)[16] 관련 문헌들로 분류된다. 특히 강제력과 더불어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집단시위가 저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단체 시위의 특징과 대책(毛啓蒙 2010), 단일 사례 연구(魯書君 2010),[17] 시위 발생에서 소강(鍾龍彪 2010), 정보를 이용한 시위예방(郭永良 2008; 彭知輝; 龔心斌 2010) 등 공산당교나 치안 관련 저널의 문헌에서는 강제 통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로 지방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때문에 시위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기회주의적(opportunism) 관점에서 집단시위가 인민 자신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O'Brien & Li 2006),[18] 시위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중국에서는 집단시위를 통한 민주화로의 이행보다는 기회주의적인 관점에서, 관료를 통제하고 인민의 목소리를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Xi Chen 2007, 253-281). 하지만 집단시위 원인을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15) 이러한 주장들은 강제대응을 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개인 간의 불만으로 인해 파생된 일반시위에서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집단시위 현장에서 기존의 강격전략보다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해 양보전략으로 선회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실성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강제통제는 두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지방의 정당한 시위에 대한 강제 대응이 오히려 인근 지역으로 시위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강제력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위대를 자극해, 시위 도화선이 되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강제통제로 유발된 유혈 시위는 사상자 발생으로 인해 시위가 확산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불만에 대한 시위에서 중앙의 체제 위협적인 시위로 확대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4년 발생한 한위안 시위는 무장병력을 동원한 강경대응이 오히려 시위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왔다. 시위 진압과정에서 무장경찰이 노파를 폭행하면서 갑작스럽게 시위대는 폭력적 대응을 하게 되어 시위는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둘째로 강제력을 사용한 집단시위 통제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강제력으로 시위 저지가 성공한다 해도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관점에서 강경 대응이 합리적 판단이 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력보다 양보함으로써 얻는 잠재적 편익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정치적, 경제적 비용보다 크다고 느낄 때 지방정부는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강제보다 양보를 취하게 된다.

16) 특히 마장민(馬章民)은 하북성의 시위 통제 사례 분석하였다.

17) 강소성 P시의 인터넷을 이용한 단체시위 사례를 분석했다.

18) 오브라이언과 리(O'Brien & Li, 2006)는 시위를 인민들의 요구를 관철 시킬 수 있는 일종의 채널로 보았다. 가난하고 약한 인민들이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국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으로 지방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집단시위에 대한 중앙정부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민에게 지방 관료들은 약탈자로 인식되고, 중앙정부는 정당한 저항의 구원자로 여겨졌다.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인민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채널로 보았으며, 불만이 해결되면 집단시위는 소강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문제점은 지방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시위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점이다. 지방정부 대부분의 시위는 노사문제, 이주에 따른 보상 문제 등 개인의 불만으로 시작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지방 지도부의 부패 척결로 귀결되기 때문에 지방 지도부의 존립과 관련된 시위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위대가 지방정부에 수용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을 때, 시위가 지역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주장에 한계가 있다.

넷째, 중국의 단웨이(單位) 시스템이 집단시위 확산을 저지한다는 주장이다(Heilmann 1993, 18; Perry 1994, 1-27; Perry 1995; Feng Chen 2008).[19] 하지만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단웨이 체제는 붕괴되고 있으며 국유에서 비국유기업으로 전환, 공유제에서 사영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중국의 학교, 공장, 농촌에 단위 시스템의 영향이 남아있긴 하지만, 단위 시스템이 현대 중국의 시위 발발에서 확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하다.

3. 연구방법

본 논문은 상기 주장과 다른 논의로, 중국의 집단시위가 발생에서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강제전략(coercive strategy)과 더불어 집단시위 저지를 매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위계적 역학관계로 파생된 양보전략(concession strategy)으로 보고, 이를 통해 중국 전역에 집단시위가 산발적으로 발발하여도 지역적으로 확산되지 않음을 논증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분권화 상황에서 중앙-지방의 구조적 관점을 중점적인 분석틀로 보고 중국의 집단시위를 분석해 보겠다.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고도로 분권화된 상황에서 집

19) 건국 이전 단웨이 시스템이 형성되기 전에는 시위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다. 1925년 5.13 운동 시기, 상하이에서는 100개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파업을 하면서 도시가 마비가 될 정도였다(Perry 1995). 하지만 마오쩌둥 시기 작업 단위(work unit), 계급 수준, 거주지 범주(residental category), 정치 활동의 기록 등으로 구분된 중국의 단위 시스템으로 인해 정치 시위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부여한 균열(state-imposed cleavage)이 형성되어 시위 저지가 힘들었다(Perry 1994, 1-27). 예를 들어 1956-1957 백화제방(百花齊放) 운동 시기 지식인과 노동자는 공산당 체제의 관료제를 비판했지만 그들의 저항은 단위체제에 의해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학생과 교사들은 캠퍼스에 남아있었고 노동자는 공장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계급적 연계가 힘들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이 캠퍼스와 공장 내의 반체제인사를 처벌하려 할 때 단위체제로 인한 직업적, 영역적 분리는 반우파(anti-rightist) 운동의 통제를 더 강화 시켰다(Perry 1994, 1-27). 같은 맥락에서 헬리만(Heilmann)은 문화혁명의 급진적인 과잉에 대항하는 역사적 저항을 관찰하면서, 단웨이 내부의 용이한 의사소통 때문에 대중동원이 가능했지만, 좀 더 광범위한 조직적 유형으로 확장은 오히려 사회로부터 단절된 단위 체제 의해 방해되었기 때문에 시위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한다(Heilmann 1993, 18). 이런 관점에서 오늘 날의 노동운동이 보편화되고 빈도수가 증가하지만 대부분이 단웨이 체제 내의 단일공장의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다(Feng Chen 2008).

단시위를 매개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개입을 통한 통제력 강화와 지방정부의 중앙 간섭 회피라는 동학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양보전략'과 기존의 '강제전략'의 혼용을 통해 시위가 소강되는 것을 논증하겠다.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뷰, 설문조사와 같은 현장조사(field research)를 통한 사례연구(case study)가 필연적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 연구는 집단시위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관련자와 관련 자료 접근의 어려움과 설사 자료가 있다고 해도 신뢰성의 논란이 많아 상당한 부정확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어서, 사실상 일반 연구자로서 실질적인 접근(physical access)을 통해 현장 연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을 이용한 연구를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삼고자 한다.

2004년 중국 공안부에서 대외적으로 공포한 마지막 자료에 의하면, 집단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을 노사관계, 정부 주도 토지 징발, 도시의 철거·이주, 국유기업 개혁, 이주민 보상 문제로 지적했다(陳利華 2005a, 30). 이런 관점에서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집단시위가 노동자와 농민 추체의 비정치적임을 고려해 일반시위로 사례를 한정하였다(高新民, 吳桂韓 2011, 2; 馮西營 2012, 105). 분석 대상은 시위 확산에 조직력과 파급력이 강하며 정권에 위협적일 수 있는 계층인 노동자[20]와 농민[21]으로 선정하였다.[22] 같은 지방에서 발생한 시위일지라도 지방도시보다 농촌의 시위가 더 폭력적이며 파급력이 강하다. 더불어 노동자 계급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집정관의 호위대(praetorian guards)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Moore 1987, 99) 노동자 시위가 정치 체제 변동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강하다. 이렇듯 노동자와 농민 계급의 강한 시위 파급력 때문에 중앙정부 혹은 상급정부의 개입을 유도할 수 있어, 노동자와 더불어 농민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 분석하였다.[23]

사례 수집기준은 ①중국 측에서 500명 이상을 중대군체성사건(重大群體性事件)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500명 이상 참여한 대규모 집단시위[24], ②공권력 사용 여부,

---

20) 1980 노동자 연대(solidarity) 이후 노동자 시위는 중국공산당에게 학생과 지식층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Sheehan 1998, 2).

21) 최근까지 시위는 농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것이 중앙 정책의 불만족의 반영이기 보다는 지방정부에 의한 토지몰수, 지대(land)와 수자원의 관리실수(mismanagement)에 원인이 있다(The PRS 2006, 22).

22) 사기업 노동자들은 국가에 비교적 덜 의존적이다. 이들의 상대적인 경제독립을 정치체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을 정치변화에 더 개방적으로 만든다(Wright 2010, 3).

23) 일반적으로 농민, 노동자 주도의 집단시위는 도시의 중산층이나 지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격 행위 후에 감수하게 될 위험을 낮게 인식하기 때문에 과감한 시위를 할 수 있다. 시위대가 시위의 위험성을 인지한다는 것은 시위 행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높은 위험 인식을 소유한 시위 구성원이 시위 주도층이라면 이들은 시위 구성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위는 덜 폭력적일 것이다. 반면에 위험성을 낮게 인식한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더 폭력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집회와 불법 행동을 인지하는 정도가 낮은 농민이 시위를 주도한다면 집단시위 이후 법적 처벌에 대한 정보의 인식 부족으로 시위는 폭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집단시위 파급력이 강해, 시위의 지역적 확산 가능성이 높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학 관계를 상대적으로 잘 규명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을 주요 사례 대상으로 정했다.

③시위 확산 가능성이 있는 시위(계급적, 지역적, 조직력을 갖춘 리더십, 우연적인 도화선), ④정치시위를 배제한 일반시위 ⑤시위 발발에서 소강까지 시위 과정을 알 수 있는 시위를 선정하였다. 시위 사례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사(新華社), 홍콩의 반체제 언론매체인 중국 노동 회보(China Labour Bulletin)[25]의 기사를 토대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지역의 지방신문과 외신, 중국학술정보원(CNKI)에 등재된 시위 관련 논문, 공개된 인터뷰 자료 등을 종합해서 분석해보았다. 중국집단시위에 관한 자료를 일률적으로 수록된 문헌은 없다. 따라서 상기의 흩어져 있는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조각조각 맞추는 방식으로 자료를 탐문하여 분석해 보았다.

Ⅱ. 중국의 집단시위 대응전략

본 논문은 중국의 집단시위가 발생함에도 왜 지역적 확산으로 이어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이런 기준에서 본 논문은 현대 중국에서 대규모의 산발적인 시위들이 범지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강제전략과 양보전략이라는 두 가지 전략의 혼용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개되는 '강제전략'이며, 다른 한 전략은 지방 분권화를 배경으로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중앙정부와 중앙의 통제력을 회피하여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지방정부 간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앙 혹은 지방의 주도로 파생된 '양보전략'이다.

중국 정부는 집단시위를 시위대의 목표에 따라 투쟁(抗爭), 분쟁(糾紛), 소란(騷亂)으로 규정한다. 투쟁은 약자의 입장에서 요구대상과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당정기관, 입법기구, 사법부를 대상으로 자기권리 보호와 불만의 표출이다. 가령, 2004년 한위안(漢源), 2008년 웡안(甕安), 2011년 우칸(烏坎) 사건이 그러하다. 분쟁은 법률적으로 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순으로 인한 집단시위를 의미한다. 시위 참여자는 노사관계처럼 주로 경제 이익문제로 시위를 한다. 소란은 2008년 발생한 라사(拉薩) '3.14 사건'과

24) 집단시위는 사건의 규모, 위급성, 시위방식과 격렬함에 따라 ①특별중대군체성사건(1급), ②중대군체성사건(2급), ③비교적 큰 군체성사건(3급), ④일반군체성사건(4급)으로 분류된다. 1급은 첫 시위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이며 향·진 이상이 이미 공격받았으며 현급 이상 당·정·군 기관이 공격받고 있는 상태의 시위이다. 5인 이상 사망 15인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시위로 민족, 종교문제는 500인 이상만 참여해도 이해 해당한다. 전국범위의 시위로 성·시급을 넘어선 시위이다. 2급은 500인 이상 1000명 이하로 상팡, 파업, 수업거부 등의 불법 집단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중대군체성시위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사망 혹은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사상자로 규정하며, 민족문제, 토지, 환경오렴 문제로 인한 시위도 이에 해당한다. 3급은 시위 참가자가 1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시위로 국가의 중요 장소에서 발생하는 집단시위로 사망자가 3인 이하 사상자가 10인 이하인 시위이다. 4급은 시위참가자 100인 이하로 국가, 성, 시의 중요장소에서 10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이 하는 시위를 의미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본 연구는 500명 이상이 참여한 중대군체성사건 이상의 사례를 조사하였다(言牛, 林海 2009, 7-9).

25) 사태 저항 경험이 있는 노동자 출신 한둥팡(韓東方)에 의해 1994년에 만들어진 웹사이트이다.

2009년 우루무치(烏魯木齊) '7.5 사건'처럼 폭력적이며 공격대상이 불명확하다는 특징이 있다(王賜江 2013, 146-147).

이러한 집단시위의 대응으로 당국의 집단시위 해결 방법은 1993-2012년까지의 SCMP 기사를 토대로 중국에서 발생한 노동자와 농민 시위를 분석해본 결과, ①무력진압, ②무력진압 실패 후 양보, ③양보의 3가지 패턴으로 집약된다. 특히 2000년대 이전에는 강제전략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 중앙과 지방과의 시위 통제와 관련된 역학 관계를 분석해 강력한 물리적 통제 대신 중앙의 개입과 지방 자체적으로 양보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분류해보겠다. 그런 다음 이들 유형을 분석해, 집단시위 통제와 수용 이면에 내포된 중앙-지방의 어떠한 역학관계로 인해 양보전략이 도출되어 시위가 소강 되는지를 규명해보겠다.

1993년부터 2000년 사이 정치시위를 배제한 후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매체와 집단시위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언론에 노출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집단시위 대응 전략을 유형별로 보면, ①강제, ②중앙개입 후 양보, ③지방 자체 양보의 3가지로 집약된다.[26] 이중 앞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21건의 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다.[27] 1. 2002년 3월 1일 다칭(大慶) 노동자 시위, 2. 2003년 4월 27일 사스 환자 수용 거부를 향한 톈진(天津)시위. 3. 2004년 10월 27일 한위안 시위. 4. 2004년 11월 18일 충칭(重慶) 군중 시위. 5. 2005년 4월 10일 저장(浙江)성 둥양(東陽市)시 화수이(畵水)진 시위, 6. 2005년 6월 27일에는 안후이(安徽)성 츠저우(池州)시 시위, 7. 2005년 12월 6일 광둥성(廣東省) 산웨이시 둥저우(東洲) 시위, 8. 2006년 1월 9일 광둥성 중산(中山)시 산자오(三角)진 판룽촌(蟠龍村) 시위, 9. 2006년 1월 16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장화(江華) 시위, 10. 2006년 10월 23일 장시(江西)성 난창(南昌) 학생시위, 11. 2006년 11월 10일 쓰촨(四川) 광안(廣安) 시위, 12. 2008년 6월 28일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웡안 시위, 13. 2008년 11월 17일 간쑤(甘肅)성 룽난(隴南) 시위, 14. 2008년 11월 6일 저장(浙江)성 사오싱(紹興) 시위, 15. 2008년 11월 3일 충칭 택시파업, 16. 2009년 7월 23일 지린성(吉林省) 통화(通化)시 통화철강(通化鐵鋼) 시위, 17. 2011년 6월 9일 광둥성 쩡청(增城)시 신탕진(新塘)진 농민공 시위, 18. 2011년 8월 14일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 화학공장 시위, 19. 2011년 10월 26일 저장(浙江)성 후저우(湖州) 즈리진(織里)진 시위, 20. 2011년 9월 21일 루펑시(陸豊市) 우칸 시위, 21. 2011년 11월 20일 산토우(汕頭)시 하이먼(海門)진 시위.

상기 3가지 해결방법을 기준으로 21건의 사례를 분석해 집단시위 대응 전략을 유형

---

26)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전략의 또 다른 견해로 ①억압(repression) ②양보(concession) ③설득(persuasion) ④지연(procrastination)이 있다(Xi Chen 2007, 256). 이밖에 집단시위에 대한 정부의 세분화된 반응으로 ①시위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양보(concessions), ②시위대의 요구는 충족시키지만, 몇몇 시위대를 처벌하는 처벌을 동반한 양보(concessions with discipline), ③시위대의 요구는 무시되어지고, 정부는 시위대의 저항을 용인하는 관망(tolerance), ④시위대의 요구가 무시되어지고 모든 시위 참가자가 처벌되는 억압(repression)으로 나뉜다(Cai 2010, 5).

27) 통해 집단시위 발발 여부와 원인은 쉽게 파악되지만, 500명 이상의 노동자·농민이 참여한, 집단시위 발생에서 소강까지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동학을 알 수 있는 시위는 의외로 많지 않다.

별로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이 ①강제, ②중앙개입 후 양보, ③지방 자체 양보의 3가지로 집약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전히 강제 통제가 중국의 주된 대응 방식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보전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00년대 이전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1966-76년), 덩샤오핑의 천안문 사태(1989년), 장쩌민의 파룬궁 사태(1999년)를 거치면서 정치시위뿐 아니라 일반 민생 시위 대응 시, 강경한 대응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이후부터, 정부의 시위 대응에서 강제 이외에 양보전략이 출현하게 된다. 아래의 <표 1>을 보면 전체 21건의 상기조건을 충족하는 사례 중 총 7건인 30% 정도가 양보전략임을 알 수 있다.

<표 1> 2000-2012년 21개 모집단 중 시위 대응별 수치

강제	지방 자체 양보	개입 후 양보	기타	전체
12	3	4	2	21

동일한 수집 기준과 기간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 Tong & Lei가 2003-2009년 사이 국내·외 신문, 미디어, 개인 블로그, 인터넷 포럼 등에서 인종 문제를 포함한 248건의 5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위를 수집한 자료와 비교해보면 지방정부기 시위대에 양보하는 비율이 29%를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Tong & Lei 2010, 501).[28]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 중국의 집단시위 대응전략은 크게 강제전략과 양보전략으로 집약되며 이를 통해 지역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위통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제전략 이외에 양보전략은 어떤 배경에서 파생되고 어떤 조건에서 시행될 수 있는 것일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도로 지방 분권화된 상황에서 중앙 지도부의 집단시위 개입 명분은 광범위하게 부패에 연루된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중앙의 정치 엘리트들은 노동자와 농민층의 시위 희생을 매개로 지방정부 혹은 기업의 부패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견제 또는 중재함으로써, 그들의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권과 레짐에 대한 정당성을 동시에 획득함으로써 그들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 더불어 강제력으로 대변되는 공안기관은 과거보다 무장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대의 집단시위 특징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집단시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위확산의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시위 통제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지방이나 농촌에서 시위가 발생했을 때, 공안기관은 우선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차단하여 시위대가 정보력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28) 2003-2009 까지 대규모 시위에 대한 정부 반응으로, 전체시위 248건 가운데 중앙정부 관망(tolerance)은 152건으로 61%에 달하며 지방정부 양보(accommodation)는 72건으로 29%에 달한다. 이밖에 징계가 20건으로 8%, 무력통제가 8건으로 4%에 달한다. 이 수치는 시위 대처 시 정부가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있음으로 각각의 합계가 전체 합계보다 다소 많을 수 있다(Tong & Lei 2010, 501).

의 시위대 동원을 저지한다. 그런 다음 시위 발발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해 즉각적인 무력통제 혹은 지연 전략을 진행해 다른 지역으로의 시위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적 연계, 계급적 연계의 연결고리를 차단한다.

또한, 시위발발 시 공안기관은 우선 시위 리더층을 찾는데 주력하여 시위 확산의 연결고리를 차단한다. 실제 2002년 발생한 다칭(大慶) 노동자 시위에서 리더층이 구속된 이후 시위는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된다(Leung 2008, 12-15). 2005년 발생한 산웨이(汕尾) 시위 역시 농민과 지방정부가 무장 충돌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저항이 있었지만 3인의 농민 리더가 구속된 이후 시위는 바로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Friedman 2005, 1). 이처럼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집단시위는 공안기구의 무력 통제로 리더십을 약하게 하고 시위의 지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특정 시위 기념일이나 재스민(jasmine)혁명 같은 시위 분위기 조성은 우연적인 도화선 역할을 함으로써 유사시위 발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공안기관의 인적(humint), 기술적(techint) 감시·통제 때문에 시위 발생 조건은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와 결부되었을 때는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강제전략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①정권에 위협적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잘 조직된 저항조직은 정권에 위협적일 수 있다. ②저항조직이 정권안정(Regime Securit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저항세력과 이익이 일치했을 때 시위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 ③정부에 정책적 반응을 획득할 수 없는 파급력이 약한 조직이라도 연합(coalition)을 통해 세력(leverage)을 얻음(Jenkins & Perrow 1977, 249-250)으로써 정부에 대항할 수 있다.[29]

하지만 강제전략은 소규모에서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수 있으며 시위 대응을 위해 엄청난 비용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대안으로 2000년 공안부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시위 대응전략에 있어 강제전략을 줄이기로 하였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만약 중국이 시위 대응 방식의 제도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전략만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 급증하는 시위 발발을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Tanner 2004, 137-144). 이런 이유 때문에 2000년대부터 강제력뿐만 아니라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보전략이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양보전략이 중국의 주요한 집단 시위 통제 전략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저항은 지방정부에 의해 강제력으로 통제되며 양보를 종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성(省)정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시위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안 간부는 인민들이 "큰 소요(騷擾)는 큰 해결책을 가져오고, 작은 소요는 작은 해결책을 가져오며, 소요가 없으면 해결도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불평하기도 한다(Cai 2008b, 112-11

29) 1998년 제정한 집회, 시위, 저항, 상팡 처리 규정에 따르면, 정치적 혹은 파괴적인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만약 그것이 정치체제나 당을 전복시키려 하고, 영토적 위협을 가하거나, 국가기관, 중요 시설을 파괴한다면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대중의 저항에 대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①시위대의 정치적 요구, ②조직적인 폭력 저항, ③의도적으로 당국과 대치, ④국외로부터 지원이 있는 시위는 당국이 양보할 수 없다(Cai 2008b, 50).

3).

초기의 정치 기회(political opportunity) 이론가들은 강제전략이 일반적으로 시위 통제에 효율적이라 주장하지만, 최근에는 강제전략이 역효과(backfire)를 낳을 수 있으며 강제력과 새로운 유형의 대중시위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조건적이라 주장한다. 농촌 시위에서 강제전략의 사용이 역효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3가지에 기인한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대중의 신뢰가 없는 진(鎭)급, 현(縣)급의 지도부에서 강제통제가 승인된다면 상급정부에서 승인되는 것보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둘째로 시위대의 리더가 지방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강제적 기부를 요구하고 식사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등 주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강제통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로 시위 지도부가 상급정부를 끌어들이고 언론인, 변호사, 지식층들을 영입하려 한다면 강제전략은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다(O'Brien & Li 1998, 22).

그렇지만 이러한 부작용에도,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강경책은 여전히 중요한 집단 시위 대응전략이다. 현대 중국에서는 구체적이며 한정된 시위라기보다는 다른 세력의 연합 가능성을 내포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시위가 발생하고 있기에, 정당한 명분을 가진 시위라 하더라도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항상 양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강제력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한다면 중앙정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즉시 강제력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이익 충족으로 파생된 양보전략을 향한 역학관계는 상쇄되며 강제전략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양보전략은 다음의 4가지 경우에는 시행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당국은 예외 없이 강제전략을 시행한다.

첫째로 중국 지도부는 정치 시위처럼 사회주의의 기본 이념과 체제를 위협하거나 부정하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이를 탄압하였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정책노선은 지난 10여 년간에 있었던 3차례에 걸친 민주화운동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덩샤오핑 주도의 개혁 정치 10년간에 모두 3차례의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고, 매 단계마다 덩샤오핑은 체제 수호파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3번째로 직면하게 된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도 대화와 설득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던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와 개혁파들을 숙청하고 유혈 무력 진압이란 초강경 조치를 선택했던 것이다(서진영 2008, 451-452). 이후 장쩌민 시기 파룬궁 시위, 후진타오 시기의 티베트 시위, 우루무치 시위와 같은 정치 시위는 강경 대응했다.

둘째로 조직적인 폭력 행위이다. 2005년 12월 6일 발생한 광둥성(廣東省) 샨웨이(汕尾)시에서 발생한 시위의 예를 들면, 토지보상금 문제로 5개월 동안 평화적 시위를 벌이다가 조직적인 폭력시위로 변한 사례이다[30]. 샨웨이 사건은 농민이 주도

30) (黃希俊), 린한루(林漢儒), 황시랑(黃希讓) 등 3명의 농민대표가 주도하여 시위대를 구성해 칼, 강철 창, 다이너마이트, 화염병으로 중무장하였다. 인근 주둔의 무장경찰은 군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투척했지만, 3명의 리더는 군중을 재소집시켜 시위를 지속하였다. 중국정부에 따르면 저녁이

한 시위 중 보기 드문 유혈시위이다. 시위는 농민 측에서는 3명의 사망자를 내면서도 저항을 지속했으며 8명의 지방 관리를 인질로 잡고 대치했던 농민들은 결국에는 중무장한 무장경찰에 의해 진압당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31]

셋째로 국외로부터의 지원 세력이 있는 집단시위는 어김없이 강제 통제를 시행한다. 국외로부터 지원으로 2002년 무리한 구조조정과 부당한 복지 혜택 문제로 발생한 다칭 유전지대의 노동자 시위를 예로 들 수 있겠다(Trini 2008, 8). 다칭 노동자 시위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불법적인 임시독립노조를 구성하였다(*China Labour Bulletin Press*. Mar 6, 2002; *China Labour Bulletin Press*. June 4, 2002). 중앙정부는 다칭 지방정부와 석유공사의 무리한 구조정임을 알고 있었지만, 국외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중국의 레짐을 위협할만한 시위였기 때문에 강경책으로 대응하였다.

넷째로 제3조직(third party)과 연계가 있는 시위이다. 이들은 국내외 적대세력으로서 여러 방법으로 집단시위에 개입해 시위대를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킨다(新華網, 2006.12.08) 그래서 제3조직과 연계된 시위는 시위대의 인원 확산(diffusion)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제적으로 통제한다. 시위 참여 인원의 확산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슷한 목적을 추구할 때 다른 집단을 유인하여 이익을 만들 때 발생한다. 이러한 인원의 확산은 다른 그룹의 시위에서 편승해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특히 중재적(mediated) 인원의 확산은 두 명의 시위 그룹이 서로 직접적 연관이 없을 때 각각 연계된 제3의 행위자에 의해서 연계될 수 있다(Tarrow 2011, 192).

이상으로 중국의 집단시위 대응전략에서 강제력이 여전히 중요한 시위 통제 수단이지만 강경책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양보전략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강제전략 이외에 양보전략이 등장했고, 또 어떤 조건에서 양보전략이 등장하는지 알아보겠다.

Ⅲ. 중앙과 지방의 역학관계로 파생된 양보전략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폭발물을 투척해서 경찰이 발포를 시작해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Friedman 2005, 1).

31) 중앙정부는 샨웨이 지방의 부패로 인해 시위가 발발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중앙은 관여하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한 명분이 있을 때만 개입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후원(patronage)으로 살아간다. 한편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산업발전과 함께 이런 관계망 때문에 중앙정부가 발전해왔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체계적으로 부패를 처벌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지방부패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Friedman 2005, 2). 체계적으로 지방정부의 부패를 처벌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중앙정부를 향한 후원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샨웨이 사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패로 인한 시위의 발발과 부패정황도 알고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사례이다. 일반 농민 시위와 달리 공권력에 대항해 조직적인 폭력 저항을 하였기 때문이다.

양보전략은 집단시위 발생 시, 중앙정부는 지방에 개입하여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려 하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중앙의 관여로부터 자율성 유지라는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파생되게 된다. 양보전략은 ①중앙정부가 지방에 관여하여 양보를 종용하는 것과 ②중앙정부 개입 전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양보를 취하는 두 유형으로 집약된다. 이렇게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주도로 파생된 양보전략과 더불어 기존의 공안기관의 강제전략은 중국 집단시위 저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여 집단시위가 발발하더라도 지역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양보전략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한 것일까? 개혁·개방 이전 중앙집권화 시기에는 시위가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주요 행위자가 되어 수직적 지휘하에 강제력을 동원해 시위 통제가 가능하였다. 반면, 개혁·개방 이후 지방 분권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치·경제 영역의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Prybyla 1996, 27-28) 집단시위 관리 권한 역시 지방에 부속되었다. 개혁·개방 이전 마오쩌둥(毛澤東) 시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수직적으로 규제하면서 중앙 집권체제를 유지하였지만,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추진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대변환을 시도하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의 하부단위로 이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행하던 직접적인 정책 규제는 간접적인 정책 조정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방 분권화가 추진되었다. 고도로 분권화된 정치체제는 중앙의 지방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지만, 덩샤오핑 시기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 약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방의 엘리트들의 지지를 얻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경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력 이양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개혁·개방 이후 고도로 지방 분권화된 상황에서 지방의 집단시위는 중앙정부가 개입해 지방정부의 통제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집단시위를 매개로 고도로 분권화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자 하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중앙의 간섭을 회피하려는 동인(動因)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분권화(decentralization)라는 구조적 변화는 집단시위 발생 시, 지방정부가 주요 행위자가 되어 강제전략뿐 아니라 양보전략이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지방정부 관할의 공안기관이 강제력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시위에 대해 양보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지방의 공안기관은 온건적 대응을 함으로써, 강제력으로 인한 정치적 비용 증가, 과다한 강제 집행 비용, 시위의 확산 가능성을 감소시키려 하였다. 즉 지방정부는 강제전략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화된 힘의 구조는 중앙정부에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Cai 2008b, 430). 따라서 지방정부가 무리하게 시위 진압을 시행하더라도 인민들은 중앙보다는 지방정부를 향해 불만을 표출한다.[32] 특히 시위

32) , 상팡 대표는 중앙의 지방 처벌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상 법률 범위 내에서 집단 활동하려

발생 시, 중앙정부는 지방의 부패 문제에 관여하여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지방 관료들을 처벌하면서 분권화된 지방정부에 통제력 강화와 지배 정당성 제고(提高)라는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발생한 시위에 관여하여 지방에 양보를 종용하려 한다. 반면, 지방정부는 중앙의 이러한 간섭을 피해 지방의 자율성 유지와 기존의 부조리한 수단으로 향유했던 이익의 유지를 위해 중앙이 관여하기 전에 양보를 취한다.

양보전략이 등장하게 된 시기는 개혁·개방 이후 지방 분권화가 심화된 1990년 후반부터이다. 이때 시작된 부패방지 제도화[33]와 간부 인사제도 개편[34]은 양보전략 등장의 제도적 배경을 이루게 된다. 이런 제도적 변화는 지방의 집단시위 발생 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개입해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지방 엘리트들의 이익에 영향을 주어 양보전략을 파생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주었다. 이를 방증하듯, 1993년부터 현재까지 SCMP를 토대로 관련 외신과 현지 언론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지방정부가 시위대에게 양보를 취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양보전략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지도부의 인식 변화로, 2002년 11월 후진타오 집권이후 개혁과 내부 안정(security)을 위한 정교한 전략을 세우지 않았지만, 시위대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인 채널을 확대하려는 중대한 정치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조직적인 시위가 위협적이지만 때때로 시위대의 저항에 양보로 보상해주기 시작하였다(Tanner 2004, 149-150). 동일선상에서 2005년 국무원은 각급 지방정부에 집단시위 발생 시 조심스럽게 강제 대응 할 것을 요구했다.[35] 한 단계 더 나아가, 2008년 11월 공안부장 멍젠주(孟建柱)는 집단시위에 해결에 있어 신중하게 강제 대응할 것을 명문화 했다. 이 문건에서는 '3가지 신중한 사용(三个愼用)'을 제시하며 ①신중한 경찰력(愼用警力), ②신중한 무기 사용(愼用武器警械), ③신중한 강제 조치(愼用强制措施)의 표현을 쓰면서 강제력을 신중히 사용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新華網, 2008.11.03; 京華時報, 2008.11.04). 이것은 집단시위 현장에서 공안이 공격받더라도 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이며 시위대와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Yanqi & Shaohua 2010, 502).

양보전략이 파생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론을 통해 주목받고

, 위법활동을 최소화 하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상급 정부에 복종을 표시하며 중앙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李連江, 歐博文 2011, 135).

33)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중국의 반부패 법률은 부패를 처벌하는 동시에 반부패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2000년 이후는 반부패 제도화 시기라 할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2004년 2월 당내감독조례(中國共 黨黨內監督條例), 2005년 1월 부패 감독과 처벌 체계 실시 요강(建立健全教 , 制度, 監督並重的懲治和預防腐敗體系實施綱要), 2007년 9월 국가부패예방국(國家預防腐敗局) 설립, 2008년 5월 부패 처벌과 예방 체계 규범(建立健全懲治和預防腐敗體系 2008-2012 工作規劃) 등이 있다.

34) 2000년 들어서 중앙정부는 '간부 인사제도의 개혁(深化幹部人事制度改革綱要)'을 발표해 당정간부선발 임용제도 를 심화시켰다(王立新 2001, 103).

35) 關於積極預防和妥善處置群體性事件的工作意見 (2005.01.29).

이슈화된 시점이 이 무렵인 것을 고려해, 본 논문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양보전략이 파생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지방정부는 강제전략 혹은 양보전략을 선택하는 것일까? 집단시위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의 관망하에 우선 지방정부는 공안기관을 동원해 강제전략을 구사하고 다음의 네 가지 위험성에 직면했을 때 양보전략을 구사한다. 첫째로 강경 대응으로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하여 시위 확산의 도화선이 되어 인근 지역으로 시위 확산의 가능성이 있을 때 지방정부는 양보를 취한다. 둘째로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강제력을 동원해 집단시위를 통제하는 비용이 양보를 취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때 양보전략을 취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시위대에 양보함으로써 얻는 잠재적 편익이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부담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보다 크다고 느낄 때 지방정부는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강경대응보다 온건대응을 함으로써 양보전략을 취한다. 셋째로 강제전략은 시위 진압 과정의 사상자 문제로 인해 지방정부의 정치적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조심스럽다. 넷째로 지방정부가 현지 시위 통제에 실패하여 지역적 확산으로 이어지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지방정부에 양보를 종용하면서 양보전략을 취하게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를 보면 지방정부가 시위 발생 시, 강경 대응했을 때와 온건 대응했을 때의 손익을 분류해보았다. 이 표를 보면 지방정부의 이익 관점에서는 강경한 대응을 하여 시위 확산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보다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더라도 중앙의 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온건적인 '양보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지방정부의 시위 대응에 따른 손익 구분

시위 대응	강경	온건
이익	유사 시위 예방	중앙의 간섭회피
손실	시위 확산 시 해임, 처벌	지방재정 부담

또한 위에 <표 2>에서 양보전략은 현지 책임 권한이 있는 지방정부가 강제적으로 시위를 통제해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해 중앙의 간섭을 회피하고 부패문제를 표출시키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양보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36] 이런 의미에서 1990년도 말부터 시행된 반부패 규정의 제도화가 2000년대 들어서 지방정부에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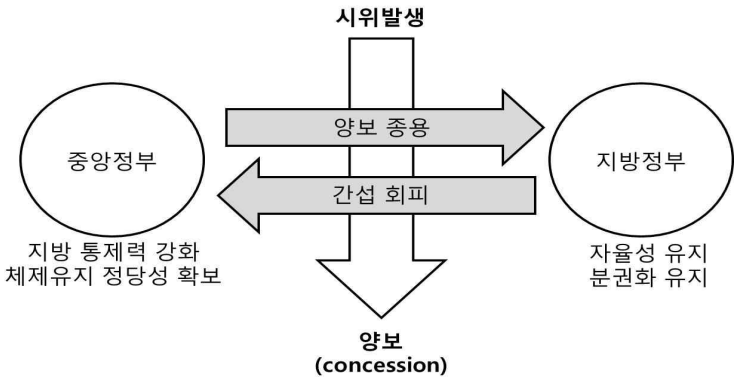
36) , 2008년 6월 28일 귀주(貴州)성 웡안에서 발생한 강경 대응 실패로 첸난저우(黔南州)의 우팅슈(吳廷述) 서기는 면직 되었다(明報, 2008).

보전략 초래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방정부는 시위대와 중앙정부의 양보 종용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법을 채택했다. 첫째로 시위대를 공격할 수 있는 폭력배(thug)를 고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당 간부의 부패 연루 탓인 시위는 폭력 조직과 결탁하기도 한다. 지방정부가 폭력배를 고용하여 거주지 문제로 저항하는 주택 소유주나 농경지 점유로 저항하는 농민을 공격하는 것이다. 240건을 불만 해결을 청원한 농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집단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약 54%의 폭력배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로 집단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법 규범을 과도하게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다. 형법 290조에 따르면 대중을 조직해 국가기관 공무를 방해하고 국가기관을 공격하며 심각한 손실을 유발하면 범죄행위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집단시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법과 규정은 이들을 처벌하기 용이하게 되어있다(Cai 2010, 61; *South China Morning Post*. Jan 4, 2005).

아래 <그림 2>를 보면, 분권화의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는 지방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지방을 통제하려 하고 지방은 중앙의 통제를 회피하려 한다. 시위발생 시, 인사권과 감찰권을 가진 중앙정부는 지방의 부패 문제, 권력남용에 관여하여 지방정부에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고, 동시에 지방 관료들을 처벌하면서 통치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37] 또한 자율권을 부여받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강제력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더라도 그 책임은 지방정부에 머물러 있어 중앙정부는 시위 통제 중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의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Cai 2008b, 411-432).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이익 때문에 지방 시위에 관여해서 지방정부에 양보를 종용한다. 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의 이러한 간섭을 피해 지방의 '자율성 유지'라는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가 관여하기 전에 양보를 취하려 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전횡뿐 아니라 현지기업의 부패 연루로 집단시위가 발생했을 때, 지방정부는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강경 대응보다는 온건대응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지방정부가 양보함으로써 얻는 잠재적 편익이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부담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보다 크다고 느낄 때 지방정부는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양보한다.

37) 들어 2004년 5월 후난(湖南)성 쟈허(嘉禾)현에서 철거 이주 문제로 인한 집단시위가 발생하였다. 국무원 비준하에 후난성정부 주도의 조사결과 행정권 남용으로 밝혀졌다. 이후 후남성 성위상무위는 공산당기율처분조례(共 黨紀律處分條列)와 공무원잠행조례(公務員暫行條列)에 의거해 저우위우(周餘武) 현서기와 리쉬동(李世凍) 부서기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를 면직 처분하였다(高新民, 吳桂韓 2011, 15-17).



<그림 2> 중앙과 지방의 역학관계

따라서 집단시위를 매개로 중앙은 분권화된 지방 통제력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관여하려 하고 지방정부는 이런 중앙의 간섭을 피하여 자율성 유지를 하려는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주도로 양보전략이 파생된다.

Ⅳ. 왜 지역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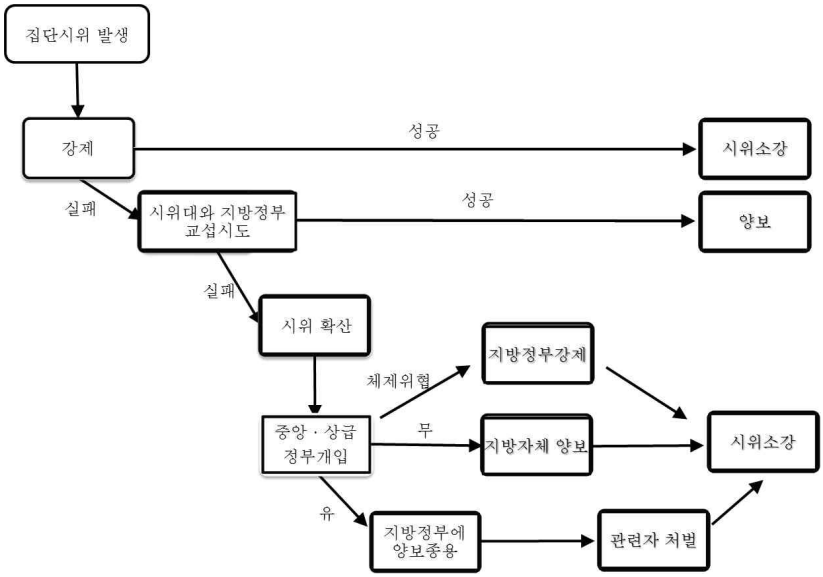
1. 지방 지도부의 대응 전략

집단시위 대응 지휘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 지도부의 시위 대응 전략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시위 발생 시 집단시위의 책임은 현지 시위 지휘자가 부담하는 원칙이다. 성급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대규모 집단시위 처리 책임에 있어 총체적으로 '행정지역 등급에 따라 반응(分級響應)하며, 기관 간에 수직적이며 지역 간의 수평적 관리 시스템(條塊結合), 현지관리 시스템으로,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이 책임진다(誰主管, 誰負責)는 원칙'이다. 그래서 지방에서 발생한 시위의 책임은 시위발생지의 지방정부와 명령을 이행하는 현지 공안기관이 공동 부담한다(黃淑娥, 馬建文 2006, 4; 熊一新 2007, 511-529; 盧俊河 2009, 66). 이러한 현지 지도부 책임 시스템은 지방의 지도부에 원만한 시위 통제를 하게끔 부담을 안겨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억지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강경이든 온건이든 모든 전략을 동원해서 다른 지역으로 시위확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중국 시위 대응전략을 분석해 보면 강제전략뿐 아니라 양보전략이 주된 시위 대응전략이지만, 실제 시위에서 단일한 양보전략만으로 집단시위 통제가 어렵다.

지방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집단시위는 강제전략과 양보전략의 완급을 조정해 나가면서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양보전략은 엄밀히 말해서 중앙정부 개입 전후에 지방정부가 자체 공안력을 동원해, 강제전략을 시행한 뒤 양보전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위 초기 우선적으로 현지 인민경찰을 동원해 강제전략을 시행한 이후, 지방정부 혹은 상급정부의 판단하에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보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정부에서 집단시위가 발생했을 때 먼저 강제전략이 시행되고 그런 중앙과 지방의 역학관계 존재 여부에 따라 강제전략을 지속하든지, 양보전략으로 선회한다. 이러한 시위 대응전략 구조를 나타내면 아래 <그림 12>와 같다.



<그림 3> 집단시위 통제 메커니즘
출처: 1993-2012년 SCMP의 집단시위 분석

<그림 12> 상단을 보면 집단시위가 발생하면 우선 현지 공안력을 동원해 시위 저지를 시도한다. 이때 시위 통제가 성공적일 경우, 시위는 곧바로 소강상태에 이르지만, 실패하면 지방 지도부는 현장에서 시위대에 교섭을 시도한다. 여기서 지방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면 지방 자체적으로 양보를 취하여 시위는 바로 소강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시위대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위는 또다시 확산 단계에 접어든다. 여기서 시위가 지역적 확산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중앙정부 혹은 관할 상급정부가 관여할 명분이 생겨 지방정부에 개입한다. 하지만, 중앙정부 혹은 상급정부가 개입 후에 체제 위협적인 시위라 판단되면 <그림 12> 하단에서처럼 지방정부는 시위가 소강상태에 이를 때까지 강제전략을 취한다. 반면, 체제 위협적인 시위가 아닐 경우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지방정부에 양보를 종용하던지, 중앙정부 개입 전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양보를 취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강제력으로 시위를 저지하고 강제전략이 통용되지 못했을 경우 지방정부는 시위대와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시위는 소강되고 반대의 경우에 지역적 확산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 경우에 3가지 방법으로 지방에서 발생한 집단시위는 저지될 수 있다. 첫째로, 일반시위에서 체제 위협적인 시위로 시위성격이 변형되었을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개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상태에서 지방정부는 강제전략을 구사하여 시위를 소강시킨다.[38] 둘째로, 중앙정부의 개입 억지력으로 중앙이 관여하기 전에 지방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시위는 소강될 수 있다. 셋째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양보를 종용해서 시위를 소강시킨다.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는 집단시위 규모에 따라 시위 발생지에 ①국가 응급지휘부, ②성급 응급지휘부, ③사건발생지 연합지휘부를 구축할 수 있다. 국가 응급지휘부는 국가차원의 대규모집단성사건을 지휘하고, 성급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우 직권범위 내에서 집단시위를 처리한다. 각 지역에서는 당위원회, 지방정부가 지휘하며, 공안, 검찰, 법원, 사법, 경찰 등 상관 기관은 집단시위 영도소조(領導小組)를 구성할 수 있다(盧俊河 2009, 66). 성급 응급지휘부는 성정부의 통일된 지휘 체계하에 동급 행정구역의 모든 대규모 집단시위사건을 처리한다. 사건발생지 연합지휘부는 당위, 정부, 공안, 국가안전부, 무경 등 유관 부문을 조직해서 현지 정부 지도부가 총지휘를 맡아 동급 규모의 지방 정부와 하급 인민정부의 돌발사건을 처리한다(盧俊河 2009, 66).

1993년 이후 시위 분석 결과, 집단시위 대응 기구로는 인민경찰, 무장경찰, 인민해방군이 동원된다. 단순 시위 발생 시에는 우선적으로 현지의 인민경찰이 동원되어 시위 해결을 시도한다. 그리고 시위가 확산되어 현지 공안 인력이 역부족일 때는 근처 무장경찰 부대가 투입된다. 이때 인민해방군은 통상적으로 계엄법에 따라 국무원에서 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병력 동원은 되지만 통제활동에 전면 나서기보다는 질서유지 업무에 주력한다.

중국 지도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집단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법규로 헌법, 형법, 집회시위법(集會遊行示威法), 치안관리처벌법(治安管理處罰法), 돌발사건대응법(中華人民共和國突發事件應對法), 신방조례(信訪條列), 공안기관집단시위처벌규정(公安機關處置群體性治安事件規定), 인민무경찰법(人民武警察法) 등이 있다. 중국 집단시위 유관 법률은 금지성, 의무성 규정이 많으며 시위 통제 권한부여나 실행 가능한 규정은 많지 않다(言牛, 林海 2009, 128). 또한 원론적이며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 구체적인 시위 대응 매뉴얼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중국 지도부는 시위 대응전략의 규범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가 변화하는 시위 유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집단시위 대응 시, 각급 지방 지도부의 자체

38) 일정한 조건에서 정치성 시위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시위를 초래할 수 있다. 가령,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는 집단 상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당국은 정치문제로 간주하여 처리·대응 한다(湯維建 2008, 9)

판단하에 집단시위를 대비해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지휘자의 시위 위협 인식에 따라 비슷한 원인과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대응방식이 도출될 수 있으며 시위 결과 역시 다를 수 있다.

V. 결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개혁·개방 이후 중앙으로부터 정치·경제 영역이 고도로 분권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면에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집단시위를 매개로 지방정부에 개입하려 하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중앙의 관여를 회피하기 위해 양보를 취하려는 동학(dynamics)이 발생한다. 이러한 동학은 2000년 무렵 중앙정부 주도의 무력사용 억제와 반부패 제도화와 인해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배경으로, 중앙정부는 집단시위 대응을 매개로 지방 통제력 강화와 지배정당성을 제고하려하고 지방정부는 기존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각자의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상충하는 중앙과 지방의 인센티브는 집단시위 발생 이후 양보전략을 견인하는 동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집단시위 발발 후, 즉시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시위 초기 강경책으로 대응하다가 한계에 직면하거나 상급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을 때 시위 확산에 따라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양보를 취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 분권화는 지방 엘리트에게 집단시위 통제권한을 위임했다. 이는 곧 집단시위 통제 실패 시, 지방 엘리트의 책임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각 지방 단위의 지도부는 강제 혹은 양보의 적절한 혼용 전략을 통해 상급정부로의 시위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양보전략과 강제전략의 완급을 조절하며 시위에 대응함으로써, 중국의 집단시위는 범지역적 확산이 저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권화라는 중앙-지방 구조에서, 중국의 집단시위 대응전략을 강제전략과 양보전략의 혼용으로 보고 이를 통해 집단시위가 발생하여도 지역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상기 문제의식을 규명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일당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논의(Friedman 2003; Zhao 2003; Rowen 2007; Pei 2008)와 달리 공산당 일당체제 내에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으로부터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분석적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중국의 집단시위 증가와 체제 안정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강제전략과 양보전략의 완급

을 조율하며 체계적으로 집단시위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향후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서진영(2008). 21세기 중국정치. 서울: 폴리테이아.

陳利華(2005a), "群體性事件考驗中國"「經濟管理文摘」第16期.

_____(2005b), "中國群體性事件10年增 6 倍," 新華網, 7月31日.

崔巍(2010). "對群體性事件的分析"「中共山西省直機關黨校學報」. 第1期.

何平(2010). "現階段群體性突發事件的發展趨勢及應對策略."「安徽廣播電視大學學報」. 第3期.

馮西營,"近期群體性時間的特征及成因分析." 肖唐鏢 主編,『橋維權表達與政府回應 中國社會穩定研究論叢 第三卷』(上海學林出版社, 2012)

高新民, 吳桂韓,「領導幹部應對群體性事件案例評選」(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11).

國家預防腐敗局. www.nbcp.gov.cn. (2012년 3월 12일 검색).

郭永良(2008).“情報信息在群體性事件預防和處置中的作用.” 「經濟學院學報」. 第8卷. 第1期.

黃淑娥, 馬建文,「論公安機關處置群體性事件原則」(廣東警官學院, 政法學刊, 2006年 04期)

建立健全教育, 制度, 監督並重的懲治和預防腐敗體系實施綱要(2005). news.xinhuanet.com/newscenter/2005-01/16/content_2467898_1.htm. (2012년 3월 10일 검색).

建立健全懲治和預防腐敗體系 2008-2012 工作規劃(2008). www.ce.cn/xwzx/gnsz/szyw/200806/22/t20080622_15916771.shtml. (2012년 3월 14일 검색).

京華時報, 公安部長撰文稱處置群體性事件要愼用武器警械 (2008.11.04).

孔衛拿. "農村群體性事件的後果及其治理意義 - 四個安列的比較分析." 肖唐鏢 主編, 『群體性事件研究 中國社會穩定研究論叢 第二卷』(上海學林出版社, 2011).

李婭, 張梅玲(2010). “群體性事件的理性差異與處置的制度優化.”「上海城市管理職業技術學院學報」第19卷 5號.

李連江, 歐博文, "農村的抗議帶頭人研究." 肖唐鏢 主編, 『群體性事件研究 中國社會穩定研究論叢 第二卷』(上海學林出版社, 2011)

盧俊河,『信息化條件下武警部隊處置群體性事件機制研究』(國防科學技術大學, 2009)

馬小林, 周鵬; 劉志玲(2010). “當前我國群體性突發事件的類型, 特點及對策.”「江東論壇」第102期.

毛啓蒙(2010). “網絡群體性事件的特征與對策.”「寧夏黨校學報」第12卷. 第5期.

明報, 貴州騷亂餘波黔南書記下台(2008.07.22)

魯書君(2010). “群體性事件網絡激化作用初探:以P市征地引發的群體性事件爲例.” 「江蘇警官學院學報」 第25卷. 第3期.

歐三任(2010). “當代中國農村法治.” 「湖南公安高等專科學校學報」. 第22卷. 第4期.

彭知輝, 龔心斌(2010). “論在群體性事件治理中情報工作的開展.”「遼寧警專學報」. 第59期.

宋善雲, 劉子陽(2006). “關於對當前群體性事件的主要特點和發展趨勢及如何有效開展工作的分析報告.”「遼寧法治研究」
蘇陽, 賀欣. "馬路上的法庭-某基層政府對勞動者集体抗爭的包容" (北大法律評論, 2011年02期).
湯維建,『群體性糾紛訴訟解決機制論』(北京大學出版社, 2008).
新華網, 公安部長稱處置群體性事件要愼用警械 (2008.11.03).
_____, 解读六中全会《决定》：妥善处理群体性事件 (2006.12月08).
王賜江,『沖突與治理：中國群體性事件考察分析』(人民出版社, 2013).
王立新(2001). “制度轉換: 黨政幹部選拔 制度改革的根本性選擇.”「理論學刊」. 第5期.
熊一新,『治安管理學(修訂本)』(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7).
言牛, 林海, 『預防與處置群體性事件黨政幹部讀本』(人民日報, 2009).
徐行, 王海峰. "關於當前中國群體性事件幾個理論問題."「學習與實戰」2010年07期.
張健(2010). “群體性事件中的弱勢群體問題研究.”「理論學刊」. 第1期.
張傳鶴, "我國群體性事件的最新發展態勢, 成因及對策研究."「山東社會科學」2010年05期.
中國共産党党内監督條例(2004).news.sohu.com/2004/02/17/68/news219106811.shtml. (2012년 2월 18일 검색).
鍾龍彪(2010). “網上群體性事件的特點, 生成及消解.”「湖南行政學院學報」. 第2期.
Althusser, Louis(1971).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Monthly Review Press.
Cai, Yongshun(2007). *Grassroots political reform in contemporary China: Civil Resistance and Rule of Law i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2008a). “Local Governments and the Suppression of Popular Resistance in China.” *China Quarterly*, No. 193.
_____(2008b). “Power Structure and Regime Resilience: Contentious Politics in Chin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8, No. 3.
_____(2010). *Collective Resistance in China: Why popular protests succeed or fail*. Stanford University Press.
Chan, Che-po(2000). "The Political Pragmatism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Suisheng Zhao(ed.). *China and Democracy: Reconsidering the Prospects for a Democratic China*. Routledge, pp. 207-232.
Chen, Feng(2008). "Worker Leaders and Framing Factory-based Resistance." in Kevin J. O'Brien(ed.). *Popular protest i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Chen, Jie(2004). *Popular Political Support in Urba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Chen, Xi(2007) “Between Defiance and Obedience: Protest Opportunism in China.” Elizabeth J. Perry and Merle Goldman(ed.). *Grassroots Political Reform in Contemporary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53-281.
China Labour Bulletin Press. "China Labour Bulletin Press Release on Daqing Oilfield Workers' Protests." Mar 6, 2002.
_____. "Daqing workers continue their protest on Tieren Squar

e on June 4." June 6, 2002, 시위 노동자 인터뷰 재구성.

Friedman, Edward(2003). "A Comparativ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2. Issue 34.

Friedman, George(2005). "The Shanwei Shootings and China's Situation." fullermoney.co.uk. (2012년 02월 10일 검색)

Heilmann, Sebastian(1993). "The Social Context of Mobilization in China: Factions, Work Units, and Activists during the 1976 April Fifth Movement." *China Information.* Vol. 8 No. 3.

Inglehart, Ronald(1977). *The silent revolu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Jenkins, J. Craig & Charles Perrow(1977). "Insurgency of the powerless: Farm worker movements (1946-1972)."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2 Issue 2.

Leung, Trini(2008). "A Cry For Justice: The Voices of Chinese Workers." *Albert Shanker Institute.*

Lipset, Seymour Martin(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3. No. 1.

Moore, Barrington Jr.(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eacon Press.

O'Brien, Kevin J. & Lianjiang Li(1998). "Protest Leadership in Rural China." *The China Quarterly.* Vol. 193, Issue 1.

_____(2006). *Rightful Resistance in Rural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i, Minxin(2008). *China's Trapped Transition: The Limits of Developmental Autocracy.* Harvard University Press.

Perry, Elizabeth J.(1985). "Rural Violence in Socialist China." *The China Quarterly.* Vol. 103

_____(1994). "Shanghai's strike wave of 1957." *The China Quarterly,* Vol. 137.

_____(1995). *Shanghai on Strike: The Politics of Chinese Labor.*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2008). "Permanent Rebellion?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Chinese Protest." Kevin J. O'Brien(ed.). *Popular Protest i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05-216.

Prybyla, Jan S.(1996). "Who has the emperor's clothes?: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mainland China." *Issues & Studies: A Social Science Quarterly On China, Taiwan, And East Asian Affairs.* Vol 32. Issue 7.

Rowen, Henry S(2007). "When will the Chinese people be free?" *Journal Of Democracy,* Vol 18. No. 3.

Rueschemeyer, Dietrich, Evelyne Huber Stephens and John D. Stephens(1992).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heehan, Jackie(1998). *Chinese Workers: A New History.* Routledge.

Tanner, Murray Scot(2004). "China Rethinks Unrest." *Washington Quarterly.* Vol. 27. Issue 3.

_____(2005). "Chinese Government Responses to Rising Social Unrest." *Rand.*

Tarrow, Sidney G.(2011).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PRS Group Inc(2006). "China Country Report." January.

Tong, Yanqi & Shaohua Lei(2010). "Large-Scale Mass Incidents and Government Response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na Studies*. Vol. 1. No 2. October.

Vanhanen, Tatu(2003).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170 Countries." *Routledge Research in Comparative Politics*. Vol 7.

Wright, Teresa(1999). "State Repression and Student Protest in Contemporary China." *China Quarterly*. No. 157.

_____.(2010). *Accepting authoritarianism: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s reform era*. Stanford University Press.

Yang, Guobin(2008). "contention in cyberspace." Kevin J. O'Brien(ed.). P*opular Protest i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26-143.

Zhao, Suisheng(2003). "Political Liberalization without Democratization: Pan Wei's proposal for political reform."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2. Issue 35.

상욱효(한국해양대)
차경자(한국해양대)

<目 录>

一 序言
二 中部崛起计划的促进背景和树立过程
三 中部崛起计划的主要内容和发展成果
四 中部地区和韩国的经贸关系
五 结语

一. 序 言

改革开放以来，中国国民经济保持了平稳 快速增长。东部沿海地区发展更是突飞猛进。中西部地区经济社会也得到较大发展。但是，因为长期实行区域不平衡发展战略，进入20世纪90年代以来，与中国其他区域相比，中部地区的经济社会发展呈现出相对滞后的态势，中西部地区与东部地区发展差距逐渐扩大。为了加快中部地区的发展，国家适时提出了促进中部崛起战略，这是中国继东部率先发展、西部大开发、东北振兴之后最后一个经济板块的国家区域发展战略。

在东部、中部、西部和东北四大经济板块中，中部地区虽然既不是面积最大的，也不是人口最多的，但却是发展任务最艰巨和最复杂的。中部发展的艰巨性和复杂性，缘于中部在“农村人口比重”、“第一产业比重”和“第一产业就业比重”等方面与全国的“二元结构”特点具有高度的一致性[1]。中部崛起必须以“三农[2]”为突破口，这不仅是解决中部经济的关键，也是解决中国

1）张杏梅，<中部崛起中的三农问题研究>，《经济地理》，2008年1期.
2） 所谓“三农”问题，就是指农业 农村、农民这三个问题。实际上，这是一个居住

经济和实现全面小康社会的关键。中部崛起面临着与东部率先发展、西部大开发、振兴东北老工业基地等都不相同的矛盾和任务，需要从中部发展的实际需要出发，具有很强的针对性的功能性区域政策来推动，而不是简单地把现有的东部开放政策、西部开发政策和振兴东北政策简单地向中部地区延伸和推广就可以达到目的。与推动其他区域发展的有关政策相比，促进中部崛起政策的基本功能定位是加快这一地区工业化、城市化进程，逐步消除二元结构[3]。

自2005年中部崛起战略正式实施以来，中部地区的经济社会发展速度明显加快，总体竞争力不断提升，在国内四大经济区域板块中的地位也不断提高，中部崛起战略取得了积极成效，但同时经过这几年的发展，在中部崛起过程中一些深层次的老问题仍未得到彻底解决的同时，又不断面临着一些新问题[4]。本文从2005年开始到2012年的八年时间里对中部地区进行了详细的分析和介绍，从中部崛起的历史背景以及树立过程到中地区的发展现状和中部崛起的八年时间的发展成果，并且还对中韩间的进出口贸易以及中部地区与韩国的贸易往来，韩国对中部省份以及其他各区域的直接投资做了比较分析。

二. 中部崛起计划的促进背景和现状

1. 划的促进背景

本世纪初，在经历了东部率先发展[5]、西部大开发[6]、东北振兴[7]等区域

地域、从事行业和主体身份三位一体的问题，但三者侧重点不一，必须一体化地考虑以上三个问题。中国作为一个农业大国，“三农”问题关系到国民素质、经济发展，关系到社会稳定、国家富强。
3） http://www.sdpc.gov.cn/dqjj/qyzc/t20061229_106660.htm，关于促进中部崛起的政策问题研究，国家发改委网站.
4）晏涛，<促进中部崛起研究>，中国社会科学院博士论文，2012.
5） 东部率先发展包括北京、上海、天津、河北、江苏、浙江、山东、广东、海南、福建十个省市，在改革开放中，东部沿海地区的率先发展.
6）西部大开发由国务院2000年1月开始实施的包括重庆、四川、贵州、云南、西藏、西、甘肃、青海、宁夏、新疆、内蒙、广西等12个省、自治区、直辖市在内的开发战略。

开发浪潮之后，中部地区在全国几大政策板块的格局中呈现“凹陷”态势，引起越来越多的人们对中部地区的关注和思考　促进“中部崛起”开始逐渐上升为国家战略。中部地区的经济总量和总体发展水平不仅大大低于东部沿海发达地区，而且明显低于全国平均水平。有数据显示，从1980年到2003年的20多年中，东部地区在全国经济总量中的比重，从50.2％增加到了58.86％，特别是90年代以后，激增了7个百分点。中部地区在全国范围内的地位呈不断下降趋势。反映在人均GDP水平上，1980年中部地区人均GDP相当于全国平均数的88％，1990年下降到83％，而到了2003年，中部地区只相当于全国水平的75％[8]，中部地区与东部地区的GDP差额比扩大了6倍。从居民收入看，2012年在全国31个省、自治区、直辖市城镇居民收入中，中部地区人均可支配收入比全国平均水平低5，790元，城镇居民人均收入排名前10位的省（区、市）中，西部地区有1个，中部地区没有一个[9]。

中部地区的发展势头和发展速度不仅明显低于东部沿海发达地区，而且低于西部地区。西部大开发以来，中部原本落后的投资增长速度又大大落后于西部地区。1998年，西部地区固定资产投资增长31.2％，比中部地区高16.8个百分点。2001年1月到7月，西部地区投资增长20.1％，又比中部地区高2.5个百分点，中部地区成为全国投资的“锅底”。

中部地区的“三化[10]”进程即工业化、城市化和市场化进程，不仅明显滞后于东部沿海发达地区，而且也滞后于全国平均水平。第二产业增加值占国内生产总值的比重是衡量和反映工业化进程的基本指标，全国该项指标为52.2％，中部六省为45％左右，中部地区比全国平均水平低了7个百分点。中部地区缺乏具有很强的综合实力、带动能力和辐射能力的经济中心城市及城市群，中部地区的中心城市没有1个进入全国城市竞争力排名前10位。农村人口及农村劳动力向城镇和非农产业转移的速度较慢。2003年第一产业从

7）东北振兴由国务院2003年9月开始实施的包括辽宁省　吉林省和黑龙江省在内的东北老工业基地的振兴规划。

8）http://finance.sina.com.cn/roll/20050311/09191422138.shtml.

9）http://finance.sina.com.cn.

10）三化指的是工业化城市化和市场化。工业化是指一个国家和地区国民经济中，工业生产活动逐步取得主导地位的发展过程。城市化是指是由农业为主的传统乡村社会向以工业和服务业为主的现代城市社会逐渐转变的历史过程，具体包括人口职业的转变、产业结构的转变、土地及地域空间的变化。市场化是指利用价格机能达到供需平衡的一种市场状态叫市场化。

业人员占全部从业人员的比重，中部六省比全国平均水平要高近5个百分点。非国有经济发展的状况是市场化进程的重要内容，非国有经济发展规模占经济总量的比重是反映市场化进程的基本指标之一，中部地区的该项指标明显低于全国平均水平，更低于东部沿海发达地区。全国的城镇从业人员中，非国有占73.2％，中部地区仅占52％，中部地区比全国平均水平低了近22个百分点，比浙江低了近24个百分点[11]。从另一个角度来看，中部地区的工业化、城市化和市场化进程与全国平均水平的差距，特别是与东部沿海地区的巨大差距，实际上也就是“中部塌陷”在发展结构和经济结构变动方面的具体表现。

2.　　划树立过程

为促进中部地区（河南、湖北、湖南、江西、安徽、山西六省）经济快速发展，中共中央提出了“中部崛起”的战略。中部六省对中部崛起战略非常拥护，并报有很高期望。中部六省希望中央加大对中部崛起的政策支持力度，支持中部建立先进制造业基地，建设全国粮食核心主产区，加快老工业基地改造、资源型城市转型和国有企业改革，解决交通设施的薄弱环节，治理生态和环境，减轻财政负担。[12]

<表1> 中部崛起大事记

2003年10月	提出中部崛起政策。
2004年9月	中部崛起政策出台。
2005年8月	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中央军委主席胡锦涛在湖北考察，要求湖北以科学发展观统领发展全局，把湖北建成促进中部地区崛起的重要战略支点。
2005年9月	国家开发银行与湖北省人民政府在汉签订《促进中部崛起开发性金融合作协议》，国家开发银行向湖北省“十五”、“十一五”规划建设的项目提供500亿元政策性贷款。
2006年2月	国务院一次常务会议上，专门讨论了一份促进中部崛起的纲领性文件－－《促进中部崛起的若干意见》。

11）李中元，≪2012年中部蓝皮书≫，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3年.

12）정영록・쉬창성 공편저，≪중국의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p.39.

2007年1月	中部崛起政策范围公布
2008年1月	国家发改委牵头发起促进中部地区崛起工作部际联席会议，编制《促进中部地区崛起规划》列入了国务院的工作日程表。
2009年9月	国务院通过《促进中部地区崛起规划》，湖北构建促进中部地区崛起重要战略支点进入国家战略层面。
2010年8月	国家发改委通过《促进中部地区崛起规划实施意见的通知》和《关于促进中部地区城市群发展的指导意见的通知》,明确2015年中部地区崛起的12项主要量化目标和一系列任务要求,提出2020年促进中部地区崛起的总体目标。

资料来源：中部崛起网

三. 中部崛起计划的主要内容和发展成果

1. 划的主要内容

中共中央国务院在2006年4月15日正式发部了《国务院关于促进中部地区崛起的若干意见》 促进中部地区崛起是継鼓励东部地区率先发展、实施西部大开发、振兴东北等老工业基地后，国家对建设全局作出的又一重大决策。

1）建立全 最大的农产品基地

中部六省处于亚热带和温带气候，日照量非常丰富，降雨量也相当充沛。适合农业的平原地区。适合于林业的山地。适合与饲养业的草原和适合于雨夜的湖水，造就了多样的生态环境。长江、黄河、淮河、海河四大河流途径中部六省，其中鄱阳湖、洞庭湖、巢湖等淡水湖泊位于中部地区，水域面积达到了7,029亿立方米，占全国的25%。可灌溉粮食面积216万吨，占全国的46.2%.[13]在全国的农业区域只比华南地区相比较低，高于其他的所有地区，农业开发利用率低于东部地区单位面积内的产量，与东部相比有较大的差距，说明存在较大的潜在力。西部人均可种植土地面积广阔，自然条件和经济技术条件只有中部地区相对落后。中部地区是中国最重要的商品粮和饲

13）仵雁鹏，<中部地区主导产业选择研究>，≪郑州大学学报≫，2009年03期.

料基地。中部地区肩负着全国粮食的自给率和粮食的品种改良还有饲料供给的重任。2012年中部六省的粮食产量为17，735万吨，占全国粮食总产量（58957万吨）的30.08%。[14]

除此之外，油料、棉花、猪肉等农产品的生产量也非常大，淡水水产品每年的生产量也占到了全国的25%--45%的程度，为北京、上海、浙江、福建、广东等沿海区域提供了强有力的保障。

(2) 建立全国最重要的煤炭、电力能源基地

中部地区虽然只有占全国10.7%的土地。但却占有全国30%左右的矿物资源。主要的矿物资源占有率达到了土地占有率的三倍以上，其中贵金属、有色金属、稀有金属、能源矿物量占到了全国的三分之一以上。钢铁、化工原料约占全国的五分之一左右。建材和非金属矿物占有量为10.8%和土地的占有量相当。[15]中部六省的矿物资源不仅比东部丰富，还为西部的农业和能源的原料等基础产业的发展提供原材料。和中国的其他地区相比，资源非常风富。中部是中国的重要能源基地。江西的原子能发展、山西、河南、安徽的煤炭产业、湖北湖南的水力发电都是中国各行业的领头羊。全国最大的铀生产基地、煤炭生产基地、水力发电站都是全国最大的基地。山西的煤炭产量，湖北的水力发电量都是全国最高的。东部工业的高速发展再很大程度上依赖于中部地区在能源上的保障。

(3) 建设以钢铁、汽车为主的重工业基地

中部地区有丰富的原材料、重工业构造的特征。中部六省的原材料工业属于优势产业。中部是全国的钣金、特种钢、合金、铁、钨、铝、铅、锌的重要生产基地之一，水泥、玻璃等在全国也占有相当大的份额。还是全国的煤炭化工业基地。2012年中部成为最大的钢铁生产基地，其中河南省达到了5，697万吨，中部六省达到32，659万吨，占到全国钢产量71，654万吨的

14）2012年中部各省统计公报，2012年中国统计公报.
15）萧一啸，<中部崛起的发展意义及其路径>，≪财政监督≫，2011年04期.

45.6%　中部汽车工业也是全国的六大集中地之一。占有率达到了全国的16.2%.[16]

(4　大对内对外开放

发挥承东启西的区位优势，促进中部地区与东、西部地区协调互动发展。加强政策引导和组织协调，为中部地区企业与东部地区企业、跨国公司对接搭建平台，更好地承接东部地区和国际产业的转移。支持中部地区与东、西部地区在粮食、能源、原材料等方面建立长期稳定的合作关系。推动中部地区与东、西部地区在人口流动与就业方面加强合作。鼓励中部地区与毗邻的沿海地区推进区域经济一体化建设。

努力提高对外开放水平。加强进出口协调和服务，加大中央外贸发展基金政策支持力度，转变贸易增长方式，优化贸易结构，开拓国际市场。支持一类口岸建没，建好出口加工区，引导加工贸易向中部地区转移。加强指导和服务，鼓励有条件的企业“走出去”，扩大对外劳务输出的规模。

2.　　划的发展成果

(1) 评价指标

中部崛起从2005年开始正式实施以来，中部地区结合自身优势，打造支柱产业，要打造为中国的粮食，蔬菜生产基地；打造能源原材料基地；建设以钢铁、汽车为基础的重工业基地；大力开放中部市场，加快口岸通关建设。加强中部地区口岸基础设施建设，完善口岸功能布局，推进铁路公路水路联运，增加口岸作业区，开辟航空口岸通道。

16) 中国国家统计局，2012年中部各省统计年鉴.

<表2> 评价指标

目标	指标项目	评价内容
建立全国最大的农产品基地	第一产业	通过第一产业　粮食、棉花、油料的指标来衡量农产品基地的建设，煤炭，原油，电力来评价能源基地的建设，以钢铁和汽车的产量衡量重工业基地的建设，用进出口来说明对外开放的程度
	粮食	
	棉花	
	油料	
建立全国最重要的煤炭、电力能源基地	煤炭	
	原油	
	电力	
建设以钢铁、汽车为主的重工业基地	钢铁	
	汽车	
扩大对内对外开放	出口	
	进口	

(2) 中部崛起成果的发展分析

“中部地区是国家主要粮食生产地,以国家力促中部地区崛起为契机,中部各省加大农业结构调整,积极发展现代农业,打造全国粮食生产基地。

中部地区打造粮食生产基地,与中部地区先天具备的优势分不开。据统计,目前中部地区的耕地面积为28881.6千公顷,占全国总耕地面积的23.8%,其中粮棉油的产量分别占全国的30.1%、22.6%、42.5%,中部地区的粮食生产不仅满足了本地区的需要,而且也大量输出到其他地区。

中部地区规划了3个农产品优势产区,一是棉花优势产区,二是油菜优势产区,三是特色农产品优势产区。《实施意见》还对中部地区农业结构调整做出了部署。

国家计划在中部构建现代粮食物流中心,重点支持郑州小麦物流节点和武汉、长沙、九江等稻谷物流节点建设提上日程。《实施意见》再次强调要建设一批粮食储备和中转物流设施,实施农户科学储粮专项工程等,确保中部粮食产业基地实力增强。

<表3> 中部地区发展成果(2005-2012年)

单位: 万吨，亿吨，亿瓦，台，%

目标	指标	2005		2012		成长率
		产量	比重	产量	比重	
粮食生产基地	第一产业	6,204.6	27%	14,022	26.8%	126%
	粮食生产	14,778	30.5%	17,734	30.1%	20%
	棉花	176.4	30.9%	154.6	22.6%	-12.4%
	油料	1,252	40.7%	1,461	42.5%	16.7%
能源基地	原油	585	3.2%	555	2.7%	-5.1%
	煤炭	9.2	41.8%	13.7	37.45	49%
	电力产量	5,682	22.7%	11,196	22.7%	97%
重工业基地	粗钢	7,502	21.2%	14,940	20.9%	99.1%
	汽车	100.2	17.6%	313	16.2%	212%
对外开放窗口	出口	244.2	3.2%	1,206	5.9%	394%
	进口	170.9	2.6%	728.7	4%	326%

资料来源：2005年，2012年中国统计年鉴

经过近年来的努力，中部地区“能源原材料基地”建设取得了明显进展据国家发改委相关负责人介绍，2012年中部地区原煤产量突破13.7亿吨，比2005年增长49%，煤炭行业集约化、规模化水平大幅提高；电力总装机容量达到11196.3亿千瓦，是2005年的约2倍。在原油产量上，加强洛阳、武汉、安庆、九江等大中型石油化工企业技术改造和改扩建，加快形成中部地区大型原油加工基地，适当提高烯烃、芳烃和三大合成材料等化工原料生产能力，重点推进武汉80万吨乙烯、洛阳68万吨对二甲苯和100万吨精对苯二甲酸、长岭30万吨SBS(苯乙烯－丁二烯－苯乙烯嵌段共聚物)扩建等工程建设。

中部地区加大投资力度，大力建设重工业基地，钢铁的产量从2005年的7502.5万吨，增长到了2012年的14940.2万吨，增长了99.1%，产量约提高了两倍。汽车产量大大提高由2005年的100万台产量，增加到了2012年的313万台，增长了约3.1倍。近年来，中部地区对外贸易取得新突破，利用外资取得新进展。进出口总额从2005年的415亿美元增至2012年的1934.3亿美元，增长4.7倍，占全国比重由2.6%增至4%；其中，出口从244.2亿美元增至1205.6亿美元，增长5倍；进口从170.9亿美元增至728.7亿美元，增长4.3倍。

特别是近年以来，中部地区通过召开中部博览会，让大家认识中部，投资中部，中部博览会已成为推动中部六省扩大对外开放和加强区域及国际交流合作的重要平台。

<表4>2012年各地区间指标比重对比

单位：%

目标	指标	中部	东部	西部	东北
粮食生产基地	第一产业	26.8%	35%	27.4%	10.8%
	粮食	30.1%	24.7%	26.3%	19%
	棉花	22.6%	23%	54.2%	0.1%
	油料	42.5%	23.8%	27.2%	6.5%
能源基地	原油	2.7%	38%	31.3%	28%
	电力	22.7%	39.7%	31.6%	6%
重工业基地	粗钢	20.9%	55%	14.4%	9.8%
	汽车	16.2%	46.5%	24.3%	13%
对外开放窗口	出口	5.9%	83%	7.3%	3.8%
	进口	4%	86.3%	4.8%	4.8%

资料来源：2012中国统计年鉴

从中部地区来看，随着国家《促进中部地区崛起规划》以及各省国家级区域规划的稳步实施，区域基础设施的逐步完善，中部六省经济发展的基础更加夯实，仍将保持加快发展的态势。但今年以来，粤、浙、沪等东部沿海省份经济增速的持续走低，其滞后影响有可能通过上下产业链等连锁反应来影响中部地区经济发展，中部六省经济下行的压力也在加大。从拉动经济增长的内需动力来看，第一产业中中部占全国的比重为26.8%，仅低于东部十省，粮食产量更是几乎达到了全国的三分之一，为粮食安全提供了有力的保障；在能源方面电力达到了全国的22.7%，也基本上达到了中国的四分之一。但是中部地区对外开放明显不足，进口只占到了全国的4%，只有东部地区明显过高，为86.3%跟其它三个地区比，明显的不均衡。出口也面临同样的问题，中部地区为5.9%，而东部地区则为83%，明显大大的高于其它三个地区。

3）中部六省之　的对比

中部地区包括河南　湖北、湖南、江西、安徽、山西六个相邻省份，中部依靠全国10.7%的土地，承载全国28.1%的人口，创造全国约22.4%的GDP，是中国的人口大区、经济腹地和重要市场，在中国地域分工中扮演着重要角色。从中国整体发展的角度考虑，中部就是中国的“腰”，只有“腰板”直了。中国才能走得正、走得稳，中国经济才能协调健康发展。从这个意义上来说，加快中部地区发展是提高中国国家竞争力的重大战略举措，是东西融合、南北对接，推动区域经济发展的客观需要。

<表5> 中部六省2005年-2012年经济总量对比

单位: 亿

年份	河南	湖北	湖南	江西	安徽	山西	中部总量	全国总量
2005年	10,587	6,590	6,511	4,057	5,375	4,180	37,300	184,937
2006年	12,,496	7,617	7,569	4,671	6,131	4,715	43,348	216,314
2007年	15,013	9,333	9,200	5,500	7,364	5,733	52,443	265,810
2008年	18,408	11,329	11,157	6,480	8,872	7，056	64,193	314,045
2009年	19,480	12,961	13,060	7,655	10,053	7,366	70,575	340,902
2010年	23,092	15,968	16,038	9,451	12,263	9,088	85,900	397,983
2011年	26,931	19,632	19,635	11,584	15,110	11,100	103,992	471,564
2012年	29,810	22,250	22,154	12,949	17,212	12,113	116,488	519,322

资料来源：2005年-2012年各省统计年鉴

2005年河南省的经济总量为10，587亿元人民币，占到了整个中部地区的28.4%，占全国的5.7%。相对与同期的其它省份而言所占比重最大，然后是湖北省和湖南省，最后才是安徽省、江西省和山西省。中部崛起的八年时间里中部各省的经济增长速度较快，2009年受世界经济危机影响，中部六省的增长速度也有所放缓，但进入2010年以后中部各省的经济恢复速度较快，又开始有了较大的增长。2012年河南省的经济总量仍然保持了全国第五，中部第一，达到了29，810亿元，占中部地区总量的25.6%，全国的5.7%。与2005年相比在中部地区所占比重有所下降，在全国所占的比重与2005年基本持平，说明河南省经济增长率低于中部其它省份的增长率。中部六省中，湖

北省和湖南省在中部崛起的八年里增长速度最快，2012年时分别达到了22，250亿和22，154亿元，分别位于中部的第二三位，占中部地区的19.1%和19%。中部的GDP总量2005为37，300亿元，全国为184，937亿元，2012年中部的GDP总量为116，488亿元，全国为519，322亿元，中部从2005年的占全国比重20.2%增长到了2012年的22.4%。

<表6> 2012年中部六省间各项指标对比

单位：亿元　%、元、亿美元、元

省份	河南,	湖北省	湖南省	江西省	安徽省	山西省
GDP总量	29,810	22,250	22,154	12,949	17,212	12,113
GDP在中部所占百分比	25.6	19.1	19	11.1	14.8	10.4
第一产业在中部所占百分比	26.9	20.3	21.4	10.8	15.5	5
第二产业在中部所占百分比	27.4	18	16.9	11.2	15.1	11.3
第三产业在中部所占百分比	22.3	20.3	21.4	11.1	13.9	10.9
人均GDP	31,753	38,642	33,589	28,848	28,841	33,710
进出口总额	518	320	219	334	393	150
城镇居民可支配收入	20,443	20,840	21,319	19,860	21,024	20,412
农村居民可支配收入	7,525	7,852	7,440	7,828	7,161	6,357

资料来源：2012年各省统计年鉴

2012年的经济数据显示中部地区河南省的GDP总量最高为29，810亿元，山西省最低位12，113亿元，从三大产业上来讲的话，河南省的第一产业所占比重为中部地区的26.9%明显高于其它省份，为中国的粮食产量作出了巨大贡献。山西省的第一产业在中部地区所占比重为5%，湖南省、湖北省也都相对较高可见中部粮食基地主要依靠河南省和湖南湖北三省。第二产业中，河南省的工业所占比重较大为27.4%，而其他省份则相差不大，河南省因为人口众多，生产力资源较便宜，所以制造型企业发展较快。在第三产业上，河南省、湖北省、湖南省相差不大，相对来讲河南省的第三产业相对不足，农业工业所占份额过大，各省2012年人均GDP，湖北省最高达到了38,642元，高于同期的全国平均水平，但江西省和安徽省则明显过低，分别

为28，848元　28，841元,中部地区人均GDP为32，564元低于同期全国的人均GDP 38，354元5，790元。进出口总额河南省明显高于中部的其他省份。城镇居民可支配收入和农村居民纯收入六省间差距不大，因为中部地区人口众多导致可支配收入低于全国平均水平。

．中部地　和韩国的经贸关系

中韩两国1992年8月24日建交以来，两国友好合作关系在各个领域都取得了快速发展。政治上，两国领导人经常互访或在国际多边活动中会晤，增进了相互理解和信任，推动了两国关系的发展。经济上，两国互利合作不断深化，互为重要的贸易伙伴。在文化、教育、科技等领域的交流与合作日益活跃。两国在地区及国际事务中也保持着密切协调与合作。

建交以来，两国政治关系进展顺利。1998年金大中总统访华，双方宣布建立面向21世纪的中韩合作伙伴关系。2000年朱熔基总理访韩，双方同意将这一关系推向全面合作的新阶段。2003年韩国总统卢武铉访华，双方宣布建立中韩全面合作伙伴关系。2008年5月李明博总统访华，双方宣布建立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韩国总统朴槿惠将于2013年6月下旬对中国进行国事访问。

1.　　与韩国的进出口贸易及现状

中韩1992年建交以来，双边贸易发展迅速，贸易额由1992年的50.3亿美元猛增至1997年的240.4亿美元，年均递增36.7%。1998年受金融危机影响贸易额有所回落。1999年，双边贸易再度呈现良好增长态势，全年达250.36亿美元，同比增长17.7%，中方出口78.08亿美元，进口172.28亿美元，同比分别增长24.9%和14.7%。

在进出口商品结构方面，多年来，中国对韩国出口商品主要有纺织原料及其制品、原油及成品油、玉米、煤炭等原材料，其它大宗商品有化工原料、钢材、皮革制品、鞋类、饲料和机电设备等，近年来，电子零部件等高附加值商品对韩出口有所增加。中国自韩进口商品主要是化工品、电子产品、纸张、钢铁等。

<表7>2012年中部各省与韩国之间的进出口贸易

单位　亿美元

省份		河南	湖北	湖南	江西	安徽	山西	全国
进口	金额	42.1	4.2	3.3	2.3	7.8	2.2	1,817
	增长率	171	-27.1	71.9	-17.4	-3.6	17.7	4.3
	排名	1	11	9	11	7	6	--
出口	金额	7.8	5.1	6.6	7.8	5.4	6.5	2,050
	增长率	-12	-28.3	-24.9	35.8	0.2	-23.6	7.9
	排名	9	7	4	10	13	3	--
合计		49.9	9.3	9.9	10.1	13.2	8.7	3,867

资料来源　韩国贸易协会

2012年中部六省当中与韩国的贸易往来最多的是河南省，贸易额达到了49.9亿美元。占中部地区的49.4%,几乎达到了一半，其余五省则相差不大，安徽省位列第二，然后是江西省、湖南省、湖北省、山西省。从上表可以看出，中部地区与韩国的贸易往来明显偏少，整个中部地区占到了全国的2.6%，明显低于东部沿海地区和东北地区。中国和韩国的进出口贸易达到了3,867亿美元，其中进口1,817亿美元，出口2,050亿美元。2012年河南省对含进口达到了42.1亿美元，占整个中部地区的68.5%河南省的进口对象国里韩国名列第一，安徽省则位列第二，为7.8亿美元，达到了12.6%在其进口对象国里位列第七，其余省份则明显偏低。

从2012年中部各省份对含进口的增长率来看，河南省和湖南省山西三省呈增长趋势，河南省增幅最高达到了171%，湖南省的增长率也达到了71.9%，山西省的增长率也达到了17.7%。而湖北省、江西省、安徽省则与2011年相比呈现下降趋势，其中湖北省对韩进口则下降了27.1%。而从出口贸易上来讲，河南省跟江西省的对韩出口贸易额最高位7.8亿美元，然后分别是湖南省和山西省，分别为6.6亿美元和6.5亿美元，其中山西省的出口对象国中韩国位列第三，2012年中部六省对韩出口增长率，江西省增长最快达到了35.8%，湖北省则下降最快达到了28.3%。

中部各省跟韩国的进出口商品类别都非常单一，并且量不大，以河南省为例电机电气设备的进口占到了全部进口量的98.8%，增加率达到了191%。河南省对韩国的出口电机电气设备达到了全部出口量的18.5%，增长率更是

达到了584.7%　其他各省与河南情况大致相同，主要表现为进出口产品单一，并且整个中部对韩国的进口才占到全中国的3.7%，出口占到了4.5%，远远低于东部沿海地区和东北地区。

韩国从中国进口的商品类别主要有钢材、自动数据处理设备及其部件、有线电话，店保设备，包括有线载波通信设备，电器音响或视觉信号装置，未锻轧铝，煤；煤砖煤球及用煤制成的类似固体燃料，变压器、静止时变流器（例如整流器）及电感器。中国向韩国出口最多的是鱼和谷物产品。目前，中国玉米在谷类产品出口中占绝对有事，蔬菜类产品在韩国市场份额以超过美国，但水、海产品、水产品制品、禽肉、大米和油籽的出口具有一定的不稳定性。

韩国对中国出口商品类别主要有核反应堆、锅炉、机械器具及零件，电机电气、音响设备及其零附件，光学照相、医疗等设备及零附件，车辆及其零附件，但铁道车辆除外，未列明液晶装置。光学仪器及器具；激光器，集成电路及微电子组件，有线电话、电报设备，包括有线载波通信设备，石油及从沥青矿物提取的油类及制品；电视接收机；包括视频监视器及视频投影机等等。

2.　国　中部地区的直接投资以及其他区域的对比

中国由于先富论的战略影响，东部沿海地区经济率先发展起来，相对的是中西部经济发展总体上比较落后。地域间的经济成长差别在改革开放以后急剧扩大。成为1990年以后中国政府的重要政策问题。所以1999年的西部大开发，2003年的东北振兴计划2005年的中部崛起计划的实施，都是政府为了扶持落后地区经济发展所展开的一系列大型的地区经济发展政策。

<表8>2005年-2012年韩国对中部各省的投资

单位　百万美元

年份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河南省	次数	6	12	5	9	11	3	11	8
	金额	18.2	7.6	3.7	5.4	28	2.4	8.4	2.9
湖北省	次数	4	19	19	10	13	10	4	5
	金额	3.2	10.3	23.8	4.1	20.8	14.3	0.5	0.3
湖南省	次数	5	14	14	5	7	4	6	6
	金额	61.8	81.8	2.6	6.3	124.9	22.3	80	30.3
江西省	次数	2	12	23	15	12	16	4	14
	金额	0.3	8.1	82.3	128.2	38.1	51.2	4	3.3
安徽省	次数	32	17	21	18	9	12	9	17
	金额	12.5	8.1	12	16.7	4.6	14.5	40.7	12.6
山西省	次数	2	4	11	3	3	3	3	8
	金额	0.1	2.6	50.1	130.8	0.8	0.5	0.1	0.8

资料来源　韩国进出口银行

总体来看，2005年到2012年韩国对中部各省的投资，呈现不稳定不均衡化。韩国对河南省的直接投资中金额最高的为2009年的28百万美元，然后是2005年的18.2百万美元，投资次数最多的为2006年的12次和2009年2011年的11次，由此可以看出韩国对河南省的投资呈现金额规模小，投资比重较轻。韩国对湖北省的投资在2007年时候达到最高为23.8百万美元，然后是2009年的20.8百万美元，但在2010年以后韩国对湖北省的投资明显减少，2011年为50万美元，2012年为30万美元。与河南省还有湖北省相比，韩国对湖南省的投资则较多，2009年投资7次达到124.9百万美元，2006年也投资14次打代课81.8百万美元，在2011年也达到了80百万美元。韩国对江西省从2005年到2012年的投资则呈现两头少、中间多的趋势。2008年韩国对江西省投资15次达到128.2百万美元，2007年投资23次达到了82.3百万美元。韩国对安徽省的投资最高为2011年的9次40.7百万美元，然后是2008年的18次16.7百万美元。而韩国对山西的投资最高为2008年的3次130.8百万美元和2007年的11次50.1百万美元，表明对山西省的投资次数虽然较少，但是投资额较大。

<表9>韩国对中国各地区直接投资

单位：百万美元，%

年份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全国	2,834	3,475	5,330	3,791	2,176	3,636	3,683	3,306
东部	2,710	3,312	5,137	3,441	1,941	3,494	3,505	2,782
占比	95.6	95.3	96.3	90.7	89.2	96.1	95.2	84.2
中部	96	119	174	291	217	105	134	50
占比	3.4	3.4	3.3	7.7	10	2.9	3.6	1.5
西部	28	44	19	59	18	37	44	474

占比	1	1.3	0.4	1.6	0.8	1	1.2	14.3

资料来源　韩国进出口银行

通过韩国对中国各地区直接投资不难看出，从2005年到2012年的八年时间里，韩国对中国投资在2007年时候达到最高为5，330百万美元，受到世界金融危机影响后，2009年最低只有2,176百万美元，之后的几年时间里有所恢复，在全国各个地区上来看，韩国对中国的投资绝大多数集中在中国东部地区，2007年韩国对动不得投资比重占到了全国的96.3%，比重最低为2012年也达到了84.2%　八年时间里韩国对东部直接投资比重为92.8%相对于东部来讲，韩国对中国中西部的投资则明显的过于偏少。中部再2008年的时候，韩国对中部的投资额达到了最高的291百万美元，2009年为217百万美元，占到了全国的10%。韩国对西部的投资则一直维持在较低状态，只有在2012年的时候达到了474百万美元，占全国的14.3%,而2005年到2011年的七年时间里平均比重则只有百分之一，由此不难看出受到地理、环境、交通运输等条件的影响，韩国对中西部的投资太小，过于集中在东部地区，但是中西部地区幅员辽阔、人口众多、资源丰富、市场较大，是中国以及世界未来的发展中心，韩国应该加强对中西部的重视，大力加大对中西部地区的投资。

3.　　与韩国的合作展望

从总体情况看，中韩两国经济合作潜力巨大，前景十分广阔。中韩贸易总量增长非常快。1992年贸易额仅为50亿美元，2012年达到3867亿美元，增长近78倍。中韩贸易在2005年时即达到1119.3美元，成为継美国和日本之后的第三个对华贸易超过千亿美元的国家。中国超越日本，成为向韩国出口最多的国家。两国贸易目前快速增长。目前，韩国是中国的第六大贸易伙伴、第六大出口市场和第三大进口来源地。而中国则是韩国第一大贸易伙伴、第一大出口市场和第二大进口国。在韩国，每两家贸易企业中就有一家和中国进行贸易；而在中国，每三家贸易企业中就有一家同韩国进行贸易。可见，

中韩贸易发展非常快。有人说美国和日本才是韩国最主要的经贸伙伴，而实际上，中韩贸易额已接近韩国对美日贸易总合。

21世纪以来中韩贸易大幅度增长的主要原因如下：一是两国经济持续快速增长，中国经济增长年均在10.1%，韩国经济年均增长也在4.7%的水平。经济的快速增长，不仅为各自的出口提供了丰富的物质基础，也为扩大进口开辟了广阔的市场空间。二是随着两国领导人的频繁互访和人员往来的增加，两国关系全面发展，韩国承认中国市场经济地位，两国正在研究建立FTA关系，为双方的经贸发展提供了良好的合作环境。三是韩国商品竞争力强，与其它国家和地区相比，韩国很多技术含量高的商品在价格上较适合中国市场，售后服务也令消费者满意。四是中国加入WTO后，市场更加开放有利于对外经贸的发展。五是近年来韩国企业对中国实际投资一直处于较高水平，带动了韩国产品和相关零部件对中国出口的急剧增加，同时在中国生产的产品也返销到韩国市场，增加了对韩国的出口。

两国的进出口结构进一步从原料型向制成品方面转化，由低附加值向高附加值方向提升。20世纪90年代初的中韩贸易，韩国主要向中国出口工业产品，而进口中60%是工业产品，其它是农产品和原材料。90年代末以后，韩国对中国的出口中的工业产品占85%，中国对韩国出口中的工业产品约占75%。贸易结构发生了以进出口工业产品为主的变化。这表明两国贸易由产业间贸易逐渐地转变为产业内贸易。

还有两国贸易逆差不断增大。1992年贸易逆差为2.2亿美元，到2012年达到233亿美元，20年增长100多倍，韩国开始成为中国最大贸易逆差来源国。中韩之间的逆差产品以技术和资本密集型产品为主，顺差产品以劳动密集型产品为主。韩国的统计也表明，自2003年起，中国已经成为韩国仅次于美国的最大贸易顺差国。中国对韩国贸易逆差不断增加的原因为结构性因素，世界性劳动力密集型产品的生产向中国转移，而核心部件和关键技术依靠从韩国或日本进口，加工组装后的产品在出口到欧美等国家。随着中国经济的增长，从韩国的进口大大增加，而对韩国的出口增长则赶不上进口的增长。而且，中国企业对韩国市场的开拓不够，不能根据韩国市场的需求特点、消费习惯，在中国生产适销对路的商品对韩出口。韩国企业注重向中国出口，却

对从中国进口不很积极

实际上，两国在贸易上完全可以实现均衡发展，因为在进出口商品中，80%以上是工业制品，说明双方互补性强。只要双方在积极扩大出口的同时，也注重从对方的进口，完全可以实现均衡发展。

五. 结语

中部地区经济总量和人均GDP持续快速发展。从经济总量看，自中部崛起战略实施以来，中部地区国民经济实现了持续平稳较快增长，经济总量占中国的比重比战略实施前稳步提高，增幅达129%，年均增幅达15.3%，超过全国平均水平5个百分点。人均GDP在实施中部崛起政策之后取得了较快增长。2005年-2012年，中部地区人均GDP年均增幅超过13.5%，高于同期全国平均水平。

但是中部产业结构有待升级，科技对经济增长的带动能力不强。中部地区产业结构水平从2005年以来虽有所改善，但与全国平均水平相比还有一定的差距：第一产业比重偏高，第三产业比重则明显偏低。第二产业中，高耗能的重工业所占比重较高，传统轻纺工业成萎缩之势，高新技术发展相对滞后，缺乏有重大影响力的领军型企业和产业。

外向型经济发展不足，产业优势没有充分发挥。中部地区对外贸易存在的问题：一是对外贸易依存度偏低。2005年至2012年，中部地区对外贸易依存度只有10%左右，而全国的外贸依存度却是60%左右，远低于全国平均水平。二是加工贸易发展显著不足。随着沿海地区土地、劳动力等成本的不断上升，中部地区应有承接加工贸易由沿海向内地转移的契机，但截至目前，中部地区加工贸易仍未有实质性的变化和发展。[17]

中部崛起会成为中国新的发展动力。中部六省区域人口众多，中国以内需为主的成长战略将给中部地区的发展带来有力的增长。中部地区与东部地区相比，较低的劳动力资源和对外资的有利政策与西部相比相对有利的交通环境成为新的投资集中区域，投资增大产业结构也将得到相应的改善。而中

17) 刘秀丽, <中部崛起过程中承接产业转移的可行性分析>, ≪科技情报开发与经济≫, 2007年18期.

国又是韩国的最大贸易国，以后中国经济的未来看中部，中部人口多，面积大，资源多在很大程度上是中国经济发展的动力，间接来讲就是韩国经济发展的动力，双方的合作发展空间非常大。相信在不久的将来，韩国也会放眼于未来，加强同中部地区的合作，实现双赢。

[参考文献]

정영록,쉬창성 공편저, ≪중국의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晏涛, <促进中部崛起研究>, 中国社会科学院博士论文, 2012.

凡蓉蓉, <武汉城市圈经济一体化发展研究>, 华东师范大学硕士论文, 2006.

刘秀丽, <中部崛起过程中承接产业转移的可行性分析>, ≪科技情报开发与经济≫, 2007年18期.

陈崎, <中国和平发展与中韩合作交流>, ≪商丘师范学院学报≫, 2007年04期.

许玉峰, <促进中部崛起战略研究>, 西南大学硕士论文, 2007年4月.

仵雁鹏, <中部地区主导产业选择研究>, ≪郑州大学学报≫, 2009年03期.

萧一啸, <中部崛起的发展意义及其路径>, ≪财政监督≫, 2011年04期.

王水平, <绘制昌九工业走廊新蓝图>, ≪当代江西≫, 2006年10期.

杨晶晶, <大太原经济圈的发展战略研究>, 山西财经大学硕士论文, 2008年.

张杏梅, <中部崛起中的三农问题研究>, 《经济地理》, 2008年1期.

刘赛力, <中韩经贸关系二十年回顾与展望>, 《外交评论》, 1995年2期.

李中元, ≪2012年中部蓝皮书≫,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3年.

中国统计局, 2005年-2012中国统计年鉴 .

中国统计局, 2005年-2012中国统计公报.

中国各省统计局, 2005年-2012年中部各省统计年鉴 .

中国各省统计局, 2005年-2012年中部各省统计公报.

韩国贸易协, .http://www.kita.net/

韩国进出口银行, .http://www.koreaexim.go.kr/kr/index.jsp

중국의 국외관광 발전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진 학 문 (한국해양대)
차 경 자 (한국해양대)

<목 차>

Ⅰ. 서론
Ⅱ. 중국 국외관광의 개념 및 발전과정
Ⅲ. 중국 국외관광시장의 현황 및 특징
Ⅳ. 중국 국외관광시장의 발전요인과 전망
Ⅴ. 결론 및 시사점

Ⅰ. 서 론

2011년 한국 관광산업에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던 한 해이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바오젠 그룹 등 대형 인센티브 관광 유치, 관광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UNWTO(세계관광기구)총회 개최, 제주도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은 우리 관광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후기 산업사회의 가장 적절한 서비스 산업이다.[1] 또한 관광산업은 농수산업 등 1차 산업의 기반 위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고용효과를 가져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변화와 지난 10년간의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관광개발은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미흡,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 미흡, 지속적인 관광안내체계의 부족 등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왔다. 또한 관광산업을 단순히 외화획득의 수단으로만 인식해 건전한 관광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사치, 향락 등 퇴폐관광의 부작용으로 관광산업의 일시적 위축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소득격차의 완화와 생활의 질 향상에 따른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래 관광객의 방문 추세는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광은 세계적으로 레저문화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 관광산업은 지식정보산업, 환경 등과 함께 최고의 성장산업[2]으로 인식되고 있다.

---

1) 엄서호(2008),『엄서호의 관광레져 연구』, 일신사, p95.
2) 한국관광연구원 보고서(2005)에 의하면 1999년 최대 외래객 유치국은 7,000만명을 유치한 프랑스로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고, 관광수입에 있어서도 전년에 이어 미국이 74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였다. 외래객 유치는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영국, 중국, 멕시코, 폴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순으로 나타났는데 스페

세계관광기구(UNWTO)에 의하면 국제관광객은 연평균 4%이상 성장하여 2000년에 7억명에서 2010년 10억 5천만명, 2020년 16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아・태지역은 역내교류의 증가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증가 등에 힘입어 6%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제4위의 관광송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명실공히 인구대국에서 관광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 6월부터 중국인의 한국방문을 중국 9개성에서 중국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수년내 중국관광객 100만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 중국 정부는 해외여행을 사회적 위화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치적 소비로 인식했고 중국 국가여유국도 "인바운드는 장려하되 국외는 최대환 통제한다"는 원칙으로 자국 관광산업을 관리해 왔다. 여하튼 그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20만 명이 채 안 되는 수자였고 그로부터 13년 동안 중국인의 한국방문은 2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십여 년 사이 열 배 이상 고속 성장한 중국시장은 분명 우리 관광산업에 새로운 생태계를 제시하고 있고 이 새로운 생태계는 여행사, 항공사, 호텔, 가이드는 물론 시장이 지나가는 구석구석에 있는 국내 관광업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변화의 방향, 변화의 형태, 변화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어떻게 선도하느냐에 따라 이제 막 시작하는 거대 중국시장이 마르지 않은 샘이 될 것인지 아니면 흙 묻은 바가지로 한번 퍼올리고 마는 우물이 될 것인지가 결정될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세계 최고의 시장인 중국의 국외관광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을 탐색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확대를 위해 관광시장 정책입안에 시사점을 제공하자 한다.

Ⅱ. 중국 국외관광의 개념 및 발전과정

1. 중국 국외관광의 개념

일반적으로 국외관광은 한 나라의 공민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혹은 지역으로 여행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경우 중국(대륙) 공민이 공적 혹은 사적인 이유로 출국하여 기타 국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으로 관광, 휴가, 친척방문, 의료치료, 쇼핑, 회의참석 혹은 경제, 문화, 체육,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3] 현재로 중국 공민의 국외관광은 일반적인 국외관광, 변경관광과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으로의 관광으로 나누어진다. 중국의 국외관광은 1983년의 홍콩마카오 친척방문부터 시작되어 개혁개방의 진행됨에 따라 중국경제의 지속증가와 국민수입수준의 신속한 제고가 중국 국외관광시장의 발전에 전에 없던 변화가 일어났다. 국외관광으로 인한 해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관광목적지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외관광시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인이 전년대비 10%를 성장하여 미국과 순위가 바뀌었으며, 멕시코와 폴란드도 순위가 바뀌었다. 그 밖에 전년도 12위였던 오스트리아가 10위로 성장하였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외래객 유치 순위는 중국(6위), 홍콩(18위), 태국(20위), 말레이시아(21위), 싱가폴(26위), 인도네시아(27위), 한국(30위), 일본(32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3) < >에 의하여 정리.

국가통계국에서 정리한 데이터에 의하면 1993년 중국 공민의 출국여행인원수는 374.00만 명으로 2007년에는 4095.40만 명으로 되어 전년에 비해 18.6% 증가하였고 이는 1993년의 11배이다. 2008년에 비록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쇠퇴에 부딪쳤지만 우리나라 출국여행인원수는 여전히 기록을 기록하는 4584.44 만 명에 이르러 전년에 비해 11.94%가 증가하였다.[4] 그 외에 국가여행국에서 발표한 '중국여행업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중국 공민의 출국여행시장은 여전히 쾌속발전을 유지하여 여행목적지가 부단히 늘어났고 특히 대만여행이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2012년에는 8

2. 중국 국외관광의 발전과정

중국공민의 국외관광은 선명한 단계성과 지역성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작은 것으로 부터 큰 것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과거 20년간의 실천을 둘러보면 중국공민의 출국여행의 발전은 활동형식에서 봤을 때 대체적으로 홍콩-마카오 여행, 국경여행, 해외여행으로 발전하였고, 활동목적으로 봤을 때 친척방문, 비즈니스 여행에서 관광과 휴가여행으로 발전하였으며, 국가정책과 관리의 각도에서 봤을 때 시험, 정책완화, 점차 개방적인 과정을 거쳤다.[5]

개혁개방초기, 연해지구주민와 해와 친척간의 만남을 위하여 국가는 친척방문여행을 시범하기로 하였다. 1983년 11월 15일, 광동성의 첫번 째 홍콩으로 떠나는 여행단체가 출발하였다. 이로 중국 내륙 주민들의 최초의 출국여행이였다. 그러나 당시의 출국여행수속은 상당히 번거롭고 특정한 여행사에 제한되어 있기에 홍콩-마카오로 여행간 공민은 주로 광동성과 복건성에 집중되어 있었고 여행방식도 단일한 "친척방문"이였다. 1997년 홍콩이, 1999년에 마카오가 중국의 품으로 돌아옴에 따라 홍콩-마카오 여행은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중국대륙의 홍콩, 마카오로 갈 수 있는 인원수 제한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출국여행시장이 1997년부터 쾌속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6]현재까지 홍콩-마카오 여행은 이미 완전개방적인 정도까지 발전하였다. 2009년이래 중국공민의 국외관광 목적지 통계중에서 홍콩마카오 여행은 여전히 첫째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여행도 활발한 편이다. 중국의 변경여행[7]은 1987년에 요녕성 단동시부터 시작하였다. 국가 여행국과 대외경제무역부는 1987년 11월에 단동시에 대하여 북한 신의주에 대한 일일여행을 허가하였다. 그 이후로 국가에서는 점차 흑룡강, 내몽골, 료녕, 길림, 신강, 운남, 광서 등 성, 자치구가 러시아, 몽골, 북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국가와 국경여행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때의 국경여행은 대부분 친척방문과 비즈니스여행이 주를 이루었다. 1997년 국경여행의 발전에 따라 국가가 국경여행에 대한 관리가 점차 완선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국경여행을 있게끔 규정하였다. 사실상, 어느정도의 국경여행활동은 이미 출국여행과 하나로 되었다.

본격적인 국외관광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부터 국무원은 해외에 있는 친척이 금전적 부분을 책임지고 담보하여 태국으로 친척방문을 가는 것을 처음으로 허가하는데, 이

---

4) < >의하여 정리.
5) 張广瑞：中國旅游發展的形式分析与預測..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2年.
6) 杜江　戴斌：中國出境旅游發展年度報告。北京：旅游教育出版社。
7)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邊境旅游暫行管理辦法>于1996年3月8日頒布。

것이 최초의 국외관광이었다. 이후 1990년 10월에 처음으로 중국공민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3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다. 1997년부터 홍콩-마카오 여행, 국경여행을 시행함에 따라 정식으로 중국공민의 자비출국 여행업무를 개최하였다. 그 뒤로 국외관광목적지의 수량은 점차 늘어나 2008년 연말에는 홍콩, 마카오를 제외하고 136개 국가와 지역이 우리나라 공민의 출국여행지로 되었다. 2009년 중국 공민의 출국여행목적지가 부단히 늘어나 가나공화국, 에콰도르, 도미니카 연방,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을 포함한 9개 국가로 늘어났다. 출국여행목적지의 증가에 따라 중국의 국외관광은 더욱더 확대되었다.

3. 중국 국외관광의 발전과 주요 시기별 정책변화

중국 국외관광은 탐색적 발전단계, 초보적 발전단계, 규범적 발전단계와 고속 발전단계로 나눌 수 있다.[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탐색 적 발전단계 (1983-1989)

1983년 이전 중국 국외 관광은 외교활동의 공무여행이 주를 이루었다. 1983년 11월, 시범적으로 광동성 주민들의 홍콩 친지 방문이 허가되고, 1984년에는 국무원이 <귀국동포, 동포의 본국거주가족과 홍콩·마차오·대만에 가족을 둔 사람들의 홍콩 · 마카오지역 친지방문에 대한 지시>를 승인함으로써 중국 국외관광이 태동하였다. 변경관광은 홍콩·마카오 관광과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1984년부터 중국 랴오녕성 단동시와 북한 신의주시가 우호참관단을 상호 파견하기 시작하였고, 1987년 11 월에는 국가여유국과 대외경제무역부가 단동시와 신의주시 사이의 당일여행을 정식으로 허가함에 따라 중국 변경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탐색적 발전단계에서 중국 국외 시장은 매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1989년 국외 규모도 300만 명 수준에 그쳤다.

2) 초보적 발전단계(1990-1996)

1990년 10월, 국가여유국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공민의 동남아 3 국 여행 임시관리방안〉 [9]을 발표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친지가 여행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신원보증을 선다는 조건 하에 중국주민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3 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1993년, 국가에서 국비여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1994년에는 자비여행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1994년 국외 관광객 373 만명 중 공무출국자가 209만 명으로 전년대비 8%가 감소하였고, 개인 목적 출국자가 164 만 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1995 년 1월 1일부터 여행사 품질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1996년 10월 15 일에는 관광분야에서 중국 최초의 정식 국가행정법규인 '여행사관리조례'가제정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관광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작업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지역의 관계가 날로 밀접해지고 관련 수속도 간편해짐에 따라 홍콩·마카오 지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

---

8) UNWTO(2006) . 중국사회과학원(2008)의 단계구분을 토대로 개방시기와 관련법규의 제정. WTO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분류함, 기준시점이 되는 해는 광동성에서 시범적으로 본성 주민들의 홍콩 친지 방문여행이 시작된 1983 년과<중국공민의 동남아 3국 여행임시관리방안〉 이 제정된 1990년, <중국공민자비출국여행관리임시방안〉 이 제정된 1997년,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으로 함

9)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 <中國公民赴東南亞三國旅游的暫行管理方案>于1990年19月30日頒布

며, 변경관광 또한 국외관광의 한 유형으로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6년까지 홍콩(1983), 마카오(1983), 태국(1988), 싱가포르(1990), 말레이시아(1990), 필리핀(1992)을 비롯한 6개국이 중국의 국외관광 목적지로 개방되었다. 1996년까지 중국정부가 지정한 국외관광전담여행사는 모두 9 개로, 그 중 4개가 베이징에 위치해있었고, 나머지 5곳은 각각 광동성, 푸젠성, 하이난성 등지에 분포해 있었다. 초보적 발전단계에서 중국 국외 시장 규모는 초기의 매년 300 만 명 수준에서 1996년 500만 명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개인적 목적의 출국은 여전히 200만명 수준에서 정체되었다.

3) 규범적 발전단계 (1997-2000)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 관광산업 발전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인바운드 관광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내관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국외관광을 적절하게 발전시킨다"는 3 대 관광시장 발전정책 확정되었다.[10] 1997년 3월에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통제적으로"라는 구체적인 국외 관광시장 관리방침 제시하였고, 1997년에는 "중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변경관광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변경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자의 지역적 범위 규제를 전면 철폐하였다.[11] 홍콩·마카오의 중국 귀속 이후 이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1998년에는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에 대한 담보제도가 폐지되고 연간 여행가능인원수가 기존의 41.7만 명에서 54.8만 명으로 30% 가량 상향 조정되었다.[12]

1999년 9월부터 도입된 "황금연휴제도"는 관광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7년~2000년 사이에 한국(1998년), 호주와 뉴질랜드(1999년), 일본(2000년), 베트남(2000년), 캄보디아(2000년), 미얀마(2000년), 브루나이(2000년) 등 8개국이 추가로 개방 되면서, 중국의 국외관광 목적지가 1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1997년에는 국외관광 전담여행사가 67개로 소폭 증가하였다. 기존에 국외관광 전담여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오던 대리여행사가 폐지되는 동시에 350여 곳의 국외관광 여행대리점이 신설되었다.[13] 규범적 발전단계에서 중국 국외관광시장 규모는 1997년 532만명에서 2000년 1,047만 명 수준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세계 관광업계의 주목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였다.

4) 고속 발전단계 (2001- 현재)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에 국가여유국은 WTO가입을 전후로 국무원의 업무방침에 따라 현행 관광관련법규와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착수하여, 관광관련법규의 폐지·개정·입법이 잇달아 이루어지다. 12월 11일에는 '여행사관리조례'개정안이, 12월 말에는<여행사관리조례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實施細則)>,[14] <관광가이드관리실시방안(導游人員管理條例)>[15]이 각각 반포되었다.

2002년부터 국외관광에 대한 제한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관련수속 역시 한층 간소화되었으며, 중국의 국외관광에 대한 관리가 더욱 규범화되었다.[16] 2002년 1월 1일 홍콩특별행

---

10) http://biyelunwen.yjbys.com/fanwen/lvyouguanli/53480.html(:2013년9월30일)
11)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 <邊境旅游暫行管理辦法>, 于1996年3月8日頒布
12) http://news.sina.com.cn/money/1999-7-20/263.html(최중방문일:2013년09월30일)
13)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03-01/16/content_692375.htm(최종방문일:2013년9월7일)
14) 國家旅游局 <旅行社管理條例實施細則.>, 2001年12月26日.
15) 國家旅游局 <導游人員管理條例>, 1999年10月1日
16) 國務院, <中國公民出國旅游管理辦法> 令第354号, 2002年5月27日。

정구 정부와 국가여유국은 홍콩관광의 인원 할당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홍콩·마카오지역으로의 개별여행이 허용되었다. 2003년 상반기에는 사스(SARS) 와 이라크전쟁의 영향으로 관광업계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인바운드 관광과 국내관광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외 관광은 전년대비 21. 8%성장을 기록하였다.

2003년 8월 여권과 여행통행증의 신청과 수령에 관한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전국의 주요 중·대형 도시에서 신분증과 호구부만 지참하면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2003 년 9월 1일부터는 베이징, 상하이 및 광동성 주요 도시의 주민들이 본인의 신분증과 호구본을 지참하면 〈홍콩·마카오왕래통행증〉 및 3 개월간 유효한 방문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다.[17]

2005년 중국정부는 3대 관광시장 발전에 대한 기존의 방침을 수정하여 인바운드관광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외 관광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키며 국내관광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킨다는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였다. 2007년 12월 16일, 중국국무원은 '법정공휴일개정방안'과 '유급휴가제도관련조례'를 반포하고, 2008년 l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기존의 노동절 황금연휴가 하루 축소되고 원단, 청명절, 단오절, 중추절 등 전통명절이 휴일에 포함되면서 "2+5(두 차례의 황금연휴와 다섯 차례의 단기휴가)"의 새로운 휴가제도가 확립되었다. 또한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유급휴가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다.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15 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를 반납할 경우 1일 급여의 300%를 지급받을 수 있다.[18]

2002년부터 중국의 국외관광 목적지 개방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져서 연평균 5개 이상의 국가가 국외관광 목적지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말까지 1377개국이 중국의 국외 목적지로 개방되었다. 2004년 6월에는 아프리카 8개국이 9월에는 유럽 24개국이 잇달아 국외 목적지로 추가 지정되고,2007년 12월에는 중·미 ADS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08년 7월부터 대만관광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변경관광은 지난 20여 년의 성장을 통하여 변경 지역 이외의 주민들이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광노선 또한 목적지 국가의 변경 도시에서 내륙 안쪽 지역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변경관광과 국외관광의 경계가 사실상 모호해졌다.

2008년 5월까지 중국정부가 지정한 국외관광전담여행사는 9157개로, 근래<여행사관리조례>(旅行社管理條例) 개정안을 통해 국외관광 업무경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향후 국외관광전담여행사는 1500여 개 업체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19] 2009년 2월에는 전국여행업업무회의를 통해 국내관광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내관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국외 관광을 질서있게 발전시킨다는 수정방침을 제시함으로써 표면적으로 "통제와 제한"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시장질서 확립"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20] 고속 발전단계에서 중국 국외 시장 규모는 2001년 1,213만 명 수준에서 2008년 4,600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중국은 2003 년 이후 아시아 최대의 관광송출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Ⅲ. 중국 국외관광시장의 현황 및 특징

---

17) http://www.chengdu.gov.cn/GovInfoOpens2/detail_permission.jsp?id=bEFrQxH5ZZXYBhLRRibG (일:2013년09월30일)

18) 國務院, <職工帶薪年休假條例>, 2008年1月1日.

19) <2008-2009年中國旅行社發展研究咨詢報告>,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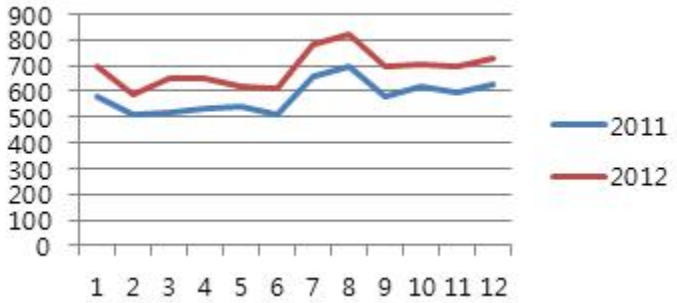
20) http://travel.sina.com.cn/z/2009travelcn (최종방문일:2013년09월30일)

1. 중국 국외관광시장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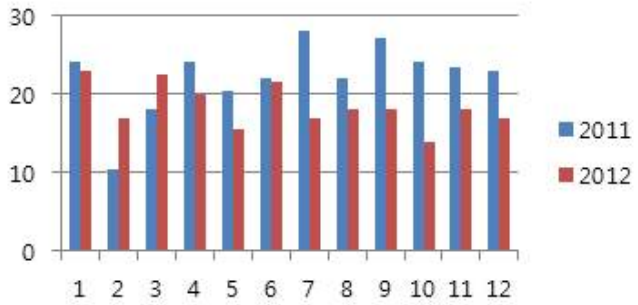
1) 국외관광객 추이

2012년 출국여행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계절성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국외관광객수의 월 단위 통계를 보면 피크는 주로 7, 8월과 설 연휴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10월1일 황금주간에 작은 피크가 형성되어 하반기에 출국하는 인원수가 상반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많은 편이다.

<2011년과 2012년 매월 국외관광인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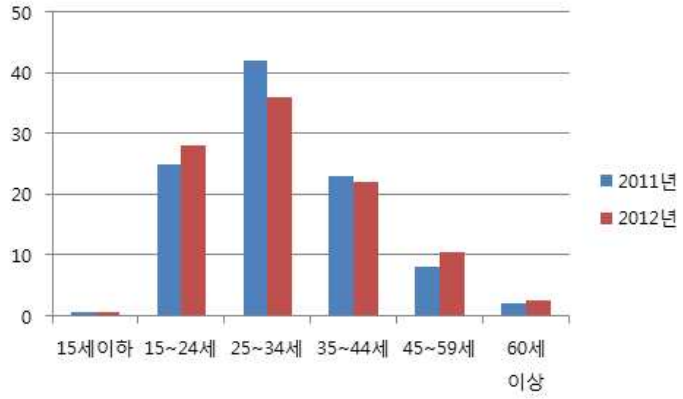
<2011년과 2012년 월별 출국여행인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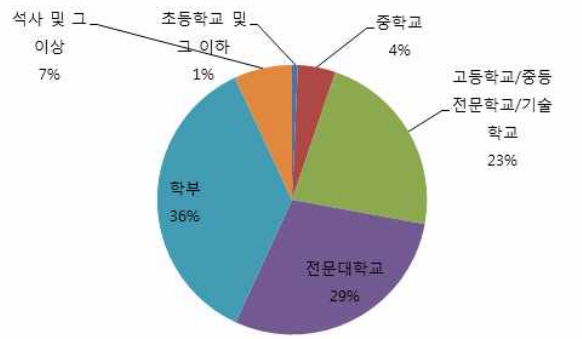
2012년 출국여행객의 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출국여행객의 성별비례 차이는 적은 편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그 중에서 20~30대가 제일 많았고 대학교 졸업생과 전문학교 졸업생의 비례가 가장 높았으며 합계 총 66.3%를 차지한다. 출국여행객이 학생인 비례가 가장 많았고 11.7%를 차지하며 개인 소득이 월 3000~8000 위안인 비례가 가장 높았으며 합계 50.5%를[21] 차지하여 출국여행객이 중등소비수준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2011년과 2012년 중국 국외관광객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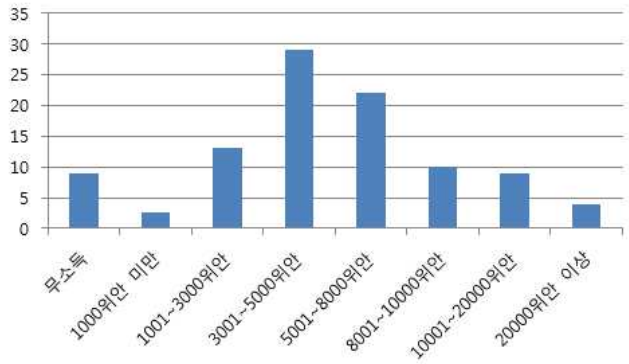
21) 旅游研究院, <中国出境旅游发展年度报告2013>,旅游教育出版社, 2013版.



<2012년 중국여행객 학력분포>



<2012년 중국 국외관광객 월 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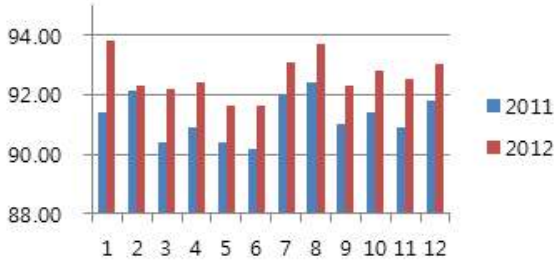


2) 국외관광의 목적지

국외관광시장에서 사적목적의 관광이 점점 확대 되고 있다. 2012년 중국의 사적목적으로 국외관광을 하는 인원수가 7705.61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총 출국여행인원수의 92.63%를 차지한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1.36%가 상승하여 사적 관광이 대세가 되었다.[22)]

22) < 2012>에 의하여 정리.

<2011년과 2012년 사적목적의 국외관광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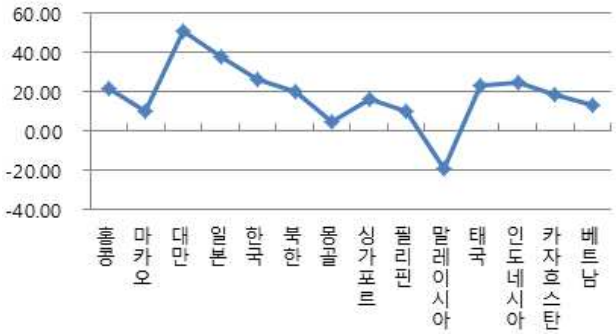


2012년 중국의 총 출국인원 중 보행출국이 50.26%를 차지하고 2011년에 비해서 0.36%가 하강하였다.[23] 비행기를 이용하여 출국하는 방식이 약간의 상승이 있는 반면에 유람선, 기차와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은 모두 감소하였다.

<2011년과 2012년 중국국외관광 교통수단>

중국 국외관광 목적지는 주로 아세아 국가와 지역이 위주로 되어 있다. 2012년 9월 30일까지 중국대륙에서 아세아 지역으로 여행가는 인원수는 총 인원수의 90.44%를 차지한다.[24] 그 중에서 대만, 일본,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등 나라로 여행가는 인원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주요 목적지별 중국 국외관광객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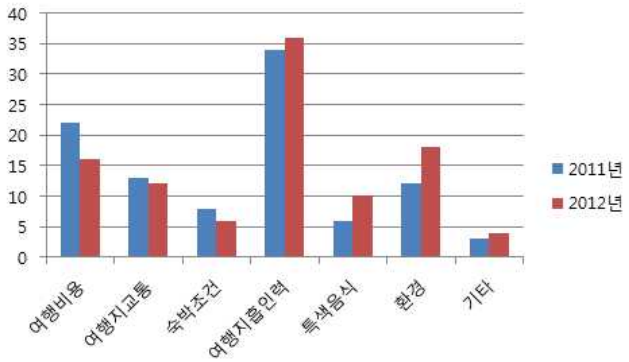


아시아는 여전히 중국공민이 여행가는 주 목적지로 전체의 90.245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수에서는 아시아가 가장 크고, 시장 증가율에서는 미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 < 2012>에 의하여 정리.
24) ttp://news.hexun.com/2013-10-10/158606799.html (최종방문일:2013년09월30일)

<2012년 중국인의 국외관광 국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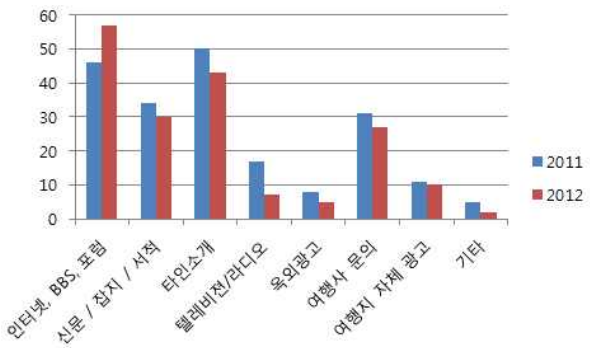
<중국인의 국외관광지 선택 이유>



3) 국외관광객의 관광정보획득 방식

2011년에는 국외관광객들이 주로 타인의 소개로 관광정보를 얻었다면, 2012년에는 주로 인터넷주소, bbs 등을 통해 관광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신문, 잡지, 서적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여행사에 직접 문의하는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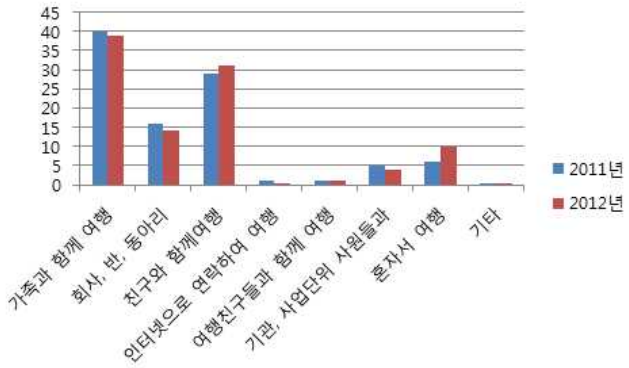
<2011년과 2012년 중국여행객 정보획득방식 분포>



출국여행자들은 가족, 친구들과 같이 여행하기를 즐기고, 혼자서 여행하기를 즐기는 사람

들도 선명히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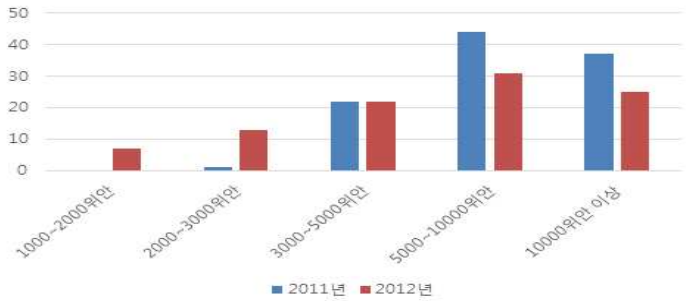
<중국인의 국외관광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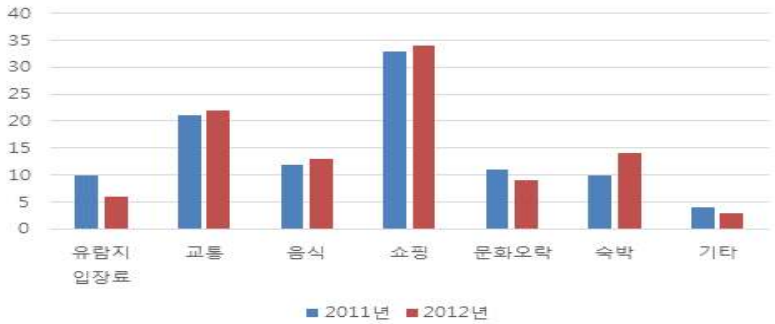
4) 소비특징

1인당 관광소비가 5000위안 이상인 여행객 비율이 선명히 하강하여 중국 여행객 출국여행이 점점 이성화로 변하였다. 전반적인 소비추세는 고소비가 선명히 줄어들었고, 국외관광이 서민층으로 확대되어 보편화되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쇼핑(34.1%), 교통(21.6%)으로 나타났다. 45%의 인원은 자비 여행이 단체비용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26%의 인원은 그와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쇼핑과 교통비가 관광비용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2년 중국 국외여행객 인당 소비규모>



<2011년과 2012년 중국여행객 지출이 가장 높은 항목 분포>



2. 중국 국외관광시장의 특징

1) 세계 최대의 국외관광 소비시장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방대한 인구수가 거대한 국외관광수요을 결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특히 여행주관부서에서 국외관광에 대하여 제한을 완화하면서 중국의 국외관광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중국의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불안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외관광객의 규모는 날로 확대되었다. 비자정책의 완화도 중국여행객으로 하여금 더 많은 대체선택권을 가지게 하였다. 2012년 출국여행인수는 8318.27만 명으로 전년대비 18.41% 성장하였다. [25]절대적인 수량으로 본다면 중국국외관광시장은 이미 독일 (예상 7400만 명)과 미국(예상 6200만 명)을 넘어 세계최대규모로 성장하였다.

중국국외관광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각 관광목적지국가는 쇼핑을 중점으로 하여 중국여행객에 대한 서비스강화하고 있다. 그에 더해 위안화의 지속적인 상승과 면세, 세금을 환급해주는 정책의 상대적인 완화가 중국의 출국여행소비능력을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고 있다. 2012년 1~3분기에 중국여행서비스 무역수입은 769억 달러였으며 전년에는 980억 달러가 였다.[26] 2012년 기준으로 중국국외관광객은 독일(880억 달러)과 미국(860억 달러)를 초과 하였다.[27]외국인의 중국 관광 보다 중국인의 국외관광이 많아지면서 여행서비스무역에서의 적자가 확대되었고, 2012년 무역적자는 4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28]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여행객의 인원수와 강력한 소비능력은 목적지국가의 경제, 지역여행업과 관련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의 여행연구소의 예측에 의하면 2012년 중국여행객은 호주에 42억 호주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조해내고 있으며, 분말 우유, 꿀, 와인 등 본토산품의 생산과 소매를 촉진하고 있다.[29] 미국상무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관광객이 미국에서의 소비액이 6000달러로 이는 세계 다른 나라들의 4000달러의 평균소비액을 훨씬 초과한다.[30] 2012년 세계 관광 주요 국가인 미국, 유럽의 경제 상황은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계속했지만 중국의 국외관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중국의 관광 서비스는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 국외관광시장 내・외부환경의 변화

중국정부와 ADS협의[31]를 체결하는 국가와 지역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거의 세계 주요여행목적지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중국과 수교를 체결한 172개 국가의 81.39%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정식으로 개방된 여행 목적지국가의 수는 114개로 늘어나 2011년에 비해 3개가 늘었다.[32] 출국관광의 확대되면서 중국관광객도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다. 중국국외관광객의 증가는 일부 목적지국가에게는 양날의검과도 같다. 대규모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가

---

25) 中國旅游研究院, <中國出境旅游發展年度報告2013>, 旅游教育出版社, 2013.
26) < 2012>에 의하여 정리.
27) http://pc.tgbus.com/pc_56/8929 (최종방문일:2013년09월30일)
28) 中國旅游研究院, <中國出境旅游發展年度報告2013>, 旅游教育出版社, 2013.
29)http://gb.cri.cn/27824/2012/10/06/2225s3875891.htm 최종방문일:2013년09월30일)
30)美 旅游统计协会 (US Travel Association) http://www.ustravel.org/ (최종방문일:2013년09월30일)
31) ADS(Approved Destination Status) : 被批准的旅游目的地国家。
32) 中国旅游研究院, <中国出境旅游发展年度报告2013>,旅游教育出版社, 2013版.

격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현지 주민들은 늘어나는 관광객들이 생활에 불편을 가져다주지 않을지, 물가가 높아 지지 않을지, 교통이 지체되지 않을지, 사회풍기를 나쁘게 하지 않을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관광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적극적인 영향을 최대화 하고 소극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만등 일부국가에서는 매일 관광객 인원 상한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양적, 질적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각국 정부는 다양한 관련정책을 수립하여 국외관광의 품질을 높이고, 중국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의 중국 국외관광객은 8318.27만 명이었고, 그 중 58.9%가 처음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관광객이었다. 이는 2011년에 비하면 4.66%가 줄이든 것이다. 그 외 41.1%는 국외관광 경험이 2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전국여행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7025만 출국인원 중 2021.92만 명은 개별적으로 출국하였다. 이는 70%를 넘는 출국여행객이 전통적인 방식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여행사를 통해 출국하였다.[33] 관광객 수요도 기존의 관광여행에서 비즈니스 여행, 휴가여행 등 다종류로 변하였고 규모도 기존의 대형팀으로 이동하던 것이 소규모 팀과 자유여행 등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관련 관광서비스업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유급휴가의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여행 시간도 분산되었다. 황금주간에 여행하면 가격이 높고 유급휴가의 추진도 국외관광에 더 많은 외부조건을 제공하였다. 연휴기간에는 비용도 비싸고 국내관광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성수기를 벗어나 비수기를 택해 여행하게 되었고, 유급휴가제도가 정착되면서 국외 관광 수요가 점점 더 증가 하고 있다.

관광소비규모에서도 변화가 발생 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5000위안 이상을 소비하는 관광객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관광목적이 다양해졌기 ㅁ문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비록 쇼핑이 중국관광객의 주목적이지만 전년과 비하면 쇼핑을 목적으로 한 관광객의 비율이 6.8% 감소했다. 이에 상 대응하는 오락 등의 목적이 5% 상승하였다. 동시에 쇼핑구조의 합리화도 있다. 홍콩을 예로 들면 쇼핑소비가 35.4%에서 30.7%로 내려갔다. 물론 이중에는 여행객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비행기표와 숙박비용의 원가가 내려간 원인도 있다.[34]

3) 관광시장구조의 변화: 판매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여행사의 여행상품사슬은 복잡하게 형성되어있다. 장기적으로 국내여행이 입국여행과 마찬가지로 출국여행업무 중 많은 여행사, 특히 실력이 있는 여행사는 비행기 좌석, 호텔객실, 여객선 좌석 등을 장악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였지만 시장소비형태의 지속적인 발전 하에 국외관광은 점차적으로 판매자 시장으로부터 구매자 시장으로 바뀌었고 여행객이 여행상품 생산사슬 중에서의 작용도 점차 명확하게 되었다. 관광객이 있어야 관광자원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광객을 독점하고 있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충분한 경쟁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때문에 이전에는 관광자원을 독점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였지만, 현재는 관광객의 요구에 맞은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관광시장주도권을 잡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여행사들이 중국에 분점과 지사를 설립하고 있고 위탁대리여행사와 계약을 맺는 등 사업영역을 부단히 확장하고 있다.

---

33) < 2012>에 의하여 정리.

34)http://www.traveldaily.cn/article/69596.html (최종방문일:2013년09월30일)

국외관광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 세계 자본시장도 주목하고 있다. 2011년 초, 해항여업이란 회사가 최초로 수억원의 거금으로 상장여행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여행사들에게 외부 자본이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상품성을 높이는 것은 국외관광회사가 지속적으로 원하던 것이다. 외부자본의 투자를 받아 규모를 확대 시키고 경영능력 과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국외관광산업의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다.

부인할 수 없이 온라인 관광서비스 회사들의 빠른 발전은 관광업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온라인 상품을 보다 완벽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많은 회사들이 전통적인 여행사를 합병하고 목적지서비스체계를 보완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동시에 점점 많은 회사들이 여행 전자상 거래의 발전전망을 인식하고 자신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몇 년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발전을 거쳐 온라인 관강기업이나 오프라인 여관광기업이나 모두 상대방의 우세적인 영역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발전에 대한 투자가 그에 맞먹는 이익을 가져올 수 없었고 온라인 기업이 관광객에서 소매로, 소매에서 자원으로의 생산 사슬이 우세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상에서 발전이 있는 것 빼고는 브랜드 가치, 기업 전반적인 실력과 온라인 우세를 오프라인 우세로 바꾸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사인 OTA Priceline이 이미 75개 국가에서 사무기구를 두고 있으며 중국시장에서는 두 개의 브랜드 Booking.com과 Agoda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에서 Booking.com과 Agoda에 대한 인지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Booking.com은 Ctrip과 연합하여 중국의 사용자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HomeAway는 Tujia와 연합하여 중국시장점유율을 제고하길 기대하고 있다.[35)]

Ⅳ. 중국 국외관광시장의 발전요인과 전망

1. 중국 국외관광시장의 발전요인

1) 경제적요인

먼저 일인당 평균 수입수준이 진일보 제고 되어 출국여행기초를 마련하였다. 2012년 1~3분기 GDP 절대 금액은 353480억 위안으로 2011년 1~3분기보다 32788억 위안이 증가하여 동시기보다 7.7%가 증가하였다. 2012년 상반년 도시주민 가정 일인당 총수입이 13679위안으로 그 중에서 도시주민이 지배할 수 있는 수입이 12509위안으로 증속이 선명하다. 국내생산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시 주민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출국여행의 발전에 양호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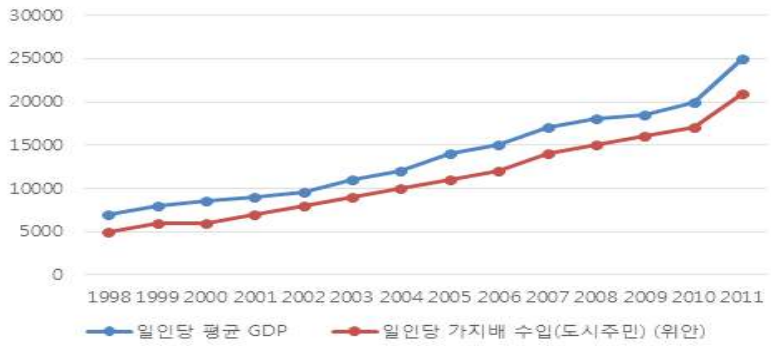
위안화 환율의 지속적 상승이 출국여행소비를 촉진하였다. 환율상승은 국내 통화팽창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2012년 CPI지수는 전년으로 봤을 때 조금 내려간 편이며 2011년 CPI 지수와 비교했을 때 대폭 하락한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생활자본금이 내려갔음을 뜻하고 주민이 소비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고 있음을 뜻하며 주민의 출국여행에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 다른 한 방면으로 위안화 환율 지수가 높아짐은 위안화 화폐의 가치상승을 의미하며 중국공민으로 하여금 출국여행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일정한

35) http://www.traveldaily.cn/article/66699.html 최종방문일:2013년09월30일)

정도에서 출국여행시장의 증가를 도와주었다. 두 요소의 공동작용이 중국의 국외관광에 대한 구매력을 제고하였다.

<중국 GDP 분기별 추이>

<일인당 평균 GDP, 일인당 수입 비교>



2) 정치적요인

2012년 중화인민공화국 대외정치외교합작의 발전추세는 좋은 면이 많았다. 각각 독일, 미국, 브라질,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나라와 연합성명을 발표하고 여러 층면에서 각족 협약협의를 체결하여 정치, 경제와 문화 등 방면에서의 합작을 전면 실시할 것을 표시하였다. 양호한 정치외교발전추세는 공민출국여행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출국여행 전체 만족도에도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양호한 환경 하에서 부분적인 국가와의 관계가 풍파를 일으켜 출국여행발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2012년 4월 필리핀과 중국이 남해 영토문제 상에서 빈번하게 쟁단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출국여행에 영향을 미쳤다. 2012년 5월부터 중일 "댜오위다오" 사건의 발생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 정치외교 합작에 엄중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행객의 일본여행의 발길을 끊게 만들었다. 일본여행인원수가 대폭 하강함에 따라 양국의 여행업의 발전에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2012년 중국출국여행인원수의 증가, 소비규모의 확대와 기타 유리한 요인으로 하여 각국은 중국에 대한 비자정책을 개선하였으며 비자신청의 간소화, 비자정책 완화, 비자기간 연장 등 방면에서 표현되었다. 구체적인 변화는 아래와 같다.

<국가별 대중국 비자정책 변화>

국가/지역	비자 편리 유형	구체적인 조치
호주	비자 신청 간소화	중국여행객에 대하여 빠른 수속이 가능
미국	비자 신청 간소화	무 면접으로 수속 가능
뉴질랜드	비자 신청 간소화	1. 학생에 대하여 입국 수속 취소 2. 학생비자 담보금과 졸업생 취업비자 담보금 모두 조금 상승 3. 졸업 후 취업 비자 신청횟수가 2번으로 증가
아일랜드	무비자 계획	중국여행객 단기비자가 무비자로 2016년 까지 연장, 동시에 "묶음식" 여행정책을 내놓아 동시에 하나의 비자로 여러나라를 여행할 수 있게 됨
일본	비자 신청 정책 절차 간소화	아이데, 미야기, 후쿠시마로 여행가는 중국여행객에 대하여 여러 번 출입국 가능한 "다 회수 비자" 발급
한국	비자 신청 편리화	1. 다 회수 비자 발급 인원 수 확대 2. 처음으로 다 회수 비자를 신청한 신청자에 대하여 비자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조절

또한 2012년 중국은 대만여행의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한 방면으로는 점차 중국주민들이 대만으로의 개인여행 시험 지역을 확대하였고 "개인여행"의 신청 수속을 간소화하여 대만여행이 점차 간소화 되었다. 다른 한 방면으로 중국여행단체가 여행선을 타고 홍콩에서 대만으로 들어간 후 다시 해당 여행선을 타고 일본 혹은 한국으로 입국하여 중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새로 증가된 대만여행 여행단체회사가 52개 늘어났고 총 수량은 216개로 되었다. 이러한 유리한 정책의 추진 하에 대만여행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댜오위다오" 사건이 발생한 후, 시장 압력 하에 중국 각 대형 여행사는 초점을 대만시장으로 바꿨고 고급여행시장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여행산품을 업데이트하고 의료여행을 대표로 하는 체험성 여행산품이 점차 주목되고 있다. 2012년 1월 대만은 중국주민을 대상으로 의학미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대만과 중국의 의료기구는 하드웨어수준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중국내륙의 여행객의 수요에 맞추어 의료서비스질량과 사용자체험에 초점을 맞춰 의료여행이 점차 중국내륙여행객이 대만으로 여행가는 새로운 증가포인트가 되었다.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3분기에 대만은 중국여행객을 포함한 총 6만명의 외래여행객을 끌어들였으며 그 중에서도 건강검진, 미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은 30%를 차지한다.

2012년 세계각 주요목적지 국가와 지역은 중국여행시장에 대해 더욱더 관주하게 되었고 서로 초점을 중국시장으로 돌렸다. 가장 중요한 전략적 객원시장임에 공통된 인식이다. 이러한 인도 하에 서로 각 자원을 모아 중국출국여행시장을 양성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여행홍보형식이 점점 다양화로 발전되고 있다. 둘째, 각 국이 중국 국내에서 여행홍보의 역량과 규모를 증대하고 있다. 셋째, 재중 소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여행 홍보 목적지가 주로 특대도시에 집중되어있다.

<국가별 관광 홍보 활동>

국가/지역	관광 홍보 활동	추진 도시
러시아	2012년 3월 24일, 중국 "러시아 여행년" 중러 여행합작포럼이 북경에서 개최. 중국국무원 총리, 중러여행년조직위원회 중국측 주석 왕치산과 러시아 부총리, 중러여행년 조직위원회 러시아측 주석 솔코브가 공동 참석하여 포럼 개회식을 열었다. 그해 10월 22일, 중국 "러시아 여행년" 활동이 상해에서 막을 열었다.	북경, 상해
한국	2012년 6월 28일, 한국여수세계박람회 중국하문 추진활동 및 의식이 한국여수세계박람회에서 진행되었다.	하문
영국	2012년 5월 22일, 영국 여행국과 영국항공사가 상해에서 이자베스 여황 등기 60주년 다이아몬드 축제를 벌였다.	상해
일본	더 많은 중국여행객을 일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일본관광청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2012년 4월 일본은 더욱이 체육단체에 대한 관광정책을 간소화 시켰다.	-
동북아시아	2012년 9월 6일, 국제여행조직, 동북아 6개국 인사들과 국내외 전문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행, 발전을 토론하였으며 길림성정부, 연합국개발계획국 GTI가 주최한 "열정 동북아시아, 기쁨 길림, 무장애 여행을 위한 동북아시아 여행" 활동을 벌여 동북아시아 여행교류의 밤의 막을 열었다.	장춘

2011년 국무원 승인하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연합하에 영업세수 부가가치세 개정방안을 발표하였다.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해교통운수업과 부분 현대서비서업에서 영업세수 부가가치세 시행방안을 실시하였다.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연말까지 국무원은 점차 10개 성시로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다. 영업세로부터 부가가치세로 바꾼 주 내용으로는 여행업이 6%의 세율을 가지고 원칙상에서 부가가치세 일반세무계산 방법에 따른다. 납세인 세무계산은 원산상의 과세발생거래가 발생한 전부 수입액이다. 그러나 상해 등 시범도시의 부분 국외관광을 전담하는 여행사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고 세무부담이 늘거나 세무관리가 번잡해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단체를 조직한 원금영수증 할인이 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방식이 영업세 5%방식으로 납부하는 방식보다 높아 세무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여행사가 해외여행시장을 개척하고 여행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 중국 국외관광시장의 발전전망

출국여행시장이 여전히 쾌속발전추세를 가지고 있다. 2012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경제증가질량과 효익을 중점으로 하고 물가 총체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등 총 6개의 임무를 제시하였으며 2013년 우리나라 사회경제의 평온한 발전에 단단한 기초를 마련하여 소비의 신신을 가져왔고 소비능력을 이끌었다. 비록 점차 늘어나는 중국여행업무 무역역차에 많은 쟁점이 있지만 정책취향은 여전히 "순차적으로 출국여행을 발전"시키는 방침이다. 물론 국내 장거리 여행의 높은 비용도 점차 국외여행으로 바뀌게 한다. 출국시장은 여전히 고속증장의 추세를 보이며 출국여행인원수는 9430만 명으로 동 시기보다

15% 증가할것이다. 출국 소비 수준은 1176억 달러의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여 동시기와 비해 20% 증가할 것이며 무역역차도 683억 달러로 될 것이다.

출국수요의 분층도 진일보 가속화 될것이다. 중국 출국여행시장은 인구 복리와 정책복리로 인하여 이미 규모와 소비능력방면에서 세계 앞자리에 있다. 그러나 발전된 국가에 비하면 발전단계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발전정도는 아직도 초급단계이다. 출국여행인원 중 대부분은 처음 출국하는 것이다. 때문에 관광이 주를 이루는 산업구조가 아직도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가격주도시장의 정황도 일정한 시기내에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산업의 전형도 객원과 자본에 의해 추진된다. 출국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대적 낮은 이윤으로 인하여 점점 많은 여행사가 영업중점을 출국여행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여행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는 일정한 정도 하에서 출국산업의 발전에 더 많은 자금과 인력, 방안 등 자원을 제시한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출국여행사 업무에 제약을 주던 상하 자원 정합 능력과 서비스 표준의 제가는 자본력을 빌어 개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업개선증가"는 여행사 재무제도 규범화에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2012년 7월 25일에 개최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영업세개증 증장세 기준을 확대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교통운수업과 부분 현대서비스업 영업 세 개증 범위를 상해 시로부터 점차 북경, 천진, 강소, 절강, 안휘, 복적, 호북, 광동과 녕파, 하문, 심천 10개성시로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계속 확대하여 일부분 업무는 전국적으로 개편할것이다. 한방면으로 여행사는 전형적인 대수대부업체로 영업세를 증장세로 개편함으로 하여 여행사는 선명하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본래부터 이익이 적은 여행사로 하여금 생기를 얻게 하였다. 다른 한 방면으로 여행사경영 중 많은 지출이 불투명하다. 특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작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증장세로 개정됨에 따라 세수를 통하여 여행사 재무제도규범화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Ⅴ. 결 론

한국의 관광산업은 외회획득의 중요수단으로 인식되어 국가의 지원 아래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관광을 단순히 외화획득 수단으로 보는 이러한 시각은 사치, 향락 등 퇴폐관광의 지나친 발전을 가져오는 등 부정적 요인을 낳게 하기도 하여 국민의 건전한 생활문화를 저해하는 산업이라는 오명아래 침체의 시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국민의 해외여행 증대와 외래 관광객의 증가추세 감소 등으로 관광수지가 적자에 직면하고, 관광을 중요한 여가문화로 생각되면서, 새롭게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 현재 관광산업은 지식정보산업, 환경 등과 함께 21세기의 대표적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 역시 지역세수 증대와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광산업의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독특한 이벤트축제 개최 및 관광개발을 통해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中日古代字典編纂術語比較研究

——以《篆隸萬象名義》和《宋本玉篇》中的“同上”術語為中心

王平

This research i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K-2011-322-A000040)

關鍵詞：《篆隸萬象名義》 《宋本玉篇》 編纂術語 同上 比較 研究

一、字典與中日古代汉字字典

1. 字典

字典是为字词提供音韵、意思解释、例句、用法等等的工具书。在西方，没有字典的概念，字典是漢字文化圈独有的概念。中日古代古代漢字字典，是指是指中日兩國古代編纂、刊刻、流傳至今解釋有關漢字字形、字義、字音等信息的工具書。

2. 本文所用材料说明

日本古代漢字字典源於中國古代字典并富於日本語言文化的特點。所以，對中日古代漢字字典編纂術語進行系統的比較，既有助於對中國古代漢字字典海外傳播的研究，也有益於對日本古代漢字字典編纂的深入研究。本文的研究选取了以下兩本具有代表性的字典。

（1）中國《宋本玉篇》

顧野王原本《玉篇》大約亡佚于唐末宋初，唐人孫強增字本通行後，顧氏原本也就散失不傳了。根據日本人馬淵和夫《玉篇佚文補正》（《東京文理科大學國語國文學會紀要》第三號）統計，《玉篇》殘卷現存 63 部，2087 字。宋真宗大中祥福六年（1013）陳彭年等又奉詔重修《玉篇》，據以重修的是孫強本，這就是流傳至今的《宋本玉篇》。**《宋本玉篇》**是代表中國楷書字體階段的第一部字典，由於書體的變化，作為字典的《玉篇》所呈現出來的結構功能主要在於闡釋字義、記錄字音、區別字形。歷史漢字傳承到中古階段，漢字的基本結構只存筆勢，而《宋本玉篇》正是記錄了這樣一些已經符號化了的漢字的形音義關係。實際上《宋本玉篇》是繼東漢許慎《說文解字》之後對漢字的又一次整理，《說文解字》側重於小篆，《宋本玉篇》則側重於楷書。《玉篇》所貯存的有關漢字形音義方面的信息，不僅存于經書，更是用於當世。因而，成為我們研究中古歷史漢字發展變化的寶貴的資料。本文所取例字，皆依據中國書店 1983 年影印的張氏澤存堂本《宋本玉篇》。數據分析和統計依據《宋本玉篇》數據庫[①]。根據該數據庫，《宋本玉篇》收字頭總字種為 **20556** 個。根據**名義**

玉篇

（2）日本《篆隸萬象名義》

《篆隸萬象名義》是日本沙門大僧都空海（西元 774 年——835 年）在南梁顧野王《玉篇》的基礎上添篆簡注而編纂成的一部字典。傳世本《萬象名義》為日本山城國高山寺所藏烏羽永久二年（西元 1114 年）之傳寫本。這相當於中國宋朝末年所抄寫的本子。本文所取例字皆依據中華書局 1987 出版的日本高山寺所藏古寫本《篆隸萬象名義》影印本。數據分析和統計依據《篆隸萬象名義》數據庫[②]。根據該數據庫，《篆隸萬象名義》收字頭總字種為

[①]王平負責開發《宋本玉篇》數據庫，2006 年。

[②]王平負責開發《篆隸萬象名義》數據庫，2006 年。

第32輯 (2009.4.)
pp.51~76

『 』俗字考*

**

목 차〉

1.
2.
1)『강희자전』의 속자와 같은 경우
2)『강희자전』의 속자와 다른 경우
(1)『강희자전』의 이체자를 속자로 설명한 경우
(2)『강희자전』에 속자의 언급이 없거나 다른 해석을 한 경우
(3)『강희자전』에 없는 글자이거나 속자의 자형이 다른 경우
3. 결론

1.

『字典釋要』는 한국의 한의학자이자 국어학자였던 池錫永 선생(1855~1935)이 편찬한 자전이다. 池錫永은 한국에 種痘를 실시하여 수많은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개화시기 국문의 정리와 보급을 위해『字典釋要』를 편찬하였다.『字典釋要』는 池錫永이 1906년 저술을 완성한 뒤 1909년 7월 상해의 周月記書局에서 발행된 이래 41년간 총21회 발간되었다.[1)]

『자전석요』에 수록된 표제자 수에 대해 초판부터 14판까지는 '16,306자'이고, 15판부터 1950년판은 '16,310자'임을 새로 밝혔다. 7판부터 檢字를 사입했고, 15

1) 하강진, 『자전석요』의 편찬과정과 판본별 체재 변화」,『한국문학논총』제56집, 688쪽, 2010.

판부터 권말에 揷圖를 첨부하여 독특한 체재를 갖추었다.[2] 즉, 판본별로 그 표제자의 수량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1917년 滙東書館에서 출판된 열 두 번째 판본이다. '字典釋要目錄'의 끝부분에 총 16,298자라고 수록자의 양을 밝히고 있으나, 필자가 일일이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리한 결과 실제로는 16,307[3]자로 목록에 나와 있는 글자보다 9글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자전석요』가 출간되기 이전의 한국 자전들은 대부분 중국의 자전을 다시 발간한 것이며, 한글로 뜻과 음을 해석해 놓은 『訓蒙字會』, 『類合』, 『千字文』등은 단순한 새김식 한글풀이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訓蒙字會』가 3,360자이고 『新增類合』이 3,000자 정도로 수록된 글자의 양이 단순히 아동들의 훈몽을 위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 그 수준이 미흡하였다. 1796년에 간행된 『全韻玉篇』은 수록자가 10,840자에 이르렀지만 한글음을 제외하면 역시 한자의 주석만 있었으며, 1856년 간행된 『字類註釋』은 『전운옥편』과 비슷한 10,800자였고 한글음과 풀이를 함께 달아놓음으로써 사용에 편리함을 추구하였으나, 오히려 체재상에 있어서는 부수별 분류가 아닌 "天文類", "水火類", "山川類"등으로 나눔으로써 오히려 실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국문보급을 위한 자전의 편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字典釋要』는 약 15년에 걸쳐 저술되었으며 총 16,310자가 수록되어 있다. 『자전석요』는 하나의 한자에 대해 한글한자음, 한자주석, 한글풀이, 소속운, 同字와 通字관계, 俗字 등의 항목에 대해 자세한 풀이를 싣고 있어 한자의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자전임을 알 수있다. 이는 지석영이 서문에 밝힌 것처럼 진실로 "부녀자나 어린 아이, 나뭇꾼과 목동이라 할지라도

---

2) , 『자전석요』의 편찬과정과 판본별 체재 변화」, 『한국문학논총』제56집, 664쪽, 2010.

3) 원래 필자의 졸저 「字典釋要仝字初探」에서 16,304자라고 밝혔으나, 이후 여러 번의 검토를 통해 3글자가 빠졌음을 알게 되었다. 혼동을 주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

第32輯 (2009.4.)
pp.51~76

며칠만 노력하면 국문을 깨칠 수 있으니 문명의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바가 없다."고 한 바와 같은 것이다.[4)]

『자전석요』에서 俗字를 설명하는 형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강희자전』에 나오는 글자는 "某俗字"의 형식으로 주석하고, 『康熙字典』에 나오지 않지만 당시 널리 통용되던 한국, 중국, 일본에서 통용되던 속자에 대해서는 네모칸 안에 鮮, 中, 日을 표기하는 형식으로 속자나 속의를 설명하였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某俗字"의 형식으로 나타난 글자는 모두 159개, "某俗字非"의 형식으로 나타난 글자는 모두 25개이다. 159개의 속자 중 25개는 『강희자전』의 내용과 다르다. 지석영은 또한 『강희자전』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각 나라 고유의 속자나 혹은 고유의 속의를 밝힌 글자를 따로 표기하였는데 한국의 고유속자 26개, 고유 속의를 밝힌 글자가 36개이며, 중국의 고유속자 49개, 고유속의 54개, 일본의 고유속자는 28개, 고유 속의는 13개이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우선 "某俗字" 형식의 속자를 먼저 살펴보고 고유속자에 대해서는 다른 장을 이용하고자 한다.

2.

池錫永은 凡例에서 『字典釋要』의 속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　　중에서 자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원래 획수의 끝에 기록하고 네모칸으로 日·鮮·華라고 주하였고, 음은 해성법에 따라 정하였다. 예를 들면 畓·保·錦·辻·鰯 등의 종류이다. 글자 중에서 자전에 실려 있지만 원래의 풀이 외에 속의가 관행되고 있는 것은 끝에 네모칸으로 주하였다. 예를 들면 頉·倂·俵의 종류들이다.　　,
> 書于原畵之末而匡註日·鮮·華,　音則依諧聲法而定之.　如畓·保·錦·辻·鰯之類. 字載於字典而原註外別有俗義之慣行者, 尾行匡註. 如頉·倂·俵之類."

---

4) 雖婦孺僬牧費了幾日之工, 解得國文, 則不待師敎能曉. 此萬餘字字義誠如是也. 其於文明進步不無裨補.<序文>

여기서의 字典은『康熙字典』을 말한다. 이 凡例에 의하면『康熙字典』에 나오지 않는 속자는 동일획수의 글자들 중 맨 끝에 나열하고 그 속자가 한국, 중국, 일본 중 어느 나라의 글자인지를 네모 칸으로 표기하였으며, 강희자전에 나오는 글자 중 속의가 각 나라에만 특별히 나타나는 경우는 해당 글자의 해석에서 속의가 나타나는 부분에 귀속 국가를 밝히고 그 의미를 풀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의 속자와 같은 경우

위의 범례에 의하면『강희자전』에 있는 글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데 이는 본문에서 "某俗字"의 형식으로 나타난다.『자전석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강희자전』중에서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글자를 뽑아 한글 음과 뜻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강희자전』에 나온 속자는 대부분『강희자전』의 해석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1		兪俗字	35	欝	鬱俗字	69	窇	宦俗字	103	覓	覓俗字
2	偁	男俗字	36	洎	涓俗字	70	竊	竊俗字	104	覽	覽俗字
3	决	決俗字	37	潛	潛俗字	71	竪	豎俗字	105	詈	辯俗字
4	㕓	叔俗字	38	灩	灩俗字	72	筴	策俗字	106	象	象俗字
5	收	收俗字	39	灵	俗字	73	統	統俗字	107	賔	賓俗字
6	么	幺俗字	40	灶	竈俗字	74	纖	纖俗字	108	跋	跋俗字
7	吊	俗弔字	41	炉	爐俗字	75	群	羣俗字	109	躰	體俗字
8	嘗	嘗俗字	42	焰	焰俗字	76	羮	羹俗字	110	躯	軀俗字
9	器	器俗字	43	熙	熙俗字	77	耻	恥俗字	111	軠	釭俗字
10	回	因俗字	44	葵	熱俗字	78	聃	聃俗字	112	軟	輭俗字
11	国	國俗字	45	燮	變俗子	79	聟	壻俗字	113	輩	輩俗字
12	坵	丘俗字	46	牙	互俗字	80	聰	聰俗字	114	辨	辯俗字
13	塩	鹽俗字	47	猪	豬俗字	81	晝	晝俗字	115	逓	遞俗字
14	声	聲俗字	48	猫	貓俗字	82	脆	脆俗字	116	逝	遊俗字
15	嫩	嫋俗字	49	献	獻俗字	83	腮	顋俗字	117	酌	酬俗字
16	寄	密俗字	50	猿	猨俗字	84	膝	膝俗字	118	酧	鹹俗字

17		枾俗字	51	瑠	璃俗字	85	皐	皋俗字	119	鎮	鎭俗字
18	尠	尟俗字	52	甦	甦俗字	86	臺	臺俗字	120	陁	陀俗字
19	屏	屏俗字	53		畱俗字	87	舖	鋪俗字	121	頊	顧俗字
20	岩	嵒俗字	54	痴	癡俗字	88	舘	館俗字	122	飣	飯俗字
21	床	牀俗字	55	瘀	欬俗字	89	艶	豔俗字	123	餅	俗餅字
22	慥	愆俗字	56	瘤	瘤俗字	90	苒	蕚俗字	124	駈	驢俗字
23	戞	戛俗字	57	皷	皷俗字	91	蒭	芻俗字	125	駿	驗俗字
24	扞	捲俗字	58	皷	鼓俗字	92	蕞	蕞俗字	126	鬪	鬪俗字
25	撑	撐俗字	59	盃	杯俗字	93	薤	韞俗字	127	鵬	鵬俗字
26	斷	斷俗字	60	盖	蓋俗字	94	虜	處俗字	128	龕	龕俗字
27	曮	皦俗字	61	盡	盡俗字	95	虵	蛇俗字	129	斃	麩俗字
28	膳	膳俗字	62	看	看俗字	96	蟹	蠶俗字	130	麵	麪俗字
29	柒	漆俗字	63	真	眞俗字	97	蟜	蠻俗字	131	鼎	鼎俗字
30	桒	桑俗字	64	矚	矚俗字	98	蟹	繭俗字	132	戩	殲俗字
31	栢	柏俗字	65	碍	礙俗字	99	衂	衄俗字	133	衙	衙俗字
32	梦	夢俗字	66	禀	稟俗字	100	褒	襃俗字	134	衛	衛俗字
33	椒	椒俗字	67	爾	稱俗字	101	覇	覇俗字			
34	榴	榴俗字	68	窓	窗俗字	102	覊	羈俗字			

2) 『　　』의 속자와 다른 경우

“某俗字”의 형식으로 속자를 설명한 글자 중 일부는 『강희자전』의 설명과 다른 경우도 보이는데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　　』의 이체자를 속자로 설명한 경우

『자전석요』에 “某俗字”라고 설명하였지만 『강희자전』은 “或作”, “亦作”, “別作”, “古文”, “與同”, “譌字”의 형식으로 이체자로 설명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NO	표제자	『자전석요』	『강희자전』해석의 부분 발췌
1	異	冀俗字	韻會】冀或作異。
2	噀	潠俗字	別作噀噀。

3		陀俗字	正字通】陀字之譌。
4	寃	冤俗字	【正韻】亦作寃
5	晒	曬俗字	【字彙補】與曬同。
6	畝	畝俗字	古文
7	疥	疢俗字	疢:俗作疹, 別作癩疥。
8	蒨	縩俗字	縩:或作蒨。
9	迩	邇俗字	同邇, 俗省。
10	骫	骫俗字	骫 :【正字通】骫字之譌。骫:【玉篇】同骫。
11	柂	柁俗字	又同柁
12	沙	沙俗字	或作沙, 沙.
13	騾	贏俗字	《正韻》 :同贏

그렇다면 속자와 이체자를 구분짓는 경계란 무엇일까? 우선 속자와 이체자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속자와 이체자는 正字에 대칭되어 사용되는 개념으로 정자란 정문, 正體라고도 한다. 한자 중에서 필획 구조가 자서의 규범에 부합하는 표준 자형을 正字라고 말하며 別字, 譌字, 俗字, 異體字, 異文 등과 구별된다. 이에 반해 속자는 정자에 상대되는 글자로 옛날 민간에서 유행하던 통속문자를 말한다. 대부분 字書의 서법과 다르고 필획이 비교적 적은 簡化字이며, 지배층에 중시받지 못한 글자이다.[5)]

이체자 역시 정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정자의 글자체와 다른 글자체를 말한다는 의미에서는 속자 역시 이체자의 범주에 속한다. 이체자 속에는 或體, 異文, 重文, 譌字, 別字 등이 있는데 張涌泉은 속자와 이체자의 관계에 대해서 "正字와 구별되는 異體字는 모두 俗字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속자는 簡化字일 수도 繁化字일 수도 있고, 後起字일 수도 古體字일 수도 있다. 正俗의 경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변화한다."[6)]고 하였다. 결국, 正字인지 속자 혹은 이체자인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5) ·張歸璧 等編(1996), 『古漢語知識詳解辭典』(강혜근, 이체자란 무엇인가?-정자와 상대되는 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11집, 2001에서 재인용)

6) 張涌泉(1995)『漢語俗字硏究』(강혜근, 「이체자란 무엇인가?-정자와 상대되는 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11집, 2001에서 재인용)

第32輯 (2009.4.)
pp.51~76

살펴볼 한자들의 분화와 변천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위 도표의 글자들이 나타난 옛 문헌자료를 살펴봄으로써『자전석요』의 속자가 어디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자전석요』에서 異는 冀의 속자라고 하였는데,『강희자전』에서는『韻會』를 인용하여 冀를 "或作異"라고 설명하고 있다. 冀는『설문해자』에 "北方州也. 從北異聲."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異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 冀가 정자로 쓰였고 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冀는 北魏 韓顯宗墓誌에 , 北周 高妙儀墓誌 , 北魏 元均及妻墓誌 에 의 형태로 나타나다가 西晉司馬攸 望近帖에 이르면 의 형태가 나타나고 北宋의『송본옥편』(543)에 의 자형이 나타난다. 또『광운』(1008)에 冀의 다음 글자에 異가 나오는데 "上同. 見經典省"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同字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진 남북조 시기에 한자의 자형 분화가 冀와 異로 이루어졌다가 異가『옥편』에 실리면서『광운』등의 책에 정식으로 同字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龍龕手鑑』(997)에는 가 속자로 실려있다.

異가 우리나라의 자전에 실린 기록은 1796년『전운옥편』에 異를 표제자로 싣고 "冀俗字"라고 설명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1856년 鄭允容의『자류주석』이나『자전석요』,『신자전』은 모두 異를 冀의 속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전운옥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② 潠은『설문해자』에 "含水噴也. 從水巽聲."이라고 설명이 있지만 噰은 보이지 않는다.『後漢書·欒巴傳』에 "所在有績, 徵拜尙書"라고 하였고 여기에 章懷太子가『神仙傳』을 인용하여 주석하기를 "巴獨後到, 又飮酒西南噰之."라고 하여 噰이 나오는 것이 가장 최초의 기록이다. 이후『송본옥편』에도 표제자는 아니지만 魊의 설명에 "短狐, 狀如龜, 含沙噰人."이라는 설명이 보이는 것으

로 보아 이 당시 噀 역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龍龕手鑑』에 "嗳噀二俗啄正"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嗳과 噀이 당시 속자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字彙』에서는 噀에 대해 "同潠"이라 설명하여 이체자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전에 噀에 대해 최초로 기록된 것은 『華東正音』(1747)이다. 『화동정음』에 噀을 "俗潠"이라 설명하였다. 『전운옥편』에도 "潠俗字"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체자 중에서도 속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坨는 『正字通』(1640전후)에 최초의 기록이 보이는데 "坨"에 대해 "俗陀字. 陀或作陁."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동정음』에 陁는 "同陀"라고 하였고 坨는 "俗"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최초의 자서기록이다. 이후의 『전운옥편』에 "陀俗字"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후의 자전들 역시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④ 冤은 『설문해자』에 "從兔從冂"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冤이 정자임을 알 수 있다. 이후 『干祿字書』(774)에 과 을 기록하고 을 속자, 을 정자라고 설명하면서 寃의 자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의 『龍龕手鑑』 역시 『干祿字書』의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동정음』은 오히려 寃이 표제자로 나오고 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운옥편』은 寃가 冤의 同字로 설명하고 있다.

⑤ 曬는 『설문해자』에 "曬, 暴也. 從日麗聲."이라고 설명하였고 『옥편』에 "亦作晒"라고 하여 "晒"이 이체자였음을 알 수 있다. 『광운』, 『집운』, 『類篇』에서 모두 曬만 나타나고 『四聲篇海』와 『字彙』, 『正字通』에서는 晒가 속자로 나와있다. 晒은 『字彙補』에 "與曬同"이라는 설명이 보인다. 『강희자전』 역시 『字彙補』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전에서는 『전운옥편』에 晒를 "曬俗字",

第32輯 (2009.4.)
pp.51~76

曬는 “晒同”이라고 기록한 것이 처음이다.

⑥『자전석요』에 畮를 畝의 속자라고 하였지만『강희자전』에는 고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설문해자』에는 畝자는 보이지 않고 대신 晦에 대해 “晦, 晦或從田 十久”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畮는 晦의 이체자였음을 알 수 있다.『간록자서』에 이르면 畝와 畮의 자형이 나오고『五經文字』에 畝와 畮의 자형이 나타난다. 이후『광운』에서 晦와 畮를 고문이라고 설명하였고,『집운』은 晦, 畮, 畝을 或體로 설명하고 있다. 『강희자전』에서는 畮을 “古文畝字”라고 하여『광운』의 설명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晦와 畮, 畝는 이체자의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자류주석』에서는 “畮古晦仝”으로 설명하였고,『전운옥편』 역시 畮를 畝의 古字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자전석요』는 이 둘의 관계를 속자로 보았으며『신자전』 역시 고자의 관계로 보고 있다.

⑦『자전석요』는 疢가 疢의 속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강희자전』은 疢의 속자는 疹이고 疢의 속자 역시 疹이며 “別作癇, 疢”라고 이체자로 설명하고 있다.『설문해자』에 “疢, 熱病也. 從疒從火. 臣鉉等曰 ‘今俗別作疢, 非是.’”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疢은 徐鉉 등에게 정식 속자로도 인정받지 못하였던 듯 하다.『龍龕手鑑』에 이르면 “痣疹二俗疹疢二或作疢正.”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遼代에는 痣, 疹이 속자였고 疹, 疢이 或體였으며 오히려 疢이 정자였음을 알 수 있다. 疢는『集韻』(1039)에 “疹과 疢가 疢의 或作”이라고 설명하면서 疢의 이체자로 기록되어 있고, 원대에 간행된『옥편』에도 疢가 疢의 同字라고 설명이 나오면서 疢의 이체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던 듯 하다.『자휘』 疢조에 “徐鉉曰今俗別作癇非. 周伯溫曰別

作疠非.”는 설명이 보인다. 또한 『정자통』에도 “……同俗作疹, 別作癇疠非”라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자휘보』에서는 오히려 癇조에 “疑卽疠”라고 하여 癇와 疠를 동일한 글자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전 『전운옥편』에는 疢과 疹이 동자관계에 있는 것만 설명하였고 疠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자전석요』에 처음 疠가 疢의 속자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지석영이 모든 或作, 別作 등의 글자를 다 속자로 처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⑧ 『자전석요』에 蘋을 蘩의 俗字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은 『광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운』과 『집운』에서는 苘과 蘋을 蘩의 同字 또는 或作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운옥편』 蘩조에 “俗作蘋”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전석요』는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⑨ 邇는 『설문해자』에서 “近也. 從辵爾聲. 迩, 古文邇.”이라고 설명하였는데, 迩이 古字임을 알 수 있다. 이후로 『龍龕手鑑』에서는 迩를 邇의 혹체로, 원대에 간행된 『옥편』과 『광운』에서는 邇의 同字로 보았다. 邇의 자형이 나타난 것은 『집운』이 최초인데, “古作邐, 或作迩”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迩의 자형에서 다시 迩가 분리되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자형상의 유사성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후로 『類篇』, 『四聲篇海』, 『자휘』 등에서 迩가 邇의 同字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자서에는 『전운옥편』에 迩를 邇의 속자로 설명하였고, 『자류주석』에도 迩를 邇의 속자로 설명하고 있다.

⑩ 骫는 『설문해자』에 “骨耑骫㚇也. 從骨丸聲”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정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용감수감』 ‘고려본’에서는 “骫俗骫正”으

로 骫가 오히려 정자로 기록되었다. 또 다른 판본의 『용감수감』은 "骫俗骫正"으로 오히려 骫가 속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옥편』과 『광운』은 모두 骫를 정자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집운』은 骫를 따로 두어 骫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글자로 두고 있다. 『사성편해』에 이르면 骫을 骫, 骬와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骬자형이 다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자휘』에서 骫의 속자가 骫라 하였고, 또다시 骬의 자형이 별개의 글자로 설명되어 있다. 『정자통』에서는 骫의 속자가 骬이라고 하였고, 骫와 骬는 骫의 譌字라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운옥편』에 骫를 骫의 속자라 하였고, 『자류주석』과 『자전석요』 역시 이를 따르고 있다.

⑪ 『강희자전』에 柁에 대한 설명을 보면 "與舵同. 一作柂."라고 하였고, 柂에 대해서는 "同柁"라고 한 것으로 보아 舵, 柁, 柂는 모두 이체관계에 있는 글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柂는 『설문해자』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후기자에 속할 것이다. 柂의 기록은 『용감수감』에 보이는데 정자로 사용되었다. 이후 『집운』에 이르면 "柁, 正船木. 或作柂, 舵."라는 설명이 있어 이 때에 柂뿐 아니라 柁와 舵가 사용되었고, 柁가 오히려 정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서 기록을 살펴보면 『화동정음』에서 柂의 속자가 柁라고 설명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전운옥편』과 『자전석요』는 오히려 柂를 柁의 속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집운』의 영향 때문인 듯 하다.

⑫ 泐은 『설문해자』에 "水石之理也. 從水從劦."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물과 돌의 결이라는 뜻이다. 泐은 『용감수감』에 처음 보이는데 "泐汋二或作泐正"이라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泐와 汋이 모두 泐의 이체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龍龕手鑑』을 제외하면 泐에 대해 언급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희자전』에도 언급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전운옥편』에도 泐을 泐의 속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한자가

『용감수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것이다.

⑬『干祿字書』에 “騾贏上通下正”이라는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贏이 정자로 쓰였고 騾가 이체자였음을 알 수 있다.『광운』에는 “騾”를 설명하고 아래 부분에 “贏”을 놓고 “騾”와 같은 글자라고 하였다.『집운』은 “贏”에 대해 “亦作騾”라고 설명하여 역시 이체자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다.

(2)『 』에 속자의 언급이 없거나 다른 해석을 한 경우

NO	표제자	『자전석요』	『강희자전』해석의 부분 발췌
1		敘俗字	正字通】俗敍字。○按敍本从攴从余。今作叙，从又，誤。
2	樑	俗字	속자언급 없음
3	煆	鍛俗字	속자언급 없음
4	虀	齏俗字	【集韻】俗作虀，非是。

①『강희자전』에 “敍”에 대해 “『오경문자』에는 叙라고 하여 又부수에 넣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正字通』은 주백기의 설 때문에 攵와 余를 구성요소로 한 글자를 쓰고 있다. 지금『說文』을 따라 고친다. (『五經文字』作叙, 入又部, 非.『正字通』因周伯琦說, 從攵從余. 今遵『說文』改正.)”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叙는 잘못된 것이고 敍으로 고쳐야 함이 마땅하다고 한 것이데,『자전석요』는 叙를 표제자로 두고 敘의 俗字라고 풀이하고 있다.『간록자서』는 “叙敘上通下正”이라고 하여 敘가 정자이고 叙가 通字인 이체자라고 설명하고 있다.『五經文字』는 “作叙訛”라고 하여 叙로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강희자전』의『오경문자』에 대한 인용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어쨋거나 叙는 그 뒤로 오랫동안 자서에 등장하지 않다가『자휘』에 “叙, 敘本从文, 俗字从又.”라는 설명이 보인다.『정자통』 역시 叙를 敘의 속자로 설명하고 있다.

第32輯 (2009.4.)
pp.51~76

우리나라의 자서에 기록된 것으로는『전운옥편』에서 "序를 叙와 통한다"고 하였고,『자류주석』에서는 叙를 敍의 或體로 설명하고 있다.

② 『강희자전』에는 樑이나 梁의 설명에서 속자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樑은『자휘』에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정자통』에 이르면 "樑, 俗梁字"라는 설명이 나온다. 현대의『中文大辭典』에도 樑을 梁의 속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강희자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자전석요』의 樑을 "梁俗字"라고 설명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③ 煆는『자휘』에 처음 언급되어 있는데 "鍛同"이라고 설명하였다.『정자통』에도 煆를 "同鍛"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전운옥편』에 煆를 "鍛俗字"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자전석요』도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④ 虀를『자전석요』에서는 "齏俗字"라고 하였지만『강희자전』은『集韻』을 인용하여 "俗作虀, 非是"라고 설명하고 있다.『설문해자』에 薺를 "墜也. 從韭, 次朿皆聲. 虀或從齊."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는 薺가 정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虀는『광운』에 처음 보이는데 "齏"를 虀의 同字라고 하였고, 虀는 "虀菜"를 말하는 것으로 속자라고 하였다.『집운』에서는 "或作齏虀 , 通作齊, 俗作虀非是."라고 하였다.『六書正譌』에서도 "別作 通俗作虀非."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자휘』와『정자통』에 虀는 "同齏"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전운옥편』에도 虀는 "齏同"이라고 하였고『자전석요』는『전운옥편』을 따라 "齏俗字"라고 하였다. 이는『자휘』와『정자통』의 영향인 듯 하다.

(3)『 』에 없는 글자이거나 속자의 자형이 다른

NO	표제자	『자전석요』	『강희자전』해석의 일부 발췌
1	所		-
2	僁	愆俗字	-
3	准	準俗字	廣韻】【集韻】丛俗準字。
4	巔	顚俗字	【正字通】俗顚字。
5	崗	岡俗字	【正字通】俗岡字。
6	烖	哉俗字	-
7	晉	晉俗字	-
8	溱	泝俗字	【正字通】俗溯字。

① 所는『간록자서』에 所의 이체자로 나온다.『사성편해』에도 所이 所의 "俗用也"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강희자전』에는 이 자형이 나오지 않는다.

② 僁의 자형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간록자서』이다. "僁愆上俗下正"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僁이 속자이고 愆이 정자라는 뜻이다.『五經文字』(776)에는 "愆"에 대해 "作僁訛"라고 설명하였다.『용감수감』에는 "僁僁僧三俗僧古僁正"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僁이 속자임을 말해주고 있다.『광운』에도 僁이 愆의 속자라고 설명하였다.

『전운옥편』에서 僁은 愆의 同字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자전석요』에서 僁이 愆의 속자라고 한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다.

③ 準의 자형은『용감수감』에 최초로 보이는데 , "準, 古文. 音准. 均也, 平也, 度也."라고 하였고 準은 "古文准字, 均平准度也."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准과 準이 고문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晉의『黃庭內景經』에 의 자형이 보인다. 이후의『사성편해』에도 準을 准의 고문이라고 하여『용감수감』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전운옥편』에는 準을 표제자로 두지는 않았지만 准의 설명에 "準俗字"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準과 準이 크게 구별없이 속자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④ 顚와 顚은 이체자 관계이다. 『광운』에 顚와 顚을 同字관계라고 하였고, 『집운』에는 顚에 대해 "俗作顚非是"라고 하였다. 또 『육서정와』에서는 顚에 대해 "別作巔顚竝非"라고 설명하였다. 『자휘』에서는 顚을 "俗顚字"라고 하였다. 그러나 顚은 별개의 글자이다. 『전운옥편』에 顚을 "顚同傎通"이라고 풀이하였고, 『자류주석』에 顚을 "顚俗"이라고 풀이하고 있지만 顚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자전석요』의 顚이 顚의 속자라고 한 풀이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⑤ 崗, 岡, 罔은 모두 이체자관계에 있는 글자들이다. 『자휘』에는 이 글자들을 모두 설명하고 있는데 "崗은 岡의 同字"라고 하였고, "罔은 岡의 古字."라고 하였다. 『강희자전』은 罔을 속자라 하였으며, 『자전석요』는 이체관계에 있는 崗과 岡을 속자관계로 보았다.

⑥ 『자전석요』에 哉의 속자가 犾라고 하였는데, 『정자통』에 의하면 "哉, 本作哉, 篆作哉, 隸省作哉, 俗作犾非."라고 하였다. 犾는 犾의 이체자이므로 犾을 哉의 속자로 보아서는 안될 터인데 『자전석요』는 속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⑦ 『설문해자』에 晉은 "從日從臸"이라 하였고 소전체는 晉이다. 『간록자서』에 "晉晉竝上俗下正"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晉이 속자이고 晉이 정자임을 알 수 있다. 『옥편』(元刊本)에는 晉이 晉의 同字라고 설명하였다.

⑧ 『자전석요』에는 溱를 "泰俗字"라고 하였는데 『강희자전』에서는 『정자통』

을 인용하여 “俗溯字”라고 설명하고 있다. 『集韻』에 “溯或作遡, 溯.”라고 하였고, 『龍龕手鑑』에 “溯字省筆而爲泝.”라고 하였으니 溯과 泝가 이체자 관계임을 알 수 있다.

3.

『자전석요』에 나오는 “某俗字”의 형식은 『강희자전』에서 “속자”라고 해석한 설명을 거의 대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강희자전』에는 “或作”, “別作”, “同字”, “古字”, “譌字”등에 대해서도 지석영은 속자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체자와 속자의 구별없이 대부분의 이체자를 속자로 여겼기 때문인 듯 하다.

이 외에도 『자전석요』에 나타난 속자가 나타나는 문헌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속자 자형들은 대부분이 당송시기의 『干祿字書』(774), 『龍龕手鑑』(997)에 나타나고 있는 자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계속 문화적 교류를 지속하여왔는데 유독 당대의 자형을 한국에서 고수하고 있었던 경향은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도표는 『강희자전』의 속자와 다른 25글자가 나타난 문헌을 정리한 것이다.

No	표제자	『자전석요』	출처자료	간행연대
1		冀俗字	『宋本玉篇』	543
			『 龕手鑑』	997
2	噀	潠俗字	『宋本玉篇』	543
			『龍龕手鑑』	997
3	坨	陀俗字	『正字通』	1640전후
4	寃	冤俗字	『干祿字書』	774

第32輯 (2009.4.)
pp.51~76

			『　　手鑑』	997
5	晒	曬俗字	『字彙補』	淸代
6	畝	畝俗字	『干祿字書』	774
			『五經文字』	776
7	疥	疥俗字	『集韻』	1039
			『字彙』	明代
8	蒨	縈俗字	『廣韻』	1008
			『集韻』	1039
9	迩	邇俗字	『集韻』	1039
10	骫	骫俗字	『龍龕手鑑』	997
11	柂	柁俗字	『龍龕手鑑』	997
12	沕	泐俗字	『龍龕手鑑』	997
13	騾	贏俗字	『干祿字書』	774
14	叙	敘俗字	『干祿字書』	774
15	樑	梁俗字	『正字通』	1640전후
16	煆	鍛俗字	『字彙』	明代
17	虀	齏俗字	『廣韻』	1008
18	所	所俗字	『干祿字書』	774
19	僁	愆俗字	『干祿字書』	774
20	准	準俗字	『干祿字書』	774
21	顚	顚俗字	『廣韻』	1008
22	崗	岡俗字	『字彙』	明代
23	烖	哉俗字	『正字通』	1640전후
24	晉	晉俗字	『干祿字書』	774
25	溱	泰俗字	『龍龕手鑑』	997

위 도표를 살펴보면 『강희자전』과 자형이 다른 속자들은 대부분 당송시기의 『干祿字書』와 『龍龕手鑑』에서 나타난 글자들로 중국의 문헌에서는 오히려 사라져 보이지 않는 자형들이 한국의 문헌에서는 조선시대말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거나 심지어 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강희자전』을 저본으로 삼아 자전을 만든 『자전석요』에서조차 『강희자전』의 속자보다 다른 자형을 속자로 설명한 부분은 선 듯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를 한국학자의 보수성이라고만 보아도 좋을 것인가? 그렇다면 왜 굳이 당송시기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 어떤 결

론도 얻지 못하였고 이는 앞으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한자의 전파와 변화과정은 한자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많은 역사의 비밀을 알려줄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參考文獻】

池錫永,『字典釋要』, 1917, 滙東書館

漢語大辭典編纂處,『康熙字典』, 上海辭書出版社, 2010(7)

하강진,「자전석요의 편찬과정과 판본별 체재 변화」,『한국문학논총』 제 56집, 2010.

하영삼,「한국 고유한자의 비교적 연구」,『중국어문학』 제33집, 1996.

하영삼,「조선 후기 민간 속자 연구」,『중국어문학』 제27호, 1996.

강혜근,「이체자란 무엇인가?-정자와 상대되는 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중국학논총』 제11집, 2001.

왕평 이경원,「『한국속자보』속자연구」,『인문학논총』 제15권 2호, 2010.

한용수·강영규,「한·중한자의 자형분석」,『동서비교문학저널』 제24호, 2011.

【中文提要】

19世紀末興起以知識分子爲中心的近代化運動，以此拉開高擧民族意識抗擊日本的序幕 特別是通過普及韓文實現民族啓蒙和對新知識、新學問的接納，國文价値的認識此時也翻開了新的篇章。至此開始推行同時使用韓文和現存漢字的卽'國漢文混用'新方案。隨之漢字知識的深化和与之并行的對國文理解能力的提高都迫切要求与之相称相符的字典。《字典釋要》(1909) 作爲國文整理和普及的重要环節就是在這种特定的歷史背景下籌划完成的。也因此与《新字典》(1915)、《國漢文新玉篇》(1908)同時被譽爲近代最重要的字典。

第32輯 (2009.4.)
pp.51~76

依据＜范例＞，對《康熙字典》中的俗字以‘某俗字’形式作出解釋，但据我的調查研究，‘某俗字’中出現近３０例《康熙字典》中沒有或字体不同的亦或解釋有异的俗字　這說明這种俗字是韓國常用字。而字体正如所見，大部分是受《 干祿字書 》等唐宋時期的文獻影響所致。

【主題語】

俗字，異體字，『字典釋要』，『康熙字典』，『干祿字書』，『廣韻』，『集韻』，『龍龕手鑑』

『新撰字鏡』 註釋 體例研究-古今字를 중심으로-

김영경[1]

〈 目 次 〉

1. 서론
2. 古文 자형을 제시하여 상관 관계를 밝힌 체례
3. 今字를 제시하여 상관 관계를 밝힌 체례
4. 今字와 古字를 같이 제시하여 상관 관계를 밝힌 예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앞서 발표했던 「『新撰字鏡』註釋 體例 研究-한자 字形屬性情報를 중심으로』에서 미처 논술하지 못했던 『新撰字鏡』에 수록된 고금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체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고금자의 정의부터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구석규 선생의 정의에 따르면 고금자는 한 가지 의미에 여러 가지 자형이 존재하는 현상과 관계된 용어로, 한 의미의 여러

* 경성대학교 한자연구소 전임연구원(ling72@hanmail.net)

가지 서사 형식이며, 시간 상 선후를 나눌 수 있다. 앞서 사용되었던 글자는 뒤에 나온 글자의 고자이고, 뒤에 나타난 글자는 앞서 사용된 글자의 금자라고 한다. 주로 "某, 古某字.","某, 某, 古今字."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때 금자는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서사형식을 취한 자형이다. 2) 즉, 당시 널리 사용되던 자형으로 고서의 모 글자의 의미를 주석한 것이다. 그러나 고금자의 원래 목적은 고서의 모 글자의 의미를 주석하는 데 있지, 그 글자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고자와 금자로 분류된 글자들의 고금은 상대적이었으며, 출현 시기를 분명하게 정의한 것은 아니었다.3)

그러나 근대에 들어 문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문자의 파생이라는 각도에서 고금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주로 모자와 분화자를 지칭하는 의미가 굳어졌고, 어떤 학자들은 고금자라는 명칭을 "조자 과정에서 계승 관계"에 있는 글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자고 주장하기도 했다.4) 그러나 옛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금자의 정의와 범위, 기본 개념은 이와는 달랐다. 옛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자는 고서의 자의를 오늘날의 글자로 주석하는 것이므로, 그 고자와 금자, 즉 고금자는 당연히 오늘날 말하는 모자와 분화자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글자들 간의 역사적 선후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5)

역대 자서나 주의 서술 형식을 잘 살펴보면, 한 의미를 표현하는 여러 자형들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나름대로의 격식화된 형식이 존재한다. 고서의 주는 주로 "古作某","今作某","亦作某","通用某","或作某","同某","與某同","本作某","又作某","某書作某","俗作某","本又作某","本或作某" 등의 형식을 쓰고, 자서는 이 뿐만 아니라 자형을 분석하고 해설하기 위해 "或從某","篆作某","古文某","古文作某","古文從某","某或從某省" 등의 형식을 사용한다.6) 이러한 형식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이체자를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보면 통가자, 동원자, 고금자(특히 "古作某","今作某"), 속자, 異文 등 여러 가지 문자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옛 사람들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찬술할 때 용어의 사용과 표현 방식에서 뚜렷한 원칙이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동일한 자서 내에서도 같은 형식의 설명 방식으로 다른 개념의 문자현상을 풀이하는 경우도 있었다. 7)본고의 저본인 『신찬자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흔히 보인다.

---

2) 구석규,『문자학개요』,상무인서관(북경:1988), 270~271쪽.
3) 위와 같음.
4) 위와 같음.
5) 위와 같음.
6) 章瓊,『이체자연구』,상무인서관(북경:2007),18쪽 인용.
7) 위와 같음.

정리해 보면, 옛 사람들의 고금자에 대한 개념과 오늘날 문자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조자 과정에서 계승 관계"로서의 그것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신찬자경』에서 고금자를 표시하는 형식을 분석하되, 문자의 분화 관점에서의 고금자의 개념만을 근거로 『신찬자경』의 고금자에 대한 인식을 재단하지 않을 것이다. 본래부터 고금자를 문자 출현 시기의 전후와 대체, 분화의 의미, 즉 "조자 과정에서 계승 관계"로 바라보지 않은 『신찬자경』에 그러한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어 고금자 관계이니 아니니 따지거나, 고금자 관계가 아니니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찬자경』에서 "古作","今作","今爲"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체례를 모아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것이 "조자 과정에서 계승 관계"가 확실히 나타나는 고금자인지, 표제자 혹은 기타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인지, 아니면 단순 이체관계의 글자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어 『신찬자경』의 체례와 그것을 통해 제공되는 문자 속성 정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古字 자형을 제시하여 상관 관계를 밝힌 체례

2장에서는 古字 자형을 제시하여 표제자나 기타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체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古字 자형을 제시하는 방법은 "某某+글자수+字+古作","某古作","古作某","古作某某+글자수+形/古作某某+글자수+同作" 등으로, 古字의 자형을 하나 이상씩을 열거하여 그 글자 들 간에 "조자 과정에서 계승 관계"를 포함한 일정한 상호관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2.1. "某某+글자수+字+古作"

> 鍼,支湛反.平.刺也.錘也.諫也.針也.針箴.箴綴衣也.敎也.戒也.針箴二字古作.『新撰字鏡 卷6 金部』

위의 『신찬자경』의 논리에 따르면 鍼은 針과 箴 두 고자가 있다. 『설문』에 따르면 "箴은 옷을 엮는 바늘(箴,綴衣箴也。從竹咸聲)이다. 또 鍼자에 대한 『설문』의 풀이를 보면, "鍼, 所以縫也(침이란 꿰매는 도구를 말한다)" 설문의 풀이를 보면 이 두 글자는 모두 바늘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글자에 대한 『단주』의 주를 보면 양자 간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먼저 箴자의 풀이에서는 "綴衣란 옷을 이어 엮는 것이다. 즉 시쳐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가지고 꿰매는 것은 金을 따르는 鍼이다. 상서의 贅衣는 바로 옷을 이어 엮는 것이다. 인신되어 箴規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綴衣, 聯綴之也。謂籤之使不散。若用以縫則從金之鍼也。尙書贅衣卽綴衣也。引伸之義爲箴規)"라고 하였고, 鍼자의 풀이에서는 "침이란 꿰매는 도구이다. 봉은 바늘로 옷을 깁는 것이다. 죽부의 箴을 옷을 잇는 바늘이라고 했는데, 대나무로 만들었으니 옷을 이어 엮는 것밖에 할 수 없다(綴衣箴鍼,所以縫也。縫者, 以鍼紩衣也。竹部箴下曰。綴衣箴也。以竹爲之, 僅可聯綴衣)"라고 하였다. 단옥재의 견해에 따르면 箴과 鍼은 같은 바늘을 뜻하지만 용도와 효능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箴과 鍼의 자형 관계는 어떨까? 한자 이체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과학 문명의 발달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가 글자에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비석을 의미하는 碑가 椑라는 이체자를 가지고 있고, 이 둘 간 에는 예전에는 나무로 묘비를 만들던 풍습에서 돌을 깎아 만드는 일이 많아졌으므로 이를 반영한 碑자가 나오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箴과 鍼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소재의 변화에 따른 의미부의 교체로 나타난 이체자로 볼 수 있다. 이 두 글자는 서로 통용되다가 점차 鍼이 箴을 대체하게 되어,[8] 箴자는 주로 "規戒"나 "잠언"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鍼자를 주로 사용하는 시대의 저자가 箴자를 鍼자의 고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자 과정에서 계승관계"가 성립되는 고금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箴자가 鍼의 고자가 되려면 箴의 자형을 온전히 성부로 하여 분화되어야 하는데, 이 두 글자는 의미부의 교체만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針자는 徐鉉이 "오늘날 민간에서는 針으로 쓰는데, 옳지 않다(今俗作針, 非是)"라고 한 것으로 보아 鍼자의 古字라기 보다는 俗字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세 글자는 이체자의 관계가 성립된다.

2.2 古作某

8) 옛날에는 箴과 鍼이 통용되었다. 풍속통에서 衛大夫箴莊子라 쓰는 것이 오늘날 좌전에서는 鍼莊子라고 쓰고 있다(古箴鍼通用。風俗通曰。衛大夫箴莊子。今左傳作鍼莊子)(단옥재, 『설문해자주』,1998년,상해고적출판사).

帆,颿同.古作颱.扶嚴反.汎也.又扶泛也.『新撰字鏡 卷4 巾部』

위의 예문에 근거하면, 帆은 颿과 같은 글자이며, 颱가 帆의 고자가 된다. 『玉篇』에 따르면 "颱은 扶와 嚴의 반절이며, 고문 帆자이다(颱,扶嚴切。古文帆)"라고 하였다. 『玉篇』은 『신찬자경』의 주요 저본이므로, 颱가 帆의 고자라는 인식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의미적으로도 배가 바람을 받아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颱"과 배 돛의 소재인 천(巾)이 바람(凡)을 받는 다는 의미의 "帆"가 서로 유사하므로 같은 "의미항"를 표시하는 글자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帆과 颱이 직접적으로 고금자 혹은 이체자의 관계인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帆"자와 颱자는 모두 『설문해자』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글자이다. 다만 帆자와 같은 글자로 표시된 颿자의 풀이를 보면 帆이 颿에서 분화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해자』颿의 풀이를 보면, "颿은 말이 빨리 걷는 것을 말한다. 마를 의미부로 하고 풍을 소리부로 한다(颿, 馬疾步也。從馬風聲)"고 하였다. 즉 말이 바람을 가르며 달린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서현은 주에서 "본래 배의 빠른 속도를 말할 때도 이 글자를 썼는데, 오늘날은 따로 帆으로 쓴다. 옳지 않다. "라고 하였다. 즉 예전에는 수레나 배가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었다. 문명의 발달 규율로 보아도 수레의 발명이 선박보다는 앞섰을 것이므로 말의 속도가 빠름을 의미하는 颿이 배의 속도가 빠름을 표시할 때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다 후에 배의 속도의 빠름을 의미하는 글자의 쓰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帆"자가 특별히 분리되어 나왔던 것이다. [9]帆과 颱은 직접적으로 자형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지만, 颿과 颱는 의미부의 교체로 변화된 이체자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颿"자는 "조자 과정에서 자형 계승"의 관계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帆"의 고자이며, "颱"는 "帆"의 고자인 "颿"자의 이체자로 본 다면, 이 역시 "帆"의 고자가 된다.

2.3 古作某某+글자수+形/古作某某+글자수+同作

2.3.1 古作某某+글자수+形

9) 颿, 馬疾步也。馬之行疾於風。故曰追奔電, 逐遺風。從馬。風聲。此當云從馬風, 風亦聲。或許擧聲包意。或轉寫奪扇。不可知也。符嚴切。廣韻符咸扶汎切。七部。按今有帆字, 船上幔以使風者也。自杜注左傳巳用此字。不必借颿。(단옥재,『설문해자주』, 상해고적출판사,1998년)

酷,古作嚳焧俈三形.口木反.急也.極也.熟也.酒味.加良志.『新撰字鏡 卷4 酉部』

위의 내용에 따르면 酷는 嚳, 焧, 俈 세 가지 古字가 있다. 酷의 『설문해자』 해설에 따르면 이 글자는 "술의 진한 향기(酒厚味)"를 일컫는 말이었다가 후에 "심하다"의 의미로 인신되었다. 10) 또 "焧"자는 원래 "가문 기운(旱气)"을 뜻하다가, 11) 『廣韻』에서처럼 "열기(熱氣也)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단옥재의 주에 따르면 焧은 酷과 음과 뜻이 유사한데(旱气也。與酷音義略同), 실제로 "焧" 자는 또 酷과 같이 쓰이기도 했다.12)

嚳은 『설문해자』에 따르면 "급히 고하다(嚳,急告之甚也,)"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단옥재 주에서는 "급히 고함이 극에 이른다. 급한 고함은 고함이 급하다는 것과 같다. 고함의 급함이 글에 달했다는 것은 급하고 또 급하다는 것을 일컫는다. 석 현응은 嚳가 酷자와 음과 의미가 모두 같다고 했다. 白虎通에 이르길, '이 글자로 제곡을 일컫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곡이라는 것은 극에 달함을 뜻하고, 교령이 궁극에 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궁극이라 함은 바로 급한 고함이 인신된 의미(急告之甚也。急告猶告急也。告急之甚，謂急而又急也。釋玄應說嚳與酷音義皆同。按白虎通云。謂之帝嚳者何也。嚳者，極也。敎令窮極也。窮極，卽急告引伸之義)"라고 하였다. 현응의 말처럼 嚳와 酷자 모두 "정도의 심함(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독음도 동일하므로 같은 글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두 글자간의 연관성이 상당히 깊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俈자와 酷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集韻』에 따르면 俈자는 嚳으로 통용된다.13) 그 예로 『史記·五帝紀』에 "제곡 고신은 황제의 증손이다(帝嚳高辛者，黃帝之曾孫也)라는 구절의 "帝嚳"을, 『史記·三代世表』의 "제곡은 황제의 증손이다(帝俈，黃帝曾孫)"에서는 "帝俈"으로 쓰고 있다. 즉 俈은 제곡을 뜻하는 嚳와 俈는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근거하면 俈과 嚳과 깊은 연관이 있는 酷과의 관계도 서로 연결이 된다. 이 뿐만 아니라 俈자는 "暴"을 뜻하기도 한다. 『옥편·인부』의 "俈" 풀이에 따르면 "俈은 俈然으로 쓰이는데, "暴"이라는 뜻이다." 이 때의 "暴"이 원래의 본의대로 "햇빛에 쬐

---

10) 酷,酒味厚也。依廣韻訂。引申爲已甚之義。白虎通曰。酷，極也。敎令窮極也. (단옥재,『설문해자주』, 상해고적출판사,1998년)

11) 焧, 旱气也。從火告聲。苦沃切(許愼 저, 臧克和・王平 교감,『說文解字新訂』,北京:中華書局, 2002年

12) 淸 毛奇齡 『兪君墓誌銘』, "死者道相望，君捐金代輸而以焧虐責蒲臺令。蒲臺令慙謝。"(徐中舒 편,『漢語大字典』(成都:四川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1993年, 923쪽 재인용)

13)『集韻・沃韻』, "俈,嶨,帝高辛之號，亦通作嚳。"

다"이든 "모질다"의 의미이든 "酷" 과 어느 정도 의미적 공통성은 갖기에 널리 쓰이는 금자로 고자의 의미를 주석하기 위한 고금자로 볼 수는 있다. 그렇다면 소위 『신찬자경』에서 말하는 酷자의 세 고자 𤇾, 焅, 告는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이체자로 볼 수는 없지만, 널리 쓰이는 酷자로 주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적 공통성은 가진 글자로, "조자 과정에서 계승 관계" 없이 좀 더 친숙하게 쓰이는 금자로 고자를 대체한 고금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3.2 古作某某+글자수+同作

係,古作繫繼二形同作.古帝反.去.絜束也.連也.『新撰字鏡 卷4 사부』

『新撰字鏡』의 주석에 따르면 係는 繫와 繼의 두 고자를 가지는데, 係는『설문』에 따르면 "係는 麻로 에워 싸 묶는다는(絜束也。從人從系，系亦聲)"[14] 의미이며, 사람 人과 系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성오 선생의 『갑골문자석림』의 係자의 고석을 보면 係자는 "허신은 이 글자가 사람 人과 系을 따른다고 오류를 범한 바람에 회의자를 형성자로 잘못 분류하였다. 係를 絜束로 풀이한 것은 파생 의미이지 본의가 아니다. 갑골문의 係은 밧줄로 사람의 목을 결박하는 모습을 본떴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係는 본래 "밧줄로 사람을 포박"한다는 것을 뜻하고, 여기에서 다시 일반적인 "매다"의 의미가 파생되었을 것이다. 단옥재는 주에서 "묶으면 가닥이 사물과 서로 이어진다. 따라서 모든 서로 연결되고 결속되는 것을 係라고 일컫는다."[15]고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 "관계"라는 의미가 나왔다. 또 "주역에 계돈, 계장부, 계소자가 나오는데, <석고>에서는 이 係를 계속 잇는다(束之則縷與物相連。故凡相聯屬謂之係。周易係遯，係丈夫，係小子。釋詁曰。係，繼也)"고 풀이하며, 係와 繼의 관계를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후한서·효안제기』의 "친덕으로 뒤를 잇는 것으로는 고유제만큼 합당한 것이 없다(親德係後, 莫宜於祫)"라는 구절에서, 이현 역시 "係는 繼이다(係, 卽繼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이를 통해 係에는 "묶다"라는 의미가 주요한 자의였으

---

14) 一耑猶一束也。耑，頭也。束之必齊其首。故曰耑。故曰耑。人部係下云。絜束也。是知絜爲束也。束之必圍之。(段玉裁,『說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5年)

15) 陳廷敬・張玉書 지음・王宏源 교감,『康熙字典』(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나, 점차 繼의 뜻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글자는 단순히 한 의미를 공유를 할 뿐 완전히 대체가 가능한 이체자나 선후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고금자의 관계는 아니다. 둘 다 비슷한 역사와 상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자로 고자를 대체했다고 보기도 조금 어렵고, 係의 본의에서 파생된 파생 의미인 "계속하다"를 그것을 대표 자의로 하는 글자인 繼로 풀이하여 의미를 분명히 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繫와의 관계는 조금 다르다. 『설문해자』의 풀이에 따르면 繫는 원래 "거친 솜(繫,繫繻也。一曰惡絮。從糸毄聲)" 인데 단옥재의 주에 따르면 "係가 민간에서 점차 繫와 통용되어, 古經을 고찰해 보면, 周禮司門은 人자를 고쳐 모두 毄로 써 놓았으며, 주역의 계사도 석문에 따르면 毄로 썼고, 『漢書·景帝紀』에서도 毄로 썼다. 옛날에는 毄를 빌어 係를 대신하였고, 후인들이 모두 繫로 바꾸었다(按俗通用繫……按俗通用繫。許謂繫繻。卽牽離惡絮之名。考諸古經。若周禮司門，校人字皆作毄。周易毄辭，據釋文本作毄。漢書景帝紀亦用毄。蓋古假毄爲係。後人盡改爲繫耳)"고 한다[16]. 毄는 『集韻』에 따르면 吉詣切로 읽힐 때 繫와 같다고 하였다.『前漢·景帝紀』의 "군국이든 매마르고 거친 땅이든, 좁은 땅이든 농사짓고 짐승을 길러 먹이지 않는 곳이 없다(郡國或磽陿，無所農桑畜)"라는 구절에 대해, 안사고는 毄은 繫(매다)자의 고자이며 먹여 기르는 것을 일컫는다(毄,古繫字，謂食養之也)"고 주석 하였다.따라서 毄은 繫와 같은 글자로 볼 수 있다. 이처럼 繫은 본의인 "거친 솜"이라는 의미보다는 係로 가차된 의미로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단옥재는 주에서 육덕명의 견해를 빌어 "육조 이후에는 系(즉 係)를 더 이상 쓰지 않고 繫를 빌어 系를 대신해 썼다. 점차 繫의 본의는 영원히 묻혀버리게(陸德明，丁度非不言之憭然也。而六朝以後舍系不用，而叚繫爲系。遂使繫之本義薶蘊終古) 되었다고 했다.

세 글자 간의 관계를 종합하면 係는 繫에 의해 가차되었으므로 굳이 고자와 금자의 관계로 설명하자면 係가 고자, 繫가 금자가 된다. 따라서 『新撰字鏡』에서 말하는 것처럼 繫가 係의 고자는 아니라는 것이 된다. 係은 또 "계속 잇는다"라는 파생 의미를 가지고, 이는 繼와 같은 의미이므로, 잘 알려진 同意字로 그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今字를 제시하여 상관 관계를 밝힌 체례

16) 위와 같음.

3장에서는 금자를 제시하여 표제자 혹은 설명하고자 하는 글자와의 자형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체례를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체례는 "今爲某","今爲某字","今作某","上字今作"등이 있다.

3.1. 今爲某/今爲某字

3.1.1 今爲某

> 涑.先侯反.平.無垢加功曰涑,去垢曰浣,以手曰涑,以足曰院.[浣],今爲漱也.『新撰字鏡 卷6 水部』

涑은 『설문해자』의 풀이에 따르면 "씻다. 물 수를 의미부로 하고 속을 소리부로 한다. 황하의 동쪽에 속수가 있다(涑, 澣也。從水束聲。河東有涑水。速侯切)"으로, "澣"은 『詩·周南』의 "내 옷의 때를 가볍게 씻어내다(薄澣我衣)"처럼 "옷의 때를 씻어내다"라는 뜻이었다가,『鄭康成·內則註』의 "발을 씻는 것을 澣이라고 한다(足曰澣)"에서처럼 발을 씻는다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17] 그런데 『강희자전』에 의하면 손으로 씻는 것은 涑이라고 하고, 발로 씻는 것은 澣이라고도 하는데(一說以手曰涑, 以足曰澣), 『설문해자』에는 두 글자를 구분 없이 써 澣으로 涑의 뜻을 풀이하고 있다.[18] 후에 이 澣자는 자형을 간소화하여 "浣"(或省作浣)으로 쓰는데,[19]『新撰字鏡』에서 "以足曰院.[浣]"이라고 풀이한 부분은 "澣"의 줄임 글자인 "浣"가 발로 씻는다는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후에 이 涑자는 가차자 漱에 의해 대체되었다.[20]

漱이라는 글자는 "입을 씻어내다. 물 수를 의미부로 하고 欶를 소리부로(盪口也.從水欶聲)"하는 글자이다. 씻는다는 점에서는 涑과 의미적인 공통성이 있고, 독음도 비슷하므로 涑

---

17) 陳廷敬・張玉書 지음・王宏源 교감,『康熙字典』(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쪽.

18) 이점에 대해서 단옥재는 주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公羊傳。臨民之所漱浣也。何曰。無垢加功曰漱。去垢曰浣。齊人語。解云。無垢加功，謂但用手斗漱。去垢蓋用足物。故內則云。冠帶垢，和灰請漱。衣裳垢，和灰請澣。鄭云手曰漱，足曰澣是也。若然則涑與澣別),段玉裁,『說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5年)

19) 陳廷敬・張玉書 지음・王宏源 교감,『康熙字典』(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쪽.

20) 涑，亦假漱爲之。段玉裁,『說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5年),?쪽.

으로 가차되어 “옷의 때를 씻다”을 뜻하게 되었다. 『公羊傳』의 “백성이 漱浣하는 것을 친히 나아가 본다(臨民之所漱浣也)”라는 구절에서 이미 漱이 涑을 대체했음이 보인다. 漱은 본래 “입을 헹구어 내는” 동작을 뜻했는데, 涑로 가차되면서 “물로 때를 씻어내다”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公羊傳』의 “無垢加功曰漱,去垢曰浣”을 그대로 연용한『新撰字鏡』의 주석의 풀이처럼 “無垢加功”의 의미도 가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단옥재는 “無垢加功”는 손으로 물을 떠서 씻어내는 동작이라 “漱”라고 하고, 때를 벗기는 것은 발로 밟아야 하므로 “浣”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漱”가 손을 사용하고, “浣”이 발을 쓰는 것이라는 점을 전재로 한 것이다. 여기에 필자의 생각을 더하자면 원래 입을 헹궈낸다는 의미를 가졌던 “漱”이 “涑”을 대신하게 되면서 “입을 헹구는 동작”이 손을 주로 사용된다는 점이 “涑”의 원래 의미에 더해지면서 “손을 사용한 세척”이라는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까 한다. 결론적으로 “漱”는 “涑”을 대신하게 되었으므로 비록 가차에 의한 대체이지만 옛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자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3.1.2 今爲某字

> 莫,正芒昨反.入.弗也.元也.莫莫爲也.散也.莫府也.大也.家布也.也古作漠.借亡故反.去.菜也.說z景宜也.冥也.今爲暮字.『新撰字鏡 卷7 艸部』

위의 주석에 따르면 莫은 暮의 고자이며, 暮는 莫의 금자가 된다. 『설문해자』의 풀이에 따르면 “막은 해가 막 어두워짐을 뜻한다. 해가 풀숲 사이에 있는 모습을 따랐다(莫,日且冥也。從日在茻中)”고 되어 있다. 갑골문의 자형을 보아도 莫은 해가 지는 모습을 본 뜬 글자이며, “저녁”을 뜻하던 글자였다. 그러나 이 “莫”자가 『韻會』의 풀이처럼 “無也”, “勿也”, “不可也” 등의 의미로 가차되면서 본의인 “저녁”의 의미는 잊혀 지게 되었다. 후에 본의를 표시하기 위해 “莫”을 소리부로 하는 “暮”가 분화되는데,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고금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今作某/上字今作

3.2.1 今作某

愶,今作脅.虛業反.怯也.於比也須.『新撰字鏡 卷10 忄부』

『新撰字鏡』의 주석에 의하면 愶은 脅의 고자이며, 脅은 愶의 금자이고, 뜻은 “겁을 먹다”이다. 이 두 글자가 고금자의 관계에 있다면 문자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형상 기본자소가 될 수 있는 脅가 고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新撰字鏡』의 경우는 반대가 되었다. 따라서 우선 脅의 자의부터 파악하여 두 글자간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韻會』의 풀이에 따르면 脅은 “양쪽 어깨(兩膀也)”를 말한다. 『옥편』에서도 “몸의 오른쪽 왼쪽 양쪽 어깨(身左右兩膀)”라고 하였고, 『廣韻』에서는 흉협(胸脅), 『增韻』에서는 겨드랑이라고 하였다. 즉 脅은 겨드랑이 아래부터 늑골이 끝나는 부위를 지칭하는 글자였다.[21]그러다가 『正韻』의 풀이처럼 “협박하다.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겁주다(迫脅, 以威力恐人也)”라는 의미가 생겼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핍박하다라는 의미에서 『廣雅・釋詁二』처럼 “懼也”라는 의미가 파생되어,『회남자・본경』의 “是故明於性者, 天地不能脅也.”처럼 “두려워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리해 脅는 본의인 신체부위의 명칭과 함께 “위협하다”, “두려워 하다”의 의미가 있다.

愶자는 『옥편』을 보면 “愶은 許와 劫의 반절이다. 위력으로 서로 겁을주고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愶, 許劫切。以威力相恐愶)”라고 풀이 되어있다. 따라서 “위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廣雅・釋詁四』처럼 “怯”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 두 의미는 모두 脅에서도 가지고 있던 의미소로써, 감정에 관련된 부분, 즉 “위협하다”와 “두려움”의 의미를 독립시켜 心이라는 의미부를 가지고 脅이라는 소리부를 가진 형성자 “愶”로 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脅이라는 글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신체부위 명칭”의 의미가 “愶”자에는 없고, 脅에만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고금자와 비슷한 경우이지만, “위협하다”와 “두려움” 등이 脅자의 본의가 아니가 분화되 나온 글자도 본의를 뜻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고금자라고 볼 수 없게 한다. 게다가 脅자 역시 여전히 “위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자가 고자를 대체하는 고금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新撰字鏡』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愶자가 脅의 고자이며, 脅이 愶의 금자로 “겁먹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주장은 문자의 발전 규칙에 비추어 볼 때 脅에서 愶이 분화되어 나왔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

21) 陳廷敬・張玉書 지음・王宏源 교감,『康熙字典』(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3.2.2. 上字今作

噏, 義及反.斂也.引也. 吸,上字今作.『新撰字鏡 卷2 口부』

위의 『新撰字鏡』 주석에 의하면 噏은 “수렴하다”,“끌어 당기다” 등을 뜻하는 글자이고, 이 글자의 금자가 吸자라고 한다. 그러나 噏자는 『설문해자』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금자로 지목된 吸자가 수록되어 있다. 이 둘의 관계가 고금자라면, 고자와 금자의 지위가 고정된 것은 아니니 창주가 집필할 당시 혹은 그의 저본이었던 문헌에서 噏자가 잘 사용되지 않고 더 오래된 글자인 吸가 널리 사용되었다면 충분히 금자로 인식될 수도 있다. 관건은 이 두 글자 사이에 의미적 공통점이 존재하여 충분히 噏자의 자의를 吸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인데, 『설문』의 吸자 풀이를 보면 “안으로 숨을 들이쉬다(內息也)”, 즉 단옥재 주의 설명에 따르면 “호흡을 안으로 거두는(納其息也)” 것이니 噏의 “수렴(斂)”의 의미와도 연관이 된다. 또한 『廣韻』에서도 이 글자를 吸과 같은 글자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 吸을 噏의 금자로 본 『新撰字鏡』의 주석은 신뢰할 수 있다.

4.今字와 古字를 같이 제시하여 상관 관계를 밝힌 예

4장에서는 고자와 금자를 동시에 제시하여 글자 들 간의 고금자 관계, 혹은 기타 자형 관계를 “古作某,今作某”.“上古作,下今作”,“古文作某,今作某” 등의 형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체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古作某,今作某

冤,古作寃,今作寃.於元反.上.亦作絻.屈也.枉也.『新撰字鏡 卷4 冖부』

위의 주석 내용을 보면 冤자는 고자로는 寃, 금자로는 寃로 쓰이고, 또 絻로도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冤과 寃, 寃, 絻 세 글자와의 자형 관계를 밝히려면 일단 표제자인 冤의 정확한 음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자는 冕과 冤 두 글자의 모두로 해석된다. 중국의

이체자 발전 과정에서 비슷한 형태의 자소를 가진 글자들이 서로 혼용되어 자형의 혼란이 가중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형자가 많이 출현한다. 冕글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특히 『신찬자경』은 일본의 학승들이 문헌을 필사해 귀국하면서 널리 퍼진 중국 속자의 자형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 더욱 그러하다. 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冕의 주석 내용을 보면 冤으로서의 이체자형인 寃, 冕으로서의 이체자인 絻, 두 경우 모두의 이체자인 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글자를 소개한 순서와 구분으로 보았을 때 寃과 寃을 한 조로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冕[冤]의 고자를 寃라 하고, 寃자를 금자라 한 것으로 보고 이 세 글자 간의 자형 관계를 분석해보겠다.

우선 冤의 의미를 보면 『설문』에서 "冤은 "구부리다"라는 뜻이다. 토끼와 冂을 의미부로 하는데, 토끼가 冂 아래를 지나갈 때 살 수가 없어서 몸을 구부리고 접는다(冤,屈也。從兎從冂。兎在冂下，不得走，益屈折也)"라고 하였다. 『설문』의 풀이에 따르면 冤의 본래 의미는 "구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또 예부터 宛자를 빌어 冤를 대신하기도 했는데, 宛 역시 풀을 구부려 스스로 덮다(宛, 屈草自覆也)라는 의미가 있어 "구부리다"라는 의미가 서로 상통한다. 게다가 『신찬자경』에서도 冤의 고자로 지목하고 있는 寃자가 바로 宛의 혹체(寃宛或從心)이므로 冤과 寃은 가차를 통한 선후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冤이 먼저 "구부리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었고, 그 후에 "宛[寃]"이 가차자로 쓰였다면 선후 관계 상 오히려 "宛[寃]"이 금자가 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冕을 "구부리다"라는 본의의 각도에서가 아니라 『廣韻』의 풀이대로 "枉曲"나 지금 冤의 대표적인 파생 자의인 "원통하다"에서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寃은 『廣韻』에서는 "억울하다(寃枉也)"라고 풀이하고,『集韻』에서는 이 글자를 "원수이다. 성내다. 본래 怨자 였고, 혹체로 寃로 썼다(讎也，恚也。本作怨。或作寃)"라고 한 점에서 보아 이미 이 글자 역시 "구부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宛"과의 의미적 연원관계 보다는 오히려 파생의미와 실제적인 쓰임을 더 여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창주가 『신찬자경』을 찬술 할 당시 , "원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장 보편적으로 뜻하는 것은 아마도 冤자이고, 寃자 보다는 그것의 이체자인 怨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寃자를 고자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 寃자 , 즉 寃자는 寃의 속자로서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던 글자였으므로, 寃을 대체하는 금자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2 上古作,下今作

无無,同字.平.非有也.上古作,下今作.間也.言也.毋字.『新撰字鏡 卷12 잡자부』

위의 주석에 따르면 无와 無자는 같은 글자인데, 위의 글자, 즉 无는 고자, 無자를 금자라고 하였다. 『설문해자』의 풀이에 보면 “無는 亡이다. 亡을 따르고 無를 소리부로 한다. 无는 奇字 无이다. 元을 투과하는 글자이다. 왕육이 말하기를 하늘이 서북으로 기우는 것을 無라고 한다(傾西北無,亡也。從亡無聲。无, 奇字无。通於元者。王育說, 天屈西北爲無)”라고 하였다. 즉 无는 奇字, 즉 고문 기자를 말한다. 그리고 無는 갑골문에서부터 문자의 변화 발전 단계를 모두 거쳐 해서화까지 이르러 정착된 정통 자형이다. 굳이 두 글자의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無이 더 오래된 글자이겠지만, 상용되는 글자인 無에 비해 기자인 无가 더 고자로 인식되기 쉬웠을 것이다. 따라서 창주는 無를 금자로 无를 고자로 규명지었다. 이 역시 "조자 과정에서 계승 관계"가 드러난 고금자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옛 사람의 인식 속의 고금자 관계임에는 틀림없다곡 생각된다.

5. 결론

이상에서 『신찬자경』에서 고금자를 설명하는 여러 체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체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문자학 적으로 "조자 과정에서 계승 관계"가 확실히 나타나는 고금자인지, 표제자 혹은 기타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인지, 아니면 단순 이체관계의 글자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조자 과정에서 계승 관계"가 확실히 드러나는 고금자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고금자, 즉 현재 널리 통용되는 글자로 고자의 대신하는 고금자로서는 상당히 정확한 내용이 많았다고 평가된다. 고자를 제시하여 그것이 표제자의 고자임을 밝히는 예나, 금자를 제시하여 그것이 표제자의 금자임을 나타낼 때나, 두 가지가 동시에 제시될 때에나, 금자로 지목된 것은 최소한 같은 의미를 가진 글자이거나, 가차 관계에 의해 대체된 것이거나, 후에 분화되어 나온 글자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조자 과정에서 계승 관계"가 확실한 고금자이거나, 모두 연관성이 있는 글자들이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글자

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굳이 古, 今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자 과정에서 계승 관계"를 의미하는 "古今字"와 혼동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당시 창주가 찬술하는 과정에서 알려주고자 했던 "모 글자의 지금 현재 사용되는 자형"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본다.

<字類註釋> 異字同釋“하늘”의 변별적 의미분석

곽현숙[1]

목차

1. 들어가기
2. “異字同釋” 정의
3. “하늘”異字同釋의 변별적 의미
4. 나오기

1. 들어가기

<字類註釋>은 1856년 睡庵 鄭允容이 편찬한 한자 사전으로 10,968자의 한자를 5부 35류의 의미 영역별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는 분류어휘집이다.[2] <字類註釋>은 여타 분류어휘집들보다 수록 한자 수가 많고 표제자에 대한 한글 풀이, 자음, 한문 주석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사전 유형으로 의미 영역별로 한자를 수록한 분류 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그리고 낱개의 한자가 표제항으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의미, 발음, 형태 정보를 제공하는 풀이항이 제시되어 있는 뜻풀이 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

[1] 한국한자연구소 전임연구원

[2] <字類註釋> 분류 항목-5 부 35 류

- 天道部(499): 天文類, 天時類, 造化類
- 地道部(1,298): 土石類, 水火類, 山川類, 地形類, 方域類, 郡國類, 四夷類, 田里類
- 人道部上(4,396): 倫常類, 身體類, 性情類, 惡類類, 學業類, 言語類, 事爲類, 農業類, 飮食類, 衣冠類, 居處類, 魚鼈類, 蟲豸類
- 人道部下(2,514): 器用類, 寶貨類, 疾病類, 喪祭類, 政敎類, 法禁類, 兵陣類, 音樂類
- 物類部(2,261): 名數類, 草木類, 禽獸類, 魚鼈類, 蟲豸類

[3] 백과 사전 정의를 따르면 분류 사전이란 단어의 뭉치를 주제별로 분류한 뒤, 최하위 주제 아래 모인 단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 <자류주석>은 한자들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의미 항목 별로 한자들을 분류하여 수록한 점에서 분류 사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것이다.[4]

<字類註釋>과 같이 한자를 의미 영역별로 분류하여 각 한자에 대한 한글 풀이를 달고 있는 분류형 사전은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한자를 의미 영역별로 분류하여 수록하다 보니 하나의 한자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거나 여러 한자에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여 오히려 한자의 의미 혼동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字類註釋>에 나오는 ‘甎’자는 ‘居處類’에서 ‘벽돌’의 의미를 가지고 ‘器容類’에서 ‘술그릗’의 의미로 나타나고 ‘道/路/途/垹/墿’의 한자는 田里類에서 ‘길’의 의미로 동일하게 나타낸다. 하지만 <字類註釋>에는 각 표제자에 대한 상세한 의미 풀이가 있는 풀이항이 있다. 특히 풀이항에 있는 한문 주석은 각 표제자에 대한 뜻을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한글 풀이로는 파악되지 않는 의미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한자들은 이 한문 주석을 통해 개별 한자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異字同釋 “하ᄂᆞᆯ”에 대한 변별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어휘의 이해와 번역적 측면뿐만 아니라 더욱 정밀하고 진전된 한자사전과 국어사전을 편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2. “異字同釋”의 정의

‘異字同釋’ 현상이란 자형이 다른 여러 한자가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현상을 말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異字’라는 것은 ‘자형이 다른 한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同釋’이라는 것은 ‘한글 풀이’를 말한다. 즉 ‘異字同釋’이란 자형이 다른 여러 한자가 서로 동일한 한글 풀이를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視, 見, 覽, 觀, 覿, 覩, 睍, 覘, 看, 矚, 眺, 眺, 睇, 瞻, 瞰, 睩, 曾, 曾, 睆, 眈, 睒, 瞵, 矚, 瞜”등 23개의 표제자는 모두 동일한 한글 풀이 ‘볼’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視, 見, 覽, 觀, 覿, 覩, 睍, 覘, 看, 矚, 眺, 眺, 睇, 瞻, 瞰, 睩, 曾, 曾, 睆, 眈, 睒, 瞵, 矚, 瞜”등의 한자는 ‘異字’가 되는 것이고, 한글 풀이 ‘볼’은 ‘同釋’이 되는 것이다. <字類註釋>의 한글 풀이가 <訓蒙字會>, <類合>등 이전 자료들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4] <字類註釋> 정보 유형

표제항	풀이항			비고
표제자	한글 풀이	자음	한문 주석	출처
墿	그를	딜	陰翳。又딜, 貯也, 止也。	天時類 01101

설명되어 있지만 많은 異字同釋 현상이 나타나는 양상은 <字類註釋>의 한글 풀이에 보이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異字同釋은 5부 35류의 의미 영역별에 모두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字類註釋>에 총 10,968자의 표제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2,081개 의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표제자는 7,409자로 전체 표제자의 절반이 넘는 수량이다. 이러한 異字同釋 현상은 적게는 2글자 3글자, 많게는 50글자까지도 나타난다. 이렇게 많은 수량의 異字同釋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첫째, 한자 본래 의미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이다. 옛날에는 한자 수가 많지 않아서 한 글자에 여러 가지 뜻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자 자형을 알아보기 쉽게 또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수를 더하거나 그 뜻에 맞게 자형을 바꾸어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글자들은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가 있고, 동일한 자형이지만 시대에 따라 그 의미 또한 다르게 사용되거나 변화되었다. 즉 어떤 시대에서 보느냐에 따라 고금의 관계, 이체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통가의 관계, 정속의 관계 등 동일한 한자이지만 그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둘째, <字類註釋>은 많은 수량의 한자를 의미 영역별로 나누어 수록한 분류 사전으로 단어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분류 할 때 중복이 되거나 교차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한자가 하나의 의미 항목에 분류될 때도 있고, 다른 여러 의미 항목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肮'자는 '목구멍'과 '목'의 의미로 하나의 의미 항목인 '身體類'에 각 각 분류되어 나타나고, '黯'자는 '어득'의 의미로 '天時類'~~草木類~~에, '검을'의 의미로 '倫常類'에 다른 의미 항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윤용이 당시 <자류주석>을 편찬할 때 표제자와 그 의미를 분류하고 수록함에 있어서 복잡한 異字同釋 현상이 많이 나타났을 것이다.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한글) 한국어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3. 異字同釋"하늘"의 변별적 의미

<字類註釋>에 수록된 표제자는 모두 한글 풀이와 한문 주석이 있다. 이 한문 주석에는 표제자에 대한 상세한 뜻풀이가 되어 있는데 異字同釋은 다수의 한자가 동일한 한글 풀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풀이로는 상호간의 의미적 차이를 살펴 볼 수 없다. 그래서 異字同釋의 경우 한문 주석을 통해 매 한자에 대한 구체적 의미와 변별적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異字同釋 '하늘'을 대상으로 한문 주석을 분석하여 異字同釋 상호간에 나타나는 변별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字類註釋> “하늘”의 의미[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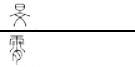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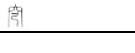
00001 **天** 하늘 텬 至高無上。
00002 **乾** 하늘 건 巛古。天也, 卦名。ᄆᆞᆯ을 간, 仝澣, 燥也。
00003 **昊** 하늘 호 夏爲昊天, 元氣廣大。
00004 **旻** 하늘 민 秋爲旻天, 仁覆憫下。
00005 **霄** 하늘 쇼 天氣, 雲霄。
00006 **穹** 하늘 궁 天也。又高也, 大也, 窮也。

‘天, 乾, 昊, 旻, 霄, 穹’의 표제자는 모두 [하늘]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6 자 모두 한글 풀이에 제시된 의미는 [하늘]로 동일하지만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표제자들의 변별적 의미를 알 수 있다. 한문 주석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00001 **天** [하늘] [至高無上]
00002 **乾** [하늘] [卦名] [燥也]
00003 **昊** [하늘] [夏爲昊天] [元氣廣大]
00004 **旻** [하늘] [秋爲旻天] [仁覆憫下]
00005 **霄** [하늘] [天氣] [雲霄]
00006 **穹** [하늘] [高也] [大也] [窮也]

2) <字類註釋> “하늘”의 변별적 의미

한문 주석에 나타나는 의미를 이용하여 [하늘] 의미를 가지는 ‘天, 乾, 昊, 旻, 霄, 穹’의 성분 분석은 다음과 같다.

한자 자형		의미 자질				
해서	고문자	[하늘]	[관념]	[시간/계절]	[하늘의 형상]	*‘昊’와 ‘旻’은 [+시간/계절]의 의미자질을 동일하게 가지지만 ‘昊’은[여름하늘], ‘旻’은[가을하늘]로 표시될 수 있다.
天		+	+	−	−	
乾		+	+	−	+	
昊		+	+	+	−	
旻		+	+	+	−	
霄		+	−	+	+	
穹		+	−	−	+	

[5]하늘[天道部, 天文類:1a]

위의 성분 분석을 통하여 '天, 乾, 昊, 旻, 霄, 穹'은 모두 한글 풀이 [하늘]의 동일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으나, [관념] [시간/계절] [하늘의 형상]의 의미 자질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 구별됨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각 한자마다 한글 풀이로 제시된 공통적 의미 자질 이외 변별적 의미 자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00001 天 : '天'의 자형은 ' '으로 사람의 머리를 크게 그려 머리 끝에 맞닿는 것이 '하늘'임을 나타냈다. <说文·一部>에서 "顚也。至高在上。"이라 하여 '天'의 뜻을 '사람의 정수리'를 빌어 그 위로 무한대로 확장되는 공간의 이미지에서 풀이하였는데, '더이상 오를 것이 없는 지극히 높은 곳'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字類註釋> '天'의 한문 주석에 나타나는 '至高無上'는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는 지극히 높은 곳을 의미하며 나아가 최고의 궁극적 절대자(神)의 의미를 나타낸다.
2) 00002 乾 : '乾'의 자형은 ' '으로 소전체에서 '乙'과 '倝'으로 구성되었는데, '乙'은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倝'은 태양이 숲 사이에서 솟아오를 때 온 사방으로 빛이 뻗는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6] <說文>의 해설을 참조하면 '倝'은 초목이 햇빛을 받으며 자라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乾坤(하늘과 땅)에서처럼 햇빛을 내려주는 곳이 '하늘'을 뜻하게 되었다. 段玉裁는 "乾의 본래의 뜻은 '위로 나오다'라는 뜻이다. 땅 위에 나와 있으면 건조(乾)하게 되고 땅 아래에 있으면 축축(濕)하게 되므로 '乾'과 '濕'은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注를 하였다. 그리고 '乾'은 건괘(乾卦)라 하여 八卦 중 첫번째 괘로서 하늘을 상징하여 건천(乾天)이라 통하는데 우주만물 중에서 하늘이 맨 처음 생겼다는 관념에서 주역 팔괘의 첫 괘가 되었다. <說卦傳>에 의하면 서북의 괘여서 천지 자연의 위대함이 경쟁하고 다툰다고 하였고 <說卦傳>에는 각 괘가 상징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하늘이요, 둥근 것이요, 임금이고, 아버지라 하였다. 이처럼 <字類註釋> '乾'에서도 '하늘'이라는 기본 의미와 하늘이 지니는 철학적 관념에서 시작되는 '건괘의 명칭'과, '燥也'라 하여 '건조하다'는 변별적 의미 자질을 한문 주석에 注해 놓았다.
3) 00003 昊 : '昊'의 자형을 살펴보면 ' '으로 태양이 사람의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모습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태양이 존재하는 곳이며 사람의 머리 위에서 태양을 내려주는 곳이 '하늘'을 뜻하게 되었다. <爾雅·釋天>에서 "夏爲昊天。"하여 '여름 하늘'을 의미하는데, '昊'는 '元氣廣大'라 하여 '원기가 넓고 큰 모양'을 말한다. 이는 사계절 중 여름은 만물이 모두 성장하고, 태양의 기운이 가장

[6] 하영삼, <한자야 미안해>, 랜덤하우스, 2007, 34p.

많은 시기인데, 그 특징을 바탕으로 '여름 하늘'[7]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라 본다.

4) 00004 旻 : '旻'의 자형은 ' 旻 '으로 '文'은 '사람'의 형상으로 위의 '00003 昊'의 자형과 같이 '旻'은 사람의 머리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이다. 단, '文'은 갑골문에서 살펴보면 사람의 가슴에 어떤 무늬를 새겨놓은 형상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피흘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즉, '文'은 일반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의 형상이다. 옛날 제사를 지낼 때 신(하늘)에게 제물로 죽은 사람을 받치고 제사를 지낸 것처럼 죽은 사람을 하늘 아래에 앉혀 제사를 받게 했고 죽으면 하늘 세계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旻'이 '하늘'을 뜻하게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旻'은 '愍, 悯'과 유사한 글자로 <字類註釋> 한문 주석에 '仁覆憫下'라 하여 '(하늘의)인으로 덮어 아래의 백성들을 연민으로 돌보다'는 뜻이 나온다. 이것은 가을 계절의 특징에서 만물이 모두 성숙되는 절정의 시기인 반면 점차 시들어지고 떨어지는 소멸의 시기로서 '가을 의미'를 나타낸 것이라 본다. 또 <說文·日>에서 "秋天也。"하여 '가을 하늘'을 의미하고, <爾雅·釋天>, <尙書>에서도 '秋爲旻天。'라 하여 모두 '가을 하늘'을 나타낸다.

5) 00005 霄 : '霄'의 자형은 ' 霄 '으로 고기를 잘게 써는것처럼 비가 진눈깨비처럼 내리는 모양으로 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 비를 내려주는 곳이 '하늘'이라는 의미에서 '하늘'을 뜻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說文·雨部>에서는 "雨霓爲霄。", <爾雅·釋天>에서 "雨霓爲霄雪。"하여 '霄'는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는 날씨를 지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字類註釋> '霄'의 한문 주석에 나타나는 '雲霄(구름낀 하늘)' 처럼 하늘의 구체적 형상도 잘 나타내었다.

6) 00006 穹 : '穹'의 자형은 ' 穹 '으로 '穴'과 '弓'으로 이루어졌는데, '穴'은 구멍을 파서 만든 '공간'을 뜻하며 '弓'은 '활'의 의미로 활을 쏘아 화살이 날아 갈 수 있는 만큼 광활한 공간, 즉 '하늘'을 뜻한다.[8] <說文·穴部>에서 "窮也。"하여 '穹'은 '窮, 極'의 의미로 <字類註釋> '穹'의 한문 주석에 나타나는 '끝없이 높고 큰' 하늘의 구체적 형상을 잘 나타내었다.

한글 풀이 [하늘]의 의미를 가지는 '天, 乾, 昊, 旻, 霄, 穹'의 6 자에 대한 각 각의 의미 자질과 성분 분석법에 따르면 [하늘][관념][시간/계절][하늘의 형상]으로 네 가지 의미 자질을 가진다. '00001 天'은 [관념]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00002 乾'은 [관념]과 [하늘의 형상], '00003 昊'과 '00004 旻'은 [관념]과 [시간/계절], 그리고 '00005 霄'는

---

[7] <爾雅>에서는 '春为苍天, 夏为昊天, 秋为旻天, 冬为上天。'하여 '昊'를 '여름 하늘'로 보았는데, <说文·夲部>에서는 '昦,春为昊天, 元气昊昊'하여 '昊'를 '봄 하늘'로 보았다.

[8] 하영삼, <한자야 미안해>, 랜덤하우스, 2007, 278p.

[시간/계절] [하늘의 형상], ‘00006 穹’은 [하늘의 형상]의 의미 자질을 각 각 가진다.

‘00003 昊’과 ‘00004 旻’의 의미 자질[+][−]의 위치가 같은 것은 그 의미적 공통성이 강한 것들이다. 하지만 <字類註釋>의 한문 주석에서는 ‘00003 昊’은 ‘여름 하늘’, ‘00004 旻’는 ‘가을 하늘’로 [+시간/계절]에 따른 변별적 의미 자질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00005 霄’와 ‘00006 穹’은 [+시간/계절]에 따른 변별적 의미 자질을 분명하게 가지지만 [+하늘의 형상]에 따른 의미 자질에서도 <字類註釋>의 한문 주석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는 <강희자전>에 관련된 한자들의 내용을 통해 이들의 변별적 의미는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후 <字典释要>와 <新字典>에서도 ‘여름 하늘(昊)’, ‘가을 하늘(旻)’, ‘하날 긔운(霄)’등의 개별화된 자석으로 계승되어 나타난다.

4. 나오기

이상 살펴본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異字同釋“하ᄂᆞᆯ”의 변별적 의미 분석을 통해 한글 풀이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 한자마다 상세하게 뜻풀이 되어 있는 한문 주석에 개별 한자의 구체적이고 변별적인 의미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字類註釋>의 한문 주석에 나오는 의미가 후대 <字典釋要>, <新字典>에서 그대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한글 풀이와 한문 주석의 비교 분석은 각 한자에 대한 명확한 의미 규명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字類註釋>은 한자 분류 사전의 하나로 10,968 자의 한자를 5 부 35 류의 의미 영역별로 분류 수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한자 분류 사전은 한자의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한자 학습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동일한 한글 풀이에 여러 한자가 대응되는 현상은 매 한자의 개별적 의미를 동일하게 나타냄으로 한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모든 사전에서 異字同釋이 전혀 없고 각 한자의 세밀한 의미까지 모두 나타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자 사전이라면 異字同釋 현상을 최소화하고 각 한자가 가지는 개별 의미를 나타내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자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字類註釋>은 여타 다른 자료들보다 많은 수량의 표제자를 의미 영역 별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는데, 異字同釋에 해당하는 한자 수는 7,409 자로 전체 한자 수의 절반이 넘는다. 이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字類註釋>이 하나의 한자 사전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字類註釋>은 서지, 음운, 자형, 어휘 등 많은 가치가 있는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의 연구는 다른 문헌들에 비해 적다. 특히 한자를 의미 영역별로 배열해 놓아 의미 연구에 있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헌이다. <字類註釋> 개별

자료들의 면밀한 분석은 보다 체계적인 의미 연구와 문헌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주제어: 字類註釋, 異字同釋, 하늘, 한글 풀이, 한문 주석,

*참고문헌

- 정윤용 : 《字類註釋》,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사, 1985 년.
- 박영순 : 《한국어의미론》,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사, 2004 년.
- 고문자고림 편집위원회 : 《古文字詁林》, 상해 : 상해교육출판사, 2004 년.
- 하영삼 : 《한자야 미안해》, 서울 : 랜덤하우스, 2007 년.
- 漢語大詞典編纂處 : 《康熙字典》 상해 : 상해사서출판사, 2008 년.
- 서수백 : 《<字類註釋>의 사전적 체재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년.
- 郭鉉淑 : 《<字類註釋>"異字同訓"現象量化調查與研究》, 《歲月》, 2011년.
- 郭鉉淑 : 《<字類註釋>簡述》, 《韓國漢字研究所》 第六集, 2012년.
- 郭鉉淑 : 《韓國朝鮮時代<《字類注釋註釋》之異字同釋字整理與研究》, 上海华东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2013년.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글꼴: (영어) 한컴바탕, (한글) 한컴바탕, 11 pt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줄 간격: 1.5줄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줄 간격: 1.5줄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서식 있음

《才物譜》引書考釋

肖 瀟[□]

摘要：《才物譜》是韓國朝鮮時期的一部詞彙總集，該書對中韓语言文字研究有重要價值。《才物譜》引書非常豐富，涉及中國和韓國古代文獻中經史子集的各个门类，由於作者在前言中缺少相關說明,这給我們閱讀理解及相關的研究造成了不便，而後繼學者也缺少這方面研究，因而我們急需瞭解《才物譜》引書的全貌。本文通過數據庫技術，在窮盡《才物譜》引書的基礎上進行考釋，以期呈現《才物譜》引書的全貌，探究其引書特點。

關鍵詞：《才物譜》 引書 韓國 文獻

《才物譜》是朝鮮王朝後期學者李晚永所作的一部詞彙總集，該書對中韓语言文字研究有重要價值。《才物譜》引書種類多、數量大，內容涉及中國和韓國古代文獻中經史子集的各个门类，但作者缺少相關說明，僅隨文引用，且多為簡省形式，这給我們閱讀理解及相關的研究造成了不便，而後繼學者也缺少這方面研究。面对這樣一部大型辭書，在对其進行整體研究之前，梳理其编排体例，瞭解引書狀況成为我們的首要任務。本文以奎章閣 8 冊裝筆寫本為研基礎，兼顧其它版本進行研究，通過數據庫技術，在窮盡《才物譜》引書的基礎上進行考釋，以期呈現《才物譜》引書的全貌，探究其特點，并為後續研究提供支持。

一．引書考證

在對《才物譜》引書進行考證之前，需要確定考釋標準。

1、本文研究範圍主要涉及《才物譜》徵引的書名或文章篇名，凡无引文或釋義的，不予收錄。

2、引書研究实际上包含書目研究和引文研究两个方面的内容，由於篇章所限，本文只涉及書目研究，某某云、某某詩之類的引文均不在研究範圍內。

3、同書異名者視為同一引書。

4、同一部書的所屬篇章歸為同一引書。

《才物譜》引書涉及韓國文獻和中國文獻，本文涉及已考釋出的文獻及尚待確定的文獻。尚待確定的文獻包括【毛注】1 處、【目注】1 處 、【小】75 處、【俗】41 處、【東】3 處、【唐史】4 處。已考釋出的文獻按韓、中分類，中國文獻再按經史子集分類：

韓國文獻：

1、【譯】：《譯語類解》，朝・김경준 等，269 處。

[□]中國北華大學講師，韩国庆星大学在读博士。

2、【大典通編】：《大典通編》，朝・金致仁，1 處。

3、【經】：《經國大典注解》，朝・안 위와、민전이，1 處。

4、【東醫】【醫鑑】【東醫寶鑑】：《東醫寶鑒》，朝・许浚，10 處。

5、【鷹方】：《鷹方》，朝・李爝，1 處。

6、【麗】【麗史】：《高麗史》，朝・鄭麟趾等，4 處。

7、【東史】：《東史綱目》，朝・安鼎福，2 處。

8、【類】：《類苑叢寶》，朝・金堉，23 處。

9、【農】：《農家集成》，朝・申泳，1 處

中國文獻：

（一）經部

1、易類

【易】：《周易》；【易係】：《周易•繫辭》，33 處。

【易注】【註】：《周易經傳集解》，宋•林栗，4 處。

2、書類

【書】【尚書】：《尚書》，24 處。

【書傳】：《東坡書傳》，宋・蘇軾，1 處。

【尚】：《尚書大传》，漢・伏胜，1 處。

3、詩類

【詩】：《詩經》，15 處。

【詩傳】：《詩集傳》，宋・朱熹，3 處。

【毛】：《毛詩詁訓傳》，漢・毛亨，224 處。

【詩注】：《毛詩注》，三國魏・王肅，1 處。

【李注】：《毛詩李黃集解》，宋・李樗、黃櫄，1 處。

4、礼類

【周】【周禮】：《周禮》；【考工記】：【周禮・考工記】，68 處。

【注】【周注】：《周禮注疏》，魏・王弼，晉・韓康伯注，唐・陸德明音义、孔穎達疏，5 處。

【礼】【禮】【记】：《禮記》；【雜記】《禮記・雜記》；【樂記】《禮記・樂記》；【曲禮】《禮記・曲禮》，136 處。

【礼疏】：《禮記注疏》，唐・孔穎達，1 處。

【戴】：《大戴禮記》，漢・戴德，6 處。

【仪】【儀】：《儀禮》，4 處。

5、春秋類

【左】【左傳】：《春秋左傳》，春秋・左丘明，82 處。

【杜注】：《春秋左傳注》，晉・杜預，1 處。

【公】【羊】【公佯傳】【公羊傳】：《春秋公羊傳》，戰國・公羊高，7 處。

【穀梁傳】：《春秋穀梁傳》，戰國・穀梁赤，1 處。

6、四書類

【語】【論語】：《論語》，19 處。

【語注】：《論語注疏》，魏・何晏注，宋・邢昺疏，1 處。

【孟】：《孟子》，戰國・孟子，26 處。

【中】：《中庸》，戰國・子思，2 處。

7、小学類

【爾】【爾雅】：《爾雅》，49 處。

【爾注】【爾雅疏】：《爾雅注疏》，晋・郭璞注，宋・邢昺疏，2 處。

【博】：《广雅》，三国魏・张揖，1 處。

【急就篇】：《急救篇》，漢・史遊，1 處。

【說】【說文】：《說文解字》，東漢・許慎，15 處。

【字】【字彙】：《字彙》，明・梅膺祚，60 處。

【埤】【埤雅】：《埤雅》，宋・陆佃，2 處。

【韻會】：《古今韻會舉要》，元・熊忠，1 處。

【六】【六书故】：《六書故》，元・戴侗，2 處。

【廣】：《廣韻》，宋・陈彭年、丘雍等，

【方】【斉方言】：《方言》，西漢・揚雄，2 處。

（二）史部

1、正史類

【史】【史記】：《史記》西漢・司馬遷；【龜策傳】：《史記・龟策列傳》；【封禪書】：《史記・封禪書》；【漢武紀】：《史記・漢武紀》，73 處。

【漢】：《漢書》東漢・班固；【漢・地理志】：《漢書・地理志》；【前漢・禮樂志】：《漢書・禮樂志》；【食貨志】：《漢書・食貨志》；【張良傳】:《漢書・張良傳》；【韓信傳】：【漢書・韓信傳】，45 處。

【祭禮志】：《後漢書・祭禮志》，宋・范晔，1 處。

【晉・東夷傳】：《晉書・東夷傳》，唐・房玄齡等，1 處。

【魏】：《魏書》，北齊・魏收，2 處。

【齊史】：《南齊書》，南朝梁・蕭子显，2 處。

【梁史】：《梁書》，唐・姚思廉，1 處。

【魯史】：《魯史》，春秋・孔子，1 處。

【李白傳】：《旧唐書・李白傳》，后晋・刘昫、张昭远等，1 處。

【國史補】：《唐國史補》，唐・李肇，1 處。

【宋】：《宋史》，元・脱脱和阿鲁图等，2 處。

【元】：《元史》，明・宋濂等，3 處。

【北史】：《北史》，北朝・李延寿，1 處。

2、别史類

【通志】：《通志》，宋・郑樵，1 處。

【藏】：《名山藏》，明・何乔远，1 處。

3、杂史類

【國】【國語】：《國語》，吴・韦昭注；【晉語】：《国语・晋语》；【吳語】：《國語・吳語》，5 處。

4、野史類

【晉】：《晉起居注》，劉宋・劉道薈，1 處。

5、政書類

【通典】：《通典》，唐・杜佑，1 處。

6、地理類

【水】：《水經注》，後魏・郦道元，1 處。

【西】【西湖志】：《西湖遊覽志余》，明・田汝成，13 處。

【統志】【一統志】：《明一統志》，明・李賢、彭时，2 處。

【三】：《三辅黄图》，漢・趙又，1 處。

【洞】：《洞霄圖志》，元・鄧牧，1 處。

7、傳記類

【名】：《宋名臣言行錄》，宋・朱熹、李幼武，4 處

8、編年類

【通】：《資治通鑒》，宋・司馬光，1 處。

9、史評類

【目】：《資治通鑒綱目》，宋・朱熹、趙師淵，59 處。

（三）子部

1、儒家類

【荀】：《荀子》，戰國・荀况，3 處。

【家禮】：《朱子家禮》，宋・朱熹，5 處。

【家】：《孔子家語》，魏・王肃注，2 處。

【朱】：《朱子大全》，宋・朱熹，4 處。

【學】：《小學》，宋・朱熹，3 處。

2、兵家類

【兵書】：《孫子兵書》，春秋・孫子，1 處。

3、法家類

【管】：《管子》，春秋・管仲，4 處。

【韓】：《韓非子》，戰國・韩非，2 處。

【韓注】：《韓非子注》，魏・何晏，1 處。

4、农家類

【神農經】：《神農本草經》，東漢・作者非一人，1 處。

5、医家類

【本】【本草】：《本草綱目》，明・李时珍，124 處。

【萬】：《萬病回春》，明・龔廷賢，1 處。

【傷寒】：《傷寒雜病論》，漢・張仲景，1 處。

【景岳全書】：《景岳全書》，明・张介宾，1 處。

6、术数類

【太玄】【玄】【太玄經】：《太玄經》，西漢・揚雄，3 處。

【東方朔占書】：《東方朔占書》，漢・東方朔，1 處。

7、譜錄類

【禽經】：《禽經》，春秋・師曠，1 處。

【鷹賦】：《鷹賦》，隋・魏澹，1 處。

【竹谱】：《竹譜》，晉・戴凯之，1 處。

8、杂家類

【淮】：《淮南鴻烈》，漢・劉安，6 處。

【林】：《鶴林玉露》，南宋・罗大經，1 處。

【虎】：《白虎通義》，東漢・班固，1 處。

【風】：《風俗通》，東漢・应劭，2 處。

【郛】：《說郛》，元末明初・陶宗儀，1 處。

【顏氏家訓】：《顏氏家訓》，南北朝北齊・顏之推，1 處。

【格古論】：《格古要論》，明・曹昭，1 處。

【鈴】：《书肆说铃》，明・叶秉敬，17 處。

9、类书類

【太】【太平】：《太平御覽》，北宋・李昉、李穆、徐铉等，3 處。

【事】：《古今事文類聚》，宋・祝穆，1 處。

【玉】：《韻府群玉》，元・陰時夫，58 處。

【物】：《廣博物志》，晉・张华，4 處。

【才】：《三才圖會》，明・王圻、王思義，8 處。

10、小说家類

【海】【伯益經】【山海經】：《山海經》，4 處。

【酉】【陽】【雜俎】：《酉陽雜俎》，唐・段成式，4 處。

【琅環記】：元・伊世珍，1 處。

【堯】：《尧山堂外紀》，明・蒋一葵，2 處。

【世】：《世說新語》，南朝宋・劉義慶，1 處。

【耕】：《辍耕录》，元末明初・陶宗儀，1 處。

【倦遊錄】：《倦遊錄》，北宋・張師正，1 處。

【禹錫嘉話】：《刘公(禹锡)嘉话录》，唐・韦绚，1 處。

11、道家類

【莊】【莊子】：《莊子》，戰國・莊子，38 處。

【列】：《列子》，春秋・列御寇，3 處。

【老子】：《老子》，春秋・老子，2 處。

【岳瀆記】：《洞天福地岳瀆名山記》，五代・杜廣亭，1 處。

【黃】：《黄庭玉景内经注》，唐・梁丘子，5 處。

12、釋家類

【梵】：《翻梵語》，唐・作者不詳，47 處。

【一】：《一切經音義》，唐・慧琳，1 處。

（四）集部

1、总集類

【楚】【楚辭】：《楚辭》，西漢・劉向，10 處。

【唐】：《唐詩》，17 處。

【屈】：《屈子》，明・毛晋，2 處。

2、别集類

【杜】：《杜工部集》，唐・杜甫，11 處。

【李】：《李太白全集》，唐・李白，11 處。

【放】：《放翁詞》，宋・陸遊，11 處。

【揚】：《揚子雲集》，漢・揚雄，4 處。

【昌】：《韓昌黎文集》，唐・韓愈，19 處。

【坡】：《東坡樂府》，宋・蘇軾 15 處。

【坡注】：《東坡詩集注》，宋・王十朋，1 處。

【歐陽公集】：《歐陽公集》，宋・欧阳修，1 處。

【范】：《范石湖詩集》，宋・范成大，1 處。

【后】：《後山先生集》，宋・陳師道，1 處。

【陶】：《陶淵明集》，东晉末南朝宋初期・陶淵明，1 處。

【山】【谷】：《山谷集》，宋・黃庭堅，7 處。

【李绅集】：《李绅文集》唐・李绅，1 處。

【白】：《白氏长庆集》唐・白居易，1 處。

【归田录】：《歸田錄》宋・歐陽修，1 處。

二．引書特點

《才物譜》引書從形式和內容上都呈現出自身的特點，主要表現如下：

（一）形式上

1、句中句末兩種形式

形式上分為兩種，句末引書和句中引書。句末引書是《才物譜》引書最主要的形式，作者一般有明顯的標誌【】，通常為所引書的縮寫，所釋詞項出自該書，但有時候也沒有明確的標誌，需要我們在理解中辨別。句中引書，作者一般隨文註釋或引用，多為全稱，但沒有明確的標誌。如：

野馬：田野浮氣。아즐앙이。【莊】

通昔：通夜。莊

是月：公佯傳僅逮是月謂晦之時也。

刺松：노가ᄌᆞ 나무。【譯】此疑即扁柏。

野馬和通昔兩個詞條為句末引書，詞項出自《莊子》，第二個詞條原文沒有明確的【】符號標記。是月詞條詞項和釋義均引自《公羊傳》這一文獻，屬於句中引書的形式，遵循了沒有明顯符號標誌的體例，刺松詞條中间釋義的引書卻有明确符号，屬於少數情況。

這兩種形式的差別在引用同一部文獻時尤為明顯。如：

衡：眉上曰衡。【漢書】“盱衡，舉眉也。”

五倉：五藏謂之五倉。【漢】

句末引書因只是詞項引用，釋義為作者自己的觀點，且可能都是當時學者所熟知的文獻，不需要採用全稱，只看縮寫形式即可明瞭，這也符合古籍編寫的慣例。句中引書因詞項釋義均出自引書，為避免理解誤差，作者通常將引書全稱列出來。雖然也有例外，但通篇考察全書來說，作者基本遵循了句末縮寫句中全稱這一條例。

2、 一個詞條兩種引書

《才物譜》一般在同一詞條中只涉及一種引書，但有些詞條卻涉及兩種引書，主要有以下三種情況：

增強釋義力度。一般是比較專業的術語，詞彙意義相對晦澀難懂，普通讀者難以理解，作者為加強釋義力度，有時會採取兩種以上引書形式，如商羊、劫質詞條：

商羊：【禽經】曰鷊飛則霜，鸛飛則雨，商羊則鸛也。【本】

劫質：賊被考訊者偽引他人質其非盜也。【坡】【漢書】云劫人為質而求貨物贖命者。

有不同說解。詞項涉及兩種以上不同的解說，作者會引用不同文獻加以證明。如杶、縛、尚書這三個詞條：

杶：皮細膚實而赤，嫩葉香甘可茹。【尚書】作杶。【左傳】作椿。참죽나무。

縛：音絹。十搏。一羽曰箴，十羽曰縛，百羽曰緷。與【周禮】異。【爾雅】

尚書：周亡，秦遣吏發中秘書，故謂之尚書，尚主也。【通典】以其為上古之書，故曰尚書。【物】

還有一種情況是引用某書的同時引用該書的注解，一并列出。如：

概：【周禮】“祼事用概。”【注】曰“黑黍為尊，以朱絲各腹。”

3、同一引書多個名字

同一種引書，有時候作者會用兩種或兩種以上的引書名字。主要有兩幾種情況：

一是展現不同版本引文。不同的引書名稱代表所引的文獻內容有出入。如：《山海經》

槃：夏有水，冬無水。

天井：仝。【海】

卞明：【伯益經】云“卞明生白犬。”

弄明：【山海經】云“弄明生白犬。”

《山海經》一書在《才物譜》中分別用了【伯益經】、【山海經】、【海】三種稱說形式，其中【海】為句末引書，為【山海經】的簡省，其餘為隨文引用。《山海經》一書的書名，最早見于司馬遷的《史記·大宛傳》，後世逐漸流傳下來。“弄明生白犬。”弄，郭璞注一作卞。過去認為《山海經》為大禹、伯益所作，宋代罗泌的《路史·發揮》中引【伯益經】云“卞明生白犬。” 可見不同的引書名稱代表所引的文獻內容是不一樣的。

二是不同簡稱。如《酉陽雜俎》在《才物譜》中分別用了【酉】【陽】【雜俎】三個簡稱，《禮記》分別用了【礼】【禮】【记】三個簡稱，實際上為同一部書。

4、引書闕如

作者治學嚴謹，在引書不確定處多闕如，而不是妄加揣測。如：

钩落：革帶。疑角帶之未飾銙者。【 】

《三國志・吴志・諸葛恪傳》：“童謡曰：‘諸葛恪，芦苇单衣篾鉤落，於何相求成子閤。’”……鉤落者，校饰革带，世谓之鉤络带。”“钩落”作者解釋為“革帶”，可能是引自《三國志》，但《三國志》是引自童謠，無法考訂其出處，因而作者做闕如處理。

（二）內容上

《才物譜》引書達 141 種，涉及中、韓兩國的文獻。在目前已考釋出的引書中，中國文獻涉及 126 種，韓國文獻只有 9 種。從《才物譜》引書我們可以看到其背後蘊含的文化特色，

1、推崇漢文化

《才物譜》引書比重差別很大，中國文獻從種類和數量上都占絕對多數，由此可見朝鮮王朝時期，中國傳統文獻對朝鮮半島的影響已經非常深遠，文人士大夫對中國文化的接受度很高。《才物譜》中引用了很多詩詞，均出自唐宋時期，尤其是韓愈、柳宗元、杜甫、李白的詩詞。這可能受時代和政治文化的影響。朝鮮半島上的國家一直作為中國的附屬國存在，古代中國的政治、經濟、文化制度和思想對朝鮮半島產生了深遠的影響，這種影響波及其社會生活的各個領域，也根植在了文人的思想中。尤其是唐宋王朝，文化開放，中韓兩國經濟文化交流頻繁，朝鮮半島的學者對中國文學典籍的接受度也很高。清朝通過大規模的圖書整理，把對其統治不利的圖書統統刪除，這些書在朝鮮半島仍有流傳。朝鮮文人視自己為小中華，海東盛國，把匈奴、女真等看做沒有文化的民族。對於女真人建立起來的清王朝是排斥的，一直到清王朝建立，朝鮮王朝仍以明為尊。像明代何喬遠著的《名山藏》記明嘉靖以前歷代遺事的史書，在清代乾隆時期遭到打壓，其書遭禁毁，《才物譜》中仍有引用。

2、推崇儒學

對朝鮮半島影響最大的漢文化就是儒家經典，《才物譜》引書最重視的也是儒家文獻。从種類上看，包括除《孝經》外的“十三經” 及各家注疏約占引書種類總量的三分之一，从引書條目總量来看，几乎占到一半。如《才物譜・天譜》卷中引書 64 條，其中最多的是【毛】13 條、【爾】12 條，占總量的三分之一還多。這種情況可能與當時的背景有關，儒學是朝鮮當時社會的主流，作為儒家學者，自然是以經書為尊，日常接觸到的書籍也多是此類。史部和集部引書也證明了這一點。史部中《史記》、《漢書》的引用最多，《戰國策》沒有引用。在儒家學者看來，《戰國策》秉承的不是正統的儒家思想，夾雜著縱橫家對策略，《史記》、《漢書》才是王道。集部引書韓愈最多，有 19 處，其次是蘇軾 15 處，與韓愈齊名的柳宗元卻沒有一處

引用。韓愈是唐代儒家思想的代表人物，推崇孔孟，排斥佛道思想，主張恢復儒家的正統地位。柳宗元的思想比較自由，其思想中有革新的成份，不是那麼嚴格地推崇儒家。再如王安石，在朝鮮時代并不受士大夫們的歡迎，其變法革新的思想蘊含法家的成份，因而在儒家一統天下的朝鮮王朝，柳宗元、王安石的著作自然不像韓愈那麼被重視。

韓國朝鮮王朝中期以後特別推崇朱熹，這種推崇達到了前所未有的高度。韓國將朱子學定為國學，朱子在政治、文化、倫理道德等方面對韓國社會產生了深遠影響。《才物譜》引書涉及朱熹的有六部，《詩集傳》、《宋名臣言行錄》、《朱子大全》、《朱子家禮》、《小學》、《資治通鑒綱目》，從數量上來說沒有哪個人能出其右。《資治通鑒綱目》是朱熹生前未完成的著作，由其門人趙師淵續編完成。由於該書沒有做原始資料的收集整理，只是對司馬光的正統觀進行修訂，加入自己的觀念和解釋，所以一般學者並不十分看重該書。但《才物譜》對《資治通鑒》僅引用 1 處，而朱熹作的《資治通鑒綱目》則引用了 59 處。對朱熹的推崇可見一斑。

3、文化多樣性

對儒家文化的推崇，並不意味著其它文化的 滅絕。高麗和三國時期佛教比較興盛，朝鮮王朝時期逐漸衰落，但佛教沒有消失，人們也无法摆脱佛教文化的影响，特別是佛教的一些教理，如慈悲等還是受尊重的。《才物譜》引書中，佛教文獻只涉及兩種《翻梵語》和《一切經音義》道教相對來說比較弱，士大夫并不提起，認為道教的一些觀念是惑世誤民。宗教和占卜并不是社會的主流，對于宗教類書籍和占卜類書籍，作者涉及得比較少，有些宗教占卜類引書只出現一次，如：【東方朔占書】(《東方朔占書》)、【一】(《一切經音義》)。

4、引書不當

雖然作者治學嚴謹，但《才物譜》引書也有不當的地方，存在詞項、釋義與引書不一致或曲解原文的地方。如：

袎：音拗。襪背，鞋之背亦曰袎。【归田录】云“短袎鞋兒”。

短袎出自陶谷的詩句“短鞠靴儿末厥兵”。歐陽修《六一詩話》記載：陶尚書谷尝曰：“尖檐帽子卑凡厮，短鞠靴儿末厥兵。”《歸田錄》中没有這樣的記載，作者引作《归田录》有誤，實為《六一詩話》。

物：牛毛色曰物。【詩】“三百維物。”

《诗经·小雅》的《无羊》中“三百维群”、“三十维物”，引文有誤。

以上我們展現了《才物譜》引書的概貌，仍存在很多不足，還有待有識之士進一步研究。

參考文獻

【1】楊恒平：《說文解字系傳》引書考，《古籍整理研究學刊》2006.3

【2】文廷海：《春秋谷梁傳注疏》引書考，《南阳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2005.7.

【3】張婧偉：《尚書正義》引書考，上海社會科學院，2011 碩士學位論文.

【4】張伯偉：《朝鮮時代書目叢刊》. 中華書局，2004.

【5】孔穎達等：《十三經注疏》中華書局，1980.

【6】國家圖書館編：《國家圖書館藏古籍題跋叢刊》，北京圖書館出版社，2002.

【7】劉孝標：《世說新語注》引書研究，東北師大博士學位論文，2009.

【8】伍野春：裴松之《三国志》注引书辨析．东方論壇，2005.2.

【9】文淵閣：《四库全書》電子版,上海人民出版社與迪志文化出版公司聯合出版，1999.

《才物譜》是韓國朝鮮時期的一部詞彙總集，該書對中韓语言文字研究有重要價值。《才物譜》引書非常豐富，涉及中國和韓國古代文獻中經史子集的各个门类，由於作者在前言中缺少相關說明，僅隨文引用，且多為簡省形式，这給我們閱讀理解及相關的研究造成了不便，而後繼學者也缺少這方面研究，因而我們急需瞭解《才物譜》引書的全貌。本文通過數據庫技術，在窮盡《才物譜》引書的基礎上進行考釋，以期呈現《才物譜》引書的全貌，探究其引書特點。

關鍵詞：《才物譜》 引書 韓國 文獻

Study on the cited book in "Cai Wu Pu"

[China] Xiao Xiao

Abstract:

"Cai Wu Pu"is collection of words in the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The book has important value on Chinese and Korean language studing. The cited books in "Cai Wu Pu"quantity are very rich,content involves a subset of the ancient classics in literature history in ancient China and South Korea each category. Because the author instructions were not in the preface, it has given us a reading comprehension and related research caused the inconvenience, and the scholars also have no related research. Based on database technology, after studied all the cited books ,we want to present the outline of "Cai Wu Pu", and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its cit.

Key words: "Cai Wu Pu" ;cited book ;South Korea ; Literature